

I 인문

DAY 1	2019 수능	가능세계의 개념과 성질	12
	2019 9월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과 영화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	20
	2019 6월	서양 의학의 영향을 받은 이익, 최한기의 인체관	27
DAY 2	2018 수능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34
	2018 6월	율곡의 법제 개혁론	41
	2017 수능	지식의 구분	50
DAY 3	2017 6월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	59
	2016 수능 A형	귀납의 논리적 한계	65
	2016 6월 B형	장자의 몰아일체 사상	72
DAY 4	2016 수능 B형	도덕적 운과 도덕적 평가	78
	2015 9월 B형	맹자의 '의' 사상	83
	2016 6월 A형	메타 윤리학에서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	88
DAY 5	2016 9월 B형	과학철학의 설명 이론	94
	2015 수능 B형	신체호의 역사관	99
	2015 6월 A형	고고학의 유물 자료 해석	106
DAY 6	2015 6월 B형	정합설의 이해	110
	2014 수능 A형	토인비의 역사 연구	114
	2014 수능 B형	심신 이원론과 심신 일원론	118

II 사회

DAY 8	2019 수능	계약의 개념과 법률 효과	124
	2019 9월	채권과 CDS 프리미엄	132
	2019 6월	사법(私法)의 계약과 그 효력	137
DAY 9	2018 수능	정부의 정책 수단	143
	2018 9월	집합 의례	151
	2018 6월	통화 정책	158
DAY 10	2017 수능	공정한 보험의 원리	163
	2017 9월	사단 법인의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론	172
	2016 수능 B형	지식 경영론	178
DAY 11	2016 수능 A/B형	부관의 법률적 효력	184
	2016 9월 A형	소비자 권익을 위한 국가의 정책	189
	2016 9월 B형	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	194
DAY 12	2016 6월 B형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 사회론	199
	2015 수능 A형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204
	2015 수능 B형	사회 이론과 시대 상황	208
DAY 13	2015 9월 B형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방식	214
	2015 6월 B형	상업 광고에 대한 규제의 배경과 그 유형	219
	2014 수능 A/B형	간접 광고의 이해	224

III 과학

DAY 15	2019 수능	서양과 동양의 천문 이론	230
	2019 6월	LFlA 키트의 원리와 특성	240
DAY 16	2018 9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양자 역학과 비고전 논리	246
	2017 수능	반추 동물의 탄수화물 분해	254
	2017 9월	열역학에 대한 탐구	262
DAY 17	2017 6월	인공 신경망의 학습과 판정	268
	2016 수능 A형	지레의 원리에 담긴 돌림힘	274
	2016 9월 A형	산화 작용에 의한 지방질의 산패	280
DAY 18	2016 수능 B형	빛방울의 종단 속도	284
	2016 9월 B형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290
	2016 6월 B형	우주의 암흑 물질	294
DAY 19	2015 수능 A형	단백질의 분해와 합성	298
	2015 수능 B형	달과 지구의 공전 궤도	304
	2015 9월 B형	점탄성체	309
DAY 20	2015 6월 B형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314
	2014 수능 A형	분광 분석법의 창안과 과학적 성과	318
	2014 수능 B형	지구상의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전향력	323

IV 기술·예술

DAY 22	2019 9월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	328
	2018 수능	디지털 데이터의 부호화 과정	334
DAY 23	2018 6월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	341
	2017 9월	콘크리트를 통해 본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관계	348
DAY 24	2016 수능 A형	애벌랜치 광다이오드	356
	2016 9월 A형	해시 함수의 특성과 이용	362
	2016 6월 A형	지문 인식 시스템	367
DAY 25	2015 수능 A형	디지털 영상	373
	2015 9월 A형	CPU 스케줄링	378
	2014 수능 A형	CD 드라이브의 정보 판독 원리	383
DAY 26	2018 9월	하이퍼리얼리즘	388
	2017 6월	다양한 특성의 음들로 이루어진 음악의 아름다움	393
	2016 9월 A/B형	회화주의 사진	401
	2015 수능 A/B형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406
DAY 27	2015 9월 A/B형	추사 김정희의 묵란화	413
	2015 6월 A/B형	작가주의	419
	2014 수능 A형	선암사 승선교에 담긴 미의식	424
	2014 수능 B형	베토벤 교향곡의 음악사적 의의	428
2014 9월 A형	한옥의 창호	432	

※ 정답은 11쪽에 있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 39~42

지문 난이도 ★★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9위

01 ~ 04 가능세계의 개념과 성질

1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2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P는 모순 관계이다. (기호 '~'은 부정을 나타낸다.) 3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4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5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6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1 모순 관계로 살펴보는 가능세계

- * 모순 관계: (두 명제가) 모두 참 불가능 & 모두 거짓 불가능
- * 무모순율: (모순 관계인)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불가능
→ (모순 관계인)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음!
→ ~P인 가능세계는 있음!
- * 가능세계: (두 명제가) 모두 참 가능 혹은 모두 거짓 가능 ↔ 모순 관계

2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3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4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는 /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가능하지만 필연적인 명제

- * 필연성: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
- 가능성: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
→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
- *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음.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1

- * '모순 관계'처럼 도입부 첫 문장에 제시된 개념은 지문 전체의 중심 화제이거나 중심 화제를 제시하기 위한 보조 내용에 해당한다.
- * '모순'의 사전적 의미는 익숙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에만 의지해서 지문을 읽다가는 혼란이 올 수 있으니 지문을 통해 여기에 제시된 개념을 정확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1, 4

- * '모순 관계라고 한다.' ↔ '모순 관계가 아니다.'처럼 대립 항이 성립되는 내용은 문제화되기 쉬우니 둘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5

- * <가정(~다면) + 추측(~것이다)>의 구조. 문장의 구조를 크게 둘 또는 셋으로 나누어 읽는 습관은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 * '~것이다(주장)'처럼 글쓴이의 생각과 객관적 사실(fact)을 구분하는 일은 국어 공부의 기본에 해당한다.

6

- * 개념 설명이 항상 'A는 B이다.'의 형태를 갖는 것은 아니다. '두 명제(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처럼 <수식 형태의 설명 + 개념어>의 형태를 갖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잘 잡아내야 한다.

※ 첫 문장에서 개념으로 제시된 '모순 관계'와 끝 문장의 '가능세계'는 대립 항이다. 첫 문장과 끝 문장에 각각 개념어가 제시되어 있다면 끝 문장에 제시된 것이 지문 전체의 중심 화제에 해당한다. 끝을 이어받아 다음 본론의 내용을 이끌어 나간다. 그렇다면 '모순 관계'는 중심 화제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수단인 셈.

2

1

- *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을 통해 필연성과 가능성을 관련지어 각각의 설명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예측을 하면서 다음 내용을 만나는 것과 그냥 다음 내용을 만나는 것은 독해력과 독해 시간의 분명한 차이를 가져온다.)

4

- * 문장이 길고 심표가 없다면, <주어부 + 서술부>의 사이에 사선 표시를 하여 경계를 둔다. (~명제는 / 우리의~)
- * '어떤 가능세계에서 성립하고' ↔ '어떤 가능세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처럼 대립 항이 성립되는 내용은 문제화되기 쉬우므로 이들을 포함한 문장을 잘 살펴봐야 한다.

3 1가능세계를 통한 답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3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4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5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6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7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8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9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10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11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B가 아닌 B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일상적인 표현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능세계

- * 전통 논리학: 'A이면 B이다.'에서 A가 거짓인 경우 →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 'A이면 B이다.'는 참
- * 'A이면 B이다.'가 'A이더라도 B는 아니다.'보다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음.(A는 가능세계) →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 'A라면 B'라고 진술 가능

4 1가능세계는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2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3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4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5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6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7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8즉 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9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10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11한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12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4 가능세계의 4가지 성질

- * 일관성: 어떤 것이 불가능 → 성립 가능세계 없음.
- * 포괄성: 어떤 것이 가능 → 성립 가능세계 존재
- * 완결성: 배중률 성립(P와 ~P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
- * 독립성: 하나의 가능세계는 모든 시공간을 포함 → 연속된 시공간 속의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존재

3

1

어휘 체크

- * 답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논의를 함.

5

- * '그런데'처럼 문단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역주행 흐름의 표지는 긴 문단을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기 마련이고 이후부터가 문단의 포인트가 된다.
- * '전통 논리학'처럼 이를 중심으로 전후에 대립적인 개념이 나온다면 차이점에 포인트를 두자. '전통~'과 관련된 개념은 항상 '전통이 아닌' 현대~와 관련된 개념과 대개는 대립 관계에 있거나 수정-보완의 관계에 있다.
- * 겹문장 해석 주의: <주어+서술어>가 뒤엎겨 있는 문장은 전체 문장의 <주어+서술어>와 안긴문장을 잘 구분해야 실전 독해에서 혼란을 덜어낼 수 있다. 일단 전체 문장의 <주어+서술어>를 체크해 두는 것이 관건. - 전체 문장("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참이라고 규정한다.) / 안긴문장(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10

- * <A보다 B하다.>처럼 비교형의 구조는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 A와 B를 뒤바꾼 잘못된 선지에 주의하자!

11

- * '일반적으로'가 나오면 그와 대립 항인 '일반적이지 않은, 즉 특이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자.
- * <조건+상황+결과>처럼 문장이 길다면, 일단 <결과>에 포인트를 두고 <상황>, 그다음에 <조건>을 같이 연결하여 차근차근 읽어 보자.

4

1

- * '네 가지 성질'을 통해 앞으로 각 성질의 경계 부분이나 개념어에 체크해 두어야 시각적인 구조화를 이룰 수 있다.

2~9

- * 개념과 설명이 쏟아진다면 동그라미와 밑줄을 적절히 표시해 두자.
- * 여러 개념 중 가장 낯선 개념에 포인트를 두자. 출제자는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것보다 낯선 것을 소재로 하여 문제 내기를 좋아한다. ('배중률'이 들어간 완결성이 제일 낯설다.)

3

- * <원인+결과>의 구조. 국어 시험에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일은 논리력을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작업 중의 하나이다.

7

어휘 체크

- * 배중률: 형식 논리학에서 사유 법칙의 하나. 어떤 명제와 그것의 부정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법칙을 이른다.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의 판단이 모두 참이 아닐 수는 없다는 원리이다.

5 1(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 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나아가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5 가능세계의 연구 현황 및 전망

- * 가능세계에 관한 연구 활발
- *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 여러 분야에 응용

5 ※ 마지막 문단은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의의와 전망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의의와 전망을 말하고 있다.

01.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70위

#내용 일치 #등급 가이드 #패턴 공략

정답률 6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60%	② 10%	③ 16%	④ 9%	⑤ 5%

정답 풀이

①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셋째는 1(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4문단]

지문 POINT

<가능세계~>+<어느 세계에서든> → 가능세계를 포함한 어느 세계에서든~

↳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1)

1등급 가이드

지문 전체를 놓고 따져 보아도 가장 낯선 용어는 '배중률'일 것이다. 개념이 쏟아지는 4문단에서도 '배중률'이 유난히 낯설다. 이렇게 낯선 개념은 문제의 정답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낯선 개념이 포함된 선지를 다른 선지들보다 좀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 더 나아가 개념어와 설명 간의 낯섦(일반 상식과 다른 의미를 지닌)이 발견되면 그 내용도 정답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험생에게 익숙하고 상식적인 내용보다는 낯선 내용에 포인트를 두어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는 출제자의 심리로 볼 수 있다.

<개념어와 낯선 설명이 정답으로 설정된 사례>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④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

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자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 2018 수능 (정부의 정책 수단) 지문 중 -

<문제> ②를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⑤)

- ①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②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높다.
- ③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④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높다.
- ⑤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개념어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중 개념어와 설명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낯선 <자동성>이 정답으로 설정되어 있다. 상식적으로 '자동성'은 '수동성'과 반대되는 말인데,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과 연결하는 것은 낯설다.

오답 풀이

②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세계에서 성립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1)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2)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2문단]

↳ 가능한 명제 중에서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는 1) 현실세계에서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③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1)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2문단]

↳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1) 따라서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패턴 공략

▶ ‘필연적’과 ‘모든’처럼 절대적인, 곧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은 ‘예외를 허용한 잘못된 선지(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로 바뀌어 자주 출제되므로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1문단]

↳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 1)

⑤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이면 B이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런데 1)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2)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3)참이라고 규정한다. [3문단]

↳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이면 B이다.” 1)는 A가 거짓인 경우 2) 참으로 규정되므로 3) “만약 A이면 B이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된다는 선지 ⑤는 적절하지 않다.

02.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37위

#이해 #대립 선지의 법칙 #최협의 조언

정답률
48%

선지별 선택 비율

① 7%	② 48%	③ 12%	④ 20%	⑤ 13%
------	-------	-------	-------	-------

정답 풀이

②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①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2)“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①”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3)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2문단]

해법 POINT

①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 가능성○, 필연성×

①의 거짓: 다보탑은 경주에 없다. → 가능함!

↳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는 <Q이면 Q이다.> 형식의 필연적인 명제이므로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하고 1) 이 중에는 ①의 거짓인 ‘다보탑은 경주에 없다.’가 가능한 세계도 있다. 왜냐하면 ①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기 2~3) 때문이다. 어떤 가능세계에서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①의 거짓인 “다보탑은 경주에 없다.”가 가능하게 된다.

오답 풀이

① ①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①이 성립하지 않는(즉, 다보탑이 경주에 없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3)

③ ①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1문단]

해법 POINT

①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이를 부정하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는 없었다.> ≠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 ↔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

↳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가 참이면서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도 참일 수 있다.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이 가능하기1) 때문에 <모순 관계>가 아니다.

④ 만약 ㉠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 세계는 없지만 1)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1문단]

해법 POINT

㉠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이를 부정(거짓)하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는 없었다.> = <다보탑은 개성에 없다.>

↳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가 있다1)는 의미이다. 그런데 만약 ㉠이 거짓이라면,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가 있다.'1)가 부정되기 때문에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없다.'가 된다. 즉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게 된다.

최선의 조언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를 거짓(부정)인 경우를 고려하여, <다보탑은 개성에 없을 수도 있었다?>,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 없다?> 등 복잡한 과정을 따져 봤다면 문제 풀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럴 필요 없이, 일단 ㉠이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가 있다.'1)고 직접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쉽게 문제를 풀면 된다. 수험생들이 문제가 쉽게 풀리면 오히려 '어, 이거 이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는데... 뭔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여 복잡한 과정을 따져 보는 경우가 있다. 쉽고 직접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정/오 판단을 하자. 지문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게 하는 평가도 출제자들이 의도한 것이다.

⑤ ㉠과 ㉡은 현실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그런데 2)“㉠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3)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1문단]

↳ ㉠과 ㉡은 모순 관계가 아니기2) 때문에 <현실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1) '현실과 다르게'라는 말을 통해3) 이전에는 <현실세계>에서의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대립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6쪽 참고)

* 위 문제는 가능세계의 존재 여부로 선지 ①, ②가 1 대 1 대립을 이룬다.

- ① ㉠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 ②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 (☆정답)

그래서 지문과는 상관없이 선지 ①, ② 중에 정답이 있을 확률은 70% 이상이다.

최선의 조언

시험 시간이 부족해서 혹은 두 선지 중 도저히 정답을 고를 자신이 없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냥 찍어 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정말 만약에 아무 근거 없이 답을 찍어야 할 상황이 닥치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에서) 선지의 길이가 가장 길거나 두 번째로 긴 선지를 찍어라! 아무래도 긴 선지가 짧은 선지에 비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문제도 가장 긴 선지 ②가 정답으로 설정되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꿀팁으로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다. (선지의 법칙을 포함해서) 이렇게 아주 소소하지만 작은 팁들이 모이고 쌓이면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수험생보다는 분명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국어 시험은 점수 향상이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런 팁을 알아둔다고 하여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찍어서 정답을 맞힌 수험생과 시간을 투자하여 문제를 풀었지만 틀린 수험생과는 시험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03.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49위

#문고 답하기 #났다-났다

정답률
5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8% ② 16% ③ 54% ④ 18% ⑤ 4%

✓ 정답 풀이

③ 내가 그 가치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럼에도 ②내가 만약 그 가치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1)내가 그 가치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하지만 내가 가치를 탄 세계들 중에서, 2)내가 가치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시시간에 도착한 세계 = 지각하지 않은 상황)이 <그렇지 않은 세계 = 지각한 상황>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3문단]

📖 지문 POINT

- * <지각한 상황> → (상대적으로)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낮음.
<지각하지 않은 상황> → (상대적으로)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높음.

➡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1)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2) 때문이다.

✅ 어휘 체크

- * 낮다: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 (부정적)
- * 낮다: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 → (긍정적)

👉 <낮다>와 <낮다>는 의미는 반대 맥락이지만 발음은 동일해서 종종 수험생들이 헷갈려하고 이를 이용해 출제자들이 위 두 단어를 바꿔치기한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5 6월 평가원

Q.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백열전구는 형광등보다 적외선 방출이 많으므로 형광등에 비해 발광 효율이 낮겠군.
- ⑤ 조명용 발광 다이오드는 형광 물질을 통해 빛을 생산하지만 필라멘트가 없기 때문에 형광등보다 발광 효율이 낮겠군. (☆정답)

- <발광 다이오드>가 <형광등>보다 발광 효율이 낮다 (○)
- <발광 다이오드>가 <형광등>보다 발광 효율이 낮다 (×)

👉 기출의 문제 패턴은 반복된다. 우리가 기출을 소홀히 하지 말고 N회독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 오답 풀이

①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지각을 한 가능세계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 <그 기차를 탔다면>이라고 가정하는 질문에 가정 자체를 부정하는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기차 고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 <그 기차를 탔다면>이라고 가정하는 질문에 가정 자체를 부정하는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그 가능세계들의 대다수에서 내가 지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지각을 하지 않은 것>과 <지각을 한 것>을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으로 비교해야지 가능세계들의 다수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내가 그 기차를 탄 것이 현실세계에서 거짓이기 때문이다.

➡ <그 기차를 탔다면>이라고 가정하는 질문에 가정 자체를 부정(현실세계에서 거짓)하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

04.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0위

#이해 #보기 제시 #3점 #보기 선지의 법칙 #평가원 이의 제기

정답률
3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6% ② 13% ③ 30% ④ 34% ⑤ 7%

✅ 정답 풀이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1)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 둘째는 2)<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4문단]

📖 해법 POINT

<A인 것이 가능하다.> → A가 성립하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2)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즉 둘 중 하나만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다. 1)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지문에 따라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④번 선지에 제시된 두 개의 명제는 가능하므로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참입니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표제어 ‘-둘09’는 ‘복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입니다.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라는 표현은 단 하나의 가능세계에 대해서도 성립하므로 이 경우 가능세계들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참이지만 ‘~가능세계들이 존재한다.’는 참이 아닙니다. 따라서 ④번 선지에 오류가 있습니다.

〈답변〉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의 경우는
 경우 1.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참 → 가능세계○) +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거짓 → 가능세계×)
 경우 2.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참 → 가능세계○) +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거짓 → 가능세계×)
 가능세계가 2개가 나오므로 가능세계'들'이라고 할 수 있다.

X 오답 풀이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중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1)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 셋째는 2)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P 중 3)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4문단]

↳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만 가능하다(기1) 때문에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라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2~3)이라는 선지 ①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 것이 1)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2)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4문단]

↳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1)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는 존재하지 않음!)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2)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둘째는 1)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2)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4문단]

해법 POINT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배중률 성립: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

〈배중률이 성립하는 경우〉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참) +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거짓)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거짓) +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참)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참) +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참)

〈배중률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거짓) +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거짓)

↳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배중률〉이 성립해야 한다. 1~2) 하지만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모두 거짓인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중률〉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라,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선지 ③은 적절하지 않다.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보기〉의 반대 관계 설명은 존재 함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 함축을 전제로 이 글을 참고하면 선지 ③은 적절한 선지가 되므로 선지 ④와 더불어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답변〉 존재 함축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존재 함축 전제로 이 글을 참고할 필요가 없다. '전문 논리학'처럼 수능 출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문 외의 배경지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1)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둘째는 2)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4문단]

📖 해법 POINT

-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둘 중 하나만 참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만 참인 경우,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만 참인 경우도,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둘 다 거짓: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둘 다 거짓인 경우,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 가능세계의 <일관성>과는 상관없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는 <보기>의 명제를 바탕으로,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의 의미로 봤을 때1)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또한 ~하는 가능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관련된 다.2)

★ 보기-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8쪽 참고)

* 위 문제는 지문 없이, 보기+선지의 적절성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

<보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④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 (둘 중 하나만 참)

👉 (☆정답)

보너스 칼럼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지만...

고 3이면 거의 매달 모의고사를 보게 된다. 이때 실전의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해야 한다. 수능은 낯선 환경에서 고도의 긴장감을 가진 채 보는 시험인데 이를 연습해 볼 만한 상황이 그리 많지 않다.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통해 이를 충분히 연습해 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의고사에서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할 것은 점수나 등급보다는 국어 영역별 공부의 양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두세 달 공부로 국어 점수는 쉽게 오르지 않는다.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수능을 향해 꾸준히 지치지 말고 달려가자.

틀린 문제는 또 틀리게 되어 있다!

틀린 문제는 틀리고 또 틀리고! 누구나 공부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가져온 학습 태도, 방법, 습관, 사고방식, 고정관념 등은 잘 바뀌지 않는다. 자주 틀리는 문제의 분야나 유형도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실천 행동이 없거나 부족하면 원래 있던 습관처럼 또 그렇게 틀리게 된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어 보는 일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첫걸음이다. 귀찮더라도 점수를 올리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 오답 노트를 만들기 귀찮다며 계속 미룰 경우, 맞는 문제는 계속 맞고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게 될 것이다. 오답 노트에는 지문 명, 해당 문제 유형, 부족한 지식, 틀린 이유 등을 정리하면 된다.

05~09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과 영화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

1 1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2오랫동안 지배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삶의 양식 중 노동 양식에 주목하는 ① 생산학파의 견해였다. 3생산학파는 산업 혁명을 통해 근대 도시 특유의 노동 양식이 형성되는 점에 관심을 기울였다. 4그들은 우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갖춘 근대 생산 체제가 대규모의 노동력을 각지로부터 도시로 끌어모으는 현상에 주목했다. 5또한 다양한 습속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대규모 기계의 리듬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자가 되는지 탐구했다. 6예를 들어, 미셸 푸코는 노동자를 집단 규율에 맞춰 금속 노동을 하는 유순한 몸으로 만들어 착취하기 위해 어떤 훈육 전략이 동원되었는지 연구하였다. 7또한 생산학파는 노동자가 기계화된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동안 감각과 감성으로 체험하는 내면세계를 상실하고 사물로 전락했다고 고발하였다. 8이렇게 보면 근대 도시는 어떠한 쾌락과 환상도 끼어 들지 못하는 거대한 생산 기계인 듯하다.

1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생산학파의 견해

- * 생산학파: 노동 양식에 관심
 - 근대 생산 체제가 대규모 노동력을 모으는 것에 주목
 - 기계적 리듬 갖춘,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자에 대해 탐구
- * 미셸 푸코(생산학파):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를 위해 동원된 훈육 전략 연구

2 1이에 대하여 ② 소비학파는 근대 도시인이 내면세계를 상실한 사물로 전락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생산학파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2예를 들어, 콜린 캠벨은 금욕주의 정신을 지닌 청교도들조차 소비 양식에서 자기 환상적 쾌락주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3결핍을 충족시키려는 욕망과 실제로 욕망이 충족된 상태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4그러나 근대 도시에서는 이 간극이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충족된 미래 상태에 대한 주관적 환상을 자아낸다. 5생산학파와 달리 캠벨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 덕분에 이런 환상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6그는 이런 기대가 쾌락을 유발하여 근대 소비 정신을 복돋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소비학파의 견해

- * 소비학파: 생산학파 비판 → 근대 도시인의 사물화×
- * 캠벨(소비학파): 소비 양식에서의 환상적 쾌락주의 → 소비 정신을 복돋움.

1

2

- * 지문 초반부터 인물 혹은 집단(생산학파)의 견해가 나왔다면, 이후에는 이 견해와 다른 견해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둘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큰 줄기로 글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3

- * 특정 어휘(노동 양식)가 연달아 두 번 등장했다면 이 단어는 키워드이므로 밑줄로 표시해 둘 필요가 있다.

6

- * 특정 집단(생산학파)에 이어 정주행의 흐름으로 특정 인물(미셸 푸코)이 나왔다면 이들(생산학파와 미셸 푸코)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자.

7

- * '고발'이라는 부정적 어휘를 통해 문제 사항이 제시된 것이고, 이를 해결할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

1

- * 이전 문단에 이어 바로 새로운 인물이나 집단(소비학파)이 등장했다면, 이전 문단의 핵심 내용을 보완하거나 부정(비판)할 것이다. 주로 부정(비판) 쪽이 많음을 염두에 두자.

2

- * 특정 집단(소비학파)에 이어 정주행의 흐름으로 특정 인물(콜린 캠벨)이 나왔다면 이들(소비학파와 콜린 캠벨)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자. 정리해 보면, 생산학파(미셸 푸코) ↔ 소비학파(콜린 캠벨). 그렇다면 소비학파(콜린 캠벨)의 핵심 견해에 밑줄을 그어 포인트를 두자.

3 1근래 들어 노동 양식에 주목한 생산학과와 소비 양식에 주목한 소비학파의 입장을 아우르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일찍이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에 주목했던 발터 벤야민은 이러한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재발견되었다. 3그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심화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4하지만 소비 행위의 의미가 자본가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구매 행위로 축소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5소비는 그보다 더 복합적인 체험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6벤야민은 이런 사실을 근대 도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설명한다. 7근대 도시에서는 옛것과 새것,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등 서로 다른 것들이 병치되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간다. 8환상을 자아내는 다양한 구경거리도 근대 도시 곳곳에 등장했다. 9철도 여행은 근대 이전에는 정지된 이미지로 체험되었던 풍경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파노라마로 체험하게 만들었다. 10또한 유티와 철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 거리인 아케이드는 안과 밖,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체험을 가져다주었다. 11벤야민은 이러한 체험이 근대 도시인에게 충격을 가져다준다고 보았다. 12또한 이러한 충격 체험을 통해 새로운 감성과 감각이 일깨워진다고 말했다.

3 근대 도시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

- * **벤야민**: 노동 양식(생산학파) + 소비 양식(소비학파)
 -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심화
 - but 소비는 복합적인 체험을 줌.
- * **근대 도시 탐구(벤야민)**: 근대 도시에서는 옛것과 새것,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이 병치되고 뒤섞이며 빠르게 흐름. → 충격 체험 → 감성과 감각을 일깨움.

4 1벤야민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이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219세기 말에 등장한 신기한 구경거리였던 영화는 벤야민에게 근대 도시의 작동 방식과 리듬에 상응하는 매체다. 3영화는 조각난 필름들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면서 움직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 내는 기계의 리듬을 떠올리게 한다. 4또한 관객이 아닌 카메라라는 기계 장치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참여하는 스태프는 작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5본업화로 인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근대 도시인의 모습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6하지만 동시에 영화는 일종의 충격 체험을 통해 근대 도시인에게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매체이기도 하다. 7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로 이루어진 영화를 체험하는 것은 이질적인 대상들이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뒤섞인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과 유사하다. 8서로 다른 시·공간의 연결,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변화하는 시점, 느린 화면과 빠른 화면의 교차 등 영화의 형식 원리는 9정신적 충격을 발생시킨다. 9영화는 보통 사람의 육안이라는 감각적 지각의 정상적 범위를 넘어선 체험을 가져다준다. 10벤야민은 이러한 충격 체험을 환각, 꿈의 체험에 빗대어 '시각적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11관객은 영화가 제공하는 시각적 무의식을 체험함으로써 일상적 공간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12영화관에 모인 관객은 이런 체험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꿈의 세계를 향유한다.

3

1
* <근래 들어>를 통해 이전 내용과는 시간(시대적) 차이가 반영되는 새로운 입장(~학파, ~의 견해)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전 내용을 완전히 뒤집거나 통합(~을/를 아우르려는 연구) 혹은 보완할 것이다.

2
* 새 인물(발터 벤야민)이 나타났다면, 무조건 네모 혹은 진한 동그라미를 치자. 그래야 큰 흐름의 시작을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알 수 있다.

3~4
* 인정하는 내용(~점은 인정하였다.)과 부정하는 내용(하지만~)이 같이 나오면 당연히 부정하는 쪽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4~5
* <주장+근거>의 구조. 국어 공부에 있어서 <주장+근거>를 파악하는 것은 논리적인 학습의 기본이 된다.

7
* <옛것 ↔ 새것>, <자연적인 것 ↔ 인공적인 것>처럼 국어 시험에서 대립적 테마는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요소이니 염두에 두자.

11
* <이러한 체험이~>를 통해 이전 내용에 대한 중요한 평가(~가져다준다고 보았다)를 하고 있다. 이전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이 문장만큼은 꼭 붙들고 다음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11~12
* <도시인에게 충격>이라는 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듯하나, 다음 문장에서 반전(~일깨워진다)의 내용이 나타난다.

4

1
* 이전 문단에 이어 동일한 집단 혹은 인물(벤야민)이 나왔다면 이것(벤야민)이 지문 전체의 중심이며, 1 ~ 2 문단은 이(벤야민)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벤야민의 새롭거나 종합적인 견해에 포인트를 두어 밑줄을 그어야 한다.(비유적인 표현보다는 직접적인 설명이나 주장에 관심을 두자.)

10
* 개념 설명 방식은 <개념어+설명> 혹은 <설명+개념어>의 형태를 갖는다. 대개는 전자가 많은데 이번에는 후자이다. 어찌 되었건 처음으로 등장하는 개념어(시각적 무의식)는 네모, 동일한 개념어가 또 등장하면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개념어+설명>의 경우, 네모 부분 이후부터 새로운 내용을 구분하는 시각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영화 속에 드러난 근대 도시의 특성

* 근대 도시의 영화(벤야민)

- 근대 도시의 작동 방식과 리듬에 상응
(필름의 흐름 = 공장 기계의 흐름 / 배우나 스태프가 작품 전체의 모습 파악하기 어려움. = 분업화로 인한 노동 소외)
- 도시인에게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킴.
(영화-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 = 도시-이질적인 대상들이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뒤섞임.)

* 시각적 무의식(벤야민): 감각적 지각의 정상적 범위를 넘어서, 영화 체험

- 일상적 공간에 대해 새로운 의미 발견
- 집단적 체험을 공유, 개인적 꿈의 세계 향유

5 1 근대 도시와 영화의 체험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는 **생산학파**와 **소비학파**를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다. **벤야민**은 근대 도시인이 **사물화된 노동자**이지만 그 자체로 **내면세계**를 지닌 **꿈꾸는 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3** **벤야민**이 말한 **근대 도시**는 착취의 사물 세계와 꿈의 주체 세계가 교차하는 복합 공간이다. **4** **이렇**게 벤야민의 견해는 근대 도시에 대한 일면적인 시선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준다.

5 근대 도시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

- * 생산학파와 소비학파를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 제공
- * 근대 도시인은 사물화된 노동자이지만 그 자체로 내면세계를 지닌, 꿈꾸는 자
- * 근대 도시는 착취의 사물 세계와 꿈의 주체 세계가 교차하는 복합 공간

5

1

* <벤야민(A)은 생산학파(B)와 소비학파(C)를 포괄>. 이 한 문장만으로도 글 전체의 흐름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초반에 B와 C가 나오고 이들의 문제(단점)를 A가 보완한다는 내용은 글의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에 포인트가 되는 문장에 해당한다.

4

* <‘~바로잡는’ → 해결>을 통해, 이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5.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44위

#전개 방식 #공시적_통시적 #공통점_차이점 #비판_비난 #객관적_주관적

정답률 9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	② 3%	③ 2%	④ 3%	⑤ 90%

✓ 정답 풀이

⑤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소개한 후, 근대 도시와 영화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을 드러냄을 밝히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오랫동안 지배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삶의 양식 중 노동 양식에 주목하는 1)생산학파의 견해였다. [1문단]
- 이에 대하여 2)소비학파는 근대 도시인이 내면세계를 상실한 사물로 전락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생산학파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2문단]
- 3)벤야민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이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4문단]

↳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생산학파와 소비학파의 견해)를 소개한 후, 1~2) 근대 도시와 영화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을 드러냄을 밝히고 있다. 3)

Tip 실전 풀이

★ 내용 전개 문제는 끝 문단에 주목하라!

☞ 지문의 끝 문단은 처음-중간의 내용을 정리 및 요약한다. 이를 통해 대부분 글의 전개 방식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시간이 부족해 지문 전체를 검토할 수 없을 때, 혹은 지문을 모두 검토해도 정답의 근거가 잘 안 보일 때는 끝 문단, 특히 첫 문장 혹은 끝 문장에 주목하라! 이 부분과 대응성이 높은 선지가 내용 전개 문제의 답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근대 도시와 영화의 체험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는 1)생산학파와 소비학파를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다.~2)벤야민이 말한 근대 도시는 착취의 사물 세계와 꿈의 주체 세계가 교차하는 복합 공간이다. [끝 문단]

⇒ ⑤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소개한 후, 1) 근대 도시와 영화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을 드러냄을 밝히고 있다. 2) ☞ (☆정답)

(2018 수능) 전개 방식 문제 · 1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끝 문단]

→ (목적론의 의의)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 (☆정답)

(2016 수능 B형) 전개 방식 문제 · 2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끝 문단]

⇒ ③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 (☆정답)

✗ 오답 풀이

①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벤야민의 주장을 기준으로, 근대 도시의 산물인 영화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영화를 통한,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벤야민의 주장은 3) 있으나, 영화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내용은 없다.

② 근대 도시와 영화의 개념을 정의한 후,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을 밝힌 벤야민의 견해에 대해 그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일찍이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에 주목했던 발터 벤야민은 이러한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재발견되었다.~ [3문단]
- 2)벤야민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이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4문단]
- 근대 도시와 영화의 체험에 대한 3)벤야민의 견해는 생산학파와 소비학파를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다.~[끝 문단]

↳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을 밝힌 벤야민의 견해가 먼저 나오고 1) 그 다음 영화의 특성 2)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야민의 견해를 평가하고 있다. 3) 그러나 근대 도시나 영화의 개념, 벤야민의 견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등은 나와 있지 않다.

패턴 공략

▶ 객관적 사실(fact) vs 주관적 견해(평가, 주장, 입장 등)를 구별하는 것은 자주 출제되는 테마이다.

③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벤야민의 관점을 활용하여, 근대 도시의 기원과 영화의 탄생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그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심화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소비 행위의 의미가 자본가에게 이윤을 가져다 주는 구매 행위로 축소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소비는 그보다 더 복합적인 체험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3문단]

↳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벤야민의 관점은 있으나, 1) 근대 도시의 기원과 영화의 탄생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은 없다.

패턴 공략

▶ 국어 시험에서 '공통점과 차이점 정확히 찾기'는 자주 출제되는 테마이다. (특히 차이점)

④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에 따른 영화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후, 근대 도시와 영화의 체험에 대한 벤야민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 영화의 변화 양상이나 벤야민 주장에 대한 비판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어휘 체크

* 통시적: 어떤 시기를 종적으로 바라보는. → 시간의 흐름에 따름.

* 공시적: 어떤 시기를 횡적으로 바라보는. → 특정 시간에 따름.

바탕 지식 더하기

※ 비난 vs 비판

•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할. (부정적)

•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할. + 잘못의 원인 혹은 대안을 말할.

(긍정적)

06.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28위

#이해

정답률
88%

선지별 선택 비율

① 4% ② 3% ③ 3% ④ 88% ⑤ 2%

정답 풀이

④ ㉠은 근대 도시인이 사물로 전락한 대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진 존재라고 본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에 대하여 ㉠소비학파는 근대 도시인이 내면세계를 상실한 1)사물로 전락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생산학파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생산학파와 달리 캠벨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 덕분에 이런 환상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2)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2문단]

↳ ㉠(소비학파)은 근대 도시인이 사물로 전락한 대상이 아니라 1) 실현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진 존재라고 본다. 2)

오답 풀이

① ㉠은 근대 도시를 근대 도시인이 지닌 환상에 의해 작동되는 생산 기계라고 본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런데 근대 도시에서는 이 간극이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충족된 미래 상태에 대한 1)주관적 환상을 자아낸다. 생산학파와 달리 캠벨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 덕분에 이런 환상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2문단]

↳ 근대 도시를 근대 도시인이 지닌 환상에 의한 것1)으로 보는 것은 ㉠(생산학파)이 아니라 ㉠(소비학파)에 해당한다.

② ㉠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성립된 근대 생산 체제가 욕망과 충족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결핍을 충족시키려는 욕망과 실제로 욕망이 충족된 상태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2)생산학파와 달리 캠벨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 덕분에 이런 환상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2문단]

↳ 테크놀로지의 발달, 욕망과 충족의 간극을 말한 것은 ㉠(소비학파)에 해당한다. 1~2)

③ ㉠은 근대 도시인의 소비 정신이 금융주의 정신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예를 들어, 콜린 캠벨은 1)금융주의 정신을 지닌 청교도들조차 소비 양식에서 자기 환상적 쾌락주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2문단]

↳ ㉠(소비학파)은 근대 도시인의 소비 정신이 금융주의 정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금융주의 정신이 소비 정신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금융주의 정신을 지닌 청교도들조차 소비 양식에서 자기 환상적 쾌락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1)

⑤ ㉠과 ㉠은 모두 소비가 노동자에 대한 집단 규율을 완화하여 유순한 몸을 만든다고 본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예를 들어, 미셸 푸코는 1)노동자를 집단 규율에 맞춰 금융 노동을 하는 2)유순한 몸으로 만들어 착취하기 위해 어떤 훈육 전략이 동원되었는지 연구하였다. [1문단]

↳ 유순한 몸2)과 노동자에 대한 집단 규율1)에 관련된 것은 ㉠(생산학파)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07.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61위

#이해 #대립 선지의 법칙

정답률 8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	② 80%	③ 9%	④ 5%	⑤ 4%

✓ 정답 풀이

② 영화가 다루고 있는 독특한 주제에서 발생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서로 다른 시·공간의 연결,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변화하는 시점, 느린 화면과 빠른 화면의 교차 등 1)영화의 형식 원리는 ㉠정신적 충격을 발생시킨다. [4문단]

↳ 주제가 아닌 영화의 <형식 원리>가 ㉠을 발생시킨다.1)

✗ 오답 풀이

① 관객에게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하지만 동시에 영화는 일종의 충격 체험을 통해 근대 도시인에게 1)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매체이기도 하다. [4문단]

↳ 관객에게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킨다.1)

③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에서 유발되는 충격과 유사하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벤야민은 1)이러한(도시의 일상) 체험이 근대 도시인에게 충격을 가져다준다고 보았다. [3문단]
-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로 이루어진 영화를 체험하는 것은 이 질적인 대상들이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뒤섞인 2)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과 유사하다. 서로 다른 시·공간의 연결,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변화하는 시점, 느린 화면과 빠른 화면의 교차 등 영화의 형식 원리는 ㉠정신적 충격을 발생시킨다.~벤야민은 3)이러한 충격 체험을 환각, 꿈의 체험에 빚대어 '시각적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4문단]

↳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에서 유발되는 충격과 유사하다.1~3)

④ 촬영 기법이나 편집 등 영화의 형식적 요소에 의해 관객에게 유발된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촬영 기법이나 편집 등 영화의 형식적 요소에 의해 관객에게 유발된다.1)

⑤ 육안으로 지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영화적 체험으로부터 발생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영화는 보통 사람의 1)육안이라는 감각적 지각의 정상적 범위를 넘어선 체험을 가져다준다. [4문단]

↳ 육안으로 지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영화적 체험으로부터 발생한다.1)

★ 대립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6쪽 참고)

* 위 문제는 <내용적 ↔ 형식적>으로 선지가 1 대 1 대립을 이룬다.

② 영화가 다루고 있는 독특한 주제(내용적)에서 발생한다.

☞ (☆정답)

④ 촬영 기법이나 편집 등 영화의 형식적 요소에 의해 관객에게 유발된다.

지문, 문제와 상관없이 ②, ④ 중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08.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96위

#이해 #보기 제시 #3점 #주체적_수동적 #묘사

정답률 67%	선지별 선택 비율				
	① 67%	② 10%	③ 8%	④ 8%	⑤ 7%

✓ 정답 풀이

① 베르토프의 영화는 분업화로 인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소외된 영화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영화인도 노동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베르토프는 1)영화 속에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 베르토프의 영화는 소외된 영화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1)

🌀 패턴 공략

▶ '<주체적(자율적) ↔ 수동적>을 구별하기'는 자주 출제되는 테마이다.

✗ 오답 풀이

② 베르토프의 영화에 등장하는 노동자의 모습은 생산학파가 묘사하는 혼욕된 노동자의 모습과는 다르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이 영화는 1)역압의 대상이던 노동자를 2)생산의 주체이자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묘사한다.

• 예를 들어, 미셸 푸코(생산학파)는 노동자를 집단 규율에 맞춰 금욕 노동을 하는 유순한 몸으로 만들어 착취하기 위해 어떤 3)혼욕 전략이 동원되었는지 연구하였다. [1문단]

↳ 베르토프의 영화에 등장하는 노동자의 모습은 2) 생산학파가 묘사하는 혼욕된 노동자의 모습1, 3)과는 다르다.

어휘 체크

* 묘사: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

③ 베르토프가 다양한 영화 기법을 통해 일상 공간을 재구성한 것은 벤야민이 말하는 시각적 무의식을 유발하겠군.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베르토프는 다중 화면, 화면 분할 등 1) 다양한 영화 기법을 도입하여 도시의 일상적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

• 영화는 보통 사람의 2) 육안이라는 감각적 지각의 정상적 범위를 넘어선 체험을 가져다준다. 벤야민은 이러한 충격 체험을 환각, 꿈의 체험에 빗대어 3) '시각적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4문단]

↳ 베르토프가 다양한 영화 기법을 통해 일상 공간을 재구성한 것은 1) 보통 사람의 육안이라는 감각적 지각의 정상적 범위를 넘어선 체험을 가져다주기 2) 때문에 벤야민이 말하는 시각적 무의식 3)을 유발한다.

④ 베르토프가 사용한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는 벤야민이 말하는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를 보여 주는군.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1) 베르토프는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를 통해 영화가 편집의 예술임을 확인시켜 준다.

• 2)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로 이루어진 영화를 체험하는 것은 이질적인 대상들이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뒤섞인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과 유사하다. [4문단]

↳ 베르토프가 사용한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는 1) 벤야민이 말하는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를 2) 보여 준다.

⑤ 베르토프의 영화에 등장하는 관객의 모습은 영화관에서 신기한 구경거리인 영화를 즐기는 근대 도시인을 보여 주는군.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베르토프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는 1920년대의 1) 근대 도시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또한 2) 영화관에서 신기한 장면에 즐겁게 반응하는 관객들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여 줌으로써 영화가 상영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 베르토프의 영화에 등장하는 관객의 모습은 영화관에서 신기한 구경거리인 영화를 즐기는 근대 도시인을 보여 준다. 1~2)

09.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98위

#이해

정답률
8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 ② 4% ③ 7% ④ 84% ⑤ 3%

정답 풀이

④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을 통해 노동의 소외가 극복된 공간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 그(벤야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심화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3문단]

↳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을 통해 노동의 소외가 <심화>된 공간이다. 1)

오답 풀이

① 생산의 공간과 꿈꾸는 공간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벤야민은 근대 도시인이 1) 사물화된 노동자이지만 그 자체로 2) 내면 세계를 지닌 꿈꾸는 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끝 문단]

↳ 근대 도시는 사물화된 노동자의 생산의 공간 1)과 내면 세계를 지닌 자의 꿈꾸는 공간 2)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② 소비 행위가 노동자에게 복합 체험을 가져다주는 공간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소비는 그보다 더 복합적인 체험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벤야민은 이런 사실을 근대 도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설명한다. [3문단]

↳ 소비 행위가 노동자에게 복합 체험을 가져다주는 공간이다. 1)

③ 이질적인 것이 병치되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가는 공간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근대 도시에서는 옛것과 새것,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등 1) 서로 다른 것들이 병치되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간다. [3문단]

↳ 서로 다른(이질적인) 것이 병치되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가는 공간이다. 1)

⑤ 집단 규율을 따라 노동하는 노동자도 내면세계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선지 ①의 근거 지문 참고]

↳ 집단 규율을 따라 노동하는 노동자 1)도 내면세계를 가지고 있는 2) 공간이다.

10~14 서양 의학의 영향을 받은 이익, 최한기의 인체관

1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西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2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3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1 상대적으로 미미한 서양 의학의 영향력
* 서학 서적 유입 -> 조선 지식인의 사상 변화
*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에 비해 미미

2 1이런 가운데 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2그는 「서국의(西國醫)」라는 글에서 아담 샬이 쓴 「주제군징(主制群徵)」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3주제군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4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5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6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心主知覺說)을 고수하였다.

2 아담 샬의 「주제군징」에 대한 이익의 인체관
* 아담 샬의 「주제군징」: 기계론적 인체관x, 생리설, 해부 지식o -> 기독교 전파
* 이익: 「주제군징」 일부 수용 -> 뇌가 몸의 운동 주관 긍정 but 심주지각설 고수 -> 심장이 지각 활동 주관

3 1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2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3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4서양 해부학이 이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5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6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1

1 * '17세기 초'와 같이 첫 문단 첫 문장에서 시간과 관련된 말이 나오면 시간의 흐름(순행 or 역행)에 따라 글이 전개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봐야 한다.

2 *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이 미미했다면, 19세기 후반부터는 서양 의학의 영향력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2~3 * 독해에서 가장 기본은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특히 역주행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하지만', '~지만'과 같이 역주행 흐름을 나타내는 말에는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를 해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2

1 * 인문 지문에서 새로운 정보로 인물 명(이익)이 처음 등장하면 동그라미나 네모 등의 큰 도형을 이용해 시작점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물의 입장 혹은 견해를 위주로 전개되는 지문의 흐름에서 선지 판단의 근거를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다.

2 * 이익에 이어 새 인물(아담 샬)이 바로 등장? 그렇다면 두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지문을 읽어 나가야 한다. (☆특히 차이점에 주목할 것!)

3 * 「주제군징」에는 기계론적 인체관이 없다? 그렇다면 기계론적 인체관이 있는 무엇이 뒤에 나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5~6 * '한정된~긍정하였지만'이 두 인물(이익과 아담 샬)의 공통 사항이고, '지각 활동은~고수하였다'가 이익만의 입장(차이점)이다. 당연히 후자에 더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역주행의 흐름을 나타내는 세모 표시 이후의 내용(지각 활동은~고수하였다.)은 다른 곳보다 중요하다.

3

3~4 * 3가지 이상 길게 나열된 내용(서양 의학 지식이 내용 면에서 부족,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 않음, 서양 해부학이 이야기하는 윤리적 문제, 서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 등)은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①, ②, ... 등으로 표시하며 읽는다.

5~6 * 새로운 인물 명(최한기)에 주목! 이전 인물들과는 경계가 되는 지점이다. 최한기의 핵심 포인트(지각적·생리적)에 반드시 밑줄을 그어 두고 다음 문단을 읽어 나가야 큰 줄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3 서양 의학의 영향력이 낮은 요인과 최한기의 문제의식

* 서양 의학의 영향력이 낮은 요인

- 전해진 내용 빈약 - 천문·지리만큼 충격적이지 않음.
- 해부학의 윤리적 문제 - 조정의 서학 금지 조치

* 최한기: 도덕적 차원의 논의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 의학에 대해 문제의식 가진.

→ 지각적·생리적 기능에 주목(해부학, 뇌 기능)

4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2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3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론(全體新論)』 등 흡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 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4이는 인체를 '신기(神氣)'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5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6따라서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7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흡슨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8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4 흡슨의 『전체신론』을 접한 최한기의 인체관 - 몸기계

* 최한기의 인체관: 『전체신론』에 영향받음. →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인체 → 몸기계 → but 생명력 有, 자발적인 운동 → 신기(神氣)

* 신체 운동의 최초 원인

- 흡슨: 창조주(질적으로 다른 존재) 상정
- 최한기: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神氣)'를 최초 원인으로 규정

5 최한기는 『전체신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2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흡슨의 뇌주지각설(腦主知覺說)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3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신론』의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5 『전체신론』에 대한 최한기의 견해

- * 뇌가 신체 운동 주관 → 인정
- * 뇌가 지각 주관 → 부정 ⇒ 심이 지각 주관(심주지각설)

4

3

* 역주행 흐름은 언제나 중요하다. 무려 5줄이나 되는 긴 문장이라 뜻을 파악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 이 문장의 포인트는 '아니라' 이후이다. 따라서 '아니라' 이후에 집중해 의미를 파악하면 된다. 사선(/) 표시로 적절히 끊어 읽기는 필수!

7~8

* 연결된 문장에 다른 인물(흡슨, 최한기)이 나오므로 둘의 차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5

1~3

* 주체(최한기)가 A(뇌주지각설)를 부정하고 B(심주지각설)를 긍정하는 형태라면, 결국엔 주체와 B에 해당하는 내용(최한기는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이 포인트가 된다.

6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2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3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4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5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6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7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8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5 최한기의 인체관-‘신기’의 특징

- * 심주지각설: '심장'의 '심' ↔ 최한기: '신기'의 '심'(유동적)
- * 최한기의 신기: 신체와 함께 생성·소멸 → 몸을 구성 → 형체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님.
- * 신기의 균형: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짐.
- * 신기의 기억 저장: 지각 활동 → 외부 정보 수용 → 기억 저장
- * 신기가 한 몸 주관 & 하나로 통합 → 감각을 통합 →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 지각 내용을 조정, 적응 → 세계의 변화에 대응

7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2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7 최한기의 인체관이 갖는 의의

- * 최한기의 인체관: 서양 의학+신기 개념
→ 서양 의학을 주체적으로 수용, 정합적인 체계 달성 시도

6

2~8

※ 주체(신기)가 모두 동일할 경우 나열된 특성을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 등의 번호를 써서 표시해 둔다.

2

* 앞에서 언급한 것과 다른 내용이 나올 때는(~보았던 것과는 달리) 그 차이점(기존의 심주지각설과 달리 '심'을 심장이 아닌 '신기'로 파악)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7

※ 마지막 문단은 본문의 내용을 정리한다. 따라서 본문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문단, 그중에서 특히 첫 문장에 주목하자! 첫 문장을 통해 본문의 구조를 알 수 있다. (☆특히 전개 방식 문제 풀이에 유용하게 사용됨!)

1

* <A(최한기의 인체관)가 B(서양 의학)와 C(신기)를 통합>
→ B와 C가 등장, 이것들의 문제점(단점)을 A가 보완하여 종합함!

10.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82위

#전개 방식 #열거_반복_대구 #분화 #실전 풀이 Tip

정답률 82%	선지별 선택 비율				
	① 7%	② 82%	③ 2%	④ 3%	⑤ 6%

정답 풀이

②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그(이익)는 「서국의」라는 글에서 아담 샬이 쓴 「주체군징」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2문단]
-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2)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흠손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3문단]

↳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 시대 학자들(이익, 최한기)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1, 2)

X 오답 풀이

①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하여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서술한 것은 아니라, 학자들(이익, 최한기)에 따른 인체관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 어휘 체크

- * 분화: 세포가 분열 증식하여 성장하는 동안에 서로 구조나 기능이 특수화하는 현상.
- ③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열거하여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인체관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을 제시1, 2)하고 있을 뿐, 그 주장에 담긴 문제점을 열거하거나,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바탕 지식 더하기

- ※ 열거 vs 반복 vs 대구
- 열거(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예 딸기, 포도,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 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
 예 눈, 눈, 눈이 내린다! ☞ 운을 형성!
- 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운을 형성!

④ 우리나라 근대의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1)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고수하였다. [2문단]
- 2)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최한기)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6문단]

↳ 우리나라 근대의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1,2)가 있으나, 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한 것은 아니다.

⑤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체관을 정립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서양 의학 지식이 조선 학자들의 인체관에 미친 영향이 제시되어 있을 뿐, 동양의 지식인들이 서양의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TIP 실전 풀이

★ 내용 전개 문제는 끝 문단에 주목하라!

☞ 지문의 끝 문단은 처음-중간의 내용을 정리 및 요약한다. 이를 통해 대부분 글의 전개 방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 지문 전체를 검토할 수 없을 때, 혹은 지문을 모두 검토해도 정답의 근거가 잘 안 보일 때 끝 문단에서 특히 첫 문장 또는 끝 문장에 주목하라! 이 부분과 대응성이 높은 선지가 내용 전개 문제의 답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예를 들어 선지 ②의 경우 ✓ 정답 풀이 에서 제시한 근거 지문 외에, 끝 문단에서도 정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2)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끝 문단]

⇒ ② 서학의 수용2)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1)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정답)

(2016 수능) 전개 방식 문제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끝 문단]
 → (목적론의 의의)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 (☆정답)

(2016 수능) 전개 방식 문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끝 문단]

⇒ ③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정답)

11.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32위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75%	① 5%	② 5%	③ 10%	④ 75%	⑤ 5%

✓ 정답 풀이

④ 아담 살과 흡슨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는 「서국의」라는 글에서 1)아담 살이 쓴 『주제군징』의 일부를 채록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주제군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2)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2문단]

↳ 아담 살이 쓴 『주제군징』에는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기, 2) 때문에 아담 살이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했다는 선지 ④는 부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최한기는 흡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최한기)는 1)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2)흡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4문단]

↳ 최한기는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1) 흡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졌다 2)는 것으로 보아 흡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이미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아담 살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살)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2)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고수하였다. [2문단]

↳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살)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2)

③ 이익과 흡슨은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2문단]
- 하지만 2)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흡슨의 뇌주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5문단]

↳ 이익과 흡슨은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1, 2)

⑤ 『주제군징』과 『전체신론』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주제군징』에는~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2문단]
-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과 2)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신론』~ [5문단]

↳ 『주제군징』과 『전체신론』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1, 2)

12.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61위

#이유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0%	① 6%	② 6%	③ 80%	④ 4%	⑤ 4%

✓ 정답 풀이

③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 지문에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한 내용은 없다.

✗ 오답 풀이

🔍 지문 속 근거 찾기

[선지 ①, ②, ④, ⑤ 공통]

-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 (㉠ 관련)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1)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2)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3)서양 해부학이 이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4)서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3문단]

- ①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다.
↳ 조선의 조정에서 서학에 대한 금지 조치4)를 했다.
- ② 전래된 서양 의학이 내용 면에서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 부족1)했다.
- ④ 서양 해부학이 조선의 윤리 의식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 서양 해부학은 조선에서 윤리적 문제를 야기3)했다.
- ⑤ 서양 의학이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천문 지식)는 주장2)만큼 충격적이지 않았다.

13.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19위

#보기 제시 #인문의 견해

정답률 73%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0%	② 7%	③ 73%	④ 7%	⑤ 3%

정답 풀이

③ 나, 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최한기)에 따르면, 1)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2)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3)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6문단]

- ↳ 나.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2)
- ↳ 다.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1) 지각 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3)

X 오답 풀이

ㄱ. 심장은 오장(五臟)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1)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고수하였다.

[2문단]

- 2)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6문단]

↳ 지각이 심장에서 나온다는 ㄱ의 내용은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1)한다는 이익의 견해이다. 최한기는 <신기>에 의해 인간의 지각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2)

ㄴ. 신기는 대소(大小)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최한기)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1)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2)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6문단]

↳ 최한기는 신기를 형체가 없이1) 하나로 통합되어2)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신기가 대소(大小)로 구분되어 있다는 내용이나 한 몸에 퍼지는 신기와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구분되어 있다는 ㄴ은 적절하지 않다.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ㄷ에서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라는 부분에서 '따라'에 주목해 봅시다. '따르다'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앞선 것을 좇아 같은 수준에 이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선후 관계를 명확히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진 '후에' 인간의 신기가 생겼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문에서는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와 '따라'는 자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ㄷ은 틀린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답변> ㄷ에서 '기관이 갖추어짐'은 기관이 시작되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포함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기관이 갖추어지는 과정 그 중간을 따라 신기도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관이 완성된 후에 신기가 생긴다는 뚜렷한 선후 관계로 한정될 수 없다. 그래서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는 지문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 해당한다.

14.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58위

#보기 제시 #3점 #비교 이해 #대립 선지의 법칙

정답률 57%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57%	③ 6%	④ 11%	⑤ 21%

✓ 정답 풀이

②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1)그(데카르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 그(최한기)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2)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3)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6문단]

📖 지문 POINT

- ▶ 사고 작용이 지각을 포함. → 선지 ②의 '사고 작용'을 6문단의 '지각'으로 대치하여 고려 가능(사고 작용=지각)
- ↳ 최한기는 사고의 일종인 지각이 <신기>의 균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으며 이 <신기>는 뇌가 아닌 곳에서 일어난다고 본다. 2) 그래서 최한기가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다는 선지 ②는 부적절하다. 반면 데카르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두뇌라고 1) 보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았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1)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2)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6문단]

↳ 데카르트의 '정신'이 독립적인 것 1)과는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고 통합되어 있다. 2)

③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1)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2)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6문단]

↳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 데카르트의 '정신'과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2)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다.

④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는 않았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그러나 1)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 그(최한기)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2)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6문단]

↳ 데카르트는 인간의 사고(정신)가 신체(물질)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1) 하지만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지각 활동)가 신체(감각 기관)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2)고 보기 때문에 데카르트와 같은 비판을 받지는 않는다.

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1)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데카르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2)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 소급을 3)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4문단]

↳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1)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무한 소급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2) 그래서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지문 난이도 ★

2018학년도 수능 16~19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78위

01 ~ 04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1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2자기 몸통 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3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4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5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6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1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 *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by 내재적 본성)
- 방해받지 않는다면 목적은 반드시 실현되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옴.(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음.)

2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2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3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4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2 근대 사상가들의 목적론에 대한 비판

- * 갈릴레이: 목적론은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
- * 베이컨: 목적에 대한 탐구는 과학에 무익
- * 스피노자: 목적론은 자연에 대한 이해 왜곡 (목적론이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고 비판, but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만이 '이성' 有)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1~2
* <문고+답하기>의 구성으로, 화법이나 작문 상황에서는 청자나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집중하게 한다. 비문학에서 서두에 이런 구성이 나타나면 본격적인 화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몸을 푸는 단계이므로 썩 스킵해 읽어서 좋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이런 구성이 나온다면 4번째 문장처럼 '답'에 해당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실제로 4번째 문장은 2번 문제 정답의 근거에 해당함)

3
* '그런데', '그러나(하지만)' 등 전환 및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면 주의가 필요하므로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를 해 둔다.
[2-4, 3-3, 4-3·4도 마찬가지로]

4
* 피정의항('목적론')은 물론, 지문에서 인물 명(아리스토텔레스)이 나온다면 동그라미를 치고 키워드(목적, 내재적 본성)에는 밑줄을 긋자.
☞ (아리스토텔레스 = 내재적 본성 = 목적론)

* '본성'을 통해 이와 대립적인 어휘인 '이성'이 나올 수 있으며 이들의 대립 향으로 내용이 전개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독해 시 항상 대립적 어휘의 생성 여부를 짚고 넘어가자.)

5
* 문장이 길다면 썬표에 사선(/)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다.
*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처럼 다른 예외적인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용어(항상, 모두, 모든, 꼭, 반드시...)가 사용된 문장은 (예외를 허용하는) 부정적 선지로 가공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눈여겨보아야 한다.

6
* 다른 인물 명이 나와도, 같은 인물 명이 나와도 일단은 계속 동그라미를 해 두자. 이는 인물에 따른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시 신속하게 근거를 탐색할 수 있게 해 준다.

2
[아리스토텔레스 ↔ 갈릴레이, 베이컨, 스피노자]
※ 지문에서 인물 명에는 무조건 동그라미, 키워드에는 밑줄을 치면서 서로 어떤 입장인지를 파악하자!

1
* 목적론은~비판에 직면: 목적론에 어떤 허점(단점, 문제점, 보완해야 할 점)이 있어 비판을 받음.
→ 목적론이 무엇을 비판×

2
* 대상에 대한 부정적 서술은 밑줄×가 좋다.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

4
* '그러나~아리스토텔레스는~'처럼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이전 내용과 반대의 흐름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다음 내용이 전개될 수 있음을 예측하면서 지문을 읽어 나가야 한다.

3 1)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2)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3)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3 근대 학자들의 목적론 비판에 대한 현대 학자들의 반박

- * 볼로틴: 근대 과학은 '자연에 목적 없음'을 제시하지 못함.
- * 우드필드: 목적론의 옳고 그름 확인 불가 → 목적론을 거짓으로 볼 수 없음.

4 1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2)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3)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옴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4)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4 물질론·환원론과 상반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 * 물질론: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
- * 환원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됨.
→ (살아 있는 생명체 = 죽은 물질)
- * 옴페도클레스: 물질적 구성 요소를 통해 자연물의 본성을 모두 설명 가능
→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박: 자연물이 물질로만 구성X, 자연물의 본성은 물리·화학적 환원X

5 1)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2)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5 목적론의 의의

- * 자연물의 존재 및 운동 원리(이유)를 탐구하는 출발점이 됨.

3

1 * '일부 현대 학자들'처럼 인물 명이 아니더라도 견해나 입장을 나타내는 단체가 나오면 여기에도 동그라미를 쳐 두자.

2 * '이', '이런'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가는 지시 대명사(이~, 그~)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4-1·2·4도 마찬가지]

3

*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처럼 <부정+부정>이 조합된 문장은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부정+부정>은 결국 <긍정>을 나타낸다.

4

- * 시대를 나타내는 말이 지문의 초반 혹은 중반에 나타나면, 시대별로 글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쳐 두는 것이 좋겠지만 '17세기'와 같이 지문 후반에 나타나면 그리 신경 쓸 필요가 없다.
- * '물질론', '환원론'처럼 개념을 뽑아낼 수 있는 어휘에는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 두자. 그리고 이것이 큰 줄기의 개념(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과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파악해야 한다. ('목적론' ↔ '물질론', '환원론')

3

* '하지만'과 같이 문단의 반을 가르는 역주행의 흐름 파악은 매우 중요하므로 꼭 큰 세모 표시를 해 두자.

- '하지만' 이전: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반대 입장
- '하지만'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독해에서 정주행의 흐름 파악은 별 의미가 없다. 역주행, 그중에서도 큰 흐름을 가르는 역주행 맥락에 포인트를 두자!)

5

* 지문의 끝 문단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 및 요약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

01.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82위

#공통 선지의 법칙 #논지 전개 방식 #비난_비판 #끝 문단에 주목 #비교 #평가 기준의 척도 #평가원 이의 제기 #시대 구분

정답률 82%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	② 2%	③ 5%	④ 8%	⑤ 82%

정답 풀이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1)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2)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2문단]

• 하지만 3)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4)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4문단]

• 5)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끝 문단]

▶ 특정 이론(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비판들을1) 검토하고2~3)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4) 의의를 밝히고 있다.5)

바탕 지식 더하기

- ※ 비난 vs 비판
-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부정적)
-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 + 문제의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함. (긍정적)

패턴 공략

▶ '~에 대한 의의'는 글의 마무리 부분에 나오기 마련이므로 끝 문단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

Tip 실전 풀이

★ 내용 전개 문제는 끝 문단에 주목하라!
 지문의 끝 문단은 처음-중간의 내용을 정리 및 요약한다. 이를 통해 대부분 글의 전개 방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 지문 전체를 검토할 수 없을 때, 혹은 지문을 모두 검토해도 정답의 근거가 잘 안 보일 때 끝 문단, 특히 첫 문장 혹은 끝 문장에 주목하라! 이 부분과 대응성이 높은 선지가 내용 전개 문제의 답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끝 문단]

→ (목적론의 의의)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정답)

(2016 수능) 전개 방식 문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끝 문단 끝 문장]

⇒ ③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정답)

X 오답 풀이

①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1)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2)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4문단]

- ※ '물질론(환원론): 오직 물질로만 구성' ○
- ↔ '목적론(아리스토텔레스): 오직 물질로만 구성' ×

▶ 두 이론의 대립적인 내용은 있으나, 2) 각각의 장단점이 비교된 것은 아니다.

☞ <환원론>은 <물질론>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간주하면 되고 지문에 제시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목적론>의 하나이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견해, 생각, 주장은 모두 <목적론>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패턴 공략

▶ <비교>는 <대조>와는 달리,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나타내는 것임에 유의하자.

*비교: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

☆평가원 국어 시험의 통계를 살펴보면, '대상의 장단점'이 거론된 선지는 대부분 부정적 선지에 해당한다.

②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선지 ①의 근거 지문 참고]

↳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은 있지만, 2) 절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아니다. 절충 방안은 두 대상의 주장(특성)의 일부를 덜고 일부를 각각 조합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특정 이론(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비판들을1) 검토하는 것2~3)은 있지만 새로운 이론을 도출한 것은 아니다.

바탕 지식 더하기

※ 다양한 <평가 기준>의 척도를 알아보자

- 타당성: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 합리성: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 —(상식적)
- 객관성: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
- 공정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성질
- 정확성: 바르고 확실한 성질
- 신뢰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

☞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의 타당성이 높아져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의견에 신뢰가 간다.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목적론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검증 후 환원론이라는 새로운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답변> <환원론>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 혹은 거짓을 확인하는 과학적 경향에 따라 나온 것으로, <목적론>과 대립적 성격을 가진 것일 뿐이지, <목적론>을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다.

④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2문단]
-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4문단]

↳ 특정 이론(목적론)에 대한 비판들은 시대순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근대에 한정된다.

어휘 체크

* 시대 구분

중세: 9~16세기, 근대: 17~19세기, 현대: 20세기~

★ 공통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선지 ③, ⑤에 '비판'과 '검토'가 공통된다.

③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정답)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③, ⑤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02.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65위

#헛갈림 주의 #이해 #최선의 Q&A #아기

정답률
9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 ② 1% ③ 94% ④ 2% ⑤ 1%

정답 풀이

③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아리스토텔레스>는 1)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 (<자연물은 본성적임>)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 (<자연물이 운동을 함, 곧 운동의 주체는 자연물임>)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2) (본성적)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3)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자연물)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1문단]

↳ 본성적 운동의 주체인 자연물은1) 본성적 목적을 실현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2~3)

최선의 Q&A

Q <본성 실현>과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다른 것 아닌가요?

A '철수가 선한 목적으로 아픈 친구의 가방을 들어 주었다고 한다 면, 철수는 <선한 목적 실현>을 행한 것이지 <선함 실현>을 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 <선한 목적 실현>을 통해 <선함 실현>이 되는 것처럼 <본성적 목적의 실현>을 통해 <본성 실현>도 되는 것이다.

X 오답 풀이

①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1)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2문단]

↳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기(예)1) 인간이 아닌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없다.

②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에 해가 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1)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1문단]

↳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기(1) 때문에 자연물에 해가 될 수 없다.

④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1문단]

↳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1) 즉 '본성'적 목적을 타고 났으니 낙엽의 운동도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Tip 실전 풀이

☞ 지문에서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모든 자연물(선지 ②, ④의 지문 속 근거 찾기' 참고)처럼 다른 예외적인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용어(항상, 모두, 모든, 꼭, 반드시...)가 사용된 문장은 (예외를 허용하는) 부정적 선지로 가공될 확률이 높다.

⑤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1문단]

↳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의해(1) 야기된다.

✓ 어휘 체크

* 야기: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패턴 공략

♣ 헛갈림 주의!

A: 원인 = 내재적 본성, B: 결과 =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

* A가 B를 야기함. = A는 B의 계기가 됨. = A로 인해 B가 일어남. = A가 B를 불러일으킴. = A 때문에 B가 일어남.

03.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72위

#논의 #비난 비판 #실전 풀이 Tip

정답률 95%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	② 95%	③ 1%	④ 1%	⑤ 1%
------	-------	------	------	------

✓ 정답 풀이

②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문단]
- 또한 2(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3)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3문단]

↳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1~2)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지적한다(3)는 문장은 목적론이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낼 뿐, 이로 인해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X 오답 풀이

① 갈릴레이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문단]
-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2(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 (목적론에 대한 비판을 비판함. = 목적론에 대한 비판을 반박함. = 목적론을 옹호함.) 3)이런 맥락(목적론 옹호)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3문단]

↳ <갈릴레이>는 <목적론>이 과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과학에 기초하지 않아서)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했다.1) 그리고 <볼로틴>은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맥락을 따른 것이지2~3) <목적론>을 비판한 것은 아니다.

③ 베이컨과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2문단]
- <일부 현대 학자>들은, 3)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4)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5)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3문단]

📌 지문 POINT

※ 지문의 큰 흐름

[2문단] 근대 학자(베이컨): <목적론> 비판

[3문단] 현대 학자(우드필드): <목적론> 거부 못함.

↳ <교조적 신념>은 <목적론>을 비판하기 위한, 근대 사상가들의 <기계론적 모형>과 관련된 것이지1, 3)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한 것은 아니다. <베이컨>은 <목적론>을 비판한 근대 사상가에 해당하지만1~2) <우드필드>는 <목적론>을 거부하지 못하는 흐름을 따르고 있다. 4, 5)

④ 스피노자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2문단]
- 이런 맥락에서 2)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3문단]

↳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1) 했고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 2)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⑤ 스피노자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1)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2문단]
- 또한 2)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3문단]

↳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하기1) 때문에 거짓이라고 비판하는 이는 <스피노자>이다. 하지만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2)

📁 바탕 지식 더하기

※ 의인법 vs 활유법에 대해 알아보자!

-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Tip 실전 풀이

실제 시험에서는 선지의 내용 중 부적절한 것을 하나라도 발견하면 바로 다음 선지로 넘어가야 경제적인 문제 풀이가 된다.

- ① 갈릴레이(×)와 볼로틴(×)은~
- ②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 ④ 스피노자(×)와 볼로틴(×)은~

☞ [2문단]에서 <갈릴레이>와 <스피노자>의 부적절함이 먼저 발견되면, <볼로틴>은 검토 없이 다음 선지로 넘어가야 한다.

04.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98위

#보기 제시 #3점 #지문_선지 간의 변형 #실전 풀이 Tip

정답률
8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 ② 6% ③ 84% ④ 3% ⑤ 5%

✓ 정답 풀이

③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창발론(마이어)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1) 구성 요

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 하지만 2)〈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펬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4문단]

- 1) 마이어: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으로 생명체의 특성 예측(설명) 불가
- 2) 아리스토텔레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으로 생명체의 본성(특성) 설명 불가

↳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 1~2)

패턴 공략

지문-선지 간의 변형 양상

- *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이 나타난다.〉 = 〈특성을 예측할 수 없음.〉
- *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 *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펬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 =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없음. = 〈특성들은 예측할 수 없음.〉

오답 풀이

- ①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엠펬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겠군.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창발론(마이어)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1)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 하지만 2)〈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펬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4문단]

↳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펬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를 반박했고 2)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 1)는 〈마이어〉의 이론은 〈엠펬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와는 대립을 이룬다.

- ②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동의하겠군.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1)〈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2)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본다.
-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펬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3)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4문단]

↳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것에 부정적이고 3) 〈마이어〉만이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1)

2)로 인해 1)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자. ‘나는 아침에 유통 기한이 지난 우유를 먹었지만 배탈이 난 것은 아니다.’에서 배탈이 나지 않았어도 우유를 먹은 사실이 부정되지 않는 것과 같다.

- ④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그(마이어)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1)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 2)〈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1문단]

↳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본다. 1~2)

- ⑤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겠군.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1)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본다. → 〈환원론 부정〉
-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펬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2)물리·화학적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4문단]

↳ 〈마이어〉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부정한다. 1~2)

TIP 실전 풀이

☞ 실제 시험에서는 선지의 내용 중 부적절한 것을 하나라도 발견하면 바로 다음 선지로 넘어가야 경제적인 문제 풀이가 된다.

- ① 마이어(x)는 아리스토텔레스(x)처럼,
- ② 마이어(o)는 아리스토텔레스(x)처럼,
- ③ 마이어(o)는 아리스토텔레스(o)처럼,
- ④ 마이어(o)는 아리스토텔레스(x)와 달리,
- ⑤ 마이어(x)는 아리스토텔레스(x)와 달리,

05 ~ 10 **율곡의 법제 개혁론**

1 유학은 ①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②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③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⑤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1 유학과 수기치인

- * 유학: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성학)
- * 수가: 사물 탐구, 앎을 투철히, 뜻을 성실하게, 마음을 바르게
→ 자신을 닦는 일
- * 치인: 집안을 바르게, 나라 통치, 세상을 평화롭게
- * 성인: 수기치인을 통해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
- * 성학집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이이의 저서

2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①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 선후와 공간적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②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③율곡은 이치'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2 이와 기의 특성

- * 이기론: 만물을 '이'와 '기'로 설명 → 수양론과 경세론의 바탕
- * '이': 형체×, 시·공간의 제약× → 만물의 법칙·원리
- * '기': 시간적 선후 & 공간적 시작과 끝, 지속적인 변화·작동
→ 물질적 요소
- * 이기지묘: '이'와 '기'는 서로 구별 but 분리됨 없이 더불어 존재

1

- 1 * 개념에서 피정의항의 키워드(유학)는 동그라미, 정의항의 키워드(수기치인, 성인, 성학)는 밑줄로 표시한다.
- * 중심 화제는 대개 구체적인 대상에 해당한다. 유학 자체가 중심 화제가 되기보다는 유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무엇이 중심 화제가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2~3

- * '수가', '치인', '성인'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면 꾸준히 동그라미를 하되, 첫 문단이므로 다른 곳보다 문제 활용 가치는 떨어질 것이라고 짐작해 두자.

4

- * '이이'처럼 인물이 첫 문단에 등장하면 다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오직 '이이'만의 내용인가?
 - 다른 관점의 인물이 또 등장할까?
- * '이러한', '이때', '여기서', '이와 같이'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가는 단어에는 > 표시를 해 둔다.

[2-4, 3-2·3, 4-3, 5-3·5, 7-3·4도 마찬가지로]

2

- 3 * 문장 안에서 반대의 맥락을 나타내는 '달리', '~지만', '~아니라' 등에는 가장 눈에 띄는 세모를 표시한 뒤, 차이점에 주목하자.

[4-4, 7-3도 마찬가지로]

☞ '이'와 '기'는 (서로 다름 + △ + 구별되면서 분리×)

- * 반대 맥락의 양상 2가지
 - 이전 맥락을 완전히 부정
 - 일부를 인정하면서 보완 [2-3에 해당]

3 1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2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4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居敬),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공리(窮理),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力行)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5인간에 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3 율곡의 수양론

- * 이통기국
 - '이': 하나의 동일함 공유
 - '기': 서로 다른 모습
- * 기질 변화론: 일반인도 성인과 동일한 '이'를 가진. → 탁한 기질을 정화 → '이'의 선한 본성 회복 → 성인의 경지에 이룸.
- * 기질 변화의 수행 방법
 - 거경(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
 - 공리(경전을 읽어 시비를 분별함)
 - 역행(심신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함)

4 1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1574)에서 잘 나타난다. 2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3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류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4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류를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율곡의 경세론

- * 「만언봉사」: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묻는 선조의 물음에 관한 답변
- * 법제 개혁의 필요성: ‘이’에 해당하는 왕도, 어진 정치, 삼강, 오류과는 달리 ‘기’에 해당하는 법제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 위해 법제 개혁이 필요함.

3

2

- * ‘동일한 이를 공유’ → 공통점, ‘서로 다른 모습’ → 차이점. 지문에서 직접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말이 없어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 경우 차이점에 더 주목해야 한다.

3

- * <원인+결과>의 구성.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 * ‘~정화하면’처럼 조건을 나타내면 일단 사선으로 흐름을 끊어 주자. [5]-2도 마찬가지]

4

- * 한 문장에 여러 개의 개념이 나열되면 헷갈릴 수 있으니,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자. 개념을 구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4

1

- * <인물+견해+사례의 구조> = <율곡+법제 개혁론+「만언봉사」> → 이것이 인문 지문의 큰 흐름이다. 다른 잔가지는 놓치더라도 큰 줄기는 붙들고 가야 한다.

3

- * 지문에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견해>를 구별하는 일은 독해의 기본이다. ‘~주장한다’는 주관적 견해!

4

- * ‘곧’, ‘즉’, ‘다시 말해서’ 등은 앞의 내용을 정리한다는 표시어이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곳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 * <A 부정(~아니라)+B 긍정>의 구조. A와 B를 뒤바꾼 선지가 가공되기도 한다.

5 1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受敎)'이다. 2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3이 지침이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4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5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단된 것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5 법적인 '대전'의 성립 과정

- * 수교: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지침 → 조선 법전의 기본 원천
- * 록: 폐단 없고 유용한 수교들이 다듬어지고 정리된 것.
- * 대전: 록에서 영구히 시행하도록 선정된 것. (수교 → 록 → 대전)

6 1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2꾸준한 정령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良法美意)'라 하였다. 3백성들에게 향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4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5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선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렀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6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헌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6 <경국대전>의 의의

- * 양법미의: 꾸준한 정령을 거쳐 '대전'에 오른 규정(경국대전) → 백성들에게 향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
- * 경국대전: '수교'에서 '록'을 거쳐 집대성 → 영원히 시행 → 조종성헌(함부로 수정 X, 왕도에 근접)

7 1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을 변혁하지는 것이 아니다. 2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3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4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5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6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 이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7 율곡의 법제 개혁론의 의의

- * 율곡의 법제 개혁론: 이기론을 바탕으로,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바꾸어 더 나은 세상을 이루고자 함. → 수기치인의 실천

5 5-3~5+6-1·2·5

* 개념의 흐름 정리: <수교 → 록 → 대전 → 경국대전 → 양법미의 → 조종성헌>

- 이동 이유(이전 것을 비판, 보완, 추려 냄 등)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שמ의 조언

이번 지문은 1~7 문단 모두에 걸쳐 동그라미나 밑줄이 굉장히 많다. 여기서 의문이 들 것이다. 이런 표시를 실전에서 꼭 해야 하나? 굉장한 시간 낭비일 것 같은데... 그렇다! 분명 시간은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들로 인해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인다면 어느 정도의 표시는 필요하다. 수험생마다 지문을 읽고 머릿속에 구조도를 그려 내고 포인트를 잡아내는 능력은 모두 다르다. 본인의 독해 실력이 아직 미완이라고 생각한다면 평소 도형 표시는 필수이며 많을수록 좋다. 익숙해진 뒤에 어느 정도 줄여나가면 된다.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꼭 맞는, 문제 풀이의 제일 적절한 정도의 동그라미나 밑줄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7 3

*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力說): 역설(力說)은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모순, 반대를 의미하는 역설(逆說)이 아니다. 평가원에서 이를 테마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다.

* <A 부정(~아니라)+B 긍정>의 구조, A와 B를 뒤바꾼 선지가 가공되기도 한다.

05.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28위

#핵심 정보 파악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8%	① 2%	② 2%	③ 4%	④ 4%	⑤ 88%

✓ 정답 풀이

⑤ <경국대전>은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본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1)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백성들에게 2)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3)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6문단]

↳ <경국대전>은 항구히 시행할 만한 것으로 집대성된 통일 법전1~2)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3) 그래서 <경국대전>이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선지 ⑤는 적절하지 않다.

X 오답 풀이

① 성학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유학은 수기치인을 통해 1)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이라고도 불린다.~수기치인을 통해 2)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1문단]

↳ 유학, 곧 <성학>은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1)으로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와 합일2)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② 『성학집요』에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1)『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조선)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1문단]

↳ 『성학집요』에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1)

③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 지침이 앞으로 1)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5문단]

↳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1)

④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었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리고 이후의 1)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2)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3)'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5문단]

↳ '대전'에 오르는 규정3)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었다는 요건1~2)을 갖추어야 한다.

06.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27위

#세부 내용 추론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74%	① 8%	② 74%	③ 12%	④ 3%	⑤ 3%

✓ 정답 풀이

②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와 대비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1)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2)'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2문단]

↳ 만물에 내재된 법칙1)으로 보는 것은 '기'가 아니라 <이>이다. '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보았다.2)

X 오답 풀이

①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1)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2)'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2문단]

↳ 천재지변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1)이기 때문에 '기'의 현상으로 보며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2)

☑ 어휘 체크

* 천재지변: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에 의해 빚어지는 재앙 →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발생× →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함)

③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할 대상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1)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2문단]
- 여기서 율곡은 "2)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3)그것('이')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문단]

↳ 법제는 때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에 해당1~2)하며, '이'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개혁하여야) 할 대상이다.3)

④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이'라 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1)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2)'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3문단]

↳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1) '이'라 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2)

⑤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이'를 갖지만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것은 1)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2)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문단]

↳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이'를 갖지만1)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2)

07.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15위

#생략된 정보 추론 #이해

정답률
71%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3% ② 3% ③ 71% ④ 10% ⑤ 3%

☑ 정답 풀이

③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율곡은 1)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2)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2문단]
- 인간에게 내재된 3)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4)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3문단]

↳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1~2)은 모두 천도의 실현3~4)을 목적으로 한다.

✕ 오답 풀이

① '수기와 '치인은 각각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 → (기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1)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3문단]

↳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의 정화를 통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이 되는 것이다.1)

② '이기지묘'는 '수기와 '치인'의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특징을 설명해 준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율곡은 이처럼 1)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라 표현한다. [2문단]

↳ <이기지묘>는 '수기와 '치인'이 아닌(×), '이'와 '기'의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1)하는 특징을 설명해 준다.

④ '이통기국'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의 극복이 가능함을 말해 준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

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1)〈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2)〈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3문단]

↳ 〈이통기국〉은 〈성인〉이 아닌, 〈일반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의 극복1)이 가능함을 말해 준다. 이로 인해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2)이다.

⑤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으로는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역행'이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 1)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공리〉, 그리고 2)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3문단]

↳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것은 '역행'이 아니라, 〈공리〉1)이다. 〈역행〉은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것이다.2)

08.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03위

#상관 관계 추론 #보기 제시 #견해 비교 #이해

정답률 68%	선지별 선택 비율				
① 68%	② 6%	③ 5%	④ 13%	⑤ 8%	

정답 풀이

①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1)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2)〈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2문단]
- <보기>
3)〈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는 플라톤의 '이데아'3)와 달리, 율곡의 <이>는 물질적 요소인 <기>와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1~2)

오답 풀이

②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1)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2문단]
- <보기>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2)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 율곡의 <이>와 플라톤의 <이데아>는 모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1~2)

③ 율곡의 '성인'은 플라톤의 '철학자 왕'과 달리 수양보다는 기억에 의존하여 통치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을 주장한다.~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 수양)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3문단]
- <보기>
물질의 한계로 인해 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내려 한다면 그만큼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 통치자가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 왕>이다.

↳ 선지 ③에 제시된 것과 반대로, 율곡의 <성인>은 이통기국론이라는 <수양>을 통해서, 플라톤의 <철학자 왕>은 <기억>에 의존하여 통치한다.

④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1)〈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2문단]
- <보기>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2)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 율곡의 <이>는 추상적 개념이지만 <이데아>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2)

어휘 체크

* 추상적: 어떤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⑤ 율곡이 생각하는 이상 사회는 플라톤의 이상 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1)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1문단]

• <보기>

물질의 한계로 인해 2)<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내려 한다면 그만큼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 플라톤의 이상 세계(이데아)는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2)

* 율곡은 이 땅에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1)

ㄱ. 이상 세계가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 가능함을 전제함.

ㄴ. 율곡의 소망일 뿐, 이상 세계가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 가능한지는 지문을 통해 알 수 없음.

☞ ㄱ, ㄴ 중 어떤 해석이 되었건, <보기>에 제시된 것처럼 플라톤의 이상 세계와 관련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으니 선지 ⑥를 신속하게 오답으로 판단해야 한다.

09.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58위

#세부 정보 파악 #출제자의 심리 #평가원 이의 제기

정답률
57%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57% ③ 14% ④ 18% ⑤ 6%

정답 풀이

②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에게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존재론의 측면에서 1)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2문단]

• 2)선조(임금=왕=국왕)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 (‘선조’= ‘국왕’이 확실함!),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4문단]

•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3)<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끝 문단]

지문 POINT

* 선지 ②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함.

* 국왕은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

→ 국왕인 선조는 '이'와 '기'에 대해 적절한 견해를 제시

* 국왕에게(×)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

→ 권세가에게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에 대한 공박을 펼침.

<율곡과 선조(국왕)의 '이' & '기'>

	'이'	'기'
율곡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	변화하며 작동
선조(국왕)	빈틈없는 완전함.	변화하는 움직임

↳ 율곡의 '이'와 '기'의 특성1)에 비추어 국왕인 선조는 적절한 의견을 제시한다.2) (☆실전 시험에서는 일단 이 부분을 파악했으면 정답으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에서 선지의 한 부분이라도 적절하지 않으면 바로 정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과 관련하여서는, 국왕이 아닌 <권세가>를 대상으로 건의가 아닌 <공박>을 펼친 것이다.3)

어휘 체크

* 권세가: 돈과 세력이 있는 사람

최선의 조언

출제자는 선지 ②를 배배 꼬아 놓았다. 3개의 문단 내용을 토대로 주제-객체-서술어를 뒤섞어 놓은 것이다. 또한 선조라는 직접적인 양명을 피하고 국왕을 사용함으로써 국왕이라는 어휘가 직접 나타나 있는 5문단으로 시선을 향하게 했다. 이에 따라 5문단에서만 근거를 파악하려 했던 수험생들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이'와 '기'에 대한 견해를 4문단에서 파악했지만 선조가 확실히 ②에 제시된 국왕과 치환이 될까 의심이 들더라도 수험생들은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라는 맥락을 통해 (선조=임금=국왕)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선조=임금=왕=국왕)처럼 자신의 배경지식에 확신이 가지 않을 때, 맥락이야말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오답 풀이

①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 개혁을 주장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1)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2문단]

• 대대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2)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1574)에서 잘 나타난다.

[4문단]

↳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 개혁>을 주장한다.1~2)

③ 조종성헌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법제 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결국 1)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2)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바꾸어야 한다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끝 문단]

↳ <조종성헌>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법제 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2)한다.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악용'의 사전적 의미는 '알맞지 않게 쓰거나 나쁜 일에 씬.'인데, 권세가들이 '악용'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죠?

<답변> 끝 문단에 제시되어 있듯이,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부당한 법령을 고치려 하지 않는 자체가 알맞지 않게 쓰는 것이므로 '악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의견> 끝 문단에 '율곡은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을 비판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종성헌의 정의에 따르면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고 모두 조종성헌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지 ③에 '조종성헌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변> 지하철 내 임신부 배려석은 임신부만이 앉기 위한 자리이다.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프다고 임신부 배려석에 앉았다면 임신부 배려석을 알맞지 않게 쓴 것이다. 곧 할아버지가 임신부 배려석을 악용한 셈이다.(* 악용: 알맞지 않게 쓰거나 나쁜 일에 씬.) 이처럼 무엇(오래된 선왕의 법)이 조종성헌을 악용한다고 할 때, 무엇이 조종성헌일 필요가 없다.

(지문) 오래된 선왕의 법은 조종성헌이 아닌 부당한 법령임. → (선지 ③) 하지만 권세가들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조종성헌이라고 우깁. → 조종성헌이 아닌데 조종성헌이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바로 조종성헌의 잘못된 쓰임인 악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권세가들이 조종성헌 존중의 전통을 악용'한다는 표현에는 문제가 없다.

<의견> 이들이 악용하는 법이 조종성헌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법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답변> 끝 문단에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이라고 나와 있다.

④ 삼강과 같은 불변적 가치를 거론하는 까닭은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1)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류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류를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2)그것('이')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문단]

↳ <삼강>과 같은 불변적 가치1)를 거론하는 까닭은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2)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⑤ <<경국대전>이 확정된 이후 연산군 때 제정된 악법들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실제로 이 1)<<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6문단]

• 그는 성종을 이은 2)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끝 문단]

↳ <<경국대전>이 확정1)된 이후 <연산군> 때 제정된 악법들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2)

10.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10위

#반응의 적절성 #보기 제시 #3점

정답률
69%

선지별 선택 비율

① 69% ② 3% ③ 9% ④ 12% ⑤ 7%

정답 풀이

① 속중은 갑의 행위에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음.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실제로 이 1)<<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2)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이라 불렀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6문단]

• <보기>

숙종 25년(1699) 회양부사 3)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4)《경국대전》은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 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 (가) 5)《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 (다) 6)《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 《경국대전》을 토대1, 4, 5)로 하여, 숙종은 갑의 행위3)에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헌을 존중2, 4)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숙종은 완성된 지 20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숙종 25년(1699) 회양부사 1)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2)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 (가)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 (다)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 숙종은 《경국대전》에서 “사람을 죽인 자1)는 사형에 처한다.2)”는 《대명률》의 형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③ 숙종이 《대명률》의 규정인 (다)를 적용하려는 것은 ‘대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태도라 해야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숙종 25년(1699) 회양부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 (가) 1)《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 (다) 2)《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 숙종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2)”는 《대명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갑의 처형을 주장한 것은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1)는 ‘대전’(경국대전)의 규정을 따르는 태도이다.

④ 숙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나)가 양법미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1)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2)《경국대전》은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 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경국대전》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용하지 않는다.”

•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령을 거쳐 3)‘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라 하였다. [6문단]

↳ 대신들의 의견1)에 대해 숙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경국대전》이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 온 성스러운 규범이므로 멋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2) 또한 (나)는 ‘대전’(경국대전)에 오른 규정이기 때문에 <양법미의>가 될 수 있다.3)

☞ 숙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 자체는 비논리적(왕 마음대로)이다. 이는 숙종은 성스러운 규범을 멋대로 적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신들의 생각은 성스러운 법을 멋대로 적용하는 것이고 자신(숙종)의 생각은 바르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법의 적절한 적용=왕의 판단>을 알 수 있는 곳은 없다.

하지만 숙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의 논리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논리적이라도 숙종의 주장에 대한 이유가 되기는 한다.

⑤ 숙종은 선왕의 법을 적용하는 대신들의 방식에는 불만이지만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는 데는 동의하는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1)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기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끝 문단]

• <보기>

2)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3)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4)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 숙종은 대신들의 방식3)에는 불만4)이지만 대신들이 적용한 법이 부당한 법령인 ‘선왕의 법1)’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면 숙종과 대신이 갑에 대해 적용할 형법 자체를 논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숙종과 대신이 갑의 행위가 부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는데 동의한 셈이다.

11~14 지식의 구분

1 1㉠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2㉡ 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3㉢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4㉣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1 과학적 지식에 대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입장

- * 지식: 경험×(수학적 지식 & 논리학 지식) / 경험○(과학적 지식)
- * 가설(과학적 지식의 후보): 예측 도출 → 경험(관찰, 실험) → 정/오 판단
- * 가설이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
 - 예측이 맞을 경우(논리실증주의자)
 -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포퍼)

2 1㉠ 하지만 ㉡ 관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2㉢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3㉣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4㉤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5㉥ 그러 따라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6㉦ 이로부터 관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2 과학적 지식에 대한 관인의 입장

- *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 (가설+기존의 지식+조건) 필요
- * 총체주의: (가설+기존의 지식+조건)의 전체 지식 → 예측 → 경험 → 시험의 대상이 됨.

1

1~2

- * <논리실증주의자 & 포퍼> 모두 동일한 입장으로, 지식을 <경험 관련× / 경험 관련○>으로 구분하는 것이지 <논리실증주의자-경험 관련× / 포퍼-경험 관련○>이 아니다.
- * 첫 문단 첫 문장부터 인물이 두 명 등장? 대개 지문의 첫 문단은 구체적인 핵심 화제를 잡아내는 정도로만 가볍게 보면 되지만 첫 문장부터 인물이 두 명이 제시되면 두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거나 예측해 봐야 한다. 또한 개인(포퍼)과 집단(논리실증주의자)을 구분했다는 것을 통해 <포퍼>는 <논리실증주의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즉각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디에서인가는 차이점이 나올 것임을 염두에 놓고 다음 문장을 차근차근 읽어야 한다.
- * 대립 서술은 '경험과 무관, 경험에 의존'처럼 키워드 다음 부분까지 밀줄 치는 것보다, 키워드 오른쪽에 ○, ×로 표시하는 것이 뚜렷이 인식된다. → (경험×, 경험○) [3-1, 4-1도 마찬가지로]

4

[문제로 가공되기 딱 좋음.]

- *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 예측이 맞거나 /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예측이 맞다면? (논리실증주의자 vs 포퍼) 둘 다 가설을 새 지식으로 추가○
 - 예측이 틀리다면? (논리실증주의자 vs 포퍼) 둘 다 가설을 새 지식으로 추가×
 -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다면? 포퍼만 가설을 새 지식으로 추가○
- * 한 문장에서 비교(논리실증주의자 vs 포퍼)하는 내용이 있으면 정/오 판단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2

1

- * 문단 첫머리의 <하지만>과 같은 반대 접속어가 사용된 문장은 이전 문단의 핵심과는 반대로 흘러갈 것을 나타낸다.
- * <관인>이라는 새 인물이 등장하고 기존 인물과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인물 명 자체가 핵심 키워드가 된다. 앞으로 인물 명(→ 키워드)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해 두면 누구의 진술인지 혼동 없이 정리된다.

2~3

- * 예시가 어렵다? 실전에서 첫 독해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의 흐름과 키워드 파악이므로 핵심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예시는 슬쩍 보거나 아예 건너뛰어도 괜찮다. 첫 독해를 끝내고 문제 풀이 시, 예시가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때 그때 꼼꼼히 봐도 충분하다. 예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시 다음에 나오는 내용(예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다.

4~6

- * 각 문장의 첫 머리가 '이렇게', '그러므로', '이로부터'는 앞 내용의 핵심을 뽑아내는 표지들이기 때문에 꼭 표시를 해 두자. 선지의 정/오 판단에 있어서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4~6의 경우, 2~3의 예시 내용을 정리 및 결론 내어 중심 내용을 뽑아내므로 집중해서 봐야 한다.

3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2** 그러나 **과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3**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4**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6**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7**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8** 따라서 **과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3 과인: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 구분 불가능

* 논리실증주의자 & 포퍼

- 분석 명제: 경험× → 수학적 지식 & 논리학 지식

ㄱ. 동어 반복 명제

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한 것

- 종합 명제: 경험○ → 과학적 지식

* 과인: 종합 명제와 분석 명제 구분을 부정

- 순환론: 분석 명제 → 동의적 표현 → 필연성 → 분석 명제

→ 종합 명제와 분석 명제 구분은 근거 없음.

3

4

* 전자와 후자, 헛갈림 주의!

- 그런데 후자(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한 것-‘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동어 반복 명제-‘총각은 총각이다’)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최שמ의 Q&A

Q <하지만 이것만으로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에서, 주어진 지문만으로 왜 ‘~을 보장하지 못하는지’요?

A ‘국어’와 ‘한국어’를 예로 들면 <나는 국어를 좋아해.> = <나는 한국어를 좋아해.>로 ‘국어 = 한국어’지만 <나는 국어 교사가 될 거야.> ≠ <나는 한국어 교사가 될 거야.>이다. <국어> 교사는 우리나라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지만 <한국어> 교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의적 표현(국어, 한국어)이더라도 그 둘이 항상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그 둘이 항상 반드시 대체 가능하다면 <필연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7

* ㄱ. ‘총각은 총각이다.’와 ‘총각은 미혼인 성인 남성’이 서로 <환원> 가능한 이유는 ‘총각’과 ‘미혼인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

→ <환원 가능: 동의적 표현에 의존>

ㄴ. <동의적 표현>의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연성>이 필요함.

ㄷ. 필연성을 갖춘 <동의적 표현>은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함.

그런데 <필연성>이 <경험과 상관없이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분석 명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결국 <분석 명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분석 명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필연성>의 개념을 설명하는 오류를 범함.

※ <순환론>에 대한 보충

포퍼: ‘총각은 총각이다.’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는 같은 명제야.

과인: 왜?

포퍼: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기 때문이지.

과인: 왜?

포퍼: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을 서로 바꾸어도 필연적으로 의미에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총각은 총각이다.’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는 같은 명제야.

과인: 왜?

포퍼: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기 때문이지.

과인: 왜?

☞ 결국 동일한 물음과 동일한 답이 계속되는 오류를 범함.

최שמ의 Q&A

Q 필연성이 왜 분석 명제에 의존하나요?

A 필연의 개념은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으로 경험과 무관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경험과 무관한 개념인) 분석 명제에 의존한다.

4 **1**과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2**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3**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과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4**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5**그러나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6**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7**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8**그러하여 **과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과인: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상정

- * **중심부 지식(경험과 충돌×)**
 - 견고함, 수학/논리학
 - 경험과 관련 있으면서 멀리 떨어짐.
 - 수정 시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
- * **주변부 지식(경험과 충돌○)**
 - 참, 거짓 쉽게 변화
 - 수정 시 전체 지식 크게 변화×
- *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모두 수정의 대상**
- * **지식의 변화: 개별적 지식의 누적×**

5 **1**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2**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5 총체주의(과인)의 특징과 한계

- * **특징:** 특정 가설의 실용성 인정 → 결정적 반박 피함. → 해당 가설 수용
- * **한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명백히 분석 명제에 해당

4

1

- * <중심부~ vs 주변부~>처럼 대립적 개념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제시된 내용을 파악할 때는 둘의 차이점을 예측 및 정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 * **해석 주의!**
<과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주체는 ‘과인’이 아니라 ‘논리실증주의자 & 포퍼’이다. ‘과인’은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했다.
(☆문장이 길수록 주제와 서술어를 잘 호응시켜야 한다!)

8

- * ‘모두’, ‘절대로’, ‘꼭’, ‘반드시’ 등이 포함된 내용은 부적절 선지가 다양하게 만들어지기 쉬우므로 물결무늬 표시를 해 두자.

5

1~2

- * 한 문단이 두 문장(총체주의 장점+단점)으로 구성되었는데, (총체주의 특성을 진술하는 글의 전체 맥락상) 당연히 앞 문장(1문장)의 장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오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

2

- * <~법칙처럼>과 같이 비유적인 표현은 문장에서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집착할 필요는 없다. 슬쩍 넘어가도 좋다.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나, ‘A가 아닐 수가 없다.’(→ 반드시 A이다.)와 같이 <부정+부정=강한 긍정>의 표현은 꼭 수험생을 헛갈리게 한다. 헛갈리지 말고 <~처럼> 이후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자.
- * ‘총체주의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총체주의는~하지 못해 비판받는다.

11.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17위

#답변_질문 #두 인물의 공통 입장 #지문_선지 간의 변형 #최협의 조언

정답률 72%	선지별 선택 비율				
	① 9%	② 72%	③ 10%	④ 6%	⑤ 3%

정답 풀이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1(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1문단]
- 이로부터 ㉡(과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2(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2문단]

↳ ㉠(논리실증주의자 & 포퍼)와 ㉡(과인) 둘 다 <경험>을 통해 가설을 시험한다(1~2)고 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 있다.

결국 ㉠(논리실증주의자 & 포퍼)와 ㉡(과인)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로, 두 대상의 차이점 서술이 대부분인 비문학 지문에서 공통점이 나온다면 정답이 될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니 눈여겨보아야 한다.

X 오답 풀이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1)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 → (개별적으로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1문단]
- 그리하여 ㉡(과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2)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문단]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과학적 지식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하기(1) 때문에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과인)은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2) 때문에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패턴 공략

♣ 지문-선지 간의 변형 양상을 살펴보면,

(지문: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개별적 지식의 누적)

=(선지 ①: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

최협의 조언

지문-선지 간의 변형 양상을 눈여겨보면, 선지의 정/오 판단 시간이 빨라진다. 비문학 실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단순한 '문제 풀이의 양 치기'는 한계가 있다. 한 문제, 선지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패턴이나 양상을 잘 살펴야 문제 풀이의 감을 높일 수 있다.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1)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1문단]
- 이로부터 ㉡(과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2)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2문단]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지식은 '경험'과 무관한 것(1)을 포함하기 때문에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수 있다.

그러나 ㉡(과인)은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하기(2) 때문에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만 답변할 수 있다.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들(㉠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은 1(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1문단]
- 하지만 ㉡(과인)은 2(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2문단]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예측>을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1)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것이다.

그러나 ㉡(과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2)고 보기 때문에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1(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과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2)이(수학적-과학적 지식)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3문단]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경험과의 관련성에 따라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다른 종류로 구분하기1) 때문에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과인>은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의 구분을 부정하기2) 때문에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최선의 조언

<적절한 것은?>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에 익숙한 수험생이 위 문제와 같은 발문을 만나면 당황할 수 있으나 지문의 첫 번째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자. ㉠과 ㉡의 공통점만을 지문에서 찾으면 끝! 그리고 문제를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바꿔 볼 수 있다. (발문의 '아니요'를 선지의 부정형으로 대입하여 제시)

* 위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지 않는다.
-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없다. (☆정답)
-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없다.
-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같다.

이렇게 바꿔 보는 것이 실제 시험에서는 더 헛갈리고 시간 낭비될 수 있지만, 평소에는 정답을 찾는 다양성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

12.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96위

#공통 선지의 법칙 #이해 #특성 바꿔치기 #출제자의 속임수 #특징 바꿔치기 #최선의 조언

정답률
67%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6% ② 5% ③ 6% ④ 67% ⑤ 6%

정답 풀이

④ **과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러나 <과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그런데 후자가 1<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 (원인: '동의적 표현' / 결과: '분석 명제')~. 2<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3<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3문단]

↳ <과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1)하고, 다시 이(동의적 표현)는 <필연성 개념>에 의존2),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3)한다고 본다.

↳ 2~3)에는 '의존'이라는 말이 직접 나타나 있어 쉽게 적절함을 판단할 수 있지만 1)은 '의존'이 직접 나타나 있지 않아 조금은 고민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의적 표현> → '전자로 환원' → <분석 명제>

<분석 명제>라고 볼 수 있는 근본 원인은 <동의적 표현>에 있기 때문에 <분석 명제>는 <동의적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동의적 표현'이 없다면 '분석 명제'도 존재할 수 없음.) 그래서 <분석 명제>가 <동의적 표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 A(결과)+B(원인) → A는 B를 통해서! → A는 B에 의존

어휘 체크

* 의존: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함.

X 오답 풀이

①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 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2)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 (예측이 맞거나/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는 경우) 3)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1문단]

↳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2)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3)되며 예측이 맞을 경우는 <논리실증주의자>의 주장1)이다.

1등급 가이드

★ 출제자의 속임수 ★

두 학자의 주장을 마치 한 사람이 한 것처럼 선지 ①을 설정한 경우인데, 지문에서 주장, 견해, 입장 등이 나오면 해당 주제(학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리해 두어야 한다.

패턴 공략

- ▶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
→ 포퍼는 <예측이 틀린다면>,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되지 못함.
- ▶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예측이 맞을 경우>
→ 예측이 맞거나/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 <A 하지 않는 한, B 할 수 있다> 문장 구조의 이해
아빠가 화내지 않는 한, 게임을 할 수 있다.
→ 아빠가 화내면, 게임을 할 수 없다.
→ 아빠가 화내지 않으면, 게임을 할 수 있다.
→ 아빠가 아무 반응이 없어도, 게임을 할 수 있다.

②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1)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2)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3문단]

↳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 아니라, “총각은 총각이다.”로 환원할 수 있어서인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2)이다.

③ 콰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1)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2)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3문단]

↳ <경험과의 관련성 여부>로 지식(분석 명제 & 종합 명제)을 다르게 구분한 이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1)이므로 <관찰과 실험의 의존성 여부>로 지식을 다르게 보고 있는 이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이다. <콰인>은 지식(분석 명제 & 종합 명제)의 구분(→ 다름)을 부정하는 입장이다.2)

🌀 패턴 공략

▶ 지문에 A, B 두 대상과 그 특징이 나타나면 이 둘의 특징을 바꿔치기한 부적절 선지는 반드시 나온다.

⑤ 콰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1)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2)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3)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3문단]

↳ <콰인>은 <동어 반복 명제>가 성립하기3) 위해서는, 두 대상의 동의적 표현1)을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2)

Tip 실전 풀이

♣ 누구의 말이나 생각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3문단은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콰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구분해 주어야 한다.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여기서부터 3문단 끝까지는 ‘콰인’의 판단에 해당)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3문단]

★ 공통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위 문제의 선지 ④, ⑤는 핵심어(콰인, 명제)가 공통된다.

- ④ 콰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정답)
- ⑤ 콰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선지 ④, ⑤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최선의 조언

긴 지문에 문제의 선지마저 길다. 이런 조건에서 지문과 선지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 문제는 정말 최악이다! 지문과 문제를 왔다 갔다 하는 안구 운동을 통해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남들보다 신속하게 정답을 찾기 위해 평소에 연습과 전략이 많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 시험에서 어떤 긴장이 있는 조건에서도 순간적으로 발휘된다. 지문과 선지가 길수록 단순화하고 큰 흐름으로 먼저 바라보자.

- * 선지는 콰인(③~⑤)과 콰인이 아닌 사람(①~②)으로 구분된다.
- * 지문에서 1문단을 제외하고 모두 콰인의 입장이 나온다.
- * 통계적으로 내용 일치형 문제는 선지 ①, ②에 정답 분포율이 낮으므로, 선지 ③부터 보는 것이 좋다.
- * 공통 선지의 법칙을 감안하여 선지 ④, ⑤를 집중해서 살펴본다.

13.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74위

#입장 #평가 #3점 #유용한 팁 #지문-선지의 대응 양상 #최선의 Q&A #끝 문단이 중요하다

정답률 61%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6%	③ 14%	④ 14%	⑤ 61%

정답 풀이

⑤ ㉞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
 ㉞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
 ㉜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
- 그런데 1)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2)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4문단]
- <총체주의>는 3)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4)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그와 같은 5)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6)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끝 문단]

지문 POINT

※ <총체주의>의 입장: '반박'이 있더라도3) '가설' 수용 가능6)

↳ <총체주의>의 입장을 선지 ⑤와 관련지어 보면,
 ⇒ ㉞<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1) 즉 ㉠<가설>에 대한 결정적 <반박>이 있더라도3) ㉜<전체 지식>을 수정하는 방법2, 5)으로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6)고 할 것이다.

- 선지와 지문의 대응성을 정리해 보면,
- * ㉞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 결정적 반박1)
 - * 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 반박을 피하는 방법2, 5)
 - * ㉠을 받아들일 수 있다. → 가설 수용6)

오답 풀이

① ㉞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
 ㉞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
- 그러므로 1)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2)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문단]

↳ ㉞<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1)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2) 그래서 ㉠<가설>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한다.

② ㉞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㉜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

[정답 지문 참고]

↳ ㉞<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1) ㉜<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2)는 실용적 필요4)에 따라 달라진다.

③ ㉞는 ㉠와 ㉜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
 ㉞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
 ㉜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
- 이렇게 1)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2문단]

↳ ㉞<예측>은 ㉠<가설>과 ㉜<전체 지식>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1)된다.

④ ㉞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㉞는 ㉜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㉞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
 ㉜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
- 그런데 1)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2)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4문단]

↳ ㉞<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2) ㉞<예측>은 ㉜<전체 지식>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1)한 것이다.

패턴 공략

- ♣ 지문-선지의 대응 양상
- * <주변부 지식> & <경험>의 충돌
 → <전체 지식의 주변부> & <경험>의 충돌

최선의 Q&A

Q ㉞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㉞가 꼭 ㉜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건가요? 지문을 보면 콰인은 가설+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가설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A 해당 지문(2문단)의 문장을 잘못 해석했다. <가설+전체 지식>이 아니라, 가설도 포함한 <전체 지식>이다. 즉 전체 지식 안에 가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가설과 전체 지식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2문단]
 → <전체 지식: 가설뿐만 아니라~모두 포함>

Tip 실전 풀이

★ 끝 문단이 중요하다!

끝 문단은 글 전체의 내용을 정리, 요약, 강조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인물이 행한 가치 있는 일이 요약된) 견해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비문학에서 주제와 긴밀한 것은 물론 인물의 업적 및 견해, 글쓴이의 생각, 관점, 강조 사항, 당부, 가치관, 입장 등과 관련된 것을 물으면 정답의 핵심 근거는 지문의 끝 문단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다음 문제들은 정답의 근거가 모두 끝 문단에 있다!

- *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 수능)
- * ~키르히호프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14 수능)
- * ~포퍼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3 수능)
- *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가장 적절한 것은? (2011 9월 평가원)
- * 글쓴이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008 9월 평가원)

14.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58위

#공통 선지의 법칙 #비판_비난 #비판 문제의 부적절 선지 유형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57%	① 16%	② 9%	③ 9%	④ 9%	⑤ 57%

정답 풀이

- 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1)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2)과인(총체주의의 입장)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3)<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4문단]

- ↳ <총체주의>의 입장인 <과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1)고 하면서 서로 같은 종류라고 말한다.2)

그렇다면 같은 종류이므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든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든 전체 지식의 변화도 같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3)고 말한다.

이는 두 지식 간에 차이가 있다는 여지를 남기므로,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는 선지 ⑤의 비판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렇게 1)<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2)<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과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2문단]

📌 지문 POINT

※ <총체주의>의 입장을 강화

- ↳ <총체주의>에서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1)되며 이에 따라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2)

그래서 선지 ①에서 예측이 경험과 충돌(→ 거짓 판정)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꼭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총체주의>의 입장을 강화한다.

- ② 논리학 지식이거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과인(총체주의)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1)<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4문단]

📌 지문 POINT

※ <총체주의>와 동일한 입장!

- ↳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1)라는 것은 <총체주의>의 입장에 해당한다.

- ③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끝 문단]

해법 POINT

※ <총체주의> 자체를 잘못 이해함!

↳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지식>이 아니라 <특정 가설>이다. 1) <총체주의>를 잘못 이해한 선지 ③은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 어떤 대상(총체주의)을 비판하려면 일단 대상(총체주의)을 정확히 제시하고 이를 부정하거나 반대의 맥락으로 비판해야 하는데 ③은 대상(총체주의) 자체를 잘못 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1)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2)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4문단]

해법 POINT

※ <총체주의>를 잘못 이해하거나 <총체주의>의 입장을 강화할 여지가 있음!

↳ ㄱ. <총체주의>를 잘못 이해함!

- *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총체주의>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다1)라고만 언급했을 뿐,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한 적이 없다.

↳ ㄴ. <총체주의>의 입장을 강화할 여지가 있음!

- *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겠지만>
-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2)하고 이에 따라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한다.
- *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기1)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패턴 공략

♣ 대상에 대한 비판 문제의 부적절 선지 유형

- 대상의 특성 자체를 잘못 제시한 경우
- 대상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
- 대상의 입장을 긍정 혹은 강화하는 경우

발문과 선지 유형을 다양하게 많이 익혀 두면 정답을 찾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질 것이다.

★ 공통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위 문제의 선지 ④, ⑤는 <중심부 지식, 주변부 지식>이 공통된다.

- ④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 (☆정답)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선지 ④, ⑤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최선의 조언

지문에 꼭 밑줄을 치면서 읽어야 하나?

지문은 독서하듯 눈으로만 읽는 대상이 아니다. 지문은 읽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문제의 정/오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쉬운 지문일 때는 그냥 3~4개의 적당한 표시로 해결될지 모르나, 어려운 지문일 때는 상황이 다르다. 복잡하고 정보량이 많은 지문에서 아무런 표시도 없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푼다면, 문제를 대할 때마다 지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하지만 지문에 주체, 대상, 키워드, 빈출 항목, 문맥의 흐름 등 적절한 표시를 해 두면 선지의 정/오 판단의 근거를 찾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때 표시를 하는 시간은 독해의 속도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

독해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표시를 할 때마다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은 처음엔 쉽지 않다. 지문 표시+독해 속도 유지+머릿속에 입력, 이 3박자를 갖추기 위해서는 꾸준히 연습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도 N회독은 필수이다.

지문 난이도 ★★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20~23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35위

01 ~ 04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

1 [가]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1 유비 논증의 개념 & 동물 실험의 유효성 논쟁

- * 유비 논증: 유사한 두 대상에서 한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
→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도출

2 [나]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2 유비 논증의 활용: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

- * 인간 & 실험동물의 유사성 →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줌.

3 [다]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라 한다.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은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3 유비 논증이 개연성을 갖기 위한 조건

- * 유비 논증의 개연성: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
→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하며, 이러한 유사성이 클수록 일수록 개연성이 높음.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1~2

* 개념(유비 논증) 설명이 연속될 때, 대개 앞 문장은 포괄적이고 뒤 문장은 구체적이다. 구체화된 내용으로 본문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뒤의 내용 핵심에 좀 더 집중하자. 다른 문단의 경우 첫 문장의 개념 및 특성 제시는 중요하지만 첫 문단 첫 문장의 경우는 슬쩍 봐도 상관 없다.

3

* 첫머리의 <특히>는 포괄적인 앞부분의 내용을 좁혀 주고 구체화해 주는 표지이다.
*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두 가지(~주장 & ~비판)가 본문에서 나올 것임을 예측 및 구분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 이때, 순서는 당연히 '~주장'이 먼저이고 '~비판'이 나중이다.

2

1

* '~때문에~': 원인+결과 구조.
*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 그렇다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반대하는 쪽도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3

3~4

* 예시는 이미 제시된 핵심 진술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꼼꼼하고 완전하게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문제 풀이 시 제대로 봐도 충분하다.

4 [라] 1 그러나 ㉠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 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2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3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 4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5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4 유비 논증의 잘못된 적용을 근거로 동물 실험 반대

*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이유

-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의 유사성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
-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음.

5 [마] 1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2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5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의 문제와 유비 논증 차원의 비판

*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음.

* 동물도 고통을 느낌. →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함.

4

1

* 문단 첫 문장 첫머리의 <그러나>와 같은 대립 접속어는 이전 내용의 핵심을 부정하거나 반대로 이끈다. 더불어 이전 내용을 보지 않고도 추측할 수 있게 해 준다.

*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 그렇다면, 두 번째 내용이 시작되는 곳 바로 이전에 사선을 표시해 두면 구조화가 쉬워진다.

5

1~2

* <결과+원인>의 구성. '~때문이다'가 나오면 관계를 잘 살피자. 인과 관계를 따져 보는 일은 국어 공부에서 논리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첫걸음이 되는 공부이다.

01.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10위

#이해 #비난_비판 #개념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69%	① 2%	② 3%	③ 10%	④ 16%	⑤ 69%

정답 풀이

⑤ (마):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갖는 현실적 문제들을 유비 논증의 차원을 넘어서 살펴보고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마]

•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1)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 결국 2)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이 갖는 현실적 문제들을 유비 논증의 차원(1~2)에서 살펴보고 있다.

👁️ 윤리적 문제를 다룬 부분은 유비 논증의 차원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나 2)처럼 일관되지 않게 쓰였다는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유비 논증'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는 셈이다.

오답 풀이

① (가):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하고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가]

• 1)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 특히 2)의학적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

↳ <유비 논증>의 개념(1)과 유용성(2)을 소개하고 있다.

Tip 실전 풀이

▶ 대상의 개념 설명은 보통 '~은 ~이다'의 형식을 보인다. 선지에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문에서 일단 조사 '~은(는)'이 있는 말에 집중하자! (2016 수능에 '개념'과 관련된 정/오 판단 문제가 2문제나 출제됨.)

패턴 공략

▶ 지문: '유효하다' → 적절 선지: '유용성'

어휘 체크

- * 유효하다: 보람이나 효과가 있다.
- * 유용성: 소용에 달고 이용할 만한 특성.
→ 보람이나 효과가 있으니 이용할 만하다.

② (나):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에 유비 논증이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나]

• 1)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

↳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에 <유비 논증>이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패턴 공략

▶ 지문: A를 활용한 B → 적절 선지: B에 A가 활용됨.

③ (다): 동물 실험을 예로 들어 유비 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다]

•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1)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2)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 동물 실험을 예로 들어 유비 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한 조건(1~2)을 설명하고 있다.

④ (라):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유비 논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라]

•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1)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2)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유비 논증'을 잘못 적용(1~2)하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바탕 지식 더하기

※ <비난 vs 비판>에 대해 알아보자!

-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할. 👁️ (부정적)
-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할. + 원인 혹은 대안을 제시함. 👁️ (긍정적)

02.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70위

#주론 #선지 오류의 법칙

정답률 6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4%	② 25%	③ 8%	④ 3%	⑤ 60%

✓ 정답 풀이

⑤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마]

•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1)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 오답 풀이

①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다]

•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1)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2)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고1), 이때의 유사성은 새로운 정보와 관련이 있어야2)한다.

②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 논증에 의해 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라]

• 1)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2)<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 인간 자신은 직접 고통을 느끼지만1)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만 <유비 논증>에 의해 알 수 있다.1~2)

★ 선지 오류의 법칙 ★

(자세한 내용 9쪽 참고)

②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 논증에 의해 안다.

☞ 인간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그냥 감각에 의해 아는 것이지 어떤 학문 이론에 의해 아는 것이 아니다. 이는 지문, 문제와는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②는 다음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이라면 100% 정답이 된다.

자체 오류의 선지는 부정형 발문에서 지문을 보지 않고도 100% 정답이 되며 이런 선지가 수능에 자주 출제되었다.

③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춘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다]

•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1)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1) 그래서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

TIP 실전 풀이

☞ 이전과는 반대 맥락의 내용이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근거 지문으로 많이 활용되니 지문에서 '반면', '그러나', '하지만' 등의 표지어가 나오면 그 이후의 내용에 더욱 집중하자.

④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나]

• 유비 논증을 활용해 1)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2)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주기2) 때문에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1)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있는 정보이다.

패턴 공략

▶ 지문: 원인 A+ 결과 B → 부적절 선지: A와 B는 상관없음.

03.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61위

#비난 비판 #실전 풀이 Tip

정답률 8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6%	② 4%	③ 80%	④ 7%	⑤ 3%

정답 풀이

③ ㉠은 ㉡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과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점 중 전자에만 주목한다고 비판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라]

-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1)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2)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 ㉡이 주목하지 않음.)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만 주목(1)하고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는 주목하지 않는다(2)고 비판한다.

오답 풀이

① ㉠과 ㉡은 모두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면 인과적 메커니즘도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라]

-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1)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다고 해도 인과적 메커니즘은 다를 수 있다(1)고 생각한다.

② ㉡이 ㉠의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다]

-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라 한다.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1)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1) 때문에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된다는 선지 ㉡는 적절하지 않다.

④ ㉠은 ㉠과 달리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지 않으면 동물 실험 결과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라]

-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1)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더라도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1)에 주목하지 않으면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⑤ ㉡은 ㉠과 달리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라]

-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1)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동물도 똑같이 고통을 느낌.)

↳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기능적으로 유사(1)하다고 생각한다.

Tip 실전 풀이

선지에서 주체가 다른 대상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단순히 주체의 설명만을 먼저 따져 보면 대개 정/오가 판단된다.

② ㉡이 ㉠의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된다.

→ (주체인 ㉡을 먼저 따져 볼 것) ⚡ 부적절성 판단!

④ ㉠은 ㉠과 달리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지 않으면 동물 실험 결과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주체인 ㉠을 먼저 따져 볼 것) ⚡ 부적절성 판단!

⑤ ㉡은 ㉠과 달리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주체인 ㉡을 먼저 따져 볼 것) ⚡ 부적절성 판단!

04.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5위

#보기 제시 #3점 #최솟값의 Q&A

정답률 3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4%	② 34%	③ 3%	④ 4%	⑤ 55%

정답 풀이

② a: 가 b: 다 c: 나

66 지문 속근거 찾기

[가]

-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 <보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 ㉡실험동물)는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 ㉣반응 결과)이 있다.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 개와 ㉤비슷하게 생긴(→ ㉥유사성) ㉦다른 개(→ 적용 대상인 '인간')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 ㉠<어떤 개>와 ㉦<다른 개>는 <비슷하게 생긴> 유사성이 있기에 ㉠<어떤 개>의 추가적 특성(㉢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다른 대상(㉦다른 개)에게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기 때문이다.

☞ ㉦<다른 개>가 <적용 대상으로서의 인간>에 대응되는 이유는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나)의 지문에 따른 것이다.

최솟값의 Q&A

Q 3문단에서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것의 유사성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의 ㉤'비슷하게'와 어떻게 대응되나요?

A <유사성이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은 아니>라고 한 것은 (비슷함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비슷함을 넘어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개연성이 높아짐을 말하려는 것이다.

메모

05 ~ 08 귀납의 논리적 한계

1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2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3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한다.

1 귀납의 개념과 특성
* 귀납: (연역 제외)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추론
* 귀납의 지식 확장: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지식 확장적) → (논리적 한계)

2 1먼저 흄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3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4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2 귀납의 논리적 한계 ①-귀납의 정당화 문제
* 흄: 귀납의 정당성을 위해, <미래=과거>인 자연의 일양성을 가정
* 귀납의 정당화 문제: 자연의 일양성은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함. → 그 지식은 다시 정당화되어야 함. → 순환 논리에 빠짐.

1

1 * ‘즉’, ‘다시 말해서’, ‘곧’ 등은 앞의 내용을 정리한다는 표시어이다. 한 문장 안에서 이들 이후의 문장이 포인트이므로 여기에서 키워드를 찾아 밑줄을 긋는 것에 무게를 두자. [2-1도 마찬가지로]

2~3

* 귀납의 장점이 단점보다 많이 서술되어 있지만 서술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첫 문단의 끝 문장으로 배치되어 핵심 화제가 되느냐이다. 여기에서는 바로, 귀납의 한계이며 글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a. 대상(귀납)의 단점에 대한 구체적 내용(2, 4 문단)
b. 대상(귀납)의 단점을 보완하는 내용(2, 3, 5 문단)
c. 대상(귀납)과 비교되는 다른 대상의 제시(해당 없음.)

3

* ‘이’,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 가는 지시 대명사(이~, 그~)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4-2, 5-2·3·5·6도 마찬가지로]

2

1 * 차례를 나타내는 표시어 ‘먼저’는 이후에도 <또 다른 인물이 귀납의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3 문단: 라이헨바흐의 귀납 옹호)

* 문장이 길다면 심표에서 한 번 흐름을 끊어 주자.
* 지문 초반에 인물 명이 등장하면 인물별로 글이 전개될 수 있으니 동그라미를 쳐 두자.

2

*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등 전환 및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면 주의를 필요하므로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절하다. [5-1·6도 마찬가지로]

3

* 긴 문장에서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가 보이고 그 이전이 길다면, 그 이후의 결과를 나타내는 쪽에서 키워드를 뽑는 것이 좋다.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 ‘즉’은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쉽게 정리해 준다.

3 1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체책을 제시한다. 2**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3**먼저**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그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4[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인한다. 5**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3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라이헨바흐의 논증

- * 자연의 일양성: 경험에 따르면, 귀납은 성공적인 방법
- * 자연의 비일양성: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
- *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

→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

4 1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2**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3**가령**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4**예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5**다음**에 발견될 점을 예측할 때, 기존에 발견된 점들만으로는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없다. 6**아무리** 많은 점들을 관찰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4 귀납의 논리적 한계 ②-미결정성 문제

- * 미결정성: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 불가

3

1

- * 새 인물(라이헨바흐)이 등장하면, 이전 인물(홍)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홍: 문제 제기, 라이헨바흐: 문제 해소)

3~4

- * 대립적인 배경이나 조건이 첫머리에 있다면 괄호 표시를 해 놓자. 대립쌍이라는 시각적 효과가 뚜렷하고 서술 내용 중 키워드 비교도 수월할 것이다.

5

- * '결국'은 이전 내용을 아우르고 종합하여 서술할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4

1

- * '미결정성'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이 등장. 일단 <미~결정~성>, 말 그대로 '결정을 못하는 성질' 정도는 다음 문장을 읽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상기시킬 수 있어야 다음을 송송 스피드하게 읽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점이 나왔으니 그 문제점 해결에 관한 내용이 어디인가(문단 내 or 다음 문단)에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2

- * '관찰 증거만으로는'에서 무엇을 한정하는 보조사 '만'이 사용되면 주시해야 한다. 그 한정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절 선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 부정적 진술은 밑줄× 표시가 효과적이다. (더 나은 것으로 결정×)

[5 -2·6도 마찬가지로]

3~6

- * 예시(가령~)가 문단의 초반쯤에 등장하면 이미 핵심은 이전에 나왔다는 사실. 예시와 그 관련 내용은 이전의 핵심 내용을 보충 및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슬쩍 넘어가는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야 한다. (시간 및 집중력 절약의 효과↑) 문장 6도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문장 1 핵심의 반복이다.

(☆독해의 집중력은 신정보에는 강으로, 구정보에는 약으로 조절해라.)

5 그러나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2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려 한다. 3이에 따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4또한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5이처럼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는다. 6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5 미결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현대 철학자들의 노력

* 귀납의 미결정성 해결의 시도점

-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 강조
-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
- 하나의 가설(예측)이 다른 가설(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 → 확률 논리의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맞음.
- 귀납이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 그 지위를 지킬 만함.

5

1
* 문단이 전환되는 첫머리의 반대 접속어(그러나)는 문맥 흐름의 큰 변화를 나타내기에 큰 삼각형 표시가 제격이다. 이 문장만으로도 이전 문단의 내용(미결정성의 문제)을 추측해 볼 수 있다.

2
* <확률 & 개연성>과 같은 신정보는 키워드이므로 밑줄. 앞으로 이 어휘에 주목해야 한다.

5
* '직관'은 신정보이므로 동그라미로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

3, 5, 6
* '이에 따르면', '이처럼', '이러한' 등의 첫머리는 앞의 내용과 연관 지어 새롭게 진술하는 표지이므로 문장의 중요도는 동등하다.

05.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17위

#내용 전개 #병렬적 #역사적 #끝 문단에 주목 #최협의 조언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6%	① 3%	② 1%	③ 5%	④ 5%	⑤ 86%

정답 풀이

㉔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㉔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1)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한다. [1문단]
- 이것이 2)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2문단]
-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 3)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체책을 제시한다. [3문단]
- 4)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4문단]

➡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1, 2, 4)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3)을 검토하고 있다.

Tip 실전 풀이

★ 내용 전개 문제는 끝 문단에 주목하라!

☞ 지문의 끝 문단은 처음-중간의 내용을 정리 및 요약한다. 이를 통해 대부분 글의 전개 방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 지문 전체를 검토할 수 없을 때, 혹은 지문을 모두 검토해도 정답의 근거가 잘 안 보일 때 끝 문단 특히 첫 문장 혹은 끝 문장에 주목하라! 이 부분과 대응성이 높은 선지가 내용 전개 문제의 정답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끝 문단 첫 문장] 그러나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 끝 문단 첫 문장만으로도 이전 문단의 내용을 읽지 않고도 귀납의 문제점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귀납', '문제'가 포함된 선지를 ②, ⑤로 추려 볼 수 있다.

② 귀납이 지닌 장단점을 연역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⑤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정답)

[끝 문단 끝 문장]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귀납의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끝 문장을 통해 해결과 관련된 어휘가 있는 선지 ⑤가 정답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 실제 정답이기도 하다.

(2018 수능) 전개 방식 문제 · 1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끝 문단]
→ (목적론의 의의)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정답)

(2016 수능) 전개 방식 문제 · 2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끝 문단 끝 문장]

⇒ ③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정답)

X 오답 풀이

① 귀납에 대한 흐의 평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1)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2문단]

↳ 귀납에 대한 흐의 평가1)는 2문단에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평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 병렬적은 나란히 늘어서는 방식으로 평가가 총 두 번 이상은 나와야 병렬적으로 소개된다고 볼 수 있다.

패턴 공략

▶ 사례가 딱 한 번만 나오면 ‘병렬’, ‘나열’, ‘열거’, ‘반복’ 등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② 귀납이 지닌 장단점을 연역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1문단]

↳ <연역>은 <귀납>을 정의하기 위해 지문을 통틀어 한 번 언급1)되었지만 귀납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귀납의 위상이 격상되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 귀납 위상의 격상과 그 과정의 역사적 고찰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패턴 공략

▶ 역사적 고찰이 지문에 나와 있다면 ‘시간’과 관련된 표현 혹은 ‘시대’를 알 수 있는 표현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④ 귀납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을 상호 비교하고 있다.

↳ 귀납의 다양한 유형이 소개된 것이 아니라, 귀납의 논리적 한계를 두 가지 소개할 뿐이다.

최선의 조언

시간 단축이 생명이다

정답률이 높은 문제를 그저 평범하게 남들과 동일하게 맞추기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누구에게나 쉽다면 신속하게 최소한의 근거만으로 정답을 골라내거나 과감히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선지와 지문을 오가는 재빠른 눈알 굴림과 요령이 필요하다. 『총만국』에서는 실전 시험 시간을 1초라도 단축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총망라했으니 어느 하나도 빼먹지 말고 살펴보길!

06.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28위

#대립 선지의 법칙 #전체 이해

정답률 88%	선지별 선택 비율				
	① 88%	② 2%	③ 2%	④ 7%	⑤ 1%

정답 풀이

① 많은 관찰 증거를 확보하면 귀납의 정당화에서 나타나는 순환 논리 문제는 해소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1)(<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귀납 자체의 2)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한다. [1문단]

•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3)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2문단]

↳ 많은 <관찰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니기1) 때문에 <귀납의 정당화>에서 나타나는 <순환 논리>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2~3)

패턴 공략

▶ 지문: A 하더라도 B는 안 됨. → 부적절 선지: A 하면 B가 가능

✕ 오답 풀이

② 직관에 들어맞는 확률 논리라 하더라도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처럼 1<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는다. 이러한 시도는 2<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끝 문단]

↳ <직관>에 들어맞는 <확률 논리>1)라 하더라도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2)

③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은 귀납을 옹호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에 따르면 1<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끝 문단]

↳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표현1)할 수 있다는 입장은 귀납을 옹호한다.

④ 흄에 따르면, 귀납의 정당화는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먼저 <흄>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1<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연결같은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즉 2<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3)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2문단]

↳ <흄>에 따르면, 귀납의 정당화1~2)는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3)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

⑤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론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1문단]

↳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론1)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 패턴 공략

▶ 지문: A 하는 B → 적절 선자: B는 A를 하다.

★ 대립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6쪽 참고)

- ① ~순환 <논리 문제>는 해소된다. (긍정) ✎ (☆정답)
- ②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해결하지 못한다. (부정)

논리 문제 해결에 관해 (①: 긍정 ⇔ ②: 부정)으로 선지가 1 대 1 대립을 이루어, ①, ② 중 정답이 있을 확률은 70% 이상이 된다.

07.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46위

#평가 #의의 #선형적 #인물 #최협의 조언

정답률
77%

선지별 선택 비율

① 4%	② 5%	③ 7%	④ 7%	⑤ 77%
------	------	------	------	-------

✓ 정답 풀이

⑤ 귀납이 현실적으로 옳은 추론 방법임을 밝히기 위해 자연의 일양성이 선형적 지식임을 증명한 데 의의가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먼저 1<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그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결국 2)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3<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4)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3문단]

↳ 라이헨바흐는 <귀납>이 현실적으로 옳은 추론 방법임3~4)을 밝히기 위해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2)을 전제했다. 그리고 <자연의 일양성>은 경험에 따른 것(→경험 이후)으로 보았기1)에 <선형적> 지식임을 증명한 것은 아니다.

✓ 어휘 체크

* 선형적: 경험 이전에, 인식의 주관적 형식이 인간에게 있음.

🔍 패턴 공략

▶ 지문: A는 B와 C에 해당 → 부적절 선자: A는 B에만 해당

✕ 오답 풀이

① 귀납이 지닌 논리적 허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1<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3문단]

↳ <귀납>의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일 뿐이기 때문에 귀납이 지닌 논리적 허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②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지하려는 목적에서 시도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1)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제책을 제시한다. [3문단]

↳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지하려는 목적에서 시도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③ 귀납과 다른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경험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모두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먼저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그는 지금까지의 1)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2)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인한다. [3문단]

↳ 귀납과 다른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경험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모두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④ 귀납과 견주어 미래 예측에 더 성공적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귀납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1)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인한다. [3문단]

↳ 귀납과 견주어 미래 예측에 더 성공적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귀납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

바탕 지식 더하기

- ※ <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 긍정 평가: 대상에 대한 가치, 특징점, 의의, 효과, 활용...
 - 부정 평가: 대상에 대한 단점, 낮은 발전 가능성, 역효과...
-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 대상에 대한 정확한 특징을 바탕으로 긍정 혹은 부정 평가가 이루어진 것을 찾기
-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대상에 대한 정확한 특징을 바탕으로 긍정 혹은 부정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찾기
 - 대상에 대한 특징 자체를 잘못 파악하여 이루어진 모든 평가 내용 (정답 ⑤에 해당!) ☞ 수능 평가 문제의 대부분에 해당

최선의 조언

'~에 대한 평가'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일단 라이헨바흐가 있는 곳은 3문단뿐이라서 비교적 쉽게 정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정답의 근거 탐색이 이전 문제보다 짧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실제 시험 시, 두 문제 중 이번 문제를 먼저 보아야 한다.) 이 문제의 발문을 읽고 라이헨바흐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지문을 처음부터 봤다면 시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문학 지문은 첫 독해 시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눈에 띄도록 꼭 적절한 기호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인물의 무엇'에 대한 평가 문제는 보통 '인물의 무엇'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의 판단으로 쉽게 정답이 추려진다. 위 문제의 경우도 다른 선지는 제쳐 두더라도 ⑤는 '라이헨바흐'의 논증에 대한 설명 자체가 잘못되었다.

08.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98위

#대립 선지의 법칙 #3점 #보기 제시 #입장 추론 #개연성

정답률 8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4%	② 3%	③ 3%	④ 6%	⑤ 84%

정답 풀이

⑤ B는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C이기 1년 전에 60°C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L)을 (ㄱ)보다 더 나은 예측으로 채택하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 A와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한다. 하지만 귀납의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A는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B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문제는 2)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4문단]

↳ <보기>에서 B의 입장은 '미결정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1)로 이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2)는 것과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정보를 추가로 얻는 것과 상관없이, B가 (L)을 (ㄱ)보다 더 나은 예측으로 채택(→ 결정)을 한다는 선지 ⑤는 적절하지 않다.

X 오답 풀이

① A와 B는 둘 다 과학자들이 예측한 (ㄱ)과 (L)이 모두 기존의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보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1)A와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한다.

- 2)<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1문단]

↳ A와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1)하므로 (ㄱ)과 (ㄴ)이 모두 기존의 관찰 근거2)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패턴 공략

▶ 지문: A는 B의 특성이 있다. → 적절 선지: C는 A이니까 B의 특성이 있다.

② A는 (ㄱ)과 (ㄴ) 중 하나가 더 나은 예측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하지만 귀납의 1)<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A는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 또한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2)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 문단]

↳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A는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1)는 입장이다. 이는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2)는 것이다. 그래서 A는 (ㄱ)과 (ㄴ) 중 하나가 더 나은 예측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 패턴 공략

▶ 지문: A는 B의 입장이다. → 적절 선지: C는 A의 입장이기 B의 입장과도 같다.

③ A는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이기 1년 전에 90℃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ㄱ)이 옳을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하지만 귀납의 1)<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A는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 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2)<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려 한다. 3)이에 따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4)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 문단]

↳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A는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1)이다. 그리고 <확률>로 <개연성>을 설명

할 수 있으며2~3) <확률적 근거>로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4)

그래서 표면 온도가 100℃이기 1년 전에 90℃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1년 뒤에도 10℃가 높아져 150℃일 것이라는, (ㄱ)이 옳을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어휘 체크

* 개연성: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 '확률'과 정비례

④ B는 (ㄱ)에 대해서 가능한 예측이라고 할지언정 (ㄴ)보다 더 나은 예측이라고 결정하지는 않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1)A와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한다. 하지만 귀납의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A는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2)B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문제는 3)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4문단]

↳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1)하기에 (ㄱ)에 대해서 가능한 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B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2)이기에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어3) (ㄱ)이 (ㄴ)보다 (혹은 반대이더라도) 더 나은 예측이라고 결정하지는 않는다.

🔍 패턴 공략

▶ 지문: A는 B의 입장이다. → 적절 선지: C는 A의 입장이기 B의 입장과도 같다.

★ 대립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6쪽 참고)

* 위 문제는 B를 주체로 더 나은 예측의 결정에 관해, (④는 부정적 ↔ ⑤는 긍정적)으로 선지가 1대 1 대립을 이룬다.

④ B는~더 나은 예측이라고 결정하지는 않겠군. (부정)

⑤ B는~더 나은 예측으로 채택하겠군. (긍정) 🗳️ (☆정답)

그래서 지문 및 문제와 상관없이 선지 ④, ⑤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09~11 장자의 물아일체 사상

1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을 만큼 즐겁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 깨어난 장자(莊子)는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자신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한다. 2이 호접몽 이야기는 나를 잊은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물아일체(物我一體) 사상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3이 이야기 외에도 장자에는 '나를 잊는 다'는 구절이 나오는 일화 두 편이 있다.

1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와 물아일체 사상
* 호접몽 이야기: 나를 잊은 상태를 묘사 → 결론: '물아일체'

2 하나는 장자가 타인의 정원에 넘어 들어갔다는 것도 모른 채, 기이한 새의 뒤를 흘린 듯 쫓는 이야기이다. 2여기서 장자는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3이 때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 4이런 마음은 맹목적 욕망일 뿐이어서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롭다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격하게 된다.

2 '나를 잊는다'와 관련된 일화 1
* 새를 쫓는 이야기: '나를 잊을 만큼' 고도의 몰입(대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님.) → 과도한 집착 → 감각적 체험을 과장, 왜곡, 배격

3 다른 하나는 "스승님의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습니다."라는 말을 제자에게 들은 남곽자기(南郭子綦)라는 사람이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라고 대답한 이야기이다. 2여기서 '나 자신'은 마음을 가리키며, 마음을 잊었다는 것은 불꽃처럼 마음속에 치솟던 분별 작용이 사라졌음을 뜻한다. 3달리 말해,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며 흔히 명경지수(明鏡止水)의 비유로 표현되는 정적(靜寂)의 상태를 뜻한다. 4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나를 잊는다'와 관련된 일화 2
* 남곽자기의 이야기: ('나를 잊음' = 분별 작용× = 정적의 상태) →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 가능

1

1 * 시간 제한적인 실전 시험에서 똑같은 집중력(에너지)과 마인드로 지문의 모든 문장을 접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적절한 에너지의 완급 조절도 필요하다. 주체(장자)를 수식하는 말(나비가~깨어난)이 길어 문장이 전체적으로 복잡하다면, 수식하는 말은 슬쩍 보고 주체부터 제대로 읽어도 괜찮다. 수식하는 말은 중심을 꾸미는 말일 뿐, 핵심이 아닌 보조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3 * 첫 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 내용을 예고한다. 앞으로 일화 두 편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2

1 * <하나는>이라는 말을 통해, 첫 번째 일화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일화는 동일한 문단 혹은 다음 문단에 나타난다. 다음 문단의 첫머리를 신속하게 슬쩍 살펴보고 두 번째 일화가 시작되는 표지가 있다면 메모를 해 두면 지문 전체의 구조 파악이 쉬워진다.

4 (* 있는 그대로 수용× ↔ 있는 그대로 수용○)과 같이 대립적인 표현은 언제나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오답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가 짝을 이루는 밑줄을 긋고 ○, ×를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3-3도 마찬가지로]

3

1 * <다른 하나는>이라는 말을 통해, 두 번째 일화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일화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일화가 시작되는 곳에 밑줄 등의 표시를 해 두면 지문 전체의 구조 파악이 쉬워진다.

2, 4 * 2-4와 마찬가지로 (분별 작용× ↔ 있는 그대로○)와 같이 서로가 짝을 이루도록 밑줄을 긋고 ○, ×를 표시해 둔다.

4 1그렇다면 첫째 이야기에서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고 둘째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참된 자아를 잊은 채 대상에 탐닉하는 식으로 자아와 세계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대상에 꼼짝없이 종속되어 괴로움이 증폭된다고 장자는 생각한다. 3한편 편협한 자아를 잊었다는 것은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나를 잊는다'와 관련된 일화의 자아 상태

- * 일화 1('참된 자아'를 잊은 것): 대상에 종속 → 괴로움 증폭
- * 일화 2('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남. →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

5 1장자는 이 경지를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한다. 2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3예컨대, 내가 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꽃을 응시하면 그 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되고 나로 인해 그 꽃 또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4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하다. 5장자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개체로서의 자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6장자가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7만물과 조화롭게 합일한다는 '물아일체'로 호접몽 이야기를 끝맺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5 호접몽 이야기에서 물아일체의 의미

- * 만물의 상호 의존성: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남.
- * 편견 없는 눈의 감각: 그 대상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되고 나로 인해 그 대상 또한 존재의 의미를 가짐.
- *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 개체로서의 자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
- * 장자의 물아일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

4 2~3

* (참된 자아를 잊음. → 부정적 결과/편협한 자아를 잊음. → 긍정적 결과)처럼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는, 상식적 수준의 내용은 신속하게 읽고 지나가는 것이 좋다.

5 1~3

* 1~2: 중심 내용 + 3: 보조 내용(예컨대~)

→ 실전에서 모든 문장을 동일한 에너지와 속도로 읽는 것은 경제적인 독해가 아니다. 수능 시험에서 독해는 정확성뿐만 경제성도 매우 중요하다. 보조 내용처럼 예시나 사례는 앞의 핵심을 이해했으면 신속하게 쓱쓱 읽어 나가자.

09.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32위

#중심 화제 #첫 문단_끝 문단

정답률 75%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	② 75%	③ 3%	④ 3%	⑤ 16%

정답 풀이

②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에 담긴 물아일체의 진정한 의미

🔍 지문 속 근거 찾기

- 1)이 <호접몽 이야기>는 나를 잊은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물아일체(物我一體)> 사상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1문단]
- 만물과 조화롭게 합일한다는 2)<물아일체>로 <호접몽 이야기>를 끝맺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끝 문단]

▶ 첫 문단에서 <물아일체>와 <호접몽 이야기>를 제시하며 본문에서 글을 전개1)했으며 다시 <물아일체>와 <호접몽 이야기>를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2)했다. 따라서 중심 화제로 <물아일체>와 <호접몽 이야기>가 포함된 선지 ②가 가장 적절하다.

Tip 실전 풀이

▶ 중심 화제는 첫 문단과 끝 문단, 특히나 끝 문단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제 풀이 시간이 부족한 경우라면 끝 문단을 먼저 보자.

▶ 끝 문단이 중요하다!

끝 문단은 글 전체의 내용을 정리, 요약, 강조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인물이 행한 가치 있는 일이 요약된> 견해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비문학에서 주제와 긴밀한 것은 물론 인물의 업적 및 견해, 글쓴이의 생각, 관점, 강조 사항, 당부, 가치관, 입장 등과 관련된 것을 물으면 이번 문제처럼 정답의 핵심 근거는 지문의 끝 문단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다음 문제들은 정답의 근거가 모두 끝 문단에 있다!

- *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 수능)
- * ~키르히호프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14 수능)
- * ~포퍼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3 수능)
- *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가장 적절한 것은? (2011 9월 평가원)
- * 글쓴이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008 9월 평가원)
- *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05 9월 평가원)
- * 글쓴이가 다룬 핵심 주제로 알맞은 것은? (2005 수능)
- * 윗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0 수능)

X 오답 풀이

① 고도의 몰입을 통한 소통과 합일의 의미

🔍 지문 속 근거 찾기

- 여기서 장자는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1)<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이때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
→ <고도의 몰입을 부정적으로 봄.> [2문단]

▶ ①에 언급된 <의의>는 '어떤 사실이나 행위 따위가 갖는 중요성이나 가치'로 <고도의 몰입>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나타낸다. 이는 <고도의 몰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지문1)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선지 ①은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다.

③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위해 장자가 제시한 수행의 방법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1)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하다. 장자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개체로서의 자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2)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끝 문단]

▶ <장자가 제시한 수행의 방법>은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것1)으로 그 목적이 정신과 육체의 조화가 아니고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2)에 도달하기 위함이다.

④ 자아와 세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위한 정적 상태의 극복

🔍 지문 속 근거 찾기

- 달리 말해,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며 흔히 명경지수의 비유로 표현되는 1)<정적 상태>를 뜻한다.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2)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3문단]

▶ <정적 상태>는 극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해야 할 것이다.1) 그래야만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2)

⑤ 마음의 두 가지 상태와 그 상보적 관계에 대한 장자의 견해

🔍 지문 속 근거 찾기

- 여기서 장자는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이때 1)마음(고도의 몰입)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
→ <지양해야 함.> ☹️ <부정적 시각> [2문단]
- 달리 말해,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며 흔히 명경지수의 비유로 표현되는 정적 상태를 뜻한다. 이런 2)고요한 마음(텅 빈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 <지양해야 함.> 😊 <긍정적 시각> [3문단]

▶ 마음의 두 가지 상태는 <고도의 몰입>1)과 <텅 빈 마음>2)으로 이에 대해 서술자는 대립적 시각(긍정-부정)을 갖고 있는 것이지 서로 상보적 관계로 보고 있지는 않다.

☑ 어휘 체크

- * 지양: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않음.
- * 지향: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함함.
- * 상보: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함.

☹️ <고도의 몰입> 상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이 지 <텅 빈 마음>의 상태를 보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도의 몰입>과 <텅 빈 마음>이 서로 상보적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10.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74위

#문제 풀이 TIP #최선의 조언

정답률 81%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	② 81%	③ 3%	④ 4%	⑤ 10%

정답 풀이

② **참된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 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여기서 장지는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1)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 (<고도의 몰입>은 피해야 하는 대상)~이런 마음은 맹목적 욕망일 뿐이어서 2)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 (<감각적 체험>은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 자신에게 이롭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격하게 된다. [2문단]
- 3) <고도의 몰입 때문에> 참된 자아를 잊은 채 → (<고도의 몰입>은 피해야 하는 대상) 대상에 탐닉하는 식으로 자아와 세계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대상에 꼼짝없이 종속되어 괴로움이 증폭된다고 장지는 생각한다. [4문단]

📖 지문 POINT

※ 문단 구조: [4문단]이 [2, 3문단]에 대한 설명임에 유의!

▶ 참된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감각적 체험>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몰입>을 피해야 한다. 1, 3) <감각적 체험>은 오히려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이다.

✖ 오답 풀이

①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면 만물과 자유롭게 소통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다른 하나는 “스승님의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습니다.”라는 말을 제자에게 들은 남곽자기라는 사람이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라고 대답한 이야기이다.~이런 1) <불 꺼진 재와 같은>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2)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3문단]
- 둘째 이야기(→ 불 꺼진 재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시비를 따지려 드는 3)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한편 <편협한 자아를 잊었다>는 것은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벗어나 4)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문단]

※ 3, 4문단의 내용 일부가 합쳐지고 일부를 생략해 적절 선지 ①이 가공되었다.

①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면 [] 만물과 자유롭게 소통하겠군. → 생략된 []의 내용을 채우면 다음과 같다.

▶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1)의 소유자라면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2)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3)]이라고 볼 수 있어 세계 만물과 자유롭게 소통4)할 수 있다.

③ **마음을 바깥 사물에 빼앗긴다는 것은 참된 자아를 잊는다는 것과 같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여기서 장지는 바깥 사물에 1)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2문단]
- 그렇다면 (마음을 통째로 빼앗긴다는) 첫째 이야기에서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2)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고~ [4문단]

▶ 마음을 바깥 사물에 빼앗긴다는 것1)은 참된 자아를 잊는다는 것2)과 같다.

④ **편협한 자아를 잊는 것은 타자와의 상호 의존적 관계 형성을 위한 바탕이 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한편 <편협한 자아를 잊었다는 것>은 1)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문단]
- 장지는 이 경지를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한다. 2)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 (서로를 전제하기 위해서는 상호 의존성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함.)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끝 문단]

▶ <편협한 자아를 잊는 것>은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기1) 때문에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2)는 <상호 의존적 관계 형성>을 위한 바탕이 될 수 있다.

최선의 조언

지문-선지의 양상

오답 ①, ③, ④는 추론 문제의 선지로 잘 만들어진 모범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문의 내용이 적절 선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양상을 교재에서 나올 때마다 잘 파악해 두자. 내용이 다른 수능 문제라도 그 양상의 모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의 일치-불일치 여부를 좀 더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다. 비문학 실력을 늘릴 만한 수단이 그리 많지는 않다.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두어야 한다.

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었다는 것은 마음이 명경 지수와 같은 상태였다는 말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달리 말해,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며 흔히 <명경지수>의 비유로 표현되는 정적의 상태를 뜻한다. 이런 1)(<명경지수와 같은>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3문단])
- 2)장자가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3)나비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끝 문단]

↳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었다는 것2)은 나비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3)이다. 이는 <명경지수>와 같은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1)와 같기에 선지 ⑤는 적절한 추론이다.

Tip 실전 풀이

<최선 긍정형 문제> & <부정형 문제> 풀이 시간 비교

9번 문제같이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최선 긍정형 문제>는 매력적인 오답을 포함해 그럴 듯하게 보이는 정답 후보들이 있어 이들을 가려내기 위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10번 문제와 같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문제>는 선지의 항목 중 한 부분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그래서 한 지문 안에서라도 <부정 발문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시간 관리 측면에서 약간 유리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시간이 없어 둘 중 한 문제만 풀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정답을 찾는 데 시간이 적게 들 가능성이 높은 <부정형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11.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22위

#일탈 선지의 법칙 #보기-선지의 법칙 #3점 #비판-비난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7%	① 3%	② 4%	③ 87%	④ 4%	⑤ 2%

정답 풀이

③ 만물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 것은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는 바탕이 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 <보기>의 순자의 사상
- 또한 인간은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자의 말처럼 <자연 세계와 온전하게 합일> → (<만물과 상호 의존적>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본다. → <부정적 관점>)
- ↳ (<만물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 것을 부정적으로 봄.>)

↳ <보기>의 순자는 <만물과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자연 세계와의 온전한 합일>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선지 ③의 <만물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 것>이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는 바탕이 된다.>는 긍정적인 시각은 <보기>의 <순자>의 입장이 아니며 오히려 지문의 <장자> 사상의 입장과 관련된다.

패턴 공략

▶ A가 B를 통해 C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B는 당연히 A와 같은 입장이어야 한다.

X 오답 풀이

①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수행은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 <보기>의 순자의 사상
- 인간의 1)(<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한다.)
- ※ <지문>의 장자의 사상
- 예컨대, 내가 2)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꽃을 응시하면 그 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되고 나로 인해 그 꽃 또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자를 위해 3)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하다. [끝 문단]

↳ <보기>의 순자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1)한다. 그래서 편견 없는 눈2)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수행>3)은 순자의 <지속적인 학습>과는 관련이 없기에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장자 사상을 비판할 수 있다.

② 자아를 잊고 만물과 소통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를 세울 수 없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 <보기>의 순자의 사상
- 장자의 말처럼 1)(<자연 세계와 온전하게 합일>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본다.)
- ※ <지문>의 장자의 사상
- 한편 편협한 2)자아를 잊었다는 것은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문단]

↳ 자아를 잊고 만물과 소통하는 것2), 즉 <자연 세계와 온전하게 합일>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를 세울 수 없다1)고 <보기>에 직접 나타나 있다.

④ 만물에 대한 **분별 작용이 사라지는 것은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의 순자의 사상

-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면서 1)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중점

※ <지문>의 장자의 사상

- 여기서 '나 자신'은 마음을 가리키며, 마음을 잊었다는 것은 불꽃처럼 마음속에 치솟던 2)분별 작용이 사라졌음을 뜻한다.~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3)우위를 따지지 않고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3문단]

↳ <만물에 대한 분별 작용이 사라지는 것>2)은 천지만물을 그 우위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3)는 것이기에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1)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세계의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하는 것으로는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의 순자의 사상

- 한 인간은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자의 말처럼 1)자연 세계와 온전하게 합일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본다. → (세계의 존재와 일체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봄.)

↳ <세계의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1)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 일탈 선지의 법칙 ★

* 특정한 기준으로 선지의 핵심을 분류했을 때, 나머지와 다른 한 개의 선지가 눈에 띄면 이를 일탈 선지라 칭하고, 그것이 정답이 될 확률은 80% 이상이다. 주로 선지의 핵심을 긍정-부정으로 구분한다.

이 문제의 선지 ①~⑥의 뒷부분을 긍정적-부정적으로 구분하면,

- ①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부정적)
- ② ~인간 사회의 제도를 세울 수 없다. → (부정적)
- ③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는 바탕이 된다. → (긍정적) ☞ (☆정답)
- ④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부정적)
- ⑤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 (부정적)

선지 ③만이 나머지와는 다르게 긍정적 이미지로 ③은 일탈 선지이며 지문과 발문에 상관없이 정답이 될 확률은 80% 이상이다.

★ 보기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8쪽 참고)

* 위 문제의 경우 긍정 발문형이다.

<보기>의 핵심: <자연 세계와의 합일>을 부정적으로 봄.
정답 ③: <만물과 의존적 관계를 맺는 것>을 긍정적으로 봄.

보너스 칼럼

**아무리 공부해도 비문학 점수는 오르지 않는다? vs
공부를 하지 않아도 비문학 점수가 잘 나온다?**

쓰쓸하지만 둘 다 부정할 수 없는 말이다. 다른 과목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수능 비문학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제시문을 주어진 시간과 상황에 맞게 얼마나 이해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문학 실력의 바탕은 독해력이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방면의 책을 많이 읽은 이들은 어휘력과 글의 구조 및 문맥을 파악하는 기본 능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비문학 점수가 잘 나온다. 상대적으로 독서량이 부족한 이들이 단순한 양치기 문제 풀이만으로 비문학 점수를 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 푸는 대로 점수가 쑥쑥 올라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독해력이 부족한 이들이 비문학을 만점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 그 과정이 많이 어렵고 또 그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문제 풀이만으로 점수 올리는 것에 한계가 있기도 해도 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니 일단은 기출 문제 풀이에서 부족한 독해력을 메워 줄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비문학도 N회독 문제 풀이는 필수이며 여기에 지문 요약과 지문 표시 연습도 병행해야 한다.

지문 난이도 ★★

2016학년도 수능 B형 17~19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27위

01 ~ 03 도덕적 운과 도덕적 평가

1 1우리 삶에서 운이 작용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흔하다. **2**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의무 윤리'든 행위의 기반이 되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덕의 윤리'든,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은 도덕적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3**이들의 생각처럼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4**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없어서, 운에 따라 누구는 도덕적이게 되고 누구는 아니게 되는 일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1 운과 도덕적 평가에 대한 철학자들의 견해

- * 의무 윤리: 외적 행위에 초점
- * 덕의 윤리: 내적 성품에 초점
- * 도덕적 평가: 통제 가능한 것에 한정 → 운에 따라 달라지면×

2 **1**그러나 **①**어떤 철학자들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그런 운을 '도덕적 운'이라고 부른다. **2**그들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의 도덕적 운이 거론된다. **3**첫째는 태생적 운이다. **4**우리의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므로,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2 도덕적 운의 종류 ①-태생적 운

- * 태생적 운: 우리의 행위는 태어난 성품에 의해 결정 → 통제× → 도덕적 평가의 불공평성

3 둘째는 상황적 운이다. **2**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3**가령 남의 것을 탐내는 성품을 똑같이 가졌는데 결핍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 성품이 발현되는 반면에 풍족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전자만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4**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3 도덕적 운의 종류 ②-상황적 운

- * 상황적 운: 같은 성품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 or 발현× → 통제× → 도덕적 평가의 불공평성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 2**
- * 문장이 길다면 쉼표에서 흐름을 한 번 끊어 주자. [**3**-3도 마찬가지로]
 - * 3줄 이상의 긴 문장은 집중도를 떨어뜨리며 독해의 어려움을 유발한다. 이렇게 긴 문장은 쉼표 이후의 뒷문장이 주로 핵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니 뒷문장에 초점을 두어 읽어 나가자.
 - * '그러나', '그러나(하지만)' 등 전환 및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면 주의를 필요하므로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절하다. [**2**-1, **3**-3, **4**-4, **5**-3, **6**-1도 마찬가지로]

2, 3

- *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도 누구의 생각과 주장인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2**: 철학자들, **3**: 글쓴이)

3, 4

- * '결과(**3**)+원인(이유)(**4**)' 문장의 조합은 결과에 초점을 두어 읽어 나가면 글의 흐름 파악에 유용하다. 이는 글이 궁극적으로 결과(필자의 생각, 주장, 하고 싶은 말)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한 것이다.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은 '~때문, 왜냐하면~' 등의 말을 동반하는 문장 속에 혹은 그 근처에 있다.

2

- 1**
- * 문단의 첫 문장이 '그러나'로 시작하면 이전의 내용을 전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2**
- * 세 가지를 나타내는 표지어(첫째: 2문단, 둘째: 3문단, 셋째: 4문단)가 대략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지문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쉽다.
- 4**
- * 대상에 대한 부정적 서술은 밑줄× 표시가 적절하다. (통제×) [**3**-4도 마찬가지로]

3

- 3**
- * 예시('가령~')는 앞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 내용이 어렵지 않다면 슬쩍 넘겨도 괜찮다.

4 1셋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좌우되는 결과적 운이다. 2어떤 화가가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고 해 보자. 3이 경우 그가 화가로서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그의 무책임함을 더 비난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4그러나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그가 가족을 버릴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4 도덕적 운의 종류 ③ - 결과적 운

* 결과적 운: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좌우 → 통제× → 도덕적 평가의 불공평성

5 1그들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결국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2①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3그러나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동안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난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5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의 문제점

* 도덕적 운의 존재 인정 → 성품, 행위에 대한 평가 불가 →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

6 1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국한한다면 이와 같은 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2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예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님을 보여 주면 된다. 3우선 행위는 성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태생적 운의 존재가 부정된다. 4또한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폄하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상황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5끝으로 어떤 화가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하므로 결과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6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

6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

- * 문제점 해결
 -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
 -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국한
- *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예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님을 보여 줌. → (태생적, 상황적, 결과적 운의 존재 부정)

4
3
* (A보다 B하다)의 구조. A와 B를 헛갈리지 말자. 이 둘을 바꿔치기한 선지가 출제되기도 한다.

5
1, 3
*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이라는 동일한 조건이 문장의 서두에 있기 때문에 둘은 동일한 맥락(도덕적 운의 존재 인정 안 함.)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3은 썩~ 넘어가는 것이 좋다.

6
1
* 문단의 첫 문장에서 시작하는 역접의 접속어(하지만, 그러나...)로 이전 문단에 어떤 내용(도덕적 운을 인정~)이 있었는지 추측이 가능하며 전개될 글의 흐름도 예측해 볼 수 있다.
* '강제', '무지'와 같이 이전에 나열된 어휘들이 한 번 더 반복되었다면 이 어휘들과 관련지어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고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한다.

3~5
* 3번 문장의 첫머리 (우선)을 통해 도덕적 운을 부정하는 종류가 병렬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끝으로~) 그럼 더 나아가 이들과 관련되어 그 종류를 판별하는 문제의 출제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화 가능성에 대한 확률을 고려하는 것은 전략적 독해의 초석이 된다)

01.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90위

#공통 선지의 법적 #글쓴이 견해 #지문에서 구분해야 할 것 #최상의 조언 #풀이 전략 #누구의 견해인지 따져 보기

정답률 66%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6%	② 14%	③ 2%	④ 2%	⑤ 66%

정답 풀이

⑤ ①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I. ①<어떤 철학자들>의 생각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우리의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므로, 성품처럼 1)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도덕적 운)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2문단]
- 가령 남의 것을 탐내는 성품을 똑같이 가졌는데 결핍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 성품이 발현되는 반면에 풍족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 (도덕적 운), 전지만 비난하는 것은 2)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3문단]
- 그러나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그가 가족을 버릴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 역시 3)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4문단]

II. <글쓴이>의 생각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4)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없어서, 운에 따라 누구는 도덕적이게 되고 누구는 아니게 되는 일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1문단]
- 그들의 주장에 따라 5)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결국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5문단]

↳ ①<어떤 철학자들>과 <글쓴이> 모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1~5)고 생각한다.

Tip 실전 풀이

※ 지문에서 구분해야 할 것

- ㄱ. 객관적 사실인지, 주관적 의견인지?
- ㄴ. 글쓴이의 입장인지, 다른 인물의 입장인지?

X 오답 풀이

① ①과 달리 글쓴이는 도덕적 평가는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 경우 그가 화가로서 성공했을 때보다 1)실패했을 때 그의 무책임함을 더 비난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4문단]

• 2)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 [끝 문단]

↳ ①<어떤 철학자>들과 <글쓴이> 모두 도덕적 평가는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은 지문에서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1~2)는 두 가지 경우 중 더 비난받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② ①은 글쓴이와 달리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없어서, [1문단]
- 우리의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 '운')되므로, 성품처럼(→ '운') 2)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2문단]
-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 '운')는 3)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3문단]
- 셋째는 우리가 4)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좌우되는 결과적 운이다. [4문단]
-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 '운')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5)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5문단]

↳ ①어떤 철학자들(2~4)과 글쓴이(1, 5) 모두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③ ①과 글쓴이는 모두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3문단]
- 우선 2)행위는 성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태생적 운의 존재가 부정된다. [끝 문단]

↳ ①어떤 철학자들은 같은 성품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며(1) 글쓴이도 성품과 행위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말해(2) 둘 중에 하나만 보고도 선지 ③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①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의 영역에서는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런데 1)①<어떤 철학자들>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2문단]

- 그들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2)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결국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5문단]

↳ ㉠<어떤 철학자들>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선지 ④는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글쓴이는 도덕적 평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에 2)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최선의 조언

선지의 정답과 오답의 근거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철저히 지문을 근거로 해야 한다.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른 문제를 신속하게 풀어 만회하면 그만이다. 만약,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정답을 찾지 못해 틀린다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다. 시간을 단축하면서 정답을 제대로 찾는 길은 지문을 처음 읽을 때, 구조화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위 문제의 경우 글쓴이와 ㉠의 생각은 거의 비슷하지만 서로의 생각을 꼼꼼히 비교하는 문제이므로 문단별로 글쓴이의 생각인지 ㉠의 생각인지 정확히 구분(글쓴이: 1, 5, 6문단/ ㉠: 2, 3, 4문단)했다면, 신속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Tip 실전 풀이

선지 ①, ②처럼 <A와는 달리 B는 ~하다.>의 형태는 선지 ③~⑥의 <A와 B 모두 ~하다.>보다 복잡하다. 따라서 선지 ③~⑥를 먼저 보는 것이 좋다.

1등급 가이드

♣ 누구의 견해인지 따져 보기

우리 삶에서 운이 작용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흔하다. → (글쓴이)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의무 윤리'든 행위의 기반이 되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덕의 윤리'든,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은 도덕적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철학자들) 이들의 생각처럼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글쓴이): 철학자들의 생각과 동일! [1문단]

그런데 ㉠<어떤 철학자들>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그런 운을 '도덕적 운'이라고 부른다. → (㉠ 어떤 철학자들) ~첫째는 태생적 운이다. 우리의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므로,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 (㉠ 어떤 철학자들) [2문단]

★ 공통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위 문제의 선지 ④, ⑥는 운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다.

- ④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 ⑥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정답)

지문 및 문제와 상관없이 선지 ④, ⑥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02.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82위

#관점 #모두 고르기 #최선의 조언

정답률
6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64% ② 30% ③ 2% ④ 2% ⑤ 2%

✓ 정답 풀이

① ㄱ, ㄴ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 ㉠과는 반대로, <도덕적 평가의 대상>은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에 결정되는 것이다.

- ㄱ. 거친 성격의 사람이 자신의 성격을 억누르고 주위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했다. → (스스로 통제○)
- ㄴ. 복잡한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앞 사람의 발을 밟게 되었다. → (스스로 통제×, 강제에 의한.)
- ㄷ.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중요한 서류가 실수로 버려진 것인 줄 모르고 찢으며 놀았다. → (스스로 통제×, 무지에 의한.)
- ㄹ. 풍족한 나라의 한 종교인이 가난한 나라로 발령을 받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했다. → (스스로 통제○)

최선의 조언

발문은 문제 풀이의 시작, 꼼꼼히 읽어야 한다

- * ㉠의 관점: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불통제 요인: 강제, 무지)
- *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요구.

↳ ㉠의 관점을 따른다면, 당연히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라고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발문의 흐름이다. 이에 따라 선지 ②를 고른 수험생이 꽤 있다. 출제자의 함정에 빠진 셈. 지문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좋지만 발문은 문제 풀이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작이므로 낱말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지고 봐야 한다. 앞으로 발문에 좀 더 애정을 갖는 습관을 들이자.

03.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03위

#공통 선지의 법칙 #똥글 근거 #보기 제시 #최선의 조언

정답률
68%

선지별 선택 비율

① 68% ② 16% ③ 4% ④ 8% ⑤ 4%

✓ 정답 풀이

①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는 B에 비해 무모함과 독선이 사람들에게 덜 부각되었을 뿐이라고 본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예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님을 보여 주면 된다.~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2)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3)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 [끝 문단]

• <보기>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4)무모한 공격을 감행한 축구 선수 A와 B가 있다. 5)A는 상대팀 골키퍼가 실수를 하여 골을 넣었는데, 6)B는 골키퍼가 실수를 하지 않아 골을 넣지 못했다. 두 사람은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와 동기는 같은데도, 통상 7)사람들은 A보다 B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한다.

📌 지문 POINT

※ <보기>의 핵심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끝 문단]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대응된다.

- 4) A와 B 둘 다 무모한 공격 감행 → 2)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
- 5) A는 골을 넣음. → 3)에서 화가의 성공
- 6) B는 골을 넣지 못함. → 3)에서 화가의 실패
- 2와 3)의 실패 때문에 → 7)의 결과가 다음.

↳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1) 철학자 A는 B에 비해 무모함과 독선 2, 4)이 사람들에게 덜 부각 3, 7)되었을 뿐이라고 본다.

✕ 오답 풀이

②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가 B의 처지라면 골을 넣지 못했으리라는 추측만으로 A를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러나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그가 가족을 버릴 당시에는 1)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4문단]
-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도덕적 평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국한한다면 이와 같은 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또한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2)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폄하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상황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끝 문단]

↳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1) 그러나 입장을 가정(A가 B의 처지라면)하여 상황을 추측(골을 넣지 못함.)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추측만으로 대상을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2)고 보는 것은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에 해당한다.

③ 태생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B가 A에 비해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천부적으로 더 가지고 있으므로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본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1)두 사람은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와 동기는 같은데도, 통상 사람들은 A보다 B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한다.

↳ 두 사람의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은 같다 1)고 했으니 (태생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B가 A에 비해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천부적으로 더 가지고 있다는 선지 ③은 적절하지 않다. <보기-선지> 자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지문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④ 상황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가 B의 상황이라면 무모함과 독선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비난받아서 안 된다고 본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1)두 사람은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와 동기는 같은데도, 통상 사람들은 A보다 B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한다.

↳ 두 사람의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 같다 1)고 한 것은 두 사람의 <무모함과 독선>이 이미 발현된 것으로 전제된 것이다. 그래서 A가 B의 상황이라면 무모함과 독선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지 ④는 적절하지 않다. <보기-선지> 자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지문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⑤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보다 B가 더 무모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본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1)두 사람은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와 동기는 같은데도, 통상 사람들은 A보다 B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한다.

↳ 두 사람의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은 같다 1)고 했으니 A보다 B가 더 무모한 공격을 했다는 선지 ⑤는 적절하지 않다. <보기-선지> 자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지문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

최선의 조언

실제 시험 시간은 그리 여유롭지 않다.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찾는 데 최소한으로 해야 문제 풀이 시간이 절약된다. 위 문제는 지문 이든 보기든 어느 한 곳이라도 선지와 불일치를 보이면 바로 정답에서 떨어진다. 선지 ③~⑤는 지문 없이 <보기>의 핵심 내용만으로도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혹시 시험 시간에 쫓겨 지문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문제를 풀 경우 <보기>의 핵심 내용만이라도 빨리 파악해 적절하지 않은 선지 몇 개는 꼭 거르길 바란다.

04~07 맹자의 '의' 사상

1 전국 시대(戰國時代)의 사상계가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의 사상에 경도되어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맹자(孟子)는 유학의 수호자를 자임하면서 공자(孔子)의 사상을 계승하는 한편, 다른 학파의 사상적 도전에 맞서 유학 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전개하였다. 2 그는 공자의 춘추 시대(春秋時代)에 비해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사회 안정을 위해 특히 '의(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 '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맹자

- * 공자의 사상 계승
- * 유학 사상의 이론화
- * '의(義)'의 중요성 강조

2 맹자가 강조한 '의'는 공자가 제시한 '의'에 대한 견해를 강화한 것이었다. 2 공자는 사회 혼란을 치유하는 방법을 인(仁)의 실천에서 찾고, '인'의 실천에 필요한 객관 규범으로서 '의'를 제시하였다. 3 공자가 '인'을 강조한 이유는 자연스러운 도덕 감정인 '인'을 사회 전체로 확산했을 때 비로소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4 이때 공자는 '의'를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으로서 '정당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2 공자가 생각한 '인'과 '의'

- * 인: 자연스러운 도덕 감정 → 사회 혼란을 치유
- * 의: '인'의 실천에 필요, 객관 규범, 정당한 합리적 기준

3 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혈연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도덕 감정인 '인'의 확산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하였다. 2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의'라고 하여 '의'를 가족 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규정하였다. 3 그리고 나의 형을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남의 어른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유비적 확장을 통해 '의'를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정립하였다. 4 나아가 그는 '의'를 개인의 완성 및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수적인 행위 규범으로 설정하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의'를 실천하여 사회 질서 수립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맹자가 생각한 '인'과 '의'

- * 인과 의의 대등: '인'의 확산 + '의'의 의미 확장
→ 인: 부모에게 효도, 의: 형을 공경
- * 사회 일반 행위 규범 '의': 나의 형을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남의 어른을 공경 → 개인의 완성 및 개인과 사회의 조화

1

- 1 * 문장이 길어 혼란이 올 때, 주체(맹자)와 서술어(~이론화 작업을 전개하였다)에는 표시를 해 두고 넘기자.
- * '맹자', '공자'처럼 인물 명이 나온다면? 두 인물 간의 관계가 어떨지(서로 공통점? 서로 비판? 서로 보완? 등에 대해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한다.
- * '사상적 도전에 맞서'를 통해 <맹자 → 다른 학파>를 알 수 있음.

2

- 2 * <문제(사회 혼란) + 해결(사회 안정 → '의')>의 구조.

2

- 1 * 'A가 B의 견해를 강화'는 (A와 B)의 대립 양상보다는 임팩트가 약해 상대적으로 문제화될 가능성은 낮다.
- 2~3 * <결과 + 원인>의 구조. 결과든 원인이든 뒤에 제시된 것에 더 포인트를 두자.
- 4 * '인' - 실천, '의' - 필요 (혼동 주의!) 비슷한 용어가 붙어 있으면 헷갈리기 쉬우니 조심하자.

3

- 1 * 문장이 길면 대개 심표 이후에 포인트가 있다.
- 2 * 개념이 나열되어 있다면 개념어에 동그라미를 아끼지 말자.
- 4 * 지문에서 '필수적', '절대적', '꼭', '오직', '반드시'처럼 예외 없는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 등장하면 문제에서 이를 부정하거나 예외가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부정적 선지가 가공되기도 한다.
- * 지문에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견해>를 구별하는 일은 독해의 기본이다. '~주장한다'는 주관적!

4 1또한 **행자**는 '의'가 이익의 추구하고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의 추구는 개인적으로는 '의'의 실천을 가로막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3특히 작은 이익이건 천하의 큰 이익이건 '의'에 앞서 이익을 내세우면 천하는 필연적으로 상하 질서의 문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4그래서 그는 사회 안정을 위해 **사적인 욕망**과 결부된 이익의 추구는 '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X

4 사적 이익을 부정하는 '의'
* 사회 안정을 위해 사적 이익의 추구는 '의'에서 배제

5 1맹자는 '의'의 실현을 위해 인간에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있음을 밝히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2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춰져 있다는 일종의 **도덕 내재주의**를 주장하였다. 3그는, 인간은 자기의 행동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는데, / 이러한 마음이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 주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4아울러 그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모든 인간의 마음에 갖춰져 있다고 하여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이 내재화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5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의 실천 가능성
* 도덕 내재주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춰져 있음.
* 도덕적 역량: 옳고 그름 판단, '의'를 실천
→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이 내재화

6 1맹자는 '의'의 실천을 위한 근거와 능력이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제시한 바탕 위에서, 이 도덕적 마음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2그는 본래 갖추고 있는 선한 마음의 확충과 더불어 **욕망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생활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일에서도 '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3나아가 그는 목숨과 '의'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라고 주장하여 '의'를 목숨을 버리더라도 실천해야 할 가치로 부각하였다.

6 현실에서 실천해야 할 '의'
* '의': 실천 의지 강조

4
1
* 인문 지문에서 '~주장하다'가 들어가 있으면 중심 문장에 해당한다. 중심 내용과 보조적인 내용을 구별하는 것은 독해 학습의 기본이 된다.
2
* '의의 실천을 가로막고'와 '혼란을 야기한다'를 통해 이것들이 <문제 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지문에서 <문제 사항>이 나오면 곧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비문학 지문은 (문학과는 다르게) 하나의 완성된 글이다. <문제>만 제시되고 <해결> 없이 끝나는 비문학 지문은 없다.
3
* ~문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역설(力說)하였다.
* '역설'의 의미를 혼동하지 말자. [6-1도 마찬가지로]
- 역설(逆說):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
- 역설(力說):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함.
4
* 마지막 문장이 <그래서>로 시작되면 문단의 결론(결과물)이기 때문에 중심 문장에 해당한다.

5
1
* <A를 위해 B를 하다.>의 구조. '~위해' 다음에 한 번 끊어 주는 것이 내용 파악에 유리하다.
2
* '인간이라면 누구나'에서 <누구나>처럼 예외 없음, 절대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문제화되기 쉬우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 문장이 길면 쉼표에서 끊어 주자. 그리고 전체 문장의 <주어+서술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문장이 길면 <주술> 관계를 착각해 틀리는 경우가 많다. 주의하자.

6
* 대개 마지막 문단은 본론의 내용을 <정리, 종합, 강조, 요약>하는 역할을 한다. 제일 신속하게 쓱쓱 읽어 나가야 한다.

04.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60위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93%	① 2%	② 1%	③ 2%	④ 2%	⑤ 93%

정답 풀이

⑤ 맹자의 '의' 사상의 형성 배경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공자의 춘추 시대(春秋時代)에 비해 1)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사회 안정을 위해 특히 '의(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문단]
- 맹자가 강조한 '의'는 2)공자가 제시한 '의'에 대한 견해를 강화한 것이었다. [2문단]
- 맹자는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3)'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하였다. [3문단]
- 맹자는 4)'의'가 이익의 추구하고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문단]
- 맹자는 5)'의'의 실현을 위해 인간에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있음을 밝히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5문단]
- 맹자는 6)'의'의 실천을 위한 근거와 능력이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제시한 바탕 위에서,~ [끝 문단]

↳ 맹자의 '의' 사상의 형성 배경1)과 내용2~6)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Tip 실전 풀이

▶ '형성 배경', '도입 취지', '목적', '동기' 등의 여부는 1문단에서 신속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 어휘 체크

* 통념: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

②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한계뿐만 아니라 단점, 문제점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 바탕 지식 더하기

※ 분석 vs 구분 vs 분류

- 분석: 대상을 개별 요소나 성질로 쪼갬.
- 구분: 대상을 머리, 가슴, 배로 쪼갬.

- 구분: 상위 대상을 하위 대상(종류)으로 나눔.
예) 과일을 사과, 배, 감 등으로 나눔.
- 분류: 하위 대상(종류)을 상위 대상으로 묶음.
예) 사과, 배, 감 등은 과일로 묶음.

③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들을 비교하고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공자〉는 사회 혼란을 치유하는 방법을 '인(仁)'의 실천에서 찾고, '인'의 실현에 필요한 객관 규범으로서 '의'를 제시하였다. [2문단]

↳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공자>의 관점1)은 있어도 상반된 관점들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 패턴 공략

▶ 비문학에서 상반된 관점은 두 인물의 사상이 반대의 맥락으로 번갈아 나오는 경우가 많다.

④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맹자(孟子)는 유학의 수호자를 자임하면서 공자(孔子)의 사상을 계승하는 한편, 1)다른 학파의 사상적 도전에 맞서 유학 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전개하였다. [1문단]

↳ 맹자가 당시에 다른 학파의 사상적 도전에 맞서 유학 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전개1)하였다는 설명은 있으나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지는 않다.

🔄 패턴 공략

▶ '의의', '강조' 등의 여부는 주로 끝 문단에서 신속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05.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65위

#대립 선지의 법칙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94%	① 2%	② 1%	③ 2%	④ 94%	⑤ 1%

정답 풀이

④ '의'의 의미 확장보다는 '인'의 확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혈연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도덕 감정인 1)〈인〉의 확산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하였다. [3문단]

↳ <인〉의 확산과 더불어 <의〉의 의미를 확장한 것1)이지 <의〉의 의미 확장보다는 <인〉의 확산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 아니다.

X 오답 풀이

① 일상생활에서 '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특히 1)생활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일에서도 <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끝 문단]

↳ 일상생활에서 <의>를 실천1)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② '의'의 실천은 목숨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나아가 그는 목숨과 '의'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라고 주장하여 1<의>를 목숨을 버리더라도 실천해야 할 가치로 부각하였다. [끝 문단]

↳ <의>의 실천은 목숨을 바칠 만큼 가치1)가 있다고 보았다.

③ 가정 내에서 '인'과 더불어 '의'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는 1)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의>라고 하여 <의>를 <가족 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규정하였다. [3문단]

↳ <가정> 내에서 <인>과 더불어 <의>도 실천1)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사회 규범으로서 '의'는 '인'과 대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1<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하였다.~그리고 나의 형을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남의 어른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유비적 확장을 통해 '의'를 2<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정립하였다. [3문단]

↳ <사회 규범>2)으로서 <의>는 <인>과 대등한 지위1)를 지닌다고 보았다.

★ 대립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6쪽 참고)

* 위 문제에서 <의>와 <인>의 비교형을 보면 ④에서는 <인>에 우위를 두고 선지 ⑤에서는 서로 동등한 지위를 말해 모순을 이룬다. 그래서 서로 1대1 대립을 이룬다.

- ④ <'의'의 의미 확장>보다는 <'인'의 확산>이 더 필요~ (☆정답)
- ⑤ 사회 규범으로서 <의>는 <인>과 대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그래서 지문 및 문제와 상관없이 ④와 ⑤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06.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53위

정답률 91%

선지별 선택 비율

① 91%	② 2%	③ 2%	④ 3%	⑤ 2%
-------	------	------	------	------

✓ 정답 풀이

① 세상의 올바른 이치가 모두 나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으니, 수양을 통해 이것을 깨달으면 이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1)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2)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추어져 있다는 일종의 ①도덕 내재주의를 주장하였다.

㉠ 지문 POINT

▶ 선지의 내용 중 ①<도덕 내재주의>를 설명한 문맥과 대응되는 요소1~2)들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즉, 정답은 다음 2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 1) 도덕성
- 2)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추어져 있음.

↳ 세상의 올바른 이치1)가 모두 나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으니2), 수양을 통해 이것을 깨달으면 이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

X 오답 풀이

② 바른 도리를 행하려면 분별이 있어야 하니, 분별에는 직분이 중요하고, 직분에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예의가 중요하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추어져 있음.>2)의 내용이 없다!

③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은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난 성인들이 만든 것이지 인간의 성품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추어져 있음.>2)을 부정한다.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1)은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난 성인들이 만든 것이지 &u003c인간의 성품으로부터 생겨난 것2)이 아니다.

④ 군자에게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어지러움을 일으키게 되고, 소인에게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남의 것을 훔치게 된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1~2) 2가지 다 없음!

⑤ 저 사람이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어른으로 대우하는 것이지, 나에게 어른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마음이 원래부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추어져 있음.>2)을 부정한다. 저 사람이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어른으로 대우하는 것1)이지, 나에게 어른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마음이 원래부터 있어서2) 그런 것이 아니다.

07.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38위

#보기-선지의 법칙 #3점 #특성 바꿔치기 #헛갈림 주의 #원인_결과 유형

정답률 89%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	② 89%	③ 5%	④ 2%	⑤ 2%

✓ 정답 풀이

② '맹자'는 '의'와 이익이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았고, '목적'은 '의'와 이익을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한 1)맹자는 <의>가 <이익>의 추구하고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의 추구는 개인적으로는 '의'의 실천을 가로막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4문단]

• <보기>
2)그(목적)는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 '<의>'와 '<이익>'의 관련성)으로 보아,

↳ <맹자>는 <의>와 <이익>을 명확히 구분1)되는 것으로 보았고 <목적>이 <의>와 <이익>을 밀접히 관련2)된다고 보았다.

🔗 패턴 공략

▶ 지문에 A, B 2가지 항목과 그의 특성이 나오면 이 둘의 특성을 바꿔치기한 부적절 선지가 꼭 나온다.

✗ 오답 풀이

① '맹자'와 '목적'은 모두 '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다르게 보았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맹자>가 강조한 '의'는 공자가 제시한 '의'에 대한 견해를 강화한 것이었다. ~이때 '공자'는 1)(<의>)를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으로서 <정당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2문단]

• <보기>
2)그(목적)는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 <맹자>는 '공자'처럼 <의>를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으로서 <정당함>을 의미1)하는 것으로 보며 <목적>은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2)으로 보았다.

③ '맹자'는 이익의 추구를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았고, '목적'은 이익의 충족을 통해 사회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그(맹자)는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의 추구)은 개인적으로는 <의>의 실천을 가로막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4문단]

• <보기>

2)그(목적)는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의>를 통해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맹자>는 <이익>의 추구를 사회 <혼란>의 원인1)이라고 보았고, <목적>은 <이익>의 충족을 통해 사회 혼란을 해결2)할 수 있다고 보았다.

1등급 가이드

♣ 헛갈림 주의!

* A는 B의 계기가 됨. = A로 인해 B가 일어남.

= A가 B를 불러일으킴. = A 때문에 B가 일어남. 🔄 A: 원인, B: 결과

원인(A) + 결과(B)의 유형

1) A 때문에 B하다. 2) A는 B하게 하다. 3) A가 B를 일으키다.

④ '맹자'는 인간의 잘못에 대한 수치심을 '의'를 실천하게 하는 동기로 보았고, '목적'은 '의'의 실천을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그(맹자)는, 인간은 자기의 행동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 (→ 잘못에 대한 수치심)이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 '<의>'의 실천) 막아 주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5문단]

• <보기>
아울러 2)그(목적)는 이러한 <의>의 실천이 만물을 주재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하여 '의'를 실천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 <맹자>는 인간의 잘못에 대한 수치심을 '의'를 실천하게 하는 동기1)로 보았고, <목적>은 <의>의 실천을 하늘의 뜻2)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⑤ '맹자'는 '의'의 실천이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고, '목적'은 '의'의 실천이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충족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나아가 1)그(맹자)는 <의>를 개인의 완성 및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수적인 행위 규범으로 설정하였고, [3문단]

• <보기>
2)그(목적)는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 <맹자>는 <의>의 실천이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요1)하다고 보았고, <목적>은 <의>의 실천이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충족2)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08~11 메타 윤리학에서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

1 [가] 1우리는 일상에서 '악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 2이렇게 구체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규범 윤리학이라면, 옳음의 의미 문제, 도덕적 진리의 존재 문제 등과 같이 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에 대해 다루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3메타 윤리학에서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는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과 도덕적 진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1 메타 윤리학의 두 입장
* 규범 윤리학: 구체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문제를 다룸.
* 메타 윤리학: 규범 윤리학(옳음의 의미, 도덕적 진리의 존재)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에 대해 다룸.
→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는 상반된 주장을 펼침.

2 [나] 1도덕 실재론에서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를 과학적 판단 및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 본다. 2즉 과학적 판단이 '참' 또는 '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이때 참으로 판정된 명제를 과학적 진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참으로 판정된 명제가 곧 도덕적 진리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3그런데 도덕 실재론에서 주장하듯, '도덕적 옳지 않다'가 도덕적 진리라면, 그것이 참임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성질을 도덕적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2 도덕 실재론의 입장
* 도덕적 판단, 도덕적 진리 = 과학적 판단, 과학적 진리
-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냄.
-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성질을 찾는 것이 관건

3 [다] 1한편 정서주의에서는 어떤 도덕적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옳음이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성질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되는 명제를 나타내지 않는다. 2따라서 정서주의에서는 '옳다' 혹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만 도덕 실재론과 달리 과학적 진리와 같은 도덕적 진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3그렇다면 정서주의에서는 옳음이나 옳지 않음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까? 4도덕적 옳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곧 옳음과 옳지 않음이라고 한다. 5즉 '도덕적 옳다'는 판단은 도덕적 옳음에 대한 승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도덕적 옳지 않다'는 판단은 도덕적 옳음에 대한 부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

3 정서주의의 입장
* 도덕적 판단은 내리지만 도덕적 진리는 없음.
* 옳거나 옳지 않은 성질은 객관적으로 존재×
*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감정과 태도 = 옳음, & 옳지 않음.

1
2
* 첫 문단에서부터 2개의 개념이 등장하면?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내야 한다. 특히 차이점에 주목!
3
* 이전 문단에 이어서 또 2개의 개념이 등장? 그렇다면 마지막 문장에 등장하는 개념이 앞으로 펼쳐질 중심 화제이며 이전의 개념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마지막 문장의 개념들! 그렇다면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의 차이점(상반된 주장)에 포인트를 두자!
* '주장을 펼친다.'를 통해 이 지문은 주장을 펼치는 주체(인물, 단체, 학파 등)가 나올 것이며, 그렇다면 주장에 해당하는 <근거>를 찾는 것도 포인트가 된다.

2
1
* '도덕적 판단(진리) = 과학적 판단(진리)'처럼 첫 문장에서의 큰 줄기는 꼭 붙들고 가야 한다.
2
* '~부르는 것처럼'과 같이 비유하는 내용이 길다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쟁점 이후의 내용에만 집중해도 문맥 파악에는 지장이 없다.
3
* '그런데'처럼 역주행 흐름에 주의! 인문 지문에서는 대부분이 주관적 내용(이론, 주장, 견해, 의견 등)들이다. 그래서 이와 반대인 '객관적'이 나오면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어에서 <주관적 ↔ 객관적>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초 공부에 해당한다.

3
1~2
* 부정적 서술은 밑줄× 표시가 적절하다. (객관적×, 명제×, 도덕적 진리×)
* <원인+결과>의 구조. 국어 공부에서 <원인+결과>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5
* '승인 감정' ↔ '부인 감정'처럼 한 문장에 대립적 어휘가 있다면 해당 대상(~옳다 vs ~옳지 않다)과 혼동하지 않게 정리해 두어야 한다.

4 [라] 1이런 정서주의에서는 도덕적 판단이 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도덕 실재론보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2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를 설명할 때 도덕적 판단이 나타내는 승인 감정 또는 부인 감정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3승인 감정은 어떤 행위를 좋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일어나길 욕망하는 것이기에 결국 그것을 해야 한다는 동기 부여까지 직접 연결된다는 것이다. 4부인 감정도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5이에 비해 도덕 실재론에서는 도덕적 판단 이외에도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6예컨대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에 덧붙여 '사람들은 약자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와 같이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대한 법칙을 추가해야 한다. 7그러야만 도덕 실재론에서는 약자를 돕는 윤리적 행위를 해야겠다는 동기 부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8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대한 법칙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 없이도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를 설명할 수 있는 정서주의는 도덕 실재론에 비해 높이 평가된다. 9또한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승인 감정과 부인 감정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정서주의에 따르면 사람들 간의 도덕적 판단의 차이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10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 합의하지 못하는 의견 차이에 대해서도 굳이 어느 한 쪽 의견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서로 감정과 태도가 다를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11이런 설명은 도덕적 판단의 차이로 인한 극단적인 대답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정서주의의 특징

- *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를 설명할 때, 승인 혹은 부인 감정만 필요
 - 도덕 실재론보다 단순하게 설명 가능
 - 도덕적 판단의 차이도 간단히 설명 가능해 극단적 대답을 피할 수 있음.

5 [마] 1하지만 옳음과 옳지 않음을 감정과 동일시하는 정서주의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2첫째, 감정이 변할 때마다 도덕적 판단도 변한다고 해야 하지만, 도덕적 판단은 수시로 바뀌지 않는다. 3둘째,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변할 수 있지만 도덕적 판단은 뚜렷한 근거 없이 바뀔 수 없다. 4셋째, 감정이 없다면 '도덕적으로 옳음'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도 없다고 해야 하지만, '도덕적으로 옳음'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보편적 인식과 배치된다.

5 정서주의의 문제점

- * 감정이 변할 때마다 도덕적 판단도 변한다고 해야 하지만, 도덕적 판단은 수시로 바뀌지 않음.
- *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변할 수 있지만 도덕적 판단은 뚜렷한 근거 없이 바뀔 수 없음.
- * 감정이 없다면 '도덕적으로 옳음'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보편적 인식과 배치

4

1~2

* <결과+원인>의 구조,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국어형 머리를 만들어 가는 논리적인 학습의 기본이 된다. 지문에서 '왜냐하면', '때문에'를 만나면 <인과> 구조를 염두에 두자.

1, 5, 8

* '~보다(비해)~'처럼 다른 대상과의 비교형 표현은 정/오 판단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밑줄을 그어 주의를 기울이자.

2

*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기~'처럼 다른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 서술은 선지의 정/오 판단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5

* '이에 비해'처럼 역주행 흐름 이전과 이후로 문단이 크게 둘로 나뉜다. 역주행 흐름 이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자. 4 문단처럼 내용이 긴 지문일수록 이러한 '조각기 시각화'는 독해의 안정감을 준다.

6~7

* 예시는 앞 내용에 대한 보조적, 구체적 진술이기 때문에 첫 독해 시 슬쩍 보고 넘겨도 된다.

5

1

* 문단 첫머리의 대답 접속어 <하지만>은 이전 문단의 핵심과는 반대의 맥락으로 전개될 것임을 나타낸다.

2~4

* '첫째, 둘째, 셋째'처럼 정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문제는 오답률이 낮다. 지문을 잘 정리하여 머릿속에 넣어 주기 때문이다. 독해 초보자에게 지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시각화: 밑줄, 동그라미, 세모 등)는 꼭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지문에 대한 깔끔한 정리(시각화)는 문제 풀이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정리를 최소화하고도 머릿속에 지문의 구조화를 할 수 있게 된다.

08.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44위

#단순 일치-불일치 #나열-반복-대구 #집중력 #최상의 조건

정답률 9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	② 3%	③ 2%	④ 90%	⑤ 2%

정답 풀이

④ (라): 도덕 실재론의 장점과 의미를 정서주의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라]

- 이런 1<정서주의>에서는 도덕적 판단이 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도덕 실재론>보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은 도덕적 판단의 차이로 인한 극단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라)는 선지 ④의 내용과는 반대로 <정서주의>의 장점과 의미를 <도덕 실재론>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라)가 <정서주의>를 서두로 한 것으로 보아 <도덕 실재론>을 서두로 하는 선지 ④가 적절하지 않음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다.

패턴 공략

▶ 지문: A는 B보다 우월 → 부적절 선지: B는 A보다 우월

오답 풀이

① (가):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을 구별하고 메타 윤리학의 두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가]

- 이렇게 1)구체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규범 윤리학>이라면, 옳음의 의미 문제, 도덕적 진리의 존재 문제 등과 같이 2)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에 대해 다루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메타 윤리학>에서 3)도덕 실재론과 4)정서주의는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과 도덕적 진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을 구별1~2)하고 메타 윤리학의 두 견해3~4)를 제시하고 있다.

☞ 메타 윤리학의 <i. 도덕 실재론, ii. 정서주의>라는 두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지 <~대해 상반된 주장>이라는 하나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② (나):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에 대한 도덕 실재론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나]

- 1<도덕 실재론>에서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를 과학적 판단 및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 본다. 즉 과학적 판단이~그런데 <도덕 실재론>에서 주장하듯,~.

↳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에 대한 <도덕 실재론>의 견해를 소개1)하고 있다.

☞ (나)의 서두에 선지 ②의 내용이 나타나 있으므로 1) 이후의 내용은 슬쩍 보더라도 선지 ②가 적절함을 신속히 판단할 수 있다. 1) 바로 다음 <즉>이라는 부사어를 통해 앞의 내용을 다시 풀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지의 정오 판단은 최소한의 지문을 근거로 해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③ (다):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에 대한 정서주의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다]

- 따라서 1<정서주의>에서는 '옳다' 혹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만 도덕 실재론과 달리 과학적 진리와 같은 <도덕적 진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에 대한 <정서주의>의 견해를 소개1)하고 있다.

최상의 조건

평소에 집중력을 키우자!

수능은 정답의 근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는 게임과 같다. 심하게 말하면,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근거만 찾으면 그만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중력이 제일 중요하다. 평소에 딱 1문제를 풀더라도 온 정신을 다하는 습관을 길러야 실전 수능에서 긴장감이 적절한 최대치의 집중력을 끌어낼 수 있다.

⑤ (마): 정서주의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나열하고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마]

- 하지만 옳음과 옳지 않음을 감정과 동일시하는 1<정서주의>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감정이 변할 때마다~둘째,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셋째, 감정이 없다면~.

↳ <정서주의>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문제1)를 나열(첫째, 둘째~)하고 있다.

패턴 공략

▶ <나열>은 2개 이상을 늘어뜨리는 것이므로 순서를 나타내는 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바탕 지식 더하기

※ <열거 vs 반복 vs 대구>에 대해 알아보자!

- 열거(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예 딸기, 포도,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 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함.
예 눈, 눈, 눈이 내린다! **운율 형성!**
- 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운율 형성!**

09.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98위

#이해 #온전하지 못한 시험 상황 #특성 바꿔 치기 #발문 유형별 선지 정오 판단 #최협의 조언

정답률
8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 ② 5% ③ 5% ④ 3% ⑤ 84%

정답 풀이

- ⑤ 도덕 실재론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승인 감정에 의해 '옳음'의 태도를 표현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다]

- 따라서 <정서주의>에서는 '옳다' 혹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만~도덕질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곧 옳음과 옳지 않음이라고 한다. 즉 '도덕질은 1)옳다'는 <도덕적 판단>은 도덕질에 대한 승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 ↳ 도덕적 판단이 승인 감정에 의해 '옳음'의 태도를 표현1)하는 것은 <도덕 실재론>이 아닌, <정서주의>에 따른 것이다.

패턴 공략

- ▶ 지문에 A, B 2가지 항목과 그의 특성이 나오면 이 둘의 특성을 바꿔치기한 부적절 선지가 꼭 나온다.

오답 풀이

- ①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 자체에 대해 연구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가]

- 옳음의 의미 문제, 도덕적 진리의 존재 문제 등과 같이 1)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에 대해 다루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 ↳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 자체에 대해 연구1)한다.

패턴 공략

- ▶ 지문: A 하는 것은 B이다. → 부적절 선지: B 하는 것은 A이다.

- ② 정서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와 직접 연결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라]

- 이런 1)<정서주의>에서는 <도덕적 판단>이 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도덕 실재론보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를 설명할 때 도덕적 판단이 나타내는 승인 감정 또는 부인 감정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 <동기를 부여할 다른 것은 필요 없음> 승인 감정은 어떤 행위를 좋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일어나길 욕망하는 것이기에 2)결국 그것 → <윤리적 행위>을 해야 한다는 동기 부여까지 직접 연결된다는 것이다.

- ↳ <정서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1)와 직접 연결2)된다.

최협의 조언

온전하지 못한 시험 상황

긴장감 혹은 시간 부족 등으로 모든 문제의 정답 근거를 완벽하게 찾아낼 수는 없다. 1)<정서주의>에서는~)만으로도 선지 ②가 적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은 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의 질과 양에 따른 선지의 정/오 판단력이 80% 정도 된다면 과감하게 다음 선지 혹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

- ③ 정서주의에 따르면,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의 도덕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문 속 근거 찾기

[다]

- <정서주의>에서는 '옳다' 혹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만 도덕 실재론과 달리 1)<과학적 진리>와 같은 <도덕적 진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 ↳ <정서주의>에 따르면,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의 <도덕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1)

- ④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는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가]

- 메타 윤리학에서 1)<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는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과 도덕적 진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 2)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 ↳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는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1)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기에2)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10.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44위

#일탈 선지의 법칙 #보기-선지의 법칙 #3점 #비판-비난

정답률 9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3%	③ 1%	④ 1%	⑤ 90%

✓ 정답 풀이

⑤ 감정과 달리 도덕적 판단을 바꿀 때에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하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①<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변할 수 있지만 2)<도덕적 판단>은 뚜렷한 근거 없이 바뀔 수 없다. [끝 문단]
→ <도덕적 판단은 뚜렷한 근거가 있다면 바뀔 수 있다.>

↳ ①을 긍정형으로 바꾸면 <~도덕적 판단은 뚜렷한 근거가 있다면 바뀔 수 있다.>2)이기 때문에 <감정과 달리>1) 도덕적 판단을 바꿀 때에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선지 ⑤는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도덕적 판단의 변화에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 없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도덕적 판단>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하다.2)

② 감정도 수시로 변하고, 도덕적 판단도 수시로 변한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변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수시로 변한다고 할 수 있으나 <도덕적 판단>은 <뚜렷한 근거> 없이 바뀔 수 없다2)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변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도덕적 판단과 달리 감정이 바뀔 때에는 이유가 필요하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선지 ③과는 반대로, <감정>이 바뀔 때와는 달리 도덕적 판단이 바뀔 때에는 이유가 필요하다.1~2)

④ 감정 없는 사람도 없고,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

↳ 전혀 상관없는 말이다.

Tip 실전 풀이

만약 시험 시간이 부족해 지문의 문제 중 몇 개만을 골라 풀어야 할 경우, 10번 같은 문제를 골라 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보다 정/오 판단의 근거 지문이 ①으로 한정되어 있어 문제 풀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11.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74위

#공통 선지의 법칙 #보기 제시 #3점 #이해 #구체적 상황 적용

정답률 81%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	② 4%	③ 7%	④ 81%	⑤ 5%

✓ 정답 풀이

④ B는 (ㄱ)과 (ㄴ) 중 하나는 '거짓'인 명제라고 생각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나]

- <도덕 실재론>에서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를 과학적 판단 및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 본다.~1)<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참으로 판정된 명제가 곧 도덕적 진리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 <보기>
B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도덕 실재론>의 설명을 똑같이 적용

↳ <보기>의 (ㄱ)과 (ㄴ)의 '~아름답다' 혹은 '~아름답지 않다'는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도덕 실재론>을 적용하는 B의 입장에서 주관적인 (ㄱ)과 (ㄴ)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다. 그래서 (ㄱ)과 (ㄴ)은 서로의 부정형이니 둘 중 하나는 참, 다른 하나는 거짓인 명제라고 생각한다는 선지 ④가 적절한 이해이다.

✓ 어휘 체크

* 명제: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의 논리적 판단 내용과 주장을 언어 또는 기호로 표시한 것.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오답 풀이

① A와 B는 모두 예술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나]

- <도덕 실재론>에서는 1)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를 과학적 판단 및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 본다.
→ <도덕적 판단=과학적 판단>
→ <주관적 판단=객관적 판단>

[다]

- 따라서 <정서주의>에서는 '옳다' 혹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만 도덕 실재론과 달리 2)과학적 진리와 같은 도덕적 진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 <도덕적 판단≠과학적 판단>
→ <주관적 판단≠객관적 판단>

↳ A(정서주의)는 과학적 진리와 같은 도덕적 진리는 없다는 입장2)을 보이기 때문에 예술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반면, B(도덕 실재론)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를 과학적 판단 및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1)라고 보기 때문에 예술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② A는 '아름다움'이라는 성질이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생각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다]

- 한편 1)〈정서주의〉에서는 어떤 도덕적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옳음이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성질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되는 명제를 나타내지 않는다.

↳ 〈정서주의〉에서는 도덕적으로 옳음이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성질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1)고 보고 있으므로 정서주의자인 A는 '아름다움'이라는 성질이 객관적으로 실재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A는 (ㄱ)과 (ㄴ) 중 하나는 '참'인 명제라고 생각하겠군.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ㄱ)과 (ㄴ) 중 하나는 '참'인 명제라고 생각하는 이는 A(정서주의)가 아닌 B(도덕 실재론)이다. 왜냐하면, B(도덕 실재론)의 입장에서 주관적인 (ㄱ)과 (ㄴ)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1)할 수 있어서 (ㄱ)과 (ㄴ)은 서로의 부정형이니 둘 중 하나는 참, 다른 하나는 거짓인 명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⑤ B는 (ㄱ)과 (ㄴ)은 모두 예술 작품 △△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표현한다고 생각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다]

- 따라서 〈정서주의〉에서는 '옳다' 혹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만 도덕 실재론과 달리 과학적 진리와 같은 도덕적 진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렇다면 1)〈정서주의〉에서는 옳음이나 옳지 않음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까? 도덕질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곧 옳음과 옳지 않음이라고 한다. → 〈정서주의는 옳음과 옳지 않음으로 감정과 태도를 드러냄.〉

↳ (ㄱ)과 (ㄴ)이 모두 예술 작품 △△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이는 B(도덕 실재론)가 아니라, 옳음과 옳지 않음으로 감정과 태도를 드러낸다1)는 A(정서주의자)이다.

★ 공통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위 문제의 선지 ③, ④는 명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통된다.

③ ~명제라고 생각하겠군.

④ ~명제라고 생각하겠군. 🗳️ (☆정답)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③, ④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메모

지문 난이도 ★★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B형 17~20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48위

01 ~ 04 과학철학의 설명 이론

1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설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과학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해 왔다.

1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제시해 온 과학철학

* 과학철학의 설명 이론: 왜에서 답으로 이르는 명확한 설명을 위함.

2 1처음으로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한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한다. 2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띤다. 3따라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하며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 4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첫째, 설명항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6둘째,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와 같은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7셋째,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8이때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다. 9이처럼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험펠의 설명 이론의 내용과 의의

* 험펠: 설명이 충족해야 할 3가지 조건

- ㄱ. 설명항에는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함.
- ㄴ.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함.
- ㄷ.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함.

* 건전한 논증: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

* 험펠의 설명 이론의 의의: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 요건을 제시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1
* 다음 문단부터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이 나올 것임을 예측하고 그 경계를 표시할 준비를 하면서 지문을 읽어 나가자.

2

1
* <처음으로~>를 통해 설명 이론이 험펠 말고도 더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2~3

* <원인+결과>의 구조. 국어 공부에서 <원인+결과>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3, 9

* '따라서', '이처럼'과 같이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정리하는 내용은 문단에서 포인트가 된다.

9

*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내용 자체가 대상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나타내므로 문단의 핵심과 연결된다.

3 하지만 **1** 헴펠의 설명 이론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즉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2** 먼저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으로 인정되지만, 헴펠에 따르면 설명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3** 또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이 되지 못하지만, 헴펠에 따르면 설명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4** 이는 헴펠의 이론이 설명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거나 하면 모두 설명으로 인정해야 하는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모두 설명에서 배제해야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3 헴펠의 설명 이론의 한계
 * 헴펠의 설명 이론의 문제점: 일상적 직관, 즉 추상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
 → 〈일상적 직관〉 혹은 〈헴펠〉에 따라,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설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4 **1** 헴펠과 달리 **2** 샬먼은 설명이 논증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인과 개념에 주목했다. **2** 피 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는 샬먼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헴펠의 이론보다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3** 하지만 어떤 설명 이론이라도 인과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4**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4** 왜냐하면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연쇄적으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5**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죽게 된 원인은 독을 마신 것이지만, 독을 마시게 된 원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원인도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다. **6** 이에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골라내는 문제는 결국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7** 그것이 없다면, 설명을 인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설명이라는 불명료한 개념을 인과라는 또 하나의 불명료한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이에 현대 철학자들은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4 샬먼의 설명 이론의 의의와 한계
 * 설명의 인과 개념에 주목
 -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
 -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

3
1
 * 문단 첫머리의 〈하지만〉은 이전 문단의 핵심을 부정하거나 반대의 맥락으로 이끈다.
2~3
 * 대립 표지어가 연속된다면 문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 ‘모두’, ‘꼭’, ‘오직’, ‘절대로’와 같이 다른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 수식어가 사용되었다면 부적절 선지의 판단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4
1, 3
 * ‘달리’, ‘하지만’과 같이 반대의 맥락을 나타내는 표지에는 눈에 띄는 세 모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2
 * ‘~보다 ~하다’처럼 비교형 표현은 선지의 정/오 판단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3~4
 * 〈결과+원인〉의 구조.
5
 * 예시는 이전 내용을 보충하는 구체적 내용이므로 첫 독해 시 대충 봐도 괜찮다.
7
 * ‘인과’, ‘불명료한 개념’처럼 한 문장 안에서 2번 이상 반복되는 어휘는 문장을 이해하는 핵심 어휘이므로 밑줄을 긋고 주의 깊게 봐야 한다.

01.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60위

#다른 내용

정답률 93%	선지별 선택 비율				
	① 4%	② 1%	③ 1%	④ 1%	⑤ 93%

정답 풀이

⑤ **샐먼의 설명 이론이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인 결과**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샐먼>은~하지만 어떤 설명 이론이라도 인과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1)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이에 2)현대 철학자들은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끝 문단]

↳ <샐먼의 설명 이론>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1)가 있고 <현대 철학자들>이 현대 과학의 성과를 통해 고민을 한다2)는 것은 있지만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내용은 없다.

오답 풀이

① **험펠의 설명 이론이 지니는 의의**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처럼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문단]

↳ <험펠의 설명 이론>이 지니는 <의의>

☞ 지문에 <의의>라는 말이 있어 적절함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음.

② **험펠의 설명 이론이 지니는 문제점**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하지만 <험펠의 설명 이론>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즉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3문단]

↳ <험펠의 설명 이론>이 지니는 <문제점>

☞ 지문에 <문제>라는 말이 있어 적절함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음.

③ **험펠의 설명 이론에서의 설명과 논증의 관계**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논증>은 1)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띤다. [2문단]

↳ **험펠의 설명 이론에서의 설명과 논증의 관계1)**

☞ 지문에 <설명>, <논증>이라는 말이 있어 적절함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음.

④ **샐먼의 설명 이론이 험펠 이론에 비해 지니는 장점**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는 샐먼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험펠의 이론보다 (샐먼의 이론이) 1)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끝 문단]

↳ <샐먼>의 설명 이론이 험펠의 이론에 비해 지니는 <장점>1)

☞ 지문에 <장점>이라는 말이 있어 적절함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음.

02.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66위

#이해

정답률 59%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9%	② 6%	③ 16%	④ 13%	⑤ 6%

정답 풀이

① **어떤 것이 건전한 논증이면 그것은 반드시 설명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설명항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둘째,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와 같은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셋째,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2문단]

↳ 어떤 것이 <건전한 논증>인 것인지 <설명>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중 1가지(셋째)만을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한 논증이면 그것은 반드시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패턴 공략

▶ 선지에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 '모두', '완전히' '반드시' 등의 어휘가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에서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답 풀이

② **일상적 직관에서 설명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모두 설명은 아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먼저 1)<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으로 인정되지만, 2)<험펠>에 따르면 설명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3문단]

↳ <일상적 직관>에서 설명으로 인정1)된다고 해도 <험펠>에 따르면 설명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2) 때 문에 모두 <설명>은 아니다.

③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설명항에 포함되는 명제들은 반드시 참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셋째,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이때 건전한 논증은 1)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다. [2문단]

↳ <설명>항은 결국 논증의 전제와 결론이 참이라는 조건1)을 만족(→ 건전한 논증)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설명항에 포함되는 명제들은 반드시 참이다.

④ 피설명항은 특정한 맥락에서 보편 법칙에 따라 발생한 개별 사례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처럼 험펠의 설명 이론은 1)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문단]

↳ <피설명항>은 특정한 맥락에서 보편 법칙에 따라 발생한 개별 사례1)이다.

⑤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피설명항은 반드시 설명항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한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1)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띤다. [2문단]

↳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피설명항은 반드시 설명항에서 논리적으로 도출1)된다.

03.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57위

#공통 선지의 법칙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92%	① 3%	② 1%	③ 3%	④ 92%	⑤ 1%

✓ 정답 풀이

④ 결과를 야기한 정확한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

🔍 지문 속 근거 찾기

- 하지만 어떤 설명 이론이라도 인과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①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1)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연쇄적으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이에 2)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골라내는 문제는 결국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끝 문단]

↳ 결과를 야기한 그 많은 원인 중1)에서 결과에 맞는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원인을 확실히 정하기 어렵다는 문제2)가 있다.

✗ 오답 풀이

① 설명 개념이 인과 개념보다 불명료하다는 문제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것이 없다면, 설명을 인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1)설명이라는 불명료한 개념을 <인과>라는 또 하나의 불명료한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 문단]

↳ <설명> 개념과 <인과> 개념 모두 불명료하다1)는 내용이 있어도 그중 무엇이 더 불명료하다는 것은 알 수 없다.

② 원인과 결과의 시공간적 연결은 불필요하다는 문제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에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골라내는 문제는 결국 1)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끝 문단]

↳ 원인과 결과의 <시공간적> 연결은 필요하다.1)

③ 인과 개념이 설명의 형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

🔍 지문 속 근거 찾기

- 1)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는 설명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험펠의 이론보다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끝 문단]

↳ '인과' 개념이 <설명>의 형식을 제시한다.1)

⑤ 피설명항에 원인을 제시하는 명제가 들어갈 수 없다는 문제

🔍 지문 속 근거 찾기

- 1)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는 설명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험펠의 이론보다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끝 문단]

↳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1)이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원인>을 제시하는 명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다.

★ 공통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위 문제의 선지 ④, ⑤는 원인과 관련된 부정적인 것이 공통된다.

- ④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 (☆정답)
- ⑤ ~'원인'을 제시하는 명제가 들어갈 수 없다는 문제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④, ⑤ 중에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04.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77위

#보기 제시 #3점 #인문의 이론

정답률 62%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19%	③ 11%	④ 62%	⑤ 3%

✓ 정답 풀이

④ (가): ㄹ (나): ㄱ, ㄴ (다): ㄷ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한 <헴펠>에 따르면~따라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하며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첫째, 설명항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1)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둘째,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와 같은 2)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2문단]

• <보기>

[물음]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왜 30°일까?
= {3}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30°이다. + 왜일까?}

[명제]

- ㄱ. A는 광선을 잘 반사하는~. → (A 관련 개별 사례)
- ㄴ.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 (A, B 관련 개별 사례)
- ㄷ.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 (A, B 관련 개별 사례)
- ㄹ.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에 대한 광선의 반사각은 입사각과 같다. → (보편적 지식)

↳ 명제 중 (가)의 보편 법칙1)에 해당하는 것은 ㄹ밖에 없다. 왜냐하면, 'ㄹ'은 ㄱ~ㄷ의 A 혹은 B에 관한 개별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결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음] 속에 전제된 결론3)이 <피설명항>이기 때문에 (다)는 ㄷ이고 ㄱ, ㄴ은 결론에 이르기 위한 선행 조건2)에 해당한다.

☞ 지문을 자세히 통하지 않고도 보편적(두루 널리 미치는)이라는 말의 뜻을 통해 (가)는 ㄹ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답은 ④, ⑤ 중에 하나라는 것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메모

05 ~ 07 신채호의 역사관

1 1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2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3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4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5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의 개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 신채호의 역사관: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 → 투쟁과 연대는 모순×

2 1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2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3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4그는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 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5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6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2 '아'와 자성의 의미

- * 아: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 + 비아와 마주 선 주체
- * 비아: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
- * 상대성: 누구나 아가 될 수 있음. or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아가 생성
- * 아의 자성: 항성(고유성, 자신 자각) + 변성(변화 적응, 비아와의 관계)

1

2

- * 문장이 길다면 삽표에서 흐름을 한 번 끊어 주자.
- * 〈원인+결과〉의 구성.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 *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力說): 역설(力說)은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모순, 반대를 의미하는 역설(逆說)이 아니다. 평가원에서 이를 테마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다.

3

*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등 전환 및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면 주의가 필요하므로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절하다.

5

- * 언제나 그렇듯이 첫 문단은 구체적인 화제를 찾으면 끝. 마지막 문장의 '아'가 바로 핵심 화제이다. 지문 자체에서 '아'를 핵심 개념이라고 친절하게 진술해 놓았다. 당연히 다음 문단에서 본격적으로 '아'가 설명될 것이다.
- * '이',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 가는 지시 대명사(이~, 그~)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3-4, 4-1, 5-2·5도 마찬가지로]

2

1

* 그렇게 길지 않은 한 문장 안에서 핵심 개념 두 개('아', '비아')가 진술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설명에 밑줄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

*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 → 상대성(다른 사물과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는 성질)의 의미에 따라, 〈누구나 〈아〉가 되는 것은 서로를 전제(→ 의존)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3

*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앞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보다.'라는 짐작을 해야 한다. 이 말은 앞의 내용을 완전히 100% 이해하지 못해도 뒤에 나올 내용을 통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전 독해 시, 해당 부분이 이해 안 간다고 너무 지체하는 것은 금물. 이와 같이 뒤에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수 있다. 본 설명을 시작도 안 했는데 앞에서 너무 힘쓰지 말고 독해의 에너지 조절을 잘 하라는 말)

4~5

- * 항성(고유성) vs 변성(변화성)처럼 대립적 특성을 지닌 두 대상이 자주 등장하면 이 둘의 특성을 바꿔치기한 부적절 선지는 반드시 만들어진다.
- * 항성-변성이 반복되어 혼란이 올 수 있지만 해당 특성에 밑줄만 잘 그어 놓으면 정리는 완벽! 실전 독해 시 설명 깊이가 있게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문제 풀 때 잘 구별해서 적용하면 된다.

3 1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2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3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4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뜻한다. 5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6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7만약 대아의 항성이 높고 변성이 낮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滅絶)할 것이며, 항성이 낮고 변성이 높으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3 '소아'와 '대아'의 차이점

- * 소아: 개인적, <상속성 & 보편성>×
- * 대아: 사회적, <상속성 & 보편성>○
- * 상속성: 시간적, 아의 생명력
보편성: 공간적, 아의 영향력
→ 보편성 통해 상속성 실현, 상속성 통해 보편성 실현
- * 대아의 자각 이후, 항성 & 변성의 조화 → 상속성 & 보편성 실현
- * <항성↑ 변성↓>: 환경에 순응×, 멸절
<항성↓ 변성↑>: 환경에 주체적 대응×, 우월한 비아에 정복당함.

4 1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2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3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역사적 주체 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아에 해당한다. 4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지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5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4 제국주의에 대한 신채호의 대응-신국민

- * 신국민 = 대아(상속성, 보편성) + 항성(주체 의식) + 변성(국가 정신)
- * 아의 생존을 위협하는 동양주의(일본을 중심으로 서구에 대한) 반대

3
1 * 대상의 구별 요소는 각각 밑줄의 대상이 된다.

2~3
* 소아(개인적) vs 대아(집단적)처럼 대립적 특성을 지닌 두 대상이 자주 등장하면 이들의 특성을 바꿔치기한 부적절 선지는 반드시 만들어진다.
* 소아-대아가 반복되어 혼란이 올 수 있지만 해당 특성에 밑줄만 잘 그어 놓으면 정리는 완벽! 2-4~5에서 말한 것처럼, 실전 독해 시 깊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문제 풀 때 잘 구별해서 적용하면 된다.

3
* 부정적 서술은 밑줄× 표시가 간결하다. <상속성×, 보편성×>
[4-4의 동양주의×도 마찬가지로]
* 한 문장 자체가 반대의 맥락(→ 반면)을 가지면서 두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면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4
* 보편성: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져 일반적으로 시간적·공간적 차원을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공간적 차원에서만 진술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5~6
* 두 대상의 관계성(상속성-보편성)에 대한 진술은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7
* '크다-작다', '높다-낮다' 등의 상태 비교형 표현은 화살표가 눈에 잘 들어온다. 당연히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화되기 딱 좋다.

4
2~3
* 신국민이 진술의 키워드로 제시되었다면 밑줄로, 정의나 핵심 특성이 설명되어 있다면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4~5
* <결과+원인>의 구성으로, 결과이든 원인이든 뒤에 제시된 것이 더 포인트이다.

5
*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그렇다면 일본은 비아란 말인가 아란 말인가? 본래 비아인 일본이 동양주의와 연관 지어 임시적으로 아가 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헛갈리는 내용은 당연히 문제화되기 딱 좋다.
* 이번 끝 문장은 4 문단의 1~5문장 중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는 것을 캐치했는가? 아마 신국민에 정신이 팔려 캐치하지 못했을 것이다. 끝 문장은 1 문단의 5문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핵심 개념인 '아'와 관련된 설명이기에 전체의 맥락을 이어 나가는 문장에 해당한다.

5 1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 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2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3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4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5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5 민중 연대를 통한 투쟁

- * 아 속의 비아: 일본에 동화되는 조선인
- * 비아 속의 아: 조선과 통하는 일본인
- * 민중: 비아(일본)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
- * 민중 연대
 - 비아에 동화×
 - 민족 내부의 위선 제거 → 아 속의 비아 제거
 -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 반대자와 연대 → 비아 속의 아와 연대

5

2

* 전체 지문 중 가장 복잡한 문장! 복잡할수록 침착하게 단순화할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다. (☆이런 복잡한 문장의 독해에는 시간을 아끼지 말자. 가장 미련하고 비효율적인 독해가 모든 문장 모든 지문을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집중력으로 대하는 것이다. 실전형 수능 독해는 일반 독서가 아니라, 문제만 풀면 그만인 전략적 행위임을 명심하자!)

* <아>를 긍정, <비아>를 부정으로 단순화하여 수식받는 말에 주목하면 이해하기 쉽다.

- 아 속(긍정)의 비아(부정): 결국엔 부정! (조선인인데 일본에 동화됨.)
- 비아(부정) 속의 아(긍정): 결국엔 긍정! (비록 일본인이지만 조선 편)



05.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65위

#다른 내용 #실전 풀이 Tip #최협의 조언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94%	① 1%	② 1%	③ 1%	④ 94%	⑤ 3%

✓ 정답 풀이

④ 신채호 사상에서의 대아의 역사적 기원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1)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3문단]

↳ 대아를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라고 설명했을 뿐, <대아의 역사적 기원>과 관련된 내용은 지문에 없다.

✗ 오답 풀이

①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그(신채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1문단]

↳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1)

② 신채호 사상에서의 자성의 의미

🔍 지문 속 근거 찾기

- 1)그(신채호)는 아이의 <자성>, 곧 '나의 나뭇'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2문단]

↳ 신채호 사상에서의 <자성>의 의미1)

③ 신채호가 밝힌 대아와 소아의 차이

🔍 지문 속 근거 찾기

- 1)그(신채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3문단]

↳ 신채호가 밝힌 <대아>와 <소아>의 차이1)

⑤ 신채호가 지향한 민중 연대의 의의

🔍 지문 속 근거 찾기

- 1)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끝 문단]

↳ 신채호가 지향한 <민중 연대>의 의의1)

패턴 공략

▶ '~에 대한 의의'는 글의 마무리 부분에 나오기 마련이므로 끝 문단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

TIP 실전 풀이

선지의 순서에 따라, 지문의 근거도 그 순서에 따르기 마련이다.

선지 ①의 내용 → [1문단]에 근거 있음.

선지 ②의 내용 → [2문단]에 근거 있음.

선지 ③의 내용 → [3문단]에 근거 있음.

선지 ④의 내용 → 없음. ✎ (☆정답)

선지 ⑤의 내용 → [끝 문단]에 근거 있음.

최협의 조언

이렇게 쉬운 문제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정답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문제를 먼저 읽는 수험생이라면 각 선지의 핵심(이해의 필요성, 자성, 대아, 소아, 역사적 가치, 역사적 기원, 민중 연대)에 적절한 표시를 해 두고 지문 순서에 따라 근거를 빠르게 찾아야 한다. 문제가 쉬울수록 순차적으로 한 문단에 선지 하나의 근거가 있으나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선지 하나의 근거가 여러 문단에 뒤섞여 나오며 한 문단에 두 개의 근거가 있을 수도 있다.

06.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74위

#공통 선지의 법칙 #이해 #실전 풀이 Tip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1%	① 3%	② 6%	③ 7%	④ 81%	⑤ 3%

✓ 정답 풀이

④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1)<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3문단]

↳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기1) 때문에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패턴 공략

▶ 지문: A 하면 B 하다. → 적절 선지: A 하지 않으면 B 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자성을 갖춘 모든 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3문단]

↳ <소아>는 <자성>을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한다. 1) 따라서 자성을 갖춘 모든 아(대아, 소아)가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Tip 실전 풀이

* 자성을 갖춘 모든 아는~갖는다.
→ 자성을 갖춘 아는 모두~갖는다.

☞ 다른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 말(모두, 절대로, 반드시...)이 있으면 적절하지 않은 선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②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 실현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3문단]

↳ <소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기 1) 때문에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과 상관없이 '상속성'과 '보편성'이 실현되지 못한다.

③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1) '보편성'의 확보(실현)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할 것이며, 2)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3문단]

↳ <상속성>의 실현은 '보편성'의 실현(확보)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1)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는 선지 ③은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과 상관없이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게다가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하여 2) '상속성'과 '보편성' 모두 실현될 수 없다.

⑤ 소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3문단]

↳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은 것과는 상관없이, <소아>는 상속성과 보편성 둘 다 갖지 못한다. 1)

★ 공통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선지 ②, ④는 항성과 변성의 조화에 따른 상속성과 보편성 실현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공통된다. → (선지 ②의 부정형이 바로 선지 ④에 해당)

- ②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 실현된다.
- ④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정답)

☞ A를 이루면 B가 실현되고 A를 이루지 못하면 B가 실현되지 않음!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②, ④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07.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54위

#대립 선지의 법칙 #이해 #3점 #최선의 조건 #최선의 Q&A

정답률
56%

선지별 선택 비율

① 6%	② 12%	③ 56%	④ 14%	⑤ 12%
------	-------	-------	-------	-------

✓ 정답 풀이

③ 신채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조선, 아, 일본, 비아> [4문단]

• 이에 그는 조선 민족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1)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끝 문단]

↳ <조선> 민족은 <아>이며 <일본>은 <비아>이기 때문에 독립투쟁을 하는 신채호의 입장에서 <비아인 일본>과의 연대를 통해 아(조선)의 생존을 꾀할 수 없다. 그래서 연대의 대상은 <비아>가 아니라, <비아 속의 아>이다. 1)

최שמ의 조언

[4문단] <비아인 일본>

→ 선지 ③ <비아와의 연대> × (👁️ 적절하지 않음 판단)

지문에서 딱 2어절만으로도 3점짜리 문제를 간단히 풀 수 있다. 더 많은 지문을 참고하여 정답을 더 확신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시간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지문에서 정답의 확신이 들면 다음 문제로 적절히 넘어가라.

※ <비아 속의 아>에 대해

<비아 속의 아>는 일본인이지만 조선에 동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본의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반대하는 이로,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한 일본인들은 <비아 속의 아> 결국엔 <비아>가 아닌 <아>로 봐야 한다.

<비아>는 조선 민족을 위협하기 때문에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인 조선의 생존을 꾀한다는 선지 ③은 적절하지 않다.

최שמ의 Q&A

Q 4문단의 끝 문장,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예,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에서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라는 말이 곧 <비아와의 연대를 통하여>라는 말과 같은 것 아닌가요?

A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는 것>은 일본의 동양주의 실현, 즉 아인 우리나라를 일본이 강제로 지배 및 통합한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가리키는 <비아와의 연대를 통하여>라는 말과 다른 것이다.

Q 연대할 대상이 <비아 속의 아>이면, 이것이 <비아>와의 연대 아닌가요?

A 연대할 대상은 <아>이다. <아>인데 어떤 <아>인가 하면, <비아 속의 아>인 것이다. 즉, '연대하다'에 해당하는 부사어(대상)는 <아>이지, <비아>가 아니다. <비아>는 <아>를 수식하는 말일 뿐이다.

예를 들어 나랑 같이 놀러 갈 사람이 <우리 엄마 친구의 아들인 철수>라면, 나는 <엄마 친구>랑 같이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친구의 아들>이랑 놀러 가는 것이다.

어휘 체크

* 연대: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오답 풀이

①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쓴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의 자성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지 계승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것이겠군.

66 지문속 근거 찾기

- 신채호는 1)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2)『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2문단]
-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3)『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3문단]

↳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쓴 것(2)은, 국가 차원의 '대아'(3)인 조선 민족의 자성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지·계승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1) 위한 것이다.

패턴 공략

▶ 지문: A 하기 위해 B 하다. → 적절 선지: B는 A 하기 위한 것이다.

최שמ의 Q&A

Q <대아>가 왜 '조선 민족의 자성'이 되죠?

A 대아인 조선, 민족의 자성으로 끊어 읽어야 한다. 즉, (대아=조선 민족의 '자성')이 아니라, (대아=조선)이다.

②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비판한 것은, 동양주의로 인해 아의 향성이 작아짐으로써 아의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겠군.

66 지문속 근거 찾기

- 그는 1)아의 <자성>, 곧 '나의 나 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2문단]
-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예, 조선 민족인 2)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4문단]

↳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비판한 것은, <동양주의>로 인해 아의 '항성'(→ 자성, 고유성 유지)1)이 작아짐으로써 아의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 생존 위협)2)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면 조선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작아지며 조선의 생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동양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다.

최שמ의 Q&A

Q 아의 특성 중 하나인 <자성>은 '항성'과 '변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항성'과 '변성'의 부조화가 자성의 존속 여부가 지 결정할 수 있나요? 둘의 조화가 무너지면 자성이 사라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문에서 유추하기 힘들어요.

A '자성'이 '나의 나 됨.'이므로 '조선 민족의 자성'은 '조선 민족의 조선 민족됨.'이다. '동양주의로 아의 향성이 작아짐으로써 아의 자성이 유지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은 '일본 중심주의가 되면 조선 민족의 고유성이 작아지게 되어 조선 민족의 조선 민족됨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④ 신채호가 독립 투쟁을 한 것은, 비아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1)그(신채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 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1문단]
- 동양주의는 2)〈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 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 (투쟁의 필요성) [4문단]
-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3)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 (투쟁의 대상: 제국주의) [끝 문단]

↳ 신채호가 독립 투쟁을 한 것)은, 〈비아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조선 민족인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여2)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한다3)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⑤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지향한 것은, 아가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여 억압을 이겨 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에 그(신채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1)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2)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3)자유를 지향했다. [끝 문단]

↳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2) 과 식민지 민중1)의 연대를 지향한 것은, 〈아〉가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여 억압을 이겨 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3)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를 긍정, 〈비아〉를 부정으로 단 순화하여 수식받는 말에 주목하면 이해가 쉽다.

- * 아 속(긍정)의 비아(부정): 결국엔 부정.
- * 비아(부정) 속의 아(긍정): 결국엔 긍정.

★ 대립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6쪽 참고)

* 위 문제는 선지 ③, ④가 비아에 대한 긍정/부정으로 1대 1 대립을 이룬다.

- ③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꾀할 수~: (긍정적) 👉 (☆정답)
- ④ ~〈비아〉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불가능하게~: (부정적)

선지 ③, ④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최협의 Q&A

Q 〈신채호의 역사관〉 같은 지문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나요? 지문은 미친 듯이 어렵고 정보는 쏟아져 내리는데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빠르게 지문에서 해당 부분을 읽어 보면 판단이 되는데... 1문단부터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다가는 멘탈은 무너지고 시간은 흘러가고 막상 문제 풀 때는 큰 도움도 안 되는 정보들이 깔렸는데..., 어떡하죠?

A 지문을 읽을 때 〈개념, 특성, 대상, 요소, 접속어, 표지〉 등에 밑줄을 치고 메모하는 습관을 갖자. 〈신채호의 역사관〉 지문의 경우는 역대급으로 밑줄 및 메모가 많다.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일지라도 이렇게 해야만 문제가 요구하는 근거 위치를 찾는 시간이 단축된다. 여기서 시간의 단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일이다. 메모, 밑줄에 따른 지문 구조화로 독해 시간이 늘어나는 손해를 만회하려면 구조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을 집중하여 정답을 한 번에 깔끔하게 찾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08~10 고고학의 유물 자료 해석

1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해 얻은 유물 자료에는 과거 인간의 삶에 관한 극히 단편적인 정보가 남아 있다. 2고고학은 이 자료를 통해 과거 인간의 삶을 복원하고자 여러 분야의 이론을 활용한다.

1 고고학의 연구 방법

* 고고학: 유물 자료를 통해 과거 인간의 삶을 복원하고자 여러 분야의 이론을 활용

2 예를 들어, 신화고고학에서는 인간의 삶은 자연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는 진화론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를 설명한다. 2진화론이 적용된 사례를 토기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이 연구에서는 ①서기 1세기부터 약 1천 년 동안 어느 한 지역에서 출토된 조리용 토기들의 두께와, 토기에 탄화된 채로 남아 있던 식재료에 사용된 곡물의 전분 함량을 조사했다. 4그 결과 후대로 갈수록 토기 두께가 상당히 얇아지고 곡물의 전분 함량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5진화고고학은 이렇게 토기 두께가 얇아진 이유를 전분이 좀 더 많은 씨앗의 출현이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6이 설명은 두께가 얇은 토기는 상대적으로 열을 더 잘 전달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과 전분이 많은 씨앗들은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끓일 때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7즉, 자연환경이 변화하여 껍질이 두껍고 전분 함량이 높은 씨앗이 많아짐으로써 씨앗의 채집량이 늘어날 수 있었고, 이 씨앗은 그 특성상 오래 가열해야 하므로 열전도가 빠른 토기가 사용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2 진화론에 초점을 둔 진화고고학의 '과거' 설명

* 진화고고학: 인간의 삶은 자연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는 진화론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를 설명

* 진화론이 적용된 사례: 토기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곡물의 전분 함량은 증가 → 얇아진 토기 두께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의 결과임.

3 그러나 이후에 더욱 세밀한 연대 측정을 통해 토기 두께의 변화를 세밀하게 비교해 본 결과, 토기의 두께가 점진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4세기경 급작스럽게 변화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또한 전분 함량이 높은 음식이 보편화된 것은 5세기 이후부터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3이로 인해 토기의 두께 변화에 대한 자연 선택적 설명은 그 설득력이 약화되었다.

3 진화고고학의 한계

* 자연 선택적 설명 약화

- 토기의 두께는 4세기경 갑자기 변화한 것
- 5세기 이후 토기의 두께 변화 없음.
- 5세기 이후 전분 함량이 높은 음식 보편화

1
2 * '여러 분야의 이론'을 통해 고고학과 관련된 이론 2가지 이상이 (문단 내에 or 문단별로)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2
2 * '~에 대한 연구'라면 연구 과정과 결과가 나올 것이고 결과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바탕 지식 더하기

※ <사례와 예시>에 대해 알아보자!

ㄱ. 사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 과거의 일)

ㄴ. 예시: 예를 들어 보임.

▶ 2016 수능 (사례 VS 예시)를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됨.

3
* '1세기~1천 년'처럼 시간과 관련된 말이 나오면 시간에 따른 전개 방식이 될 수 있다.

4
* '~할수록 ~하다'와 같은 비례 형식은 문제로 출제되기 좋다.

5
* <결과+원인>의 구성

6
* <원인+결과>의 구성

7
* '즉'은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쉽게 정리해 준다.

3
1 * 문단 첫머리의 역접어(그러나)는 이전 문단의 핵심을 부정하거나 반대의 흐름으로 이끈다.

* '~지만', '~아니라'처럼 문단에서 역주행 흐름을 나타내는 말에는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당하며, 이 역주행 흐름에 독해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4-1·3도 마찬가지)

4 한편, 두께가 얇은 토기가 사용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기 두께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께가 얇아진 토기가 장기간 사용된 이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예컨대 전분 함량이 높은 곡물을 아기들의 이유식으로 이용한다면 여성들의 수유기가 단축됨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3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두께가 얇은 토기가 오랫동안 사용된 원인을 자연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유식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능동적 선택에서 찾는 생태학적 이론에 입각한 설명도 가능하다. 4생태학적 설명은 진화론적 관점에 근거하지만 인간의 이성적 사유 능력에 따른 선택 과정에 좀 더 주목한 것이다.

4 진화고고학의 생태학적 설명

- * 두께가 얇아진 토기가 장기간 사용된 이유: 이유식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능동적 선택
- * 생태학적 설명: 진화론적 관점에 근거하지만 인간의 이성적 사유 능력에 따른 선택 과정에 좀 더 주목

5 1진화고고학과는 달리 유물의 의미를 해석할 때 기능적 요인보다는 개개의 유물이 사용된 맥락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 유물을 사용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기호 변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유물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관점도 있다. 2이 관점에서는 4세기경에 토기의 두께가 급격히 얇아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5 진화고고학의 사회문화적 설명

- * 사회 문화적 요인의 관점
 - 개개의 유물이 사용된 맥락 중시
 - 유물을 사용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기호 변화 중시

6 1이처럼 고고학에서는 발굴을 통해 유물 자료가 빠르게 축적되고, 주변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운 측정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제시된다. 2따라서 특정한 이론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자료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해석을 하고자 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5 진화고고학에서 필요한 연구 자세

- * 새로운 자료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유물 자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하고자 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

4

1 * '~지만', '~아니라'처럼 문단에서 역주행 흐름을 나타내는 말에는 가장 눈에 띄는 세로 표시가 적당하며, 이 역주행 흐름에 독해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바탕 지식 더하기

※ <원인과 이유>를 구분해 보자.

ㄱ. 원인: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

ㄴ. 이유: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

▶ 대개는 (원인=이유)인 경우가 많으나, 근본적인 원인이나? 직접적인 이유냐?를 구별 판단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된다.

예사: 물가 경직(근본 원인) → 시장 금리 하락(직접적 이유) → 투자금 유출(결과)

'투자금 유출'의 근본 원인은 '물가 경직'이며 직접적인 이유는 '시장 금리 하락'이다. 또한 '시장 금리 하락'(결과)의 원인이자 이유는 '물가 경직'이다. (☆3개 이상의 항목이라면 원인과 결과는 상대적인 것에 주의하자!)

5

1 * (A보다 B)의 구조와 같이, 비교형 내용은 서로를 뒤바꾼 잘못된 선지가 가공되기 마련이다.

2 * '결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 내용은 이에 해당하는 '원인'이 나와야 한다.

6

1~2 * 객관적 사실: '발굴을 통해 자료 축적', '새로운 측정 방법 개발', '다양한 해석 제시'

주관적 의견: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 지문에서 <객관적 사실 ↔ 주관적 의견>을 구분하는 일은 국어 학습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08.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28위

#일치-불일치 #출제자의 함정 포인트

정답률 88%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	② 4%	③ 88%	④ 2%	⑤ 3%

정답 풀이

③ 유물에 대한 연대 측정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발굴되는 유물의 양이 늘어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러나 이후에 (연대 측정 기술이 발달해서) 1)더욱 세밀한 연대 측정을 통해 토기 두께의 변화를 세밀하게 비교해 본 결과, [3문단]
- 이처럼 고고학에서는 발굴을 통해 유물 자료가 빠르게 축적되고, <주변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운 측정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제시된다. [끝 문단]

→ 유물에 대한 <연대 측정 기술이 발달>해서 더욱 세밀한 연대 측정1)이 가능하다는 추측을 하거나 끝 문단을 통해 <주변 과학의 발달 → 새로운 측정 방법 제시 → 다양한 해석 제시>를 이끌어 낼 수 있어도 <연대 측정 기술의 발달>과 <발굴 유물의 양>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은 지문에서 유추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기술이 발달>하면 기존에 발견하지 못한 <유물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문 어디를 보더라도 <연대 측정 기술의 발달>과 <발굴 유물의 양>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은 없다. ☆정/오 판단의 근거는 지문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찾아야 한다.

해법 POINT

◆ 끝 문단과 ③의 유사성 비교 (출제자의 함정 포인트☆)

[끝 문단]: <과학>이 발달할수록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③: <기술>이 발달할수록 <유물의 양>이 늘어난다.

(과학 ≙ 기술), (다양한 ≙ 늘어남)

☞ 일치-불일치 문제는 지문과 선지의 내용의 유사함이 아닌 정확함으로 정답을 찾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고고학은 유물로부터 얻은 정보를 축적하여 다양한 해석을 시도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고고학>에서는 발굴을 통해 유물 자료가 빠르게 <축적>되고, 주변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운 측정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제시된다. [끝 문단]

→ 1)을 통해 ‘<고고학>이 유물로부터 얻은 정보를 <축적>하여 <다양한 해석>을 시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4, 5문단을 통해 선지 ①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지만 끝 문단의 요약된 정보를 통해 ①의 적절함을 판단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다.

② 발굴로 얻어지는 유물은 과거 인간의 삶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고고학자들이 1)발굴을 통해 얻은 유물 자료에는 과거 인간의 삶에 관한 극히 단편적인 정보가 남아 있다. [1문단]

→ 발굴로 얻어지는 유물은 과거 인간의 삶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1)

④ 개선된 측정 방법으로 유물의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하면 새로운 고고학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러나 이후에 1)더욱 세밀한 연대 측정을 통해 토기 두께의 변화를 세밀하게 비교해 본 결과,~ [3문단]
-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두께가 얇은 토기가 오랫동안 사용된 원인을 자연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유식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능동적 선택에서 찾는 2)생태학적 이론에 입각한 설명도 가능 → <새로운 고고학적 해석 가능>하다.~ [4문단]

→ 개선된 측정 방법으로 유물의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1)하면 새로운 고고학적 해석이 가능2)해진다.

⑤ 고고학은 부분적인 정보가 들어 있는 유물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이론을 활용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고고학>은 1)이 자료를 통해 과거 인간의 삶을 복원하고자 2)여러 분야의 이론을 활용한다. [1문단]

→ <고고학>은 부분적인 정보가 들어 있는 유물들을 통해 인간의 삶을 복원하려는 연구 과정1)에서 여러 분야의 이론을 활용2)한다.

09.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17위

#입장 #분석

정답률 86%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	② 3%	③ 5%	④ 86%	⑤ 3%

정답 풀이

④ 토기로 조리한 음식의 종류는 당시의 자연환경을 추측하여 알아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즉, 1)<자연환경>이 변화하여 껍질이 두껍고 2)전분 함량이 높은 씨앗이 많아짐으로써 씨앗의 채집량이 늘어날 수 있었고, [2문단]

지문 난이도 ★★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B형 21~23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31위

01 ~ 03 정합설의 이해

1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2**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이다. **3**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4** 그러면 '정합적이다'는 무슨 의미인가? **5**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과 '함축', 그리고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의해 왔다.

1 '정합적이다'의 3가지 정의

- * 정합적: '모순 없음', '함축',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의
→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

2 먼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2** 여기서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처럼 **②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3**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다. **4**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의 예에서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2 '모순 없음'

- *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
 - 추가 명제와 참인 명제의 모순 × -정합적○
 - 추가 명제와 참인 명제의 모순 ○ -정합적×
- * 모순: 동시에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
- * 문제점: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음.

3 **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2**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룬다. **3**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4**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다. **5** 왜냐하면 "은주는 학생이다."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에 의해 함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3 '함축'

- *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 참인 명제와 무관한 명제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음.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1, 2>+3

* <결과+원인>의 구조.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을 향상하는 데에 토대가 되는 일이다.

[3-4~5도 마찬가지로]

5

* '정합적'의 정의의 3가지 요소(모순 없음, 함축, 설명적 연관)를 큰 줄기로 글이 전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2

1

* '모순이 없으면' ↔ '모순이 있으면'처럼 대립 항이 있는 내용은 문제화되기 좋다. (1번 문제의 정답과 2번 문제의 선지 ③과 관련됨!)

2

* <A처럼 B하다.>의 구조. A는 B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내용에 불과하다. 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B에만이라도 포인트를 두자.

4

* '~문제가 생긴다'처럼 (문제 사항)으로 문단이 마무리되면 다음에는 이와 관련된 <해결 사항>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예측을 하면서 다음 내용을 만나는 것과 그냥 준비 없이 다음 내용을 만나는 것은 독해력과 독해 시간의 분명한 차이를 가져온다.)

3

※ 이전 문제에 대해 <해결 사항>이 시작된다.

1~5

* '함축'처럼 문단 내에서 모든 문장에 동일한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를 키워드로 잡고 서로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4 1.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2.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3. 명제 "민수는 운동 신경이 좋다."는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지만,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 4.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5. 두 경우 각각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 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6.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다. 7.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8.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9.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4 '설명적 연관'

- *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 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음.
-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포괄

5 1. 그러나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2. 문제와 관련된 최근 연구는 확률 이론을 활용하여 정합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5 '설명적 연관'의 문제점

- * 설명적 연관의 정확한 의미, 연관의 긴밀도 측정 방법 X

4

1+2

* <문제+해결>의 구조. [5]-1·2도 마찬가지]

1

* '과도하게 제한된다.'처럼 문장에서 부정어를 만나면 '〈문제 사항〉으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반복적으로 학습된 결과물의 차이이다. 기출 문제는 한 번 보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문제들이다. N회독으로 체화시켜 이것이 쌓이면 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성급한 마음을 버리고 천천히 천천히 공들여 성적의 탑을 쌓아 나가자.

9

* <A보다 B>의 구조와 같이 대상을 비교하는 내용은 둘의 성격을 바꿔치기한 잘못된 선지가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5

1~2

* 끝 문단의 <문제+해결> 구조는 여운을 남기는 정도로 가볍게 취급하면 된다.

01.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70위

#일치-불일치

정답률 6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	② 8%	③ 27%	④ 60%	⑤ 3%

정답 풀이

④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는 있지만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먼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1)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2문단]

- 2)〈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다. ~3)〈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4문단]

해법 POINT

- * 선지를 분석·판단해 보면,
- ④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는 있지만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 *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
- *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 <모순이 있어야 한다> (×)

➔ 왜냐하면,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2)이며 모순이 없어야 하기(1) 때문이다.

패턴 공략

▶ 부정+부정=긍정!

*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 (모순이 있다)

최선의 조언

선지의 근거를 지문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지를 최대한 단순화하는 것이다.

X 오답 풀이

① 정합설에서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제들 간의 관계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이다. <정합설>에 따르면, 1)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1문단]

↳ ‘어떤 명제가 참인 이유는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에는 명제들 간의 관계가 <정합적>이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정합설>에서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제들 간의 관계(정합적인지 정합적이지 않은지)로 보는 선지 ①은 적절하다.

② 정합설에서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어떤 새로운 명제가 정합적이면, 그 새로운 명제도 참이다.

[선지 ①의 근거 지문 참고]

↳ <정합적>인 관계가 어떤 명제의 참인 것을 바탕1)으로 하기 때문에 <정합설>에서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어떤 새로운 명제가 <정합적>이면, 그 새로운 명제도 참이 된다.

③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에도 참이 아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먼저 1)‘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2)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2문단]

• 3)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 (한 명제가 참이 아닐 때, 다른 명제도 참이 아님) [3문단]

↳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인 명제는 모순이 없는 명제1)이며 <참이 아닌 명제>는 모순이 있는 명제이다. 이 모순이 있는 <참이 아닌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에도 당연히 참이 아니다.3)

A: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B: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

☞ A, B는 모순으로 참이 아니고2) A 자체가 B를 함축하는 하는 것도 아니다.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하지 못하니 당연히 참이 아니다.3)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연관의 긴밀도 문제 때문에 정합설은 아직 한계가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 보다는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4문단]

• 그러나 2)<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끝 문단]

↳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2)이기 때문에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1)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연관의 긴밀도 문제 때문에 정합설은 아직 한계가 있다는 선지 ⑤는 적절하다.

02.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03위

#사례

정답률 68%	선지별 선택 비율				
	① 68%	② 4%	③ 22%	④ 3%	⑤ 3%

✓ 정답 풀이

①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 -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가 참이면,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가 반드시 거짓이 됨.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가 거짓이면,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가 반드시 참이 됨.

↳ 그래서 ㉞의 사례처럼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다.

X 오답 풀이

② 민수는 농구를 좋아한다. - 민수는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한다.

<민수는 농구를 좋아한다.>가 참이어도,
<민수는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한다.>도 참이 될 수 있음.

<민수는 농구를 좋아한다.>가 거짓이어도,
<민수는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한다.>도 거짓이 될 수 있음.

↳ 그래서 두 명제는 ㉞의 사례와는 다르게 동시에 참이 되거나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다.

③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 - 그것은 민수에게 손해이다.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가 참이면,
 〈그것은 민수에게 손해이다.〉가 반드시 거짓이 됨.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가 거짓이면,
 〈그것은 민수에게 손해이다.〉가 참 혹은 거짓이 됨.
 (이익도 손해도 아닌 중립적 가치를 고려)

↳ 그래서 두 명제는 ㉔의 사례와는 다르게 동시에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다.

④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다. -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다.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다.〉가 참이어도,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다.〉도 참이 될 수 있음.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다.〉가 거짓이면,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다.〉는 반드시 참이 됨

↳ 그래서 두 명제가 ㉔의 사례와는 다르게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다.

⑤ 민수의 말이 옳다. - 은주의 말이 틀리다.

〈민수의 말이 옳다.〉가 참이어도,
 〈은주의 말이 틀리다.〉도 참이 될 수 있음.
 〈민수의 말이 옳다.〉가 거짓이어도,
 〈은주의 말이 틀리다.〉도 거짓이 될 수 있음.

↳ 그래서 두 명제는 ㉔의 사례와는 다르게 동시에 참이 되거나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다.

03.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15위

#보기 제시 #3점

정답률 71%	선지별 선택 비율				
	① 7%	② 2%	③ 5%	④ 15%	⑤ 71%

정답 풀이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1)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다. 2)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4문단]

↳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2)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는 <보기>의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와 함축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1, 3)

X 오답 풀이

①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슬쉴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1)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2)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다. [2문단]

↳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1) <우리 동네에는 슬쉴이 있다.>는 <보기>의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와 모순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는 슬쉴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2)

②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2)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룬다. [3문단]

↳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1)하면, <보기>의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가 참이기 때문에 함축 관계를 이루는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2)로 추가할 수 있다.

③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예비 전력의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그래서 1)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명제 “민수는 운동 신경이 좋다.”는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지만,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2)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 [4문단]

↳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1)하면, <예비 전력의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는 <보기>의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를 함축하지는 않지만 정전의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2)해 주기 때문에 <예비 전력의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④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슬쉴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선지 ㉔의 근거 지문 참고]

↳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1)하면, <보기>의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가 참이더라도 <우리 동네에는 슬쉴이 있다.>가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2) 서로 두 명제가 함축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슬쉴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04~05 토인비의 역사 연구

1 1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를 펴내며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했다. 2그는 예를 들어 영국이 대륙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왔으므로, 영국의 역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서유럽 문명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3그는 문명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가설들을 세웠다. 4그리고 방대한 사료(史料)를 바탕으로 그 가설들을 검증하여 문명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쇠퇴 요인들을 규명하려 하였다.

1 토인비의 문명 중심의 역사 이해

- *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문명-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
- * 문명 중심의 역사 이해: 몇 가지 가설들을 세움. → 문명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쇠퇴 요인들을 규명

2 1토인비가 세운 가설들의 중심축은 '도전과 응전' 및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 개념이다. 2그에 의하면 환경의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인간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키고 성장시킨다. 3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역경이라는 점이다. 4인간의 창의적 행동은 역경을 당해 이를 이겨 내려는 분투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2 토인비가 세운 가설의 핵심

- * 문명 발생 및 성장: 환경(→역경)의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
- * 인간의 창의적 행동: 역경을 이겨 내려는 분투 과정에서 발생.

3 1토인비는 이 가설이 단순하게 도전이 강렬할수록 그 도전이 주는 자극의 강도가 커지고 응전의 효력도 이에 비례한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위 '세 가지 상호 관계의 비교'를 제시하여 이 가설을 보완하고 있다. 2즉 도전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이 성공적일 수 없게 되며, 반대로 너무 작을 경우에는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3 문명 발생의 조건-최적의 도전

- * 도전의 강도가 너무 크면 응전이 실패, 반대로 너무 작으면 무반응 →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남.

1

- * <A(국가)가 아닌, B(문명)>의 형태에서는 B(문명)가 키워드에 해당한다.
- * 앞의 내용이 쉽거나, 어렵더라도 이해를 했다면 예시 내용은 썩~ 보고 지나가도 괜찮다. 어차피 앞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진술이기 때문이다. * <원인+결과>의 구성.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 * '몇 가지 가설들'을 통해, 문단별로 가설이 나열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 3~4 * 여전히 핵심 키워드는 '문명'. 이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2

- * <~성공적으로 응전~발생~성장>과 같이 어렵지 않은 내용의 진부한 흐름은 밑줄 표시 없이 지나가자.
- * '중요한 것은'처럼 지문 자체가 포인트를 알려 준다면 키워드(역경)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하자. [5-2도 마찬가지로]
- * '여기서', '이', '이렇게', '이와 같이', '이들은', '그리하여'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 가는 지시 대명사(이~, 그~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4-1·4, 5-2·5]

3~4

- * <결과+원인>의 구성

3

- * 문장이 길다면 심표에서 흐름을 한 번 끊어 주자.
- * 첫머리에 <즉, 다시 말해서> 등이 있는 문장은 이전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보다는 깔끔하다. 앞의 내용을 불완전하게 읽어 넘겼더라도 <즉, 다시 말해서> 등으로 시작하는 다음 문장만 이해해도 충분하다. [4-1도 마찬가지로]
- * '반대로'처럼 전환 및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면 주의가 필요하므로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절하다. [4-3, 5-6도 마찬가지로]

4 1) >렇게 성공적인 응전을 통해 나타난 문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즉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2) 토인비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창조적 인물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3) 그러나 이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수의 대중까지 힘을 결집해야 한다. 4) 때 대중은 일종의 사회적 훈련인 모방을 통해 그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4 문명의 성장에 필요한 요소-대중의 모방

* **문명 성장의 조건:** 새로운 문제 해결 → [창조적 인물들의 역량 발휘 + 대중(→ 모방)의 힘 결집]

5 1) 물론 모방은 모든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 >기에 대해 토인비는 모방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방의 작용 방향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3)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 모방은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한다. 4) 그리고 죽은 선조들은 살아 있는 연장자의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권위를 강화해 준다. 5) >하여 이 사회는 인습이 지배하게 되고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6) 반대로 모방이 창조적 소수에게로 향하는 사회에서는 인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문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5 모방의 작용 방향에 따른 문명의 발전

* 모방이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함: 인습이 지배하며 발전적 변화 없음. → 문명 발생×
 * 모방이 창조적 소수에게로 향함: 인습의 권위를 인정× → 문명의 성장

4

1 * 문단 첫머리의 '이렇게'는 이전 문단 정주행의 흐름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야 한다.(역주행 흐름은 조금 더 집중해서!)

* 모든 문단(혹은 문장)을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집중력으로 읽어 나가는 것은 경제성에 어긋난다. 실전 수능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 쓸 때 제대로(정독, 신중, 집중) 쓰고 아낄(속독, 대강, 슬쩍) 곳은 아끼자. 그래야만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도 제대로 못 읽고 찍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3 * 역주행의 흐름에는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좋다. 독해력이 약하다면 이런 표시를 게을리하지 말자. 단, 어느 정도 독해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4 * 신정보가 되는 키워드(모방)에는 동그라미를 아끼지 말자.

5

3, 6 * '문명 발생×' ↔ '문명 지속 성장○~'처럼 대립 항목의 서술 내용은 문제화되기 쉽다.

4 * 죽은 선조들의 업적, 관습 등을 따르는 현세대는 (옛것을 따르는) 이것이 자신들의 권위를 높여 준다고 생각한다.

5~6 대상에 대한 부정적 서술은 밑줄×가 적절하다.
 (발전적×, 인습의 권위×)

04.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52위

#건해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79%	① 79%	② 5%	③ 2%	④ 5%	⑤ 9%

정답 풀이

① 문명은 최적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 응전에서 나타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즉 도전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이 성공적일 수 없게 되며, 반대로 너무 작을 경우에는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1)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3문단]
- 이렇게 2)성공적인 응전을 통해 나타난 <문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4문단]

↳ <문명>은 최적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인 응전에서 나타난다. 1~2)

X 오답 풀이

② 모방의 존재 여부는 문명의 발생과 성장의 기준이 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물론 모방은 모든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1)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도 (모방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 토인비는 2)모방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방의 작용 방향>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끝 문단]

↳ 모방이 있다고 해서 꼭 문명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1)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도 (모방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모방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방의 작용 방향>이 중요2)하므로 이것이 문명 발생과 성장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③ 역사는 국가를 기본 단위로 연구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를 펴내며 1)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했다. [1문단]

↳ 역사는 ‘국가’가 아닌 <문명>을 기본 단위1)로 연구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④ 환경의 도전이 강력할수록 그에 대한 응전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즉 1)도전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이 성공적일 수 없게 되며 반대로 너무 작을 경우에는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2)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3문단]

↳ 환경의 도전이 강력할수록(지나치게 커지면) 응전은 성공적일 수 없게 된다. 1)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 2)

⑤ 선조에 기대어 기성세대의 권위가 강화되는 사회는 발전적 변화를 겪는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 모방은 1)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한다.~그리하여 이 사회는 인습이 지배하게 되고 2)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끝 문단]

↳ 선조에 기대어 기성세대의 권위가 강화되는(모방이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하는)1) 사회는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2)

어휘 체크

* 기성세대: 현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나이가 든 세대.

05.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53위

#보기 선지의 법칙 #윗글 바탕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91%	① 2%	② 3%	③ 91%	④ 3%	⑤ 1%

정답 풀이

③ 둘째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킨 후 이 집단의 창조적 소수들이 계속된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했다고 보아야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렇게 성공적인 응전을 통해 나타난 1)문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즉 2)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4문단]

• <보기>

<둘째 집단>은 생활양식만을 변경하여 그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문명 단계에는 들어갔으나 3)더 이상의 발전이 없이 정체되고 말았다.

↳ <둘째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킨 후 더 이상의 발전 없이 정체3)되고 말았기 때문에 이 집단의 창조적 소수들이 계속된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했다고 보긴 어렵다. 새로운 도전을 해결2)했다면 문명이 성장1)했을 것이다.

X 오답 풀이

① **사막화는 서남아시아 일부 초원 지역 사람들이 당면했던 역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에 의하면 환경의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인간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키고 성장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역경>이라는 점이다. [2문단]

↳ <사막화>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역경>이면서 도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첫째 집단에서는 모방이 작용하는 방향이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했다고 보아야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 1)(<모방>)은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한다. [끝 문단]
- <보기>
 <첫째 집단>은 그대로 머물러 생활양식을 유지하며 겨우 생존만 하다가 2)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 (<문명 단계에는 못 들어감.>)

↳ <첫째 집단>에서는 문명 단계에는 못들어가고 멸망2)했기에 <모방>이 작용하는 방향이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했다1)고 볼 수 있다.

④ **셋째 집단에서는 창조적 소수가 나타났고, 대중의 모방이 그들을 향했다고 보아야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반대로 1)(<모방>)이 <창조적 소수>에게로 향하는 사회에서는 인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2)문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끝 문단]
- <보기>
 <셋째 집단>은 다른 지역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이주한 다음, 농경 생활을 선택하여 새로운 고대 문명을 일구고 이어지는 3)문제들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갔다.

↳ <셋째 집단>에서는 <창조적 소수>가 나타났고, 대중의 <모방>이 그들을 향했기1)에 문제들도 성공적으로 해결3)하는 등 문명이 지속적으로 성장2)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셋째 집단은 생활 터전과 생활양식을 모두 바꾸는 방식으로 환경의 변화에 응전하여 문명을 발생시켰다고 보아야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에 의하면 환경의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인간 집단 (→ 보기의 '셋째 집단')이 1)문명을 발생시키고 성장시킨다. [2문단]

• <보기>

<셋째 집단>은 다른 지역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이주한 다음, 2)농경 생활을 선택(→ 이전에는 '수렵' 생활이었음)하여 새로운 고대 문명을 일구고 이어지는 문제들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갔다.

↳ <셋째 집단>은 생활 터전의 이주와 생활양식을 '수렵'에서 '농경'으로 바꾸는 방식2)으로 환경의 변화에 응전하여 문명을 발생1)시켰다고 본다.

★ 보기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8쪽 참고)

* 보기-선지의 대응성만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다.

- <보기>의 핵심 → 둘째 집단은~발전이 없이 지체.
- ③ → 둘째 집단이~도전들을 해결. (☆정답)

06~08 심신 이원론과 심신 일원론

1 1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2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3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4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5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6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1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상반된 입장
 * 심신 이원론: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서로 다른 종류 but 서로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 시도

2 1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상호 작용론이 있다. 2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3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2 심신 이원론의 입장 ①-상호 작용론의 내용과 문제점
 * 상호 작용론: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음.
 * 문제점: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1**
- 2**
 * '이러한', '이',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 가는 지시 대명사(이~, 그~)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2-2, 3-2, 4-2, 5-2도 마찬가지로]
- 3**
 * '그런데', '그러나' 등 전환 및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면 주의가 필요하므로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절하다.
 [2-3, 3-1·5, 4-3·4, 5-2도 마찬가지로]
- 5~6**
 * 문제(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 & 관련성을 조화시키기)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화제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본문에 나올 것임을 예측하면서 지문을 읽어 나가야 한다. 바로 다음의 끝 문장이 다음 문단의 내용을 예고한다.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것임을 예측!)
- 6**
 * 주제나 대상이 동그라미 혹은 네모를 할 만큼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 때 밑줄을 그어 놓고 그에 대한 특성이나 서술은 물결무늬 표시가 적절하다.
 → 시각적 효과의 극대화! [2-1, 3 3-1도 마찬가지로]
 * 문장이 길다면 쉼표에서 한 번 끊어 주자.
 [2-2, 3-1, 4-3·4, 5-3도 마찬가지로]

- 2**
- 1**
 * '먼저'라는 표지어를 통해, 화제에 대한 동일한 층위의 개념(→ 다양한 방법이 해당 문단 혹은 다음 문단에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1~3**
 * <이론+예시+문제점>의 구성. 또 이와 같은 구성이 다음 문단에도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며 글을 읽어야 한다. (☆문단의 구조를 예측하며 읽기: 독해 속도를 빠르게 하며 포인트 잡기가 수월해짐.) [결과적으로 3, 4 문단도 동일한 구성임.]
- 3**
 * 설의적 표현 조심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1)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2)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3)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4)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5)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3 심신 이원론의 입장 ② - 평행론의 내용과 문제점

* **평행론**: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인과 관계 성립×, 평행하게 일어남.

-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
-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와 충돌× → 물질적 사건의 원인 설명은 물질 자체적으로 가능
-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

4 1)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2)에 따르면 ㉠ **육체적 사건**은 ㉡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도 된다. 3)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4 심신 이원론의 입장 ③ - 부수 현상론의 내용과 문제점

* **부수 현상론**

- [육체적 사건(원인) → 정신적 사건(결과)] (○)
- [육체적 사건(원인) → 육체적 사건(결과)] (○)
- [정신적 사건(원인) → 육체적 사건(결과)] (×)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의 동반일 뿐)

-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 육체적 사건 모두에 어떠한 영향×
-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정신적 사건의 존재 이유를 설명×

3

1

- * 첫 문장의 비교형 표지어(이에 비해)는 이전 문단의 핵심(정신-육체 간 인과○)을 부정하거나 반대의 맥락으로 이끌어 간다. 이런 첫 문장을 통해 이전 문단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핵심(정신-육체 간 인과○)은 추측할 수 있다.
- * 대상에 대한 부정적 서술은 밑줄×가 적절하다. (인과 관계×) [4-1도 마찬가지로]

2

- * <결과+원인>의 구조.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5

- *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 → 객관적 사실 [이해하기 힘들다] → 주관적 의견
- ☞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분명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 법한데 서로 상관이 없다니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은 쉽게 납득이 안 간다는 말이다.

최שמ의 Q&A

Q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두 사건 간에 관련성이 없다면 <심신 이원론>이 아닌가?

A <정신적 사건, 육체적 사건> 두 사건의 관련성 여부로 일원론 혹은 이원론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두 사건 자체를 각각 인정한다면 이원론, 두 사건이 구분되지 않으면 일원론인 것이다.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자체는 인정하기 때문에 <심신 이원론>이 되는 것이다.(두 사건의 관계에 관한 것은 별개의 문제)

4

2

- * 해석 주의:
- *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육체적 사건은)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도 된다. (○)
- *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정신적 사건은)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도 된다. (×)
- [육체적 사건(원인) → 정신적 사건(결과)] (○)
- [육체적 사건(원인) → 육체적 사건(결과)] (○)

3~4

- * <반대 맥락+반대 맥락>의 구조.

5 1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2그러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3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5 심신 일원론의 입장-동일론
 * 동일론(심신 일원론):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
 -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육체적 사건에 불과.
 -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

5
 1~2
 * <문제+해결>의 구조.
 2
 * <A 부정(~아니라)+B 긍정>의 구조로 문제화되기 쉬우며 주로 A와 B를 뒤바꾼 선지가 가공되기도 한다. (6번 문제의 정답, 7번 문제의 선지 ㉔, ㉕와 관련됨!)

06.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90위

#최협의 Q&A #지문-선지 대응

정답률 66%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0%	② 2%	③ 16%	④ 6%	⑤ 66%

정답 풀이

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준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1)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2)'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1문단]
 • 3)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구분되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끝 문단]

↳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구분되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한 가지 입장을 지닌다.

그래서 <동일론>은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1)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부정하기 때문에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1~2)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줄 수 없다.

X 오답 풀이

① '심신 이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2)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1문단]

↳ <심신 이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1)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2)

패턴 공략

▶ 출제자는 말을 어렵게 하려고 <긍정>을 <부정+부정>의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상식을 고수한다. →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최협의 Q&A
 Q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구분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A (관련: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계를 맺어 매여 있음.)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는 것이라면 동일한 대상이 두 개인 것으로 똑같이 때문에 관련성을 말할 필요가 없다. 두 개가 관련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구분되어 있지만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다.

②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상호 작용론)가 있다. 이는 1)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2문단]

↳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1)고 생각한다.

③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에 비해 <평행론>은 1)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론론이다. 이 이론(평행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2)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3문단]

↳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1) 함께 일어날 수 있다2)고 생각한다.

최선의 Q&A

Q 3문단에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건 결국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함께 일어날 수 없다> 아닌가요?

A 두 사건이 같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각자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종의적 문장이기 때문에 문맥에 맞게 해석을 정확히 해야 한다.

④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론론이다. [4문단]

↳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1)고 본다.

Tip 실전 풀이

♣ 굉장히 친절한?! '단순 지문-선지 대응형' 문제로 각 선지의 정/오 판단 근거가 문단의 순서에 따라 나열되어 있다.

- ①의 오답 근거 [1문단] ②의 오답 근거 [2문단]
- ③의 오답 근거 [3문단] ④의 오답 근거 [4문단]
- ⑤의 정답 근거 [5문단]

☞ 이렇게 딱 맞는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흐름은 맞춰 출제되니 선지에 따른 문단에 더욱 집중해서 정/오의 근거를 신속히 찾아 내야 한다!

07.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41위

#동의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76%	① 10%	② 6%	③ 76%	④ 3%	⑤ 5%

정답 풀이

③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1)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2)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3문단]

-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3)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끝 문단]

지문 POINT

<평행론>과 <동일론>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

↳ <평행론>: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1~2)

<동일론>: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내부의 사이에서만 존재한다.3) 그래서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X 오답 풀이

①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1)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2)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3문단]
-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3)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 → (정신적 사건 자체를 인정×)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 [끝 문단]

㉞ 지문 POINT

<평행론>과 <동일론> 모두 동의할 수 없는 진술.

↳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1~2)고 보고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3)

②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서로 대응되며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1)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2)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3문단]
-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3)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 → (정신적 사건 자체를 인정×)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 [끝 문단]

㉞ 지문 POINT

<평행론>만 동의할 수 있는 진술.

↳ <평행론>에서는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서로 대응(2)되며 별개의 세계에 존재(1)한다고 보지만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3)

㉞ 어휘 체크

* 대응: 어떤 두 대상이 주어진 어떤 관계에 의하여 서로 짝이 되는 일(인과 관계만이 대응을 이루는 것이 아님)

↳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그에 맞는 <육체적 사건>이 항상 일어나는 것을 통해 두 대상이 서로 긴밀하게 짝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서로 대응되는 것에 해당한다.

④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상호 작용론)가 있다. ~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1)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2문단]
- 이에 비해 2)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 [3문단]
-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3)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 → (정신적 사건 자체를 인정×)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 [끝 문단]

㉞ 지문 POINT

<평행론>, <동일론>과는 상관이 없는 진술.

↳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는 이론은 <상호 작용론>이다. <평행론>은 정신과 육체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부정(2)하고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3)

⑤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 하지만 1)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문단]

㉞ 지문 POINT

<평행론>, <동일론>과는 상관이 없는 진술.

↳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1)한다는 것은 <부수 현상론>에 대한 내용이다.

08.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17위

#보기 제시 #3점 #대응 #비유 #헛갈림 주의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72%	① 20%	② 72%	③ 4%	④ 3%	⑤ 1%

정답 풀이

② ㉠ '육체적 사건': ㉠ ㉡ '정신적 사건': ㉡

6 지문 속 근거 찾기

• <부수 현상론>은 모든 1<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② '육체적 사건'(원인) → ㉡ '정신적 사건'(결과)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4문단] 하지만 2<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② '정신적 사건'은 '원인'이 될 수 없음.

• <보기>

②<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조수 간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름달, 초승달과 같이 ㉡<달의 모양>이 달리 보이기도 한다. ㉡ ㉡(원인) → ㉡, ㉡(결과) 이때 ㉡<조수 간만>은 다시 개펄의 형성 등과 같은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 ㉡ ㉡는 원인도 됨. 반면에 ㉡<달의 모양>은 세 천체의 상대적인 위치로 인해 생겨난 결과일 뿐,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 ㉡ ㉡는 원인이 될 수 없음.

㉡ 지문 POINT

<육체적 사건>: ㉡, ㉡, <정신적 사건>: ㉡

㉡ ㉡는 ㉡, ㉡의 원인이기 때문에 <부수 현상론>에서 <육체적 사건>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도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육체적 사건>에 해당한다.1) 하지만 ㉡는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안 하므로 원인도 될 수 없어 <정신적 사건>에 해당한다.2)

패턴 공략

♣ 헛갈림 주의!

* A는 B의 계기가 됨. = A로 인해 B가 일어남. = A가 B를 불러일으킴. = A 때문에 B가 일어남. ㉡ (A: 원인, B: 결과)

메모

지문 난이도 ★★

2019학년도 수능 16~19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16위

01 ~ 04 계약의 개념과 법률 효과

1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2**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3**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4**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집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6**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7**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1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

- * 서로의 의사 표시 합치(예를 들어 매매 계약 시, '팔겠다'와 '사겠다'라는 의사 표시 합치)
- * 법률 효과 발생(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매 대금 지급 청구 권리 vs 소유권 이전 청구 권리와 매매 대금 지급 의무)

2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2**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3**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4**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2 법률 행위, 채권, 채무, 변제의 정의

- * 법률 행위: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 채권: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 채무: 채권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
- * 변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2~3

* '다르다'를 통해 A(계약)와 B(친구와의 약속) 두 대상의 차이점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항상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포인트를 두자!)

4

* '일반적인~'이 나오면 이에 반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즉 특이한 경우나 특성이 서술되기 마련이다.

* '차이가 있다.'를 통해 두 대상의 차이점을 확실히 되새기고 넘어가야 한다.

5

* '한 예로'처럼 예시는 이전 내용의 핵심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이전 내용의 핵심을 이미 파악했다면 슬쩍 넘겨 읽는 것이 좋다. (☆실전에서 모든 문장을 동일한 에너지와 속도로 읽으면, 경제적인 독해가 되지 못한다. 독해는 정확성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매우 중요하다.)

* 문장이 길면 일단 쉼표에서 한 번 끊어 주자.

* '일방'처럼 대립 항이 성립되는 말이 있는 내용은 주의하자! 대립 항을 토대로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일방의 ↔ 상대방의)

2

※ **2** 문단에서만 개념이 4개(법률 행위, 채권, 채무, 변제)가 나왔다. 개념이 쉬워도 적절한 표시를 해 두어야 문제 풀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다.

1

* <설명+개념어>의 형태로, 흔한 <개념어+설명>보다는 인지가 잘 안 되니 개념어에 진한 동그라미나 네모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다.

* '필수적'처럼 대립 항이 성립되는 말이 있는 내용은 주의하자! 대립 항을 토대로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필수적 ↔ 선택적)

2

* <A(원인)+B(결과)>로 치환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 <A(계약)가 B(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킴.>=<A로 인해 B가 드러남.>=<B는 A로부터 비롯됨.>=<A 때문에 B가 나옴.>

3

* '채권' ↔ '채무'의 대립 양상 정리.

☑ 어휘 체크

* 권리: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 의무: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4

* '따라서', '그래서'처럼 정주행의 흐름은 > 표시가 적절하다.

* 비문학에서 '~처럼'과 같은 비유적인 표현은 문학에서와는 달리 중요도가 떨어지니 피수식어에 더 집중하자.

3 1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2㉠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3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4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5그러나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6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3 사적 물리력 행사가 금지되는 매매 계약
 * 갑(채권자), 을(채무자) 매매 계약 체결 →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문제 발생 → 갑이 사적 물리력으로 해결하는 것 금지

4 1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2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3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4 매매 계약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강제 집행
 * 채권 내용은 실체법에서 규정 → 절차법으로 강제 실현
 * 강제 집행: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

5 1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2㉡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3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4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5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 채무자의 과실 → 채무 이행 불능 → 계약 전이라면 계약 무효 → 계약 이후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해 책임

3
3 어휘 체크
 * 동산: 토지나 그 위에 고착된 건축물을 제외한 재산, 돈, 증권, 시간 따위.
 * 부동산: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토지나 건물, 수목 따위.
4
 * (원인+결과)의 구조. 국어 공부에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것은 논리를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5
 * '그러나', '그러나'처럼 다른 측면이나 역주행의 흐름을 보이는 말에는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절하며, 한 문단을 놓고 봤을 때 정주행보다는 역주행 이후의 흐름에 더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5~6
 * '갑의 피해'를 <문제 상황>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지금까지의 독서량에 따른 결과물로서 나타난다. 독서량이 적다면 기출 반복으로 글의 구조에 익숙해져야 한다. 기출, 한 번 보고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깝다. N회독으로 반드시 체화해야 한다.)

6
 * '사적으로~금지'라면, 이와 대립 항인 '공적으로는 가능'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4
2
 * 이전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에 해당한다.
3
 * '물리적 실력 행사x' ↔ '물리적 실력 행사o' (3~4 문단 끝 문장)의 대립 항 구도 체크. 대립 항은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1순위 테마이다.

5
1
 * <결과+원인>의 구조. <원인+결과>이든 <결과+원인>이든 후자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두자.
4
 * <원인+결과>의 구조.

6 1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3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4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5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6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7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6 채무 불이행에 대한 계약 해제 권리와 그에 따른 단독 행위의 개념
 * 이행 불능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 법률 효과 발생 → 갑에게 계약 해제 권리 有(일방적 → '단독 행위')

7 1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2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3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4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5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6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7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의 개념
 * 원상회복 청구권: 계약 해제 →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 체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함.

6
 1
 * <A가 아니라 B이다.>의 구조는 A와 B를 뒤바꾼 잘못된 선지가 출제되기도 한다.
 3
 *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원인) → '계약 해제의 권리'(결과)로 치환 가능!

7
 5
 * <설명+개념어>의 형태로, 흔한 <개념어+설명> 형태는 아니지만 문장이 짧기 때문에 개념어를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다.
 * 끝 문단에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선지로 활용될 여지가 크므로 동그라미 표시를 한 뒤 뜻을 명확히 정리해 두자.

01.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37위

#내용 일치 #최선의 조언 #평가원 이의 제기 #최선의 Q&A

정답률 48%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2%	② 10%	③ 48%	④ 15%	⑤ 5%

정답 풀이

③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처럼 1)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2문단]
-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2)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3)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6문단]

↳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한다. 1) 하지만 의사 표시가 없어도 2)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3) 때문에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선지 ③은 적절하지 않다.

최선의 조언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에서, 선지 ③의 '않는다'와 같이 부정적 서술어가 있는 선지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 가정(~없으면)과 부정적 서술어(~않는다)가 더해지면 정답이 될 가능성은 더 높다. 다른 선지에 비해 선지 ③은 이해하기 복잡하다. 이는 출제자가 잘못된 선지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다른 선지에 비해 유난히 길거나 복잡하면 잘못된 곳이 나올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꼼꼼히 검토해 보자.

오답 풀이

①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2문단]
- 2)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4문단]

↳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 <채권> 1)의 내용을 <실체법>에서 규정 2)하고 있으므로 선지 ①은 적절하다.

②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1)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4문단]

↳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1)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이 선지는 절차법이라는 범주 안에 강제 집행 제도가 들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4문단에서 절차법은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즉, 민사와 관련된 개인적인 소송입니다. 하지만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4문단에 의하면,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인 민사와는 다르게, 강제 집행은 개인이 국가에게 청원하고 국가가 해결해 주는, 국가가 개입하는 제도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의 범주에 속하는(예시를 민사로 들었으므로) 절차법에 국가가 개입하는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선지는 잘못된 선지이며, 그것에 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명확하지 않은 선지를 만들었으므로 선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갑과 을의 갈등은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을이 그림을 넘겨주지 않아도 갑이 사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갑이 강제 집행이라는 국가의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의 내용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민사가 아닌 다른 경우에 강제 집행이 행사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예시도 지문에 없다. 민사와 민사가 아닌 것을 강제 집행의 행사 여부로 구분하려는 잘못된 추론에 빠진 것이다.

④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1)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4문단]

↳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1)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선지 ④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어가 만약 '개인'이라면 3문단 마지막 줄의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라는 지문에 의해 옳지 않은 말이 됩니다. 하지만 주어가 '국가'가 된다면, 물리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이 선지는 옳은 말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는 선지는 명백히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가 옳은 선지가 되려면 "개인이 법원을 통하여 국가의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처럼 '물리력'의 주체와 '실현하다'의 주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답변> 주어가 만약 '개인'이라도 (4문단에 따르면)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즉 개인이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3문단 마지막 줄의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라는 지문은 소를 제기하기 전의 상황이다. 만약 선지가

‘소를 제기하기 전에 개인이 법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선지가 되는 것이다.

〈의견〉 ‘물리력’과 ‘물리적 실력’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지문 내에서 ‘물리력’은 갑이 주체가 되어 사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고, ‘물리적 실력’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행사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지가 적절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하여 물리적 실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가 되어야 합니다.

〈답변〉 사전적 의미를 따져 보면, 물리력(무기나 군사력 따위로 행사하는 강제적인 힘)과 물리적 실력(무기나 군사력 따위로 행사하는 강제적인 힘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 능력)은 실제로 갖추고 있는 것의 유/무 차이만 있는 것이지만 핵심인 ‘강제적인 힘’은 공통되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핵심 의미 차이가 없는, 물리력/물리적 실력의 주체가 개인 혹은 국가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바꿔 사용해도 무방하다. 지문에 물리력은 갑, 물리적 실력은 국가로 서술된 것을 문법적 결합으로 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선의 Q&A

Q 4문단에 보면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물리력을 행사시키는 주체인 법원과 국가는 엄연히 다른 존재 아닌가요?

A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에서 물리력을 실행(행사)하는 주체는 국가이고, 이를 행사하도록 시키는 것이 법원이다.

⑤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1)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5문단]

↳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1)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6문단의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라는 지문을 보면 계약 해제권 행사 이전에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문에서 ‘을의 과실로 인한 그림 A의 소실로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고, 이에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이 계약 해제권을 갖게 한다.’라는 지문을 고려하면, 그림 A의 소실로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되었고, 이는 을의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갑에게 계약 해제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갑의 계약 해제권 행사 여부에 따라 유효인지 무효인지 결정되며,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계약이 이행 불가능 상태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만 계약 해제권 행사 여부에 따라 유효인지 무효인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즉 계약의 유효/무효 여부는 계약 체결 전 계약의 이행 가능/불가능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계약 해제권이 부여되는 것은 실현 가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했지만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계약 해제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02.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51위

#이해 #항목 후순위의 법칙 #평가원 이의 제기

정답률
55%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8% ③ 17% ④ 15% ⑤ 55%

정답 풀이

⑤ ㉠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2)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2문단]
-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채무>는 3)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3문단]
-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4)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끝 문단]

↳ ㉠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3) ㉡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4)

오답 풀이

① ㉠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2)〈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목적물>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1문단]
- 3)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2문단]

-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채무>는 4)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3문단]

해법 POINT

- 1) <매도인>: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어야 함.
- 2) <매수인>: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음.

↳ <매수인>이 목적물(그림 A)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하고 2) 이에 대한 <매도인>의 이행(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으로 1) ㉠은 소멸한다. 3) 즉, ㉠은 매수인의 청구와 매도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② ㉠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 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1)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1문단]
- 이때 2)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 이때의 3)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6문단]
- 4)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끝 문단]

해법 POINT

- * 계약의 성립: 서로의 의사 표시가 작용
- * 계약의 해제: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

↳ 서로의 의사 표시가 작용하는 것은 <계약>이 성립될 때를 말한다. 1) ㉠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2) 계약의 해제 상황으로 4) 채권자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3)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채권이라는 관계 자체는 결국 1문단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법률 행위에 속합니다. 또한 채권이라는 제도는 법률 행위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채권이라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2번 선지는 옳은 선지입니다.

<답변> 채권의 개념만을 놓고 보면 맞는 말이지만 ㉠은 일반적인 채권의 개념이 아니라, 계약의 해제로 인한 채권이기 때문에 2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실수이다.

③ ㉠과 ㉠은 ㉠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3문단]
- 갑은 2) 계약을 해제하였다. 3)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4)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끝 문단]

해법 POINT

- * ㉠을의 채무: 계약 체결 상황
- * ㉠갑의 채권: 계약 해제 상황

↳ ㉠은 계약을 체결한 1) 상황에서의 채무이고 ㉠은 계약을 해제한 2) 상황에서의 채권이다.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의 채무인 ㉠은 계약 해제로 없던 것이 되어 2~3) ㉠의 이행으로 ㉠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은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후에 4) 소멸되는 것이다.

④ ㉠과 ㉠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선지 3]의 근거 지문 참고

↳ ㉠은 계약을 체결한 1) 상황에서의 채무이고 ㉠은 계약을 해제한 2) 상황에서의 채권이기 때문에 ㉠과 ㉠을 동일한 계약의 효과로 볼 수 없다. 갑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이전의 계약으로 인한 ㉠은 없던 것이 된다. 2~3)

★ 1항목 후순위의 법칙 ★

(자세한 내용 9쪽 참고)

㉠ 혹은 ㉠을 하나만 제시하는 선지 ①, ②보다는, 둘 다 제시하는 선지 ③, ④, ⑤를 먼저 보는 것이 더 빨리 정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03.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74위

#상황에 대한 설명

정답률
81%

선지별 선택 비율

① 81% ② 5% ③ 4% ④ 8% ⑤ 2%

정답 풀이

①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1)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2) ㉠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5문단]

- 3)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4)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6문단]

↳ '을'의 과실로 1) 이행 불능이 되어 2~3)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4)

X 오답 풀이

②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1)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④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5문단]

↳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인 그림 A가 불에 타 없어졌기 1) 때문에 '갑'은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

③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1)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④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5문단]

-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2)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끝 문단]

해법 POINT

- * '그림 A'의 소유권 이전 → 계약 체결 후의 상황
- * 원상회복 청구권 → 계약 체결 전의 상황으로 돌려놓는 것

↳ <원상회복 청구권>은 계약으로 인해 이미 이행된 것이 있을 경우에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말한다. 2)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소실되어 ④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갑의 채권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될 뿐 1) '갑'이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는 없다.

④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되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1)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④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2)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5문단]

↳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겠지만 2) 계약 체결 후 을의 과실로 1) 인한 것이기 때문에 (즉, 을의 과실만 아니면 실현 가능한 계약!) 선지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⑤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1) 을(채무자)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2)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문단]

↳ 이행 불능이 채무자(을)의 과실로 일어났기 때문에 채무자(을)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2)

04.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41위

#보기 제시 #분석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50%	① 5%	② 18%	③ 50%	④ 19%	⑤ 8%

정답 풀이

③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 (증여)는 1)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2)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지만 3)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 채무자가 4)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5)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2문단]

해법 POINT

- * 증여: 당사자 일방이 자기(채무자)의 재산을 상대방(채권자)에게 줄 의사 표시 → 상대방(채권자) 승낙 → 채무 성립 →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 → 채권 소멸 → 변제

↳ <증여>도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1) 상대가 승낙하면 2) 의무를 지고 3) 이 의무를 이행하여 4) 계약의 내용이 실현되는 것이기 5) 때문에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X 오답 풀이

①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보기>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지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2)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3)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4)<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5)<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1문단]

↳ <증여>는 당사자가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1) <계약>이 법률 행위이기4) 때문에 <증여>도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유언>도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로서2) 의사 표시를3) 요소로 한다. <매매>도 <계약>의 예로,5)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4)

②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선지 ①의 근거 지문 참고]

↳ <증여>는 <계약>이기1) 때문에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4) <유언>도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④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보기>

<증여>는 1)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증여지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3)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1문단]

↳ <증여>는 당사자(증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1~2)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3) <매매>와 차이가 있다.

⑤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보기>

<증여>는 1)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2)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1) 점에서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2)

05~08 채권과 CDS 프리미엄

1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2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왑프(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CDS 프리미엄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
* CDS 프리미엄: 경제 지표의 하나. 신용 위험, 신용 파산 스왑프(CDS)와 관련됨.

2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2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3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4그러나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5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2 신용 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
* 채권의 발행 목적: 정부나 기업의 자금 조달
* 채권 가격: 채권 시장에서 결정
* 채권 매입한 투자자: 채권 매도 차이 or 이자로 수익 창출
* 채권 발행자의 신용 위험: 이자와 원금의 지급 불가 가능성
* 신용 평가 제도: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 신용 등급 공시 -> 투자자 보호

3 우리나라의 신용 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2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 3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4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나 +'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세 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5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6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3 채권의 신용 등급과 가격
* 신용 등급: AAA(최고)~D(최저)
* 신용 위험: + -> 상대적으로 큼, / - -> 상대적으로 작음.
* 신용 위험 ↑ -> 채권 가격 ↓

1
1~2
* 화제는 <CDS 프리미엄>이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 개념이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왑프(CDS)>이다. 그렇다면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왑프(CDS)>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온 뒤에 <CDS 프리미엄>의 구체적인 개념과 특성이 나올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
2
* <채권 발행자>와 <투자자>와의 약속! 약속은 지켜지기도 하지만 깨질 수도 있는 법. 약속이 지켜질 경우의 상호 간의 이익과 약속이 깨질 경우의 상호 간의 불이익 등이 나올 수 있음을 예측하며 읽자.

3
* 매입: 물건 따위를 사들임.
매도: 값을 받고 물건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

4
* '그러나', '그러나' 등 역주행 흐름에 포인트를 두자.
* <A인 B=B는 A이다.>처럼 <B=신용 위험>의 정의(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를 정리해 볼 수 있어야 한다.

5
* <A하는 B>처럼 <B=신용 평가 제도>의 정의를 정리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정의가 꼭 <A는 B이다.>처럼 단순하게 나오지만은 않는다. 지문을 읽을 때 피정의항과 정의항의 다양한 형태를 잘 인지하고 정리하자.

4~5
* <문제+해결>의 구조. 즉 <신용 위험=문제>+<신용 평가 제도=해결>. 지문을 읽다가 대상(상황)의 단점, 불완전성, 위험 등과 같이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해결책이 나올 것임을 동시에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1~4
* 신용 등급의 레벨과 상대적인 크기의 단계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실제로 7번 문제가 이에 해당됨)

3~4
* 신용 등급 순위 정리: 1. 순차적인 알파벳 순(A>B>C>D), 2. 같은 알파벳이면 개수가 더 많은 것이 우위(AAA>AA>A), 3. 같은 알파벳에 같은 개수면 +가 더 우위(AA+>AA-). 수학에서는 -가 붙은 순간 0 아래로 떨어지지만 신용 등급에서는 이를 적용하면 혼란이 온다. 즉, 단순히 +, -가 붙은 것만으로 순위를 계산하면 안 된다!

6
* <상황+조건+결과>의 구조. 즉 <~일정한 가운데+~커지면+~떨어진다>라는 내용. 최소한 '~이면' 혹은 '~라면' 등의 말이 나오면 <조건>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고 해당 문장의 내용이 정/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해야 한다.(실제로 5번 문제 선지 ④의 정/오 판단에 활용됨)

4 1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2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3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4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5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6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 한다. 7가령 은행 ㉠같은, 기업 ㉡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병과 [A]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기초 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4 CDS와 기초 자산의 개념

- * CDS: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활용하는 상품
→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의 손실을 보상
- * 보장: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 * 보장 매도자: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
- * 기초 자산: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

5 1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2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3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4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5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6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5 CDS 프리미엄의 개념과 영향 요인

- * CDS 프리미엄: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험료율
 -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에 정비례
 -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 채권 신용 등급에 정비례

4

1

* CDS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그렇다면 지문에 나왔든 안 나왔든 (본래의 어떤 상품)도 있을 것이라는 가벼운 추측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2

*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같이 대립적인 개념이 나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둘의 관계나 차이점을 잘 구분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아무리 익숙하고 쉬운 대립 어휘의 쌍이 나와도 실전에서는 긴장 탓에 거꾸로 혼동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다.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가 <대립 어휘 쌍의 구분>이다. 이번에도 당연히 <보장 매도자>가 들어간 문제가 2문제나 출제되었다. (6번 문제의 ㉣번 선지, 7번 문제의 보기 내용)

3

* <보장이란~뜻한다>처럼 대놓고 지문이 "자 이제부터 개념 설명에 들어갈 거야."라고 외친다면 당연히 동그라미 또는 네모 표시와 밑줄을 아끼면 안 된다. 지문에 표시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여기는 수험생도 최소한 이런 부분만큼은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정보가 많은 지문에서 개념 설명을 잘 찾아 정리하는 것은 독해력을 향상하는 기본적인 습관이다.

4

*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처럼 처음부터 주어가 연달아 제시된 겹문장이 나오면 헷갈릴 수 있다. 평소에 접하면 그리 어렵지 않은 문장도 긴장감 흐르는 시험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이건 실력의 차이라기 보다는 실전에서의 마인드 컨트롤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 주어가 겹쳐서 나오면 문법에서 공부한 문장의 짜임을 떠올려 전체 문장의 주어(보장 매도자는)와 서술어(역할을 한다)를 먼저 체크하자. 그럼 <보장 매도자는~역할을 한다.>가 된다. 그리고 안긴문장의 주어 <보장 매입자가>를 파악한 뒤 <~부도가 나면>이라는 가정형에서 사선 표시로 한 번 끊어 주자. 국어 공부는 분명한 영역이 존재하지만 비문학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데에는 <문법> 능력이 당연히 결합된다.

5

1

* 문장의 길이가 3줄 이상이면 수험생에게는 부담스럽다. 이럴 때는 사선 표시로 흐름을 한 번 끊어 주자. 그런데 어디서 끊는 것이 좋을까? 사실 글쓰기가 알려 주고 있다. 문장을 읽다가 힘들면 쉬어 가라고, 바로 쉼표에서 끊어 주는 것이 좋다.

* <설명+개념>의 형태. 당연히 적절한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 1 문단에서 화제로 거론된 <CDS 프리미엄>이 드디어 나왔다. 이렇게 중심 화제가 끝 문단에 비로소 등장하는 지문은 거의 없으므로 이번 지문은 새롭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새로움이 수험생에게는 반갑지 않다. 다른 문단보다 더 집중해서 지문을 읽어야 한다.

3, 4, 6

* <~크면 ~크다>, <~할수록 ~있다>, <~높으면 ~크다>처럼 비례 관계가 있는 내용은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으니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7번 문제 정답 판단, 8번 문제 ㉣번 선지 판단에 활용됨)

05.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53위

#내용 일치 #실전 풀이 Tip #최선의 조언

정답률 91%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	② 91%	③ 2%	④ 4%	⑤ 2%

정답 풀이

②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커진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1)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2문단]
→ (발행자의 지급 능력과 신용 위험은 반비례!)

↳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은 신용 위험의 원인이 되므로 1)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작아진다.

오답 풀이

①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2문단]

↳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1)

③ 신용 평가 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1)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2문단]

↳ <신용 평가 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1)

④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어떤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다른 조건이 일정할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3문단]

↳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어떤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신용 위험이 커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1)

⑤ 채권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지만, 채권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수반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2)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2문단]

↳ 채권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지만,1) 채권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수반된다.2)

Tip 실전 풀이

<선지 ②의 ~커진다 / 선지 ④의 ~하락한다>처럼 선지의 서술어가 대립어의 양상(크다 → 작다 / 하락 → 상승)인 경우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 국어 시험에서 <대립 테마>는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1순위 문제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부정형 문제에서 오류 없이 확실한 정답으로 설정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오류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평가원의 조심스러운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최선의 조언

이번 문제의 선지 정/오답의 지문 근거 위치를 다시 살펴보자.
2 문단에 4곳, 3 문단에 달랑 1곳이다. 수능에서는 이렇게 특정 문단에 선지의 정/오답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의 '문제 수준'의 차이이다. 수능에서의 일치 문제는 정/오답의 근거가 여러 문단에 퍼져 있음을 알아 두자!

06.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98위

#이해 #최선의 조언

정답률 8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4%	② 5%	③ 5%	④ 84%	⑤ 2%

정답 풀이

④ ㉔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가령 2)은행 ㉑갑은, 기업 ㉒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㉓병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되기1) 때문에 기업인 ㉑은 신용 위험을 피하는 <보장 매입자>인2) 반면, 보험 회사인 ㉓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에 해당한다.

최선의 조언

〈가령 은행 ㉠갑은,〉에서 쉽표가 왜 찍혀 있을까? 이는 한 번 숨을 고르며 주술 관계를 잘 파악하라는 출제자의 배려이다. ㉠에 해당하는 서술어는 〈~매입하면서, ~피하기, ~체결할 수 있다〉이다. 이를 ㉡에 해당하는 서술어(발행한)와 헷갈리지 마라. 이런 겹문장 파악 능력이 부족하다면 지금 당장 비문학 공부를 멈추고 문법에서 〈문장의 짜임〉 파트를 철저히 공부하고 오라!

오답 풀이

① ㉠은 기초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 한다. 가령 1)은행 ㉠갑은, 기업 ㉡을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병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2)〈기초 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 ㉡〈을〉은 기초 자산인 채권을 2) ㉠〈갑〉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갑〉은 기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② ㉠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가령 은행 ㉠갑은, 기업 ㉡을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1)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병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신용 위험의 부담을 갖는 보험 회사 ㉢이다. 1) ㉠은 신용 위험의 부담을 ㉢에게 넘겨주면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③ ㉡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가령 1)은행 ㉠갑은, 기업 ㉡을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병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매도자 = 사들인 자)는 은행 ㉠〈갑〉이다. 1)

⑤ ㉡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야만 이득을 본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가령 1)은행 ㉠갑은, 기업 ㉡을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병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2)기초 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 을이 발행한 채권인 기초 자산에 2) 부도가 난다면, 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한 ㉠〈갑〉이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런 손해를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인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1) 결국 기초 자산의 부도에 따른 ㉠의 손해를 ㉢이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은 이득될 것이 없다.

07.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41위

#보기 제시 #비례 관계 #최선의 조언

정답률
5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50% ③ 7% ④ 19% ⑤ 19%

정답 풀이

② ④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 외의 채권은 1)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3문단]

•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2)㉡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한편 3)㉡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끝 문단]

해법 POINT

㉡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 ↑〉 = 〈신용 등급 ↓〉 ⇒ 〈CDS 프리미엄 ↑〉

㉢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 ↑〉 = 〈신용 등급 ↑〉 ⇒ 〈CDS 프리미엄 ↑〉

↳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과 정비례하기 때문에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CDS 프리미엄〉은 커진다. BB+는 BBB-보다 등급이 낮기 때문에 ㉣, ㉤가 ㉡, ㉢보다 〈CDS 프리미엄〉이 크다.

그리고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정비례하는 〈CDS 프리미엄〉 역시 커진다. 3)

그렇다면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이 AAA인 ㉣가 첫 번째로, AA-인 ㉤, ㉡가 두 번째로 〈CDS 프리미엄〉이 크다. 이때 ㉣와 ㉤는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을 기준으로 해도 가장 높은 〈CDS 프리미엄〉을 가지므로 이들을 종합하면 〈CDS 프리미엄〉이 가장 큰 것은 ㉣이며, 두 번째로 큰 것은 ㉤이다.

최선의 조언

이번 문제의 정답률이 3점짜리 문제(8번)보다도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지문에서 비례 관계나 상대적 크기(가치)에 관한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지 못한 탓에 이들에 관한 정확한 비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별 단위의 일회성 비교가 아니라 두 그룹을 두 차례 비교해야만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낯선 형태이기 때문에 수험생의 당혹스러움도 한몫했을 것이다.

국어 공부를 할 때, 특히 비문학 공부에서만큼은 항상 실천의 긴장감을 갖고 그 긴장감을 적절히 다스릴 줄 아는 마인드를 길러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08.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90위

#이해 #보기 제시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66%	① 4%	② 7%	③ 66%	④ 17%	⑤ 6%

정답 풀이

③ 2013년 1월에는 Bx의 신용 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졌군.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1)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2)〈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 〈매입자의 부도 가능성 ↑ → 매도자의 손실 보상 ↑〉 [4문단]

• <보기>

3)X가 2015년 12월 31일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Bx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했다. 발행 즉시 4)Bx 전량을 매입한 Y는 Bx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5)CDS 계약을 Z(보장 매도자)와 체결하고 6)보장 매입자가 되었다.

㉞ 지문 POINT

X: 채권 발행자3)

Y: 채권 매입자4, 6) = 투자자 = 보장 매입자

Z: 보장 매도자1, 5) → 보장 매입자의 손실 보상2)

2011년 9월 17일: 재무 상황 악화 시점

2011년 10월: X의 재무 상황 악화 이후(신용 위험 ↑)

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 개선 시점

2013년 1월: X의 지급 능력 개선 이후(신용 위험 ↓)

↳ X의 지급 능력이 개선된 이후인 2013년 1월에는, Bx의 신용 위험은 X의 재무 상황 악화 이후인 2011년 10월보다 낮다. 그래서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보장 매도자〉인2)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2013년 1월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질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2011년 1월에는 Bx에 대한 CDS 계약으로 X가 신용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군.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X는 채권 발행자3) CDS 계약으로 인해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다.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이는 보장 매입자인 Y4, 6)와 CDS 계약을 체결한, 보장 매도자인 Z에 해당한다.1, 5)

② 2011년 11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A-보다 높았군.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1)계약 체결 당시 Bx의 신용 등급은 A-, ~

↳ 2011년 11월은 X의 재무 상황 악화 이후, 지급 능력 개선 시점 이전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2011년 1월 1일) Bx의 신용 등급인 A-1)보다 높을 수 없다.

④ 2013년 3월에는 B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bp보다 작았군.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1)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끝 문단]

• <보기>

계약 체결 당시 Bx의 신용 등급은 A-, 2)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A였다. ~2013년 9월에는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AA+로 변경되었다. 3)2013년 10월 2일, Bx의 CDS 프리미엄은 100bp였다.

㉞ 지문 POINT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

2013년 3월: AAA → CDS 프리미엄 ↑ (상대적 비교)

2013년 9월: AA+ → CDS 프리미엄 ↓ (상대적 비교)

↳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과 〈CDS 프리미엄〉은 정비례한다.1) 이에 따라 2013년 3월은 보장 매도자인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2) (2013년 9월의 신용 등급과 비교했을 때) 낮아지기 전이므로(2013년 9월보다 뒤의 날짜인 2013년 10월 2일의) B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bp3)보다 클 것이다.

⑤ 2013년 4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BB-보다 낮았군.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1)계약 체결 당시 Bx의 신용 등급은 A-,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A였다. ~2)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

㉞ 해법 POINT

〈지급 능력〉과 〈신용 등급〉은 정비례

↳ 2013년 4월은 X의 지급 능력이 초기의 신용 등급 A-보다 개선된 상태이므로1~2) Bx의 신용 등급이 BB-는 물론 A-보다도 높을 것이다.

09~12 사법(私法)의 계약과 그 효력

1 [A]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2**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 **3**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4**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1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의 문제

- * 어떤 것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되는가?
- *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2 **1**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3**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4**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 한다. **5**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2 사법과 ‘임의 법규’의 개념

- * **사법**: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 ‘계약 자유의 원칙’ 적용
- * 사법의 법률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 우선 적용
- * **‘임의 법규’**: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 사법은 임의 법규에 해당.
- *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 (계약을 달리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 적용

1

※ 정주행(**2, 4**)의 흐름은 부등호(>), 역주행(**3**)의 흐름은 세모 표시가 적절하다.

4

* <법률 우선 적용>과 <계약 우선 적용> 두 가지 흐름으로 내용이 전개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법적 불이익>을 문제로 전제했으므로 이를 해결할 내용도 어디인가에 반드시 나와야 함을 인지하고 다음 내용을 읽어야 한다.

2

1, 4

* ‘사법’, ‘임의 법규’의 개념이 나와 있으므로, 두 개념 간의 관계(공통점, 차이점, 포함 관계 등) 파악에 주목하자.

3~4

* 첫머리가 ‘따라서’, ‘이처럼’과 같이 정주행의 흐름만으로 이루어진 문단이라면, 역주행이 섞여 있는 문단보다는 내용 이해가 수월하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읽어 내야 한다.

4

* <설명+개념어>의 형태로, 흔한 <개념어+설명>보다는 인지가 잘 안 되기 개념어에 동그라미나 네모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다.

4~5

* <일반 개념(임의 법규)+구체적 개념(사법)>의 구조.

5

* 원인(~이므로)+조건(~다면)+결과(~된다)의 구성. 이런 형태가 눈에 띄다면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으니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2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3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 법규라고 한다. 4공인 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법규에 해당한다. 5따라서 ①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 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공인 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6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給付)를 할 의무가 인정되어, 공인 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3 단속 법규의 개념

- * 단속 법규: 계약이 법률에 어긋남.
 - 법적 불이익 有 but 계약 효력 〇
- * 공인 중개사 자신의 부동산 직접 매매 금지(단속 법규)
 - 위반 시, 공인 중개사 벌금 부과 but 계약은 유효
 - 급부(給付) 의무 인정

4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2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 법규라고 한다. 3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4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5즉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6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 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 법규이다. 7따라서 ①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8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 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4 강행 법규의 개념

- * 강행 법규: 계약이 법률에 어긋남.
 - 법적 불이익 有, 계약 효력 X → 급부 의무 부정
- * 부당 이득: 급부 의무가 없는데 급부를 이행하여 얻은 이익
 -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 인정
- *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 기관 동업 금지(강행 법규)
 - 위반 시, 계약 효력 부정 → 자금 반환 요구 가능

3

1

- * 첫 문장이 역주행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그러나)로 시작하면, 이전 내용의 핵심을 부정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서술할 것임을 예측해야 한다.

2~3

- * 선설명(체결된 계약 내용이~경우), 후개념(이에 해당하는~단속 법규)의 형태로, 키워드에 밑줄과 동그라미 표시를 잘 해 두어야 관련 문제 출제 시 근거 위치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4-1~2, 4~5도 마찬가지]

어휘 체크

- * 급부(給付):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 * 채권(債權):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 채무자(債務者):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

4

1~2/4~5

- * 선설명(1: 체결된 계약 내용이~경우, 4: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후개념(2: 이에 해당하는~'강제 법규', 5: 즉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의 형태로, 키워드 밑줄과 동그라미 표시를 잘 해 두어야 관련 문제 출제 시 근거 위치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4, 6~7

- * <원인+결과>의 구성. 국어 공부에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것은 논리를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5 그러나 강행 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5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불인정되는 경우
 *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 or 반사회적 → 계약의 효력 인정×, 넘겨준 이익 돌려받을 권리×

6 1)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2)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3)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6 비례 원칙의 개념
 * 비례 원칙: 국가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

5
2
 * 문장이 길면 심표에서 끊어 읽기 표시를 해 두고 읽어야 내용 간의 관계 (조건+결과) 파악이 수월하다.

6
2
 * 끝 문단은 대개 이전 내용을 정리, 요약,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은 신속히 읽어 내면 되지만 '비례 원칙'처럼 신정보가 나올 때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09.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19위

#이해 #실전 풀이 팁

정답률 73%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6%	③ 73%	④ 11%	⑤ 5%

정답 풀이

③ 단속 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에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1)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 법규'라고 한다. [3문단]
- 이 경우 2)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끝 문단]

↳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 법규>는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1) 이때에도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2) 적용 안 될 이유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임의 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 가운데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따라서 1)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 한다. [2문단]

↳ <임의 법규>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 가운데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1)

② 임의 법규가 단속 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1)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 한다. [2문단]
- 우선, 체결된 2)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 법규'라고 한다. [3문단]

↳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1) <임의 법규>가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는 2) <단속 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④ 단속 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강행 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 복리 등의 정당한 1)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2)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끝 문단]

↳ 단속 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1) 계약에 대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기 2) 때문에 계약의 자유 제한이 단속 법규보다 큰 강행 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⑤ 강행 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 급부의 내용에 따라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즉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4문단]
- 그러나 2)강행 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3)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4)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5문단]

↳ 강행 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2) 경우 급부의 내용에 따라 4)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1, 3)

Tip 실전 풀이

지문을 읽기 전에 먼저 문제의 각 선지에 구체적인 대상이 나올 경우에 적절한 표시를 해 두자. 지문을 읽을 때 해당 대상이 나오면 바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해야 신속한 풀이가 가능하다.

- 선지 ① 임의 법규에 해당하는~ → 2문단
- 선지 ② 임의 법규가 단속 법규에 비해~ → 2, 3문단
- 선지 ③ 단속 법규로 국가가~ → 3문단
- 선지 ④ 단속 법규로 입법 목적을~ → 3문단
- 선지 ⑤ 강행 법규를 위반한~ → 4문단

10.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77위

정답률 62%

선지별 선택 비율

① 4%	② 62%	③ 24%	④ 6%	⑤ 4%
------	-------	-------	------	------

✓ 정답 풀이

② 가, 다

가.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고,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이 경우, 1)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 [1문단]
-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2)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2문단]
- 우선, 3)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 법규'라고 한다. [3문단]

↳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기 2) 때문에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진다. 1) 그리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는 것은 단속 법규 3)로 이 경우는 '임의 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다.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따라서 1)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2문단]
- 우선, 2)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 법규'라고 한다. [3문단]

↳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되므로 1)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이 경우는 단속 법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2)

✗ 오답 풀이

나.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건물주는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 경우, 1)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 [1문단]
-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2)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2문단]

↳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진다. 1) 또한 건물주는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은 지문에 언급된 바가 없다.

ㄹ.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건물주는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따라서 1)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2문단]
- 2)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2문단]

↳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되므로 1)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는 것은 맞지만, 이 경우는 '임의 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11.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32위

#공통점

정답률
75%

선지별 선택 비율

① 75% ② 5% ③ 9% ④ 7% ⑤ 4%

✓ 정답 풀이

①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1)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 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공인 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3문단]
-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2)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4문단]

↳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다. 1, 2)

✕ 오답 풀이

② 계약 당사자들의 급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 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공인 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1)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되어. [3문단]
-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2)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4문단]

↳ ㉠은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되나 1) ㉡은 급부 의무가 부정된다. 2)

③ 계약에 따라 넘어간 재산적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다만 1)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 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4문단]

↳ 계약에 따라 넘어간 재산적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된 것은 ㉢이다. 1) ㉠의 경우 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④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 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공인 중개사에게 1)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3문단]
-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 계약은 2)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4문단]

↳ ㉠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지만 2) ㉡은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1)

⑤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1)'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문단]

↳ ㉠, ㉡ 모두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1) 사법의 영역에 해당한다.

12.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70위

#보기 제시 #3점

정답률 6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6%	② 11%	③ 60%	④ 15%	⑤ 8%

정답 풀이

③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무효로 판결한 것이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첫째,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1)벌금이 부과된다. 둘째, 이 사건의 2)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 한편 3)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 법규'라고 한다. [4문단]

↳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무효로 판결한 것이다. 2) 이는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3) <강행 법규>와 관련된다.

오답 풀이

①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법(私法)의 적용을 받지 않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사법(私法)은 1)개인인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2문단]

↳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과 관련된 것 1)이므로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인 1)B는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러나 2)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3)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3문단]

↳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3)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했기 1~2) 때문이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④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셋째, 1)농지를 빌려준 사람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2)'부당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4문단]

• 그러나 강행 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3)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4)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5문단]

↳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부당 이득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기 2) 때문이다.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해당한다면 4)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⑤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선지 ④의 근거 지문 참고]

↳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 1)은 사용료가 부당 이득에 해당해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기 2) 때문이다.

2018학년도 수능 27~31

지문 난이도 ★★★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20위

01 ~ 05 정부의 정책 수단

1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2**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④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3**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4**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자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5**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6**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7**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8**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9**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1 정책 수단의 특성

- * 강제성: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
- * 직접성: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자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
- * 자동성: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
- * 가시성: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 대개 **1** 문단은 분량도 적고 중요도도 낮으며 정답의 근거로도 잘 활용되지 않아, 빠른 속도로 화제만 캐치하고 신속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없는 극단적인 경우 아예 첫 문단을 읽지 않는 경우도...) '정부의 정책 수단'의 **1** 문단은 다른 문단과 동등한 분량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1** 문단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

2

*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과 같이 대상이 나열되어 있을 때는, 뚜렷한 대립성의 유무 판단이 우선이다. (대립성은 없네!) 그렇다면 각 대상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임을 다음과 같이 예측해야 한다.

ㄱ. 문단 내에서 바로 설명

ㄴ. 다음 문단에서 모두 설명

ㄷ. 각 문단별로 할당해서 설명

☞ 물론 이러한 예측 과정은 실전에서 아주 순식간에 본능적으로 나타내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해서 체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기출 N회독은 필수라는 것!

* ④네 가지 측면과 같이 앞뒤 주변 문장에 다른 밑줄 기호가 없다면, 관련 문제(2번)의 발문을 살짝 보고 올 필요가 있다. **4** 문단에서 여러 문장에 걸쳐 ㉠, ㉡, ㉢으로 제시된 용어의 개념은 지문 전체의 맥락과 연결 지어 이해해야 풀리는 경우가 많지만 ④네 가지 측면과 같이 단일하게 표시된, 그것도 글의 흐름이 막 시작된 초반에 제시되면, 단순 일치형 문제 풀이가 되어 각 개념과 핵심 키워드에 표시를 마치고 바로 해당 문제인 2번을 풀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실제로 **1** 문단의 개념과 설명으로 2번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문을 다 읽고 순서대로 2번 문제를 만나 다시 **1** 문단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이 효율성은 읽은 내용을 한 번에 풀어냈다는 만족감과 함께 정확성도 높여 주는 시너지 효과를 낸다.

2~8

* 개념이 나열될 경우, 개념 간의 대립적 성질이 없다면 피정의항에는 동그라미, 정의항 키워드에는 밑줄을 치면서 빠르게 읽어 나가자. 그렇게 하면 문제 풀이 시 해당 개념과 관련된 것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2 1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2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3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4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5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6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2 환율과 오버슈팅

- * 환율: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
 - 한 국가의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
 -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면, 경제 주체들은 위험에 노출됨.
- * 오버슈팅: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 (by 물가 경직성, 불안 심리)
- * 물가 경직성: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

3 1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2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3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4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5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6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7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8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3 경제 충격에 따른 장기·단기 환율 조정 과정

- * 경제에 충격이 발생 →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
- * 물가: 단기-경직적, 장기-신속적 조정
- * 환율: 단기, 장기-신속적 조정
- *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 → 오버슈팅 초래
- * 장기적인 환율: 자국 물가/외국 물가 = 균형 환율

2 ※ 지문 파악의 가장 큰 줄기는 정주행, 역주행의 흐름 파악이다. 역주행 '그러나'에 세모, 정주행 '이러한', '여기에서'에 > 표시를 해 두면 문단의 내용을 한눈에 구조화할 수 있다. 이때 역주행 좌우에 있는 대립 키워드(장기적 vs 단기적)에 포인트를 두어 차이점을 유심히 살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2 * 헛갈림 주의! A에 대한 B의 비율=B/A(A: 외국 통화, B: 자국 통화의 교환)

3 * '그러나', '그러나(하지만)' 등 전환 및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면 주의를 필요하므로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절하다. [3-3, 4, 4-1도 마찬가지로]

6, 7 * '이', '이때'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 가는 지시 대명사(이~, 그~)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3-5, 8, 4-4, 6, 5-5, 6도 마찬가지로]

3 ※ 2문단의 대립 키워드와 예측이 그대로 나타난다. 3문장에서 물가의 <단기 vs 장기>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작은 틀이고, 큰 틀에서 <물가 vs 환율>이라는 대립 양상이 하나 더 추가되어 이때부터 지문 독해의 멘붕을 초래하게 된다. 그럴수록 정주행과 역주행의 표시를 착실해 해 두면 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 두 대립 쌍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 '지만'보다는 문장 첫머리에 있는 '반면'이라는 역주행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한다. 이를 센터로 '물가는~' '환율은~'과 같이 대립의 보조사 '은/는'을 사용하여 뚜렷하게 그 차이를 두고 있다.

※ 이와 같이 큰 흐름의 역주행 표시가 문단 중간 쯤에 하나 있다면 문단은 크게 전/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개 후자가 포인트가 되며 정답의 핵심 근거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1번 문제의 정답 근거는 3문단의 후반부에 단순 일치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 1~2문단으로 1, 2번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의 정답 근거는 나머지 문단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문제를 전략적으로 다루고 접근하는 틀을 익힐 수 있다.

※ 실제로 3, 4번 문제는 4문단, 5번 문제는 5문단으로 해결된다.

1 * '장기와 '단기'의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 읽어 나가자.

3~4 * <물가-환율>처럼 대립 항목이 정리되면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6 * 문장이 길다면, 심표에서 흐름을 끊어 주자. [4-3·7도 마찬가지]

* <외국 물가/자국 물가=균형 환율>처럼 공식이 정리되면 문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가]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2**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3**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4**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5**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6**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7**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4 환율의 오버슈팅 과정

- * 국내 통화량 ↑ → 물가 경직 → 실질 통화량 ↑ → 금리 ↓ →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 ↓ → 투자 자금 ↓ → 자국의 통화 가치 ↓ → 환율 ↑
- * 통화량 ↑ 효과: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의) 예상 환율 상승 + (금리 ↓ → 자금의 해외 유출에 의한) 환율 상승
- * 환율의 오버슈팅: 추가적인 상승 현상 → 물가의 경직성에 비해
- * 실질 통화량과 유출 자금의 복귀 →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

5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2**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3**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4**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5**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6**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5 다양한 미세 조정 정책 수단

- * 단기의 환율이 급등락 or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 → 미세 조정 정책 활용
- * 강제성 ↓: 정보 공개 or 불필요한 규제 가격 축소 → 물가 경직성 완화
- * 직접성 ↑: 환율 변동 → 수입 필수품의 세금 조절 → 내수 위축 방지 → 오버슈팅 부작용 완화
- * 직접성 ↑: 환율 변동 보험 or 보증 제공 → 환율 급등락 대비

4

※ 문맥의 흐름 파악: △(그런데) → >(이 과정) → >(이러한)

- * 일단 문단 첫머리의 역주행 표시는 문단 중앙에 있는 것보다 중요도는 떨어진다. **4** 문단 전체가 오버슈팅을 발생시키는 과정의 큰 흐름임을 파악해야 한다.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면, 인과 관계나 순서의 양상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 (출제자는 이를 뒤바꿔 잘못된 선지를 자주 만든다.) 상승-하락은 화살표로 표시해 두는 게 좋고 이때 흐름을 살피서 역주행 흐름에 더 포인트 두자. 전체 흐름은 <증가-증가-하락-하락-하락-위축-하락-상승>인데 흐름이 바뀌는 3번째 하락과 마지막 상승이 포인트. 여기서 더 1순위 포인트는 3번째 하락! (뒤에 관계성이 있거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 실제로 3번 문제의 정답 선지 ①은 시장 금리의 '하락'으로 시작하고 있다. (출제자도 위의 첫 역주행 흐름에 초점을 두어 정답 선지를 설정한 셈!)

2~4

- * 상하 화살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구조화에 도움이 된다.

6

- *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처럼 비례 관계가 정리되는 내용은 선지 정/오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5

2~4

- * (2~들 수 있다.) (3한편~, 4또한~)에서, 문장 첫머리에 제시된 '한편', '또한'을 통해 문장을 묶거나 혹은 분류할 줄 알아야 한다. (전자는 강제성 ↓, 후자는 직접성 ↑ 경우에 해당)

01.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90위

#이해 #최선의 조건 #문제 풀이 Tip #평가원 이의 제기

정답률 66%	선지별 선택 비율				
	① 66%	② 9%	③ 9%	④ 9%	⑤ 7%

정답 풀이

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1<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2<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3문단]

↳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지만 2) 자국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1)

오답 풀이

②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가령 1)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2)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3<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 ('오버슈팅의 정도'는 '물가 경직성'에 비례) [4문단]

지문 POINT

- * 신속적 ↔ 경직적
 - * 원인: 금리 하락 → 결과: 오버슈팅 → 물가 경직성에 비례
 - * 시장 금리의 하락 폭 비교: (물가가 '신속적') < (물가가 '경직적')
- by 오버슈팅

↳ 통화량 증가로 인해, 물가가 '경직적'이든 '신속적'이든 금리는 하락한다. 1~2) 이때, 금리 하락에 따른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에 비례한다. 3) 그렇다면, <물가가 '경직적'인 경우의 시장 금리 하락 폭>이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의 시장 금리 하락 폭>보다 클 것이다.
 그래서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가 <오버슈팅>의 영향을 더 받는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1<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2<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3<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3문단]

지문 POINT

- * 단기 조정 속도 비교: 경직적인 '물가' < 신속적인 '환율'
- ↳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인 <물가>의 조정 속도 1)보다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환율>의 조정 속도 2)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3)

④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1<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2<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3<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4<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 ('오버슈팅의 정도'는 '물가 경직성'에 비례) [4문단]

지문 POINT

- * 물가가 경직적 → 시장 금리 하락 →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2, 3)
- *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 → <외국인 투자 자금>이 직접적으로는 <시장 금리>에, 근본적으로는 <물가의 경직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
- ↳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1) 외국인 투자 자금이 <물가의 경직성에 영향을 받는>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2, 3) <결국엔 물가가 경직될수록> 이에 비례하는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 4)

평가원 이의 제기

〈 의견〉 선지 ④는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곧 (1) 이미 오버슈팅이 발생한 이후 그것이 약화되거나 지속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2)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질 통화량이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2)의 기간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시장 금리가 반등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그 복귀 속도가 빨라져 오버슈팅의 정도는 약화되고,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의 수렴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선지 ⑤ 역시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라는 표현을 중복하여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2)의 기간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 선지 ⑥는 시간 경과(걸리는 기간)에 관련된 말이 있지만 선지 ④에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초기의 상황만을 가정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⑤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1)〈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2)〈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3)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4)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5)〈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4문단]

↳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1)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오버슈팅〉의 〈지속성〉이 커지기 2) 때문에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 4) 걸리는 기간이 3) 길어질 것이며 따라서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5) 걸리는 기간도 길어질 3) 것이다.

TIP 실전 풀이

선지의 각 첫머리에 해당하는 말(상황, 주제)에 적절한 표시를 하고, 관련 지문을 신속하게 찾는 것이 관건.

- 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3문단]
-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3문단]
- ④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4문단]
- ⑤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4문단]

02.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61위

#이해 #지문에 사용된 용어 뜻에 주의

정답률 8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4%	③ 5%	④ 6%	⑤ 80%
------	------	------	------	-------

정답 풀이

⑤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 (기존의 조직을 활용수록 자동성↑) [1문단]

↳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기 1) 때문에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1등급 가이드

☞ 사전적 의미의 〈자동성〉과 ‘기존의 조직 활용’이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문에 사용된 용어는 전문어로서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입견 없이 지문에 제시된 의미만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1)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1문단]

↳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 1)가 낮기 때문에 〈강제성〉도 낮다.

②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높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1)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1문단]

↳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1)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낮다.

③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1)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1문단]

↳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강제성>과는 상관없으므로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낮다.

1등급 가이드

☞ <강제성>이라는 상식적인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지문을 보지 않고도 선지 ①, ③의 부적절함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 굳이 지문 검토를 하지 않고 다음 선지로 넘어가야 시험 시간을 1초라도 절약할 수 있다. 실전에서는 1초, 1초를 모아 킬러 문제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틀릴 문제도 건져 낼 수 있다.

④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높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자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1)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2)직접성이 낮다. [1문단]

↳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1)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낮다. 2)

03.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5위

#항목 후순위의 법적 #보기 제시 #최선의 Q&A #최선의 조언 #조사 하나의 차이

정답률 37%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7%	② 6%	③ 17%	④ 17%	⑤ 23%

정답 풀이

①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이로 인해 외환 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1)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 (환율의 오버슈팅 발생)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2)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A국의 환율 급등 (→ 오버슈팅의 상황)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4)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4문단]

↳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4)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2) <오버슈팅>의 정도는 다소 진정될 것이다. 3)

최선의 Q&A

Q 선지 ①의 의미가 중의적인 듯한데,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지는 것을 B국으로 해석한다면 적절한 것 아닌가요?

A 문제의 발문을 다시 살펴보자. A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지는 것을 A국으로 놓고 판단해야 한다. 출제자는 이를 노리고 선지 ①을 <A국의 오버슈팅의 정도>라 하지 않고 그냥 <오버슈팅의 정도>라고 제시했다. 발문을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이자. 발문 제대로 읽기는 문제 풀이의 첫걸음이다.

X 오답 풀이

②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1)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문단]

• <보기>
2)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2)

③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1)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2)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1)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

어휘 체크

- ♣ 조사 하나의 차이가 의미를 바꾸다
- * 시장의 조정: 시장이 자연스럽게 조정됨.
- * 시장을 조정: (정부와 같은 어떤 주체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함.

④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1)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2)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2)

⑤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1)<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 (수입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내수가 위축됨을 알 수 있음.) [끝 문단]

↳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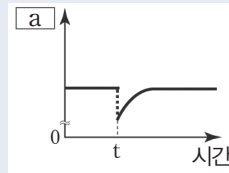
정답 풀이

- ㉠ (실질 통화량) ㉡ (시장 금리) ㉢ (환율)
- ④ c 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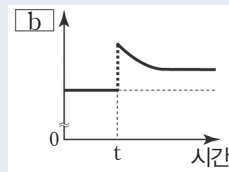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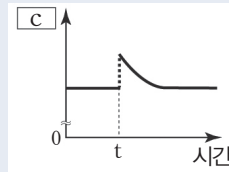
다음 그래프들은 [가]에서 <국내 통화량이 시점에서 증가하여 유지>된 경우 예상되는 ㉠~㉢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 t에서 일시적으로 급락한 후 원래로 복구됨. → ㉡시장 금리



↳ t에서 일시적으로 급등한 후 원래보다 높아짐. → ㉢환율



↳ t에서 일시적으로 급등한 후 원래로 복구됨. → ㉠실질 통화량

-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1)㉠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2)㉡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 (㉠실질 통화량과 ㉡시장 금리는 반비례)~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3)㉢환율은 상승한다.~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4)㉠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 유출되었던 자금이 5)㉡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4문단]

-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6)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3문단]

66 지문 POINT

▶ 각 그래프에서 t 시점 이전과 이후(복구 = 동일? 상승 or 하락?)를 비교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 풀이의 관건!

↳ ㉠(실질 통화량)은 증가했다가 1)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기 4) 때문에 그래프 [c]에 대응된다. 이에 반비례하는 ㉡(시장 금리)는 하락했다가 2)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기 5) 때문에 그래프 [a]에 대응된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일시적으로도 상승하고 3) 장기적으로도 상승하여 6) 원래 수준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프 [b]에 대응된다.

04.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54위

#보기 제시 #3점 #그래프 #최상의 조건 #평가원 이의 제기

정답률
56%

선지별 선택 비율

- ① 6% ② 18% ③ 12% ④ 56% ⑤ 8%

최선의 조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어 독해력뿐만 아니라, 그래프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까지 필요하다. 각 그래프에서 t 시점 이전과 이후(복구=동일? 상승 or 하락?)를 비교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 풀이의 관건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많은 그래프를 접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래프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수능 국어는 국어 독해력이 바탕이 된 종합적인 사고 및 이해를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자.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보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는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이 중요한데 <보기>에서는 t 시점 이전에는 모든 경제 변수의 값이 일정하다고 말하지만 t 시점 이후에는 국내 통화량 이외의 경제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통제 변인에 대한 설정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국외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국외 시장의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이 문제는 특정 상황을 해당 그래프와 대응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문에 제시된 ㉠~㉢의 개념, 특성에 해당하는 문맥을 따라 이에 가장 근접한 그래프에 대응시키면 된다. 그래서 t 시점 이후는 시간이라는 변수와 문맥 상황으로도 충분히 선지 ④가 정답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의견> <보기>에 '장기 균형으로 수렴되는 기간은 변수마다 상이하다.' 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a], [b], [c] 세 그래프 모두 '시간'이라는 같은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b], [c] 모두 같은 수렴 기간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문의 내용과 모순되므로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래프가 모호하여 경제 변수가 그래프의 변화가 줄어드는 시점에 도달하였는지의 유무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상이하다>는 '서로 다르다'는 의미로 [a], [b], [c] 모두 같은 수렴 기간을 가질 수 없다. 그래프가 모호하여 뚜렷하지 않을지라도 ㉠~㉢에 대응되는 상대적인 특성은 뚜렷하기 때문에 선지 ④를 정답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

05.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96위

#사례의 적절성 #평가원 이의 제기

정답률 67%	선지별 선택 비율				
	① 7%	② 6%	③ 67%	④ 12%	⑤ 8%

정답 풀이

③ 환율의 급등락으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 <미세 조정 정책 수단>으로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의 통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66 지문속근거 찾기

[선지 ①, ②, ④, ⑤ 공통]

•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가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1)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2)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3)환율 변동 보증을 제공하거나, 외환 차입 시 4)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끝 문단]

① 예기치 못한 외환 손실에 대비한 환율 변동 보험3)을 수출 주력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② 원유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2)한다.

④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수입 대금 지급을 위해 외화를 빌리는 수입 업체에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4)

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금리 변동, 해외 투자 자금 동향 등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1)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선지 ①에서 '외환 손실'은 '외화량 감소'를 뜻하며, 외화의 가치인 '환율의 상승'을 야기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늘어나 수출 기업에게 긍정적인 현상인데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은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한 것이다. 특정 주체가 아닌, 경제 전반적인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 '외환 손실'이 부분적으로 수출 기업에게는 이익이 될지라도 오버슈팅을 일으켜 전반적인 경제 주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므로 이에 대비하여 환율 변동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06~10 집합 의례

1 1사람들은 함께 모여 집합 의례를 행한다. 2①뒤르켐은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의 집합 의례를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3부족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 활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聖)과 속(俗)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4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5집합 의례가 끝나면 부족 사람들은 가슴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일상의 속된 세계로 되돌아간다. 6이로써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1 뒤르켐의 집합 의례 탐구 과정

*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의 집합 의례: 문제 상황 발생 → 생계 활동 멈춤. → 상황을 성 혹은 속으로 판별 → 성스러움 깨달음. → 도덕 공동체 재생 → 일상으로 복귀 →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

2 1뒤르켐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2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3뒤르켐은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라 여긴다.

2 뒤르켐의 집합 의례의 의미

* 새로운 도덕 공동체 창출 → 성스러움이 속된 세계에서 도덕적 의미 제공

3 1①파슨스와 스멜서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한다. 그들은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 표현한다. 2현대 사회에서는 가치가 평상시 사회적 삶 아래에 잠재되어 있다가, /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위기 시기에 위로 올라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 3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의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간다. 4하지만 위기 시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한다. 5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6그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 7파슨스와 스멜서는 이것이 마치 유기체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흐트러진 항상성의 기능을 생리 작용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3 파슨스와 스멜서는 집합 의례를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

* 속된 일상: 이해관계에 따른.
* 위기 시기: 성스러움의 가치가 일반화 → 집합 의례로 심리적 긴장과 압박 해소 → 사회 통합 회복 ⇒ 유기체가 항상성의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

1

- 1 * 첫 문장에서의 키워드(집합 의례)는 대개 지문 전체의 화제가 되기 마련이다.
- 2 * '뒤르켐'처럼 첫 문단에서 인물 명이 나오면 표시를 해 두자. 글이 전체적으로 인물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 4, 6 * '이', '이로써',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 '그'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 가는 지시 대명사(이~, 그~)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3]-6도 마찬가지로

2

- 1 * 이번 문단도 또 뒤르켐이다. 그렇다면 1~2 문단을 묶어서 구조화해야 한다.
- 2 * 예시는 앞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 내용이 어렵지 않다면 슬쩍 넘겨 읽어도 좋다.

3

- 1 * '파슨스와 스멜서'처럼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면, 이전 인물과의 공통점, 특히 차이점에 주목하자. [4]-1도 마찬가지
- 2 * 문장이 길다면, 삽표에서 한 번 흐름을 끊어 주자.
- 4 * '그런데', '그러나(하지만)', '~아니라', '~달리' 등 전환 및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면 주의가 필요하므로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절하다. [4]-2, 3, 5. [5]-2도 마찬가지
- * 3의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4의 '보편적 가치'가 대립적 양상을 나타낸다. (★'보편적인 가치'처럼 대립어를 생성할 수 있는 말에 포인트를 두자. [보편적 → 한정적])
- 5~6 * <원인+결과>의 구성.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4]-3~4도 마찬가지

4 1㉔ 알렉산더는 파슨스와 스텔서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 은유가 복잡한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를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 공연론'을 제시한다. 2 그는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가 현대 사회에서는 유기체의 생리 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고 본다. 3 현대 사회는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이 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요소가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4 따라서 이 요소들을 융합하는 사회적 공연은 우발성이 극대화된 문화적 실천을 요구한다. 5 알렉산더가 기능주의 이론과 달리 공연의 요소들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융합이 이루어지는지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알렉산더의 사회적 공연론

- * 성스러움의 가치는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
- * 사회적 공연 요소의 분화 및 자율성 → 사회적 공연은 우발성이 극대화된 문화적 실천 요구
- * 공연 요소들의 융합 조건과 과정을 경험적으로 탐구

5 1 현대 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로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대본, 다양한 대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행하는 배우, 계급·출신 지역·나이·성별 등 내부적으로 분화된 관객,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동선을 짜서 공연을 무대 위에 올리는 미장센,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공연을 광범위한 관객에게 전파하는 상징적 생산 수단, 공연을 생산하고 배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 등이 있다. 2 그러나 요소의 분화와 자율성이 없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중 동원만 있을 뿐 사회적 공연이 일어나기 어렵다.

5 사회적 공연의 요소

- * 분화와 자율성 필수
 -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구체화한 대본
 - 다양한 대본을 실행하는 배우
 - 분화된 관객
 - 무대 위에 올리는 미장센
 - 관객에게 전파하는 상징적 생산 수단
 -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

4

1 * 문제+해결의 구성으로, 해결(사회적 공연론)을 중심으로 다음 내용이 이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2~5 * 문장 중간에 나오는 반대 맥락의 말(아니라, 달리)에 세모 표시를 해 두고, 그 이후에 포인트를 두자.

5

1 * '〈대본, 배우, 관객, 미장센, 생산 수단, 사회적 권력〉처럼 요소가 나열되어 있을 때, 가장 낮은 요소(미장센)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10번 문제 선지 ①과 관련!)

06.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32위

#논지 전개 방식 #사례-예시

정답률 75%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5%	③ 75%	④ 8%	⑤ 7%

정답 풀이

③ 중심 화제에 대한 이론이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파슨스와 스텔서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1)가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한다. [3문단]
- 알렉산더는 파슨스와 스텔서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 은유가 복잡한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를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2)그 대안으로 '사회적 공연론'을 제시한다. [4문단]

↳ 중심 화제(집합 의례)에 대한 이론이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는1, 2)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중심 화제에 대해 주요 학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중심 화제(집합 의례)에 대해 주요 학자들이 선행 연구를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것이지, 1, 2) 합의(서로 의견이 일치함.)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② 중심 화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 후 두 견해를 절충하고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알렉산더는 파슨스와 스텔서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 은유가 복잡한 현대 사회의 1)집합 의례를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 공연론'을 제시한다. [4문단]

↳ 중심 화제(집합 의례)에 대해 상반된 견해(집합 의례 탐구에 적합 vs 집합 의례 탐구에 한계)를 제시한 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1) 두 견해를 절충하는 것은 아니다.

어휘 체크

* 절충: 서로 다른 사물이나 의견, 관점 따위를 알맞게 조절하여 서로 잘 어울리게 함.

④ 중심 화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한 후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2문단]
- 파슨스와 스텔서는 이것이 마치 유기체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흐트러진 항상성의 기능을 생리 작용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 (사례×, 비유○) [3문단]

↳ 중심 화제(집합 의례)에 대한 사례로 볼 만한 것은 1개이며, 1)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바탕 지식 더하기

※ <사례 vs 예시>를 알아보자!

- 사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과거의 일)
- 예시: 예를 들어 보임.

⑤ 중심 화제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 중심 화제(집합 의례)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가설은 없다.

패턴 공략

▶ 역사적 기원 혹은 역사적 고찰이 지문에 있다면 시간(시대)과 관련된 표현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07.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41위

#평가원 이의 제기

정답률 76%	선지별 선택 비율				
	① 4%	② 5%	③ 7%	④ 76%	⑤ 8%

정답 풀이

④ 공동체 성원들은 집합 의례를 거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인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①뒤르켐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뒤르켐은 1)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라 여긴다. [2문단]

↳ 공동체 구성원들이 <집합 의례>를 거쳐 서로 결속하는 것은 맞지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이해관계를 추구하느라 결속하지 못했던 개인들을 서로 결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

X 오답 풀이

① 부족 사회는 집합 의례를 행하여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되살린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① 뒤르켐은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의 <집합 의례>를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탐구한다.~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1)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1문단]

↳ 부족 사회는 <집합 의례>를 행하여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되살린다).1)

② 집합 의례를 통해 사람들은 생계 활동의 성스러운 의미를 얻는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집합 의례>가 끝나면 부족 사람들은 가슴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일상의 속된 세계로 돌아간다. 이로써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1문단]

↳ <집합 의례>를 통해 사람들은 생계 활동의 성스러운 의미를 얻는다.1)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2문단에서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개인들을 결속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문장이 약간 중의적인데 성스러움이 이해관계를 추구한다고 보면 선지 ②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반면 선지 ②의 경우 1문단을 보면 가슴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생계 활동이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 결론이지 성스러워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 2문단,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라 여긴다.'에서 성스러움이 개인들을 결속하게 하는 것이지,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문장이다.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생계 활동이 성스러운 의미를 얻는다고 할 수 있다.

③ 현대 사회에서는 집합 의례를 통해 새로운 도덕 공동체가 형성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① 뒤르켐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1)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2문단]

↳ 현대 사회에서는 <집합 의례>를 통해 새로운 도덕 공동체가 형성된다.1)

⑤ 집합 의례의 과정에서 공동체 성원들은 문제 상황을 성 또는 속의 문제로 규정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부족 사람들은 1)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 활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1문단]

↳ <집합 의례>의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문제 상황을 성 또는 속의 문제로 규정한다.1)

08.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77위

#이해 #평가원 이의 제기

정답률 62%	선지별 선택 비율				
① 62%	② 14%	③ 5%	④ 4%	⑤ 15%	

✓ 정답 풀이

① 사람들이 관심을 속에서 성으로 옮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들은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 표현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 성)가 평상시 사회적 삶(→ 속) 아래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위기 시기>에 (성이) 위로 올라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하지만 <위기 시기>에는 1)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 속)에서 보편적인 가치(→ 성)로 상승한다. [3문단]

㉮ 지문 POINT

- ※ 속(俗): 평상시 사회적 삶, 개인의 이해관계
성(聖): 위기 시기, 보편적 가치

↳ 사람들이 관심을 '속'에서 '성'으로 옮긴다.1)

X 오답 풀이

② 사람들이 목표와 규범 차원에서 행동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 성)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 속)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의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가다. 하지만 <위기 시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 속)에서 보편적인 가치(→ 성)로 상승한다. [3문단]

↳ 사람들이 목표와 규범 차원에서 행동하는 때는 <위기 시기>가 아니라, <속된 일상>에서이다.1)

③ 사람들이 생계 활동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는다.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1)〈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성)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속)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의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간다. [3문단]

↳ 사람들이 생계 활동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는 것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속된 일상〉에서이다. 1)

④ 사람들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 상황을 외면한다.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하지만 〈위기 시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한다.~파슨스와 스멜서는 이것이 마치 유기체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흐트러진 1)항상성의 기능을 생리 작용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3문단]

↳ 〈위기 시기〉에 항상성을 회복하기 1)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 상황을 외면한다는 선지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⑤ 사람들이 평상시 추구하던 삶의 도덕적 의미를 상실한다.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집합 의례〉가 끝나면 부족 사람들은 가슴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일상의 속된 세계로 되돌아간다. 이로써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1)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1문단]
-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2)〈집합 의례〉를 행한다. [3문단]

↳ 〈위기 시기〉에 〈집합 의례〉를 통해 2)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1)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3문단에서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위기 시기’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위기 시기’를 ‘도덕적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시기’란 말로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 ⑤인 ‘사람들이 평상시 추구하던 삶의 도덕적 의미를 상실한다.’가 맞는 선지로 보입니다.

〈답변〉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과 〈도덕적 의미를 상실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 = ‘어쨌든 도덕적 의미가 있음.’과 〈도덕적 의미를 상실하는 것〉 = ‘도덕적 의미가 없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 〈위기 시기〉를 수식하더라도 〈도덕적 의미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09.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98위

#이해

정답률 8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84%	② 5%	③ 4%	④ 4%	⑤ 3%
-------	------	------	------	------

✓ 정답 풀이

① ㉞과 달리 ㉞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는 그 결과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㉞파슨스와 스멜서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한다.~1)그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 [3문단]
- ㉞알렉산더는 파슨스와 스멜서의 이론을 받아들여면서도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 은유가 복잡한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를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집합 의례가 현대 사회에서는 유기체의 생리 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2)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고 본다. [4문단]

↳ 사회의 통합이 회복되는 결과를 제시하는 1) ㉞과 달리 ㉞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는 그 결과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2)

✗ 오답 풀이

② ㉞과 달리 ㉞은 집합 의례가 가치의 일반화를 통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할 것이라 본다.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부족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 활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존의 1)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1문단]

-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2)〈집합 의례〉를 행한다. 그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 ㉞파슨스와 스멜서는 이것이 마치 유기체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흐트러진 항상성의 기능을 생리 작용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3문단]

↳ 〈집합 의례〉를 통해 사회 통합이 회복되고 2)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입장은 1) ㉞이 아니라, ㉞이다.

③ ㉞과 달리 ㉞은 집합 의례가 발생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㉞알렉산더가 기능주의 이론과 달리 공연의 요소들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1)어떤 과정을 거쳐 융합이 이루어지는지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문단]

↳ 집합 의례가 발생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1)고 본 이는 ㉠이 아니라 ㉡이다.

④ ㉠과 ㉡은 모두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집합 의례를 유기체의 생리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것이 마치 1)유기체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흐트러진 항상성의 기능을 생리 작용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3문단]
- ㉡알렉산더는 파슨스와 스멜서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이 사용한 2)생물학적 은유가 복잡한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를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4문단]

↳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집합 의례를 유기체의 생리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 이는 ㉠뿐이고1), ㉡은 이것이 한계가 있다고 본다.2)

⑤ ㉠과 ㉡은 모두 현대 사회에서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 없이 집합 의례가 일어난다고 본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한다. 그들은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 표현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1)가치(→ 성)가 평상시 사회적 삶(→ 속) 아래에 잠재되어 있다가, [3문단]
- ㉡알렉산더는 파슨스와 스멜서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 은유가 복잡한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를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 공연론'을 제시한다. [4문단]
- 현대 사회의 2)사회적 공연의 요소들로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대본, [5문단]

↳ ㉠과 ㉡은 모두 현대 사회에서는 성과 속의 분류를 통해 집합 의례가 일어난다고 본다.1~2)

10.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77위

#이해 #보기 제시 #3점 #평가원 이의 제기

정답률 62%	선지별 선택 비율				
	① 7%	② 62%	③ 7%	④ 16%	⑤ 8%

정답 풀이

② 공연의 요소들이 융합되어 가치의 일반화가 일어났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A시에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이다.~A시

시민들은 1)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려 집회를 이어 갔다.~집회에 참여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2)의견이 갈려 토박이와 노인은 반대 운동에, 이주민과 젊은이는 찬성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가 평상시 사회적 삶 아래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뒤틀리는 위기 시기에 위로 올라와 전국적으로 3)가치가 일반화된다.~그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 [3문단]

↳ 소각장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양분되기1~2) 때문에 공연의 요소들이 융합되어 (사회의 통합이 회복되는) 가치의 일반화가3)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X 오답 풀이

① 공연의 미장센이 A시에 한정되어 펼쳐지고 있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1)A시에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이다.~중앙 언론은 이 사건이 2)지역 내 현상이라며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 현대 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로는~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동선을 짜서 3)공연을 무대 위에 올리는 <미장센>. [끝 문단]

↳ 공연의 <미장센>이3) A시에 한정되어1~2) 펼쳐지고 있군.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총체적인 계획과 실행'이라는 미장센의 의미와 A시 반대파 사람들은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보기>의 계획에 비추어, 공연의 미장센이 A시에 한정되어 있다는 선지 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변> A시 반대파 사람들은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행하지 못했으므로 미장센이 A시에 한정된 것이다.

<의견> <보기>의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 했지만'이 중의적으로 해석됩니다. '반대파들은 서울에 갔고 집회를 하려 했는데 좌절되었다.'라고 보면, 미장센은 A지역에서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서울도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서울에 가는 목적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집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이 실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미장센이 서울에는 펼쳐졌다고 할 수 없다.

<의견> 반대파는 반대 운동을 알리기 위해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 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장센의 총체적인 계획을 포함하기 때문에 공연의 미장센이 A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미장센의 의미는 총체적인 계획과 실행이다. 계획과 <실행>이 모두 있어야 미장센이 되는 것이다. 정의된 요소(~계획과 실행)를 모두 갖추어야 해당 피정의항(미장센)이 되는 것이다.

③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화된 관객이 배우로 직접 나서고 있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의견이 갈려 1)토박이와 노인은 반대 운동에, 이주민과 젊은이는 찬성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 현대 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로는 ~2)계급·출신 지역·나이·성별 등 내부적으로 분화된 관객. [끝 문단]

↳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화된 관객이 배우로 직접 나서고 있군. 1~2)

✓ 어휘 체크

* 토박이: 대대로 그 땅에서 나서 오래도록 살아 내려오는 사람.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보기>에서 A시민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집회에 직접 참여한 (반대파와 찬성파) 시민들}과 {집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토박이와 노인, 이주민과 젊은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회에 직접 참여한 것}을 [배우(적극적)]로, {집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을 [관객(소극적)]으로 판단하여도 무방하기에 선지 ③도 틀릴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 지문의 포괄적인 의미를 임의적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면 안 된다. 이의 제기한 것처럼 틀릴 여지의 근거를 만들어 놓고 본다고 해서, 이것이 지문에 명시된 절대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해석처럼 선지 ③의 적절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견>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화된 것은 관객이고 [관객]은 {집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민}이므로 관객은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관객이 직접 나서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답변> '직접 나선다.'의 의미를 한정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운동에 참여한 것 자체를 직접 나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상징적 생산 수단과 사회적 권력이 공연의 전국적 전파를 막으려 하는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1) <중앙 언론>은 이 사건이 지역 내 현상이라며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2) 반대파는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 했지만 <경찰>이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
- 그러나 요소의 분화와 자율성이 없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중 동원만 있을 뿐 3) 사회적 공연이 일어나기 어렵다. [끝 문단]

↳ 상징적 생산 수단(→ 중앙 언론)과 사회적 권력(→ 경찰)이 공연의 전국적 전파를 막으려 하는군. 1~3)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상징적 생산 수단은 공연을 광범위한 관객에게 전달하는데, <보기>의 중앙 언론은 이러한 관객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으므로(않았으므로) 상징적 생산 수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답변> 요금을 내지 않아 통화 기능이 상실된 핸드폰을 핸드폰이라고 할 수 없나? 마찬가지로 <상징적 생산 수단>은 공연을 관객에게 전달했느냐 vs 전달하지 못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보기>의 상황에서 중앙 언론이 관객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중앙 언론>이 가지고 있는 보도라는 본질적 기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통화 기능을 제때 하지 못했더라도 핸드폰은 핸드폰인 것처럼 <중앙 언론>은 언제든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적 생산 수단>인 것이다.

<의견> <보기>에서 '중앙 언론은 이 사건이 지역 내 현상이라며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의 단서만으로는 상징적 생산 수단이 공연의 전파를 막으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지역 내 현상이라며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던 상징적 생산 수단의 의도가, 실제로 공연의 전국적 전파를 막으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지 ④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중앙 언론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맥락을 통해 공연의 전국적 전파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지문의 단편적인 단서만 보지 말고 폭넓게 맥락까지 같이 살펴보자.

<의견> 경찰을 사회적 권력이라고 볼 수 있나?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분화된 것이 경찰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확장적인 해석이 아닌가요? 경찰은 정부에 속한 잘 통제된 중앙 집권적인 권력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화된 권력이라 보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답변> 끝 문단 마지막 문장에 주목하라. <보기>의 경찰은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이 아니라, 분화와 자율성이 없는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국가 권력에 해당한다.

⑤ 배우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수행하는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A시의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낙후된 1)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소각장을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2) 반대파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찬성하지만 3) 소각장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 현대 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로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대본, 4) 다양한 대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행하는 배우. [끝 문단]

↳ 배우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동의하면서도 1~2) 서로 다른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수행하는군. 4)

11~13 통화 정책

1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2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3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4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게 되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5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1 통화 정책의 정의와 중앙은행의 공개 시장 운영

- * 통화 정책: 중앙은행이 이자율과 통화량 조절 → 경제적 목적 달성
- * 중앙은행의 공개 시장 운영
 - 채권 매수 → 이자율 ↓ → 경기 ↑ → 물가 상승률 ↑
 - 채권 매도 → 이자율 ↑ → 경기 ↓ → 물가 상승률 ↓

2 1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조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2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3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4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5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6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통화 정책의 선제성과 정책 외부 시차

- * 통화 정책의 선제성: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미리 대처 → 경제적 목적 달성
- * 정책 외부 시차: 통화 정책의 효과가 발현하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함. → 통화 정책의 선제적 운용이 바람직함.

- 1**
- 1
 - * 첫 문단, 특히 첫 문장에서 개념 설명이 있다면, 그 개념 자체가 지문 전체의 중심 화제가 되기 마련이다. 다른 것은 이해하지 못해도 개념, 즉 중심 화제와 그에 따른 큰 줄기는 부여잡고 가야 한다.
 - * 개념에서 피정의항의 키워드(통화 정책)는 동그라미, 정의항의 키워드(이자율, 통화량)는 밑줄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2-3도 마찬가지로]
 - 3~4
 - * 어휘에 맞게 상승과 하락에 ↑, ↓ 표시를 해 두면 맥락 파악에 도움이 된다.
 - 5
 - * '이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러한' 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 가는 지시 대명사에는 정주행을 나타내는 > 표시가 적절하다.

- 2**
- 1
 - *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에 대해 차례로 서술될 것을 예측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
 - 2
 - * '먼저'를 통해 같은 맥락(통화 정책의 효과 조건)의 다른 내용(정책 신뢰성)이 문단 내 혹은 다음 문단에 나타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3
 - * 원인+결과의 구조,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3-1~2도 마찬가지로]
 - 3, 5
 - * '~문제가 된다', '부작용이 수반'처럼 문제 사항이 나타나면 이를 보완할 해결 사항이 나타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4
 - * 예시는 앞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 내용이 어렵지 않다면 슬쩍 넘겨 읽어도 좋다.
 - 6
 - * 3, 5문장에 대한 해결 사항

3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3단계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4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①준칙주의를 주장한다. 5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6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7그러나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8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9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3 프리드먼의 준칙주의

- *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음.
- * 준칙주의: 중앙은행이 특정 정책의 목표나 방식을 반드시 지킴.
→ 신뢰성 ↑

4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2준칙주의와 대비되는 ②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3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4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4 준칙주의에 대한 비판과 재량주의

- * 준칙주의에 대한 비판
 - 민간이 중앙은행의 준칙 준수 의지 판단 x, 강제 x
 -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음.
- * 재량주의: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 대응

3
3, 7
* '그러나', '그러나' 등 전환 및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접속어가 사용되면 주의가 필요하므로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절하다.

[4-1도 마찬가지로]

* '견해 차이가 있다.'를 통해, 앞으로 견해가 2개 이상 나올 것이며, 이 둘의 장점과 단점을 잘 따지고 정리해 두어야 한다.

4
* 인물 명이 지문 초반에 나오면 인물별로 글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물 명에 특정 메모를 해 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렇게 인물 명이 지문 중반 혹은 그 이후에 나오면 (지문 초반에 인물 명이 나오는 양상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이때는 인물 명보다는 다른 부분에 포인트와 키워드를 잡는 것이 좋다.

* A하는 B처럼 개념은 항상 'A는 B이다.'의 형태만을 갖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자.

8~9
* 문제+해결의 구조, 원인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문제 사항을 인지하면 어딘가에는 이를 해결할 내용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4
1
* 첫 문장의 '그러나'는 앞 문단의 핵심을 부정하거나 반대의 맥락으로 이끈다.

3~4
* 결과+원인의 구조,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11.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82위

#설명 방식 #사례_예시

정답률 6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64%	② 8%	③ 11%	④ 11%	⑤ 6%

정답 풀이

①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1문단]
- 중앙은행의 2)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2문단]

↳ <통화 정책>의 <목적>을 한 가지만 간단히 제시1)할 뿐이지,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은 <통화 정책>의 <목적>이 아니라,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2)이다.

☞ '~의 효과'와 '~의 목적'은 엄연히 다른 의미이다. 대충대충 살펴보면 선지 ①은 그럴듯하게 적절해 보이는데 출처자는 이를 노린 것이다. 대충대충은 버리고, 쉬운 말이라도 항상 꼼꼼히 따져 보는 습관을 갖자.

오답 풀이

② 통화 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1)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2)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3)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문단]

↳ <통화 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3)을 <예를 들어> 설명2)하고 있다.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1) (해석 주의)
= 선제성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
≠ 선제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 (×)

☞ 맥락 없이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만 놓고 보면, 통화 정책을 선제(예측하여 미리 대체적으로 운용하는 것 자체를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보는 것 같다. 하지만 <~결정, ~실시>와 <실제 효과> 사이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전 맥락을 고려하면,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는 선제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제성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필요성을 검토해 본다는 문제 제기의 의미이다.

'무엇이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무엇이 부정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항상 낱말의 정확한 뜻을 고려해 맥락 속에서 문항의 의미를 파악하자.

어휘 체크

- * 문제: 1.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 2. 논쟁, 논의, 연구 따위의 대상이 되는 것.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 3.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런 일.

바탕 지식 더하기

※ <사례 vs 예시>에 대해 알아보자!

- 사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 과거의 일)
- 예시: 예를 들어 보임.

③ 공개 시장 운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원인) 이자율은 하락하고(결과), 채권을 매도하면(원인) 이자율은 상승한다.(결과) 이자율이 하락하면(원인)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름(결과), 이자율이 상승하면(원인)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결과) 2)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1문단]

↳ <공개 시장 운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2)을 인과적으로 설명1)하고 있다.

④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대표적인 1)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공개 시장 운영)을 설명1)하고 있다.

⑤ 통화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두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1)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2)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3문단]

- 3)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4문단]

↳ 통화 정책의 신뢰성 확보1)를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두 견해의 차이2~3)를 드러내고 있다.

12.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위

#구체적 상황에 적용 #이해 #보기 제시 #평가원 이의 제기

정답률 22%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9%	② 16%	③ 24%	④ 19%	⑤ 22%

정답 풀이

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1)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 → (<이자율> = <기준 금리>) 시키는 것이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2)'이자율(기준 금리)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 (<기준 금리>와 '물가 상승률'은 반비례) [1문단]

- 먼저 3)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2문단]

<보기>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기간	1/1~3/31	4/1~6/30	7/1~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4)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

5)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화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6)기준 금리 조정과 공개 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p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는 1%p 상승한 것이다.

↳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해, 금융 시장 <이자율>이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1)한다는 것을 전제로, '기준 금리'(이자율)가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다.2)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4)하려면 3%로 해당하는 2, 3분기의 '물가 상승률'을 (<기준 금리>를 인상해서) 떨어뜨려야 한다.2)

이에 따라, 1분기인 1월 1일에 (<기준 금리> 4%로부터 1.5%p만큼 올려) 5.5%로 인상하면, 이에 반비례하는 '물가 상승률'은 1%p 하락2, 5)해 2분기에는 2%가 될 것이다.4) 그리고 이 '물가 상승률' 2%를 3분기에도 그대로 유지하려면 2분기인 4월 1일에도 마찬가지로 기준 금리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정책 외부 시차> 때문에, 2분기의 물가 상승률을 1월 1일에, 3분기의 물가 상승률을 4월 1일에 미리 수행6) 하는데 이를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고 한다.3)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지문에는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만 나타나 있는데, <기준 금리>와 <물가 상승률>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답변> 먼저 1문단에서 '이자율을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킨다.'는 것을 통해 이자율과 기준 금리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문단에서 <이자율> & <물가 상승률>의 관계와 <보기>의 <기준 금리> &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연결한 것으로 보아 <이자율>과 <기준 금리>가 서로 대체 가능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추론을 하지 않더라도 <금리>와 <이자>라는 어휘의 의미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수능을 보는 고3 학생들에게 상식적인 수준에 해당한다.

* 금리: 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

13.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82위

정답률 6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64%	② 6%	③ 7%	④ 15%	⑤ 8%

정답 풀이

① ①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1)'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①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2)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준칙주의>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준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1)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2)

X 오답 풀이

② ㉠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1)<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 ㉡<재량주의>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1)

③ ㉠에서는 ㉡과 달리,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1)'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2)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3)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 ㉡<재량주의>에서는 준칙에 반드시 얽매일 필요는 없다3)는 입장이지만, ㉠<준칙주의>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준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기1~2) 때문에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켜야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에서는 ㉠과 달리,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1)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 ㉡<재량주의>에서도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1)하게 여긴다.

⑤ ㉡에서는 ㉠과 달리,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1)'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2)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 선지의 내용과 반대로,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본다.2)

㉠<준칙주의>가 어떤 상황에서도 '준칙'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기1) 때문에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지문 난이도 ★★

2017학년도 수능 37~41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22위

01 ~ 05 공정한 보험의 원리

1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2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3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1 보험의 개념과 특징

- * 개념: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보험료 납부, 사고 발생 시 보험금 받음.
- * 특징: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우연적 조건의 실현 여부에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

2 [A] 1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2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3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4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5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6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7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2 보험료, 보험금 산정 & 보험(가입 목적, 공정성)

- * 보험금의 공정성: 개인 납부 보험료 = 수령 보험금의 기댓값
전체 보험료 총액 = 보험금 총액
- *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 사고 발생 확률 × 수령 보험금
- * 보험료율: 보험료/보험금
- * 보험료율 > 사고 발생 확률: 보험료 총액 > 보험금 총액
보험료율 < 사고 발생 확률: 보험료 총액 < 보험금 총액
- * 공정한 보험: 보험료율 = 사고 발생 확률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1
* 첫 문장의 키워드(보험, 보험료, 보험금)가 낯설지는 않아 생각보다 마음이 가볍다. 하지만 지문 없이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를 물어보면 정확히 답을 하는 수험생은 많지 않다. 보험료와 보험금의 의미가 첫 문장부터 구분해서 설명된 만큼 쉽다고 방심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일지라도 이 둘은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출제자는 익숙한 화제일수록 사소한 것을 문제화하는 경향이 많다.)

3
* <이처럼>은 앞의 내용을 종합 정리해 주는 표지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키워드(조건부 상품)를 놓치지 않고 표시해 두어야 한다.

2

1
* 보험료와 보험금이 또 구분되어 진술되어 있다. 앞으로 이 둘의 차이점에 계속 주목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 문장이 너무 길다! 4줄을 차지하는 긴 문장일지라도 중요한 상대적 포인트는 있다. 문장이 한눈에 안 들어온다면 그 상대적 포인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보통은 문장의 쉼표가 있다면 쉼표 이후가 포인트! 그런데 여기에는 쉼표가 없다. 이럴 때는, (아니라, ~으로)처럼 대립 혹은 인과를 나타내는 어미를 이후가 포인트가 된다.

4~7
* 지문에서 대상의 수식 관계가 정리되면(2 문단 하단의 내용 요약 상차 참고) 반드시 문제화된다. 다른 내용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것만큼은 수학 공식처럼 묵숨 걸고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말랑말랑하고 주관적인 국어 시험에서 객관적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구간에 해당한다.

최심의 Q&A

Q <공정한 보험>은 <보험료 총액> = <보험금 총액>이잖아요. 그런데 <보험료/보험금>가 <보험료율>이라면, 이것은 항상 1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것을 다 이해하는데 이 부분만 계속 이해가 안 돼요. πππ

A <보험료율>은 <보험료 총액 = 보험금 총액>처럼 총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보험료/개인의 보험금>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1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질문자는 <보험료/보험금>를 개별이 아닌, 총액으로 따진 듯하다.

3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2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3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4**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5**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6**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7**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3 보험 가입 정보의 비대칭성(문제점 & 해결 수단의 필요성)

- * 정보의 비대칭성: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보험 가입자 > 보험사)
- *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많아짐. →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 → 보험료 인상 불가피 →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4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2**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3**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4**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5**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4 보험 계약 시 고지 의무의 역할

- * 보험 계약 시 고지 의무: 다수의 사람들이 적절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줌.

3

6

- * <이러한 문제는~>이라고 문제 사항이 제시되면 이후에 이를 해결할 내용이 나올 것임을 예측해야 한다. 문단의 말미에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결책은 그다음 문단에 나올 것이다.
- * <~보다 더 많이 갖고~>처럼 비교형은 정/오답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에 물결무늬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 지문의 전반부인 **1~3** 문단까지 읽었을 때 <보험료-보험금>, <보험 가입자-보험사>라는 대립적 키워드를 뽑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초점을 두어 후반부를 읽어야 한다.

4

※ 지문 속 정보는 신정보와 구정보로 나눌 수 있다. 우선 **1**번 문장의 '고지 의무'나 **3**번 문장의 '중요한 사항'처럼, 신정보는 지문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개념어가 핵심 설명과 함께 나오는 정보를 말한다. 구정보는 **4**번 문장 '중요한 사항', **5**번 문장 '고지 의무'처럼 신정보가 재설명될 때의 정보를 말한다. 이때 신정보와 구정보 표시를 다르게 하여(신정보는 네모나 진한 동그라미 등) 신정보가 시작되는 경계를 시각적으로 구분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문제를 풀 때 지문 근거의 위치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5 1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2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3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4**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6**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7**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8**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9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10**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11**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5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과 그 제한

- * **고지 의무 위반:** 보험 가입자가 '중요한 사항'을 안 알리거나 or 다르게 알림.
- *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 위반을 했을 때 일방적 의사 표시 가능 → 보험금 지급 책임x, 지급했을 시 반환 청구○
- * **해지권 제한:**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
- * **고지 의무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 보험금 지급 의무○, 해지권 행사 가능

6 1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2**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6 고지 의무의 기능과 보험의 목적 달성

- * **보험의 고지 의무 기능:** 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검증 →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

5 * <달리>와 같이 한 문장 안에서 반대 맥락을 나타내는 말이 있다면 그 뒤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긴 문장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달리> 이전에 일반적인 법을 말하는 내용은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를 말하기 위한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10~11

- * <그러나~할 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반드시 해야 함.
- * <그렇지만~해지권 행사할 수 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 * <그러나, 그렇지만>과 같이 두 문장이 연속으로 <반대 접속어>로 첫머리를 시작하면, 문맥 파악에 혼란을 일으킨다. 이때에는 접속어를 생각하지 말고 문장의 사실만 하나하나 따져 보면 그만이다. <~할 때 보험금 지급 책임, 해지권 행사> 이 두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해지권을 사용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오판에 연속된 <반대 접속어>가 한몫했을 것이다.

최선의 Q&A

Q 해지권을 행사하면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해지권을 행사해서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고객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는 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지급한 보험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미 폐암이 시작된 고객이 이를 숨기고 암 보험과 치아 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치료와 치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탔다면 암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아 보험사는 폐암이라는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이 충치와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Q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에서 보험사는 계약 당시에 보험 가입자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거나, 알지 못해도 해지권이 배제된다는 말인가요?

A 계약 당시 보험 가입자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사가 알았으면, 보험사는 아예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인지 의도인지 계약을 진행했다면, 그 이후 나중에 보험사가 마음대로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해지권 배제)

계약 당시,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몰랐다면(이때는 가입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대로 안 알려 준 경우) 나중에 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01.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82위

#이해

정답률 82%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7%	③ 82%	④ 4%	⑤ 2%

✓ 정답 풀이

③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피고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2문단]
-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3문단]
-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4문단]
-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끝 문단]

↳ 지문의 주요 내용이 <공정한 보험>, <고지 의무>, <보험의 목적>과 관련된 것임을 통해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피고 있다.'는 선지 ③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4문단]

↳ 보험 계약에서 <보험 가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에 관한 것1) 있어도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②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규제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이 아닌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의무>를 살펴보는 것이다.

④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나열한 후 경제적 해결책과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의무>를 살펴보는 것이지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나열한 후 경제적 해결책과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다.

⑤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 언급된 법률 내용은 공정한 보험을 위한 것이지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02.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19위

#이해

정답률 73%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5%	③ 8%	④ 73%	⑤ 9%

✓ 정답 풀이

④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2)<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4문단]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1)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2)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해야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1)<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5문단]

↳ 보험 가입자의 승낙 없이도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1)

②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총액이 더 많아야 공정한 보험이 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1)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2문단]

↳ <공정한 보험>은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1)해야 한다.

③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1)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1문단]

↳ <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선지 ③은 적절하지 않다.

⑤ 우리 상법은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이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5문단]
-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2)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6문단]

↳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것1)은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2)이다.

03.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5위

#형목 후순위의 법칙 #보기 제시 #이해 #계산 #3점 #최협의 Q&A #최협의 조언 #비례 관계

정답률 29%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2%	② 19%	③ 17%	④ 23%	⑤ 29%

정답 풀이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

선지 ⑤는 중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

해석 1: <공동체 A의 구성원들끼리는 개개인의 보험료가 같음.> & <공동체 B의 구성원들끼리는 개개인의 보험료가 같음.> but → A의 구성원(철수)과 B의 구성원(영수)의 보험료가 서로 꼭 동일하다는 전제는 아님! + <공동체 A의 구성원들끼리는 개개인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같음.> & <공동체 B의 구성원들끼리는 개개인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같음.> but → A의 구성원(철수)과 B의 구성원(영수)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서로 꼭 동일하다는 전제는 아님.

해석 2: <공동체 A의 구성원들끼리는 개개인의 보험료가 같음.> & <공동체 B의 구성원들끼리는 개개인의 보험료가 같음.> and → A의 구성원(철수)과 B의 구성원(영수)의 보험료가 서로 꼭 동일해야 함! + <공동체 A의 구성원들끼리는 개개인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같음.> & <공동체 B의 구성원들끼리는 개개인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같음.> and → A의 구성원(철수)과 B의 구성원(영수)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서로 꼭 동일해야 함!

간단히 정리하자면, A와 B의 각각 개인의 동일성(보험료, 보험금)만을 따지느냐 A와 B의 각각 개인의 서로 같은 동일성(보험료, 보험금)까지도 따지느냐이다. 결론은 <해석 1>로 하든 <해석 2>로 하든 선지 ⑤가 정답이 되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다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것이다.

<해석 1> 기준, 간단한 풀이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따라서 1)<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2문단]

• <보기>

2)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3)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이 같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다.

↳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기1)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는 A와 B에서의2)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3)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1)

<해석 2> 기준, 복잡한 풀이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때 1)<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 발생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2)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따라서 3)<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2문단]

• <보기>

A와 B에 모두 4)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해법 POINT

- 1) 보험금 기댓값 = 사고 발생 확률 × 수령 보험금
→ 사고 발생 확률 = 보험금 기댓값 / 수령 보험금
- 2) 보험료율 = 보험료 / 보험금

3) 공정한 보험: 보험료율 = 사고 발생 확률
 → 보험료율 = 사고 발생 확률 = 보험료 / 보험금

☞ 보험금 기댓값 / 보험금 = 보험료 / 보험금 = 사고 발생 확률
 ☞ 보험금 기댓값 = 보험료

↳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3~4)되는 상황에서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도 서로 같다.

✓ 어휘 체크

- * 보험료: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내는 돈
- * 보험금: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
 ⇒ 즉 고객이 내는 돈은 '보험료', 고객이 받는 돈은 '보험금'!

최선의 조언

문법 영역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중의적 해석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이, 어쨌든 정확히 풀기만 하면 된다. 이왕이면 시간을 더 단축하는 방법으로 해야 효율적이다. 3점짜리 문제라고 꼭 어려운 것은 아니다. 수험생이 지문을 보는 능력과 문제를 풀어내는 기술에 따라 단순 일치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 봐야 계산식 3개를 꼼꼼히 따져 보는 문제인 걸... 그러나 실전에서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덜렁대고 실수하게 된다. 침착~침착하자! 이런 심리적인 습관도 학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과학·기술 지문이 아니라라도 지문에서 비례나 수식 관계가 나올 수 있다.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시험지의 여백을 활용하여 한눈에 보기 좋게 메모해 두어야 유용하다. 메모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지문 자체에 적절한 표시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문제와 같이 내용이 많을 때는 따로 메모를 해 두어야 정확하게 정답을 찾기 쉽다. 3점짜리 문제이므로 꼭 맞추겠다는 집념과 집중력으로 정답을 제대로 찾아야 시간을 투자해서 메모한 보람이 있다. 길이가 길고 정보량이 많은 지문을 읽다 보면 멘탈이 붕괴되기 딱 좋지만 막상 정리해 보면 별것 없다. 선지에 언급된 항목으로 계산식 3개를 꼼꼼히 따져 보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대하자.

X 오답 풀이

-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변하지 않는다.
-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두 배가 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 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1)<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2)<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 발생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2문단] → (<보험금 기댓값>과 <보험금>은 정비례)

↳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하므로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도 두 배가 된다. 이때 <보험금>에 정비례하는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도 높아지게 된다. 2) 또는 정답 선지 ⑤의 정리된 결론 <보험금 기댓값> = <보험료>에 따라, <보험료>가 두 배가 되면 <보험금 기댓값>도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선지 ①은 적절하지 않다.

↳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도 두 배가 되며 <보험금>에 정비례하는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도 두 배로 높아지게 된다. 2) 따라서 선지 ②는 적절하지 않다.

패턴 공략

★지문에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선지의 정/오 판단에 활용되니 잘 정리해 두자.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1)<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2문단]
- <보기>
 2)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 지문 POINT

※ 공정한 보험: 보험료율 = 사고 발생 확률

↳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하는데 1) A, B는 <사고 발생 확률>이 서로 다르므로 2) <보험료율>이 같을 수 없다.

④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따라서 2)<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2문단]
- <보기>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 지문 POINT

- 1) 보험료율 = 보험료/보험금
- 2) 공정한 보험: 보험료율 = 사고 발생 확률
- ☞ 보험료율 = 사고 발생 확률 = 보험료/보험금

↳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사고 발생 확률> = <보험료율>이 된다. 1) B의 사고 발생 확률(0.2)이 A의 사고 발생 확률(0.1)의 두 배이기 때문에 2) B에서의 <보험료>가 A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가 된다.

최선의 Q&A

Q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같다고 한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보기에서도 동일한 공동체의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이 같다고 했으니까 A와 B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와 B에서의 보험료도 같은 게 아닌가요?

A <보험료 총액 = 보험금 총액>인 것이지 구성원 개인이 내는 보험금과 보험료로 대입해서 보면 안 된다.

★ 1항목 후순위의 법칙 ★

(자세한 내용 9쪽 참고)

* 선지 ①, ②가 각각 A 혹은 B 1개만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이 경우 다른 선지보다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를 고려하여 항목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 선지 ③~⑤를 먼저 더욱 집중해서 보는 것이 정답을 조금이라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04.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03위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68%	① 68%	② 6%	③ 8%	④ 6%	⑤ 12%

✓ 정답 풀이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1)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5문단]

↳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하는 것이지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②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여기서 (고지 의무) '중요한 사항'은 1)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4문단]

↳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③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1)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3문단]

• 2)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끝 문단]

↳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파악 및 검증하기, 2) 때문에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④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1)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3문단]

•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2)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4문단]

↳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1)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2)이다.

✓ 어휘 체크

* 비대칭성: 양쪽이 동일(공평)하지 않음을 비유.

⑤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1)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4문단]

↳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1)하는 효과가 있다.

05.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74위

#최샘의 Q&A #헛갈림 주의 #상식적 판단 #출제자의 함정

정답률 61%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0%	② 6%	③ 17%	④ 61%	⑤ 6%

정답 풀이

④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러나 1)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5문단]

↳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기1) 때문에,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보험사인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최샘의 Q&A

Q 보험 지문을 왜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것이죠?

지문: 구성원의 보험금 총액 = 보험료 총액
문제: 구성원끼리 납부하는 보험료 = 지급받는 보험금
이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하면 <구성원의 보험금 = 보험료>도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A 대충대충 파악하면 그렇게 성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2문단 첫째 줄의 지문을 살펴보면,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그렇다 위 질문을 한 수험생은 <사고 발생 확률>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리한 것이다. 보험료를 매월 꼬박꼬박 냈더라도 사고가 안 일어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이 교재를 보는 수험생들도 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냐고 질문하기 전에 지문을 다시 꼼꼼히 살펴봐라. 답은 분명 지문 안에 있다

X 오답 풀이

①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2)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5문단]

↳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으려면 <해지를 해야> 하는데1)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인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2)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1등급 가이드

◆ 헛갈림 주의!

A(보험사)가 과실이 있는 경우. → 보험사의 해지권 배제(<해지권>은 보험사만 관련)

B(보험 가입자-고객)의 과실이 아님!

◆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됨!

① 계약 체결 당시 1)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2)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 보험사가 잘못했는데1)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2)(x)

②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A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5문단]

↳ A에게 중대 과실이 없다면 A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B와의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③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2)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5문단]

㉓ 지문 POINT

두 요소의 관계 파악이 관건!

〈A: 중대한 과실〉

〈B: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

↳ 보험금을 돌려받으려면 〈해지를 해야〉 하는데1)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인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보험 가입자인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2) 그래서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1등급 가이드

★출제자의 함정!

☞ 출제자는 〈A에게 중대한 과실〉과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이 서로 대립적인 요소인 듯 설정했는데, 실제로는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을 몰랐다는 자체가 A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A: 중대한 과실〉 = 〈B: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 위반〉을 모름
그래서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의 내용은 빼놓고 선지의 적절함을 판단할 수 있다.

⑤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㉔ 지문 속근거 찾기

- 1)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5문단]

↳ 〈고지 의무 위반〉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성립되는 것으로1) 보험 사고 발생 즉시 고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1등급 가이드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됨!

〈고지 의무 위반〉을 이미 한 것으로 전제하는데 '~다면' 〈고지 의무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선지 자체의 오류에 해당한다. 마치 무단 횡단을 하고 차가 하나도 안 다니므로 무단 횡단을 한 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논리랑 똑같다.

예문

06~09 사단 법인의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론

1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2**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3** 그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4**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5**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6**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7**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8** 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법인이라 부른다. **9**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10**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11** 그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 사원 개인에게까지 ㉡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1 사단과 법인격의 개념

- * 권리 능력: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 태어나면서 저절로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함.
- * 법인격: 법으로써 부여되는 단체의 권리 능력
- * 사단: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
-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함.
-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함.
- * 사단 법인: 법인격을 가진 사단
→ 사단의 문제는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음.

2 1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2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3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5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6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7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8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2 주식회사의 특징과 일인 주식회사의 문제점

- * 주식회사: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 지분을 소유한 주주들로 구성
- * 일인 주주 회사: 사단성× + 법인○
→ 경영의 주체(개인? 회사?) 모호

1

1 * 개념 설명이라도 익숙하거나 쉬운 것은 밑줄 없이 패스

3

어휘 체크

* 채권: 재산권의 하나.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채무: 재산권의 하나. 특정인(채무자)이 다른 특정인(채권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

4

* <설명+개념어>의 형태로, 흔한 <개념어+설명>보다는 인지가 잘 안 되니 개념어에 동그라미나 네모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다. (5~6도 마찬가지)

8~9

* '반면에'처럼 역주행 전후로 개념(사단 법인 ↔ 법인이 아닌 사단)이 나열되어 있다면, 문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6번 문제의 정답 판단 근거!)

10

* '사람과 법인만이'처럼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는 '오직(only)'의 의미가 있는 내용은 문제화되기 좋다.

11

* 부정적 서술은 간결하게 밑줄× 표시 추천. (개인에게까지 책임×)

2

2

* <주식회사=주주들>처럼 대상과 요소를 같은 맥락으로 묶어 주는 것은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4

* '사단성 無'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전후 맥락으로 '사단성 有'에 대한 비교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1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2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3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4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5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6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7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8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①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9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10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3 법인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법인격 부인론

- * **일인 주주 회사의 법인 제도 남용:**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함.
- * **법인격 부인론:**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함.

3

1, 7

* <~문제가 일어난다.(발생하기도 한다.)>처럼 문제를 제기했으면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비문학 지문에서 <문제+해결>은 반드시 짝을 지어 나오는 서술 방식임을 알아 두자.

5~7

* <그런데~+심한 경우에는~+이처럼~>과 같이 <전환+보충+정리>의 구성이라면, 당연히 정리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9

* <법률 vs 법원>과 같이 비슷한 용어의 주체가 대립 맥락(~지만)을 가질 때 혼동되지 않게 주의하자.

최선의 조언

문맥의 큰 흐름을 먼저 파악하자!

1 문단: 반면에, 2 문단: 그런데, 3 문단: 그런데'처럼 각 문단은 역주행의 큰 흐름이 한 번씩 나타난다. 이 흐름만 파악해도 지문 전체의 구조 파악은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다. 각각이 둘로 쪼개진다면 상대적인 포인트는 역주행 이후에 있다. 당연히 정답과 관련된 판단 근거도 이곳에 많다는 말이다.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문맥의 큰 흐름을 항상 부여잡고 가자.

예문

06.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8위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44%	① 6%	② 17%	③ 20%	④ 13%	⑤ 44%

정답 풀이

⑤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사단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법인격> 취득 제도) 단체 중에는 2)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3)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4)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1문단]

↳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는 '사단'이 아니라, <법인격>이다. 1) <사단>은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2)이다.

<사단>은 <법인 사단>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구분3)되는데,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법인격>)>는 것은 <법인 사단>에만 해당4)하므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준다(<법인격>)>는 것을 사단 전체의 특성으로 서술한 선지 ⑤는 어떤 관점으로 보아도 적절하지 않다.

※ ~제도가 사단? = 사단은 ~제도? (×)
→ 사단은 <~제도>가 아니라, <단체>이다.

☞ 해설을 길게 풀어 놓았지만 살펴보면 그 핵심은 아주 간단하다. <사단>은 <제도>가 아니라 <단체>이다. 그런데도 정답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을 보면, 그 간단한 핵심을 제대로 못 찾았거나 찾았더라도 그 핵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다른 근거에 헤매다가 결국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경우이다. 실전에서 정답의 정확한 근거를 꼼꼼히 찾아보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 행위를 할 때 최소한의 시간만 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근거로 정답을 확신하여 문제를 풀어야만 경쟁력이 생긴다.

오답 풀이

①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1)'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2)'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1문단]

↳ <사단성>을 갖춘 단체2)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1)

패턴 공략

▶ 지문: A하는 것은 B이다. → 적절 선지: B는 A한다.

②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1문단]
• 2)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3)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2문단]

↳ 주식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2)으로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기3) 때문에 그 구성원(주주)은 사단의 '사원'1)에 해당한다.

③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1)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2)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사람과 3)'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1문단]

↳ '법인'은 <권리 능력>을 가지며3), 이 <권리 능력>이 있으면1)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2)

지문 POINT

▶ A하면 B하다. +C는 A하다. → 적절 선지: C는 B하다.

최심의 Q&A

Q 1문단에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고 했으면서 왜 ③번 선지가 맞는 것이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는 권리 능력 아닌가요?

A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는 말이 사람만이 권리 능력을 갖고 법인격은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법인'도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고3) 이에 따라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2)

④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1)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2)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1문단]

↳ <법인격>을 가진 사단인 '사단 법인'도 결국 <사단>으로서의 특징을 가지므로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1)

📌 지문 POINT

▶ A하는 것은 B이다. + C는 B이다. → 적절 선자: C는 A하다.

07.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3위

#공통 선지의 법적 #이해 #최선의 조언

정답률 26%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6%	② 37%	③ 13%	④ 18%	⑤ 6%	

✓ 정답 풀이

① 대표 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런 1)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2)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2문단]

↳ 주식회사에서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고1) 이 <대표 이사>가 회사를 대표2)하는 것을 통해 대표 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최선의 조언

이 문제는 풀이 과정에 비해 왜 이렇게 오답률이 tap일까? 곰곰이 생각하다 내린 결론은 <상식적인 판단의 개입>! '대표 이사는 사람인데 기관은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다?!'라는 상식적 판단으로 ①을 걸러 낸 수험생들이 이후 선지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상식>으로 선지를 정답 혹은 오답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대부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의 문제에 해당한다. 위 문제와 같이 <무엇보다도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판단해야 하는>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최선 긍정형 발문> 문제에서는 자신의 상식은 잠시 내려 두고 철저하게 지문의 내용을 조합해야만 한다. 정답과 오답의 근거는 자신의 머릿속이 아니라 지문에 있다는 기본 원칙을 잊지 말자.

✗ 오답 풀이

② 일인 주식회사는 대표 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2) 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 [1문단]

↳ <법인격>은 단체의 개념인 '사단'1)이 법인으로登記되어야 생기는 것2)이기 때문에 개인인 <대표 이사>가 법인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인 주식회사>가 법인격을 갖는 것이다.

③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3문단]

↳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곳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 총회>이다.

📌 지문 POINT

▶ 지문: A하는 것은 B이다. → 부적절 선자: A하는 것은 C이다.

④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총회가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상법상 회사는 이사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3문단]

↳ 주식회사는 상법상 회사이므로 업무 집행의 의결은 '주주 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1)

📌 지문 POINT

▶ 지문: A하는 것은 B이다. → 부적절 선자: A하는 것은 C이다.

⑤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일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없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2문단]

↳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일인 주주의 <일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있다.

📖 지문 POINT

▶ 지문: A는 B할 수 있다. → 부적절 선지: A는 B할 수 없다.

★ 공통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위 문제의 선지 ①, ②에 대표 이사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다.

- ① 대표 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정답)
- ② 일인 주식회사는 대표 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그래서 지문 및 문제와 상관없이 ①, ②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08.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54위

#문맥상 의미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56%	① 6%	② 4%	③ 9%	④ 25%	⑤ 56%

✓ 정답 풀이

⑤ ㉔: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된 상태

🔍 지문 속 근거 찾기

-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1<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1문단]
→ (<법인격> 취득을 통해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음.)
-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2<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㉔<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3문단]

▶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어 회사의 자산이 감소할 수 있지만 <권리 능력>의 여부는 <법인격> 취득 유무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취득한 <법인격>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권리 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어휘 체크

* 허울: 실속이 없는 겉모양.

✗ 오답 풀이

① ㉔: 법인에 속해 있지만 법인격과는 구별되는 존재

🔍 지문 속 근거 찾기

- 1)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2)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㉔<사원 개인에게까지 ㉔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1문단]

▶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기 때문에 ㉔<사원 개인>은 법인에 속해 있지만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법인격과는 구별되는 존재이다.

② ㉔: 사단이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

🔍 지문 속 근거 찾기

-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1)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2)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㉔<사원 개인에게까지 ㉔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1문단]

▶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되며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㉔<책임>도 사단이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에 해당한다. 즉 사원 개인은 사단이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

③ ㉔: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

🔍 지문 속 근거 찾기

- 단체 중에는 1)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1문단]
-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2)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㉔<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2문단]

▶ <사단>의 의미 중에서는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 ㉔은 적절한 이해이다. ㉔<사단성>이 포함된 문맥은 여러 사람이 결합된 형태가 아닌, 한 사람의 회사)이기 때문에 사단성이 없다는 것이다.

④ ㉔: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지 않는 경영

🔍 지문 속 근거 찾기

- 단체 중에는 1)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2)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1문단]
-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㉔<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2문단]

▶ <법인격>을 가지려면 여러 사람들이 결합한 조직체)인 사단이 법인으로登記)되어야 한다. 하지만 ㉔<개인 사업자의 영업>은 일인 조직체(→ 일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지 않는 경영에 해당한다.

09.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5위

#3점

정답률 43%	선지별 선택 비율				
	① 9%	② 17%	③ 7%	④ 24%	⑤ 43%

정답 풀이

⑤ 특정한 거래 관계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1)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2)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①'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3)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4)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 특정한 거래 관계에 ①<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①<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지배되어 적법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책임을 <회사>에만 떠넘기는 잘못된 사태4)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져야 할 책임을 회사와 동일시2) 하는 일인 주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오답 풀이

①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1)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일인)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①'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가 아닌, 주주 한 사람1)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①<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①<법인격 부인론>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기3) 때문에 당연히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패턴 공략

▶ 지문: A는 B하지 않다. → 부정적 선지: A는 B하다.

③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 그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①<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 그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제한할 것이다.1)

④ 법원이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대표 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1)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①'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 ①<법인격 부인론>은 법원이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1)하는 것이다.

커뮤니티 후기

스터디200

<사단 법인의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론> 지문이 쉬워서 바로 문제 풀었는데... 첫 번째 문제만 맞고 싹 틀림. ㅋㅋㅋ 제가 오늘 컨디션이 비정상인 줄 알았는데, 정상이었군요.

(2018. 08. 13.)

↳ 그래서 어려운 지문이긴 하죠 ㅋㅋ

- collegeofdentistry -

↳ 잉 그거 쉬운데 꿀잼 지문 ㅋㅋㅋ 선지가 헛갈려서 그렇지 차분히 풀어 보셈. ㅋㅋ

- 18버리고19연대철학 -



최쌤의 코멘트

<사단 법인의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론> 지문은 정말 쉬워 보이는 듯하다. 지문의 길어도 적당하고 정보량도 다른 킬러 지문에 비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1문단부터 개념들이 쏟아지고, 전체 지문이 달랑 3문단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문단 자체 내에서의 흐름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그리고 문제가 지문에 비해 좀 헛갈리게 출제된 편이라 전반적인 정답률도 매우 낮은 편이다. 지문이 쉽다는 생각이 들면 문제는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평소보다 선지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10~13 지식 경영론

1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2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에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1 지식 경영의 소개
* 지식 경영: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

2 1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2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3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 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다. 4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5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6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2 지식 경영론에 활용되는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과 그 특징
* 폴라니의 암묵지: 명확한 표현X, 체화된 지식
→ 모든 지식이 구체적 현실과 연관

1

1 * '현대 사회에서~'라는 두 어절이 눈에 포착되는 순간, 사회 지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인문 및 철학 지문은 인물이 글 구성 및 전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 지문은 그 정도가 덜하다. → 이번 지문에서 폴라니와 노나가 이쿠지로가 나오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개념이 암묵지와 명시지로 확연히 구별되어 인물 명의 구분이 별 의미가 없다.)

2

* 지식 경영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 있지만 크게 새로운 것이 없는 일반적 정보이므로 피정의항인 주체(지식 경영) 정도에만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고 쓱~ 넘어간다. (☆전략적 독해에서 밑줄이나 메모 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이를 최소화하여 핵심 내용을 파악해 우선순위를 골라내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메모 습관은 곧 독해 실력으로도 연결된다.)

2

1

* 사회 지문에서는 인물 명보다는 개념의 명칭에 관심을 두자. 개념에 대한 동그라미 표시는 (1-2 문장처럼) 그 정의나 특성이 서술되어 있는 문장에 하는 것이 좋다.

2

* 대상에 대한 부정형 서술은 밑줄X 표시로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다. (명확X)

3

* <부정+부정=긍정> 표현에 주의하자. <구체적 현실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다> = <구체적 현실과 밀접하다.>

5

* '요컨대'는 수험생이 매우 반가워해야 할 표지이다. 왜냐하면 이번 문단에서 글의 흐름과 핵심을 못 잡았을지라도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알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적절한 표시를 해 두고 이 안에서 키워드(모든 지식+암묵적 요소)를 잡기 위해 애써야 한다. 이 키워드는 다음 문장에서 반복되어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

6

* '~강조한다'를 통해 이전 내용의 포인트를 또 한 번 거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가 있었던 이전 문단까지도 포인트를 못 잡은 수험생들을 위해 글쓰이는 한 번 더 전달하고 강조하는 것이다. 다만, 이전 문장에서 포인트와 키워드를 잡았다면 이렇게 재차 강조하는 문장은 그냥 넘겨야 한다. (☆실전에서는 단 1초의 시간이라도 아끼고 집중력의 에너지를 절약해 킬러 문제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3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플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2** 그는 플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3**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3 노나카에 의해 파악된 암묵지와 명시지의 개념과 성격
 * 노나카의 명시지: 객관적, 논리적, 형식화된 지식, 공유 가능성 ↑
 ↳ 암묵지: 주관적 지식

4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2**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3**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 한다. **4**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5**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지식 변환 과정의 네 가지 유형 & 기업 조직 구조 혁신의 필요성
 * 공동화: 대면 접촉 →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 →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
 * 표출화: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암묵지 → 명시지)
 * 연결화: 명시지들 결합 → 새로운 명시지 형성
 * 내면화: 명시지가 암묵지로 전환(by 숙련된 노력)

5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2**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3**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4** 따라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5 지식 공유의 어려움 & 지식 경영의 성패 결정 요인
 * 지식 경영의 성공: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by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

3
2~3
 * 확연히 대조적인 키워드 (주관적), (객관적)이 지문 전체의 한 축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문제도 이 양상의 대결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4
1
 * '~네 가지로 유형화'? 그렇다면 각각의 유형의 명칭과 설명이 나올 때 마다 표시할 준비를 해야 한다. 당연히 이 구분이 문제화되지 않으면 섭섭할 것이고!
2~5
 * 개념 자체가 어려운 말이 아니라면, 서술 내용도 크게 전문적이지 않다. 이 경우 서술 내용 모두에 밑줄을 긋는 것보다 키워드를 골라 밑줄을 긋는 것이 좋다.

5
 ※ 신정보가 없거나 어렵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하지만', '따라서'와 같이 문맥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 정도는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문단의 흐름 파악에 효율적이다.

10.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61위

#내용 전개 #실전 풀이 Tip

정답률 8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	② 5%	③ 80%	④ 9%	⑤ 3%

정답 풀이

- ③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1)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이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1문단]
- 2)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2문단]
- 3) 노나가 이쿠지로의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3문단]
- 4)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4문단]
- 5)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5문단]

- ↳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1~3)하고 지식 경영의 성패(5)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지식 경영론의 등장 배경을 탐색하고 있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1)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1문단]

- ↳ 지식 경영론의 등장 배경(1)을 탐색하고 있으나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따른 지식 변환의 단계를 설명하고 지식 경영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1)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끝 문단]

- ↳ 지식 경영론의 문제점(1)을 살펴보고 있으나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따른 지식 변환의 단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지식에 대한 견해의 변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비되는 지식 경영론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 지식에 대한 두 학자의 견해(2~4문단)를 순차적으로 살펴본 것은 있어도 지식에 대한 견해의 변화 과정은 지문에 없다.

- ⑤ 지식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 경영의 유용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 ↳ 지식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지식 경영의 유용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는 것은 없다.

TIP 실전 풀이

내용 전개 문제는 끝 문단에 주목하라

지문의 끝 문단은 처음-중간의 내용을 정리 및 요약한다. 이를 통해 대부분 글의 전개 방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 지문 전체를 검토할 수 없을 때, 혹은 지문을 모두 검토해도 정답의 근거가 잘 안 보일 때 끝 문단에서, 특히나 첫 문장 혹은 끝 문장에 주목하라! 이 부분과 대응성이 높은 선지가 내용 전개 문제의 답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2016 수능 B형) 전개 방식 문제 · 1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끝 문단]

- ③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정답)

(2016 수능 A형) 전개 방식 문제 · 2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끝 문단 끝 문장]

- ⑤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답)

11.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44위

#비교 선지의 범칙 #내용 일치

정답률 9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	② 3%	③ 90%	④ 3%	⑤ 1%

정답 풀이

- ③ 노나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1)이것(명시지)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3문단]

↳ 지식의 공유 가능성은 <명시지>가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1)

패턴 공략

▶ 지문: A는 B보다 우월하다. → 부적절 선지: B는 A보다 우월하다.

오답 풀이

① 폴라니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지문 속근거 찾기

•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1)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2문단]

↳ <폴라니>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② 폴라니는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고 본다.

지문 속근거 찾기

•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1)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2문단]

↳ <폴라니>는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1)고 본다.

④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은 지식이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문 속근거 찾기

•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1)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문단]

↳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은 지식이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재설계되어야 한다1)고 본다.

⑤ 폴라니는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나카는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에 주목한다.

지문 속근거 찾기

•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1)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2문단]

•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2)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4문단]

↳ <폴라니>는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1)을 강조하고, <노나카>는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2)에 주목한다.

★ 비교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비교형 선지는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③ 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 (암묵지 vs 명시지)

12.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89위

#사례 #객관적 vs 주관적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3%	① 4%	② 3%	③ 83%	④ 3%	⑤ 7%

정답 풀이

③ C사의 직원이 경쟁 기업의 터치스크린 매뉴얼들을 보고 제품을 실제로 반복 사용하여 감각적 지식을 획득한 것은 '내면화'의 사례이다.

지문 속근거 찾기

• 그는 폴라니의 1)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또한 2)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3문단]

• 3)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4문단]

지문 POINT

※ 암묵지(주관적- '감각적 지식') vs 명시지(객관적- '매뉴얼')

↳ 터치스크린 매뉴얼 자체는 터치스크린 사용 방법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기에 <명시지>에 해당한다.2) 이를 보고 제품을 실제로 반복 사용하여 감각적 지식인 <암묵지>1)를 획득한 것은 <명시지>가 숙련된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된 것3)이기에 터치스크린 매뉴얼의 <내면화>라 볼 수 있다.3)

바탕 지식 더하기

※ 객관적 vs 주관적 (자주 출제되는 요소)

- 객관적: 있는 그대로, 누가 보아도 동일한 사실.
- 주관적: 개인의 생각, 감정 등이 반영.

✕ 오답 풀이

① A사의 직원이 자사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과 계속 접촉하여 소비자들의 느낌을 포착해 낸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1)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4문단]

↳ A사의 직원이 자사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과 계속 '접촉'하여 소비자들의 느낌을 포착해 낸 것은 <공동화>이다.1)

② B사가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기술들을 부문별로 재분류하고 이를 결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한 것은 '표출화'의 사례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 1)〈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4문단]

🔍 지문 POINT

※ 암묵지(주관적) vs 명시지(객관적 - '신기술')

↳ B사가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기술들을 부문별로 재분류하고 이를 결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한 것은 <연결화>이다.1)

④ D사가 교재로 항공기 조종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조종술에 능숙하게 된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4문단]

🔍 지문 POINT

※ 암묵지(주관적 - '능숙함') vs 명시지(객관적 - '교재')

↳ D사가 교재(명시지)로 항공기 조종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조종술에 능숙하게(암묵지) 된 것은 <내면화>이다.1)

⑤ E사의 직원이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들에 동물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하고 장수하늘소의 몸체가 연상되는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한 것은 '공동화'의 사례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1)암묵적 요소 중 2)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 한다. [4문단]

🔍 지문 POINT

※ 암묵지(주관적 - '감지함') vs 명시지(객관적 - '디자인 완성')

↳ E사의 직원이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들에 동물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하고1) 장수하늘소의 몸체가 연상되는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한 것은 <표출화>이다.2)

🔍 패턴 공략

▶ 지문: A, B, C이다. → 부적절 선지: A, B, D이다.

13.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61위

#보기-선지의 법칙 #3점 #보기 제시 #문제 해결

정답률
8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	② 80%	③ 5%	④ 9%	⑤ 3%
------	-------	------	------	------

✓ 정답 풀이

② 직원들이 회사에서 사용할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을 제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할 필요가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보고서와 제안서 등의 가시적인 지식 → (명시지)의 산출에 대해서는 보상했지만, 1)경험적 지식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무형의 지식 → (암묵지)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도는 갖추지 않았다. 그 결과, 2)유용성이 낮은 제안서가 양산되었고,~

• 그는 플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3문단]

🔍 지문 POINT

※ 암묵지(주관적 - '무형의 지식') vs 명시지(객관적 - '가시적인 지식')

↳ <보기>에 나타난 F사의 문제2)는 <암묵지>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도를 갖추지 않아서이다.1)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묵지>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선지 ②는 <암묵지>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 제안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1)보고서와 제안서 등의 가시적인 지식 → ('명시지')의 산출에 대해서는 보상이지만, 2)경험적 지식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무형의 지식 → ('암묵지')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도는 갖추지 않았다.

🗨 지문 POINT

※ 암묵지(주관적-‘아이디어’) vs 명시지(객관적-‘문서 형태’)

↳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 제안 방식을 마련하면, <암묵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다.

③ 숙련된 직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면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집단적 업무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선지 ①의 근거 지문 참고]

🗨 지문 POINT

※ 암묵지(주관적-‘노하우’) vs 명시지(객관적-‘가시적인 지식’)

↳ 숙련된 직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면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집단적 업무 역량을 키우면, <암묵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다.

④ 직원들의 체화된 무형의 지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헌신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선지 ①의 근거 지문 참고]

🗨 지문 POINT

※ 암묵지(주관적-‘무형의 지식’) vs 명시지(객관적-‘가시적인 지식’)

↳ 직원들의 체화된 무형의 지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헌신성을 높일 경우, <암묵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다.

⑤ 직원들 각자가 지닌 업무 경험과 기능을 존중하고 유·무형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 문화와 동기 부여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선지 ①의 근거 지문 참고]

🗨 지문 POINT

※ 암묵지(주관적-‘무형의 지식’) vs 명시지(객관적-‘가시적인 지식’)

↳ 직원들 각자가 지닌 업무 경험과 기능을 존중하고 유·무형의 노력과 능력1, 2)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 문화와 동기 부여 시스템을 발전시킨다면, <암묵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다.

★ 보기-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8쪽 참고)

* 보기-선지의 대응성만으로 정답이 될 확률은 매우 높다.

<보기>의 핵심: 무형성(≠ 비형식) 중요시

선지 ②: 형식화만 언급 (☆정답)

지문 난이도 ★★★

2016학년도 수능 A형 27~29 / B형 25~27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28위

01 ~ 03 부관의 법률적 효력

1 1번문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2**“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3**P는 이를 받아들였다. **4**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5**P는 주장하였다. **6**“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7**E도 맞섰다. **8**“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프로타고라스(P)와 에우아틀로스(E) 사이의 수강료 분쟁

* E가 처음 승소하면 P에게 수강료를 지불하겠다고 함. but E는 소송 자체를 안 함. 그래서 P가 E를 상대로 소송함.

	P의 주장	E의 주장
승소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음.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됨.
패소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받음.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됨.

2 1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2**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3**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4**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5**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6**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7**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부른다.

2 계약의 부관인 '기한'과 '조건'

- * 부관: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임.
 - 기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
 - 조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
 - 정지 조건: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
 - 해제 조건: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소멸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 1**
- * 문장 성분의 순서가 바뀌면 오독에 주의하라! 객체(P)가 주체(E)보다 먼저 나와 있어 혼동하기 쉬우니 주체-객체를 정확히 구별해 놓자. E가 P에게 제안하는 것이다. (P가 E에게 제안하는 것이 아님.)
 - * 첫 문단 첫 문장부터 사례가 제시된다면, 이는 관련 화제가 어려울 것임을 암시한다. 사례 자체는 슬쩍 읽더라도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2, 6, 8

- * 한 문단 안에서만 인칭 대명사가 3회 나온다. 이를 혼동하면 독해의 전체 흐름에 지장이 크니 꼭 정리를 해 둔다. 정리를 귀찮아하거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자. 대충 보고 틀리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

4

- * '그런데', '그러나(하지만)' 등 전환 및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면 주의가 필요하므로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절하다.

[**2**-6, **4**-4, **5**-3도 마찬가지로]

- * 첫 문단은 전체가 사례로, 드문 구성 형태이다. 그러나 사례는 사례일 뿐, **2** 문단부터 나오게 될, 본 화제와 관련된 핵심만 제대로 이해하면 지문 전체의 흐름과 주제 파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즉 첫 독해 시 사례는 슬쩍 읽어도 충분하다는 말.

2

4

- * '이처럼', '이',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 가는 지시 대명사(이~, 그~)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1**-4, **3**-2, **4**-2, **5**-2, 7도 마찬가지로]

5~6

- * <장래에 확실히 발생> = <발생 확률 100%인 사실>
- *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 <장래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 * 개념의 설명이 비슷(→ 수험생에게 혼란)하면서도 (반면)과 같이 다른 (혹은 반대)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와 관련된 선지의 정/오 판단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

5~7

- *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어려운 용어(기한, 조건~)는 아니지만, 문맥적 의미와 정의는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기 때문에 용어와 설명에 동그라미와 밑줄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개념과 그 설명은 하나하나가 핵심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 많더라도 일일이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3 1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2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3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4**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5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6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확정 판결이 갖는 '기판력'

* 기판력 인정: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 혹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됨. → 더 이상 같은 소송으로 다룰 불가

4 1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2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3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4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5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4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 확정 판결 이후라도 재소송 허용

5 1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2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3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4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5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6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7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5 프로타고라스(P)와 에우아틀로스(E) 사이의 분쟁 해결

* 첫 번째 소송: 조건의 성취× → E가 승소
* 두 번째 소송: 조건의 실현 → P가 승소
* P와 E의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거치면 해결 가능함.

3

4~5

* <일반적 진술 + 구체적 예시 보충>의 조합일 경우 첫 독해 시, <일반적 진술이 어렵지 않다면 예시 내용은 슬쩍 보거나 건너뛰어도 좋다. 전체 맥락 파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예시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집착할 필요는 없다. 필요하다면, 첫 독해를 마친 뒤 문제 풀이 때 다시 봐도 늦지 않다. (그때 보면 이해가 잘 되는 경우도 많음.) (단, 일반적 진술을 예시로 바로 풀어 쓴 지문은 바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함.)

[4-3~5도 마찬가지로]

4

1

* 이전 문단의 핵심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 갔을 때? ⇒ 다음 문단의 첫 문장을 통해 이전 문단의 핵심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소송 허용○>를 놓고 본다면 이전 문단은 <새로운 사정이 없다면 소송 허용×>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출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문제화할 수 있는 옵션이 마련된다.

- <새로운 사정>이 될 수 있는 것
- <새로운 사정>의 유/무
- <소송 허용> ○/×

☞ 지문을 읽다가 '어,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문제화할 옵션이 있을 수 있겠군.' 하는 생각이 든다면... 더욱 집중하고 키워드 찾기에 집착해야 한다.

5

3(결과) + 4(원인), 4(원인) + 5(결과)

*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 과연 누가 이겼지? 대부분의 수험생이 끝 문단을 읽으면서 갖는 의문이다. 하지만 누가 이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 이기고 졌는지 그 과정과 이유를 제시된 개념과 연결시켜 보고 이해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최שמ의 Q&A

Q 마지막 단락 승소 결과랑 그 전 단락들의 관계를 모르겠어요. 조건이 어디 들어가고 기판력이 무슨 상관인지...

A 3 문단에서 기판력의 개념과 적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4 문단에서는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나온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1 문단에 제시된 <조건(E가 첫 소송에서 이김)>이 성취되지 않음>이 충족되어 새롭게 소송(4 문단의 기판력 예외 상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이다. 즉 끝 문단은 4 문단의 핵심인 기판력 예외 상황을 나타낸다.

01.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87위

#전체 이해

정답률 65%	선지별 선택 비율				
	① 65%	② 8%	③ 10%	④ 13%	⑤ 4%

정답 풀이

①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1)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2문단]

↳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를 못해서 수강료를 못내는 경우도 있다. 이는 승소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승소는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에 대한 <기한>이라 할 수 없다.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 안 일어날 수도 있음.)
 이기에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조건>이다. 1)

오답 풀이

②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1)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2)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2문단]

↳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1, 2)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확실히 발생할 사실'이든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이든 '장래의 사실에 의존'한다는 것은 옳은 표현이다.

③ 계약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리고 1)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2)소멸시키면 3)'해제 조건'이라 부른다. [2문단]

↳ 계약에 '해제 조건'3)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1)를 소멸시킬2) 수 있다.

④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민사 소송에서 1)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2)<기판력>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3문단]

↳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1~2)

⑤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3문단]

↳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기1) 때문에 <기판력>에는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패턴 공략

♣ 비문학 일치-불일치 유형 발문별 난이도
 (윗글을 통해 바르게 추론한 것은?) ≥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윗글과 일치하는 것은?)

02.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03위

#추론 #품이 시간 오래 걸림 #최생의 조언

정답률 68%	선지별 선택 비율				
	① 9%	② 9%	③ 68%	④ 9%	⑤ 5%

정답 풀이

③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1)"제(E)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2)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3)P는 주장하였다. "내(P)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4)내(P)가 지면 자네(E)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E)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E)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문단]

• 5)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6)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7)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끝 문단]

↳ 첫 번째 소송(P가 E를 상대로 소송)에서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3) 그런데 첫 번째 소송에서는 '조건'1, 4)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릴 것이다.5) 이제는 E가 처음으로 승소했으니 '조건'1, 4)이 성취된 셈이다.7) 그래서 P는 수강료를 받기1, 4) 위해 두 번째 소송을 할 것이다.6) 따라서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X 오답 풀이

①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1)“제(E)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2)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3)P는 주장하였다. “내(P)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P)가 지면 자네(E)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4)E도 맞섰다. “제(E)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E)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문단]

↳ 계약1)이 유효하다면, E가 승소한 적이 없으므로 수강료를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소송에서2) 수강료를 받으려는 P3)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수강료를 내지 않으려는 E4)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②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1)“제(E)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2)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3)P는 주장하였다. “내(P)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P)가 지면 자네(E)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4)E도 맞섰다. “제(E)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E)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문단]

• 5)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끝 문단]

↳ 첫 번째 소송2, 3)에서는 '조건'1, 4)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릴 것이다.5) 그래서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④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1)“제(E)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1문단]

•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3)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끝 문단]

↳ E는 첫 승소 판결을 받았기에2) 두 번째 소송에서는3)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한 상태이므로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에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2)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3)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끝 문단]

↳ 첫 번째 소송의 판결은 무효일 근거가 없다.1) 그리고 첫 번째 소송의 판결로 조건이 실현되어 두 번째 소송이 가능하기2~3) 때문에 두 번째 소송의 판결도 무효일 근거는 없다.

03.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90위

#대입 선지의 법칙 #3점 #보기 제시 #최협의 조건 #최협의 Q&A

정답률 66%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9%	③ 5%	④ 15%	⑤ 66%
------	------	------	-------	-------

✓ 정답 풀이

⑤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갇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갇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갇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나)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갇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3)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4)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3문단]

↳ 값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1) 값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기에2, 3) 그 이후 2015년 2월 15일이 값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2015년 11월 30일 이전에 다시 소송을 할 수 없다.1, 4) 이때, 값의 재소송은 2015년 11월 30일 이후에 가능하다.

X 오답 풀이

① (가)의 경우, 값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가) 값은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1)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2)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3문단]

↳ (가)의 경우,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생겨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1~2)

최심의 Q&A

Q 선지 ①은 100% 무조건 상소할 수 없다는 말인데, 지문에서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법률상의 사정이 생긴다면 재소송 가능성이 1%라도 있는 것 아닌가요?

A 맞는 말인데, (가)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정>이 없으며, 선지 ①도 <새로운 사정>을 가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송할 수 없다는 선지 ①은 맞는 말이다. 만약, 선지 ①에서 <새로운 사정>을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법적으로 다룰 방법이 없다고 하면 잘못된 선지가 되는 것이다.

② (가)의 경우, 값은 빌려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가) 값은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1)패소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2)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3)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3문단]

↳ (가)의 경우,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기에1~2) 값은 빌려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3)

③ (나)의 경우,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값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나)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값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값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2)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3문단]

↳ (나)의 경우는 2015년 11월 30일이 되지 않은 이유로 값에게 패소 판결 확정이 내려졌기1) 때문에 기판력이 생겨2)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값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값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나)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값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값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2)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3)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4)<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4문단]

↳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새로운 사정이 생긴 것이므로1~2) 값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3)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4)

04~07 소비자 권익을 위한 국가의 정책

1 소비자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들 수 있다. 2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3 이러한 경쟁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된다. 4 경쟁 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는 모습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소비자 권익을 위한 <경쟁 정책>
* 경쟁 정책: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 → 경쟁이 활발함. → 소비자에게 이익 → 소비자 권익을 보호

2 1 먼저,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서,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이 높아진다. 2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① 여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3 그러하여 경쟁 정책이 유발한 생산적 효율은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4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이 가격 인화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않는다. 5 따라서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2 경쟁 정책의 생산적 효율
* 생산적 효율: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이 생산 →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이 높아짐.
* 경쟁적 시장에서의 개별 기업: 생산적 효율 추구를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 → <소비자 권익에 기여>

3 /1 다음으로, 배분적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말한다. 2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림으로써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3 반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한다. 4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3 경쟁 정책의 배분적 효율
* 배분적 효율: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 배분
* 시장의 독점 상태: 기업이 영리 극대화를 위해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킴.
* 활발한 경쟁 상태: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 → <소비자 권익에 기여>

1

- 1 * 초반부터 두 대상이 등장한다면 다음의 경우들을 예상해야 한다.
- A와 B의 공통점 서술
- A와 B의 차이점 서술(포인트!)
- A와 B를 공동 화제로 한 문단 내에서 A, B 번갈아 혹은 문단별로 서술
- B가 화제로, A는 B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에 불과

3

- * <원인+결과>의 구성.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국어형 머리를 만들어 가는 논리적인 학습의 기본이 된다.

4

- * 한 대상(경쟁 정책)이 또 두 줄기(생산적 효율, 배분적 효율)로? 그럼 전체적으로 큰 두 줄기(경쟁 정책, 소비자 정책)에 한 줄기(경쟁 정책)에는 두 개의 작은 줄기(생산적 효율, 배분적 효율)가 있는 셈이다. 지문의 큰 줄기를 파악하는 일은 독해력을 키우는 기초 학습에 해당한다.

2

1

- * 첫머리의 <먼저>를 보고 3 문단의 <다음으로>가 눈에 띄었다면 경계를 긋는 표시를 해 두자.
* '~할수록 ~하다'처럼 비례적 표현은 선지의 정/오 판단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2~3

- * <원인+결과>의 구조. [3]-2~4도 마찬가지로

3

2~4

- * <원인(대립 맥락)+결과>는 문제화되기 좋은 구성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자.

4 1경쟁 정책은 이처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 2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3우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4예를 들어,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의 제품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5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가는 경쟁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6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으며,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7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 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쟁 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

4 경쟁 정책의 한계

- * 경쟁 정책의 문제점: 일부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음.
→ 그래도 다수의 소비자를 위해 경쟁 정책 유지
- * 소비자의 문제점: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함, 상품에 대한 정보 적음,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에 쉽게 노출됨.

5 1이런 문제를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2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의 ㉣조치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3또한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5 경쟁 정책의 보완책: 소비자 정책

- * 소비자 정책: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
 -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 * 경쟁 정책의 한계 보완
 -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 구매로 인해 피해 구제
 - 소비자 교육 실시

4

1~2

- * <결과+원인>의 구조.

2

- *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처럼 문제를 제기하면 반드시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7번 문장이 해결과 관련)

3

- * <우선>을 통해, 문제가 되는 사항이 또 제시될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6번 문장 이전에 사선 표시)

4

- * 예시는 이전 내용을 보충하는 구체적 내용이므로 첫 독해 시, 쓱 넘겨봐도 괜찮다.

5

1

- * <문제+해결(소비자 정책)>의 구성.

3

- * '분쟁을 직접 해결~' → 분쟁을 간접 해결한다는 부적절 선지가 만들어질 수 있음.(☆지문을 읽으면서 '아~ 이 내용은 이렇게 저렇게 부적절 선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면 키워드에 밑줄을 그어 두자.)

04.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60위

#설명 방식 #개념 #사례-예시 #대상의 소개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93%	① 1%	② 2%	③ 4%	④ 93%	⑤ 0%

정답 풀이

④ 소비자 권의 실현을 위한 두 정책에 대해 소개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밝히고 있다.

지문 속근거 찾기

-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들 수 있다.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1문단]
- <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의 조치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끝 문단]

↳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한 두 정책(경쟁 정책, 소비자 정책)에 대해 소개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밝히고 있다.

Tip실전 풀이

▶ 대상의 <소개>는 글의 처음에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선지에 <소개>라는 항목이 나오면 먼저 1문단에서 해당 근거를 찾아보자.

오답 풀이

- ①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하거나 그 유형을 제시한 것은 없다.

Tip실전 풀이

▶ 대상의 개념 설명은 보통 '~은 ~이다'의 형식을 보인다. 선지에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문에서 일단 조사 '~은(는)'이 있는 말에 집중하자!

- ② 소비자 정책의 문제점을 사례 제시를 통해 부각하고 있다.
↳ 소비자 정책의 문제점을 사례 제시를 통해 부각한 것은 없다.

바탕 지식 더하기

- ※ <사례 vs 예시>를 알아보자!
- 사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 과거의 일)
 - 예시: 예를 들어 보임.

- ③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유사한 사례에 빗대어 기술하고 있다.
↳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유사한 사례에 빗대어 기술한 것은 없다.
- ⑤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지문 속근거 찾기

- 1)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1문단]

↳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에 대한 언급1)은 있지만 그것을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지는 않다.

패턴 공략

▶ 역사적 측면의 고찰이라면 직접적인 연도나 시대와 관련된 말이 나와야 한다.

05.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65위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94%	① 4%	② 0%	③ 94%	④ 1%	⑤ 1%

정답 풀이

③ 생산적 효율을 달성한 독점 기업은 경쟁 정책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지문 속근거 찾기

-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이 가격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점에 대한 1)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2문단]

↳ 생산적 효율을 달성한 <독점 기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1)

오답 풀이

① 독점에 대한 규제는 배분적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

지문 속근거 찾기

-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림으로써 1)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3문단] → (독점은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

↳ <독점>은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1)시키기 때문에 독점에 대한 규제는 배분적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경쟁적이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더라도, 1)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4문단]

↳ <경쟁 정책>으로 시장이 경쟁적이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1)

④ 기업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는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소비자 정책은 주로 1)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의 조치와 같이 2)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 (소비자 권익에 도움)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5문단]

↳ 기업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을 마련1)하는 조치는 소비자 권익에 도움2)이 된다.

⑤ 소비자의 지위가 기업과 대등하지 못하다는 점은 소비자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런 문제들 때문에 1)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2)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 → (소비자 정책의 필요성)되었고, 이 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5문단]

📌 지문 POINT

※ 소비자와 기업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함. → 소비자 피해 발생 → 소비자 보호 정책이 필요함. → 소비자와 기업의 지위를 대등하게 함. → 소비자 정책 수립

↳ 소비자의 지위가 기업과 대등하지 못하다는 점1)은 소비자 정책이 필요한 이유2)가 된다. 🗨 (소비자의 지위가 기업과 대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 정책이 필요함)

06.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27위

#이해 #대립 선지의 법칙 #문맥 대응

정답률 7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	② 13%	③ 6%	④ 4%	⑤ 74%

✔ 정답 풀이

⑤ ㉔은 경쟁 정책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런 (경쟁 정책으로 인한)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의 ㉔(조치)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5문단]

↳ ㉔(조치)는 '경쟁 정책'에서가 아닌 '경쟁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정책>에서 기업들이 취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 오답 풀이

① ㉑은 생산적 효율을 통해 절감된 만큼의 비용에서 발생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1)비용 절감과 같은 2)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3)창출된 ㉑(여력)은~ [2문단] → (여력은 생산적 효율을 통해 창출됨)

↳ ㉑(여력)은 생산적 효율2)을 통해 절감된 만큼의 비용1)에서 발생3)한다. 🗨 (창출된 여력—그 여력에서 발생)

② ㉒에는 유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경쟁 정책이 직접 해결해 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포함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㉒(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으며, 총동구매나 1)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2)이를 해결하기 위해~경쟁 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 [4문단]

↳ ㉒(남는)에는 유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1)를 경쟁 정책이 직접 해결해 주기 어렵다는 문제2)가 포함된다.

③ ㉓은 시장에서 경쟁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서 전체 소비자의 기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렇다고 해서 1)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 2)전체 소비자에게 ㉓(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가는 경쟁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문단]

↳ ㉓(불리한 결과)는 시장에서 경쟁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서1) 전체 소비자2)의 기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④ ㉞은 경쟁 정책 이외에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1)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㉞(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끝 문단]

↳ ㉞(요구)는 경쟁 정책 이외에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1)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 대립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6쪽 참고)

* 위 문제는 <경쟁의 유/무>와 <소비자에 대한 긍정/부정>으로 선지 ③, ⑤가 1대1 대립을 이룬다.

- ③ ~경쟁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서 전체 소비자의 기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 ⑤ ~경쟁 정책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답)

그래서 지문 및 발문과 상관없이 선지 ③, ⑤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지문 POINT

※ <ㄱ~ㄷ> ⇒ '소비자 정책'에 해당!

- ㄱ.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는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였다.
- 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판매의 피해2)가 자주 발생하자 정부는 피해 예방 교육3)을 실시하였다.
- ㄷ. 온라인 게임 업체와 회원 간의 분쟁이 늘어나자 관계 당국은 산하 기관에 분쟁조정위원회4)를 설치하였다.
(국가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국가가 직접 해결)
곧, (직접 해결의 방법)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ㄹ> ⇒ '경쟁 정책'에 해당!

- ㄹ.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동시에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자 관계 당국이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5)에 나섰다.

07.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98위

#보기 제시 #3점 #사례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4%	① 9%	② 3%	③ 1%	④ 84%	⑤ 3%

정답 풀이

④ ㄱ, ㄴ, ㄷ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를 해결(→ 소비자 정책)하기 위해 1)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 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쟁 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 [4문단] (ㄱ)과 관련!
-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2)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3)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끝 문단] (ㄴ)과 관련!
- 4)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끝 문단] (ㄷ)과 관련!
-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5)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1문단] (ㄹ)과 관련!

08~10 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

1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삶은 더욱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바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인가? 2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물음의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기술 발달에 따른 인간 삶의 변화에 대한 물음
*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
-> <기술 발달과 인간의 삶에 관한 물음에 도움을 줌.>

2 최초로 인간의 삶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2 그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 3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이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아 왔다.

2 사색적 삶을 중시-아리스토텔레스
* 아리스토텔레스: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봄.
-> <근대 이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

3 근대에 접어들어 과학 혁명과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2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실험 정신과 경험적 지식이 중시되면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한 과학적 탐구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한 기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3 또한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근면과 검약에 의한 개인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본 청교도 윤리는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이로써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3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의 대등한 위상
* 16, 17세기 과학 혁명: 과학적 탐구(사색적)와 기술(활동적) 사이의 거리를 좁힘.
* 청교도 윤리: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
->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됨.>

1
2
*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의 두 축으로 글이 전개될 것임을 예측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읽어 나가야 한다.

2
1
*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인물 명이 나오면, 인물 지문에 해당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인물의 견해와 또 다른 인물의 견해를 서로 비교할 줄 알아야 한다.

2
* <A보다 B>의 구조와 같이 대상을 비교하는 내용은 A, B 둘의 성격을 바꿔치기한 잘못된 선지가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4-1도 마찬가지로]

3
* 지문 초반에 '근대 이전'과 같이 시대가 나오면 대상의 특징 및 서술 양상이 시대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해야 한다.
-> 근대/16, 17세기/18, 19세기/20세기 초/산업 혁명 이후/20세기 말

3
2~3
* 주체를 수식하는 말이 길어 무엇이 주체가 되는지 인식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주체에 밑줄을 그어 혼동을 방지한다.
-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한> 과학적 탐구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한> 기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근면과 검약에 의한 개인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본> 청교도 윤리는~

4
* 첫머리의 <이로써>는 앞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결과를 나타낸다. [4-4도 마찬가지로]

4 118. 19세기 산업 혁명을 계기로 활동적 삶은 사색적 삶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2생산 기술에 과학적 지식이 응용되고 기계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 규율이 확립되었고, 인간의 삶은 시간적 규칙성을 따르도록 재조직되었다. 3나아가 시간이 관리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動線)을 모색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부터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다. 4이로써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어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5또한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어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과 산업체 연구소들이 출현하였다. 6이)는 전통적으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했던 진리 탐구마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생산 활동의 논리에 포섭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4 산업 혁명을 계기로 위상이 높아진 활동적 삶

- * 18, 19세기 산업 혁명: 활동적 삶이 사색적 삶보다 중요해짐.
 -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 규율이 확립
 - 인간의 삶은 시간적 규칙성을 따르도록 재조직
- *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20세기 초부터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가 됨.
 -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화
 - 공학, 경영학 등 실용 학문과 산업체 연구소들 출현
 - 진리 탐구(사색적)마저 생산 활동(활동적)의 논리에 포섭됨.

5 1이처럼 산업 혁명 이후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그에 힘입어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됨에 따라 근면과 속도가 강조되었다. 2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의미 없는 부지런함'이 만연해진 세태에 대한 ①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5 지나치게 강조된 활동적 삶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등장

- * 활동적 삶에 대한 비판: 사색적 삶의 중요성 강조 (by 성찰)

4

※ <활동적 삶=노동 규율=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합리적>과 같이 키워드 정리는 문단을 함축적으로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3

* '~과학적 관리론은~자리 잡았다.'처럼 문장이 길면 이해하기 복잡해지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를 한 번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문제 풀이에서 주체와 이에 해당하는 서술어를 잘못 파악해 틀리는 경우가 허다하니 항상 주술 관계를 염두에 두자.

5

2

* '삶의 중요성을 역설(力說)하기도 하였다.'에서 '역설'의 의미를 혼동하지 말자.

역설(逆說): 어떤 주이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

역설(力說):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함.

어휘 체크

* 세태: '사람들의 일상생활, 풍습 따위에서 보이는 세상의 상태나 형편'의 의미로 어휘 자체가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된다. 어휘 자체의 의미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 이미지이지만 대부분 부정적 수식어와 함께 자주 사용되어 부정적 맥락을 나타낸다.

6 1이제 20세기 말 정보화와 세계화를 계기로 시간적·공간적 거리가 압축되어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인간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2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의식주 등 생활의 기본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현대인들은 더욱 다양한 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다. 3경쟁이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내면화된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4결국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색적 삶은 설 자리를 잃고 활동적인 삶이 폭주하게 된 것이다.

6 **맹목적으로 활동적 삶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
 * 20세기 말 정보화와 세계화: 경쟁의 세계 확대 → 능력 확대에 대한 강박증 → (활동적 삶○, 사색적 삶×)

6 **최솟값의 조건**
 지문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쉬운 편이다. 이런 쉬운 지문은 누구에게나 편하고 흥미롭게 읽힌다. 그에 따라 문제도 대체적으로 쉬운 편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쉽게 읽고 쉽게 맞춘다면, 관건은 누가 더 신속하게 읽고 문제를 정확히 푸느냐에 달렸다. 수능은 엄연히 시간제한이 있는 시험이다. 우리가 킬러 지문과 문제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쉬운 지문은 남들보다 1초라도 빨리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수능은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를 명심하라!

08.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89위

#이해

정답률 83%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	② 3%	③ 6%	④ 83%	⑤ 6%

✓ 정답 풀이

④ 시간-동작 연구는 인간의 노동이 두뇌노동과 근육노동으로 분리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나아가 시간이 관리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을 모색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부터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1)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어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4문단]

↳ <시간-동작 연구>는 인간의 노동이 두뇌노동과 근육노동으로 분리1)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오답 풀이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존을 위한 필요에서 비롯된 생산 활동이 사색적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최초로 인간의 삶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추구하는 1)사색

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 [2문단]

↳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지 ①과는 반대로, <사색적 삶>이 생존을 위한 필요에서 비롯된 <생산 활동>보다 더 중요해서 상위에 있다고 본다.1)

🔍 패턴 공략

▶ 지문: A는 B보다 우월 → 부적절 선지: B는 A보다 우월

② 과학 혁명의 시대에는 활동적 삶의 위상이 사색적 삶의 위상보다 높았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실험 정신과 경험적 지식이 중시되면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한 과학적 탐구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한 기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이로써 1)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3문단]

↳ <과학 혁명>의 시대에는 활동적 삶의 위상이 사색적 삶의 위상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둘 다 서로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다.1)

🔍 패턴 공략

▶ 지문: A와 B는 대등 → 부적절 선지: A는 B보다 우월

③ 청교도 윤리는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켰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한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근면과 검약에 의한 개인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본 <청교도 윤리>는 1)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3문단]

↳ <청교도 윤리>는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1)

📁 바탕 지식 더하기

※ <청교도>에 대해 알아보자!

16세기 후반, 영국 국교회에 반항하여 생긴 개신교의 한 교파이다. 칼뱅주의(신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고 예정설을 주장)를 바탕으로 모든 쾌락을 죄악시하고 사치와 성직자의 권위를 배격하였으며, 철저한 금욕주의를 주장하였다.

⑤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은 기술을 과학에 활용하기 위해 출현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한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어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과 산업체 연구소들이 출현하였다. [4문단]

↳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은 선지 ⑤와는 반대로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출현한 것이다.

09.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98위

#이해 #최선의 조언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4%	① 2%	② 10%	③ 84%	④ 3%	⑤ 1%

✓ 정답 풀이

③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유롭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유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활동적 삶(→ ①의 비판의 대상)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의미 없는 부지런함'이 만연해진 세대에 대한 ①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 성찰에 의한 1)〈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 ①<비판의 목소리> 때문에 <사색적 삶〉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다. 이는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①<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기 때문에 선지 중에서 <사색>과 관련된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여유롭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유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선지 ③이 ①의 내용과 가장 가깝다.

✓ 어휘 체크

- * 사색: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짐.
- * 사유: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

최선의 조언

수능 국어 실력의 근원은 결국 어휘 능력이다.

✗ 오답 풀이

① 기계 기술은 정신 기술처럼 가치 있으며, 산업 현장은 그 자체로 위대하고 만족스럽다.

↳ 기계 기술과 산업 현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진술은 ①<비판의 목소리> 자체가 아니라, ①의 비판 대상인 <활동적 삶>을 중시하는 내용이다. <활동적 삶>은 18, 19세기 산업 혁명을 계기로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②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며,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면 괴로움과 질곡에 빠지고 말 것이다.

↳ 일하기 위한 삶을 중시하는 서술이며, 이는 ①<비판의 목소리> 자체가 아니라, ①의 비판 대상인 <활동적 삶>을 중시하는 내용이다. <활동적 삶>은 18, 19세기 산업 혁명을 계기로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④ 나태는 녹이 스는 것처럼 사람을 쇠퇴하게 만들며 쇠퇴의 속도는 노동함으로써 지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 '나태'는 여유로운 삶과 관련이 있으며, 나태가 사람을 녹슬게 한다는 생각은 활동을 중시하는 내용이다. 이는 ①<비판의 목소리> 자체가 아니라, ①의 비판 대상인 <활동적 삶>을 중시하는 내용이다. <활동적 삶>은 18, 19세기 산업 혁명을 계기로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⑤ 인간은 기계이므로 인간의 행동, 언어, 사고, 감정, 습관, 신념 등은 모두 외적인 자극과 영향으로부터 생겨났다.

↳ 인간을 기계에 비유한 것은 사색의 동물보다는 단순한 활동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①<비판의 목소리> 자체가 아니라, ①의 비판 대상인 <활동적 삶>을 중시하는 내용이다. <활동적 삶>은 18, 19세기 산업 혁명을 계기로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10.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52위

#보기 제시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79%	① 5%	② 2%	③ 79%	④ 10%	⑤ 4%

정답 풀이

- ③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이 되면서 성과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달라지는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더욱 생산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규율 사회>에서 외적 강제에 의한 타자 착취를 통해 관찰되었다면, <성과 사회>에서 그 요구는 내적 유혹에 의한 1)자기 착취를 통해 관찰된다.

- ↳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되었다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는 그대로 변함없이 존재하고 이를 <관찰시키는 방법>이 타자 착취에서 <자기 착취>로 달라진 것1)이다.

X 오답 풀이

- ① 근대 사회에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확립된 노동 규율은 타자 착취를 위한 규율 사회의 외적 강제로 볼 수 있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생산 기술에 과학적 지식이 응용되고 기계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1)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 규율>이 확립되었고, 인간의 삶은 시간적 규칙성을 따르도록 재조직되었다. [4문단]

• <보기>

2)<규율 사회>에서 <외적 강제>에 의한 타자 착취를 통해 관찰되었다면~

- ↳ 근대 사회에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확립된 <노동 규율>1)은 타자 착취를 위한 <규율 사회>의 <외적 강제>2)로 볼 수 있다.

- ②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현대인의 강박증은 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기 착취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경쟁이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동시에 1)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내면화된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끝 문단]

• <보기>

성과 사회에서 그 요구는 내적 유혹에 의한 2)<자기 착취>를 통해 관찰된다. 그 결과 <피로>는 현대인의 만성 질환이 되었다는 것이다.

- ↳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현대인의 <강박증>1)은 <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기 착취>2)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 ④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삶이 더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견해는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로 포착하는 견해에 반하는 것이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결국 1)<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색적 삶은 설 자리를 잃고 활동적인 삶이 폭주하게 된 것이다. [끝 문단]

• <보기>

성과 사회에서 그 요구는 내적 유혹에 의한 2)<자기 착취>를 통해 관찰된다. 그 결과 <피로>는 현대인의 만성 질환이 되었다는 것이다.

- ↳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삶이 더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견해1)는 현대 사회가 피로 사회로 포착하는 부정적 견해2)에 반하는(반대가 되는) 것이다.

- ⑤ 다양한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하는 현대인의 행동은 성공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내적 유혹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현대인들은 더욱 다양한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다. → <자기 착취> [끝 문단]

• <보기>

성과 사회에서 그 요구는 2)<내적 유혹>에 의한 <자기 착취>를 통해 관찰된다.

- ↳ 다양한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하는 현대인의 행동1)은 성공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내적 유혹>2)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문 난이도 ★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B형 21~23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77위

01 ~ 03 율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 사회론

1 1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2율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1 개체화 현상 & 대표 학자

- * **개체화**: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 공동체적 유대×
→ 벡 & 바우만은 개체화 현상을 사회 위험 문제와 연관

2 1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2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3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4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5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6벡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 개체화 현상의 달라진 양상

- *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
- *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약화
- *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
- * 가족의 해체 현상 多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1

* 첫 문장부터 개념이 나온다면 동그라미(화제)와 밑줄(핵심 특성)을 아끼지 말자.

2

* 인물이 동시에 2명(율리히 벡, 지그문트 바우만)이 언급되었다면? 앞으로 두 인물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언급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다면 차이점에 포인트를 두자.

2

2

* 사회 지문에서 '20세기'처럼 시대와 관련된 말이 나오면 시대별로 글이 전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5

* 나열된 내용을 잘 정리해 두면 문제 풀이 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6

* 벡과 바우만의 공통점이 나왔으니, 다음 문단에서는 차이점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3 1.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하여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2. 먼저 백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3. 백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익과 풍요를 위해 이를 방치(放置)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다. 4.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백의 관점이다. 5. 그런데 백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連帶)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6. 특히 백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表出)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개체화에 대한 백의 견해

- * 백: 과학 기술에 의한 현대의 위기와 개체화는 별개 현상
- * 위험 사회: 삶의 편익과 풍요를 위해 위험을 방치 →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침. →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음.
- * 성찰적 근대화: (과학 기술의 발전 & 파괴적 결과)를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 → 요구를 정치적으로 표출

4 1.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2.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태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3.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백과 달랐다. 4.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전락(轉落)하고 있다고 본다. 5.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6.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없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몰두(沒頭)하게 된다고 보았다. 7.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4 개체화에 대한 바우만의 견해

- * '액체 시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 (개체화 현상 자체 = 위험 요인)
- * 잉여 인간: 무한 경쟁과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음.
 -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피함. or 소극적 자기 방어
 - (개체화의 흐름에 놓인) 정치적 요구의 행위도 해결책이 될 수 없음.

3

1

* 첫 머리의 '그런데'부터 차이점이 서술될 것임을 알려 주고 있다. 그럼 두 인물의 차이점이 한 문단 안에서 한꺼번에 나올 것인지, 각각의 문단으로 나올 것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물 명에 동그라미로, 이제부터는 '백'의 견해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문에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할 근거를 찾기가 수월해진다.

3, 6

* 개념어에 작은따옴표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적절한 표시를 따로 해 둔다. 이 개념들은 인물의 견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마지막까지 다른 인물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음 문단은 당연히 백의 견해와 다른(반대의) 인물의 견해가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4

3

* 이전 인물과 차이점이 뚜렷한 견해이기 때문에 독해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5

* 한 문단이 길다면, '그러나'와 같이 역주행 흐름에서 크게 한 번 끊어 두자.

6, 7

* <원인+결과>의 구성

01.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28위

#공통 선지의 법칙 #전개 방식 #분석-구분-분류 #출제자의 심리

정답률 88%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	② 2%	③ 88%	④ 1%	⑤ 6%

✓ 정답 풀이

③ 개체화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백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1)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문단]
-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개체화>를 2)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3문단]

↳ <개체화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의 공통점1)과 차이점2)을 설명하였다.

☞ 위의 두 문장으로 충분히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이후의 내용을 굳이 꼼꼼히 읽어 볼 필요가 없다.

✗ 오답 풀이

① 개체화 현상의 다양한 양상들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1)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2)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3)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4)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5)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2문단]

↳ <개체화 현상>의 다양한 양상들4~5)이 나열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 것은 아니다. 1~3)은 <개체화 현상>이 변화하게 된 배경이다.

바탕 지식 더하기

※ <분석 vs 구분 vs 분류>에 대해 알아보자!

- 분석: 대상을 개별 요소나 성질로 쪼갬.
예) 곤충을 머리, 가슴, 배로 쪼갬.
- 구분: 상위 대상을 하위 대상(종류)으로 나눔.
예) 과일을 사과, 배, 감 등으로 나눔.
- 분류: 하위 대상(종류)을 상위 대상으로 묶음.
예) 사과, 배, 감 등은 과일로 묶음.

☞ 비슷해 보이는 분석과 구분의 차이점은 분석된 개체(머리, 가슴, 배) 자체를 곤충이라고 할 수 없으나 구분된 대상들(사과, 배, 감)은 자체를

과일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하고 헷갈리는 어휘는 반드시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대충대충 하는 습관이 들면 결국 점수도 대충 받게 된다.

② 개체화 현상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며 그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 개체화 현상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거나 그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어휘 체크

* 통념: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

④ 개체화 현상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의 한계와 의의를 평가하였다.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2문단]

↳ 개체화 현상의 양상을 특징적인 과거에 비추어 나타난 것은 있어도 개체화 현상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의 한계와 의의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 어휘 체크

* 기원: 사물이 처음으로 생김.

출제자의 심리

출제자는 지문에 <20세기>라는 말이 선지의 <역사적>과 관련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것이다.

⑤ 개체화 현상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사회적 개념들을 비교하였다.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 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1문단]

↳ <개체화> 현상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사회적 개념들을 비교한 것은 없다.

패턴 공략

▶ 개념 혹은 정의는 <~은/는 이다>, <~라고 한다>의 형태와 관련된다.

★ 공통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위 문제의 선지 ③, ④는 주관적인 것에 대한 두 가지를 서술하는 것이 공통된다.

- ③ ~두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 (☆정답)
- ④ ~다양한 가설들의 한계와 의의를 평가하였다.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③, ④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02.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38위

#추론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9%	① 2%	② 89%	③ 5%	④ 2%	⑤ 2%

정답 풀이

②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 약화를 초래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1)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2문단]

↳ <개체화 현상>이 변화하게 된 배경으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된 현상1)이 있는 것이지 <개체화 현상>이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 약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 <개체화 현상>과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 약화를 초래>는 서로 인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 A가 B를 초래하다 → A(원인)+B(결과)

오답 풀이

① 노동자들이 계급적 동질성을 갖지 못하게 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2문단]

↳ 노동 시장이 다양해지고 분절될수록 서로 하는 일도, 하는 역할도 달라지기 때문에 한 뜻 혹은 같은 마음을 먹기 힘들다. 곧, 노동자들이 계급적 동질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③ 개인의 거주 공간이 가족 공동의 거주 공간에서 분리되는 추세도 포함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2문단]

↳ 일인 가구처럼, 개인의 거주 공간이 가족 공동의 거주 공간에서 분리되는 추세도 포함한다.

어휘 체크

* 핵가족: 한 쌍의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

④ 백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의 유대를 모색하게 하는 조건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런데 <백>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1)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連帶)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3문단]

↳ <백>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의 유대1)를 모색하게 하는 <조건>이다.

어휘 체크

* (연대=유대) → 단절

⑤ 바우만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서로 연대하기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러나 그(바우만)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1)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끝 문단]

↳ <바우만>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을 서로 연대하기 어렵게 하는1) 위험 요인이다.

03.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17위

#항목 후순위의 법칙 #이해 #긍정-부정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6%	① 2%	② 1%	③ 86%	④ 7%	⑤ 4%

정답 풀이

③ ㉠과 ㉡은 모두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백은~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그런데 백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1)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3문단]

-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그러나 그(바우만)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2)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4문단]

↳ ㉠(액체 시대)는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보지만 ㉡(위험 사회)는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

Tip 실전 풀이

복잡한 것도 긍정-부정으로 쉽게 풀 수 있다.

선지 ㉢: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 (부정적)

㉠(위험 사회):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 → (긍정적)

㉡(액체 시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함. → (부정적)

X 오답 풀이

① ㉡은 위험 요소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진 현대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개념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백은 1)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백은 2)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방지(放置)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3문단]

㉡ 지문 POINT

※ ㉡(위험 사회)는 위험 요소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진 현대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개념이다.

↳ ㉡(위험 사회)는 위험 요소의 성격이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과학 기술에 따라) 과거와 달라진 현대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개념이다.

패턴 공략

▶ 지문: A+B+C → [적절 선지: A+(B)+C]

☆지문의 내용이 선지로 가공되는 다양한 형태를 익혀 두면 선지의 정/오 판단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② ㉡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물체의 속성에서 유추하여 사회에 적용한 개념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1)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태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2)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4문단]

↳ ㉡(액체 시대)는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물체의 속성에서 유추)하여 사회에 적용한 개념이다.

어휘 체크

* 유추: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

④ ㉠과 ㉡은 모두 재난의 현실화 가능성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백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방지함으로써 1)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3문단]

•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백과 달랐다. [끝 문단]

↳ ㉠(위험 사회)와 ㉡(액체 시대)는 모두 재난의 현실화 가능성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어휘 체크

* 전제: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최שמ의 조언

국어 실력의 근원은 영어와 마찬가지로 어휘력이다. 이는 독해력 신장의 기본이기도 하다. 어휘를 무한정 공부할 수 없으니 쉬운 어휘라도 기출에 나오는 것들은 한 번씩이라도 되새겨 보고 지나가자.

⑤ ㉠과 ㉡은 모두 위험의 공간적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1)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백의 관점이다 [3문단]

•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2)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백과 달랐다. [끝 문단]

↳ ㉠(위험 사회)와 ㉡(액체 시대)는 모두 위험의 공간적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 1항목 후순위의 법칙 ★

(자세한 내용 9쪽 참고)

*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①, ②가 각각 ㉠ 혹은 ㉡ 1개만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다른 선지보다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를 고려하여 항목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 선지 ③~⑥를 먼저 더욱 집중해서 보는 것이 정답을 조금이라도 빨리 찾을 수 있는 풀이법이다.

04~06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1 [A] 1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2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3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4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5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은 사용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 6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7무료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많아 도서 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 공공 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 * 정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 → 유형 또는 무형의 공공 서비스를 공급
- * 배제성: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
- * 경합성: 두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성질
→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

2 1과거에는 공공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2이러한 경우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주로 세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3하지만 복지와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4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조직이 늘어나고 행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5이 경우 정부는 정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6민간 위탁이란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서비스 관리의 책임을 정부가 갖되, 서비스 생산은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2 공공 서비스 범위의 확대와 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

- *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 정부의 관련 조직이 늘어남.
→ 행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짐.
- * 민간 위탁: 정부-(결정권 & 서비스) 책임 / 민간-서비스 생산

1

2

- * '배제성', '경합성'처럼 개념이 나열될 경우,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다음 내용을 읽어 나가자.

3

- * 개념에서 피정의항(배제성, 경합성)은 동그라미, 정의항의 포인트(대가를~, 한 사람이~)는 밑줄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4, 6

- * '이러한', '이',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 가는 지시 대명사(이~, 그~)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2-2, 4, 5, 3-3, 5, 7, 9도 마찬가지로]

5~7

- * 내용이 어렵지 않은 지문에서의 예시는 일단 건너뛰어 쓱~ 읽어도 좋다. 나중에 문제 풀이 시 참고해도 늦지 않다.

2

3, 4

- * '하지만~+이로 인해~'는 <대립 맥락+결과 혹은 결론>의 패턴에 해당한다. 자주 등장하는 문장 구조의 패턴을 익혀 두면 독해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 특히, 대립 접속어나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1~3도 마찬가지로] '하지만~+따라서~'

4

- * <~문제점>이 나타나면, 이후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3 1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2가장 일반적인 것은 **경쟁 입찰 방식**이다. 3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 간 경쟁 입찰을 거쳐 서비스 생산자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4공원과 같은 공공 시설물 관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5이 경우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 6다음으로는 **면허 발급 방식**이 있다. 7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에게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8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9이 경우 공공 서비스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공급을 민간의 자율에 맡겨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0또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는데, 이는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 복지관과 같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3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방식의 종류

- * **경쟁 입찰 방식**: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 간 경쟁 입찰
→ 서비스 생산자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공원 같은 공공 시설물 관리 서비스) → 서비스 비용 ↓, 재정 부담 ↓
- * **면허 발급 방식**: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에게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 공공 서비스의 최소 수준 유지,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
- * **보조금 지급 방식**: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 재정적으로 지원(종합 복지관)

4 1하지만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2또한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 3따라서 ①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에는 서비스의 성격과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4 민간 위탁 제도의 유의점

- *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 하락
- * 공공 서비스 제공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움.

3

1

- * '몇 가지 방식'을 통해, '~방식'의 순서에 따라 글이 전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2~10

- * 대상의 정의와 특성의 내용이 전문적이지 않고 어렵지 않다면 키워드만 뽑아 밑줄을 긋거나 쓱~ 읽고 넘어가도 좋다.
- * 핵심어(경쟁 입찰 방식, 면허 발급 방식, 보조금 지급 방식)에 작은따옴표가 친절하게 붙어 있다. 그래도 눈에 확 띄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고 문제를 풀 때, 해당 부분을 찾아가면서 읽어도 좋다. 문단이 문맥의 전체적인 흐름이 아닌, 단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딱 차 있다면 굳이 처음부터 집착하고 읽을 필요가 없다. 이때는 문제를 먼저 보고 해당 부분을 찾는 것이 시간 절약에 더 효율적이다.

4

1, 2

- * 문장이 길다면 심포나 적절한 곳에서 흐름을 한 번 끊어 주자.

2+3

- * <원인+결과>의 구성.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04.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11

#문장 자체 표지 #시간 절약 #언급 #문단의 첫 문장 #최협의 조건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5%	① 7%	② 2%	③ 4%	④ 85%	⑤ 2%

✓ 정답 풀이

④ 공공 서비스의 수익 산정 방식

↳ 공공 서비스의 수익 산정 방식은 지문에 없다.

✗ 오답 풀이

① 공공 서비스의 제공 목적

🔍 지문 속 근거 찾기

-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1문단]

↳ <공공 서비스>의 제공 목적

🔍 패턴 공략

▶ '~대한 목적'은 지문에서 '~위해'를 먼저 찾아보자.

② 공공 서비스 공급의 주체

🔍 지문 속 근거 찾기

-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1문단]

↳ <공공 서비스> 공급의 주체

🔍 패턴 공략

▶ '~대한 주체'는 지문에서 '~(은)는'를 먼저 찾아보자.

③ 공공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배경

🔍 지문 속 근거 찾기

- 하지만 복지와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2문단]

↳ <공공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배경

⑤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방식

🔍 지문 속 근거 찾기

- <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3문단]

↳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방식

TIP 실전 풀이

★문단의 첫 문장이 글의 흐름과 내용을 말해 준다.

3문단 첫 문장만으로 충분히 선지 ⑤가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장 자체가 다음 내용에 <민간 위탁 방식의 예>를 나타내는 표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다음 내용을 더 읽어 보면 '경쟁 입찰 방식'과 '면허 발급 방식'이 나오지만 굳이 여기까지 읽을 필요가 없다. 위탁 방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므로 그 내용과 특성은 상관없기 때문이다.

05.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65위

#공통 선지의 법칙 #서술 방식 #전개 방식 #최협의 조건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94%	① 2%	② 94%	③ 1%	④ 2%	⑤ 1%

✓ 정답 풀이

② 대상의 특성을 사례와 더불어 설명하고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2)예를 들어~ [1문단]

↳ 대상의 특성1)을 사례2)와 더불어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대상의 특성이 변화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공공 서비스의 두 가지 특성이 제시되어 있을 뿐, 변화 과정은 없다.

③ 대상의 가치와 효용을 비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공공 서비스의 특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을 뿐, 가치와 효용을 비유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아니다.

④ 대상이 지닌 문제점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1문단]

↳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있어도, 공공 서비스의 문제점이나 그 원인은 없다.

⑤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 시간 순서에 따른 서술 모두 없다.

최선의 조언

실제 시험에서 시간이 극단적으로 없을 때, 위 문제처럼 [A]의 서술 방식에 대한~과 같이 한정된 지문 안에서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지문 전체를 처음부터 봐야 하는 다른 문제에 비해 선지의 정/오 판단 시간이 짧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를 풀고 정답을 확인하고 해설을 보는 것으로 국어 공부를 끝내면 실력을 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어 공부는 항상 실전 상황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히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 공통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위 문제의 선지 ①, ②는 대상의 특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공통된다.

- ① 대상의 특성이~
- ② 대상의 특성을~ (☆실제 정답)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①, ②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06.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52위

#인과 관계 #3점 #원인_이유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79%	① 9%	② 79%	③ 2%	④ 4%	⑤ 6%

정답 풀이

②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는 공공 서비스의 공익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

지문 속 근거 찾기

-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1)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끝 문단]
-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2)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 [끝 문단]

↳ <따라서>는 '앞에서 말한 일이 뒤에서 말할 일의 원인, 이유,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이므로 ㉠의 <이유>는 <따라서> 이전 내용을 살펴보면 된다. (이유+따라서+결과 ㉠)
 그래서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는 공공 서비스의 공익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공공 서비스가 사회 기반 시설의 공급에 집중되어 공공 서비스의 수익이 제한되기 때문

지문 속 근거 찾기

-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주로 1)세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하지만 2)복지와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정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2문단]

↳ <사회 기반 시설>은 <민간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담당한다. 1)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공공 서비스는 복지과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2)에 관련된 부분이다.

③ 민간 위탁은 대부분 면허 발급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정부의 관리 비용과 공공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

지문 속 근거 찾기

- <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경쟁 입찰 방식>이다. [3문단]

↳ <민간 위탁>은 대부분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어휘 체크

* 일반적인: 일부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전체에 걸치는('가장 일반적'='대부분')

④ 민간 위탁에 의해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어 수요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

지문 속 근거 찾기

- <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또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는데, [3문단]

↳ <보조금 지급 방식>은 <민간 위탁>의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일 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⑤ 공공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민간 위탁 방식이 단일화되어 있어서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

지문 속 근거 찾기

- <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3문단]

↳ <민간 위탁> 방식은 단일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07~10 사회 이론과 시대 상황

1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2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3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 1 사회 이론
- * 사회 구조, 사회적 상호 작용 연구
 - *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과 긴밀히 연관
 - * 시대적 조건과 연관(19세기 시민 사회론)

2 1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2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3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4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5 그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6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①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7 하지만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8 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2 헤겔의 사회 이론
- * 헤겔의 업적: 시민 사회 이론 정교화
 - * 시대(프러시아): 절대주의 잔재, 산업 자본주의 미성숙, 빈부 격차, 계급 갈등
 - * 헤겔의 주장
 - 공리주의 긍정 but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해결×
 - 시민 사회: 사적 욕구의 영역+욕구의 의존성
 - 공동체적 윤리성 영역
 - 직업 단체와 복지 행정 조직이 시민 사회를 이상적 국가로 이끌 것 기대
 - (빈곤 & 계급 갈등) 근원적 해결 불가
 - 국가: 사회 문제 해결, 공적 질서 확립 →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

1

2~3

* <결과+원인>의 구조,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3

*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를 통해 글의 전개 방식이 시대 구분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시대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나타내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2

1

* '헤겔'처럼 인문·사회 지문에서 인물이 처음 등장하면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인물의 주장, 생각, 판단을 구분
- 한 문단 안에서 한 인물만 나오는지 다른 인물과 섞여 나오는지 구분
- 다른 인물과의 대립점에 초점을 두기

6

* 문장이 길다면 쉼표에서 흐름을 한 번 끊어 주고 쉼표 이후에 포인트를 두자. [3-3, 5, 6, 4-4도 마찬가지]

7

* '그런데', '그러나', '~으나', '하지만' 등 전환 및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면 주의를 필요하므로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절하다. [3-3, 4-2, 4도 마찬가지]

* 대상에 대한 부정적 서술은 밑줄×가 적절하다. (근원적×)

3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2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상태였다. 3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르 사플리에 법이 1791년부터 약 90년간 시행되었으나, 이 법은 분출되는 사익의 추구를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시민 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4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5그는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①직업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6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헤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르켐은 직업 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3 뒤르켐의 사회 이론

- * 프랑스 혁명 이후: 사익 추구, 빈부 격차, 계급 갈등
 - 르 사플리에 법: 시민 사회 더 악화
- * 뒤르켐의 주장
 - 공리주의: 아노미 조장
 - 직업 단체: 사익 조정, 공익 & 공동체 연대 수행, 국가 견제

4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2하지만 직업 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3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4이들의 이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4 직업 단체에 대한 헤겔과 뒤르켐의 견해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

- * 직업 단체에 대해 입장이 다른 이유: 시민 사회론은 시대적 산물로 현실 상황이나 주관적 문제의식이 반영되기 때문

3

2

- * '사익 추구', '빈부 격차', '계급 갈등'을 <문제 사항>으로 인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해결 사항>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3

- * 문장이 길면, 쉼표 이후의 서술어(키워드 → 위축시킴)에 주목하자.
- * '이', '이러한',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 가는 지시 대명사(아~, 그~)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4-3도 마찬가지로]

4~6

- * <뒤르켐 = 공리주의 × = 직업 단체>처럼 제시된 인물이 무엇을 긍정하고 무엇을 부정하는지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4

1~2

- * 끝 문단 1~2문장만으로도 글 전체의 흐름이나 전개 방식을 엿볼 수 있다.
- 헤겔과 뒤르켐의 공통점과 차이점 서술

07.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8위

#전개 방식 #논지_사례_설명 #사례_예시 #최협의 Q&A

정답률 33%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3%	② 2%	③ 2%	④ 21%	⑤ 42%

정답 풀이

① 논지를 제시한 후,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명료화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문단]
-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2문단]
-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3문단]
-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히하게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끝 문단]

↳ <사회 이론>에 대한 논지를 제시한 후, <헤겔>과 <뒤르켐>의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 사회 이론이 시대의 산물이라는 주제를 명료화하고 있다.

패턴 공략

♣ 선지 ①의 <논지>+<사례>에 주목

☞ <논지>에 대한 <사례>이기 때문에 지문에 반드시 그 논지와 관련된 유명한 혹은 전문가의 실제 이름이 등장하며 그 수만큼의 논지 혹은 사례가 있다는 것에 유의하라. (<사회 이론>에 대한 <헤겔>과 <뒤르켐>의 사례)

바탕 지식 더하기

- ※ <사례 vs 예시>를 알아보자!
- 사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과거의 일)
- 예시: 예를 들어 보임.

오답 풀이

② 화제를 소개한 후, 예외적인 사례를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일반화하고 있다.

↳ 화제를 소개하지만, 예외적인 사례를 언급하거나 이를 배제하는 과정은 없다.

1등급 가이드

♣ '화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문에서 찾아봤다고???

☞ '화제'가 없는 지문이 존재할까? 그런 지문은 거의 불가능하다. 당연히 고 사소한 것에는 1초의 시간이라도 아끼자.

③ 주장을 제시한 후, 예상되는 반증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뒤르켐이나 헤겔의 생각은 주장으로 볼 수 있으나, 예상되는 반증 사례가 언급되거나 이를 검토하는 과정은 없다.

④ 쟁점을 도출한 후, 각 주장의 근거 사례를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 단체에 대한 1)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끝 문단]
- 2)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히하게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끝 문단]

↳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1)는 것만으로는 '쟁점(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을 도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주장은 비교1)했어도 그 근거 사례를 비교 평가하는 것은 없다. 단지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도출2)했을 뿐이다.

패턴 공략

▶ 지문에서 주장이나 생각이 나오면 누구(인물 or 글쓴이)의 것인지 잘 구분해야 한다.

⑤ 주제를 제시한 후,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초점화하고 있다.

↳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헤겔의 연구 1+뒤르켐의 연구 1) → 총 2개의 사례를 말하는 것이지, 동일한 1가지의 사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지 ⑤는 적절하지 않다. 만약, 동일한 사례가 되려면 <헤겔>과 <뒤르켐>이 같은 시·공간에서 똑같은 내용을 연구해야 한다.

최협의 Q&A

Q 동일한 주제인데 왜 동일한 사례가 아니라, 다른 2개의 사례가 되죠?

A 과일의 종류가 단 하나가 아닌 것처럼, 하나의 주제에는 하나의 사례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다. 헤겔(프러시아 사회) & 뒤르켐(프랑스 사회)처럼 사회 배경과 연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2개의 사례가 되는 것이다.

Q 사례는 '어떤 상황이나 일어났던 사건' 이런 것이 아닌가요? 누구의 이론 그 자체가 사례가 될 수 있나요?

A 사례를 통해 이론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08.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44위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90%	① 2%	② 90%	③ 3%	④ 2%	⑤ 3%

정답 풀이

② 프랑스 혁명 후 수십 년간 프랑스는 개인들의 사익 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지문 속근거 찾기

•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상태였다. [3문단]

↳ <프랑스 혁명 이후>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익 추구가 불가능하다는 선지 ②는 적절하지 않다.

패턴 공략

▶ 지문: A는 B하는 C이다. → 부적절 선지: A는 B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19세기 초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의 잔재와 미성숙한 산업 자본주의가 혼재하였다.

지문 속근거 찾기

•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2문단]

↳ 19세기 초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의 잔재와 미성숙한 산업 자본주의가 혼재하였다.

③ 헤겔은 국가를 빈곤 문제나 계급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최종 주체라고 생각하였다.

지문 속근거 찾기

• 따라서 1)그(헤겔)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문단]

↳ 헤겔은 <국가>를 빈곤 문제나 계급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최종 주체라고 생각하였다. 1)

④ 뒤르켐은 혁명 이후의 프랑스 사회를 이기적 욕망이 조정되지 않은 아노미 상태로 보았다.

지문 속근거 찾기

•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3문단]

↳ <뒤르켐>은 혁명 이후의 프랑스 사회를 이기적 욕망이 조정되지 않은 아노미 상태로 보았다.

⑤ 헤겔과 뒤르켐은 공리주의가 시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지문 속근거 찾기

• 그(헤겔)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1)그것(공리주의)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2문단]

•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2)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3문단]

↳ ‘헤겔’과 ‘뒤르켐’은 <공리주의>가 시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1~2)으로 보았다.

패턴 공략

▶ 지문: A는 C이다. + B는 C이다. → 적절 선지: A와 B는 C이다.

09.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89위

#공통 선지의 법칙 #공통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3%	① 83%	② 2%	③ 3%	④ 2%	⑤ 10%

정답 풀이

①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 실현을 추구한다.

지문 속근거 찾기

• 그(헤겔)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①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2문단]

• 그(뒤르켐)은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직업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3문단]

↳ ㉠과 ㉡ 모두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 실현을 추구한다.

X 오답 풀이

② 국가를 견제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헤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헤겔과는 다르게) <뒤르켐>은 <직업 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3문단]

↳ <뒤르켐>만이 <직업 단체>가 '국가'를 견제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③ 치안 및 복지 문제 해결의 기능을 담당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 단체)와 1)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2문단]

↳ 치안 및 복지 문제 해결1)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직업 단체)가 아닌, <복지 행정 조직>이다.

④ 공리주의를 억제하고 도덕적 개인주의를 수용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1(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 (<공리주의>를 억제해야 함.) 그는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2(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직업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공리주의>를 억제하고1) '도덕적 개인주의'를 수용하는 것2)은 ㉠(직업 단체)의 역할에 대한 <뒤르켐>만의 견해이다.

⑤ 시민 사회 외부에서 국가와의 연결 고리로 작용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그(헤겔)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1)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2)이

두 기구(㉠(직업 단체)와 복지 행정 조직)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헤겔은 ㉠(직업 단체)가 시민 사회 외부가 아닌, 시민 사회 내에서1) 이상적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2)

★ 공통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선지 ①, ③은 치안 및 복지 문제 등의 공익 실현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공통된다.

- ①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 실현을 추구한다. (☆정답)
- ③ 치안 및 복지 문제 해결의 기능을 담당한다.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①, ③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10.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61위

#관점 #끝 문단 중요 #최선의 조건 #시·공간을 초월

정답률 8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4%	③ 4%	④ 7%	⑤ 80%

✓ 정답 풀이

⑤ 사회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이론이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1(사회론)이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끝 문단]

↳ <사회 이론>은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1)이기 때문에 <사회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이론이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된다.

X 오답 풀이

①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문단]

• 이들의 이론(사회 이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끝 문단]

↳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패턴 공략

▶ 지문: A는 B로서 → 부적절 선지: A는 B가 되지 않는다.

② 객관적 사회 이론은 이론가의 주관적 문제의식과 무관하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들의 이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1)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끝 문단]

↳ <객관적 사회 이론>은 이론가의 <주관적 문제의식>에 영향을 받기1)에 '주관적' 문제의식과 무관할 수 없다.

패턴 공략

▶ 지문: A는 B특성이 있다. → 부적절 선지: A와 B는 상관없다.

최생의 조언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객관적 사회 이론>처럼, 출제자는 지문의 표현을 선지로 가공할 때에는 수험생이 빨리 눈치 채지 못하도록 적당히 변형한다. 이런 지문-선지의 변형 양상을 자주 익혀 두면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일일이 이런 유형을 따로 모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눈여겨보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이렇게 세세한 것도 대충대충 보지 말고 잘 살펴 두자.

③ 시·공간을 넘어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사회 이론이 성립할 수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1)'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문단]

↳ <사회 이론>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되기1) 때문에 시·공간을 넘지 못하며, 그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사회 이론이 성립할 수 없다.

바탕 지식 더하기

※ 시·공간을 초월

- 보편성: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
- 타당성: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 객관성: 대상 자체에 속하여 있는 성질.

최생의 조언

근거 없는 상상은 NO!

시·공간을 초월해야 무언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해 보이고 사회 이론도 바람직해야 하니까 마찬가지로 시·공간을 초월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느낌이 아닌, 지문의 근거로 판단하라!

④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거한 사회 이론은 사회 현실의 문제 상황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문단]

↳ <사회 이론>은 '과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되기1) 때문에 사회 현실의 문제 상황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없다.

Tip 실전 풀이

★ 끝 문단이 중요하다!

끝 문단은 글 전체의 내용을 정리, 요약, 강조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인물이 행한 가치 있는 일이 요약된) 견해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비문학에서 주제와 긴밀한 것은 물론 인물의 업적 및 견해, 글쓴이의 생각, 관점, 강조 사항, 당부, 가치관, 입장 등과 관련된 것을 물으면 정답의 근거 지문이 끝 문단에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 다음 문제들은 정답의 근거가 모두 끝 문단에 있다!

- * 위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 수능)
- * ~키르히호프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14 수능)
- * ~포퍼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3 수능)
- *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가장 적절한 것은? (2011 9월 평가원)
- * 글쓴이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008 9월 평가원)
- *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05 9월 평가원)
- * 글쓴이가 다룬 핵심 주제로 알맞은 것은? (2005 수능)
- * 위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0 수능)

지문 난이도 ★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B형 26~28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75위

01 ~ 03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방식

1 1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 자치 단체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커져 왔다. 2이로 인해 전문적인 행정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이 빈번해지고 있다. 3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은 지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결정은 지역 주민의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1 지역 주민 의사에 부합하는 정책 결정의 필요성
 *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능률성 & 효과성 중시
 → 지역 주민의 의사에 부합되어야 함.

2 1행정 담당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 자치 단체 자체의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화와 경영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3이 둘은 모두 행정 담당자 주도의 정책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4민간화는 지방 자치 단체가 담당하는 특정 업무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것으로, 기업 선정을 위한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5하지만 민간화를 통해 수용되는 주민들의 요구는 제한적이므로 전체 주민의 이익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기업의 특성상 공익의 추구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한계가 있다. 6경영화는 민간화와는 달리, 지방 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민간 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7주민들을 고객으로 대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다. 8그러나 주민 감시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의 적극적인 견제가 없으면 행정 담당자들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2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과 한계
 * '민간화'와 '경영화': 시장 경제의 원리 부분적 수용
 * 민간화: 특정 업무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위탁
 - 공청회에 주민들 참여
 -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한계
 * 경영화: 지방 자치 단체가 민간 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
 - 주민들을 고객으로 대하며 요구 충족
 - 기존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함.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3
 * 문제(주민과 무관) + 해결(주민과 관련)의 구성.
 * 첫 문단부터 역주행 흐름(그러나)이 나온다면, 여기서부터가 중심 화제와 관련된 포인트가 된다.

2
2
 * 둘 이상의 대상(민간화, 경영화)이 나오면 차이점에 주목하며 지문을 읽어 나가자. 이 둘의 특성을 바꿔치기한 선지가 나오게 마련이니 혼동되지 않게 정리해 두어야 한다.
4~5/6~8
 * <특성+단점>의 구성. 단점은 해결해야 할 문제 사항이 되며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 전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 1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2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간담회, 설명회 등의 주민 참여 제도는 주민들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인데, / 주민들의 의사를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발안 등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주민 참여 제도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

3 직접 민주주의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

* 주민 참여 제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함. → 주민 투표나 주민 소환, 주민 발안 등의 직접 방식이 필요

4 [A]1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그리고 각 개인들은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공동체 의식이 고양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3또한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전체 주민의 의사가 가시적으로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행정 담당자들도 정책 결정에서 전체 주민의 의사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4아울러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에 대한 지지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주민들이 정책 집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향이 커지게 될 것이다.

4 직접 민주주의 제도 활성화의 효과와 의의

*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활성화: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안정적 참여 가능
 -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 공동체 의식 고양
 - 주민들이 정책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

3

1

* '~한계'라는 문제점 인식 + '주민 참여 제도'라는 해결 방안 제시

2

* 한 문장이 너무 길다면 적당한 곳에서 끊어 주는 것이 좋다. '간접적'과 '직접적'이 대별 키워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포인트로 잡자.

4

1

* <(A(수단)를 통해 B(조건)하면 C(결과)하게 된다.)의 구성. 문장이 길면, '~통해(수단)와 '~면(조건)에서 끊어 주자. 이런 긴 문장의 다양한 패턴을 자주 익혀 놓아야 부족한 독해력을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다. 독해력은 끌어올리기가 참 어렵고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영역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런 티끌 같은 공부거리라도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국어형 인간으로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01.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74위

#이해 #최협의 조언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1%	① 81%	② 3%	③ 4%	④ 1%	⑤ 11%

정답 풀이

①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을 중앙 정부와 대비해서 기술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 자치) 단체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커져 왔다. [1문단]
- 2)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은 지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결정은 지역 주민의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1문단]

↳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을 <중앙 정부>와 대비가 아닌,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다.

서로 대비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은 <정책 결정 과정>이 아닌, <정책 결정>에 해당한다.

최협의 조언

1문단에서 선지 ①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들면, 과감히 다른 선지는 적절한 표시를 해 두고 패스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절약된 시간을 킬러 문제에 쓰는 전략이 있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보지 않은 선지가 정 불안하면 문제를 다 풀 뒤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지방 자치 단체가 주민 참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러한(→ 민간화, 경영화) 1)한계를 해소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2)(주민 참여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3문단]

↳ <지방 자치 단체>가 <주민 참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③ 지방 자치 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주민 참여 제도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간담회, 설명회 등의 (주민 참여 제도)는 주민들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인데, [3문단]

↳ <지방 자치 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주민 참여 제도>의 종류(간담회, 설명회)를 제시하고 있다.

④ 지방 자치 단체가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활성화했을 때의 효과를 말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1)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2)각 개인들은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공동체 의식이 고양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3)전체 주민의 의사가 가시적으로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4)행정 담당자들도 정책 결정에서 전체 주민의 의사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아울러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에 대한 지지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주민들이 5)정책 집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향이 커지게 될 것이다. [끝 문단]

↳ <지방 자치 단체>가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활성화>했을 때의 효과(1~5)를 말하고 있다.

효과 5개 중에 한 개만 발견했더라도 선지 ④는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최소한 지문 첫 부분인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만으로도 이후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 선지 ④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수능은 최소한의 근거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해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문제 풀이가 가능해진다.

⑤ 지방 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정책 결정 방식의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행정 담당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1)(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 자치 단체) 자체의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화'와 '경영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문단]

↳ <지방 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정책 결정> 방식의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지문 근거 1)만으로도 충분히 선지 ⑤의 적절함을 판단할 수 있다. 근거 2)는 노력에 대한 사례로 선지 ⑤의 적절함이 더 확실해지는 것일 뿐이다.

02.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53위

#항목 후순위의 법칙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91%	① 2%	② 2%	③ 3%	④ 91%	⑤ 2%

✓ 정답 풀이

④ ㉠과 ㉡은 모두 지방 자치 단체가 외부에 정책 결정권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민간화>는 지방 자치 단체가 담당하는 특정 업무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것으로, [2문단]
- ㉡<경영화>는 민간화와는 달리, 1)지방 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민간 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2문단]

↳ ㉠<민간화>는 외부(민간 기업)에 정책 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이지만, ㉡<경영화>는 외부에 정책 결정권을 위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민간 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1)이다.

✗ 오답 풀이

① ㉠은 기업의 이익을 중시하여 전체 주민의 이익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하지만 민간화를 통해 수용되는 주민들의 요구는 제한적이므로 1)전체 주민의 이익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기업의 특성 상 공익의 추구보다는 2)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한계가 있다. [2문단]

↳ ㉠<민간화>는 기업의 이익을 중시2)하여 전체 주민의 이익을 소홀히 할 우려1)가 있다.

② ㉡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러나 주민 감시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1)외부의 적극적인 견제가 없으면 행정 담당자들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2문단]

↳ ㉡<경영화>는 외부의 적극적인 견제가 없으면 행정 담당자들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기1) 때문에 ㉡<경영화>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③ ㉠과 ㉡은 모두 행정 담당자 주도의 정책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이 둘(경영화, 민간화)은 모두 행정 담당자 주도의 정책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2문단]

↳ ㉠<민간화>와 ㉡<경영화>가 모두 행정 담당자 주도의 정책 결정을 보완1)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⑤ ㉠과 ㉡은 모두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에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화>와 <경영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문단]

↳ ㉠<민간화>와 ㉡<경영화>가 모두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에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1)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1항목 후순위의 법칙 ★

(자세한 내용 9쪽 참고)

*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①, ②가 각각 ㉠ 혹은 ㉡ 1개만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다른 선지보다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를 고려하여 항목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 선지 ③~⑤를 먼저 더욱 집중해서 보는 것은 정답을 조금이라도 빨리 찾을 수 있는 풀이법이다.

03.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44위

#일탈 선지의 법칙 #보기-선지의 법칙 #선지 오류의 법칙

정답률 9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	② 2%	③ 4%	④ 2%	⑤ 90%

✓ 정답 풀이

⑤ 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는 것을 보니,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인 경우에도 주민들이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A]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1)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끝 문단]
- <보기> 투표 결과 52.5% 대 47.5%로 찬성이 많았으나, 2)반대하는 주민들이 투표 결과에 불복하여 주민 간에 반목이 심해졌다.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해당 정책의 결정이 지연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3)상당수의 주민들은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 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는 것2)을 보니,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1)인 경우에도 주민들이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다3)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X 오답 풀이

① 찬성이 더 많은 투표 결과를 보니,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고
양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군.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찬성이 더 많은 투표 결과를 보이긴 했으나, 반대하는 주민들
이 투표 결과에 불복하여 주민 간에 반목이 심해졌기²⁾ 때문
에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고양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견해가 대립하는 것을 보니, 행정에 대한 주민
들의 신뢰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군.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견해가 대립하는 것을 보니, 오히려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다른 정책에 대해서
도 협조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³⁾

③ 해당 정책의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보니,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
의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1)해당 정책의 결정이 지연되어
2)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상당수의 주민들은 다른 정책에 대해
서도 협조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 해당 정책의 결정이 지연되어¹⁾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
이 커졌고, 상당수의 주민들은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협조
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²⁾

④ 다른 정책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보니,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해당 정책의 결정이 지연되어 행정
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1)상당수의 주민들은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주민 투표 제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주민들이 2)다른 정책에 대한 주민 투표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 다른 정책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거부하는 일²⁾이 생기는
것을 보니, 오히려 상당수의 주민들은 다른 정책에 대해서
도 협조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¹⁾

★ 선지 오류의 법칙 ★

(자세한 내용 9쪽 참고)

* 선지 ②, ③, ④는 지문 및 발문과 상관없이 오류이다.

②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견해가 대립 → (부정적 현상) 그래서 다음,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지는) 긍정적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

③ 해당 정책의 결정이 지연되는 것 → (부정적 현상) 그래서 다음, (정
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긍정적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

④ 다른 정책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거부하는 일 → (부정적 현상) 그
래서 다음,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가 높아진다는) 긍정적 현상
이 나타날 수 없다.

☆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이라면 바로 정답에 해당한다.

★ 일탈 선지의 법칙 ★

* 특정한 기준으로 선지의 핵심을 분류했을 때, 나머지와 다른 한 개의 선
지가 눈에 띄면 이를 일탈 선지라 칭하고, 그것이 정답이 될 확률은 80%
이상이다. 주로 선지의 핵심은 긍정적-부정적으로 구분한다.

이번 문제에서 선지 ⑤가 좀 튀는 이유, 그리고 높은 정답의 가능성!

- ①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고양된다는~ (긍정적)
- ②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긍정적)
- ③ ~주민들의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긍정적)
- ④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가 높아진다는~ (긍정적)
- ⑤ ~주민들이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다는~ (부정적) ☞ (☆정답)

선지 ⑤만이 나머지와는 다르게 주민들의 부정적인 양상을 보여 주는 일탈
선지이며 지문과 발문에 상관없이 정답이 될 확률은 80% 이상이다.

★ 보기-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8쪽 참고)

* 긍정 발문형으로, <보기>의 핵심과 가장 관련성 있는 선지가 정답이다.

<보기>: 상당수의 주민들은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선지 ⑤: 주민들이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다. ☞ (☆정답)

04~07 상업 광고에 대한 규제의 배경과 그 유형

1 1상업 광고는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요긴하다. 2기업은 마케팅 활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업과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 한다. 3소비자는 소비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성능, 가격, 판매 조건 등의 정보를 광고에서 얻으려 한다. 4광고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면 이를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5그러나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광고가 사회 전체에 폐해를 낳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

1 상업 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
* 광고가 사회 전체에 폐해를 낳을 수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됨.

2 1이때> 문제가 된 것은 과연 광고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로서 누구를 상정할 것인가였다. 2초기에는 ㉠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라 광고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3여기>에는 광고 정보가 정직한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소비자는 이성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4그래서> 기업은 광고에 의존하여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고,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었다.

2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
* 광고 피해의 책임 주체: 초기에는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
- 소비자의 이성적 구매가 전제
- 기업 책임x, 소비자 책임o

3 1책임 주체로 기업을 상정하여 ㉡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복잡적이다. 2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졌고, 상품에 응용된 과학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3또한 다른 상품 광고와의 차별화를 위해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장면도 자주 활용되었다. 4그러하여>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3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의 배경
*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짐.
* 상품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워짐.
* 광고에서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장면이 자주 활용됨.

1

1 * <기업(단체) ↔ 소비자(개인)>이라는 대립 항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국어 시험에서 대립 항은 매우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된다. 지문을 읽어 나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과 이렇게 어휘 간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읽는 것은 독해의 정확성과 속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온다. 반드시 대충대충 읽는 습관을 버리자!

5 * 첫 문단부터 역주행 흐름(그러나)이 나온다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화제와 관련된 포인트가 된다.
* 문제(광고 부작용)+해결(규제 방식)의 방식으로 글이 전개될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

1 * '누구를 상정할 것인가', 즉 주체의 종류에 따라 문단이 전개될 수 있음에 유의하자.

1, 3, 4 * 이 문단은 '이때', '여기에는', '그래서'처럼 정주행의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빠른 속도로 읽어 내야 한다. 그리고 내용이 쉬울수록 메모 표시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3~4 * <원인+결과>의 구조.

3

1 * '배경은 복잡적'을 통해, 다양한 배경이 나열될 것을 예측하고 이를 잘 구분해야 한다.

2~3 * 내용을 부정하는 것에 밑줄x 표시를 하여 눈에 띄게 한다.

4 1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여러 광고 규제는 이런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크게 보아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로 나눌 수 있다. 2구체적인 법 조항을 통해 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규제는 광고 또한 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3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사실에 반하는 광고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4법적 규제는 허위 광고나 기만 광고 등을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정부 기관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4 광고의 법적 규제

- * 근거: 광고는 사회적 활동의 일환
- 허위 광고나 기만 광고 등을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정부 기관이 규제를 가함.

5 1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 등장했다. 2법적 규제가 광고의 역기능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강제적 조치라면, 자율 규제는 광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이다. 3여기서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으로 간주된다. 4그래서 광고주, 광고업계, 광고 매체사 등이 광고 집행 기준이나 윤리 강령 등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한다. 5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5 광고의 자율 규제

- * 등장 배경: 광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
-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으로 간주
- 광고 집행 기준이나 윤리 강령 등을 정하고 이를 준수
- 법적 규제를 보완

4

※ 키워드 정리: 법 조항=법적 규제=사회적 활동=정부 기관

1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차이점에 포인트를 두어 지문을 읽어 나가야 한다.

5

※ 키워드 정리: 자율 규제=사회 가치와 문화에 영향=기준이나 윤리 준수=법적 규제 보완

04.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89위

#표제-부제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3%	① 83%	② 7%	③ 3%	④ 3%	⑤ 4%

정답 풀이

① 광고 규제의 배경과 유형

- 피해 책임의 주체와 규제의 주체를 중심으로

66 지문 속근거 찾기

- 그러나 1)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광고가 사회 전체에 피해를 낳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 [1문단]
- 이때 문제가 된 것은 과연 2)광고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로서 누구를 상정할 것인가였다. 초기에는 ①'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라 광고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2문단]
- 3)책임 주체로 기업을 상정하여 ④'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복합적이다. [3문단]
-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여러 광고 규제는 이런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크게 보아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로 나눌 수 있다.~법적 규제는 허위 광고나 기만 광고 등을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4)정부 기관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4문단]
-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에 대한 5)기업의 대응책으로 등장했다. [끝 문단]

↳ 광고 규제의 배경1)과 유형

- 피해 책임의 주체2~3)와 규제의 주체4~5)를 중심으로

05.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98위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4%	① 4%	② 6%	③ 4%	④ 84%	⑤ 2%

정답 풀이

④ 첨단 기술을 강조한 상품의 광고일수록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졌고, 1)상품에 응용된 과학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3문단]

↳ 상품에 응용된 과학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강조한 상품의 광고일수록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

오답 풀이

① 광고 주체의 자율 규제가 잘 작동될수록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의 역할도 커진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1)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끝 문단]

↳ 광고 주체의 <자율 규제>가 잘 작동된다는 것은 <법적 규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자율 규제>1)의 기능이 잘 실현된다는 것이지, <자율 규제의 작동>과 <법적 규제의 역할이 커지는 것>과는 서로 상관이 없다.

②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정도가 클수록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필요성이 약화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그러나 광고에서 1)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광고가 사회 전체에 피해를 낳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 [1문단]

↳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면 <규제 방식>이 다양하게 필요1)하므로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정도가 클수록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필요성이 강화>된다.

③ 시장 독과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약화되고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이 부각되었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책임 주체로 기업을 상정하여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복합적이다.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졌고, [3문단]

↳ <시장 독과점 상황>은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이므로 <시장 독과점 상황>이 심각해지면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은 오히려 강화된다.

⑤ 광고의 기만성을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 그 이유는 소비자에게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이때 문제가 된 것은 과연 광고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로서 누구를 상정할 것인가였다. 초기에는 1)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

라 광고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광고 정보가 정직한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2) 소비자는 이성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2문단]

↳ 광고의 기만성을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 1) 그 이유는 소비자에게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기 2) 때문이다.

06.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61위

정답률
8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4% ② 3% ③ 6% ④ 80% ⑤ 7%

정답 풀이

④ ㉠보다 ㉡을 따를 때 정부가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더 크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라 1) 광고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 그래서 기업은 광고에 의존하여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고,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2)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었다. [2문단]
- 책임 주체로 기업을 상정하여 ㉡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복합적이다. ~ 그리하여 3)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4)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3문단]

↳ ㉠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과 ㉡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은 말 그대로 입증 책임의 주체가 각각 <소비자>와 <기업>이기 2, 4) 때문에 <정부>가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보다 ㉡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 ↳ 지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없이, ㉡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은 말 그대로 <기업>에게 부담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보다 ㉡이 광고의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한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광고의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보다 ㉡을 따를 때 광고 표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을 따를 때 광고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1) 때문에 <기업>이 부담이 되는 4) ㉠보다 광고 표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책임 부담>과 <자율성>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스러우면 <기업>은 <부담>에서 벗어나 <자율성>이 커짐.

⑤ ㉠과 ㉡은 모두 광고의 역기능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러나 1)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광고가 사회 전체에 피해를 낳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 [1문단]
- 이때 문제가 된 것은 과연 2) 광고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로서 누구를 상정할 것인가였다. [2문단]

↳ ㉠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과 ㉡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은 모두 광고의 역기능을 전제 1)로 적용되는 것 2)이다.

07.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46위

#생략된 조사

정답률
77%

선지별 선택 비율

① 77% ② 6% ③ 10% ④ 4% ⑤ 3%

정답 풀이

① 소비자 규제는 소비자들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을 지지하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광고 규제 중에는 소비자가 1) 광고의 피해에 직접 대응하는 <소비자 규제>가 있다.
- 책임 주체로 기업을 상정하여 ㉡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복합적이다. ~ 그리하여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2)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3문단]
- 초기에는 ㉠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라 광고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대해 3)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2문단]

↳ <소비자 규제>는 광고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1~2)는 취지이므로 소비자들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이 아닌,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을 지지할 것이다.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은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힘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1등급 가이드

♣ 생략된 조사에 유의하자!

* 소비자 규제? → 소비자가 규제 (○), 소비자를 규제 (×)

☞ 사소한 듯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다. 조사 하나로 문장의 의미가 바뀌고 이로 인해 정답이 될 수도 오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② 소비자 규제는 광고 규제의 효과 면에서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그래서 1<소비자 규제>는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며, 소비자의 권리 행사는 소비자 보호 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 <소비자 규제>는 광고 규제의 효과 면에서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1등급 가이드

▶ <보완>과 <강화>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이전보다 '강화'됨.

③ 소비자 규제의 주체는 광고의 폐해에 직접 대응하기 때문에 자율 규제의 주체와 긴장하는 관계에 있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광고 규제 중에는 1<소비자>가 광고의 폐해에 직접 대응하는 <소비자 규제>가 있다.

•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 등장했다.~그래서 광고주, 광고업계, 광고 매체사 등이 광고 집행 기준이나 윤리 강령 등을 정하고 이(자율 규제)를 준수하고자 한다. [끝 문단]

↳ <소비자 규제>의 주체(소비자)가 광고의 폐해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익 극대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므로 <자율 규제>의 주체인 기업과 긴장하는 관계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1등급 가이드

♣ 정확한 독해가 중요하다!

*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 등장

→ <기업>의 대응책 = <자율 규제> (○)

→ <기업>이 <자율 규제>에 대응함 (×)

④ 소비자 규제는 광고 주체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규제와 공통점이 있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광고 규제 중에는 1<소비자>가 광고의 폐해에 직접 대응하는 <소비자 규제>가 있다.

• 구체적인 법 조항을 통해 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규제>는 광고 또한 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2<사실>에 반하는 광고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4문단]

↳ <소비자 규제>는 광고 주체들의 이기적인 행태(2)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1)는 점에서 <법적 규제>와 공통점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⑤ 소비자 규제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이러한 광고들은 사회 전체에도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1<소비자 규제>는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2<피해가 예상되는> 그릇된 정보의 유통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한다.

↳ <소비자 규제>는 경제적 측면(1)만이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그릇된 정보의 유통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하기(2) 때문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폭넓은 현상을 담아낼 수 있다. 그릇된 정보의 유통도 이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

08~11 간접 광고의 이해

1 요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2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PPL(product placement)이라고도 하는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이다. 3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

1 간접 광고의 특징
* 간접 광고: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둬.
* 간접 광고 노출: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2 광고주들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상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확산시키려 한다. 2 간접 광고에서는 이러한 광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한다. 3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착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고,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것인데,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 4 또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데 이를 맥락 효과라 한다.

2 간접 광고에 활용하는 배치 방법
* 주류적 배치: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착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
* 주변적 배치: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 →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
* 맥락 효과: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 →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 →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 ↑

3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협찬 제도를 운영해 왔다. 2 이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를 허용했다. 3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다. 4 협찬 받은 의상의 상표를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은 그때 문이다.

3 우리나라 협찬 제도의 변천 ①-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
* 협찬 제도: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림.
-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 상호를 보여 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하는 것은 금지함.

1
1
* 첫 문단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친숙하고 쉬운 화제의 지문일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읽는 속도를 평소보다 조금 높여 보자. 쉬운 지문은 남들보다 신속하게 읽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2
* '달리', '그러나'처럼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에는 세모 표시를 해 두고 그 이후에 포인트를 두자. [3-3도 마찬가지로]
3
* '~비해', '~보다'처럼 비교형 표현이 있는 내용은 선지의 정/오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눈에 띄는 물결무늬 표시를 해 두자. [2-3도 마찬가지로]

2
2
*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의 차이점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3
* <A보다 B하다.>의 구조, A와 B를 헷갈리지 말자. 이 둘을 바꿔치기한 선지가 출제되기도 한다. (9번 문제 선지 ①과 10번 문제 정답과 관련됨!)
4
* <설명+개념어>의 형태로, 흔한 <개념어+설명>보다는 인지가 잘 안 되니 개념어에 동그라미나 네모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다.

3
2
* '이',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 가는 지시 대명사(이~, 그~)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4-3, 5-1, 3도 마찬가지로]
3
* 부정적 서술은 밑줄× 표시가 효과적이다. (보여 주거나×, 언급×) [4-5도 마찬가지로]

3~4
* <결과+원인>의 구조,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4 우리나라는 협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방송법에 '간접 광고'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2)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3) 이로써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4) 다만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5) 또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간접 광고가 금지되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4 우리나라 협찬 제도의 변천 2-간접 광고 제도의 도입

- * 간접 광고의 도입 취지: 프로그램 내의 광고 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완화 → 방송 광고 산업을 활성화.
 -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
 -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 객관성, 공정성)에서 간접 광고 금지.
- * 간접 광고의 폐해
 -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짐.
 -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짐.

5 1)처럼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 중 파고드는 간접 광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에게 간접 광고에 대한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2)미디어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미디어의 콘텐츠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3)이것이 간접 광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5 시청자에 대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

- *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
 - 간접 광고에 적절히 대응.
 - 시청자들에게 간접 광고에 대한 주체적 해석이 요구됨.

4
4
* '다만'과 같이 예외와 비슷한 종류의 내용은 문제화되기 쉽다.
5

바탕 지식 더하기

- ※ 다양한 평가 기준의 척도를 알아보자.
 - ㉠. 타당성: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 ㉡. 합리성: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 → (상식적)
 - ㉢. 객관성: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
 - ㉣. 공정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성질
 - ㉤. 정확성: 바르고 확실한 성질
 - ㉥. 신뢰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
- ☞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의 타당성이 높아져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의견에 신뢰가 간다.

6
배경 지식 더하기
※ <비난 vs 비판>에 대해 알아보자!
㉠.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 (부정적)
㉡.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 + 잘못의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함. ☞ (긍정적)

5
최쌤의 Q&A
Q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왜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죠?
A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과 공부를 할 지능이 있는데> 공부를 왜 해야 하나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 주체적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간접 광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토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08.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52위

#대립 선지의 법칙 #단순 일치 #비난-비판 #최선의 Q&A

정답률 79%	선지별 선택 비율				
	① 9%	② 2%	③ 5%	④ 5%	⑤ 79%

정답 풀이

⑤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1)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협찬 제도를 운영해 왔다. [3문단]
-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2)법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4문단]

↳ <간접 광고>가 '제한적'에서 규제 완화(1~2)라는 제도의 변천 과정은 있지만 간접 광고 <이론>의 <발전 과정>은 없다.

최선의 Q&A

Q <간접 광고> 제도의 변천 과정을 이론의 발전 과정으로 볼 수 없나요?

A 그렇게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간접 광고의 허용성 정도의 일부만으로 <이론>이라고 하기 어렵고 규제의 완화는 광고주에게 득이 되는 현상일 뿐 이를 간접 광고 자체가 발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어휘 체크

<변천 과정> ≠ <발전 과정>

- * 변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바뀌고 변함.
 - * 발전: 학문, 기술, 문명, 사회 따위의 현상이 보다 높은 수준에 이룸.
- 발전이 변천을 전제하고 있으면서 높은 수준에 올라야 함.

오답 풀이

①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PPL(product placement)이라고도 하는 1)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이다. 2)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 [1문단]

↳ <간접 광고>의 개념(1)과 특성(2)을 밝히고 있다.

패턴 공략

▶ 대상의 개념 설명은 보통 '~은 ~이다'의 형식을 보인다. 선지에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문에서 일단 조사 '~은(는)'이 있는 말에 집중하자! ☆2016 수능에 '개념'과 관련된 정/오 판단 문제가 2문제나 출제된 바가 있다.

②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협찬 제도>를 운영해 왔다. [3문단]

↳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③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간접 광고>에서는 이러한 광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한다. [2문단]

↳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④ 간접 광고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4문단]

↳ <간접 광고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바탕 지식 더하기

※ <비난 vs 비판>에 대해 알아보자!

-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 (부정적)
-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 + 문제의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함. 🗨️ (긍정적)

★ 대립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6쪽 참고)

* 위 문제는 간접 광고에 대해 긍정/부정으로 선지 ④, ⑤가 1 대 1 대립을 이룬다.

- ④ ~비판적 견해를~ → (부정)
- ⑤ ~발전 과정을~ → (긍정) 🗨️ (☆정답)

지문 및 발문과 상관없이 선지 ④, ⑤에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09.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22위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7%	① 2%	② 3%	③ 3%	④ 5%	⑤ 87%

정답 풀이

⑤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지문 속근거 찾기

- 요즘 시청자들은 1)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1문단]
- 이처럼 2)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 중 파고드는 <간접 광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에게 간접 광고에 대한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끝 문단]

↳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1~2)에도 광고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간접 광고에서 주변적 배치가 주류적 배치보다 더 시청자의 주목을 받는다.

지문 속근거 찾기

-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 [2문단]

↳ 간접 광고에서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가 더 시청자의 주목을 받는다.

패턴 공략

▶ 지문: A는 B보다는 C이다. → 부적절 선지: A는 C보다는 B이다.

②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즉각적으로 광고를 회피하기가 더 쉽다.

지문 속근거 찾기

-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 [1문단]

↳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즉각적으로 광고를 회피하기가 더 어렵다.

패턴 공략

▶ 지문: A는 B보다는 C이다. → 부적절 선지: A는 C보다는 B이다.

③ 간접 광고가 삽입된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에는 수용자 개인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다.

지문 속근거 찾기

- 미디어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1)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미디어의 콘텐츠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끝 문단]

↳ 간접 광고가 삽입된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보를 수용할 때 수용자 개인의 해석 프레임이 작동한다.1)

바탕 지식 더하기

※ <프레임>에 대해 알아보자.

프레임(frame)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생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생각을 처리하는 방식을 공식화한 것을 말한다. 인간은 어떤 조건에 대해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마음의 창'에 비유하곤 하는데, 이는 어떤 대상 또는 개념을 접했을 때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바뀌기 때문이다.

④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는 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주는 효과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지문 속근거 찾기

-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PPL이라고도 하는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이다. [1문단]

↳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외부에 붙느냐 혹은 내부에 붙느냐에 따라 구분한다.

10.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28위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8%	① 88%	② 1%	③ 4%	④ 2%	⑤ 5%

정답 풀이

① ㉠이 시행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어 방송 광고업계는 이 제도를 환영했겠군.

지문 속근거 찾기

- 그러나 1)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다. [3문단]

↳ ㉠<협찬 제도>가 시행되면서, 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없다.1)

✕ 오답 풀이

② ㉠에 따라 경비를 제공한 협찬 업체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의 협찬 고지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1)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를 허용했다. [3문단]

↳ ㉠<협찬 제도>에 따라 경비를 제공한 협찬 업체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에 <협찬 고지>1)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③ ㉡이 도입된 이후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작위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키는 장면이 많아졌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1)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4문단]

↳ ㉡<간접광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1)해 작위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키는 장면이 많아지고 있다.

☑ 어휘 체크

* 작위적: 꾸며서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인위적)

④ ㉢을 도입할 때 보도와 토론 프로그램에서 간접 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방송의 공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 방송이 1)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2)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간접 광고>가 금지되었다. [4문단]

↳ ㉢<간접 광고 제도>를 도입할 때 보도와 토론 프로그램에서 <간접 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것2)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1) 방송의 공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⑤ ㉠에 따른 광고와 ㉡에 따른 광고 모두 맥락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 1)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데 이를 <맥락 효과>라 한다. [2문단]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극히 제한된 형태의 2)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협찬 제도>를 운영해 왔다. [3문단]

↳ <간접 광고>인 ㉠<협찬 제도>2)에 따른 광고와 ㉡<간접 광고 제도>에 따른 광고 모두 <맥락 효과>를 얻을 수 있다.1)

11. <사회>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89위

#대립 선지의 법칙 #윗글 바탕 #보기 제시 #이해

정답률
83%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	② 83%	③ 2%	④ 6%	⑤ 6%
------	-------	------	------	------

☑ 정답 풀이

②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제공한 의류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변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1)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 및 착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고,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것인데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 [2문단]

↳ 여자가 입고(착용하고) 있는 의상을 제공한 의류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에 해당1)한다.

✕ 오답 풀이

① 남자가 사용하는 휴대 전화의 제조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1)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 및 착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고,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것인데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 [2문단]

↳ 남자가 사용하는 휴대 전화의 제조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를 활용1)하고 있다.

③ 이 프로그램에는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와 간접 광고 제도에 따른 광고가 모두 활용되고 있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남자가 1)사용하고 있는 휴대 전화는 상표가 선명하게 보인다.~ 커피 전문점의 이름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은 이 2)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고지되었다.

↳ 이 프로그램에는 협찬 제도2)에 따른 광고와 간접 광고1) 제도에 따른 광고가 모두 활용되고 있다.

④ 남자가 승용차에 대해 말하는 내용으로 보아 이 방송 프로그램은 현행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다.

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남자는 창밖에 보이는 1)승용차의 상품명을 언급하며 소음이 없는 좋은 차라고 칭찬한다.

• 다만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2)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4문단]

↳ 남자가 승용차에 대해 말하는 내용(1)으로 보아 이 방송 프로그램은 현행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다.(2)

⑤ 방송 후 화면 속의 배경이 된 커피 전문점에 가려고 그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방송사에 쇄도했다면 간접 광고의 맥락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6 지문 속 근거 찾기

•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1)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2)광고 효과가 커지는데 이를 <맥락 효과>라 한다. [2문단]

↳ 방송 후 화면 속의 배경이 된 커피 전문점(1)에 가려고 그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방송사에 쇄도했다는 것은 이미 광고의 효과가 커진 것(2)이다. 그래서 간접 광고의 <맥락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 대립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6쪽 참고)

* 위 문제는 선지 ①, ②가 간접 광고의 배치가 주류/주변으로 1 대 1 대립을 이룬다.

①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다.

② ~간접 광고의 주변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다. (☆정답)

지문 및 발문과 상관없이 선지 ①, ②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보너스 칼럼

지문 요약의 중요성

비문학 실력을 향상시킬 만한 도구는 몇 안 된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기출 지문을 요약하는 것이다. 다른 문제집이나 자료를 별도로 구할 필요 없이, 바로 이 문제집에 있는 지문을 요약하면 된다. 1회독은 스피드하게 끝내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꼼꼼히 공부하게 되는 2회독부터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지문 요약을 하자. 문단별로 핵심 키워드와 포인트를 뽑아내, 전체 흐름을 파악하면 된다. 이런 요약을 통해, 문장 및 문단에서 중요도 판단, 전체 흐름을 파악, 선지의 정/오 판단 능력 등을 향상할 수 있다. 지문 요약도 2~3회 해야 할 정도로 문제 풀이만큼이나 중요하니 매일매일 1지문씩이라도 반드시 요약하는 습관을 갖자.

지문 먼저? 문제 먼저?

이게 고민이 된다면, 그냥 자신이 평소에 익숙한 것을 먼저 보라. 대개 독해력이 괜찮은 이들은 지문을 먼저 본 후 문제를 쭉쭉 풀어나간다. 이들은 대개 머릿속에 지문의 큰 흐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를 잘 풀어낸다. 하지만 독해력이 부족한 이들은 문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때, 발문과 선지를 분석해서는 안 되며, 빠르게 쓱 훑어보면서 연필로 키워드를 체크하거나 눈에 띄는 선지에 표시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그 이상은 시간 낭비. 그리고 지문 독해를 할 때 체크한 것과 관련된 것이 나오면 선지의 정/오를 즉각 판단해야 한다.

상위권에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지문 → 문제>가 바람직 하지만 중하위권에서 시작하는 수험생들은 <문제 → 지문>의 전략적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신에게 익숙한 순서를 불필요함을 느끼면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어떤 순서든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문 난이도 ★★★

2019학년도 수능 27~31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6위

01 ~ 05 서양과 동양의 천문 이론

1 1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2**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1 16세기 전반 서양의 태양 중심설과 중국의 우주론 회통

- * 16세기 전반, 서양에서 제시한 태양 중심설: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 → 형이상학을 뒤바꿈.
- * 중국의 우주론: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 → 중국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 제고

2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동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2**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행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3**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 **4**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5**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6**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자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2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과 이를 반대하는 이들

- *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지구 중심설 주장
- * 코페르니쿠스: 형이상학× → 태양 중심설 주장 →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 →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짐(단순성 충족)
- * 종교 지도자들 & 형이상학 고수자: 지상계와 천상계의 대립 구조 신봉 & 인간의 신성성 주장 → 태양 중심설 반대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 1**
- * '16세기 전반'과 같이 도입부부터 시대와 관련된 말이 나오면 시대 순으로 내용이 전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자. 그냥 '16세기'도 아니고 좀 더 자세하게 16세기에서도 '전반'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16세기 후반'도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자.
 - * 문장이 긴데 쉽표가 없다면 주어부와 서술부의 경계를 찾아 한 번 끊어 주는 것이 좋다. (~개혁은 / 경험주의의 확산과~)

2

- 어휘 체크**
- * 회통: 언뜻 보기에 서로 어긋나는 뜻이나 주장을 해석하여 조화롭게 함.

2

- 1**
- * '코페르니쿠스'처럼 지문 초반부에 인물(단체)이 등장하면 이 인물(단체)의 견해(주장, 관점 등)를 체크하고 이와 비교되는 인물(단체)이 나올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2**
- * 문장이 길어 복잡하다면, 일단 (주어+서술어)를 체크해 두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주어+서술어)는 문장에서의 줄기가 되며 일단 이것만 붙잡아도 문단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 *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처럼 인물이 한 주제로 묶여 있어 공통된 견해가 나와도 앞으로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나 한쪽이 다른 한쪽을 비판 혹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글이 전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3**
- * 역주행(그와 달리)의 흐름이 시작되는 곳. 이제부터 좀 더 집중해서 글을 읽어 나가야 한다. 정주행보다는 역주행 흐름이 있는 곳부터 상대적으로 출제 포인트가 되므로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절하다.
- 4**
- * <A보다는 B가 ~하다.>처럼 비교하는 내용은 출제자가 좋아하는 출제 요소이기 때문에 우(A='코페르니쿠스')와 열(B='프톨레마이오스')을 잘 정리해야 한다.
 - * <A할수록 B하다.>처럼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자주 출제 포인트가 된다. (~멀수록 ~길어진다)
- 5**
- *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복수의 인물들이나 단체도 하나의 개체로 인지해 특정 인물과 견해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단체 따로, 개별 인물 따로 비교하려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조심해야 한다.
- 5~6**
- * <주장+근거>의 구조. 인물이나 단체의 주장이나 견해가 나오면, 이에 해당하는 근거를 같이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3 1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2** 그러나 **케플러**는 우주의 수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3**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4**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 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옹호할 수 없게 만들었다.

3 브라헤와 케플러의 천문학

- * **브라헤**: 지구 중심+태양 중심
 -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 인정
 -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형이상학과의 상충 피함)
 -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
 -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
- * **케플러**: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 인정 →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 수용(단순한 태양 중심설)
 -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 →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 →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이 무너짐.

4 [A] 117세기 후반에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 하였다. **2** 그는 만유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 **3**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4**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5**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6**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달의 공전 궤도와 사과 낙하 운동 등에 관한 실측값을 연역함으로써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 * 질점: 크기가 없고 질량이 모여 있다고 보는 이론상의 물체.
- * 구 대칭: 어떤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서 같은 특성을 갖는 상태.

4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여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한 뉴턴

- * **뉴턴**: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
 - 만유인력 가설 →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 →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
- * **만유인력**: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3

1

- * 문장이 길고 복잡하면 일단 심표에서 끊어 읽자.
- * **1** 문단에 이어 시대와 관련된 말(16세기 후반)이 등장했으니, 앞으로 더욱더 시대별로 내용(문단)이 전개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대별로 새 인물이 등장한다면 이전 인물과의 차이점에 포인트를 두자.

2

- * <원인+결과>의 구조.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논리 학습의 기본이 된다.
- * '그러나'라는 반대 맥락의 말을 통해, 이전 내용(입장, 견해, 주장 등)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3~4

- * '이전 내용을 수용함(브라헤의 천체 관측)과 부정함(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잘 구분해야 한다.'

4

1

- * '뉴턴'처럼 새 인물이 나오면 큰 동그라미를 쳐서 여기서부터 이 인물(뉴턴)의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구조화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어휘 체크

- * **연역**: 어떤 명제로부터 추론 규칙에 따라 결론을 이끌어 냄.
- * **귀납**: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 및 법칙을 유도해 내는 일

3

- * <비례, 반비례>의 내용은 자주 출제되므로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4

- * 내용이 길고 복잡해서 어렵다. 실전에서 끝까지 이해하려 붙들고 늘어지면 멘탈이 붕괴되기 쉽다. 그럴 때는 일단 적당한 곳을 잡아 끊어 놓고 <주어(만유인력은)+서술어(~구할 수 있다)>만 체크해 두자. 뒤의 내용 흐름에 비추어 혹은 문제 풀이 시 다시 봤을 때, 그때 이해해도 괜찮다.

5

- * <A(지구)보다 B(태양)>와 같이 비교하는 내용은 A, B를 서로 뒤바꾼 선지로 가공되기도 한다.

6

- * '입증하였다'를 통해 입증 과정에 관한 내용이 나왔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지문을 읽을 때, 다음 내용을 예측하는 것과 읽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리해 보는 것을 실시간으로 병행하는 것이 좋다. 이 모든 과정은 부단한 연습을 통해 실전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대충 읽고 어설프게 문제 풀이를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할 것들을 하고 문제 풀이로 넘어가는 것이 백번 낫다.)

5 11세기 말부터 중국에 본격 유입된 서양 과학은, 청 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曆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헌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다. **2** 브라헤와 케플러의 천문 이론을 차례대로 수용하여 정확도를 높인 시헌력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불온한 요소**로 여겼다. **3**에 따라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어떤 방식이든 ①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5 서양 과학과 중국의 지적 유산의 연결성을 문제 삼은 중국
 * 시헌력: 중국의 역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 → 서양 과학과 중국의 지적 유산의 연결성을 문제 삼음. → 문제 해결 시도

6 117세기 옹명우와 방이지 등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리학적 기론(氣論)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2** 수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그들의 태양계 학설은 브라헤의 영향이었지만,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氣)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6 옹명우와 방이지의 광학 이론
 * 옹명우와 방이지: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부정 → 성리학적 기론에 입각,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 → 광학 이론 창안(브라헤의 태양계 학설 영향 받음,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에 의문 제기, 기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

7 1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그러면서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던 것인데 **옹명우**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3** 매문정은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의 네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는 등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하였다.

7 왕석천과 매문정의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
 * 왕석천과 매문정: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음. →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 파악 → 중국 고전에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이 모두 있음을 파악 → 이를 깨닫지 못하고 형이상학에 몰두한 옹명우를 비판
 * 매문정: 중국 고대 문헌의 내용과 서양 이론 연결(하늘이 땅의 네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음. + 땅이 둥글.) →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 뒷받침.

5
 1 * <설명+개념어(시헌력)> 형태로, 흔한 <개념어+설명>보다는 인지가 잘 안 되니 개념어에 진한 동그라미나 네모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다.

2
 * '불온한 요소'를 <문제 사항>으로 파악할 줄 알아야 하며, 이에 대한 <해결 사항>이 나오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어떤 글이든 <문제 사항>만 지적하고 끝나는 경우는 없다. 비문학은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구조를 반드시 갖추고 있다. (단, 끝 문단에서 문제 사항을 지적하면서 끝을 맺을 경우에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생각해 보라는 의미이다.)

6
 1~2 * 문장이 길다면 끊어 읽기가 필수이다. 쉬운 내용일지라도 실전에서 긴 문장을 보면 일단 지레 겁을 먹기 때문에 사선 표시로 끊어 놓는 시각화를 통해 이해의 단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1
 * '부정적 태도'가 나왔으면, 이와 대립 항인 '긍정적 태도(수용, 보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므로 실시간으로 인지하면서 읽어야 한다. (☆한 문단을 읽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읽어 내려가는 것과 예측하고 정리 하면서 읽는 것은 독해의 정확성과 속도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온다. 이런 능력은 단시일 내에 절대로 완성되지 않는다. N회독으로 꾸준히 깨달음을 얻으면서 체화해야만 실전에서 온전히 써먹을 수 있다!)

2
 * '영향이었지만'처럼 문장 중간이라도 반대 맥락은 세모 표시를 잊지 말자. 언제나 정주행의 흐름보다는 역주행의 흐름에 좀 더 포인트를 둘 것!

7
 1 * '왕석천과 매문정'처럼 두 인물이 한 주제로 묶여서 나오면, 같은 입장을 갖는다. 하지만 그 이후 내용에 이를 분리하여 따로 개인의 의견이 추가로 나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혹은 두 인물이 차이를 보이는 견해도 나올 수 있다.

2
배경 지식 더하기
 ※ 비난 vs 비판
 ㄱ.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 (부정적)
 ㄴ.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 + 잘못의 원인 및 대안을 말함. ☺️ (긍정적)

8 1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망라한 총서인 **사고전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2이 총서의 편집자들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쏟아진 천문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3이와 같이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려는 경향은 19세기 중엽까지 주를 이루었다.

8 매문정의 입장이 반영된 『사고전서』
 * 사고전서: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이 반영됨. → 고대부터 당시까지 쏟아진 천문 관련 문헌들을 정리

8
 ※ 지문의 끝 문단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요약하고 의의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1
 * 글을 요약·정리하여 마무리해야 할 끝 문단에 새로운 정보(『사고전서』)가 등장하였으므로, 문제화될 가능성이 크다.

01. <과학+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96위

#독서 기록 #점검 결과 #최선의 조언 #패턴 공략

정답률 67%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67%	③ 7%	④ 11%	⑤ 10%

정답 풀이

②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예측과 다름.

-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6세기 말부터 중국에 본격 유입된 1)서양 과학은, 청 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曆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헌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다. [5문단]
 - 17세기 옹명우와 방이지 등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리학적 기론(氣論)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2)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6문단]
 -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3)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7문단]

↳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1~3)는 지문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측과 다르다고 점검한 선지 ②는 적절하지 않다.

최선의 조언

지문 근거 1~3) 중 하나라도 발견했다면 바로 선지 ②가 적절하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1개만 보고 정답을 판단하는 것과 3개 모두를 종합하여 정답을 판단하는 것에는 엄연히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 문제가 쉽다면 누가 더 빨리 정답을 찾느냐가 관건이다!

오답 풀이

① 서양의 우주론에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의 개념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예측과 같음.

-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1)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2문단]
 -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2)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태양 중심설)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 [2문단]

↳ ‘서양의 우주론에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의 개념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1~2)라는 내용을 지문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예측과 같다는 선지 ①은 적절하다.

패턴 공략

▶ 개념이 항상 'A는 B이다.'로만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X(회전)하는 A(지구 중심설)'와 같이 나타나는 것도 개념 설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③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일까?

..... 질문의 답이 제시됨.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와 달리 1)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태양 중심설)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 [2문단]

▶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답(코페르니쿠스)의 근거가 지문에 있으므로 1) 질문에 대한 답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중국에서 서양의 우주론을 접하고 회통을 시도한 사람은 누구일까?

..... 질문의 답이 제시됨.

🔍 지문 속 근거 찾기

- 1)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끝 문단]

▶ '중국에서 서양의 우주론을 접하고 회통을 시도한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답(매문정)이 직접 지문에 직접 드러나 있으므로 1) 질문의 답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⑤ 중국에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한 서양의 인물은 누구일까?

..... 질문의 답이 언급되지 않음.

▶ 중국에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한 인물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다.

02. <과학 + 인물>

전체 문항 중 난이도: 36위

#이해 #대립 선지의 법칙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47%	① 9%	② 7%	③ 15%	④ 22%	⑤ 47%

✓ 정답 풀이

⑤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하지만 그(케플러)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1)천체 관측(→ 경험)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3문단]
-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2)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7문단]

▶ 서양과 중국 모두 경험적 추론에 1~2)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

✗ 오답 풀이

① 서양과 중국에서는 모두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1)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1문단]
- 그러나 2)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3)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2문단]
- 그러면서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던 것인데 웅명우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4)형이상학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7문단]

▶ 서양과 중국에서는 모두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1~4)

② 서양 천문학의 전래는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 전통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1)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2)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던 것인데 웅명우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7문단]

▶ 서양 천문학의 전래는 1)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 전통을 재인식하는 2) 계기가 되었다.

③ 중국에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국가의 역할이 작용하였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16세기 말부터 중국에 본격 유입된 서양 과학은, 청 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曆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헌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다. [5문단]

▶ 중국에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국가(청 왕조)의 역할이 작용하였다. 1)

④ 중국에서는 18세기에 자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 주류가 되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끝 문단]

↳ 중국에서는 18세기에 자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 주류가 되었다.1)

★ 대립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6쪽 참고)

* 이 문제는 <서양과 중국이 공통> ↔ <서양과 중국이 차이>로 선지 ①, ⑤가 1대1 대립을 이룬다.

- ① 서양과 중국에서는 모두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 ⑤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 (☆정답)

지문과는 상관없이 선지 ①, ⑤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03. <과학 +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8위

#평가원 이의 제기 #1등급 가이드 #패턴 공략 #양립 #공통 선지의 법칙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44%	① 12%	② 8%	③ 13%	④ 44%	⑤ 23%

✓ 정답 풀이

④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1)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의 상충(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남.)을 피하고자 2)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행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3문단]

📖 해법 POINT

*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인식함. →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함. →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려고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임.

↳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2)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1)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브라헤가 어쨌거나 지구 중심설을 주장한 것이니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닌 게 맞지 않나요?

<답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선지 ④가 틀린 것은 아니다.

<의견> 1.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지 ④는 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답변> 무엇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면,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으로부터 자유로웠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는 없었을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킨 형이상학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1)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그러나 2)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3)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2문단]

↳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킨 형이상학을2~3) 토대로 한 것은 맞으나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고 보았다.1)

1등급 가이드

☞ 대개는 선지의 서술부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선지 ②와 같이 주어부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수식어가 길어 문장이 길면, 일단 <주어부+서술부>로 나누어 꼼꼼히 살펴보자. (~우주론은+천상계와~)

② 많은 수의 원을 써서 행성의 가시적 운동을 설명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갖는 것이었다.

66 지문속근거 찾기

•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1)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2문단]

↳ 많은 수의 원이 아닌,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의 가시적 운동을 설명해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갖는다고1) 한 이는 <코페르니쿠스>이다.

패턴 공략

▶ 전형적인 두 인물의 업적(견해, 입장 등)을 바꿔치기한 문제이다. 한 문단 안에서 인물 명이 2명 이상 나오면 각각의 특성(입장, 견해 등)을 잘 정리해 두자.

③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한 것이었다.

66 지문속근거 찾기

• 그와 달리 1)<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2)단순성이 충족되었다.~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3)<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2문단]

↳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1)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2)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있기3)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어휘 체크

* 양립: 두 가지가 동시에 따로 성립함.

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치로부터 수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은 것이었다.

66 지문속근거 찾기

• 그러나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1)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2)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3문단]

↳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치로부터 수립한2) <케플러>의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형이하학) 근거가 아닌, 신플라톤주의의 형이상학적1) 사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어휘 체크

* 형이상학: 사물의 본질, 존재의 근본 원리를 사유나 직관에 의하여 탐구하는 학문. → (초경험적)
* 형이하학: 경험적 대상의 학문. ↔ 형이상학

★ 공통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이번 문제는 선지 ③, ④가 <어떤 인물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의 관계에 대한 것>이 공통적이다.

- ③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한 것이었다.
- ④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 (☆정답)

지문과 상관없이 선지 ③, ④에 정답이 있을 가능성이 70% 이상이다.

04. <과학+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46위

#이해

정답률
52%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8% ③ 16% ④ 19% ⑤ 52%

정답 풀이

⑤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여 새 이론을 창안하였다.

66 지문속근거 찾기

• 17세기 <웅명우와 방이지> 등은 1)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2)성리학적 기론(氣論)에 입각하여 3)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6문단]

↳ <웅명우와 방이지> 등은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하면서2)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여 새 이론을 창안한 것은3) 맞지만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가졌다.1) 그래서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한다는 선지 ⑤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중국에서 서양 과학을 수용한 학자들은 자국의 지적 유산에 서양 과학을 접목하려 하였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7세기 웅명우와 방이지 등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1)성리학적 기론(氣論)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6문단]
-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2)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7문단]
- 3)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끝 문단]

↳ 중국에서 서양 과학을 수용한 학자들은 자국(중국)의 지적 유산에 서양 과학을 접목하려 하였다.1~3)

② 서양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를 집대성한 『사고전서』에 수록되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1)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를 망라한 총서인 『사고전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끝 문단]

↳ 서양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를 집대성한 『사고전서』에 수록되었다.1)

③ 방이지는 서양 우주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양의 이론과 구별되는 새 이론의 수립을 시도하였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7세기 웅명우와 <방이지> 등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리학적 기론(氣論)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1)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2)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수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그들의 태양계 학설은 브라헤의 영향이었지만,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氣)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3)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6문단]

↳ <방이지>는 서양 우주론의 영향을 받았지만1) 서양의 이론과 구별되는 새 이론의 수립을 시도하였다.2~3)

④ 매문정은 중국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천문학적 전통과 서양 과학의 수학적 방법론을 모두 활용하였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1)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2)매문정은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의 네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는 등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하였다. [7문단]

↳ <매문정>은 중국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천문학적 전통과2) 서양 과학의 수학적 방법론을1) 모두 활용하였다.

05. <과학 +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위

#이해 #보기 #3점 #평가원 이의 제기

정답률 19%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5%	② 19%	③ 21%	④ 30%	⑤ 15%
-------	-------	-------	-------	-------

✓ 정답 풀이

②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A]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1)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2)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 질점: 크기가 없고 질량이 모여 있다고 보는 이론상의 물체.

→ 질점의 크기 = 전체 질량

* 구 대칭: 어떤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서 같은 특성을 갖는 상태.

☞ 해법 POINT

- * <만유인력>: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
 <지구 전체> = 지구의 전체 질량 = 지구 질점의 크기
 <태양 전체> = 태양의 전체 질량 = 태양 질점의 크기

A.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
 = 태양 중심의 '질점(m)'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힘 + <지구 전체>가 태양 중심의 '질점(m)'을 당기는 힘

B.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
 = 지구 중심의 '질점(m)'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힘 + <태양 전체>가 지구 중심의 '질점(m)'을 당기는 힘

" m 은 동일한 질량을 나타내므로, <지구의 질량>과 <태양의 질량>이 A와 B의 크기를 비교하는 유일한 변수에 해당"

↳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점의 질량> =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점의 질량> = m 이므로,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1) <만유인력>의 크기는 태양과 지구의 질량만 비교하며 된다. 태양이 지구보다 질량이 크기2) 때문에 <만유인력>의 크기도 서로 다르다. 즉,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이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보다 크다.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질점은 어떤 물체와 외부의 물체 간의 상호 작용을 계산할 때 물체의 모든 질량이 한 점에 모여 있다고 가정하는 '이상적인 점', 즉 상상 속의 점으로 단순히 어떤 물체의 임의의 한 부분을 표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태양과 지구의 중심에 질점을 상정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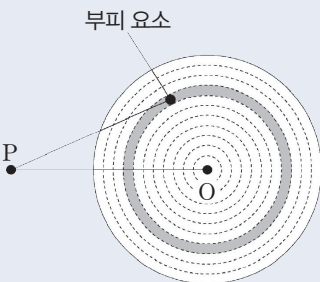
<답변> 만유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질점이 필요한데, 질점에 해당하는 이론상의 물체를 A, B처럼 가정하지 않고 태양과 지구를 예로 든 것이다. 만유인력을 비교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출제된 문제에서 태양과 지구가 실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태양과 지구가 질량을 가진 이론상의 물체라고 해도 선지의 정/오 판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문 전체의 흐름과 문제의 출제 의도에 따라 선지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 사전적 정의에 따라 선지의 완전성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이다.

X 오답 풀이

①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 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1)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 [A]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2)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해법 POINT

- * 반지름이 커지면 부피도 커짐. (☆자문에 없는 기본 상식!)
- * 질점 = 질량 = 부피 × 밀도 → <부피>와 <질량>은 정비례!
- * <만유인력>은 질량의 곱에 비례 → 질량이 커지면 <만유인력>도 커짐.

↳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라면, 반지름이 큰 구 껍질일수록 <부피>가 크기 때문에 <질량>도 크다. 1) <만유인력>의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므로, 2)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부피가 커지고 이에 따라 질량도 커지므로) <만유인력>은 커진다.

③ 질량이 M 인 지구와 질량이 m 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A]

이때 가정된 1)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 <보기>

2)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 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 에서 P 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해법 POINT

* <지구와 달> 사이의 (전체) 만유인력

$$= M \times m / \text{지구와 달의 중심 사이의 거리 제곱} \text{ ㉠}$$

- =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 =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
- = 지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달을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
- = 지구의 중심에서 달을 당기는 만유인력의 크기
- = 달을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지구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
- = 달의 중심에서 지구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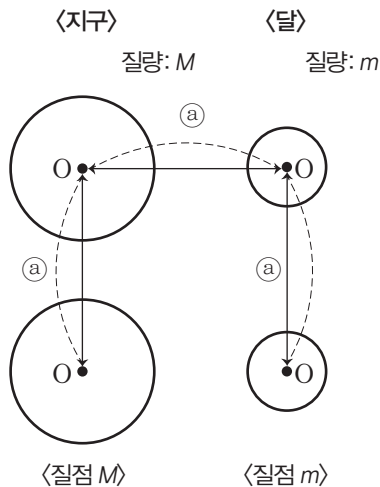
* <두 질점> 사이의 (전체) 만유인력

$$= M \times m / \text{지구와 달의 중심 사이의 거리 제곱} \text{ ㉠}$$

- = 질점 M 이 질점 m 을 당기는 힘 = 질점 m 이 질점 M 을 당기는 힘
- = 질점 M 을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질점 m 을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
- = 질점 M 의 중심에서 질점 m 을 당기는 만유인력의 크기
- = 질점 m 을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질점 M 을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
- = 질점 m 의 중심에서 질점 M 을 당기는 만유인력의 크기

* 거리 값이 ㉔로 같은 이유는 지구와 달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각각의 질점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 거리를 지구와 달의 중심 사이로 잡은 이유는 구 대칭인 구(지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달을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지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지구)이 그 구(지구)의 중심 O에서 달을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기 때문이다. (반대로, 구를 달로 당기는 대상을 지구로 해도 동일함)



↳ <지구와 달이 서로 당기는 힘>은 각각의 질량(M, m)을 곱한 것에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나눈 값으로 측정해 보면, $\langle (M \times m) / (\text{지구와 달의 중심 사이의 거리 값: ㉔}) \rangle$ 와 같다. 그리고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도 각각의 질량(M, m)을 곱한 것에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나눈 값으로 역시나 $\langle (M \times m) / (\text{지구와 달의 중심 사이의 거리 값: ㉔}) \rangle$ 와 같다. <만유인력>의 크기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지구와 달> 그리고 <두 질점 M, m >의 질량의 곱(Mm)과 거리(㉔)가 같다면 서로 동일한 힘(만유인력들의 총합)의 크기로 서로를 당긴다.

④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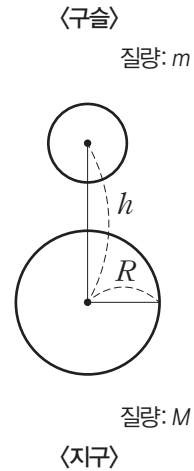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A]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1)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전체의) <만유인력>은, 2)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개별의)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1)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진다. 2)

⑤ 반지름이 R , 질량이 M 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 에 중심이 있는 질량이 m 인 구슬 사이의 만유인력은, $R+h$ 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 선지 ③의 해설과 같이, 질량($M \times m$)과 거리($R+h$)가 같다면 지구와 구슬 사이의 만유인력은 질량이 M,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같다.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저의 이의 제기는 ⑤번 선지에서 구슬의 반지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제자는 구슬이라는 물체를 하나의 질점으로 가정하고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등학생 수준에서 해당 문제 지문과 보기만을 통해 구슬이 지구에 비해 반지름이 확연히 작으니 하나의 점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 리는 만무합니다. 따라서 선지 ⑤의 보기에 <i. '구슬' 대신에 '질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든지>, <ii. 구슬의 반지름을 'r'로 정해 준 뒤에 만유인력 공식 중 거리에 대한 값을 ($R+h+r$)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설정의 ⑤번 선지가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했음을 인정하고 정답 처리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구슬의 반지름이 지구보다 작아도 너무 작다는 것은 모를 수 없는 상식이다. 반지름을 'r'로 하면 더 완벽한 선지는 될 수 있겠으나, 반지름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선지 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한다.

<의견> ⑤번 선지가 설정상의 오류가 있어 지적합니다. 일단 높이 h 에 중심이 있는 질량 m 인 구슬 사이의 만유인력은 $R+h$ 거리만큼 떨어진 M,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 일단 구슬이 밀도가 균일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 중심이라는 애매한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높이 h 에 무게 중심이 있는 질량 m 인 구슬이라고 정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⑤번 선지도 정답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문제의 발문을 살펴보면, <보기>를 참고로 한 지문 [A]에 대한 이해이다. 그래서 <보기>와 [A]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제된 내용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선 [A]는 밀도가 균질한 것을 대상으로 서술하고 있기(4번째 문장) 때문에 구슬이 밀도가 균일하다는 전제를 반드시 서술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만유인력이 당기는 힘(무게의 정의와 관련)을 나타내기 때문에 높이 h 에 중심이 있는 질량 m 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문제를 풀다 보면 처음 읽었던 발문을 고려하지 않고, 선지 안에서 자신의 배경지식과 연결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면 해당 선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발문은 문제 풀이의 기본! 항상 발문에 주의하자!)

06~09 LFA 키트의 원리와 특성

1 1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2**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3**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4****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5**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1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한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

- * **검사용 키트**: 건강 상태 진단 or 범죄 현장에서 혈흔 조사
- * **항원-항체 반응**: 해당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
- *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 휴대성 ↑, 분석 시간 ↓

2 **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객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2****LFIA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3**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4**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5**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6**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7**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8**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9****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LFIA 키트의 구조와 정상적인 검사 진행 과정

- * **LFIA 키트의 선**: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 판단
- * **LFIA 키트의 구성**: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
 - <시료 패드>로 흡수된 뒤 시료는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흡수 패드>로 이동.
- *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 표지 물질+특정 물질
 - 표지 물질: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낸.
 - 특정 물질(표지 물질에 붙어 있음):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름.
- * **반응막에 있는 검사선과 표준선**: 띠 모양의 항체 두 가닥.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이 검사선, 시료 패드와 먼 쪽이 표준선
- * **표지 물질의 발색 반응**
 - 검사선의 발색 반응선 → 목표 성분의 유무 판정
 - 표준선의 발색 반응선 → 검사 정상 여부 판단

1

- 3**
- * '항원 vs 항체'처럼 비슷한 말이 나오면 둘의 차이점과 해당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거나 이를 찾아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 * '다양한 형태의 키트'를 통해 키트의 여러 종류가 나올 수 있음을 예측해야 한다. 이때 문단 내에서 그 종류가 나열되어 뒤섞여 나오면, 킬러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 4**
- * 첫 문단에서 나타나는 개념(항원-항체 반응)과 설명(항원과~면역 반응)은 매우 중요하므로 동그라미와 밑줄로 표시를 잘 해 두어야 한다.
- 5**
- *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각 키트별 특성과 차이점에 주목!
 - * '높고'에 ↑, '짧은'에 ↓ 표시를 해서 시각화해 두자. 국어 3등급 이하라면 이런 도형 표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2

- ※ 한 문단 안에서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도형 표시와 밑줄로 구조화를 잘 해 두어야 문제 풀이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 2~4**
- * 과학 지문에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와 '이루어진다'라는 서술어에 주목! 대상의 각 구조가 순서대로 나열(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되어 있으면, 순서와 위치에 맞는 각 요소의 역할을 정확히 체크해 두어야 한다. 이들을 뒤바꾼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4**
- * A(표지 물질)와 B(특정 물질)가 붙어 있다? A와 B가 한 공동체로서의 특징과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각각의 특징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A & B>, <A vs B>를 함께 고려!
- 5**
- * '특정 물질은~종류가 다르다'? '특정 물질의 여러 종류가 또 나오려나?' 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쯤 되면 이 지문이 아주 복잡하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음을 판단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 6**
- * A(항원)-B(항체)의 구조에서 '항체(B)'가 단독으로 나왔으니, 앞으로 '항원(A)'이 나올 것임을 예상하고 혹시 '항원(A)'이 직접적으로 안 나오면 이를 대체할 무엇인가를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 (6번 문제 선지 ②와 관련!)
 - * '가까운 쪽'처럼 거리에 따른 A(검사선)와 B(표준선)를 구별해야 한다.
- 7**
- * 과학 지문에서 <A하면 B에 의해 C하다.>와 같은 구조는 반드시 문제화된다. (6번 문제 선지 ④와 관련됨!)
- 8~9**
- * 문장 구조가 유사한데 그 주체가 다를 경우, 잘 구분해야 한다.
 - 8**: 검사선-반응선 발색-목표 성분 유무 판정
 - 9**: 표준선-반응선 발색-검사 정상 진행 여부 판정

3 1. LFA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 되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2.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3.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4.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5. 한편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다. 6.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7.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8.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경쟁 방식은 항생 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3 LFA 키트의 제작 방식: 직접 방식, 경쟁 방식

- * 직접 방식: 시료의 목표 성분이 복합체의 특정 물질(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에 결합 → 다시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 → 검사선 발색 → 시료에서 목표 성분(세균,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이 검출된 것으로 판정
- * 경쟁 방식: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특정 물질(목표 성분의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 서로 경쟁 → 시료의 목표 성분이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 방해 → 검사선 발색× → 시료에 목표 성분(항생 물질 등) 많은 것으로 판정

4 1.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2.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3.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4.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5.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음성이라고 한다. 6. 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목표 성분이 있다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7.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4 키트의 정확성 측정과 관련된 요인: 양성, 음성

- * 키트의 정확성 측정: 검사를 여러 번 실시 → 결과 분석
- * 양성: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다고 판정
 - 진양성: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음.
 - 위양성: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음.
- * 음성: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
 - 진음성: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음.
 - 위음성: 실제로는 목표 성분이 있음.

3 ※ 문장이 전반적으로 길다면 독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끊어 읽기가 중요한데 크게 (주어부+서술부)로 끊는 것이 좋다. 다른 수식 정보는 놓쳐도 <주어+서술어를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1. ~특정 물질은 / ~항체이다.
2. ~목표 성분은 / ~결합하고, 이후~결합한다.
3. ~특정 물질은 / ~목표 성분 자체이다.
4. ~목표 성분이 / ~경쟁한다.
5. ~검사선이 / 발색되지 않는다.
6. 직접 방식은 / ~이용하고 // 경쟁 방식은 / ~이용한다.

1 * '검사선의 발색 유/무'에 따른 두 방식(직접 방식, 경쟁 방식)의 차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2 * 복합체의 특정 물질 = 항체

3 * 조건(~있다면) + 과정 1(~결합하고) + 과정 2(~결합한다)의 구조, 과정 순서에 유의하자.

5 * 두 번째 방식(경쟁 방식)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 내용과 눈에 띄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전 방식(2~4에서 설명한 직접 방식)과의 차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 복합체의 특정 물질 = 항체×, 목표 성분 자체○

- 2에서 언급했던 '복합체의 특정 물질'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2(직접 방식을 설명하는 부분)와 달리 5(경쟁 방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둘이 차이가 있음을 알아채야 한다.

* (A 부정(~아니라)+B 긍정)의 구조, A와 B를 뒤바꾼 선지가 가공되기도 한다.

7 * <원인+결과>의 구조,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논리학의 기본이 된다.

8 * '직접 방식은 큰 단백질~경쟁 방식은~크기가 작은~' <큰 ↔ 작은>이라는 대립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4 ※ 한 문단에 개념이 무려 6개나? 그러나 당황하지 말고 잘 정리해 두자. 이를 활용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된다.

3~6 * <설명+개념어>의 형태로, 흔한 <개념어+설명>보다는 인지가 잘 안 되니 개념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다.

5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

5 키트 정확도의 개념과 종류

- * 정확도: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뉨.
 - 민감도: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는 경우 → 양성 판정
 - 특이도: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 → 음성 판정
- * 민감도 ↑ & 특이도 ↑ → 키트의 정확도 ↑

5
1, 3, 4
* '확률', '비율'을 통해, 계산 혹은 상대적 비교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4
* 마지막 문단까지도 개념이 나온다. 정말 이 지문은 개념 양이 폭발한다. 하나하나 잘 체크해 두어야 한다.

최심의 Q&A

Q 왜 목표 성분을 항원이라 적어 주지 않은 거죠? 읽으면서 추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인가요?

A 그렇다. 다음과 같이 항원을 목표 성분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 1)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1문단]
- 2)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항원)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2문단] → 지문 2)에는 항체만 있고 항원은 없다. 그런데 항체로 인해 목표 성분을 검출하므로 항체가 목표 성분과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를 지문 1)의 항원-항체 반응으로 연결하면 '항원이 곧 목표 성분'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06.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44위

#알 수 있는 내용 #대립 선지의 법칙

정답률 51%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10%	③ 51%	④ 15%	⑤ 19%

정답 풀이

③ LFIA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1)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2)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문단]

↳ 검사선의 발색은 목표 성분의 유무를, 표준선의 발색은 검사의 정상적인 진행 유무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정상적인 키트라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의미로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게 된다. 1) 다시 말해, 검사

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목표 성분의 유무에 따라) 검사선은 발색되지 않아도 표준선은 발색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LFIA 키트에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2)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2문단]

지문 POINT

- 1)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 시료 패드는 시료를 흡수
- 2)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 흡수 패드는 시료를 흡수

↳ LFIA 키트에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1, 2)

② LFIA 키트를 통해 검출하려고 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항체 반응의 항원에 해당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러한 필요에 따라 1)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1문단]
- 일반적으로 한 가지 2)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2문단]

📌 해법 POINT

* 항원에 대한 직접적인 개념 설명이 지문에 없기 때문에 관련 문장을 통해 이를 추측해야 한다.

↳ LFIA 키트는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한 것1)으로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수단이 항체이기2) 때문에 목표 성분은 항원에 해당한다.

④ LFIA 키트에 표지 물질이 없다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더라도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2)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2문단]

↳ LFIA 키트에 있는 표지 물질은 반응선을 나타내게1) 하고 이 반응선을 통해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기2) 때문에 표지 물질이 없다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더라도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⑤ LFIA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할 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2문단]
- 2)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3)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4문단]

↳ LFIA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할 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목표 성분이 들어 있다고 판정할 수 있으며 이는 위양성에 해당한다.3) 이 위양성도 검사선이 발색을 통해 목표 성분이 들어 있다고 판정하는 양성의 종류이므로1~2)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 대립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6쪽 참고)

* 위 문제는 검사선 발색 유무에 따라, ③: 검사선 발색 ↔ ⑤: 검사선 발색x)으로 1 대 1 대립을 이룬다.

- ③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 ⑤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정답)

그래서 지문 및 문제에 상관없이 ③, ⑤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07.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0위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42%	① 42%	② 9%	③ 11%	④ 26%	⑤ 12%

✓ 정답 풀이

① ⑤은 ④과 달리, 시료에 들어 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을 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1)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2)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한편 <경쟁 방식>에서 3)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다.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3문단]

↳ ①<직접 방식>의 경우 시료의 목표 성분은 일차적으로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항체)과 결합1)한 후 (반응막에 있는) 검사선에 도달2)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④<경쟁 방식>의 경우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의 특정 물질이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항원) 자체3)이다. 이는 결합 패드에는 항체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다음 단계인 (반응막에 있는) 검사선에 도달하기 전에는 항체와 결합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 ①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② ⑤은 ④과 달리,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1)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한편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다.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2)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3문단]

↳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 모두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기1, 2) 때문에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 ㉡ 모두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존재한다.

③ ㉡은 ㉠과 달리, 시료가 표준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검사선에 먼저 도달하겠군.

66 지문 속근거 찾기

• 1)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2)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2문단]

↳ 시료가 있는 시료 패드가1) 표준선보다는 검사선에 가깝기2) 때문에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 모두 시료는 검사선에 먼저 도달하게 된다.

④ ㉡은 ㉠과 달리, 정상적인 검사로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반응막에 아무런 반응선도 나타나지 않았겠군.

66 지문 속근거 찾기

• 1)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2)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3)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문단]

↳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에서 모두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고1) 정상적으로 검사가 진행되었으므로3)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날 것이다.2)

⑤ ㉠과 ㉡은 모두 시료에 들어 있는 목표 성분이 표지 물질과 항원-항체 반응으로 결합하겠군.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표지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1)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항원)은 이 항체(표지 물질)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한편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2)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다.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3문단]

㉠ 지문 POINT

- 목표 성분 = 항원
- 직접 방식: 특정 물질 = 표지 물질 = 항체
- 경쟁 방식: 특정 물질 = 표지 물질 = 항원 ≠ 항체

↳ ㉠<직접 방식>에서는 시료에 들어 있는 목표 성분이 표지 물질과 항원-항체 반응으로 결합1)하나 ㉡<경쟁 방식>에서는 복합체의 특정 물질(여기서는 항원을 가리킴.)과 시료의 목표 성분이 모두 항원을 가리키며2) 따라서 항원-항체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08. <과학>

진체 문항 중 난이도: 28위

#보기 제시 #틀어갈 말

정답률 4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5%	② 12%	③ 12%	④ 44%	⑤ 7%

정답 풀이

④ A-위음성 B-진음성

66 지문 속근거 찾기

-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음성>이라고 한다. 이 경우 실제로 1)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2)목표 성분이 있다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4문단]
- 3)<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4)<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끝 문단]

㉠ 지문 POINT

- 민감도 비율: 키트 양성 판정/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는 경우
- 특이도 비율: 키트 음성 판정/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
- 음성: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
 - 진음성: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음.
 - 위음성: 실제로는 목표 성분이 있음.

↳ <민감도>가 높으려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키트의 양성 판정>이 많아야 한다.3) 또한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는데도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는 위음성(A)2)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는 높다.

<특이도>가 높으려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 음성 판정>이 많아야 한다.4) 따라서 목표 성분이 없는 시료에 대해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는 진음성(B)1)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는 높다.

09.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4위

#보기 제시 #이해 #반응

정답률 36%	선지별 선택 비율				
	① 8%	② 36%	③ 16%	④ 22%	⑤ 18%

정답 풀이

② ㉔의 결합 패드에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 있는 복합체가 들어 있었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최근에 기존 방법보다 정확도는 낮으나 저렴한 비용으로 1)살모넬라균만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㉔LFIA 방식의 새로운 키트가 개발되었다고 한다.

- 2)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표지) 물질은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살모넬라균)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3)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3문단]

📌 해법 POINT

- 살모넬라균 = 목표 성분 = 검출 대상
- 표지 물질 = 특정 물질

↳ <보기>의 <살모넬라균>은 키트를 통해 검출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1) 세균을 검출하는 <직접 방식>에서, 3) <목표 성분>에 해당한다. 2)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 안의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살모넬라균)이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2) 따라서 ㉔의 결합 패드에 있는 표지 물질에는 살모넬라균이 붙어 있는 복합체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가 붙어 있는 복합체가 들어 있을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㉔를 개발하기 전에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러한 필요에 따라 1)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2)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 [1문단]

↳ LFIA 키트는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 1)하므로 ㉔를 개발하기 전에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2) 한다.

③ ㉔를 이용하여 음식물의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려면 시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1)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2문단]

↳ LFIA 키트는 <액상의 시료>에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1) ㉔를 이용하여 음식물의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려면 시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④ ㉔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의심 시료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특이도보다 민감도가 높은 것이 더 효과적이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1)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2)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끝 문단]

📌 지문 POINT

- 민감도 비율: 키트 양성 판정 /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는 경우
- 특이도 비율: 키트 음성 판정 /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

↳ 살모넬라균 오염 의심 시료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시료에 목표 성분(살모넬라균) 성분이 없는 경우 음성으로 판정하는 특이도 2)보다는 시료에 목표 성분(살모넬라균)이 있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양성으로 판정하는 민감도 1)가 높은 것이 더 효과적이다.

⑤ ㉔를 이용하여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에도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1)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2)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3)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4문단]

↳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지만 키트가 목표 성분이 들어 있다고 판정하는 1, 2) <위양성>을 현실에서 배제할 수 없기 3) 때문에 ㉔를 이용하여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에도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지문 난이도 ★★★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27~31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14위

01 ~ 05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양자 역학과 비교전 논리

1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1 고전 역학과는 달리,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양자 역학

- * 고전 역학: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 공존×
- * 양자 역학: 미시 세계의 배타적인 상태 공존○

2 1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 보자. 2>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3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4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5>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6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7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8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9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2 거시 세계와는 달리, 관찰이 상태를 결정하는 미시 세계

- * 거시 세계: 팽이의 회전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 → 관찰을 통해 알게 됨.
- * 미시 세계: 팽이의 회전 방향 공존 → 관찰을 통해 방향이 정해짐. (by 양자 역학) → 아인슈타인은 회의적으로 봄.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1
* 문장이 길면 쉼표에서 흐름을 한 번 끊어 주자.
* 부정적 서술은 키워드 밑줄× 표시가 효율적이다. (공존×)

2
* ‘그런데’, ‘그러나(하지만)’, ‘이와 달리’ 등 전환 및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면 주의가 필요하므로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절하다. (★문맥의 역행점 이후에는 이전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제시되므로 언제나 주의 깊게 살펴보자!)

* <A에 의한 B> → A와 B는 같은 맥락으로 묶자!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을 통해 ‘양자 역학’은 ‘미시 세계’와 관련됨을 추측할 수 있다.

1~2
※ 문단의 큰 흐름이 반대의 맥락이면, <고전 역학=거시 세계 ↔ 양자 역학=미시 세계>, <공존× ↔ 공존○>처럼 대립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한다. 이를 큰 줄기로 본론이 서술되고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번 문제에서 ‘양자 컴퓨터’와 ‘일반(→ 고전) 컴퓨터’가, 5번 문제에서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이 관련되어 출제됨!)

2

[거시 세계: 1~3문장] ↔ [미시 세계: 4~끝 문장]

※ 첫 독해 시, 세부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문단의 큰 흐름만은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1
* 문장이 길면, 대개 포인트는 쉼표 이후의 후반부(→ 거시 세계)에 있다!
* <A를 이해하기 위한 B의 상황> → 해석 주의!
‘미시 세계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한 ‘거시 세계의 상황’ (미시 세계의 상황×)

2, 5
* ‘이’, ‘그’,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 가는 지시 대명사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4
* 글의 흐름이 바뀌는 곳이므로 ‘이와 달리’에는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이후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의 차이점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8
* ‘달리’라는 역주행 어휘가 나왔지만, 결국엔 ‘미시 세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맥락(‘미시 세계’)인 것이다.
*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 ‘양자 역학’과 ‘미시 세계’는 한 맥락이라는 것은 계속 붙잡고 가야 한다.

9
* <원인+결과>의 구성.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3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이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3**미시 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 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4**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3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에 따른 상식적 생각에 대한 의문
 * 미시 세계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 → 현실로 구현된 초고속 양자 컴퓨터 → 거시 세계의 상식적인 생각에 의문 → 논리학과 관련성

4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3**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들어맞는다. **4**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5**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6**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 보자. **7**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8**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9**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4 '참인 동시에 거짓인 프리스트의 거짓말쟁이 문장'
 * 고전 논리: 참과 거짓만 존재 → 어떤 진술이든 참 혹은 거짓 → 상식적 생각
 * 프리스트
 - 참과 거짓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이 존재
 - 거짓말쟁이 문장 제시(자기 지시적 문장,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
 *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 자기 지시적 문장(참이며, 자기 자신을 가리킴)
 *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
 -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참이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 아님.)

3

최선의 Q&A

Q 미시 세계에 대한 연구 성과가 왜 거시 세계에 대한 생각에 의문을 던지죠? 양자 역학에서도 미시 세계에서뿐만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A 지금까지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거시 세계의 관점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다. 하지만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미시 세계의 연구 성과로 인해 거시 세계의 관점이 정말 상식적이고 맞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양자 역학은 오직 미시 세계에서만 관련된다.

4
 * <미시 세계 ↔ 거시 세계>와 '논리학'과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며 다음 내용을 읽어 나가야 한다.
 * <무엇에 의문을 갖다?>
 → 무엇이 불완전한 상태(문제점, 모순, 결핍, 오류 등에 있음)를 전제함. (☆'논리학'의 불완전함이 다음 문단에 소개될 예정!)

4
 [고전 논리: 1~3문장] - [프리스트: 4~끝 문장]
4
 * 인물이 최초로 등장하면 일단 동그라미! 인물 자체가 곧 입장, 가치관, 세계, 이론이 된다.
 * '프리스트'는 '고전 논리'를 보완한다. 그렇다면 '프리스트'와 글 전체의 큰 줄기인 <미시 세계? 거시 세계?>와의 호응성을 따져 봐야 한다.
 → **3** 문단에서 '미시 세계'는 '거시 세계'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으므로, '고전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보완하는 '프리스트'는 '미시 세계'에 해당하며 '거시 세계'는 '고전 논리'에 해당한다.
 [고전 논리 = 거시 세계] ↔ [프리스트 = 미시 세계]

5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2**이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3**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4**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5**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다. **6**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7** 반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8**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 **9**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10**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11**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12**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13** 특히 그는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5 거짓말쟁이 문장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

- * '이 문장은 거짓이다.'
 - 거짓말쟁이 문장 / - 자기 지시적 문장 (자신을 가리키며 설명)
 - '참인 동시에 거짓' 부여 (by 프리스트)
 - 참일 경우 -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 문장이 참이라고 말하므로)
 - 거짓일 경우 -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말하므로)
- * 프리스트: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
 -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유사

6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교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2** 한편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3** 전건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4**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5** 이는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6**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7**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8** 비록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 LP: '역설의 논리(Logic of Paradox)'의 약자.

6 비교전 논리인 LP의 의의

- * 프리스트의 LP: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 문장으로 다룸
 - 몇몇 추론 규칙 성립 X
- * 전건 긍정 규칙: 조건문 'P(전건)이면 Q(후건)이다.'
 - 조건문과 P가 '참'이면 Q도 반드시 '참'.
- * LP 전건 긍정 규칙 성립 조건: 조건문과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함. but → LP에서 P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는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P는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Q는 '거짓'이 됨.

5

5~6/8~9

- * <결과+원인>의 구성.

13

- * 프리스트(미시 세계)는 '양자 역학'과 관련하여 글 전체의 큰 흐름을 다시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한다.
- [고전 논리=거시 세계] ↔ [프리스트=미시 세계=양자 역학]

6

- ※ <거시 세계> ↔ <미시 세계>라는 큰 줄기를 부여잡고, 이에 해당하는 세부 가치를 지속적으로 더해 가자.
- [고전 논리=거시 세계=전건 규칙]을 [미시 세계=프리스트=LP=양자 역학]이 보완!

1

- * '고전 논리'의 문제점을 '프리스트'가 보완(LP)함. → (프리스트=LP)

4

- * 고전 논리=전건 긍정 규칙 성립

01. <과학 +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41위

#공통 선지의 법칙 #문맥 고려 #의미 추론

정답률 76%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	② 4%	③ 76%	④ 15%	⑤ 3%

정답 풀이

③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1)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 <관찰과 상관없이 물체의 상태는 정해져 있음>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①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2문단]

지문 POINT

※ 아인슈타인(거시 세계): 관찰이 물체의 상태 결정×
 ⇔ 양자 역학(미시 세계): 관찰이 물체의 상태 결정○

↳ <아인슈타인>은 관찰과 상관없이 물체의 상태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에1)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는 선지 ③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달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달이 존재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1)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①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2)<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2문단]

↳ 관찰 자체가 원인이 되어 물체(달)의 상태(존재)를 결정하는 것이므로1) <아인슈타인>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양자 역학>에 해당한다.2)

②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 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 달의 질량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 것은 관찰에 의한 것인데,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선지 ②는 적절하지 않다.

④ 달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선지 ①의 근거 지문 참고]

↳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선지 ④는 관찰이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1)는, (아인슈타인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양자 역학>에 해당한다.2)

⑤ 달이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이므로 관찰 이후에 달이 있을 가능성은 반이다.

[선지 ①의 근거 지문 참고]

↳ <관찰 이후에 달이 있을 가능성>을 말하는 선지 ⑤는 관찰이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1)는, (아인슈타인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양자 역학>에 해당한다.2)

★ 공통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위 문제의 선지 ②, ③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가 공통된다.

- ②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 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 ③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정답)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②, ③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02. <과학 +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66위

#보기-선지의 법칙 #보기 제시 #이해 #최협의 Q&A

정답률 59%	선지별 선택 비율				
	① 9%	② 8%	③ 14%	④ 59%	⑤ 10%

정답 풀이

④ 양자 컴퓨터의 각각의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네 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16개이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보기>

1)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하고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n개 존재한다.~하지만 2)공존의 원리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지문 POINT

※ n자리 이진수 = 2^n개 (4자리 이진수 = 2^4개 = 2×2×2×2 = 16개)

↳ <양자 컴퓨터>의 각각의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2)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네 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16개(2^4)이다.1)

최선의 Q&A

Q 네 자리 이진수에서 첫 번째 자리에 0이 오면 안 되니까 $2 \times 2 \times 2 = 8$ (개), 그래서 ④를 틀린 선지라 판단했는데 아닌가요?

A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n개 존재한다고 명백히 지문에 나와 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문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자.

오답 풀이

① 양자 컴퓨터는 상태의 공존을 이용함으로써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보기>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 중 하나만을 담을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인 00, 01, 10, 11을 1)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네 번에 걸쳐 처리한다. 하지만 2)공존의 원리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를 3)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지문 POINT

※ 일반 컴퓨터: 두 자리 이진수, 2비트 이용, 네 번에 걸쳐 처리
양자 컴퓨터: 두 자리 이진수, 2비트 이용, 한 번에 처리

↳ <양자 컴퓨터>는 상태의 공존을 이용함으로써 2) <일반 컴퓨터>와 동일한 2비트를 이용하여 처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1, 3) 비트는 동일하기 때문에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선지 ①은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② 3비트를 사용하여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려고 할 때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속도가 6배 빠르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보기>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면, 1)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처리 횟수와 연산 결과의 속도는 반비례)

2)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하고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n개 존재한다. 3)<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 중 하나만을 담을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인 00, 01, 10, 11을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네 번에 걸쳐 처리한다. 하지만 공존의 원리를 이용하는 4)<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지문 POINT

※ <일반 컴퓨터>: n자리 이진수의 개수 = $2^n =$ 처리 횟수(2~3)
→ 3자리 이진수의 개수 = $2^3 = 8 =$ 처리 횟수(n자리 이진수에는 n비트 사용)

※ <양자 컴퓨터>
→ 단 한 번에 처리 가능(4) (n자리 이진수에는 n비트 사용)

↳ <일반 컴퓨터>는 3비트를 사용하여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려고 할 때, 8번(2^3)의 처리 횟수가 필요하다. 2~3) 이에 비해 <양자 컴퓨터>는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4)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에 비해 처리 횟수가 1/8로 줄어들며, 속도는 8배 빠르다. 1)

③ 한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 1비트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같다.

[선지 ②의 근거 지문 참고]

↳ 한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 1비트를 사용하면, <일반 컴퓨터>는 2번(2^1)의 처리 횟수가 필요하다. 2~3) 이에 비해 <양자 컴퓨터>는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4) 그래서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같지 않다.

⑤ 3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는 6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여섯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보다 2배 빠르다.

[선지 ②의 근거 지문 참고]

↳ n자리 이진수에 n비트를 사용한다면, 동일하게 연산을 단 한 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도 동일하다. 1, 2, 4)

★ 보기-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8쪽 참고)

* 보기-선지의 대응성만으로 정답이 될 확률은 매우 높다.

<보기>의 핵심: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하고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n개 존재
④: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네 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16개 (☆정답)

03. <과학 +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82위

#이해 #평가원 이의 제기

정답률 6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64%	③ 8%	④ 13%	⑤ 10%

정답 풀이

②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라는 자기 지시적 문장은 ‘거짓’이 아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4문단]

📌 지문 POINT

※ 자기 지시적 문장: 자기를 가리키는 대명사 '이'가 사용됨.

➡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이기 때문에 <자기 지시적 문장>에 해당하며 1) ‘거짓’이 아니다. 곧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는 진짜 (참)인 <자기 지시적 문장>이라는 말이다.

✖ 오답 풀이

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에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없으므로 자기 지시적 문장이 아니다.

③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이치 논리에서 자기 지시적인 문장이 될 수 없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고전 논리는 1)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4문단]
-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2)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5문단]

📌 지문 POINT

※ 고전 논리의 이치 논리: ‘참’의 진리치 & ‘거짓’의 진리치

➡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에서 1)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2) 다만 이치 논리로는 그 진리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것뿐이다.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이치 논리인 고전 논리에는 ‘참’ or ‘거짓’이라는 진리치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5문단 전체 내용을 통해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문장이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치 논리에서는 진리치가 ‘참’, ‘거짓’ 이외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문장은 이치 논리에서는 서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지 ③도 적절합니다.

<답변> 5문단에서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문장이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은 프리스트의 비교전 논리에 해당한다. 지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면 적절성과는 상관없이 선지와 역지로 연결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의견> 이치 논리에서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문장을 다룰 수가 없으므로, ‘자기 지시성’ 여부를 따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시적인 문장이 될 수 없다는 선지 ③도 적절합니다.

<답변> 5문단에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문장이 자기 지시적 문장이라고 명백히 진술되어 있다. 지문에 근거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자.

④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자기 지시적 문장에도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2)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4문단]

📌 지문 POINT

※ 고전 논리의 이치 논리: ‘참’의 진리치 & ‘거짓’의 진리치

➡ <자기 지시적 문장>의 예인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참’이라는 2) <고전 논리>의 진리치를 부여하고 있다. 1)

⑤ 비교전 논리에서는 모든 자기 지시적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들어맞는다. 1)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 (비교전 논리) [4문단]
- 2)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그렇다면 3)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5문단]

➡ <프리스트>의 입장인 비교전 논리에서는 1)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하는데, 3) <거짓말쟁이 문장>은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만>을 나타낸다. 2) 그래서 <모든> 자기 지시적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한다는 선지 ⑤는 적절하지 않다.

04. <과학 +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46위

#추론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52%	① 8%	② 12%	③ 23%	④ 5%	⑤ 52%

정답 풀이

⑤ 고전 논리에서 ㉠과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1)㉠“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6문단]

↳ <고전 논리>에서는 ㉠(조건문)과 P(그것의 전건)가 '참'이면, Q(그것의 후건)도 반드시 '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오답 풀이

① LP에서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은 '거짓'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러나 1)LP에서 조건문의 전건(P)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Q)은 '거짓'인 경우, 2)조건문(㉠)과 전건(P)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3)후건(Q)은 '거짓'이 된다. [6문단]

↳ LP에서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1) ㉠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된다. 2)

② LP에서 ㉠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선지 ①의 근거 지문 참고]

↳ LP에서 ㉠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2) Q는 '거짓'이 된다. 3)

③ LP에서 ㉠과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1)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2)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비록 3)<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6문단]

↳ LP에서 ㉠과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되려면 2)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되어야 한다. 1) 그러나 LP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3) 선지 ③은 적절하지 않다.

④ 고전 논리에서 ㉠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 Q는 '거짓'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1)㉠“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6문단]

↳ <고전 논리>에서 ㉠과 P가 참이면 Q는 반드시 참이다. 1) 따라서 ㉠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 Q도 '거짓'이 아니다.

05. <과학 + 인문>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5위

#항목 후순위의 법칙 #보기 제시 #이해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37%	① 6%	② 18%	③ 30%	④ 9%	⑤ 37%

정답 풀이

⑤ B는 A와 달리 (=)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1)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2)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1문단]

→ (<고전 역학>과 <미시 세계>는 대조적)

•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 보자. ~3)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4)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5)<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2문단]

• 6)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7)'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 (<미시 세계> 혹은 '거시 세계') 이외에 8)'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 (<미시 세계>) [4문단]

• <보기>

9)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고, 10) B는 LP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도 받아들인다.

- (ㄱ)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라는 상태에 있다. → <미시 세계>
- (ㄴ)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와 배타적인 상태에 있다. → <미시 세계>
- (ㄷ) 반지름 5cm의 팽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 <거시 세계>
- (ㄹ) 반지름 5cm의 팽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 <거시 세계>

📖 지문 POINT

※ A: <고전 역학=고전 논리>

-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x1) → '거시 세계'
- 관찰과 상관없이 물체의 상태 결정3) → '거시 세계'
- 모든 진술은 '참' 아니면 '거짓'6) → '미시 세계' 혹은 '거시 세계'

B: <LP=양자 역학=프리스트의 입장>

-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O2) → '미시 세계'
- 관찰이 물체의 상태 결정4) → '미시 세계'
- '참' 혹은 '거짓' 진술 이외에7) → '미시 세계' 혹은 '거시 세계'
- '참인 동시에 거짓도 가능8) → '미시 세계'

↳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기(9)에 (ㄷ)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6) 하지만 B는 (ㄷ)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있는 <미시 세계>를 수용하는2, 5, 10) B가 (ㄷ)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하려면, (ㄷ)이 관찰이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4) <미시 세계>이어야 하는데, 관찰과 관련된 말이 없는 (ㄷ)은 관찰과 상관없이 물체(팽이)의 상태(회전 방향)가 결정된다는 <고전 역학>의 <거시 세계>에 해당하기3) 때문이다.

요컨대, A는 (ㄱ)~(ㄹ) 중 어떤 진술이라도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고4) B는 <미시 세계>에 해당하는 (ㄱ), (ㄴ)에만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7~8)

✖ 오답 풀이

① A는 (ㄱ)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 외에 다른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기(9)에 (ㄱ)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 외에 다른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6)

② B는 (ㄱ)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ㄷ)은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수용하는2, 5, 10) B가 <미시 세계>에 해당하는 (ㄱ)이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8) 주장하지만, <거시 세계>에 해당하는 (ㄷ)은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6)

③ A와 B는 모두 (ㄷ)이 '참'일 때 (ㄹ)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기(9)에 어떤 진술이라도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보는 입장이다.6) 그래서 (ㄷ)이 '참'일 때 배타적인 (ㄹ)은 '거짓'이 되어야지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프리스트>의 입장을 수용하는10) B 역시도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을 구분하므로7) (A와 마찬가지로) <거시 세계>에 해당하는 (ㄷ)이 '참'일 때 (ㄹ)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④ A는 B와 달리 (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수용하는2,10) B는 <미시 세계>에 해당하는 (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8) 이와는 달리,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임(9)으로5) (ㄴ)이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진술할 뿐6)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 1항목 후순위의 법칙 ★

(자세한 내용 9쪽 참고)

* 선지 ①, ②가 각각 A 혹은 B 1개만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다른 선지보다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를 고려하여 항목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 선지 ③~⑥를 먼저 집중해서 본다면 정답을 조금이라도 빨리 찾을 수 있다.

06~09 반추 동물의 탄수화물 분해

1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2**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3**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4**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5**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살아간다.

1 탄수화물 분해에 관한 사람과 반추 동물의 특성

- * **탄수화물**
 - 동물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원
 -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
- * **사람**: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 → 에너지원으로 이용(섬유소는 포도당으로 분해×)
- * **반추 동물**: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

2 위(胃)가 넷으로 나누어진 **반추 동물**의 첫째 위인 **반추위**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2** 반추 동물의 반추 위에는 산소가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성장하는 **반추위 미생물**들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그 중 **피브로박터 속 시노젠(F)**은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다. **4** 식물체에서 **셀룰로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5**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 수를 늘림으로써 성장한다. **6** 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하고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7** 반추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에도 쓰인다. **8** 한편 반추위에서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9** 이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피온산**은 반추 동물이 간(肝)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2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의 대사 과정

- * **반추 동물**
 - 첫째 위인 반추위에 여러 종류의 미생물(피브로박터 속시노젠이 대표적)이 서식
 -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 및 배출
- *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 셀룰로스 노출 → 포도당으로 분해 →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활용 → 생장(개체 수 ↑)
- * **대사산물**: 아세트산, 숙신산
- * **아세트산**: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 →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성과 체지방 합성에 이용.
- * **숙신산**: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소진 → 생성된 프로피온산을 포도당 합성 재료로 이용

- 1**
- 2**
- * <‘섬유소’와 ‘비섬유소’>를 키워드로 표시하고 이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올 것임을 예측하면서 읽어야 한다.
- 3**
- * <비섬유소를~> “응? 2번째 문장에서 나열된 순서인 ‘섬유소’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비섬유소’가 먼저 나왔네!! ‘섬유소’는 안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딘가에 ‘섬유소’가 나와 ‘비섬유소’랑 비교되었지라고 짐작하며 다음 문장을 읽어야 한다.
- 4**
- * <섬유소를~> 이번 문장에서 ‘섬유소’가 바로 나왔다.
- 3~4**
- * <곡류의 녹말과 같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소, 양, 사슴과 같은> 등의 군더더기 직유 표현을 걸러 내면 포인트와 키워드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
 - * <반면>은 앞의 내용과는 반대 혹은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아래 예문과 같이 주체가 달라지는 양상이 대부분인데, 예 연필은 감정이 없다. 반면, 사람은 감정이 있다.
- 하지만 이번 지문에서는 주체(사람)는 동일하고 객체(비섬유소 vs 섬유소)를 달리했음에 유의하자. 주체는 다음 문장에서 달라지지만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있음에 한 번 더 유의하여 읽어야 한다.
- 5**
- * <~이지만>과 같이 대립 맥락을 나타내는 말의 전+후 문장 중 뒤의 문장에 무게감(포인트+키워드)을 두자.

- 2**
- 1**
- * <여러 종류 미생물?> 그럼 앞으로 반추위의 미생물들이 등장하겠군! 각기 다른 미생물의 서술을 큰 구조의 줄기로 잡으면 된다.
- 3**
- * <섬유소를 분해하는~?> 이를 통해 <섬유소를 분해하지 못하는~, 비섬유소를 분해하는~ 등과 같이> 앞으로 등장할 미생물의 특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 포괄적인 앞 내용에서 <그중>은 구체적인 화제(피브로박터 속시노젠)로 향하는 흐름을 이끈다.
- 6**
- * <이런 대사 과정에서~>를 통해 이전 내용(4, 5)이 F의 대사 과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길고 복잡한 이번 문단의 흐름을 한 번 끊어 주어 구조화에 도움을 준다.
- 9**
- * 이전의 내용(포도당으로 분해)과는 다르게, ‘포도당 합성’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했기 때문에 혼동될 만하고 문제화될 가능성도 높으니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 두어야 한다.

3 1반추위에는 **비섭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도 서식한다. **2**이 미생물은 반추 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3**이때 S는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다. **4**산성도를 알려 주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pH)가 **7.0** 정도로 중성이고 **생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아세트산**, **에탄올** 등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5**반면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생장 속도가 빠를** 때는 **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6**반추위에서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3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의 대사 과정

- *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 →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 → 대사산물 배출(아세트산, 에탄올 / 젖산)
- * **반추위의 젖산**: 에너지원으로 직접 이용되거나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

4 1그런데 S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2**반추 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섭유소**를 섭취하면 S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고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되어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진다**. **3**이에 따라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히 성장하며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토바실러스 루미니스(L)**와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며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한다. **4**이를 비롯한 **섭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젖산 농도**의 증가로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생장이 감소**한다. **5**만일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6**이와 달리 S와 L은 상대적으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해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이에 맞춰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 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생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한다. **7**그러나 S도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그 이하로 더 떨어지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산성에 더 강한 L을 비롯한 **젖산 생성 미생물**들이 반추위 미생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8**그렇게 되면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되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병한다.

4 급성 반추위 산성증 발병 과정

- * **반추 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섭유소** 섭취 → S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남. →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 →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짐. →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 → **다량의 젖산**을 배출 →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짐. → **생장이 감소**

3

1
* <비섭유소인~분해하는~>? 이전에는 **섭유소**를 분해하는 미생물이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섭유소/비섭유소** 관련해서 이번 문장이 그 경계를 나누고 있다.

2
* <포도당으로 분해>와 <포도당으로 합성>,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원>과 <다른 이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의 구별에 주의해야 한다.

5
*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산성도와 pH는 반비례함에 주의!

4

1
* **3** 문단에 언급한 화제(S의 과도한 생장)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대상의 문제점은 항상 해결책을 동반하므로 이번 문단은 그 해결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독해 속도를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지속적으로 예측 및 구조화하며 읽기이다.**)

2~8
* 과정을 나타내는 문장들의 연결이라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밀줄을 그자니 전부 그어야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머릿속에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는 키워드 위주의 밀줄이 효과적일 수 있다. 어차피 문제 풀 때, 다시 요모조모 따져 봐야 하는데 밀줄을 그어 놓은 키워드가 있는 곳을 탐색 1순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7
* 과정을 나타내는 **2~4**번 문장을 보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적 중요도는 떨어진다.

6~8
* 첫머리가 <이와 달리~>, <그러나~>, <그렇게 되면~>처럼 <반대+반대+결론>의 복잡한 조합일지라도 1순위 포인트는 결론 부분이다. <반대+반대>는 <결론>을 말하기 위한 지엽적 기술로 보면 된다.

06.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41위

#헛갈리기 쉬운 문장 구조 #최שמ의 조언 #전략적 풀이 방법

정답률 76%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7%	③ 4%	④ 8%	⑤ 76%

정답 풀이

⑤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은 자신의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장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 수를 늘림으로써 2)생장한다. [2문단]

↳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은 자신의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1)하여 생장한다.2)

오답 풀이

① 섬유소는 사람의 소장에서 포도당의 공급원으로 사용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1)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 와 같은 2)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1문단]

↳ 사람의 <소장>에서 <포도당>의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섬유소'가 아니라 <비섬유소>이다.1) 사람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는 사람의 소장에서 포도당의 공급원으로 이용되지 못한다.2)

패턴 공략

헛갈리기 쉬운 문장 구조

* 1)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

- <비섬유소>를 분해하여 <포도당>으로 만들(○)
- <비섬유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분해(×)
- <포도당>을 가지고 <비섬유소>를 분해(×)

(* 분해의 대상은 '비섬유소')

☞ <비섬유소>는 <포도당>의 공급원○.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을 <소장>에서 흡수하여 사람의 에너지원으로 이용1)

최שמ의 조언

독해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먼저 어려운 낱말에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문장의 구조를 대충대충 따져 보는 습관 때문이다. 관련 사례가 나올 때마다, 이 교재를 통해 문장 성분 간의 구조와 호응을 정확히 따져 보는 습관을 갖자.

대충대충 하려거든 하지 마라. 완벽하게 하려고 마음먹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세상 이치. 이 교재를 통해 국어 점수를 향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왕 할 거 제대로 공부하여 점수를 올리자.

② 반추 동물의 세포에서 합성한 효소는 셀룰로스를 분해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소, 양, 사슴과 같은 1)반추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1문단]

↳ <반추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셀룰로스(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지 못한다.1)

어휘 체크

* 반추: 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게워 내어 씹음.

③ 반추위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장을 멈추고 사멸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는 1)산소가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생장하는 <반추위 미생물>들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2문단]

↳ <반추위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사멸하는 것이 아니라, 왕성하게 생장한다.1)

④ 반추 동물의 과도한 섬유소 섭취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을 유발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반추 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하면~ 그렇게 되면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되는 2)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병한다. [끝 문단]

↳ <반추 동물>의 <급성 반추위 산성증>을 유발2)하는 것은 과도한 섬유소 섭취가 아니라,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1)하기 때문이다.

최שמ의 조언

전문 용어가 많은 비문학 문제 풀이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지문-선지의 대응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문제 풀이 시간이 무한으로 주어진다면 어떤 수험생이든 덤벼대지 않으면 틀릴 이유가 없다. 누구나 똑같은 시간으로 정답을 찾는 일은 의미가 없다. 1초라도 신속하게 정답과 오답을 판단할 수 있는 전략과 안목을 길러야 한다.

Tip 실전 풀이

위와 같은 문제는 지문보다 문제를 먼저 읽고 선지에서 포인트가 되는 어휘를 골라내어 이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지문의 위치를 찾았을 때, 바로 지문-선지의 대응성을 판단해야 한다.

선지 ①의 포인트: '섬유소', '포도당' → [1문단]

선지 ②의 포인트: '셀룰로스' → [1문단]

선지 ③의 포인트: '반추위 미생물' → [2문단]

선지 ④의 포인트: '급성 반추위 산성증' → [끝 문단]

선지 ⑤의 포인트: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 → [2문단] (☆정답)

☞ 그렇다면 1, 2, 4문단만 읽고도 위의 문제는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단순 내용 일치형 문제>의 정답 분포가 ①, ②는 별로 없다는 통계를 염두에 두고 ③부터 먼저 본다면 좀 더 신속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아주소한 팁이지만, 1초라도 아껴야 하는 실제 수능 때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07.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61위

#이해 #최협의 조건 #주어-목적어-서술어에 집중

정답률
58%

선지별 선택 비율

① 8% ② 14% ③ 12% ④ 58% ⑤ 8%

정답 풀이

④ ⑥와 ③은 모두 반추위의 산성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대사산물을 배출하겠군.

지문 속 근거 찾기

• 반추위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⑥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도 서식한다.~이때 1)S는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다. [3문단]

• 이에 따라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히 성장하며 2)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④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L)와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며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한다. [4문단]

☞ ⑥는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대사산물을 배출1)하지만, ③은 다양한 종류의 대사산물이 아닌, 항상 <젖산> 한 종류만을 대사산물로 배출2)한다.

패턴 공략

▶ 지문: '대사산물이 달라짐' → 선지: '다양한 대사산물'

(★지문과 선지의 다양한 변형 양상을 자주 익혀 두라! 자신의 부족한 독해력을 메워 줄 하나의 방법이다.)

오답 풀이

① ②와 ⑥는 모두 급성 반추위 산성증에 걸린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서는 성장하지 못하겠군.

지문 속 근거 찾기

•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만일 1)자신(⑥)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성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든다.~그러나 2)S(③)도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그 이하로 더 떨어지면 성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들고,~그렇게 되면 반추위의 3)pH가 5.0 이하가 되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병한다. [끝 문단]

☞ ⑥가 생장이 멈추면 <급성 반추위 산성증>에 걸린 상태 2~3)이며, 이는 pH가 5.0 이하가 되는 경우이다. 3) 이때는 ③도 당연히 성장을 멈추게 된다. 1)

② ②와 ⑥는 모두 반추위에서 반추 동물의 체지방을 합성하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겠군.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중 ③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은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다.~1)<반추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2)<체지방>을 합성하는 데에도 쓰인다. [2문단]

• 반추위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⑥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도 서식한다.~산성도를 알려 주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pH)가 7.0 정도로 중성이고 성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3)<아세트산>, 에탄올 등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3문단]

☞ ③은 <반추위>에서 반추 동물의 <체지방>을 합성2)하는 <아세트산>을 생성1)하고, ⑥도 마찬가지로 <반추위>에서 반추 동물의 <체지방>을 합성2)하는 <아세트산>을 생성3)한다.

최협의 조건

실제 수능 때 아무리 집중해서 지문을 읽어도 모든 문장의 문장 성분, 단어 하나하나를 동일한 수준으로 집중해서 머릿속에 넣어 둘 수 없다. 상대적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보자.

Tip 실전 풀이

♣ 문장이 길면, 주어-목적어-서술어에 집중하자.

* ③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은~<반추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에도 쓰인다.

☞ ③은 <아세트산>을 생성 + <아세트산>은 <체지방>을 합성

* ⑥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도 서식한다.~<반추위>에서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

☞ ⑥는 <아세트산>을 배출(=생성)

③ 반추위의 pH가 6.0일 때, ㉠는 ㉡보다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산성도를 알려 주는 1)수소 이온 농도 지수(pH)가 7.0 정도로 <중성>이고 성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아세트산, 에탄올 등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3문단]
-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2)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젖산 농도의 증가로 3)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생장이 감소한다. 만일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이와 달리 S와 4)L(㉡)은 상대적으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해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이에 맞춰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 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생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한다. [끝 문단]

↳ 반추위의 pH가 6.0일 때에는 중성의 상태가 아니므로 1) ㉠는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 2)으로 인해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한다. 3)

그러나 ㉡는 상대적으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해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이에 맞춰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 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4)

그래서 반추위의 pH가 6.0일 때, ㉠는 ㉡보다 자신의 세포 내부의 산성도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볼 수 있다.

어휘 체크

* 항상성: 생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최선의 조언

국어의 어휘를 영어 단어처럼 외우는 것은 낭비이다. 어휘의 개념이 나올 때마다 눈으로 익혀 두는 수준으로 충분하다. 그 정도면 문맥적 해석과 전체 흐름 파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⑤ 반추위에서 녹말의 양과 ㉠의 생장이 증가할수록, ㉡의 생장은 감소하고 ㉢의 생장은 증가하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반추위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도 서식한다. ~반면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1)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의) 성장 속도가 빠를 때는 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3문단] → (원인 문단)

-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젖산 농도의 증가로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2)생장이 감소한다. ~이와 달리 S와 L(㉡)은 상대적으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해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이에 맞춰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 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3)생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한다.

[끝 문단] → (결과 문단)

지문 POINT

- ▶ 문단 간의 관계 및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관건
- * 원안: [3문단] + 결과: [끝 문단]

↳ 반추위에서 <녹말의 양>과 ㉠의 생장이 증가 1)할수록, ㉡의 생장은 감소 2)하고 ㉢의 생장은 증가 3)한다.

패턴 공략

- ♣ 문장이 길고 복잡하면 먼저 전체 주어-서술어 파악에 집중하자
- *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 2)생장이 감소한다.
- * S와 L(㉡)은 ~ 3)생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한다.

최선의 Q&A

Q 녹말의 양과 S의 생장이 증가할수록 젖산이 많아진다는 결론을 어떻게 도출해야 하나요?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녹말의 양이 충분할 때 젖산을 배출한다.'고 한 것이 '녹말의 양이 많아지면 젖산도 더 많이 배출한다.'라는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A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보면

- 반면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1)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성장 속도>가 빠를 때는 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3문단]
- 그런데 S의 2)과도한 생장이 반추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반추 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하면 S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고 3)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되어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진다. [끝 문단]

즉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데 1) (녹말의 양이 충분 그 이상을 넘어서 생기는) 과도한 생장이 2) 과도한 양의 <젖산>을 배출하게 한다. 3) 이것으로 본다면, 어느 적정선(충분함)에 이르면 <녹말의 양>, <성장 속도>, <젖산의 양>이 비례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08.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7위

#보기 제시 #3점 #최협의 조건 #평가원 이의 제기

정답률 39%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9%	② 11%	③ 6%	④ 33%	⑤ 11%	

정답 풀이

- ① ㉒: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④: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지문과 <보기>의 대응성

-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1문단]
- 그중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은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다. 식물체에서 셀룰로스(섬유소)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1)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섬유소)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2)F(미생물)은 (섬유소를 분해해 생긴)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 → '<섬유소>는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됨.'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 수를 늘림으로써 3)생장한다.~4)반추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대사산물)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에도 쓰인다. [2문단]
- 반추위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도 서식한다. 5)이 미생물은 반추 동물이 섭취한 녹말(비섬유소)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 '<비섬유소>는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됨.' 이때 S는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다.~6)반추위에서 젖산(대사산물)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3문단]

• <보기>

반추 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위에서 ㉒: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2, 3) 이를 이용하여 생장3)하는 ④: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은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4, 5)되기 때문이다.

[실제 시험 때의 문제 풀이 방법]

처음부터 ㉒과 <보기>의 '이유-결과'의 관계성을 따져 볼 경우 멘붕이 올 수 있다. 따라서 <보기>에 맞는 선지를 골라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문제 풀이에 유리하다.

먼저, <보기>의 ㉒에 들어갈 내용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Q 보기: 반추위에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선지: ①, ②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된다?
 ③~⑤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된다?



Q 보기: 반추위에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선지: ①, ②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된다.2, 5) ○ (☆정답)
 ③~⑤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된다.(x)
 → <포도당>은 미생물에 의해 합성이 아닌, 미생물의 '분해'로 생긴.1)

이제, <보기>의 ㉒에 들어갈 내용은 선지 ①, ② 둘 중에 하나가 된다.

Q 보기: ㉒를 통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것은?

- 선지: ①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된 '대사산물'.
 ②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된 '포도당'.



Q 보기: ㉒를 통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것은?

- 선지: ①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된 '대사산물'.4, 6) ○ (☆정답)
 ②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된 '포도당'. (x)
 → <포도당>은 미생물의 <분해>로 생기는 것이지.1)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것이 아님.

☞ 지문 ㉒에서 <반추 동물>이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살아가는 구체적 내용(→ 이유)이 <보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기>

* 반추 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위에서 ㉒(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이를 이용하여 생장하는 ④(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은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지문에서 <포도당>은 총 7번 등장한다.

- *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1문단]
- *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1문단]
- * 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2문단]
- *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2문단]
- * 이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피온산은 반추동물이 간(肝)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2문단]
- * 이 미생물은 반추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3문단]

이 가운데 결과물인 '포도당으로 분해'가 4번 나오고, '포도당을 합성(합성된 포도당)'이 단 1번 나온다. 이런 비율이라면, 대충대충 지문을 봤더라도 포도당은 합성이 아닌, 분해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큰데, ㉒에서 '합성된 포도당'이 있는 선지 ③~⑤를 선택한 수험생은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단 한 번 제시된 지문에 시선이 쏠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게 아

나라면, 포도당이라는 어휘가 주는 느낌이 분해보다는 합성과 잘 어울릴 것 같은 불필요한 배경지식 때문일 것이다.

하어간 어떤 것이든 포도당의 합성과 관련된 주체는 반추위 미생물이 아니라, 대사산물인 프로피온산이며 반추위 미생물은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는 지문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출제자는 느낌과 눈에 띄는 것에 의존하여 문제를 푸는 습관을 반드시 노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서 정확히 근거(특히, 주체와 서술 내용에 주목)를 찾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최선의 조언

3점짜리 문제는 한 번 더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대충대충 단어 몇 개의 대응성과 느낌, 상식으로 선지를 선택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출제자의 함정에 빠지기 마련이다. 5개의 검은 물건과 1개의 하얀 물건이 섞여 있다면 소수인 1개의 하얀 물건에 시선은 쏠리게 되어 있다. 출제자는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를 이용해서 함정에 빠뜨리는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섬유소와 비섬유소 뒤에 ㄱ 문항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보면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라고 되어 있죠. 선지 ①이 정답이 되려면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포도당>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섬유소와 비섬유소 자체가 에너지원이 되지는 않으니깐요. 특히 뒤에 이를 이용하여 성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합치면 더욱더 포도당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오류인 것 같습니다.

<답변> 섬유소와 비섬유소 자체가 에너지원은 되지 않지만 <분해된 포도당에 의해 에너지원이 되는 것>은 맞다. 종합하면, <섬유소와 비섬유소가 분해된 포도당에 의해 에너지원이 되는 것>에서 <보기>는 ㉔에 들어갈 말에 <분해된 포도당>을 생략한 것이다. 이를 생략해도 <섬유소와 비섬유소가 에너지원이 된다>는 사실이 틀린 것은 아니다. 비유하자면, <철수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다.>에서 <자전거를 타고>를 생략했다고 <철수는 학교에 갔다.>는 사실이 틀리지 않는 것과 같다.

<의견> 지문 내용에 따르면 '반추 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를 분해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섬유소와 비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섬유소와 비섬유소 그리고 포도당의 경우 완전히 다른 물질로 섬유소와 비섬유소, 포도당을 같은 물질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세 물질을 같은 '에너지원으로 칭한 ①번 선지의 ㉔에 대해 이의를 신청합니다.

<답변> 포도당의 근원은 <섬유소와 비섬유소>이기 때문에 <섬유소와 비섬유소>를 근원적 에너지, <포도당>을 직접적인 에너지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세 물질은 넓은 맥락에서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서 동일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09.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48위

#비교 선지의 법칙 #평가원 이의 제기 #최선의 조언

정답률
78%

선지별 선택 비율

① 7% ② 5% ③ 78% ④ 5% ⑤ 5%

정답 풀이

③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가 산성일 때보다 중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

66 지문속 근거 찾기

- 1)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 수를 늘림으로써 성장한다. 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하고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2문단]
- 반면 2)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성장 속도가 빠를 때는 <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3문단]
- 이에 따라 3)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히 성장하며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L)와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며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한다.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젖산 농도의 증가로 자신의 세포 외부의 4)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생장이 감소한다. [끝 문단]

↳ <젖산>은 <산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 2~3) <숙신산>은 F의 대사산물로 1) 산성일 때는 생장이 감소하므로, 4) <중성>일 때가 더 많이 배출된다.

TIP 실전 풀이

☞ 실전에서는 지문 2~3) 중 하나라도 발견했다면, 선지 ③이 적절하지 않음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pH가 낮아질수록 산성도가 세다는 것은 중학교 수준의 과학 상식이며, 이를 몰랐더라도 지문 2)에서 pH가 떨어질 때 산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X 오답 풀이

①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반추 동물의 간에서 합성되는 포도당의 양도 늘어난다.**

66 지문속 근거 찾기

- 한편 반추위에서 1)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2) <프로피온산>은 반추 동물이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2문단]

↳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의 에너지원이고 1) 이 <프로피온산>은 <포도당>을 합성하는 데 이용된다. 2) 그래서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반추 동물의 간에서 합성되는 <포도당>의 양도 늘어난다.

패턴 공략

▶ 지문: A, B 연관+B, C 연관 → 적절 선지: A, C 연관

②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반추위에서 1)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3문단]

↳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1)될 수 있다.

④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1)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 수를 늘림으로써 성장한다. 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하고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2문단]
- 이 미생물은 반추 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2)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반면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성장 속도가 빠를 때는 3)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3문단]

↳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1~3)

⑤ 숙신산과 젖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한편 반추위에서 1)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2문단]
- 반추위에서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2)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3문단]

↳ <숙신산>과 <젖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1~2)되기도 한다.

★ 비교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비교형 선지는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③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가 <산성>일 때보다 <중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 → <산성 vs 중성> (☆정답)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선지 ②에서 '젖산은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문에는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사전에서 에너지원의 정의를 찾아보면 '생물에 생명의 유지, 성장, 운동 등 그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근원'과 같이 나오므로 <에너지원=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르게 **않으므로** 선지 ②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지문-선지를 잘못 대응시켰다.

<에너지원=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이 아니라

<지문: 젖산~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②: 젖산~에너지원으로 이용>이기 때문에 선지 ②는 적절하다.

최선의 조언

<짜증 나는 과학·기술 지문>

생소하고 복잡하고 정보량도 많은 과학·기술 지문을 마주할 때, 저자인 나도 짜증 나고 힘들다. 나도 그런데 수험생들은 오죽할까. 특히 인문 계열 전공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최악의 지문이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수험생이라면 이 과학·기술 지문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고득점을 위해서라면 편하고 쉬운 것보다 어렵고 힘든 것을 잘 참고 이겨 내야 경쟁력이 생긴다.

저자인 나도 힘들지만 수험생을 위해 풍부한 분석과 해설을 다각도로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1회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려 욕심내기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끝내는 완전하게 소화하려는 마음으로 차분히 과학·기술 지문을 대하자. 매년 수능 때, 과학·기술 지문은 국어에서 변별력을 가르고 있다. 『총만국』을 통해 과학·기술 지문 킬러가 되길 바란다.

10~12 열역학에 대한 탐구

1 1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caloric)이며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2이를 칼로릭 이론이라 부르는데, 이에 따르면 찬 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증기 기관과 같은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였다.

1 칼로릭 이론의 소개

- * 칼로릭: 열의 실체,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름, 질량이 없는 입자
→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에 관심

2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에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열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으로 정의된다. 219세기 초에 카르노는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를 칼로릭 이론에 기반을 두고 다루었다. 3카르노는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 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일을 할 때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4물이 높이 차에 의해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게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열기관의 열효율 역시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것이었다.

2 카르노의 이론

- * 열기관: 열원에서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하고, 대기 등 낮은 온도의 열기관 외부에 열을 방출
- * 열효율 = (한 일의 양) / (흡수한 열의 양)
- * 카르노: 열기관의 열효율은 고온과 저온에 의존하여 일을 함.

1

- 1
 - * 도입부에 '18세기'처럼 시대와 관련된 말이 나오면, 시대에 따른 전개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자.
 - * '높은 쪽 → 낮은 쪽'처럼 방향성과 관련된 설명은 이를 바꿔치기한 부적절 선지로 가공되기 쉽다.
(☆10번 문제 선지 ④, 11번 문제 선지 ③에 적용!)

2

- 2
 - * '뜨거운 물체에서(출발) 차가운 물체로(목적) 이동': 방향성에 유의!
 - * <결과(온도가 같아짐.) + 원인(이동하기 때문)>의 구조,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논리 학습의 기본이 된다.(원인과 결과 바꿔치기에 주의!)

3

- 3
 - * 첫 문단, 특히 마지막 문장에서의 문제 제시(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는 곧 지문 전체의 중심 화제가 된다.

2

- 1
 - * <무엇 대비 무엇>의 형태가 나오면 분자와 분모를 거꾸로 정리하는 이들이 꼭 있다. 혼동하지 않게 잘 정리해 두자.
A 대비 B = B/A
[열효율 = (한 일의 양) / (흡수한 열의 양)]
- 2
 - * '카르노'와 같이 인물 명이 등장하면, (<이론, ~견해, ~입장>을 함께 묶어서 정리해야 한다.
- 3
 - * '~(높이) 차이에만~'처럼 (다른 것은 안 되고) 특정한 대상을 나타낸다면 주목해 두자. 다른 것도 허용되는 부적절 선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4 -6도 마찬가지로: ~(두 작동 온도)에만~]

3

1791년 1840년대에 줄(Joule)은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행하였다. 2대표적인 것이 열의 일당량 실험이었다. 3이 실험은 열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를 낙하시켜 물속의 날개바퀴를 회전시키는 실험이었다. 4열의 양은 칼로리(calorie)로 표시되는데, 그는 역학적 에너지인 일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정밀한 실험을 통해 1kcal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인 열의 일당량을 측정하였다. 5줄은 이렇게 일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이므로 등가성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6이후 열과 일뿐만 아니라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이 등가성을 가지며 상호 전환될 때에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입증되었다.

3 줄의 '열의 일당량 실험'과 에너지 보존 법칙

- * 칼로리: 열의 양 표시함.
- * 줄의 업적
 - 등가성: 일과 열은 서로 전환 가능함.
 -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가 상호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은 변화 없음.

4

1열과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재검토로 이어졌다. 2특히 톰슨은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3카르노의 이론에 의하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 4이것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5하지만 열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6그는 카르노의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 방출할 때의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하였다.

4 톰슨의 반박과 클라우지우스의 증명

- * 톰슨: 열기관이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남. → <열의 실체는 칼로릭이 아님!>
- * 클라우지우스: 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 방출할 때의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

3

1

* <한편>을 통해, 이전 문단과는 (반대의 맥락보다는) 유사하지만 다른 측면의 내용이 나올 것임을 알 수 있다.

* '줄'처럼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새로운 이론, 입장, 관점 등을 예고한다.

* 새 인물(줄)이 등장하면, 이전 인물과의 차이점(비판, 보완, 완전히 다른 견해 등에 포인트를 두자.

4

* '일이 열로 바뀐'처럼 주체(일 → 변화 전)와 객체(열 → 변화 후)의 구분을 헷갈리면 안 된다. '일'과 '열'처럼 비슷한 발음은 더욱 주의!

5

* '~사실을 알아내었다.'를 통해 앞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즉, fact)임을 알 수 있다. 국어에서 <객관적 사실 vs 주관적 의견>을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기본 요소이다.

6

* 끝 문장에 등장하는 개념은 보통 다음 문단에 관한 것인데,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번 문단에 관한 것임에 유의하자.

4

1

* <과학자들>의 재검토로 이어졌다는 말을 통해, 카르노 이론에 대한 최소 두 명 이상 과학자의 입장(찬성/반대)이 나올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후 과학자 이름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내용의 경계를 두는 것이 좋다.

2, 5

* 또 새로운 인물(톰슨, 클라우지우스)이 등장했네~. 이전 인물과 비교(공통점, 차이점)해서 글을 읽어 나가야 한다.

3

* '흡수한 열 전부를~'에서 일부가 아닌 전부(all)를 대상으로 삼음에 주의하자.

4

* 부정형 서술은 밑줄× 표시 추천(열의 실체가 칼로릭×)

4~5

*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유지될 수 있었다'처럼 대립 항을 테마로 문체가 자주 출제되므로 잘 체크해 두어야 한다. (☆국어 시험에서 대립 항은 출제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6

* 3줄 이상으로 문장이 길다? 그렇다면 <조건>에서 한 번, 쉼표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상 끊어 주고 <조건+결과>에 포인트를 두자.

5 1클라우지우스는 자연계에서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고 그와 반대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또한 열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즉 열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3이러한 방향성과 비대칭성에 대한 논의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량인 엔트로피의 개념을 낳았다.

5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 개념

*클라우지우스

- 자연계에서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름.(반대 현상×)
-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 → 엔트로피의 개념 창출

5

Tip실전 풀이

메인(main) 개념의 위치를 찾아라!

- 1 문단 초반: 칼로릭
- 3 문단 끝: 에너지 보존 법칙
- 5 문단 끝: 엔트로피

☞ 메인 개념의 위치를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파악하면 전체 구조화에도움이 된다.

10.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10위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69%	① 6%	② 9%	③ 10%	④ 6%	⑤ 69%

정답 풀이

⑤ 열기관의 열효율은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이론은 칼로릭 이론의 오류가 밝혀졌음에도 유지되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에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 데, ~ [2문단]
- 특히 통슨은 2)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 3) 하지만 <열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4문단]

☞ 열기관의 <열효율>은 두 작동 온도(→ 높은 온도, 낮은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이론1)으로 <칼로릭 이론>의 오류가 밝혀졌음2)에도 유지되었다. 3)

오답 풀이

① 열기관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열로 변환하는 기관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에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

데, <열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으로 정의된다. [2문단]

☞ <열기관>은 외부로부터 열을 직접 흡수 및 방출하여 일을 하는 것1)이지 일을 열로 변환하는 기관이 아니다.

패턴 공략

▶ 지문: A에서 B → 부정적 선지: B에서 A

☞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이라는 <열효율>의 개념을 통해 '일을 열로 변환하는 기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둘은 동일한 어휘(열, 일)만 있을 뿐 상관성은 없다. 너무 긴장하거나 시간에 너무 쫓기거나 아니면 대충대충 문제를 풀면 상관없는 것도 상관있는 것처럼 보인다. ☆항상 적절한 긴장감을 갖고 실전처럼 집중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자.

② 수력 기관에서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는 물의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카르노는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 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일을 할 때 1)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2문단]

☞ <수력 기관>에서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는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기1) 때문에 당연히 물의 <온도 차이>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③ 칼로릭 이론에 의하면 차가운 쇠구슬이 뜨거워지면 쇠구슬의 질량은 증가하게 된다.

🔍 지문 속근거 찾기

-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caloric)이며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1)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1문단]

↳ <칼로릭> 이론에 의하면 (차가운 쇠구슬이 뜨거워지는 것과 상관없이) 쇠구슬의 질량 변화는 없다.1)

④ 칼로릭 이론에서는 칼로릭을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입자라고 본다.

🔍 지문 속근거 찾기

-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caloric)이며 1)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1문단]

↳ 칼로릭 이론에서는 선지 ④와는 반대로, <칼로릭>을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입자1)라고 본다.

🔍 패턴 공략

▶ 지문: A에서 B로 → 부적절 선지: B에서 A로

11.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32위

#최선의 조언 #헛갈림 주의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45%	① 5%	② 45%	③ 10%	④ 13%	⑤ 27%

✔ 정답 풀이

②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면 열기관이 한 일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 지문 속근거 찾기

- ②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1)이것(→ 열기관이 한 일)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2)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문단]

🗨 지문 POINT

해당 부분 다음 맥락에서 정답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지문 1~2)의 내용을 분석하면,

1) <열기관이 하는 일>은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남. → (원인)

2) <열의 실체가 칼로릭>은 성립 안 됨. → (결과)

☞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 성립되려면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해야 함. 그런데 <열기관이 하는 일>은 이를 만족하지 못함.

↳ 그래서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면 <열기관이 한 일>을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기관이 한 일>이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패턴 공략

▶ 문장에서 드러난 <원인+결과>의 구조는 정답 선지를 판단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 헛갈림 주의!

* <열의 실체가 칼로릭> → <열의 실체=칼로릭>

*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 유지될 수 없음.

→ <열의 실체≠칼로릭>

최선의 조언

전문적인 글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나 비유를 사용해서 내용을 풍부하게 하지만, 문장 구조에 대해서는 독자의 이해나 편의에 대해서 그리 신경을 쓰지 않는다. 간결하고 쉬운 표현보다는 길고 복잡한 겹문장을 사용하면 무엇인가 권위적이고 그럴 듯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단순히 구조화해야만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없는 에너지라는 점

🔍 지문 속근거 찾기

- 이후 열과 일뿐만 아니라 1)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이 등가성을 가지며 상호 전환될 때에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입증되었다. [3문단]

↳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1)

✔ 어휘 체크

* 등가성: 가치가 서로 같은 것을 요구하는 상품 교환의 특성

🔍 패턴 공략

▶ 지문: A와 B는 C하다. → 부적절 선지: A와 B는 C하지 않다.

③ 자연계에서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는 것과 같은 방향성이 있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

🔍 지문 속근거 찾기

-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caloric)이며 1)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1문단]
- ②<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4문단]

↳ <칼로릭>은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는 것과 같은 방향성이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에서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칼로릭 이론>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됨을 말하는 것이다.

☞ 선지 ③은 자체적으로는 적절한 말이지만 ㉠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것(→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은 아니다. 그래도 선지 ③도 정답으로서 적절한 것 같다고 여겨지면, 선지 ②와 비교해서 판단해 보라. 어떤 선지가 더 적절한지를. 그래서 문제가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요구한 것이다.

④ 열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이 맞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 그는 1)카르노의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 [4문단]

↳ ㉠는 열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이 직접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카르노'의 열기관에 설명된 <칼로릭 이론>이 (→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어) 맞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 선지 ④의 내용이 1)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 ㉠에서 이를 직접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출제자들이 노린 함정임.) 대충대충 말고 꼼꼼히 따져 보는 습관을 갖자. 그래도 선지 ④도 정답으로서 적절한 것 같다고 여겨지면, 선지 ②와 비교해서 판단해 보라. 어떤 선지가 더 적절한지를. 그래서 문제가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요구한 것이다.

⑤ 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 방출할 때의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점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 그는 카르노의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1)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 방출할 때의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하였다. [4문단]

↳ <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 방출할 때의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점)은 카르노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써 이는 카르노의 설명을 지지하는 ㉠의 관점과는 대립적이다.

12.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6위

#보기 제시 #3점

정답률 31%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7%	② 15%	③ 18%	④ 19%	⑤ 31%

정답 풀이

⑤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두 작동 온도에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작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열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으로 정의된다. → (<열효율> = '일의 양' / '열의 양') [2문단]
- 2)(<줄>)은 이렇게 일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이므로 <등가성>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3)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3문단]
- 또한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4)(<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즉 열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끝 문단]
- <보기>
줄의 실험과 달리, 열기관이 흡수한 5)열의 양(A)과 <열기관>으로부터 얻어진 일의 양(B)을 측정하여 B/A로 <열의 일당량>을 구하면, 그 값은 ([가])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66 지문 POINT

※ 지문 1)과 <보기>에 의해,

<열효율> = <열의 일당량> = '일의 양' / '열의 양'

↳ 일과 열은 서로 <등가성>을 갖기(2) 때문에 열효율, 즉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이 100%3)이지만 <열기관>의 열의 일당량은 100%가 아니다.4) 이를 서로 비교해 보면,

(열기관의 열효율) < (줄의 열효율)
= (열기관의 열의 일당량) < (줄의 열의 일당량)

이때, 열기관의 (열의 양과 작동 온도)가 달라져도 열기관의 열효율(→ 100% 미만)은 변함이 없는 수치이다. 왜냐하면, '일의 양'이 <열의 양과 작동 온도>로부터 얻어진 상대적 수치이기(5) 때문이다.

☞ 그래서 <열기관>의 '열의 일당량'을 구하면, 그 값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두 작동 온도에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작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열기관의 두 작동 온도의 차이가 일정하다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과 같다.

↳ <열기관>의 작동 온도는 '열의 일당량'(→ 열효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열의 일당량>이 '열의 양'으로부터 얻어진 '일의 양'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열의 양'과 '일의 양'의 절대적 수치는 변할지라도 상대적인 '열의 일당량'(→ 열효율)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열기관의 두 작동 온도의 차이에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는 작다.

② 열기관이 열을 흡수할 때의 온도와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과 같다.

↳ 열기관이 열을 흡수할 때의 온도와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작다. (정답 풀이 참고)

③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이 많을수록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더 커진다.

↳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은 '열의 일당량'(→ 열효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열의 일당량>이 '열의 양'으로부터 얻어진 '일의 양'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열의 양'과 '일의 양'의 절대적 수치는 변할지라도 상대적인 '열의 일당량'(→ 열효율)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작다.

④ 열기관의 두 작동 온도의 차이가 커질수록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더 커진다.

↳ <열기관>의 작동 온도는 '열의 일당량'(→ 열효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열의 일당량>이 '열의 양'으로부터 얻어진 '일의 양'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열의 양'과 '일의 양'의 절대적 수치는 변할지라도 상대적인 '열의 일당량'(→ 열효율)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열기관의 두 작동 온도의 차이에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는 작다. (정답 풀이 참고)

보너스 칼럼

처음 만나는 선지에서 정답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

이것은 시간 관리가 생명인 국어 시험에서 한번쯤은 해 보았을 고민이다. 대개 쿨한 성격의 수험생들은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완벽주의적 성격의 수험생들은 남은 선지를 모두 다 검토한다. 빠르게 정답을 확신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시간을 절약하여 남들보다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르다는 심리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선지를 보지 않은 찝찝함이 남을 수 있고 정답이라고 확신한 것이 착각을 해서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한편 완벽주의를 추구할 경우 모든 선지를 다 꼼꼼히 검토하여 온전하게 문제를 풀었다는 심리적 편안함은 있겠지만 시간 절약의 측면에서는 남들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어느 방법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답의 가능성을 약 70% 이상 확신한 선지가 있다면 거기서 멈추고 적절한 표시를 한 뒤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우리가 평소에 100% 확신하는 것도 고도의 긴장감이 있는 실전 시험에서는 그 확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판단이다. 국어 시험에서는 킬러 문제 풀이에 최대한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고득점의 관건이기에 문제를 모두 풀 뒤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보지 못한 선지를 검토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실수도 실력

'실수도 실력'은 그리 낯설지 않은 말이다. 중요한 것은 실수가 실력이든 실력이 아니든 수능에서 아주 가벼운 실수로 1~2문제를 틀린다면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평소에 훈련해 두어야 한다. 평소 국어 공부를 하면서 자주 하는 실수를 점검해 보고 조금 더 차분하고 꼼꼼한 마음을 갖는 연습을 한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지문 난이도 ★★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16~19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19위

01 ~ 04 인공 신경망의 학습과 판정

1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학습·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공 신경망 기술이다. 2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① 인공 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1 인공 신경망 기술

- * 인공 신경망 기술: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리모델링 +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학습·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
- * 뉴런: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
- * 퍼셉트론: 인공 신경망에서 기본 단위로 사용

2 1㉞ 퍼셉트론은 입력값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 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2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 가중합을 구한 후, 고정된 ㉣ 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과 같은 방식으로 ㉤ 출력값을 내보낸다.

2 퍼셉트론의 구성과 작동

- * 퍼셉트론의 구성: 입력 단자, 입력값 처리 부분, 출력 단자
- * 퍼셉트론의 송출: 가중합 < 고정 임계치 → 출력값 0
가중합 ≥ 고정 임계치 → 출력값 1
- * 가중합: (가중치×입력값)들의 합

3 1이러한 퍼셉트론은 출력값에 따라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입력값들을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2이에 비해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인공 신경망은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하여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에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3이러한 인공 신경망에서 가장 처음에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퍼셉트론들을 입력층, 가장 마지막에 있는 퍼셉트론들을 출력층이라고 한다.

3 인공 신경망의 구조

- * 복잡한 판정이 가능한 인공 신경망: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 →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에 입력값으로 입력(입력층 + 출력층)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 첫 문단부터 개념이 3개나 제시되어 있다. 여러 개의 개념이 함께 나올 경우, 서로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같은 맥락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 <인공 신경망-뉴런-퍼셉트론>은 같은 맥락에 해당함.

2

- 1 * '~구성되어 있다'처럼 <구성>이 나오면, 다음은 각 구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원리)이 나오기 마련이다. 밑줄과 메모할 준비를 해야 한다.
- 2 * '가중합이 작으면'처럼 조건과 수식이 정리되는 내용은 문제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1번 문제 풀이 근거에 해당함!)

3

- 1 * '~뿐이다'처럼 (다른 것은 제외, 예외 없음) 오직 단일성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 내용은 문제화되기 쉽다.
- 2 * '이에 비해'를 통해 대상(인공 신경망-퍼셉트론)의 차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복잡한 판정이 가능한 인공 신경망'이라고 했으니 '이에 비해' 이전의 대상(퍼셉트론)은 복잡한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다.
- 3 * 독해 초보자일수록 <개념+설명 키워드>에 표시를 잘 해 두는 것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4 1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2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들, 즉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3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사진을 준비하고 사진에 나타난 특징인 색깔과 형태를 수치화해야 한다. 4 이 경우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하여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다음,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함께 학습 데이터를 인공 신경망에 제공한다. 5 이때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6 그리고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에 정답인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하였다면 출력값 '0'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하게 된다.

4 인공 신경망 학습 과정의 예

*사과 학습 인공 신경망: 정답인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하였다면 출력값 '0'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함.

5 1 인공 신경망의 작동은 크게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뉜다. 2 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 넣고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한 후, 이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다. 3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의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 즉 오차 값을 구한다. 4 이 오차 값의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셉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관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이 갱신된다. 5 이러한 과정을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반복하면 출력값들이 각각의 정답 값에 수렴하게 되고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6 오차 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가중치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한다. 7 이때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5 인공 신경망의 작동

- * 인공 신경망의 작동: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구분
- * 학습 단계: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 넣음. →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함. → 이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
- * 판정 단계: 오차값이 0에 근접하거나 가중치 갱신이 안 되면 학습 단계에서 판정 단계로 전환됨.
- * 학습 단계에서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 → 판정의 오류 줄임.

4

- 1 * <경우를 생각해 보자>를 통해 이전 내용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예시는 첫 독해 시 대충 보거나 건너뛰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돌아와서 그때 집중적으로 읽어도 괜찮다.
- 2 * 첫머리의 '먼저'를 통해, 앞으로 <순서>에 따라 내용이 서술될 것임을 예측하고 이 순서에 주목해야 한다. 순서를 뒤바꾼 부적절 선지가 나오기 마련이다.
- 3 * 'A(색깔)와 B(형태)를 수치화해야 한다.'를 통해 수치를 비교한 내용이나 문제가 나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5

- ※ 이번 문단은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라는 큰 줄기로 서술될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둘의 경계를 나누는 사선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다.
- 2 * 문장이 길고 심표를 기준으로 전/후가 있다면, 후자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두자!
- 3 * 과학·기술 지문에서 '값', '수치', '비례'와 관련된 내용은 자주 출제되는 대상이다.
- 4 * '모든'처럼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말이 있는 내용은 주의를 기울이자!
- 5 * '이러한 과정'은 이전 내용에서 '과정'이 나왔음을 알려 주는 표지이다. 이전 내용에 '과정'이라는 말이 딱히 없더라도 과정이었음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다면 '과정'과 관련된 <인과, 순서, 주체와 객체 구분 등>을 잘 정리해야 한다.

01.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89위

#단순 일치-불일치 #출제자의 심리

정답률 83%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	② 1%	③ 83%	④ 3%	⑤ 10%

정답 풀이

③ ㉓가 변하면 ㉔도 따라서 변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㉓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 1)고정된 ㉔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2문단]

↳ ㉔<임계치>는 ㉓<가중치>와는 상관없이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㉓가 변하면 ㉔도 따라서 변한다는 선지 ③은 적절하지 않다.

패턴 공략

▶ 지문: A와 B는 상관없음. → 부적절 선지: A와 B는 상관있음.

출제자의 심리

지문에 <~보다 작으면 혹은 그렇지 않으면>과 같이 비교형 내용이 있기에 ㉓와 ㉔ 두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출제자는 선지 ③을 적절한 것처럼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고정된'이란 수식어 하나만으로도 선지 ③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㉓는 ㉔의 기본 단위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㉓인공 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1문단]

↳ ㉓<퍼셉트론>은 ㉓<인공 신경망>의 기본 단위이다.

② ㉔는 ㉓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㉓퍼셉트론은 입력값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㉔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2문단]

↳ ㉔<입력 단자>는 ㉓<퍼셉트론>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④ ㉔는 ㉓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퍼셉트론은~고정된 ㉔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과 같은 방식으로 ㉓출력값을 내보낸다. [2문단]

↳ ㉔<임계치>를 기준으로 ㉓<출력값>를 0 혹은 1로 결정한다.

⑤ ㉓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㉓는 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인공 신경망>의~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 넣어 주고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한 후, 이 1)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다. [5문단]

↳ ㉓<인공 신경망>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㉓<출력값>은 정답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㉓<가중치>를 갱신함으로써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어휘 체크

* 갱신: (컴퓨터) 기존의 내용을 변동된 사실에 따라 변경·추가·삭제하는 일.

02.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27위

#이해

정답률 7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11%	③ 6%	④ 4%	⑤ 74%

정답 풀이

⑤ 가중치의 갱신은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서 출력층의 출력 단자 방향으로 진행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 오차 값의 일부가 1)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셉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참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이 갱신>된다. [5문단]

↳ <가중치의 갱신>은 입력층에서 출력층의 방향이 아닌,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1) 진행된다.

패턴 공략

▶ 지문: A에서 B로 → 부적절 선지: B에서 A로

✕ 오답 풀이

① 퍼셉트론의 출력 단자는 하나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퍼셉트론>은~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2문단]

↳ 퍼셉트론의 출력 단자는 하나이다.

② 출력층의 출력값이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같으면 오차 값은 0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의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1)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 즉 오차 값을 구한다. [5문단]

↳ <오차 값 = 정답에 해당하는 값 - 출력값>1)이므로 출력층의 출력값이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같으면 오차 값은 0이다.

③ 입력층 퍼셉트론에서 출력된 신호는 다음 계층 퍼셉트론의 입력값이 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에 비해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인공 신경망은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하여 한 계층에서 1)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에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공 신경망에서 가장 처음에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퍼셉트론들을 <입력층>. [3문단]

↳ <입력층> 퍼셉트론에서 출력된 신호는 다음 계층 퍼셉트론의 입력값이 된다.1)

④ 퍼셉트론은 인간의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인공 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1문단]

↳ <퍼셉트론>은 인간의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다.

03.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50위

#추론 #최선의 Q&A

정답률 61%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5% ② 13% ③ 61% ④ 6% ⑤ 5%

✔ 정답 풀이

③ 색깔에 해당하는 범주와 형태에 해당하는 범주를 분리하여 각각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야 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사진을 준비하고 사진에 나타난 특징인 색깔과 형태를 수치화해야 한다. 이 경우 1)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하여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다음,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함께 학습 데이터를 인공 신경망에 제공한다. [4문단]

↳ 색깔에 해당하는 범주와 형태에 해당하는 범주를 분리하여 각각의 학습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다.1)

☞ 추론 문제인데 단순한 내용 일치-불일치 수준의 문제로, 그냥 쉽게 출제하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

✕ 오답 풀이

①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는 색깔이나 형태가 다른 사과의 사진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때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1)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끝 문단]

↳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는 색깔이나 형태가 다른 사과의 사진을 선택하는 것처럼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데이터1)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최선의 Q&A

Q 선지 ①에 대한 근거에서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지문의 중간 정도에 보면 각 범주를 수치화해서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는데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라는 것은 여러 개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것 같고…….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색깔이나 형태가 다른 사과의 사진을 선택한다는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르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무엇과 다른지 비교 대상이 꼭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긴 또 여러 개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뜻 같아 보이지 않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요.

A 인공 신경망이 '사과'를 '사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과'에 관한 학습을 해야 한다. 사과도 그 종류가 많아 색깔이 빨갭거나 푸르스름할 수 있고 그 크기도 조금씩 다르겠지. 그런데 단 하나의 사과 사진으로만 인공 신경망에게 학습을 시키면 그 사진의 사과를 벗어난 사과에 대해서는 사과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색깔이나 크기가 조금씩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르다'라는 기준이 사과에서도 크기와 색깔이 조금씩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다.

② 학습 데이터에 두 가지 범주가 제시되었으므로 입력층의 퍼셉트론은 두 개의 입력 단자를 사용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 경우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하여~이때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4문단]

➔ 학습 데이터에 색깔과 형태라는 두 가지 범주가 제시되었으므로 입력층의 퍼셉트론은 두 개의 입력 단자를 사용한다.

📌 해법 POINT

지문에 <동일한 입력 단자>라는 말 때문에 무조건 한 개의 입력 단자를 사용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동일한 범주에 동일한 입력 단자를 사용한다는 것이지 색깔과 형태가 같이 다른 범주이면 다른 범주의 수만큼의 입력 단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④ 가중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면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학습 단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오차 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1)가중치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2)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한다. [끝 문단]

➔ '가중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단계1)에 이르면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학습 단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다.2)

⑤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사과 사진의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0으로 설정하였다면,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0 신호가 출력되면 '사과이다'로, 1 신호가 출력되면 '사과가 아니다'로 해석해야 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리고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에 정답인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하였다면 출력값 '0'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하게 된다. →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출력 값이 다르면 해당 학습 데이터인 '사과가 아님'.) [4문단]

➔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사과 사진의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0으로 설정하였다면,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0 신호가 출력되면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출력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과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1 신호가 출력되면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출력값이 다르기 때문에 '사과가 아니다'로 해석할 수 있다.

04.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0위

#보기 제시 #3점 #이하

정답률
42%

선지별 선택 비율

① 6% ② 9% ③ 42% ④ 25% ⑤ 18%

✓ 정답 풀이

③ [B]로 한 번 학습시키고 나면 가중치 W_a, W_b, W_c 가 모두 늘어나 있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퍼셉트론은 1)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 고정된 2)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과 같은 방식으로 출력값을 내보낸다. [2문단]
-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의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3)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 즉 <오차 값>을 구한다. 4)이 오차 값의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셉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참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이 갱신된다. [끝 문단]

➔ 1)에 의해 [$\text{가중합} = (\text{가중치} \times \text{입력값})\text{들의 합}$]이며 이를 <보기>에 적용하면, <가중합>은 ' $0.5 \times 1 + 0.5 \times 0 + 0.1 \times 1$ ', 즉 '0.6'이 된다. 가중합이 임계치인 '1'보다 작으므로 출력값은 0이다.2) 이때 <오차 값>은 <보기>의 정답에 해당하는 값인 1에서 출력값인 0을 뺀 '1'이 된다.3) 그런데 이 오차 값의 일부가 입력 단자의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므로 4) 오차 값이 '0'이 아닌 이상, [B]로 한 번 학습시키면 가중치 W_a, W_b, W_c 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 오답 풀이

① [B]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판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오차 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가중치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한다. [끝 문단]

➔ [B]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판정 단계를 먼저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단계를 마친 이후에 판정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 패턴 공략

▶ 지문: A 다음 B → 부적절 선지: B 다음 A

② 이 퍼셉트론이 1을 출력한다면, 가중합이 1보다 작았기 때문이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A]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으면 0을, 그렇지 않으면 1을 출력

↳ <보기>에서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지 않을 때 1을 출력한다고 했으므로, 퍼셉트론이 1을 출력했다면, 가중합이 임계치인 1보다 작았다고 볼 수 없다.

④ [B]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0에 수렴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러한 과정을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반복하면 1)출력값들이 각각의 정답 값에 수렴하게 되고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끝 문단]
- <보기>
[B]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는 정답=1

↳ 가중치를 갱신하는 학습 과정이 반복될수록 출력값이 각각의 정답 값에 수렴하기 때문에 [B]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정답인 '1'에 수렴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B]의 학습 데이터를 한 번 입력했을 때 그에 대한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1이겠군.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1)에 의해 [$\langle \text{가중합} \rangle = (\text{가중치} \times \text{입력값})$ 들의 합]이며 이를 <보기>에 적용하면, $\langle \text{가중합} \rangle$ 은 $0.5 \times 1 + 0.5 \times 0 + 0.1 \times 1$, 즉 '0.6'이 된다. 가중합이 임계치인 '1'보다 작으므로 출력값은 0이다.2)

보너스 칼럼

어느 영역을 먼저 풀까

시험을 볼 때는 자신 있는 영역을 먼저, 상대적으로 많이 틀리는 영역을 나중에 푸는 것이 좋다. 자신 있는 영역을 먼저 신속하게 풀어 놓아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그 다음을 풀 수 있다. 그리고 자신 있는 영역이 남아 있는데 풀 시간이 없어 짝어야만 하는 최악의 사태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시험지의 1번 문제부터 풀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험지 순서대로 푸는 것을 권한다.

EBS 교재 봐야 하나

EBS 교재, 남들이 다 보고 있고 수능에도 연계되기 때문에, 안 보자니 불안한가? 그렇다면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봐라. 수험 생활에서 불안한 마음은 공부를 방해하는 최악의 요소이다. 불안을 이겨 낼 자신이 없다면 EBS 교재의 효율성과 필요성의 정도에 상관없이 보는 것이 맞다. 단 기출을 메인 학습 도구로 삼고 EBS 교재는 보조적인 학습 재료로 삼아 1회독 정도로 마쳐야 한다. 단 교재를 버리지 말고 수능 약 2달 전부터 틀린 문제는 꼭 다시 살펴봐야 한다.

틀린 문제를 보지 않고 그대로 두면 EBS 교재를 50%밖에 공부하지 못한 셈이 된다. 50%만 내 것으로 만들고 끝내기에는 너무 낭비가 된다. 틀린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최소 70% 이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EBS 교재를 대부분 보게 되는데 이왕 봐야만 하는 EBS 교재라면 학교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EBS 교재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보자. 학교 수업 시간에 자신의 다른 문제집을 공부하는 건 최악의 낭비 중 낭비이다.

05~07 지레의 원리에 담긴 돌림힘

1 지레는 받침과 지렛대를 이용하여 물체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구이다. 2지레에서 힘을 주는 곳을 힘점, 지렛대를 받치는 곳을 받침점,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곳을 작용점이라 한다. 3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가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에 비해 멀수록 힘점에 작은 힘을 주어 작용점에서 물체에 큰 힘을 가할 수 있다. 4이러한 지레의 원리에는 돌림힘의 개념이 숨어 있다.

1 지레의 원리

- * **힘점**: 지레에서 힘을 주는 곳
- * **받침점**: 지렛대를 받치는 곳
- * **작용점**: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곳
- ▶ <받침점~힘점>의 거리가 <받침점~작용점>의 거리에 비해 멀수록 큰 힘 가능

2 물체의 회전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를 돌림힘이라고 한다. 2물체에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물체에 힘을 가해야 한다. 3같은 힘이라도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가해 주느냐에 따라 회전 상태의 변화 양상이 달라진다. 4물체에 속한 점 X와 회전축을 최단거리로 잇는 직선과 직각을 이루는 동시에 회전축과 직각을 이루도록 힘을 X에 가한다고 하자. 5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회전축에서 X까지의 거리와 가해 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되고 그 단위는 $N \cdot m$ (뉴턴미터)이다.

2 돌림힘의 개념과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

- * **돌림힘**: 물체의 회전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
- * **돌림힘의 크기**($N \cdot m$) = (회전축~X) × (가해 준 힘)
- ▶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힘을 가해 주느냐에 따라 회전 상태의 변화 양상이 달라짐.

3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돌림힘의 합을 알짜 돌림힘이라 한다. 2두 돌림힘의 방향이 같으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합이 되고 그 방향은 두 돌림힘의 방향과 같다. 3두 돌림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차가 되고 그 방향은 더 큰 돌림힘의 방향과 같다. 4지레의 힘점에 힘을 주지만 물체가 지레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을 작용점에 주어 지레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처럼,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은 0이 되고 이때를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3 두 돌림힘의 방향과 알짜 돌림힘의 크기의 관계

- * **알짜 돌림힘**: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돌림힘의 합
→ 같은 방향 돌림힘: $A + B$ / 다른 방향 돌림힘: $A - B$
- * **돌림힘의 평형**: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 알짜 돌림힘: 0

1

2 * 정보량이 많다고 겁먹을 필요 없다. 용어에는 동그라미, 설명에는 밑줄을 아끼지 말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필요한 곳에 표시를 해 두고 넘어가자.

3 * '~할수록~하다'처럼 비례적인 표현은 선지의 정/오 판단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잘 표시해 두자. [6-3도 마찬가지로]

4

* 첫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제시한 핵심어(돌림힘)를 앞으로 전개될 중심 화제로 생각하고 글을 읽어 나가자. 그렇다면 이전에 나열된 개념(힘점, 받침점, 작용점)은 중심 화제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개념에 해당한다. 도입부에서는 <중심+보조>를 잘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2

1 * <설명+개념어>의 형태로, 흔한 <개념어+설명>보다는 인지가 잘 안 되니 개념어에 진한 동그라미나 네모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진한 동그라미나 네모 표시는 개념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자 다른 동그라미의 개념과는 다른 최초 경계를 구분해 내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3-1, 4도 마찬가지로]

3 * '얼마나 멀리 떨어진'처럼 <정도성>이 부여된 내용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정도성>에 따른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 (거리에 따른 변화 양상)

4 * '직선', '직각', '회전축'처럼 글만으로 인지가 잘 안 되면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옆에 메모해 두자. 전혀 이해가 안 된다면 그림도 안 그려질 것지. 그렇다면 막연하게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일단 넘어가자. 문제 풀이 시 다시 살펴보면 이해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5 * 계산식이 정리되는 곳은 무조건 좀 더 특별한 밑줄을 그어 두자. 출제자가 좋아하는 단골 출제 요소이다.

3

1 * $A(\text{돌림힘}) + B(\text{돌림힘}) = C(\text{알짜 돌림힘})$ 의 구조. 이때 A, B, C가 +, -, 0이라는 세 가지의 양상으로 인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만 생각하고 -와 0을 생각하지 못해 독해나 문제 풀이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넓은 시야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훈련이 부족한 독해력을 메우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2~3 * '~같으면~', '~반대이면~'처럼 인접한 문장이 모두 가정, 조건 등으로 시작하면 둘의 내용을 바꿔치기한 선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부분에 적절한 표시를 해 두어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6-1도 마찬가지로]

4 * 문장이 길지만 '~처럼' 이전의 내용은 뒤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보조적(비유적) 내용이므로 심표 이후의 내용에 상대적인 초점을 두면서 읽어 나가자.

4 1회전 속도의 변화는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일을 해 주었을 때에만 일어난다. 2돌고 있는 팽이에 마찰력이 일으키는 돌림힘을 포함하여 어떤 돌림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팽이는 영원히 돈다. 3일정한 형태의 물체에 일정한 크기와 방향의 알짜 돌림힘을 가하여 물체를 회전시키면,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알짜 돌림힘의 크기와 회전 각도의 곱이고 그 단위는 (줄)이다.

4 알짜 돌림힘이 물체에 한 일
 * 알짜 돌림힘이 한 일(J, 줄) = (알짜 돌림힘의 크기) × (회전 각도)
 -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일을 할 때에만 회전 속도의 변화가 있음.

5 [가] 1가령, 마찰이 없는 여닫이문이 정지해 있다고 하자. 2갑은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서 있는 문의 회전축에서 1m 떨어진 지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300N의 힘으로 밀고, 을은 문을 사이에 두고 갑의 반대쪽에서 회전축에서 2m만큼 떨어진 지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200N의 힘으로 미는 상태에서 문이 90°, 즉 0.5π 라디안을 돌면, 알짜 돌림힘이 문에 해 준 일은 50πJ이다.

5 알짜 돌림힘이 물체에 한 일의 예시
 * 알짜 돌림힘이 한 일 = (2×200) - (1×300) × 0.5π = 50πJ

6 1알짜 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고 그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음(-)의 일을 한다. 2어떤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그만큼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그만큼 회전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3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한다. 4그러므로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감소한다.

6 알짜 돌림힘과 회전 운동 에너지, 회전 속도의 관계
 * 양의 알짜 돌림힘: 회전 방향과 일치, 운동 에너지(속도) 증가
 * 음의 알짜 돌림힘: 회전 방향과 반대, 운동 에너지(속도) 감소
 *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

4
 1 * '~때에만'처럼은 <only>라는 조건! 다른 경우의 수는 절대 no~no~! 그렇다면 다른 경우의 수가 적용된 부적절 선지가 가공될 수 있음을 인지해 두자.

2 * <조건(~않으면)+ 결과(~돈다)>의 구조. 조건이나 결과를, 혹은 조건과 결과 모두를 부정한 선지가 자주 가공된다. (~하면~돌지 않는다○, ~하지 않으면~돌지 않는다×, ~하면~돈다×)

3 * 계산식으로 정리되는 곳은 무조건 좀 더 특별한 밑줄을 그어 두자. 출제자가 좋아하는 단골 출제 요소이다.

5
 ※ 문단 전체가 이전 개념의 구체적 예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문 첫 독해 시 건너뛰거나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예시 문단에 처음부터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

6
 1 * <조건(~이면)+ 결과(~하다)>의 구조. 독해 초보일수록 이런 구조(패턴)를 하나씩 하나씩 익혀 나가야 한다.

2, 4 * <증가> 또는 <감소>는 상하 화살표로 표시하는 게 정확한 독해에 효율적이다.

3 * 이것을 착각해서 꼭 틀리는 수험생이 있다.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하지, 회전 속도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자.
 *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내용은 선지의 정/오 판단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결무늬 표시 추천)

3~4 * <원인+결과>의 구성.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05.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28위

#비교 선지의 법칙 #정비례 #내용 일치 #최선의 조건 #최선의 Q&A

정답률 88%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	② 3%	③ 3%	④ 5%	⑤ 88%

정답 풀이

⑤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1)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한다. [끝 문단]

↳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1)하기 때문에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2의 제곱 = 4배>가 된다.

오답 풀이

①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돌림힘은 작용하지 않는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물체의 회전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를 <돌림힘>이라고 한다. 1)물체에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2)물체에 힘을 가해야 한다. [2문단]

↳ 물체에 힘을 가해야만2) 물체에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1)시키는 <돌림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돌림힘>은 작용하지 않는다.

패턴 공략

▶ 지문: A하면 B하다. → 적절 선지: A하지 않으면 B하지 않다.

② 물체에 가해진 알짜 돌림힘이 0이 아니면 물체의 회전 상태가 변화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지레의 힘점에 힘을 주지만 물체가 지레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을 작용점에 주어 1)지레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처럼,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2)알짜 돌림힘은 0이 되고 이때를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3문단]

↳ <알짜 돌림힘>이 0이면 <돌림힘이 평형>이 되고2)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1) 따라서 물체에 가해진 알짜 돌림힘이 0이 아니면 물체의 회전 상태가 변화한다.

패턴 공략

▶ 지문: A하면 B하다. → 적절 선지: A하지 않으면 B하지 않다.

최선의 조건

선지 ②에서 숫자 0에 주시하여 숫자 0이 있는 문단은 오직 3문단을 신속하게 포착해야 한다. 쉬운 문제를 누구나 똑같이 평범하게 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와 같은 단순 내용 일치 문제는, 최대한 시간 낭비 없이 신속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다.

③ 회전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는 돌림힘이 작용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1)형태가 일정한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 <원인> 회전 속도가 증가하고 → <결과>, 음의 일을 하면 → <원인> 2)회전 속도가 감소 → <결과>한다. [끝 문단]

↳ 회전 속도가 감소2)하고 있는,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는 <돌림힘>이 작용1)한다.

패턴 공략

▶ 지문: 원인+결과 → 적절 선지: 결과+원인

④ 힘점에 힘을 받는 지렛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돌림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지레의 힘점에 힘을 주지만 물체가 지레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을 작용점에 주어 1)지레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처럼,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2)알짜 돌림힘은 0이 되고 이때를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3문단]

↳ 힘점에 힘을 받는 지렛대가 움직이지 않으면1) 돌림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2)

최선의 Q&A

Q '힘점에 힘을 받는 지렛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돌림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A 문 하나를 안과 밖에서 동일한 힘으로 밀면 문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지레의 힘점에 힘을 주지만 물체가 지레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을 작용점에 주어 지레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고,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면 <알짜 돌림힘>은 0이 되고 이때를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 비교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비교형 선지는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⑤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된다. (☆정답)

06.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19위

#계산 #상황 이해 #특정 지문 #최선의 Q&A #최선의 조언

정답률 73%	선지별 선택 비율				
	① 7%	② 73%	③ 3%	④ 7%	⑤ 10%

정답 풀이

② 문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1)⟨돌림힘⟩의 크기는 ⟨회전축에서 X까지의 거리⟩와 가해 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되고 그 단위는 $N \cdot m$ (뉴턴 미터)이다. → (돌림힘의 크기 = ~거리 × 힘) [2문단]
-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돌림힘의 합을 알짜 돌림힘이라 한다. 2)두 ⟨돌림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차가 되고 그 방향은 더 큰 ⟨돌림힘⟩의 방향과 같다. [3문단]
- ‘갑’은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서 있는 문의 ⟨회전축에서 1m 떨어진 지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300N의 힘⟩으로 밀고, 3)‘을’은 문을 사이에 두고 ‘갑’의 반대쪽에서 ⟨회전축에서 2m만큼 떨어진 지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200N의 힘⟩으로 미는 상태에서 문의 90° , 즉 0.5π 라디안을 돌면, 4)알짜 돌림힘이 문에 해 준 일은 $50\pi J$ 이다. [5문단]
- 5)알짜 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6)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고 그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음(-)의 일을 한다. 어떤 물체에 7)⟨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그만큼 회전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끝 문단]

↳ [2문단]을 참고로 [5문단]의 갑과 을의 ⟨돌림힘⟩의 크기1)를 구하면, (갑: $1 \times 300 = 300N \cdot m$, 을: $2 \times 200 = 400N \cdot m$)이 된다. 갑과 을은 ⟨돌림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더 큰 힘을 가진 을이 문을 미는 방향으로 ‘알짜 돌림힘($100N \cdot m$)’이 작용한다. 2~3)

이때 을이 문을 미는 방향과 ⟨알짜 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이 일치해5) ‘알짜 돌림힘’은 양(+)의 일을 한다. 4, 6) 그래서 문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 7)

최선의 Q&A

Q 정지해 있는 물체는 물체의 회전 방향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짜 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양의 일을 하고 양의 일을 하면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내용을 정지해 있는 여닫이문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A 정지해 있는 물체는 알짜 돌림힘의 방향이 곧 물체의 회전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체가 정지해 있던 회전하고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짜 돌림힘이 작용할 때, 물체의 회전 방향이 중요하다. 정지해 있는 물체에 적용이 되니까 지문에 예시로

들어가는 것이다. 초점이 아닌 것은 더 이상 따지지 않는 것도 현명한 공부법이다.

✖ 오답 풀이

①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일정한 형태의 물체에 일정한 크기와 방향의 알짜 돌림힘을 가하여 물체를 회전시키면, 1)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알짜 돌림힘의 크기와 회전 각도의 곱이고 그 단위는 J(줄)이다. [4문단]
→ 알짜 돌림힘이 한 일 = ⟨알짜 돌림힘의 크기⟩ × ⟨회전 각도의 곱⟩

↳ 알짜 돌림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알짜 돌림힘은 일정($100N \cdot m$)하다. [알짜 돌림힘 = $100N \cdot m$ 은 정답 풀이 참고] 알짜 돌림힘의 크기를 계산하지 못해도, ‘알짜 돌림힘이 문에 해 준 일은 $50\pi J$ ’이라는 [5문단]의 내용을 통해 알짜 돌림힘에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알짜 돌림힘에 변화가 있으면 문에 해 준 일도 변하기1) 때문이다.

최선의 조언

출제자는 오답 선지 하나하나를 허투루 만들지 않는다. 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한다. 끝 문단에 회전 운동 에너지의 증가 및 감소하는 설명이 있어 수험생을 헛갈리게 하려는 출제자의 의도가 엿보인다. 항상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습관을 갖자.

③ 문에는 돌림힘의 평형이 유지되고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일정한 형태의 물체에 일정한 크기와 방향의 알짜 돌림힘을 가하여 물체를 회전시키면, 1)⟨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알짜 돌림힘의 크기⟩와 ⟨회전 각도⟩의 곱이고 그 단위는 J(줄)이다. [4문단]
→ 알짜 돌림힘이 한 일 = ⟨알짜 돌림힘의 크기⟩ × ⟨회전 각도⟩
-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2)⟨알짜 돌림힘⟩은 0이 되고 이때를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3문단]

↳ ⟨돌림힘의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알짜 돌림힘⟩이 0이 되어야 한다. 2) 그러나 [5문단]에서 ⟨알짜 돌림힘⟩이 문에 해 준 일 ($50\pi J$)이 있어, 1) ⟨알짜 돌림힘⟩은 0이 아니므로 문에는 돌림힘의 평형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

[알짜 돌림힘 = $100N \cdot m$ 은 정답 풀이 참고]

④ 알짜 돌림힘과 갑의 돌림힘은 방향이 같다.

↳ 갑보다 을의 돌림힘의 크기가 크므로 알짜 돌림힘과 을의 돌림힘의 방향이 같다.

[돌림힘의 크기와 방향은 정답 풀이 참고]

⑤ **갑의 돌림힘의 크기는 을의 돌림힘의 크기보다 크다.**

↳ 을의 돌림힘의 크기가 갑의 돌림힘의 크기보다 크다.
[돌림힘의 크기 비교는 정답 풀이 참고]

최선의 조언

지문 속 개념 계산 문제는 과학·기술 문제에서 꼭 나온다고 생각 하자. 이 계산 문제는 5개의 선지 중에서 정/오 판단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리므로 다른 선지를 먼저 살펴본 뒤 나중에 보는 것이 좋다.

최선의 Q&A

Q 갑과 을이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각각 300N, 200N의 힘으로 미니까 돌림힘의 방향, 동격으로 회전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둘의 방향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왜 틀린 건가요?

A '을은 문을 사이에 두고 갑의 반대쪽에서[5문단]에 따라 서로 반대 방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돌림힘의 방향도 반대이다. 을이 갑보다 돌림힘이 크기 때문에 알짜 돌림힘의 방향은 <을 → 갑>으로 갑의 돌림힘의 방향인 <갑 → 을>과는 반대가 된다.

07.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13위

#비교 선지의 법칙 #3점 #보기 제시 #출제자의 심리 #최선의 Q&A

정답률 7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7%	② 7%	③ 6%	④ 70%	⑤ 10%

정답 풀이

④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한 상태에서 원판이 두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의 4배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1)두 돌림힘의 합을 알짜 돌림힘이라 한다. [3문단]
- 일정한 형태의 물체에 일정한 크기와 방향의 알짜 돌림힘을 가하여 물체를 회전시키면,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알짜 돌림힘의 크기와 2)회전 각도의 곱이고 그 단위는 J(줄)이다. [4문단]

↳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한 상태라면, 두 돌림힘의 합(A+B)인 알짜 돌림힘이 B에 가해 주는 힘이 되어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한다.

그런데 B에 가해 주는 힘은 동일하기 때문에 원판 회전 수, 즉 회전 각도에 따라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의 배수를 비교하면 된다. 그래서 두 바퀴 회전(720°)한 것은 한 바퀴 회전(360°)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의 2배이다.

1등급 가이드

★출제자의 심리를 알아보자!

왜 하필 선지 ④에서 4배라고 했을까?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끝 문단 3문장)한다는 내용을 보고 제곱에 정비례라는 내용만이 머릿속에 남아 무턱대고 적용했다면 출제자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 두 바퀴 회전(720°)과 한 바퀴 회전(360°) → 2배 차이(○)

* (영동하게 회전 속도까지 생각해서) 제곱에 정비례는 4배(x)

최선의 Q&A

Q 알짜 돌림힘을 물어봤는데 A의 힘을 제거했으니 힘은 하나가 되는 건데 알짜 돌림힘은 두 개의 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제거된 A의 힘을 '0'으로 생각해서 나머지 힘과 더한 것이 알짜 돌림힘이 된다. 힘이 없다. = '0'의 힘이 존재

Q 회전 각도가 없는데 어떻게 나온 거죠?

A 1바퀴 회전이 360°이고 2바퀴 회전이 720°인 것은 기초 상식이다. 이런 수준의 배경지식은 지문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야 한다.

X 오답 풀이

① 두 힘을 계속 가해 주는 상태에서 원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1)⟨돌림힘⟩의 크기는 <회전축에서 X까지의 거리>와 가해 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되고 그 단위는 N·m(뉴턴 미터)이다. → (돌림힘의 크기 = ~거리 × 힘) [2문단]

•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돌림힘의 합을 <알짜 돌림힘>이라 한다. ~2)두 <돌림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차가 되고 그 방향은 더 큰 돌림힘의 방향과 같다. [3문단]

• 3)⟨알짜 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4)⟨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고 그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음(-)의 일을 한다. 5)어떤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그만큼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그만큼 회전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끝 문단]

• <보기>

돌고 있는 원판 위의 6)두 점 A, B는 그 원판의 중심 O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회전축에서 각각 0.5R, R만큼 떨어져 O, A, B의 순서로 한 직선 위에 있다. A, B에는 각각 \vec{OA} , \vec{OB} 와 직각 방향으로 표면과 평행하게 7)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여 8)원판을 각각 시계 방향(A)과 시계 반대 방향(B)으로 밀어 준다. 현재 이 9)원판은 시계 반대 방향(B)으로 회전하고 있다.

↳ 두 힘은 같고 7) B($\rightarrow 1R$)가 A($\rightarrow 0.5R$)보다 거리가 더 멀기 6) 때문에 <돌림힘>은 B가 더 크다. 1) 그리고 A와 B의 <돌림힘>이 서로 반대 방향 8)이기 때문에 <알짜 돌림힘>은 B-A가 되며, 2) B의 방향(시계 반대)으로 힘이 가해진다. 2, 8)

이와 마찬가지로 원판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9) 때문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한다. 3~4) 따라서 두 힘을 계속 가해 주는 상태에서 원판의 회전 운동 에너지(속도)는 증가한다. 5)

② A, B에 가해 주는 힘을 모두 제거하면 원판은 일정한 회전 속도를 유지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물체에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1)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물체에 힘을 가해야 한다. [2문단]

• <보기>

2) 현재 이 원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단, 3) 원판에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고 회전축은 고정되어 있다.

↳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물체에 힘을 가해야 하기 1) 때문에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제거하면 회전 속도를 변화시킬 수 없어 원판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원판에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고 회전축은 고정되어 있기 3) 때문에 원판에 미치는 마찰력 등 회전 속도에 변화를 줄 만한 다른 변수를 생각하면 안 된다.

③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원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1) 두 '돌림힘'의 합을 '알짜 돌림힘'이라 한다. [3문단]

• 2) '알짜 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고 그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음(-)의 일을 한다. ~그러므로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 3)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증가하고, [끝 문단]

• <보기>

A, B에는 각각 \overline{OA} , \overline{OB} 와 직각 방향으로 표면과 평행하게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여 원판을 각각 시계 방향(A)과 4) 시계 반대 방향(B)으로 밀어 준다. 현재 이 5) 원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두 '돌림힘'의 합(A+B)인 '알짜 돌림힘' 1)이 B가 된다. B는 시계 반대 방향 4)으로 원판의 회전 방향 5)과 일치한다.

알짜 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기 2) 때문에 그에 따라 원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한다. 3)

⑤ B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원판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차 감소하여 0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1) 두 '돌림힘'의 합을 '알짜 돌림힘'이라 한다. [3문단]

• 2) '알짜 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고 3) 그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음(-)의 일을 한다. ~그러므로 4)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증가하고, 5) 음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감소한다. [끝 문단]

• <보기>

A, B에는 각각 \overline{OA} , \overline{OB} 와 직각 방향으로 표면과 평행하게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여 원판을 각각 6) 시계 방향(A)과 시계 반대 방향(B)으로 밀어 준다. 현재 이 7) 원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 B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두 '돌림힘'의 합(A+B)인 '알짜 돌림힘' 1)이 A가 된다. A는 시계 방향 6)으로 원판의 회전 방향 7)과 반대이다.

알짜 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이 음(-)의 일을 하기 3) 때문에 원판의 회전 속도가 감소하여 5) 운동 에너지가 0이 된다.

이때부터 A의 힘의 방향과 원판의 회전 방향이 동일하게 시계 방향으로 일치되고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기 2) 때문에 회전 속도(운동 에너지)가 다시 증가 4)한다.

08~09 산화 작용에 의한 지방질의 산패

1 견과류와 같이 지방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을 장기간 저장하다 보면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 2이)는 대개 산패로 인해 발생한다. 3산패는 저장중인 식품에서 비정상적인 맛과 냄새가 나는 현상을 말한다. 4지방질이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 빛 등의 영향을 받으면 산화 작용이 일어나 산패에 이르게 된다. 5이러)한 산패는 지방질을 구성하는 성분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

1 산패의 개념과 원인

* 산패: 저장 중인 식품에서 비정상적인 맛과 냄새가 나는 현상. (지방질이 공기에 노출 → 열, 빛을 받음. → 산화 작용 → 산패)

2 일반적으로 지방질은 사슬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지방질 한 분자에는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다. 2지방산은 탄소끼리의 결합을 중심으로 탄소와 수소, 탄소와 산소의 결합을 포함한 사슬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글리세롤과 결합된 탄소를 제외한 모든 탄소는 수소와 결합되어 있다. 3지방산에서 탄소끼리의 결합은 대부분 단일결합인데 이중결합인 경우도 있다. 4이중결합이 없으면 포화 지방산, 한 개 이상의 이중결합이 있으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한다. 5오메가-3 지방산이나 오메가-6 지방산은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이다. 6산화 작용에 의한 산패는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된 지방질에서 일어나며, 이중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잘 일어난다. 7글리세롤은 지방질의 산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산패와 관련된 지방질 구성 성분의 구조

* 지방질: 사슬 모양,
지방질 한 분자 = 글리세롤 한 분자 + 지방산 세 분자

* 지방산의 구조: <탄소끼리>의 결합을 중심,
<탄소와 수소>, <탄소와 산소>의 결합을 포함한 사슬 구조

* 모든 탄소는 수소와 결합(글리세롤과 결합된 탄소를 제외)

* 불포화 지방산: 탄소끼리의 이중결합○

* 포화 지방산: 탄소끼리의 이중결합×

* 산패가 일어나는 조건: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된 지방질에서 일어남.
→ <이중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잘 일어남.>

* 글리세롤은 지방질의 산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

1

1~2

* <결과 + 원인>의 구조.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논리 학습의 기본이 된다. (원인과 결과 바꿔치기에 주의!)

4~5

* '지방질, 산패'처럼 첫 문단부터 개념이나 대상이 2개 이상 나오면 좀 더 낮은 것(산패)에 포인트를 두자.

5

* '성분의 구조와 관련'을 통해 <구조>를 이루는 문장들이 나올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순서, 위치, 포함, 종속 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에 주력!)

2

1

* '일반적으로'를 통해, 이와 대립 항을 이루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의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국어 시험에서 대립 항은 출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테마이다. 지문을 읽어 나갈 때 특정 어휘에 해당하는 대립 항이 떠오른다면 같이 묶어서 염두에 두자!)

* '지방질(1) = 글리세롤(1): 지방산(3)'처럼 숫자나 비례 관계에 주의하자!

4

* '포화 지방산 → 불포화 지방산'처럼 반대 개념에는 언제나 독해 포인트를 두자.

6

* '~할수록 ~하다'처럼 비례적 표현은 선지 정/오 판단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3 1예를 들어 글리세롤에 오메가-6 지방산만이 결합되어 있는 ①A 지방질이 있다고 하자. 2A 지방질의 오메가-6 지방산 사슬에 있는 탄소에서 산화 작용이 일어나 산패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라디칼 분자들이다. 3대부분의 분자들은 짝수의 전자를 가지는데, 외부 에너지의 영향으로 홀수의 전자를 갖는 분자로 변화되기도 한다. 4이 변화된 분자를 라디칼 분자라고 한다. 5일반적으로 라디칼 분자는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하여 주위 분자들과 쉽게 반응하는데, 이러한 반응 과정을 거치면 에너지가 낮고 안정적인 비(非)라디칼 분자로 변화한다.

3 산패에 이르게 하는 라디칼 분자

- * 라디칼 분자: 외부 에너지의 영향으로 홀수의 전자를 가짐.
- * 라디칼 분자 →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 → 주위 분자들과 쉽게 반응 → 비라디칼 분자(에너지가 낮고 안정적)로 변화

4 1A 지방질의 이중결합 바로 옆에 있는 탄소가 열이나 빛의 영향을 받으면, A 지방질 분자가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 알릴 라디칼로 변화한다. 2알릴 라디칼은 산소와 결합하여 퍼옥시 라디칼로 변화한다. 3퍼옥시 라디칼은 주위에 있는 다른 오메가-6 지방산 사슬과 반응하여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들고, 자신은 비(非)라디칼 분자인 하이드로퍼옥사이드로 변화한다. 4새로 생성된 알릴 라디칼은 다시 산소와 결합하여 퍼옥시 라디칼이 되면서 위의 연쇄 반응이 반복된다. 5이로 인해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계속 생성되고, 생성된 하이드로퍼옥사이드는 분해되어 알코올, 알데히드 등의 화합물로 변화한다. 6이 화합물들이 비정상적인 냄새를 내게 하는 주원인이다.

4 산패의 과정

- * (A 지방질 분자) + (열, 빛) → (알릴 라디칼) + (산소) → (퍼옥시 라디칼) + (오메가-6 지방산 사슬) → (새로운 알릴 라디칼) 생성 + (하이드로퍼옥사이드)로 변함.
- * 새로운 (알릴 라디칼) + (산소)의 연쇄 반응 반복 → (하이드로퍼옥사이드) 계속 생성
- * 하이드로퍼옥사이드 → 분해되어 화합물(알코올, 알데히드)로 변화 → 비정상적 냄새의 원인

3

1~2

- * 쓱~ 보고 지나가도 되는 보통의 예시와는 달리, 신정보의 개념(라디칼 분자)이 나온다면 예시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2

- * '산화 작용이 일어나 산패에 이르게~' = <산화 작용 → 산패>처럼 순서에 유의! (순서를 뒤바꾼 선지가 출제되기도 한다.)

3

- * (<~으로>)를 원인으로 치환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외부 에너지의 영향으로'(원인) + 홀수의 전자를 갖는 분자로 변화(결과)

5

- * '라디칼 분자 ↔ 비라디칼 분자'처럼 반대 개념에는 언제나 독해 포인트를 두자.

4

- * 정보량이 많다면, 그에 따라 밑줄이나 동그라미 등 기호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구조화가 잘된 지문은 문제 풀이 시간을 최대 1/2까지 단축시켜 준다.

1

- * 문장이 길고 복잡하다면, 일단 전체 문장의 뼈대인 <주어 + 서술어(A 지방질 분자가~알릴 라디칼로 변화한다.)>를 파악한 뒤 나머지 수식어들을 살펴보자.
- * <(A 지방질 분자)가 B(알릴 라디칼)로 변화>에서 주체와 객체를 혼동하지 말자! 이를 뒤바꾼 잘못된 선지가 자주 출제된다.

5 1A 지방질에서 산패가 발생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방법에는 산화방지제를 첨가하는 것이 있다. 2 산화방지제는 라디칼 분자에 전자를 주어 짝수 전자를 갖게 하여 다른 분자들과 쉽게 반응하지 않도록 한다. 3 예를 들어 식물에 들어 있는 천연 산화방지제인 비타민 E는 퍼옥시 라디칼을 안정화시켜 오메가-6 지방산 사슬이 알릴 라디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방해한다. 4 이 밖에도 산패로 진행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작용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5 산패 지연 방법
 * 산화방지제: 라디칼 분자에 전자를 주어 짝수 전자를 갖게 하여 다른 분자들과 쉽게 반응하지 않도록 함. → 산패 발생을 지연시킴.

5
2
 * 주체(산화방지제) + 객체(라디칼 분자) + 목적어(전자)처럼 여러 대상이 문장에서 각기 다른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헷갈리기 쉬우니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 예시는 앞 내용의 핵심을 보조하는 것이므로 신속하게 읽는 것이 좋다.

08.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02위

#내용 일치 #원인+결과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7%	① 1%	② 2%	③ 9%	④ 87%	⑤ 1%

정답 풀이

④ 불포화 지방산 사슬에 있는 탄소에서 일어난 산화 작용이 산패로 이어진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산화 작용>에 의한 <산패>는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된 지방질에서 일어나며, 이중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잘 일어난다. [2문단]

㉮ 지문 POINT

* <산화 작용>에 의한 <산패> → 산화 작용(원인) + 산패(결과)

☞ <산화 작용> 때문에 <산패>가 일어남.

<산화 작용>이 <산패>를 일으킴.

↳ 불포화 지방산 사슬에 있는 탄소에서 일어난 <산화 작용>이 <산패>로 이어진다.

패턴 공략

※ 원인(A) + 결과(B)의 유형

1) A 때문에 B하다.

2) A는 B하게 하다.

3) A가 B를 일으키다.

X 오답 풀이

① 오메가-3 지방산에는 이중결합 구조가 없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중결합이 없으면 포화 지방산, 1)한 개 이상의 이중결합이 있으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한다. 2)<오메가-3 지방산>이나 오메가-6 지방산은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이다. [2문단]

↳ <오메가-3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이며 2)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 구조가 있다. 1)

패턴 공략

▶ 지문: A는 B가 있다. → 부적절 선지: A는 B가 없다.

② 지방산에서 글리세롤과 결합된 탄소는 수소와 결합되어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지방산은 탄소끼리의 결합을 중심으로 탄소와 수소, 탄소와 산소의 결합을 포함한 사슬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1)글리세롤과 결합된 탄소를 제외한 모든 탄소는 수소와 결합되어 있다. [2문단]

↳ 지방산에서 글리세롤과 결합된 탄소는 제외1)하고 나머지 모든 탄소가 수소와 결합되어 있다.

패턴 공략

▶ 지문: A를 제외 → 부적절 선지: A가 해당

③ 포화 지방산 사슬에 이중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산패가 더 잘 일어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산화 작용에 의한 <산패>는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된 지방질에서 일어나며, 이중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산패>가 잘 일어난다. [2문단]

↳ 포화 지방산이 아닌, <불포화 지방산> 사슬에 이중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산패가 더 잘 일어난다.

⑤ 지방질은 지방산 한 분자에 글리세롤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일반적으로 지방질은 사슬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지방질> 한 분자에는 1)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다. [2문단]

↳ <지방질>은 '지방산' 세 분자에 '글리세롤' 한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다.

※ 내용 일치 문제의 정/오답 근거를 여러 군데가 아닌 2문단에서만 설정했는데 실제 수능에서 이런 경우는 드물다.

09.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60위

#이해 #원인+결과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93%	① 1%	② 2%	③ 93%	④ 2%	⑤ 2%

정답 풀이

③ A 지방질에서 변화한 알릴 라디칼은 A 지방질 분자보다 에너지가 낮아서 산소와 쉽게 결합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일반적으로 라디칼 분자는 1)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하여 주위 분자와 쉽게 반응하는데, [3문단]

• A 지방질의 이중결합 바로 옆에 있는 탄소가 열이나 빛의 영향을 받으면, 2) A 지방질 분자가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 <알릴 라디칼>로 변화한다. [4문단]

↳ A 지방질에서 변화한 '알릴 라디칼' 2)은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하여 주위 분자와 쉽게 반응 1)하기 때문에 산소와 쉽게 결합하는 것이지 A 지방질 분자보다 에너지가 낮아서 산소와 쉽게 결합하는 것이 아니다.

패턴 공략

▶ 인과 관계가 아닌데, 인과 관계인 척하는 부적절 선지는 출제자들이 좋아해서 자주 활용하는 요소이다.

오답 풀이

① A 지방질 분자가 홀수의 전자를 갖는 라디칼로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대부분의 분자들은 짝수의 전자를 가지는데, 외부 에너지의 영향으로 1) 홀수의 전자를 갖는 분자로 변화되기도 한다. 이 변화된 분자를 <라디칼 분자>라고 한다. [3문단]

• 2) <A 지방질 분자>가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 알릴 <라디칼>로 변화한다. [4문단]

↳ A 지방질 분자가 홀수의 전자를 갖는 1) 라디칼로 변화 2)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② A 지방질에서 알코올은 하이드로퍼옥사이드의 분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로 인해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계속 생성되고, 생성된 1) <하이드로퍼옥사이드>는 분해되어 <알코올>, 알데히드 등의 화합물로 변화한다. [4문단]

↳ A 지방질에서 <알코올>은 <하이드로퍼옥사이드>의 분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1)

④ A 지방질에서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분해되어 생성된 알데히드는 비정상적인 냄새를 나게 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로 인해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계속 생성되고, <생성된 하이드로퍼옥사이드>는 분해되어 알코올, <알데히드> → (원인) 등의 화합물로 변화한다. 이 화합물들이 비정상적인 냄새 → (결과)를 나게 하는 주원인이다. [4문단]

↳ A 지방질에서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분해되어 생성된 <알데히드>는 비정상적인 냄새를 나게 한다.

* 지문: 알데히드(원인)는~비정상적인 냄새(결과)를 나게 하는 원인이다.
* 선지 ④: 알데히드(원인)는 비정상적인 냄새(결과)를 나게 한다.

⑤ A 지방질에서 생성된 퍼옥시 라디칼은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들고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퍼옥시 라디칼>은 주위에 있는 다른 오메가-6 지방산 사슬과 반응하여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들고, 자신은 비(非)라디칼 분자인 <하이드로퍼옥사이드>로 변화한다. [4문단]

↳ A 지방질에서 생성된 <퍼옥시 라디칼>은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들고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된다.

지문 난이도 ★★★★★

2016학년도 수능 B형 29~30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3위

01 ~ 02 빗방울의 종단 속도

1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속에서 자유 낙하할 때 물체에는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다. **2**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다. **3**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4**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이다. **5**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 수준이므로,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미하다. **6** 그러나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할 경우에는 부력이 물체의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1 자유 낙하에 작용하는 힘 ①-중력과 부력

- * 중력 = (물체의 질량) × (중력 가속도) →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
- * 부력: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 무게의 힘
→ 중력과 반대 방향
- * 낙하 물체의 상대적 밀도 ↑: 부력이 물체의 낙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의 낙하: 부력이 물체의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줌.

2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2**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이에 상응하여 커진다. **3** 항력은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의 합이다. **4** 마찰 항력은 유체의 점성 때문에 물체의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으로, 유체의 점성이 클수록 물체의 표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5** 압력 항력은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해 생기는 항력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2 자유 낙하에 작용하는 힘 ②-항력

- * 항력: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 = 마찰 항력 + 압력 항력
→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며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커짐.
- * 마찰 항력: 유체의 점성 때문에 물체의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
→ 유체의 점성이 크거나 물체의 표면적이 클수록 커짐.
- * 압력 항력: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해 생기는 항력.
→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커짐.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1
* 한 문장에서 개념 3개가 제시(열거)되었으니, 3개의 <개념어 + 설명>이 나올 것이다. 처음 등장하는 개념어에는 진한 동그라미나 네모로, 설명의 키워드는 밑줄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보통 도입부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개념어가 나오면, 이것이 지문의 중심 화제에 해당하지만 열거 형태라면 다른 중심 화제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다.

2
* 계산식을 나타내는 개념은 필히 해당 요소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 선지의 정/오 판단 근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3, 4-1도 마찬가지로]

3
* 부력의 개념 설명이 복잡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일단 수식하는 말을 빼놓고 핵심어에 동그라미 & 밑줄을 해 두자. (부력은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 → '부력'과 유체의 '무게'는 비례한다는 것만은 반드시 잡고 가야 한다.) 과학 지문에서는 <계산식과 비례 관계> 정리가 관건!

5
* 대상의 비교가 몇 배가 아닌, 몇 분의 몇으로 제시되면 어느 대상이 더 우월한지 헛갈리기 쉽기 때문에 확실히 메모해 두어야 한다. (1000배 차이, 밀도: 물 > 공기)
* <원인(~이므로) + 결과(빗방울이~)>의 구성. 과학 지문에서는 특히 인과 관계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

5~6
* 밀도에 따른 부력의 영향력을 비교하고 있다. 밀도와 부력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다음 문단을 읽어야 한다.

2

1
* <설명 + 개념어>의 형태로, 흔한 <개념어 + 설명>보다는 인지가 잘 안 되니 개념어에 진한 동그라미나 네모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다.
* 항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 그렇다면, 운동 방향과 동일하게 작용하는 개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예측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2, 4, 5
* <A(할)일수록 ~ B(0)이다.>처럼 대상의 비례 관계가 나타나면 화살표로 시각화하는 것이 좋다. 문제화되기 딱 좋은 내용이다.

3 1안개비의 빗방울이나 미세 먼지와 같이 작은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가 매우 작아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빗방울의 크기가 커지면 전체 항력 중 압력 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uparrow 진다. 3반면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한 압력 항력이 매우 크므로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에 기여하는 비중은 무시할 만하다.

3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의 상관관계
 * 물체의 크기가 커질수록 마찰 항력 ↓, 압력 항력 ↑
 * 빗방울 낙하: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 차지
 * 스카이다이버의 낙하: 압력 항력 매우 큼, 마찰 항력은 무시할 만함.

4 1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2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한 속도를 종단 속도라 한다. 3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 의한 것이다.

4 종단 속도의 개념 및 발생 원인
 * 빗방울이 낙하할 때: $\{(항력 + 부력) < 중력\} \rightarrow$ 물체의 낙하 속도 ↑
 \rightarrow 항력 ↑ $\rightarrow \{(항력 + 부력) = 중력\} \rightarrow$ 가속도 0, 속도가 일정해짐.
 \Rightarrow 종단 속도
 *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이유: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 때문

3
 1 * '작은 물체가'를 통해, 이와 대립적인 '큰 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서술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립어>를 통한 전개 방식의 예측이다. 그렇다면 큰 물체가 시작되는 곳 바로 직전이 문단을 반으로 나누는 기준이 된다.

3
 * 해석 주의: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에 기여하는 비중은 무시할 만하다.' \rightarrow 마찰 항력의 영향력 전혀 없음 \times , 마찰 항력의 영향력 있긴 하나 거의 미미함.○

4
 ※ 중심 화제가 처음에 언급되는 보통의 지문들과는 달리 <종단 속도>처럼 중심 화제가 끝 부분에 나오는 지문은 독해하기 어려운 편에 속한다. 도입부에서 '이 지문이 무엇(화제)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거지?'라는 찝찝한 의문이 든다면 끝 부분에서 제시될 화제를 위해 도입과 본문을 설명하는 구조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지문은 대개 문제도 어려우니 특별히 시간을 많이 배분해서 꼭 맞히겠다는 의지를 더욱더 불태워야 한다.

01.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8위

#공통 선지의 법칙 #내용 일치 #최협의 Q&A #지문에 없는 배경지식

정답률 4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4%	② 10%	③ 21%	④ 44%	⑤ 21%

정답 풀이

④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항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 (‘부력’과 ‘유체의 무게’는 정비례) [1문단]
-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2)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힘은 3)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2문단]

66 지문에 없는 배경지식!

- 밀도 = 질량/부피
- 무게 = 질량×중력 가속도
- ‘밀도’와 ‘무게’는 정비례

↳ ‘무게’와 정비례하는 〈밀도〉가 균일한 액체에서는, 그 〈액체의 무게〉도 어느 곳이나 동일하다.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도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이때 〈부력〉을 결정하는 것은 〈물체의 부피〉와 〈유체의 무게〉일 뿐이지!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은 2) 〈부력의 값〉을 결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항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동전에 변형이 일어난다는 조건이 없는 한, 〈동전의 부피〉는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부력의 정의 중 〈배제된 부피〉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항력〉은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이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3) 그래서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의 경우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낙하 속도가 증가하면 〈항력〉은 커지게 된다.

그러나 〈항력〉은 〈동전의 부피〉와 중력으로 인해 생긴 하강 운동에 저항하는 힘일 뿐 〈부력〉 자체의 값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최협의 Q&A

Q 수능은 지문을 근거로 푸는 것 아닌가요? 배경지식을 몰라 풀 수 없다면 출제 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A 수능이 지문을 근거로 푸는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밀도’와 ‘무게’가 정비례한다는 배경지식 정도는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의 수준, 곧 수능을 보는 고등학생에게는 거의 상식이기 때문에 지문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밀도’와 ‘무게’가 정비례한다는 배경지식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수험생이라면... 좀 심각하다. 지금 당장 기출 공부 이전에 배경지식 및 어휘력 공부가 필요할 듯하다.

패턴 공략

- ♣ **비문학 일치-불일치 유형 발문별 난이도**
- * 윗글을 통해 바르게 추론한 것은? ≥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윗글과 일치하는 것은?

X 오답 풀이

① 스카이다이버가 낙하 운동할 때에는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반면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한 압력 항력이 매우 크므로 1)〈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에 기여하는 비중은 무시할 만하다. [3문단]

↳ 〈스카이다이버〉가 낙하 운동할 때에는 전체 항력 중 〈마찰 항력〉이 기여하는 비중은 무시할 정도로 적다. 1)

② 물체가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는 그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1)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2)〈압력 항력〉은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해 생기는 항력으로, [2문단]

↳ 물체가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를 〈압력 항력〉이라 한다. 2) 〈항력〉은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여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기 1) 때문에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키지 못한다.

③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가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와 같아진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때 1)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라 한다. [끝 문단]

↳ 물체가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면 가속도가 0이 된다 1)는 것이지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와 같아지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가속도가 0이더라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는 0이 아니다.

⑤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 쇠막대에 작용하는 부력은 서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가 더 크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 (<부력>과 <유체의 무게>는 정비례) [1문단]

🔍 지문에 없는 배경지식!

- 밀도 = 질량/부피 • 무게 = 질량×중력 가속도
→ <밀도>와 <무게>는 정비례

↳ <무게>와 정비례하는 <밀도>가 균일한 액체에서는, 쇠막대가 어디를 어떻게 있든 그 <액체의 무게>도 어느 곳이나 동일하다. 그래서 <액체의 무게>로 결정되는 쇠막대의 <부력>도1) 동일하게 된다. 이때, 쇠막대의 변형이 일어난다는 조건이 없는 한, 쇠막대의 부피는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부력의 정의 중 '배제된 부피'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공통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위 문제의 선지 ④, ⑤는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부력을 말하는 것이 공통된다.

- ④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부력은~ (☆정답)
- ⑤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부력은~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④, ⑤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02.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9위

#들 다 다른 일정함 유지 #3점 #보기 제시 #탐구 #최선의 Q&A #지문에 없는 배경지식 #비례 관계 #최선의 조언

정답률 41%	선지별 선택 비율				
	① 8%	② 24%	③ 13%	④ 14%	⑤ 41%

✓ 정답 풀이

- ⑤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B에 작용하는 항력은 공기 중에서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크겠군.

🔍 지문에 없는 배경지식!

- 밀도 = 질량/부피 • 무게 = 질량×중력 가속도
→ <밀도>와 <무게>는 정비례

🔍 지문 속 근거 찾기

- 1)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항상 2)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1문단]
→ <부력>과 <유체의 무게>는 정비례
→ <부력>은 물체를 상승시킴.
※ 종합 ☞ <유체의 밀도>와 <부력>은 정비례!
-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3)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이에 상응하여 커진다. [2문단]
→ <항력>은 상승하고 있는 물체를 하강시킴.
→ <항력>은 '물체의 속도'에 정비례

☑ 어휘 체크

* 중력: 지구 위의 물체가 지구로부터 받는 힘.

🗨 지문 POINT

- * <유체의 밀도>, <부력>, <상승 속도>, <항력> 모두 정비례!
- * 상승 운동 시: 부력(물체 상승시킴) ↔ 중력과 항력(물체 하강시킴)
- *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vs {<공기 중>} = <공기와 동일한 밀도>

↳ <유체의 밀도>와 <물체의 부력>은 정비례하기1) 때문에 <공기 중>보다는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의 B에 작용하는 물체의 부력이 더 크다.

이때, <부력>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2) 때문에 <부력>이 더 큰 쪽이 상승 속도가 더 높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물체의 속도에 정비례하는3) <항력>도 더 커진다.

☞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B의 '부력'이 더 커짐. → 상승 '속도' 더 높아지고 → '항력'도 더 커짐.

🌀 패턴 공략

▶ 지문: A와 B는 정비례, B와 C는 정비례

→ 적절 선지: A, B, C는 정비례

수치 및 비례 관계가 자주 나오는 과학·기술 지문에 꼭 등장하는 유형

최선의 Q&A

Q 상승 운동을 할 때, 지문의 어디를 근거로 중력이 아래로 향한다는 것이지요?

A 지문에 없다. 중력 정도는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중력은 물체가 상승하던 하강하던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으로, 지구 중심을 향한다.

✗ 오답 풀이

①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A에 작용하는 항력이 B에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2문단]

↳ A와 B가 고정되어 있다면 둘 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에 따라 <항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항력>은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1)으로 운동을 하는 물체에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 A에 작용하는 항력이 B에 작용하는 항력보다 작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66 지문에 없는 배경지식!

- 밀도 = 질량/부피
- 무게 = 질량 × 중력 가속도
- '밀도'와 '무게'는 정비례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2)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항상 3)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1문단]
- '<부력>은 물체를 상승시킴.'

-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4)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2문단]
- '<항력>은 상승하고 있는 물체를 하강시킴.'

-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5)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6)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라 한다. [끝 문단]

• <보기>

7)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밀도가 서로 다른 구 모양의 물체 A와 B를 공기 중에 고정하였다. 이때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 8)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더 크다.

🗉 지문 POINT

※ 부력(물체 상승시킴.) → 중력과 항력(물체 하강시킴.)

↳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면, <종단 속도>가 되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져 5~6) <부력 + 중력 = 항력>이 된다. 이때 <항력>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 이유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3) 물체를 상승시키는 <부력>에 반대(하강)로 힘이 작용하기 4) 때문이다.

그런데 A와 B의 크기와 모양이 동일하므로 7), '부피'가 동일하고 이에 비례하는 <부력>도 동일해진다. 2)

그렇다면 <부력 + 중력 = 항력> → <항력 = 부력 - 중력>에서, <부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중력>이 낮으면 <항력>이 높아진다. 밀도는 A가 B보다 작기 8) 때문에, 무게와 <중력>도 A가 B보다 작다. 1) 그래서 물체의 <중력>이 낮은 A에 작용하는 <항력>이 B에 작용하는 <항력>보다는 크다.

※ 배경지식(밀도 = 질량/부피) 없이 풀기!

[물체의 밀도, 부력의 영향력, 항력과의 상관성]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이다.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 수준이므로, → ('물'의 밀도는 공기의 1000배로, '스티로폼'의 밀도보다 큼.)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미하다. 그러나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할 경우에는 → ('스티로폼'의 밀도는 '물'보다 작음.) <부력>이 물체의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1문단]

<밀도: 물 > 스티로폼>일 경우,

- 부력의 영향력: 스티로폼 > 물

- 항력의 영향력: 스티로폼 > 물

↳ <보기>에서 물체 A는 B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A가 부력의 영향을 더 받는다. 그렇다면 물체의 운동(상승 운동)에 저항(반대-하강 운동)하는 힘인 <항력>도 그와 비례하여 커진다. 그래서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크다. .

♣ 일정한 속도 유지?

☞ 둘 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고 했으므로 둘 다 동일한 속도이며 이에 따라 항력도 같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런데 둘 다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지 똑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철수는 10km를 영수는 20km를 계속 유지하면서 달리는 경우 둘 다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이지 둘이 똑같은 속도로 일정하게 달리는 것은 아니다.

최선의 조언

지문에 개념이 많고 복잡하다면, 침착하게 적절한 표시를 해 두는 습관을 기르자. 그냥 손가는 대로 눈가는 대로, 마구잡이로 메모를 하면 문제 풀이 시 혼란스러워진다. 선지에 따라 지문에서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문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게 시각화해 두어야 한다.

③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A가 고정되어 있을 때 더 크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다.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

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1문단]

↳ <부력>과 <중력>은 물체의 '질량', '부피', '유체의 무게' 등에 의해 결정되어 비교되는 것이지 속도의 증감이나 고정(속도 = 0)되어 있는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

최심의 Q&A

Q 선지 ③은 적절한 것 아닌가요? <부력 = 물체의 부피와 유체의 무게>, <중력 = 물체의 질량 × 중력 가속도>인데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는 중력 가속도도 커지니까 A가 고정되어 있을 때보다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가 더 큰 것 아닌가요?

A <중력 가속도>는 '중력이 야기하는 단위 시간당 물체의 속도 변화량'으로 <중력 가속도>의 개념을 파고들어 적용하면 굉장히 복잡해진다.

1문단에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다고 제시되어 있듯이, 낙하 속도와는 상관없이 (속도가 0이 되더라도) 표면적인 질량의 변화가 없는 A를 대상으로 한 <중력>이 결국에는 같다는 말이 된다. A(중력)라는 개념어 설명을 위해, 설명 안에 다시 A('중력' 가속도)가 들어 있는 난해한 경우이다.

<중력 가속도>가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면 (보기)에서 <중력 가속도>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이 없다. 1문단에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에서 변수는 <질량>임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중력 가속도>도 <중력>에 따른 것이므로 변수가 되지 않으며, 동일한 물체에서는 <질량>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④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겠군.

66 지문 속근거 찾기

• 1)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1문단]
→ ('부력'은 물체를 상승시킴.)

•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2)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3)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이에 상응하여 커진다. [2문단]

↳ A와 B가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위로 올리는 <부력> 때문1)이며,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2~3) 마침내 항력과 중력의 합이 부력의 크기와 같아져 일정한 속도(종단 속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항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종단 속도)에 도달한다는 선지 ④는 적절하지 않다.

최심의 조언

이번 지문의 문제들은 역대급 최악의 오답률을 기록하고 있다.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과학·기술 지문! 특히 과학·기술에 관한 배경지식이 별로 없는 학생들에게는 비문학 공부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지문일 것이다. 누구에게나 쉽게 읽히고 쉽게 풀리는 지문과 문제는 고득점을 원하는 수험생에게 별 의미가 없다. 안정적인 고득점을 원한다면, 다들 꺼려하는 어렵고 힘든 지문과 문제를 낱알이 파헤쳐 보고 끝까지 이해해 보려는 끈기와 열정이 필요하다. 이 끈기와 열정은 실제 수능에서도 고득점을 받는 기본 전제가 되는 마인드이다. 그냥 적당히 대충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면, 점수도 대충대충 받게 될 것이다. 『총만국』 교재로 공부하는 수험생들만큼은 대충대충을 버리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욱 반갑게 달려드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

메모

03~04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1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로 나뉜다. 2 파클리탁셀과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 3 그러므로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 세포 중 빈번하게 세포 분열하는 종류의 세포도 손상시킨다. 4 이러한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은 이 약제의 사용을 꺼리게 하는 주된 이유이다. 5 반면에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1 암 치료에 사용되는 세포 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

- * 항암제의 종류
 - 세포 독성 항암제
 - 표적 항암제
- * 세포 독성 항암제: 세포 분열 방해 → 세포 사멸 → 암세포 & 정상 세포 중 빈번하게 분열하는 세포 손상시킴. (예시: 파클리탁셀)
- * 표적 항암제: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

2 암세포에서는 변형된 유전자가 만들어 낸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세포 분열을 위한 신호 전달 과정을 왜곡하여 과도한 세포 증식을 일으킨다. 2 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려면 종양 속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이 필수적이다. 3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가 증식하고 종양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신호 전달 억제제와 신생 혈관 억제제로 나뉜다.

2 암세포의 증식 과정과 표적 항암제의 종류

- * 암세포의 증식 과정: 변형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단백질 생성 → 신호 전달 과정 왜곡 → 과도한 세포 증식
- * 암세포 → 종양의 조건: 새로운 혈관 생성이 필수
- * 표적 항암제
 - 신호 전달 억제제
 - 신생 혈관 억제제

1

1 * 대상(항암제)에서 또 다시 구체적인 두 가지의 대상(세포 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이 나왔다면, 앞으로 이 둘의 차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2~3

* <원인+결과>의 구조. 국어 공부에서 <원인+결과>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4~5

* 문제(항암제의 부작용)+해결(선택적으로 작용)의 구성으로, 첫 문단에서 중심 화제의 문제점(단점, 부작용 등)을 인지했다면 곧, 이를 해결할 내용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2

2 * '~이 필수적'과 같이 다른 경우(~이 없는!)를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어휘가 나오면 정/오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기 딱 좋으니 주의해야 한다.

* '~자라려면'과 같이 조건을 나타내면, 이를 근거로 문제의 정/오 판단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4-2~3도 마찬가지로]

3

* '신호 전달 억제제'와 '신생 혈관 억제제' 같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대상을 던져 놓고 마무리하면 다음 문단에서 이들에 대해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마련이다. 대상을 던져 놓은 마지막 문장 자체는 슬쩍 보고 넘겨도 좋다. 왜냐하면, 어차피 핵심은 다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3 1. 신호 전달 억제제는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과정 중 특정 단계의 진행을 방해한다. 2. 신호 전달 경로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신호 전달 억제제는 특정한 암에만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3. 만성골수성백혈병(CML)의 치료제인 이마티닙이 그 예이다. 4.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골수의 조혈 모세포가 혈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5.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95% 정도는 조혈 모세포의 염색체에서 돌연변이 유전자가 형성되어 변형된 형태의 효소인 Bcr-Abl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6. 이 효소는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증식시킨다. 7.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Bcr-Abl 단백질에 달라붙어 그것의 작용을 방해하는 이마티닙이 개발되었다.

3 신호 전달 억제제의 특성과 예

- * **신호 전달 억제제:**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과정 중 특정 단계의 진행을 방해
→ 특정 암에 치료 효과 (예시: 이마티닙)
- * **이마티닙:** Bcr-Abl 단백질에 달라붙어 암세포 증식을 방해함.

4 1. 신생 혈관 억제제는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2. 암세포가 증식하여 종양이 되고 그 종양이 자라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3. 종양이 계속 자라려면 종양에 인접한 정상 조직과 종양이 혈관으로 연결되고, 종양 속으로 혈관이 뻗어 들어와야 한다. 4. 대부분의 암세포들은 혈관내피 성장인자(VEGF)를 분비하여 암세포 주변의 조직에서 혈관내피세포를 증식 시킴으로써 새로운 혈관을 형성한다. 5.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종양의 혈관 생성을 저지할 수 있는 약제인 베바시주맵이 개발되었다. 6. 이 약제는 인공적인 항체로서 혈관내피 성장인자를 항원으로 인식하여 결합함으로써 혈관 생성을 방해한다. 7. 베바시주맵은 대장암의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다른 여러 종류의 암에도 효과가 있다.

4 신생 혈관 억제제의 특성과 예

- * **신생 혈관 억제제:** 새 혈관 생성 방해. (예시: 베바시주맵)
- * **종양의 성장 조건:** 암세포 증식 → 종양(산소 & 영양분 공급) → 인접한 정상 조직과 종양이 혈관으로 연결 → 혈관이 종양 속으로 뻗어 들어감.
- * **암세포의 새 혈관 생성 과정:** 혈관내피 성장인자(VEGF)를 분비 → 암세포 주변의 조직에서 혈관내피세포를 증식 → 새 혈관 형성
- * **베바시주맵:** 혈관내피 성장인자를 항원으로 인식하여 결합 → 혈관 생성을 방해

3

1
* '신호 전달 억제제'라는 단어 자체에서 '억제제'가 서술어 '방해한다'와 긴밀하게 관련된다.

2
* '암의 종류에 따라'를 통해 암의 종류가 열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3
* <일반적 대상(신호 전달 억제제)-구체적 예시(이마티닙)>의 구조.

4

1
* <주어+서술어>가 2개 이상인 겹문장에서는 해당 <주어+서술어>를 잘 짝지어야 한다.
- 안은문장: '신생 혈관 억제제는 ~ 방해한다.'
- 안긴문장: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생성한다.'

4~6
* <~새로운 혈관 형성> ↔ <~혈관 생성 저지+~혈관 생성 방해>
인접한 문장에서 대립적인 어구가 발견되면 밑줄을 그어 두고 주체를 파악하여 문맥의 흐름을 잡아야 한다.

03.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32위

#이해

정답률 75%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	② 19%	③ 2%	④ 2%	⑤ 75%

정답 풀이

⑤ ㉔은 ㉑과 달리 암세포가 분비하는 성장인자에 작용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 효소(Bcr-Abl 단백질)는 1)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증식시킨다.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2)Bcr-Abl 단백질에 달라붙어 그것의 작용을 방해하는 ㉑(이마티닙)이 개발되었다. [3문단]
- 대부분의 3)암세포들은 혈관내피 성장인자(VEGF)를 분비하여 암세포 주변의 조직에서 혈관내피세포를 증식시킴으로써 새로운 혈관을 형성한다.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종양의 혈관 생성을 저지할 수 있는 약제인 ㉔(베바시주맵)이 개발되었다. 이 약제는 인공적인 항체로서 혈관내피 4)성장인자를 항원으로 인식하여 결합함으로써 혈관 생성을 방해한다. [끝 문단]

↳ ㉑(이마티닙)은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1)하는 효소(Bcr-Abl 단백질)에 작용2)하지만 이와는 달리 ㉔(베바시주맵)은 암세포들이 분비하는 혈관내피 성장인자(VEGF)에 작용3)하여 혈관 생성을 방해한다. 4)

☞ 간단해 보이지만 지문에서 총 4개의 문장을 결합해야만 정확히 선지 ⑤가 정답임을 판단할 수 있다.

X 오답 풀이

① ㉑과 ㉔은 모두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㉑(파클리탁셀)과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세포 독성 항암제는 1)암세포뿐 아니라 정상 세포 중 빈번하게 세포 분열하는 종류의 세포도 손상시킨다. [1문단]
-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Bcr-Abl 단백질에 달라붙어 2)그것의 작용(→ 암세포의 증식)을 방해하는 ㉑(이마티닙)이 개발되었다. [3문단]

↳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2)하는 것은 ㉑(이마티닙)이고, ㉑(파클리탁셀)은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 세포 중 빈번하게 세포 분열하는 종류의 세포도 공격1)한다.

② ㉑은 ㉔과 달리 세포의 증식을 방해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㉑(파클리탁셀)과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는 1)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 [1문단]

- <암세포가 증식>하여 종양이 되고 그 종양이 자라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종양이 계속 자라려면 종양에 인접한 정상 조직과 종양이 혈관으로 연결되고, 종양 속으로 2)혈관이 뻗어 들어와야 한다. → (결국엔 암세포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혈관'이 생성되어야 함.) 대부분의 <암세포들>은 혈관내피 성장인자(VEGF)를 분비하여 암세포 주변의 조직에서 혈관내피세포를 증식시킴으로써 3)새로운 혈관을 형성한다. → (결국엔 암세포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혈관'이 생성되어야 함.)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4)종양의 혈관 생성을 저지 → (세포 증식 방해)할 수 있는 약제인 ㉔(베바시주맵)이 개발되었다. [끝 문단]

↳ ㉑(파클리탁셀)은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 증식을 방해 1)하고 ㉔(베바시주맵)도 마찬가지로 종양의 혈관 생성을 저지함으로써 세포의 증식을 방해4)한다.

㉔(베바시주맵)의 세포 증식 방해

☞ <세포가 증식>하려면, 혈관이 필요한데2~3) 혈관 생성이 저지된다면 세포 증식도 할 수 없게 된다.

③ ㉑과 ㉔은 모두 변형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복원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95% 정도는 조혈 모세포의 염색체에서 1)돌연변이 유전자가 형성되어 변형된 형태의 효소인 Bcr-Abl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2)Bcr-Abl 단백질에 달라붙어 그것의 작용(→ 암세포의 증식)을 방해하는 ㉑(이마티닙)이 개발되었다. [3문단]
-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종양의 3)혈관 생성을 저지할 수 있는 약제인 ㉔(베바시주맵)이 개발되었다. [끝 문단]

↳ ㉑(이마티닙)은 돌연변이 유전자가 형성되어 변형된 형태의 효소인 Bcr-Abl 단백질1)에 작용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방해하는 것2)이지 돌연변이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㉔(베바시주맵)은 신생 혈관 억제제3)로 돌연변이 유전자와는 상관없다.

④ ㉔은 ㉑과 달리 한 가지 종류의 암에만 효능을 보인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신호 전달 경로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신호 전달 억제제는 특정한 암에만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만성골수성백혈병(CML)의 치료제인 ㉑(이마티닙)이 그 예이다. [3문단]
- ㉔(베바시주맵)은 대장암의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2)다른 여러 종류의 암에도 효과가 있다. [끝 문단]

↳ ㉑(이마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CML)'이라는 한 가지 특정 암에만 효능을 보이며1) 이와는 달리 ㉔(베바시주맵)은 여러 종류의 암에도 효과가 있다. 2)

04.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40위

#보기 제시 #3점 #이해

정답률 49%	선지별 선택 비율				
	① 9%	② 49%	③ 8%	④ 19%	⑤ 15%

정답 풀이

② ㉠와 함께 Bcr-Abl 단백질을 액체에 넣는다면 암세포가 큰 종양으로 계속 자라겠군.

66 지문 속근거 찾기

• <보기>

어떤 암세포를 시험관 속의 액체에 넣었다. 액체 속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액체 속의 암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여 1~2mm의 작은 암 덩어리 자란 후 더 이상 증식하지 않았다. → (종양으로 자라지 못함.)

같은 종류의 암세포를 실험동물에게 주입하였다. ㉢(주입된 암세포)는 커다란 종양으로 계속 자라났고, 종양의 일부 조직을 조사해보니 조직 내부에 혈관이 들어차 있었다.

→ (혈관의 생성 때문에 종양으로 자람.)

- 1(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려면) 종양 속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이 필수적이다. [2문단]
-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95% 정도는 조혈 모세포의 염색체에서 돌연변이 유전자가 형성되어 변형된 형태의 효소인 <Bcr-Abl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이 효소(Bcr-Abl 단백질)는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여 2(암세포를 증식시킨다. [3문단])

↳ ㉠(액체 속의 암세포)와 함께 <Bcr-Abl 단백질>을 액체에 넣는다면 암세포를 증식시킬 뿐, 암세포가 큰 종양으로 자라는 것은 아니다. <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려면> 종양 속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이 있어야 한다. 1)

X 오답 풀이

① ㉠에서는 혈관내피 성장인자 분비를 통한 혈관 생성이 이루어지지 못했겠군.

66 지문 속근거 찾기

- 1(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려면) 종양 속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이 필수적이다. [2문단]

↳ <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려면> 종양 속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이 필수적이다. 1) 그래서 종양으로 자라지 못한 ㉠(액체 속의 암세포)에서는 혈관내피 성장인자 분비를 통한 혈관 생성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액체 속의 암세포)와는 상반된 ㉢(주입된 암세포)의 결과(→ 종양의 일부 조직을 조사해 보니 조직 내부에 혈관이 들어차 있음.)를 통해서도 선지 ①의 추측은 가능하다.

③ ㉢와 함께 세포 독성 항암제를 주입한다면 암세포의 분열이 억제되겠군.

66 지문 속근거 찾기

- 1(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 [1문단]

↳ ㉢(주입된 암세포)와 함께 <세포 독성 항암제>를 주입한다면 암세포의 분열이 억제될 것이다. 1)

④ ㉢가 종양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었기 때문이겠군.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암세포가 증식하여 종양이 되고 그 1)종양이 자라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종양이 계속 자라려면 종양에 인접한 정상 조직과 종양이 혈관으로 연결되고, 종양 속으로 혈관이 뻗어 들어와야 한다. → (혈관 속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면 종양이 자람.) [끝 문단]

• <보기>

같은 종류의 암세포를 실험동물에게 주입하였다. ㉢(주입된 암세포)는 커다란 종양으로 계속 자라났고, 종양의 일부 조직을 조사해보니 조직 내부에 혈관이 들어차 있었다. → (혈관의 생성 때문에 종양으로 자람.)

↳ ㉢(주입된 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⑤ ㉢가 종양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개입이 있었겠군.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암세포에서는 변형된 유전자가 만들어 낸 1(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세포 분열을 위한 신호 전달 과정을 왜곡하여 과도한 세포 증식을 일으킨다. 2(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려면~ [2문단]

↳ ㉢(주입된 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는 과정2)에서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개입1)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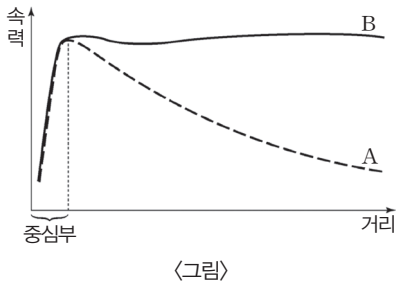
05~06 우주의 암흑 물질

1 1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물질의 질량 중 약 85%는 눈에 보이지 않는 ㉠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있지만, 암흑 물질은 어떤 망원경으로도 관측되지 않으므로 그 존재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21933년 츠비키는 머리털자리 은하단의 질량을 추정하다가 암흑 물질의 개념을 생각해 내었다. 3그는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이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은하단 내부에 실종된 질량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1 암흑 물질에 대한 추정

- * 암흑 물질
 -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물질의 질량 중 약 85% 차지
 - 망원경으로도 관측되지 않아 존재가 알려지지 않음.
- * 은하단의 질량을 추정하다가 암흑 물질의 개념 상정
- * 실종된 질량(암흑 물질)을 추정하는 근거
 - 속력으로 인한 은하단의 질량 > 밝기로 인한 은하단의 질량

2 11970년대에 루빈은 더 정확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실종된 질량'의 실재를 확증하였다. 2나선 은하에서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들은 중심부에 집중되어 공전한다. 3중력 법칙을 써서 나선 은하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을 계산하면, 중심부에서는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4그런데 중심부 밖에서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중심 쪽으로 별을 당기는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림>의 곡선 A에서처럼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의 속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 5그렇지만 실제 관측 결과, 나선 은하 중심부 밖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은 <그림>의 곡선 B에서처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다. 6이것은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은하 중심 쪽으로 그 별을 당기는 물질이 그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많아져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중력을 보충해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7이로부터 루빈은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퍼져 있는 추가적인 중력의 원천, 곧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정하였다. 8그 후 암흑 물질의 양이 보통의 물질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1

2

바탕 지식 더하기

- ㉠. 질량: 물체가 가진 고유한 양. → 장소가 달라도 일정
- ㉡. 무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 장소에 따라 다름.

3

* <속력~질량/밝기~질량보다~>처럼 비교형 표현은 정/오 판단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첫 문단은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다음 문단에서 본격적으로 설명할 것이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쓱쓱 읽어야 한다.

2

1

어휘 체크

- ㉠. 실재: 실제로 존재함.
- ㉡. 실제: 사실의 경우나 형편.

2

* '~별과 같은' 등의 수식어보다는 주체(보통의 물질들)에 집중하자.

3~4

* <거리가~할수록~하다>, <중심부 안/밖>처럼 비례적 혹은 대립적인 표현은 반드시 눈에 띄는 표시를 해 두자. 정/오 판단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 <그렇지만>이라는 대립 접속어를 통해, 이전 내용과 이후 내용이 <이론+실제 관측>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문장들의 첫 어휘가 <6이것은~, 7이로부터~, 8그 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후 내용이 <실제 관측>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렇지만>이 <이론+실제 관측>을 구분하는 경계가 됨을 알 수 있다.

2 암흑 물질에 대한 확증

* 중력 법칙으로 별의 속력 계산

- 중심부: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이 증가
- 중심부 밖: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별의 속력이 줄어듦.

* 관측 결과

- 나선 은하 중심부 밖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
-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은하 중심 쪽으로 그 별을 당기는 물질이 그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많아져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중력을 보충함.
-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퍼져 있는 추가적인 중력의 원천, 곧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정

3 1이후 2006년에 암흑 물질의 중요한 성질이 탄환 은하단의 관측을 바탕으로 밝혀졌다. 2탄환 은하단은 두 개의 은하단이 충돌하여 형성되었다. 3두 은하단이 충돌할 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고온의 가스는 서로 부딪쳐 탄환 은하단의 중앙에 모인다. 4반면 각각의 은하단 안에서 은하들끼리는 좀처럼 충돌하지 않고 서로 엇갈려 지나간다. 5이 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암흑 물질도 두 은하단의 은하들과 함께 엇갈려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6이로써 암흑 물질은 가스나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뿐 아니라 다른 암흑 물질과도 거의 부딪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3 암흑 물질의 성질

* 암흑 물질의 중요한 성질 탐구 과정

- 탄환 은하단은 두 개의 은하단이 충돌하여 형성
- 두 은하단이 충돌할 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고온의 가스는 서로 부딪쳐 탄환 은하단의 중앙에 모임.
- 각각의 은하단 안에서 은하들끼리는 좀처럼 충돌하지 않음.
- 암흑 물질은 보통 물질 혹은 타 암흑 물질과도 거의 부딪치지 않음.

3

1

* '탄환 은하단 관측 → 암흑 물질의 중요한 성질 밝혀짐'처럼 순서에 주의!

6

* 문단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이로써>와 같이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 포함된 문장에 집중하자. 문단 전체의 핵심이기 때문에 문단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된다.

05.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82위

#비교 선지의 법칙 #한글_한자어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2%	① 2%	② 3%	③ 3%	④ 10%	⑤ 82%

정답 풀이

⑤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된 은하단의 질량을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된 질량보다 더 크게 만든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는 1)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된 은하단의 질량>이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된 은하단의 질량>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은하단 내부에 '실증된 질량'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1문단]

지문 POINT

※ 어느 <질량>이 더 크다?
<속력~의 질량> vs <밝기~의 질량>

↳ 1)에 나타난 것처럼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된 은하단의 질량>을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된 은하단의 질량>보다 훨씬 크다. (속력~의 질량) > (밝기~의 질량)

패턴 공략

▶ 지문: A는 B보다 크다. → 부적절 선지: B는 A보다 크다.

오답 풀이

① 은하단 내부에 퍼져 있는 가스와 거의 충돌하지 않는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로써 암흑 물질은 <가스>나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뿐 아니라 다른 암흑 물질과도 거의 부딪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끝 문단]

↳ 은하단 내부에 퍼져 있는 가스와 거의 충돌하지 않는다.

패턴 공략

▶ 지문: 한글 → 적절 선지: 동일한 의미의 한자어
☞ 지문에 '부딪치다'를 적절 선지에는 한자어 '충돌'로 바꿈.

② 우주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질량보다 더 큰 질량을 차지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물질의 질량 중 약 85%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있지만, [1문단]

↳ ㉠<암흑 물질>이 85%를 차지1)하고 나머지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15%를 차지하고 있으니 우주에서 ㉠<암흑 물질>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질량보다 더 큰 질량을 차지한다는 선지 ②는 적절하다.

③ 보통의 물질을 관측하는 데 사용되는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없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암흑 물질>은 어떤 망원경으로도 관측되지 않으므로 그 존재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1문단]

↳ 보통의 물질을 관측하는 데 사용되는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없다. 지문의 <어떤 망원경>은 선지 ③의 <보통의 물질을 관측하는 데 사용되는 망원경>을 포함한다.

④ 은하 안에 퍼져 있으면서 그 은하 안의 별을 은하 중심 쪽으로 당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로부터 루빈은 1)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퍼져 있는 추가적인 2)중력의 원천, 곧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정하였다. [2문단]

↳ 은하 안에 퍼져 있으면서1) 그 은하 안의 별을 은하 중심 쪽으로 당긴다.2)

어휘 체크

* 중력: 지구 위의 물체가 지구로부터 받는 힘

★ 비교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위 문제의 경우 ②, ⑤가 비교형 선지에 해당한다.

② ~물질의 질량보다 더 큰 질량을 차지한다.

⑤ ~속력으로부터 추정된 질량보다 더 크게 만든다. ☞ (☆정답)

06.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96위

#대립 선지의 법칙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67%	① 2%	② 3%	③ 24%	④ 67%	⑤ 4%

정답 풀이

④ 중심부의 경우, 거리와 별의 공전 속력이 비례하는 것을 통해 암흑 물질이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나선 은하에서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들은 중심부에 집중되어 공전한다. [2문단]

↳ 거리와 별의 공전 속력이 비례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암흑 물질이 아닌, <보통의 물질>들이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다.

최שמ의 조언

〈그림〉에 대한 문제이지만 지문의 한 문장만으로 단순하게 풀리는 문제이다. 실제 시험의 경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림까지 꼼꼼히 분석했다면 시간 낭비를 한 셈이다.

오답 풀이

① 나선 은하를 관측한 결과를 근거로 그린 곡선이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그렇지만 1) 실제 관측 결과, 나선 은하 중심부 밖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은 〈그림〉의 곡선 B에서처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다. [2문단]

↳ B는 나선 은하를 관측한 결과1)를 근거로 그린 곡선이다.

② ‘실종된 질량’의 존재를 확인해 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1970년대에 루빈은 더 정확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실종된 질량〉의 실재를 입증하였다.~그렇지만 실제 관측 결과, 나선 은하 중심부 밖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은 〈그림〉의 곡선 B에서처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다. 1) 이것은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은하 중심 쪽으로 그 별을 당기는 물질이 그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많아져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중력을 보충해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루빈은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퍼져 있는 추가적인 중력의 원천(→ 실종된 질량), 곧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정하였다. [2문단]

↳ 계산된 A와 달리 B에는 계산에서 감안하지 않은 〈실종된 질량〉의 존재를 확인해 줄 정보1)를 포함하고 있다.

③ 중심부 밖의 경우, 별의 공전 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력이 A에서보다 더 큼을 보여 준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그런데 〈중심부 밖〉에서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중심 쪽으로 별을 당기는 1)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림〉의 곡선 A에서처럼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의 속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 그렇지만 실제 관측 결과, 나선 은하 중심부 밖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은 〈그림〉의 곡선 B에서처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다. 이것은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은하 중심 쪽으로 그 별을 당기는 물질이 그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많아져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2) 줄어드는 중력을 보충해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2문단]

지문 POINT

※ 어느 〈중력〉이 더 큰가?

* 중심부 밖의 경우,

A: 중력이 줄어들.1) < B: 중력이 보충됨.2)

↳ 그래서 중심부 밖의 경우, 별의 공전 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력이 A에서보다 B가 더 큼을 보여 준다.

⑤ 중심부 밖의 경우, 은하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일수록 그 별을 은하 중심으로 당기는 암흑 물질이 더 많음을 보여 준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B에서처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다. 이것은 1)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 〈중심부 밖〉 별일수록 은하 중심 쪽으로 그 별을 (은하 중심으로) 당기는 (암흑) 물질이 그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많아져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중력을 보충해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2문단]

↳ 중심부 밖의 경우, 은하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일수록 그 별을 은하 중심으로 당기는 암흑 물질이 더 많음을 보여 준다.

★ 대립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6쪽 참고)

* 위 문제는 중심부 안 혹은 밖으로 선지 ④ ↔ (③, ⑤)가 1 : 2 대립을 이룬다.

③ 중심부 밖의 경우,~

④ 중심부의 경우,~ (☆정답)

⑤ 중심부 밖의 경우,~

↳ 그래서 지문 및 발문과 상관없이 선지 ④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80% 이상이다.

지문 난이도 ★★★

2015학년도 수능 A형 16~18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54위

01 ~ 03 단백질의 분해와 합성

1 1우리 몸은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2단백질 합성은 아미노산을 연결하여 긴 사슬을 만드는 과정인데,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이 체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다. 3단백질 합성에서 아미노산들은 DNA 염기 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결합된다. / 4단백질 분해는 아미노산 간의 결합을 끊어 개별 아미노산으로 분리하는 과정이다. 5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우리 몸에 부족한 에너지 및 포도당을 보충할 수 있다.

1 체내의 단백질 합성과 분해의 개념

- * 단백질 합성: 아미노산을 연결하여 긴 사슬을 만드는 과정 →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이 체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됨.
- * 단백질 분해: 아미노산 간의 결합을 끊음. → 개별 아미노산으로 분리 → 불필요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에너지 및 포도당을 보충

2 1단백질 분해 과정의 하나인, 프로테아솜이라는 효소 복합체에 의한 단백질 분해는 세포 내에서 이루어진다. 2프로테아솜은 유비퀴틴이라는 물질이 일정량 이상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3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된 아미노산의 약 75%는 다른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이용되며, 나머지 아미노산은 분해된다. 4아미노산이 분해될 때는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 요소(尿素)로 합성되어 체외로 배출된다. 5그리고 아미노기가 떨어지고 남은 부분은 에너지나 포도당이 부족할 때는 이들을 생성하는 데 이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산으로 합성되거나 체외로 배출된다.

2 단백질 분해로 생성된 아미노산의 기능

- * 프로테아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 → 생성된 아미노산의 약 75%는 다른 단백질을 합성
- *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 → 암모니아로 바뀜. → 요소로 합성되어 체외로 배출
- * 아미노기가 떨어지고 남은 부분: 에너지나 포도당이 부족할 때는 이들을 생성하는 데 이용. 그렇지 않으면 지방산으로 합성되거나 체외로 배출.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2, 3 ↔ 4, 5

* 대립적 개념인 단백질 합성(2, 3)과 단백질 분해(4, 5)가 비슷한 분량으로 나열되어 있을 때에는 일단 단백질 분해가 시작되는 지점 이전에 경계를 두기 위해 사선을 표시해 두자. <합성 vs 분해>라는 양상으로 글이 전개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읽어야 한다.

2

2

- * 프로테아솜은 (유비퀴틴이라는 물질이 일정량 이상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 * 꾸미는 말(유비퀴틴이라는~결합되어 있는)이 긴 문장은 한번에 독해하기가 쉽지 않으니 먼저 주요 문장 성분(프로테아솜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에 주목하자. 그리고 과학 지문에서 '합성' 혹은 '분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 대상과 결과물을 혼동하는 수험생이 많으니 주의하자.(분해의 대상: 단백질, 분해의 결과물: 아미노산)

3

* 한 문장 안에 '~분해'와 '~합성'이라는 어휘가 3번이나 제시되어 있다. 이런 문장은 수험생들이 헛갈려할 수 있어 문제의 선지 정/오 판단의 근거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 대상에 적절한 표시를 해 두자.

3 1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분해됨에도 불구하고 체내 단백질의 총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2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세포 내에서 합성되거나,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로부터 얻거나,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3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필요량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을 필수아미노산이라고 한다. 4어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 필수아미노산의 비율은 정해져 있다. 5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필수아미노산도 다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부족한 양이 외부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전체의 체내 단백질 합성량이 줄어들게 된다. 6그러므로 필수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되어야 한다. 7다만 성인과 달리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체내에서 합성할 수는 있으나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음식물로 보충해야 하는 아미노산도 필수아미노산에 포함된다.

3 아미노산의 공급 방법과 필수아미노산의 개념

- *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이 끊임없이 일어남. → 단백질 총량의 유지 혹은 증가
- * 아미노산 생성
 - 세포 내 합성
 - 섭취한 음식의 단백질에서 얻음.
 - 체내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생성
- * 필수아미노산: 체내에서 합성× →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

4 1각 식품마다 포함된 필수아미노산의 양은 다르며, 필수아미노산이 균형을 이룰수록 공급된 필수아미노산의 총량 중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는 양의 비율, 즉 필수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높다. 2일반적으로 육류, 계란 등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어 필수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높은 반면, 쌀이나 콩류 등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은 제한아미노산을 가지며 필수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4 식품에 포함된 필수아미노산의 이용 효율

- * 필수아미노산이 균형을 이룰수록 공급된 필수아미노산의 총량 중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는 양의 비율이 높음. → 동물성 단백질 ↑ / 식물성 단백질 ↓

3

1
* 서술어가 '때문이다'라면 문장을 <원인+결과>로 구분해 사선을 그어 두자.

3
* 처음으로 제시된 개념(필수아미노산)은 그 구체적인 개념 설명 부분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밑줄을 해 두자. [5-1도 마찬가지로]

5~6
* <원인+결과>의 구성.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최שמ의 Q&A

Q 3(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5(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는 서로 위배되는 설명이 아닌가요?

A 합성은 기존에 있는 두 요소 이상이 만나는 것이고 분해는 기존의 한 요소가 해체되는 것이다. 합성과 분해는 엄연히 대립적인 어휘이다. 위 두 설명을 합치면 <필수아미노산은 체내에서 아미노산의 합성으로 생성될 수 없지만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것>으로 서로 위배되는 설명이 아니다. 질문자가 <~생성 안 됨+~생성됨>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착각이다. 꼼꼼하고 정확한 독해의 습관을 기르자.

4

1
* 문장이 길다면 쉼표에서 흐름을 한 번 끊어 주자.

2
*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은~'처럼, 긴 문장이라도 일단 주체를 집중해서 보면 위와 같이 대립적 양상이 보일 때가 있다. 그렇다면 좀 더 머릿속에 문장이 구조화되어 남을 것이다.

5 1) 제한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아미노산의 양에 비해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아미노산을 말한다. 2) 가령, 가상의 P 단백질 1몰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아미노산 A와 B가 각각 2몰과 1몰이 필요하다고 하자. 3) P를 2몰 합성하려고 할 때, A와 B가 각각 2몰씩 공급되었다면 A는 필요량에 비해 2몰이 부족하게 되어 P는 결국 1몰만 합성된다. 4) 이때 A가 부족하여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A가 제한아미노산이 된다.

* 몰: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5 제한아미노산의 개념

* 제한아미노산: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아미노산의 양에 비해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아미노산.

5
2
* 예를 들어 설명하는 부분은 첫 독해에서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자. 전체 지문의 핵심과 흐름을 잡았다면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다시 살펴봐도 괜찮다.

01.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28위

#내용 일치 #최상의 조언

정답률 88%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	② 2%	③ 88%	④ 3%	⑤ 5%

정답 풀이

③ 아미노산에서 분리되어 요소로 합성되는 것은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를 제외한 부분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는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 <요소>로 합성되어 체외로 배출된다. [2문단]

↳ <아미노산>에서 분리되어 <요소>로 합성되는 것은 <아미노기>이다.

오답 풀이

① 체내 단백질의 분해를 통해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의 축적을 막는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우리 몸에 부족한 에너지 및 포도당을 보충할 수 있다. [1문단]

↳ 체내 단백질의 분해를 통해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의 축적을 막는다. 1)

② 유비퀴틴이 결합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것은 프로테아솜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 <프로테아솜>은 <유비퀴틴>이라는 물질이 일정량 이상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2문단]

↳ <유비퀴틴>이 결합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것은 <프로테아솜>이다. 1)

패턴 공략

▶ 지문: A는 B하다. → 적절 선지: B하는 것은 A이다.

④ 세포 내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결합 순서는 DNA 염기 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른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 <단백질 합성>에서 <아미노산>들은 DNA 염기 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결합된다. [1문단]

↳ 세포 내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결합 순서는 DNA 염기 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른다. 1)

⑤ 성장기의 어린이에게 필요한 필수아미노산 중에는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러므로 <필수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섭취되어야 한다. 다만 성인과 달리 1)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체내에서 합성할 수

는 있으나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음식물로 보충해야 하는 아미노산도 필수아미노산에 포함된다. [3문단]

↳ 성장기의 어린이에게 필요한 <필수아미노산> 중에는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는1) 것도 포함되어 있다.

최선의 조언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의 근거도 지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쉬운 문제는 누가 더 신속하게 정답을 찾느냐가 관건이다.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정답과 오답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비문학 점수는 오를 수밖에 없다.

패턴 공략

♣ 발문 유형별 지문과 선지의 정오 판단

- i.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ii.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iii.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i → 지문의 문장 거의 그대로 1문장 정도로 선지의 정/오 판단 가능
- * ii → i 의 수준 혹은 지문의 문장 50% 이하 변형된 1~2문장 정도로 선지의 정/오 판단 가능
- * iii → 지문의 문장 50% 이상 변형된 2문장 정도로 선지의 정/오 판단 가능

♣ 비문학 일치-불일치 유형 발문별 난이도

- * 윗글을 통해 바르게 추론한 것은? ≥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윗글과 일치하는 것은?

02.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96위

#이해 #서술어에 정답 근거 #최선의 Q&A

정답률 67%	선지별 선택 비율				
① 67%	② 3%	③ 9%	④ 13%	⑤ 8%	

✓ 정답 풀이

① 필수아미노산을 제외한 다른 아미노산도 제한아미노산이 될 수 있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제한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아미노산의 양에 비해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1<필수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아미노산>을 말한다. [끝 문단]

↳ <제한아미노산>은 <필수아미노산>이 함양된 비율을 기준으로 <필수아미노산>을 나타내는 것1)이다. 그래서 <제한아미노산>을 정의하기 위해선 오직 <필수아미노산>만이 필요하므로 다른 아미노산이 <제한아미노산>이 될 여지는 없다.

Tip 실전 풀이

※ <제한아미노산>은~한 <필수아미노산>이다.

근거 지문이 길고 복잡하지만 주어와 서술어 부분만을 살펴봐도 정답의 감을 잡을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여 얻어진 필수아미노산의 일부는 단백질 합성에 다시 이용되었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필수아미노산>도 다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부족한 양이 외부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전체의 체내 단백질 합성량이 줄어들게 된다. [3문단]

↳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여 얻어진 <필수아미노산>의 일부는 <단백질 합성>에 다시 이용된다.1)

③ 체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은 음식물의 섭취나 체내 단백질 분해로부터 공급되었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공급)되는 <필수아미노산>도 다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부족한 양이 외부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전체의 체내 단백질 합성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2) <필수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섭취(공급)되어야 한다. [3문단]

↳ <체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1)은 음식물의 섭취2)나 체내 단백질 분해1)로부터 공급된다.

④ 제한아미노산이 없는 식품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골고루 함유되어 있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일반적으로 육류, 계란 등 1)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어 필수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높은 2) 반면, 쌀이나 콩류 등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은 <제한아미노산>을 가지며 필수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4문단]

↳ <제한아미노산>을 가지는 <식물성 단백질>과 달리2) <제한아미노산>이 없는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다.1)

<동물성 단백질>에 <제한아미노산>이 없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에 반대되는 맥락(~반면,~)을 통해 동물성 단백질에 <제한아미노산>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체내 단백질 합성과 분해의 반복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필수아미노산의 공급이 줄어들면 체내 단백질 총량은 감소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부족한 양이 1)외부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전체의 <체내 단백질 합성량>이 줄어들게 된다. [3문단]

➡ 체내 단백질 합성과 분해의 반복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필수아미노산의 공급이 줄어들면 <체내 단백질 총량>은 감소한다.1)

최선의 Q&A

Q 지문에서 <단백질 합성량이 줄어드는 것>과 선지에서 <단백질 총량이 감소>한다는 말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선지 ⑤도 틀린 것이 아닌가요?

A 발문이 이전 1번 문제처럼 딱 맞게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바탕으로 이해(이끌어 낼 수 있는 것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두 내용이 대체 가능한 일치형이 아닌, 인과 관계로 엮일 수 있다. <단백질 합성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총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두 말의 의미는 다르지만 지문을 통해 선지 ⑤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기에 선지 ⑤는 지문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다.

03.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1위

#항목 후순위의 법칙 #비교 선지의 법칙 #윗글 바탕 #이해

정답률
85%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 ② 3% ③ 85% ④ 5% ⑤ 4%

✓ 정답 풀이

③ (나)에서는 (다)에 비해 합성된 단백질의 양이 많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가상의 P단백질 1몰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아미노산 A와 B가 각각 2몰과 1몰이 필요하다고 하자. P를 2몰 합성하려고 할 때, A와 B가 각각 2몰씩 공급되었다면 A는 필요량에 비해 2몰이 부족하게 되어 P는 결국 1몰만 합성된다. [끝 문단]
- (<필수아미노산>이 필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면 <단백질 합성>은 이루어지지 않음.)

• <보기>

<단백질 Q를 1몰 합성 시>:

필수아미노산 A-2몰, B-3몰, C-1몰 필요

<단백질 Q를 2몰 합성 시>:

필수아미노산 A-4몰, B-6몰, C-2몰 필요

단백질 공급량

(나): A 6몰, B 3몰, C 3몰

(다): A 4몰, B 3몰, C 3몰

➡ <필수아미노산>이 필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면 <단백질 합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와 (다)가 <단백질 Q를 1몰 합성 시>에는 필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지만, <2몰 합성 시>에는 B에서 필요량(6)에 비해 공급량(3)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나)와 (다)의 단백질의 양은 동일하게 1몰이 된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단백질 합성을 제한하는 필수아미노산이 없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단백질 Q를 2몰 합성 시>:

필수아미노산 A-4몰, B-6몰, C-2몰 필요

단백질 공급량

(가): A 4몰, B 3몰, C 2몰

📌 지문 POINT

※ <(가)의 단백질 공급량> = <단백질 Q를 2몰 합성할 때,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의 총량>

➡ (가)는 <단백질 Q를 2몰 합성 시>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기에 모든 필수아미노산이 단백질 합성에 사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단백질 합성을 제한하는 필수아미노산은 없다.

② (가)에서는 (다)에 비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 필수아미노산의 총량이 많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단백질 Q를 1몰 합성 시>:

필수아미노산 A-2몰, B-3몰, C-1몰 필요

<단백질 Q를 2몰 합성 시>:

필수아미노산 A-4몰, B-6몰, C-2몰 필요

📌 지문 POINT

(가)의 <2몰 합성> 필수아미노산 총량 = 4+6+2 = 총 12몰

(다)의 <1몰 합성> 필수아미노산 총량 = 2+3+1 = 총 6몰

[(다)가 1몰밖에 합성되지 않는 이유는 정답 풀이 참고]

➡ (가)에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 필수아미노산의 총량은 (다)보다 많다.

④ (나)와 (다) 모두에서는 단백질 합성을 제한하는 필수아미노산이 B가 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P를 2몰 합성하려고 할 때, A와 B가 각각 2몰씩 공급되었다면 A는 필요량에 비해 2몰이 부족하게 되어 P는 결국 1몰만 합성된다.~이 때 1)A가 부족하여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A가 <제한아미노산>이 된다. [끝 문단]

↳ (나)와 (다)에서는 B의 공급량이 필요량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정답 풀이 참고) 단백질이 1몰밖에 합성이 안 된다. 이 부족한 B가 단백질 합성을 제한하는 필수아미노산, 곧 <제한아미노산>이 된다.1)

⑤ (나)에서는 (다)에 비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지 않고 남은 필수아미노산의 총량이 많겠군.

↳ (나)와 (다)는 각각 1몰의 단백질을 합성한다. (정답 풀이 참고) 이때, 각각 필수아미노산의 공급량에서 필요량을 빼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지 않고 남은 <필수아미노산>의 총량이 나온다.

(나) [A: 6-2]+[B: 3-3]+[C: 3-1]=4+0+2 → 총 <6몰>

(다) [A: 4-2]+[B: 3-3]+[C: 3-1]=2+0+2 → 총 <4몰>

그래서 (나)에서는 (다)에 비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지 않고 남은 <필수아미노산>의 총량이 많다.

★ 비교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비교형 선지는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번 문제에도 선지 ②, ③, ⑤의 3개의 선지에만 <비교 관계>의 표현이 있고 이 중 하나에 정답이 있다. 그렇다고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 정답을 찍으라는 말이 아니다. <비교 관계>의 표현이 있는 선지가 그렇지 않은 선지에 비해 정답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문제를 풀자는 것이다.

② (가)에서는 (다)에 비해 ~ 많겠군.

③ (나)에서는 (다)에 비해 ~ 많겠군. 🗨️ (☆정답)

⑤ (나)에서는 (다)에 비해 ~ 많겠군.

★ 1항목 후순위의 법칙 ★

(자세한 내용 9쪽 참고)

* 선지 ①이 (가) 1개만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다른 선지보다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를 고려하여 항목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 나머지 선지를 먼저 더욱 집중해서 보는 것은 정답을 조금이라도 빨리 찾을 수 있는 풀이법이다.

04~05 달과 지구의 공전 궤도

1 우리는 가끔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supermoon)'을 보게 된다. 2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3 이 현상은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1 공전 궤도가 타원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천체 현상
* 달의 공전 궤도(타원 궤도) → 슈퍼문(평소보다 큰 보름달)

2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2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3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지름을 가리켜 장축이라 하는데,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이심률이라 한다. 4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

2 타원 궤도의 일그러진 정도를 측정하는 이심률
* 타원: 두 개의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짐.
* 장축: 타원의 두 초점을 지나는 긴지름
* 이심률 = 두 초점 사이의 거리 ÷ 장축의 길이
→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 ↓

3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이심률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2 이 궤도의 장축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 한다. 3 지구에서 보름달은 약 29.5일 주기로 세 천체가 '태양-지구-달'의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 있는데, 이때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 4 슈퍼문은 보름달 중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14% 정도 크게 보인다. 5 이는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6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을 각지름이라 하는데,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 7 예를 들어, 달과 태양의 경우 평균적인 각지름은 각각 0.5° 정도이다.

3 달의 공전 궤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슈퍼문
* 달의 타원 궤도: 지구 초점, 이심률(0.055)
* 원지점: 지구와 가장 먼 지점
* 근지점: 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
* 슈퍼문: (태양-지구-달)의 순서, 보름달이 근지점 or 근처 위치
→ 겉보기 지름이 달라져 크게 보임.
* 각지름
-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
-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 커짐.

1

1 * 첫 문단, 특히 첫 문장에 개념(슈퍼문) 설명이 있다면, 그 개념 자체가 지문 전체의 중심 화제가 되기 마련이다.

2~3 * <문고+답하기> 전개 방식, 물론 <답하기>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

3 * '이',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가는 지시 대명사(이~, 그~)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3-2.5, 4-5, 5-1.4 도 마찬가지로]

2

* 정보가 많을수록 적절한 표시가 관건. 표시를 하는 것에 시간을 아끼지 말자. 이 작업을 꼼꼼히 해 놓으면 문제 풀이 시 근거 찾는 시간을 반 이상 줄일 수 있다.

2, 4 * '~할수록~하다'처럼 비례 관계가 나타나는 문장은 선지의 정/오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6, 5-3도 마찬가지로]

3

1~3 * '수치', '거리', '방향', '속도', '순서' 등은 자주 출제되는 단골 테마이다.

4~5 * <원인+결과>의 구성. 국어 공부에서 <원인+결과>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7 * 예시는 앞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 내용이 어렵지 않다면 슬쩍 넘겨 봐도 좋다.

4 1지구의 공전 궤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2지구 역시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으므로 궤도상의 지구의 위치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가 다르다. 3달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공전 궤도의 장축상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갖는데, 이를 각각 원일점과 근일점이라 한다. 4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러한 거리 차이에 따라 일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5세 천체가 '태양-달-지구'의 순서로 늘어서고,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 6이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의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 일식이 관측된다. 7하지만 일식이 일어나는 같은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 태양 면의 가장자리가 빛나는 고리처럼 보이는 금환 일식이 관측될 수 있다.

4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일식

- * 원일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
- * 근일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
- * 일식 현상: <태양-달-지구>의 순서, 달이 태양을 가릴 때
- * 개기 일식: 태양이 완전히 가려짐, 달이 근지점 혹은 근처에 위치
- * 금환 일식: 태양의 가장자리 빛남, 달이 원지점 혹은 근처에 위치

5 1이러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한다. 2현재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은 약 0.017인데, 일정한 주기로 이심률이 변한다. 3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4이는 달의 공전 궤도 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이다. 5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천체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5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변하는 이심률과 천체 현상

- * 천체들의 거리와 이심률은 변함.
- *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 ↓: 근일점 멀어짐. - 원일점 가까워짐.
- *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 ↑: 근일점 가까워짐. - 원일점 멀어짐.

4

2

* <원인+결과>의 구조, <인과>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중요한 것은 뒤에 언급된 내용이다. (원인+결과 → 결과가 중요!, 결과+원인 → 원인이 중요!)

3

* 'A와 마찬가지로 B도'를 통해 두 대상의 공통점을 서술하고 있다.

4

* '일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를 통해 일식 현상의 종류(개기 일식, 금환 일식)가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 예측을 하며 다음 내용을 읽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어 가는 것은 독해의 속도와 정확성에서 큰 차이를 가져온다.)

7

* '그런데', '그러나(하지만)' 등 전환 및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면 주의가 필요하므로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절하다.

5

3

* <조건+A보다 B하다.>의 구조, 비교형 내용은 출제자가 좋아하는 출제 요소이다.

최שמ의 Q&A

Q 이심률이 작아지면 타원이 원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근일점, 원일점 둘 다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요?

A 지구 공전 궤도는 타원이기 때문에 타원의 두 초점 중에서 한 점에 태양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태양에 가까운 점이 근일점, 먼 점이 원일점이다. 이심률이 줄어들면 타원이 점점 원에 가까워지고 두 초점이 하나로 모이게 되니까 원일점은 가까워지고 근일점은 멀어지게 된다.

04.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61위

#최씨의 조언 #최씨의 Q&A

정답률
58%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58% ③ 21% ④ 10% ⑤ 6%

정답 풀이

② 현재의 달 공전 궤도는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보다 원 모양에 더 가깝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태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1)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태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지름을 가리켜 장축이라 하는데,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이심률이라 한다. 2)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 [2문단]
-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3)이심률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3문단]
- 현재 <지구> 공전 궤도의 4)이심률은 약 0.017인데, 일정한 주기로 이심률이 변한다. [끝 문단]

지문 POINT

1~2): <이심률>이 작을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3~4): '지구'의 이심률(0.017) < '달'의 이심률(0.055)

선지 ②와는 반대로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가 현재의 <달> 공전 궤도보다 <원 모양>에 더 가깝다.

최씨의 조언

정답을 판단하는데 3개의 문단에서 총 4개의 문장이 필요하지만 차근차근히 따져 보면 그리 어려울 것이 없다. 수능 국어는 지문과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다. 시간 제한과 실전 시험이라는 압박감과 긴장감으로 시야가 좁아지고 차분한 마음을 갖기 어려워 덩벼대고 실수하는 것이다. 정답의 근거가 자신의 머릿속에 있어 이를 힘들게 꺼내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서 그 근거의 조각조각을 모은다고 생각하자. 차분, 침착, 신속, 정확한 마인드는 꼭 필요하므로 평소에 국어 공부를 할 때마다 기억해 두자.

오답 풀이

① 태양의 인력으로 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약간씩 변화될 수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태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지름을 가리켜 장축이라 하는데, 1)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이심률>이라 한다.
→ '<장축>'과 '<이심률>'은 반비례) [2문단]
-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이심률이 약 0.055인 타원 궤도

를 돌고 있다. 2)궤도의 <장축>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 한다. [3문단]

- 이러한 원일점, 근일점, 3)<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한다.

[끝 문단]

태양의 인력으로 <원지점>과 <근지점>의 위치가 변하며 3)이 <원지점>과 <근지점>은 <장축>의 거리와 관련이 있다. 2) 그리고 <장축>이 커질수록 <이심률>은 작아지기 1) 때문에 <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약간씩 변화될 수 있다.

③ 금환 일식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크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을 <각지름>이라 하는데, 2)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 → '<각지름>'이 커짐에 따라 물체도 크게 보임. [3문단]
- 하지만 일식이 일어나는 같은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3)태양 면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 '태양' 면의 가장자리가 빛나는 고리처럼 보이는 <금환 일식>이 관측될 수 있다. [4문단]

금환 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과 '달'이 포개지더라도 '태양'이 더 커서 가장자리가 남는다. 3) 그래서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크다. 1~2)

최씨의 Q&A

Q 각지름 비교에서, 달이 태양보다 지구에서 더 가까우니 달의 각지름이 태양의 각지름보다 더 큰 것 아닌가요?

A 지구에서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각지름>이 커진다)는 것은 <한 대상의 거리에 따른 각지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지, <크기가 다른 두 대상의 각지름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두 대상이 직접 포개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두 대상의 크기>가 고려되지 않은 채 지문 2)만으로 각지름의 크기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예를 들면,

- * 구슬이 눈에서 가까이 있을수록 크게 보임.
- * 수박이 눈에서 가까이 있을수록 크게 보임.

구슬이 수박보다 가까이 있다고 반드시 크게 보인다고 할 수 없다. (단, 구슬이 바로 눈앞에 있거나 수박이 거의 보이지 않을 곳에 놓이는 극단적인 경우 제외) 하지만 크기는 달라도 구슬과 수박을 포개면 각지름의 크기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태양과 달의 비교처럼 수박의 각지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④ 지구에서 보이는 보름달의 크기는 달 공전 궤도상의 근지점일 때보다 원지점일 때 더 작게 보인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지구에서 보름달은 약 29.5일 주기로 세 천체가 '태양-지구-달'의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 있는데, 이때 1)〈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 2)〈슈퍼문〉은 보름달 중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14% 정도 크게 보인다. [3문단]

지문 POINT

1~2)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근지점〉에서는 크게 보임?
→ 어느 때나 〈근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보임!

↳ 지구에서 보이는 〈보름달〉의 크기는 달 공전 궤도상의 〈슈퍼문〉이 관측되는 〈근지점〉일수록 커지기(1~2) 때문에 반대로 〈원지점〉일 때 더 작게 보인다.

⑤ 지구 공전 궤도 상의 근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은 원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보다 더 크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공전 궤도의 장축상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갖는데, 이를 각각 〈원일점〉과 〈근일점〉이라 한다. [4문단]
-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을 〈각지름〉이라 하는데, 1)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 [3문단]

↳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지기(1) 때문에 지구 공전 궤도상의 〈근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은 〈원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보다 더 크다.

05.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5위

#최선의 Q&A #최선의 조언

정답률
43%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0% ② 13% ③ 21% ④ 43% ⑤ 13%

정답 풀이

④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1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1월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이 〈조차〉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 1)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조차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면, 2)〈조차〉는 북반구의 겨울인 1월에 가장 크고 7월에 가장 작다.

•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이심률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이('달') 궤도의 장축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 한다. [3문단]

•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이는 달의 공전 궤도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로이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3)천체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 〈이심률이 커지면, '근지점' &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 '원지점' & '원일점'은 더 멀어짐.〉 [끝 문단]

지문 POINT

1~2) A 지점의 〈조차〉가 커지는 경우: 거리가 가까울수록, 1월

↳ 선지 ④에서 〈A 지점, 근지점, 1월〉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심률이 커진 후의 조차〉 vs 〈이심률 변화 전의 조차〉만 비교하면 된다.

〈이심률이 더 커지면〉 '근일점'은 가까워지고 3) '근일점'이 가까워질수록 〈조차〉가 커지기(1) 때문에 〈이심률 변화 전〉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

즉, 〈이심률이 커진 후의 조차〉 > 〈이심률 변화 전의 조차〉가 된다. 그래서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1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1월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

최선의 Q&A

Q '이심률이 커지면,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으나 이심률이 커지고 나면 근지점이 더 가까워지니 달과의 거리도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선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근지점에 있을 때라는 것은 근지점은 동일하게 정해진 것으로 가정하고 이심률의 변화를 변수로 설정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1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보다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조차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면, 1)〈조차〉는 북반구의 겨울인 1월에 가장 크고 7월에 가장 작다.

↳ 선지 ①에서 〈A 지점, 이심률, 슈퍼문〉은 동일할 조건이기 때문에 〈1월의 조차 vs 7월의 조차〉만 비교하면 된다. 〈1월의 조차〉 > 〈7월의 조차〉이기(1) 때문에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1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보다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작다.

②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보름달이 관측된 1월에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보다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이 <조차>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 그 1)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

↳ 선지 ②에서 <A 지점, 이심률, 보름달, 1월>은 동일하기 때문에 <근지점의 조차 vs 원지점의 조차>만 비교하면 된다. (<근지점의 조차> > (<원지점의 조차>이기)1) 때문에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보름달이 관측된 1월에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보다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작다.

③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될 때보다 7월에 원지점에 위치한 보름달이 관측될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이 <조차>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 1)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

• 이때 보름달이 2)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 [3문단]

↳ 선지 ③에서 <A 지점, 이심률, 7월>은 동일하기 때문에 <슈퍼문일 때의 조차 vs 원지점일 때 조차>만 비교하면 된다. (<슈퍼문일 때의 조차> > (<원지점일 때의 조차>이기)1~2) 때문에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될 때>보다 7월에 <원지점에 위치한 보름달이 관측될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작다.

⑤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달이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7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7월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이 <조차>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 1)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조차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면, 2)<조차>는 북반구의 겨울인 1월에 가장 크고 7월에 가장 작다.

•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이심률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이('달') 궤도의 장축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 한다. [3문단]

•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공전 궤도의 장축상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갖는데, 이를 각각 <원일점>과 <근일점>이라 한다. [4문단]

•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이는 달의 공전 궤도 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로이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3)천체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 (<이심률이 커지면, '근지점' &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 '원지점' & '원일점'은 더 멀어짐.) [끝 문단]

지문 POINT

1~2) A 지점의 <조차>가 커지는 경우: 거리가 가까울수록, 1월

↳ 선지 ⑤에서 <A 지점, 원지점, 7월>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심률이 커진 후의 조차> vs <이심률 변화 전의 조차>)만 비교하면 된다.

<이심률이 더 커지면> '원일점'은 멀어지고 3) '원일점'이 멀어질수록 <조차>가 작아지기 1) 때문에 <이심률 변화 전>의 조차보다 작아진다.

즉, (<이심률이 커진 후의 조차>) < (<이심률 변화 전의 조차>)가 된다. 그래서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달이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7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7월의 조차보다 더 작아진다.

최심의 Q&A

Q <달과 지구의 공전 궤도> 지문은 그림을 그리면서 풀어야 하나요?

A 관련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 가면서 공부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실제 시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림을 그릴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글만으로 독해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문은 그림이 참고 자료로 주어진다. 상대적으로 그림이 없는 지문은 그림이 없어도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적절한 표시를 해 가며 지문을 읽은 뒤 바로 문제 풀이에 들어가야 한다.

최심의 조언

선지가 3행 이상으로 길 때에는 일단 선지를 꼼꼼히 분석해 선지에서 나타내는 조건을 잘 따져야 한다. 이를 대충 한다면 아무리 지문을 꼼꼼히 읽어도 선지의 정/오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좌절하고 국어 공부를 멀리하면 결코 실력은 늘지 않는다. 쉬운 문제는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잘 맞추기에 별 의미가 없다. 누구나 꺼려하는 문제와 지문에 더욱더 애착을 갖고 정확하고 신속한 독해와 문제 풀이법을 거듭 고민해야 한다.

06~07 점탄성체

1 어떤 물체가 점탄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점탄성이란 무엇일까? **2** 점탄성을 이해하기 위해 점성을 가진 물체와 탄성을 가진 물체의 특징을 알아보자. **3** 용수철에 힘을 가하여 잡아당기면 용수철은 즉각적으로 늘어나며 용수철에 가한 힘을 제거하면 바로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는데, 이는 용수철이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용수철은 힘과 변형의 관계가 즉각적으로 형성되는 즉각성을 가지고 있다. **5** 반면 끈을 평평한 판 위에 올려 놓으면 끈은 중력에 의해 서서히 흐르는 변형을 하게 되는데, 이는 끈이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인 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6** 즉 끈은 힘과 변형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간 지연성을 가지고 있다.

1 점성, 탄성, 즉각성, 시간 지연성의 개념

- * 탄성: 가한 힘을 제거하면 바로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감.
- * 즉각성: 힘과 변형의 관계가 즉각적으로 형성
- * 점성: 물질의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
- * 시간 지연성: 물질이 힘과 변형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변함.

2 어떤 물체가 힘과 변형의 관계에서 탄성체가 가지고 있는 '즉각성'과 점성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지연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점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물체를 점탄성체라 한다. **2** 이러한 점탄성을 잘 보여 주는 물리적 현상으로 응력 완화와 크리프를 들 수 있다. **3** 응력 완화는 변형된 상태가 고정되어 있을 때, 물체가 받는 힘인 응력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이다. **4** 그리고 크리프는 응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 변형이 서서히 증가하는 현상이다.

2 점탄성의 개념과 그 현상

- * 점탄성체: 즉각성+시간 지연성
- * 응력 완화: 변형된 상태가 고정되어 있을 때, 물체가 받는 힘인 응력이 시간에 따라 감소
- * 크리프: 응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 변형이 서서히 증가

3 응력 완화를 이해하기 위해 고무줄에 힘을 주어 특정 길이만큼 당긴 후 이 길이를 유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2** 외부에서 힘을 주면 고무줄은 즉각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3** 힘과 변형의 관계가 탄성의 특성인 '즉각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그런데 이때 늘어난 고무줄의 길이를 그대로 고정해 놓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고무줄의 분자들의 배열 구조가 점차 변하며 응력이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5** 이는 점성의 특성인 '시간 지연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6** 이처럼 점탄성체의 변형이 그대로 유지될 때, 응력이 시간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현상이 응력 완화이다.

3 응력 완화의 예

- * 응력 완화: 점탄성체의 변형이 그대로 유지+응력이 감소
(고무줄은 즉각적으로 늘어남. → 즉각성)
(늘어난 고무줄을 고정하면 응력이 감소 → 시간 지연성)

1

- 2**
* 앞으로 두 대상(점성, 탄성)의 차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 3, 5**
* <결과+원인>의 구조로, 이런 논리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글을 읽으면 구조화가 수월해진다.
- 5**
* <반면>이 문단의 핵심을 둘로 나누는 기준이 된다.
[**3**-3의 '그러나', **4**-4의 '그러나', **5**-2의 '~지만'도 마찬가지로]

2

- 1**
* 즉각성+시간 지연성=점탄성체. <A+B=C>의 개념 구조. A와 B는 C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해석됨!
- 2**
* '응력 완화', '크리프'처럼 두 대상이 나열되면,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서술될 수 있으며 차이점에 좀 더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 3~4**
* '변형 상태 고정' ↔ '변형이 서서히 증가(고정×)'처럼 대립 항이 있는 내용은 문제화되기 쉽다. 주체와 해당 서술어를 혼동하지 말자!

3

- 1**
* 'A(응력 완화)를 이해하기 위해'를 통해 이번 내용은 앞 문단의 보조(예시) 내용임을 판단!
- 4**
* 한 문장 안에서만 역주행(세모 표시) 흐름이 2개 이상이라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제화되기 쉽기 때문이다.
* '변화가 없지만' ↔ '점차 변하며'처럼 대립 항이 있는 문장은 반드시 포인트를 두자!

4 1이제는 고무줄에 추를 매달아 고무줄이 일정한 응력을 받도록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2고무줄은 순간적으로 일정 길이만큼 늘어났다. 3이는 탄성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여 준다. 4그러나 이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성체와 같이 분자들의 위치가 점차 변하며 고무줄이 서서히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크리프**이다. 5오랜 세월이 지나면 유리창 유리의 아랫부분이 두꺼워지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다.

4 크리프 현상의 예

- * 고무줄은 순간적으로 일정 길이만큼 늘어남. → 탄성의 성질
- * 시간이 지남에 고무줄이 서서히 늘어남. → 크리프

5 1점탄성체의 변형에 걸리는 시간이 물질마다 다른 것은 분자나 원자 간의 결합 및 배열된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2나일론과 같은 물질의 **응력 완화**와 **크리프**는 상온(常溫)에서도 인지할 수 있지만, 금속의 경우 너무 느리게 일어나므로 상온에서는 관찰이 어렵다. 3온도를 높이면 물질의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일론의 경우 온도를 높임에 따라 응력 완화와 크리프가 가속화되며, 금속도 고온에서는 응력 완화와 크리프를 인지할 수 있다. 4**모든** 물체는 본질적으로는 **점탄성체**이며 물체의 점탄성 현상이 우리가 인지할 정도로 빠르게 일어나는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5 모든 물체는 점탄성체

- * 분자나 원자 간의 결합 및 배열된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점탄성체의 변형에 걸리는 시간이 물질마다 다름.
- * 금속과는 달리 나일론의 응력 완화와 크리프는 상온에서도 인지 가능
- * 온도를 높이면 응력 완화와 크리프가 가속화되며, 금속도 고온에서는 응력 완화와 크리프 인지 가능
- * 모든 물체는 본질적으로는 점탄성체

4

1
* '응력'의 개념을 잊었다면, 앞에서 서술된 부분을 체크해 본 뒤 읽어 나가야 한다.

4
* <설명+개념어>의 형태로, 흔한 <개념어+설명>보다는 인지가 잘 안 되니 개념어에 동그라미나 네모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다.

5

1
* <결과+원인>의 구조. '결합', '배열 구조'를 통해 대상들의 <위치, 순서, 집합군>이 중요 포인트가 되어 서술되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2
* '인지할 수 있지만' ↔ '관찰이 어렵다'처럼 대립 항이 있는 문장은 반드시 포인트를 두자! 출제자가 좋아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3
* <원인+결과>의 구조.

4
* '모든 물체는~'처럼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은 선지 정/오 판단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06.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48위

#이해 #원인+결과 유형 #배경지식

정답률 78%	선지별 선택 비율				
	① 4%	② 5%	③ 3%	④ 78%	⑤ 10%

정답 풀이

④ 유리창의 유리 아랫부분이 두꺼워지는 것은 '시간 지연성'과 관련이 있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즉 끝은 1)힘과 변형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간 지연성>을 가지고 있다. [1문단]
- 2)오랜 세월이 지나면 유리창 유리의 아랫부분이 두꺼워지는 것도와 같은 현상이다. [4문단]

↳ 유리창의 유리 아랫부분이 두꺼워지는 변형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현상2)이므로 대상의 힘과 변형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간 지연성>1)과 관련이 있다.

☞ 지문에서 2개의 문단 2개의 문장의 조합으로 선지 ④가 정답임을 알 수 있다. 지문 1~2)의 핵심인 밑줄 친 내용을 빼고 선지 ④로 만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용수철의 힘과 변형의 관계가 '즉각성'을 갖는 것은 점성 때문이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용수철에 힘을 가하여 잡아당기면 용수철은 즉각적으로 늘어나며 용수철에 가한 힘을 제거하면 바로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는데, 이는 1)용수철이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용수철은 힘과 변형의 관계가 즉각적으로 형성되는 <즉각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2)꽃을 평평한 판 위에 올려놓으면 꽃은 중력에 의해 서서히 흐르는 변형을 하게 되는데, 이는 꽃이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인 <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문단]

↳ 용수철의 힘과 변형의 관계가 <즉각성>을 갖는 것은 <점성>이 아닌,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점성>은 꽃과 같은 대상물이 평평한 판 위에서 흐르는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2)에 해당한다.

② 같은 온도에서는 물질의 종류와 무관하게 물질의 유동성 정도는 같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그리고 1)크리프는 응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 변형이 서서히 증가하는 현상 → <유동성 있음>이다. [2문단]
- 2)나일론과 같은 물질의 응력 완화와 <크리프>는 상온(常溫)에서도 인지할 수 있지만, <금속>의 경우 너무 느리게 일어나므로 상온에서는 관찰이 어렵다. [끝 문단]

↳ <크리프>는 변형 현상으로 물체의 유동성과 관련된다. 1) 이러한 <크리프>가 같은 상온에서도 <나일론>에서는 인지되지만, <금속>은 <크리프>의 관찰이 어려운 것2)으로 보아 물질의 종류에 따라 유동성 정도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어휘 체크

- * 상온: 가열하거나 냉각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기온. 보통 15°C를 가리킴.
- * 유동성: 액체와 같이 흘러 움직이는 성질

③ 물체가 서서히 변형될 때에는 물체를 이루는 분자의 위치에 변화가 없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그러나 이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성체와 같이 1)분자들의 위치가 점차 변하며 2)고무줄이 서서히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크리프이다. [4문단]

↳ 물체가 서서히 변형될 때2)에는 물체를 이루는 분자의 위치가 점차 변한다. 1)

패턴 공략

▶ 지문: A(원인)+B(결과) → 부정적 선지: B(결과)+A(결과) 부정

※ 원인(A)+결과(B)의 유형

- A 때문에 B하다. = A는 B하게 하다. = A가 B를 일으키다.

⑤ 판 위의 꽃이 흐르는 동안 중력에 대응하여 꽃의 응력은 서서히 증가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반면 1)꽃을 평평한 판 위에 올려놓으면 꽃은 <중력>에 의해 서서히 흐르는 변형을 하게 되는데. [1문단]
- <응력 완화>는 변형된 상태가 고정되어 있을 때, 2)물체가 받는 힘인 <응력>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이다. [2문단]

↳ <응력>은 물체가 받는 힘2)으로 <중력>을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의 <중력>은 일정하므로 판 위의 꽃이 흐르는 동안 <중력1>에 대응하는 꽃의 응력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지문 1)에서 '꽃은 중력에 의해 서서히 변형'한다는 말 때문에 '꽃의 <응력>도 증가'하는 것과 대응했다면 이는 <응력>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 개념이 항상 '~은/는 ~이다' 형태로만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안긴문장의 형태인 '물체가 받는 힘인 <응력>을 통해 <응력>은 물체가 받는 힘이다.'와 같이 개념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중력〉 정도의 쉬운 과학 용어는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음을 전제하고 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지문에서 〈중력〉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 중력: 지구 위의 물체가 지구로부터 받는 힘.

→ 같은 공간에서는 일정하며, 구 위의 장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며, 적도 부근이 가장 작음.

☆ 2016 수능에 〈밀도〉, 〈무게〉 등이 지문에 제시되지 않고 배경지식으로 고려된 채 출제된 바가 있다.

* 밀도 = 질량/부피

* 무게 = 질량×중력 가속도

→ 밀도와 무게는 정비례

최선의 조언

실제 수능에서는 배경지식이 없어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배경지식 덕분에 문제를 신속하게 푸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라도 그 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지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꼭 필요했던 배경지식들〉

- * '토끼전의 주요 줄거리' - [2016 수능 문학]
- * '낮보다 밤에 소리가 더 잘 들림.' - [2016 수능 문학]
- * '(밀도) = 질량/부피, (무게) = 질량×중력 가속도' - [2016 수능 비문학]
- * '문장의 성분, 문장의 짜임' - [2015 수능 문법]
- * '상춘곡에 대한 기본 해석' - [2015 수능 문학]
- * '관동별곡에 대한 기본 해석' - [2015 수능 문학]
- * '홍길동전 전체 줄거리' - [2014 수능 문학]

07.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38위

#비교 선지의 법칙 #보기 제시 #탐구 #3점 #배경지식 필요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9%	① 2%	② 3%	③ 89%	④ 3%	⑤ 3%

정답 풀이

③ (가)에서 나일론 재질 대신 금속 재질의 기타 줄을 사용한다면 기타 줄의 팽팽한 정도가 더 빨리 감소하겠군.

지문 속 근거 찾기

- 〈응력 완화〉는 변형된 상태가 고정되어 있을 때, 물체가 받는 힘인 〈응력〉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이다. [2문단]
- 〈나일론〉과 같은 물질의 응력 완화와 크리프는 상온에서도 인지할 수 있지만, 1)〈금속〉의 경우 〈응력 완화〉가 너무 느리게 일어나므로 상온에서는 관찰이 어렵다. [끝 문단]

↳ (가)에서 〈나일론〉 재질 대신 〈금속〉 재질의 기타 줄을 사용하면 〈응력 완화〉가 너무 느리게 일어나므로) 오히려 기타 줄의 팽팽한 정도가 더 느리게 감소한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기타 줄이 원래의 길이로 돌아간 것은 기타 줄이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군.

지문 속 근거 찾기

- 용수철에 힘을 가하여 잡아당기면 용수철은 즉각적으로 늘어나며 용수철에 가한 힘을 제거하면 바로 1)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는데, 이는 용수철이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문단]

↳ (가)에서 기타 줄이 원래의 길이로 돌아간 것은 기타 줄이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② (가)에서 기타 줄의 팽팽한 정도가 달라진 것은 기타 줄에 응력 완화가 일어났기 때문이군.

지문 속 근거 찾기

- 1)〈응력 완화〉는 변형된 상태가 고정되어 있을 때, 물체가 받는 힘인 〈응력〉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이다. [2문단]
- 〈보기〉
(가) 이번에는 기타 줄을 길이가 늘어나게 당긴 후 2)고정하여 음을 맞추고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니,

↳ 〈응력 완화〉는 물체의 변형 상태가 고정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고정하여 음을 맞추고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기타 줄은 〈응력 완화〉 현상이 일어나 기타 줄의 팽팽한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응력 완화〉가 원인, 〈팽팽한 정도가 다름〉이 결과인 선지 ②는 적절하다.

④ (나)에서 선반이 책 무게 때문에 서서히 변형된 것은 선반이 크리프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겠군.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리고 1)〈크리프〉는 〈응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 변형이 서서히 증가하는 현상이다. [2문단]
- 〈보기〉
(나) 이 상태에서 선반이 서서히 휘어져 몇 달이 지난 후 살펴보니 2)선반의 휘어진 정도가 처음보다 더 심해져 있었다.

↳ (나)에서 선반 위의 책 무게는 일정하니 선반이 받는 〈응력〉도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반의 변형이 증가하는 것)은 선반이 〈크리프〉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⑤ (나)에서 여름과 겨울에 선반의 휘어지는 속력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선반이 겨울보다 여름에 휘어지는 속력이 더 크기 때문이군.

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리고 <크리프>는 <응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 변형이 서서히 증가하는 현상이다. [2문단]
- 온도를 높이면 물질의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일론의 경우 1) <온도를 높임>에 따라 응력 완화와 <크리프>가 가속화되며, [끝 문단]

↳ <온도를 높임>에 따라 물체의 변형이 서서히 증가하는 <크리프>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선반이 겨울보다 온도가 더 높은 <여름>에 휘어지는 속력이 더 크다. 그래서 (나)에서 여름과 겨울에 선반의 휘어지는 속력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 비교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위 문제의 경우 ③, ⑤가 비교형 선지에 해당하고 그 안에 정답이 있다.

③ (가)에서 <나일론> 재질 대신 <금속> 재질의 기타 줄을 사용한다면 기타 줄의 팽팽한 정도가 더 빨리 감소하겠군. 🗨️ (☆정답)

⑤ (나)에서 여름과 겨울에 선반의 휘어지는 속력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선반이 <겨울>보다 <여름>에 휘어지는 속력이 더 크기 때문이군.

예문

지문 난이도 ★★★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B형 25~26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29위

01 ~ 02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1 1별의 밝기는 별의 거리, 크기, 온도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나타내며,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한다. 3고대의 천문학자 히파르코스는 맨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에 따라 가장 밝은 1등급부터 가장 어두운 6등급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4이후 1856년에 포그슨은 1등급의 별이 6등급의 별보다 약 100배 밝고, 한 등급 간에는 밝기가 약 2.5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아내었다. 5이러한 등급 체계는 망원경이나 관측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편되었다. 6맨눈으로만 관측 가능했던 1~6등급 범위를 벗어나 그 값이 확장되었는데 7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은 6보다 더 큰 수로,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은 1보다 더 작은 수로 나타내었다.

1 겉보기 등급의 정의와 등급 체계

- * '겉보기 등급':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
 - 별의 밝기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구분
 - 1등급의 별이 6등급의 별보다 약 100배 밝고, 한 등급 간에는 밝기가 약 2.5배 차이 남.
 - 망원경이나 관측 기술의 발달로 등급 분류가 더 자세해짐.

2 1별의 겉보기 밝기는 지구에 도달하는 별빛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2과학자들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빛 에너지의 총량을 '복사 플럭스'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값이 클수록 별이 더 밝게 관측된다. 3그러나 별의 복사 플럭스 값은 빛이 도달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별과의 거리가 멀수록 그 별은 더 어둡게 보인다. 4이처럼 겉보기 밝기는 거리에 따라 다르게 관측되기 때문에 별의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으로 나타낸다. 5예를 들어, '리겔'의 경우 겉보기 등급은 0.1 정도이지만, 절대 등급은 -6.8 정도에 해당한다.

2 별까지의 거리를 고려한 절대 등급

- * 별의 겉보기 밝기: 지구에 도달하는 별빛의 양에 의해 결정
- * '복사 플럭스':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빛 에너지의 총량.
 - 값이 클수록 별이 더 밝게 관측
 - 빛이 도달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별과의 거리가 멀수록 그 별이 더 어둡게 보임.)
- * 겉보기 밝기는 거리에 따라 다르게 관측되기 때문에 별의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으로 나타냄.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 1
- * '밝기', '거리', '크기', '온도' 등은 모두 상대적 <정도성>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 4
- * '100배, 2.5배'처럼 비교형 수치 표현은 선지의 정/오 판단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2

- 3
- * '~반비례하기~, ~멀수록~'처럼 비례가 나타나는 문장은 선지의 정/오 판단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3 -2~4, 4 -1도 마찬가지로]
- 4
- * <원인+결과>의 구성으로 이런 논리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글을 읽으면 구조화가 수월해진다.

3 1절대 등급은 별이 지구로부터 10파섹*(약 32.6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별의 겉보기 등급으로 정의한다. 2별의 실제 밝기는 별이 매초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인 광도가 클수록 밝아지게 된다. 3광도는 별의 반지름의 제곱과 별의 표면 온도의 네 제곱에 비례한다. 4즉, 별의 실제 밝기는 별의 표면적이 클수록,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밝다.

* 파섹: 거리의 단위로서 1파섹은 3.086×10^{13} km, 즉 약 3.26광년에 해당한다.

3 절대 등급의 정의와 별의 실제 밝기

- * 절대 등급: 별이 지구로부터 10파섹(약 32.6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별의 겉보기 등급으로 정의
- * 별의 실제 밝기: 별이 매초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인 광도가 클수록 밝아짐.
- * 광도: 별의 반지름의 제곱과 별의 표면 온도의 네제곱에 비례

4 1과학자들은 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인 거리 지수를 이용하여 별까지의 거리를 판단하며, 이 값이 큰 별일수록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다. 2어떤 별의 거리 지수가 0이면 지구와 그 별 사이의 거리가 10파섹임을 나타내고, 0보다 크면 10파섹보다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3예를 들어 '북극성'의 겉보기 등급은 2.0 정도이고, 절대 등급은 -3.6 정도이므로 거리 지수는 5.6이다. 4이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북극성은 10파섹보다 멀리 있으며, 실제로 지구에서 133파섹 떨어져 있다. 5이처럼 별의 밝기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4 별까지의 거리 판단

- * 별까지의 거리 산출 기준: <별의 겉보기 등급-절대 등급>의 거리 지수
→ 거리 지수가 클수록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다.

3

2

* 개념이 항상 'A는 B이다.'의 형태인 것은 아니다. <별이 매초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인 '광도'처럼 안긴문장의 형태라면 개념이 나왔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자. (광도 = 별이 매초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

2, 4

* 클수록에 ↑, 높을수록에 ↑, 밝다에 ↑ 표시. 반대인 경우에는 ↓로 시각화는 것이 좋다.

4

1

* <거리 지수 = 겉보기 등급 - 절대 등급>과 같이 계산식으로 정리되면, 다양하게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 (겉보기 등급 = 거리 지수 + 절대 등급, 절대 등급 = 겉보기 등급 - 거리 지수)

2

* 조건과 기준이 모두 '0'이다. 과학 지문에서 조건이나 기준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3

* 예시는 이미 제시된 핵심 진술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문제 풀이 시 제대로 봐도 충분하다.

01.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52위

#비교 선지의 법칙

정답률 79%	선지별 선택 비율				
	① 4%	② 4%	③ 7%	④ 6%	⑤ 79%

정답 풀이

⑤ 겉보기 등급이 -1인 별과 겉보기 등급이 1인 별의 밝기는 약 2.5배 차이가 나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후 1856년에 포그슨은 1등급의 별이 6등급의 별보다 약 100배 밝고, 1)한 등급 간에는 밝기가 약 2.5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아내었다. [1문단]

한 등급 간에는 밝기가 약 2.5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이 -1인 별과 겉보기 등급이 1인 별의 밝기는 두 등급에 해당하므로 <2.5배×2.5배> = 6.25배 차이가 나게 된다.

오답 풀이

① 별빛이 도달되는 거리가 3배가 되면 복사 플럭스 값은 1/9배가 되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러나 별의 1)복사 플럭스 값은 <빛이 도달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별과의 거리가 멀수록 그 별은 더 어둡게 보인다. [2문단]

<복사 플럭스 값>은 <빛이 도달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별빛이 도달되는 거리>가 3배가 되면 <복사 플럭스 값>은 1/9배가 된다.

☞ '3배'의 제곱은 '9배', 9배의 반비례는 1/9배가 됨.

② 망원경으로 관측한 별 중에 히파르코스의 등급 범위를 벗어난 것이 있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고대의 천문학자 <히파르코스>는 맨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에 따라 가장 밝은 1등급부터 가장 어두운 6등급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이러한 등급 체계는 1)망원경이나 관측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편되었다. 맨눈으로만 관측 가능했던 (히파르코스의) 1~6등급 범위를 벗어나 그 값이 확장되었는데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은 6보다 더 큰 수로, [1문단]

<망원경>으로 관측한 별 중에 <히파르코스>의 등급 범위를 벗어난 것이 있다.1)

③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은 지구에서 약 32.6광년 떨어져 있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과학자들은 1)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인 <거리 지수>를 이용하여 별까지의 거리를 판단하며, 이 값이 큰 별일수록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다. 어떤 별의 2)<거리 지수>가 0이면 지구와 그 별 사이의 거리가 10파섹임을 나타내고, [끝 문단]

파섹: 거리의 단위로서 3)1파섹은 3.086×10¹³km, 즉 약 3.26광년에 해당한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다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인 '거리 지수'가 0이 된다. <거리 지수>가 0이면 지구와 그 별 사이의 거리가 10파섹임을 나타내고) 10파섹은 32.6광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은 지구에서 약 32.6광년 떨어져 있다는 선지 ③은 적절하다.

④ 어떤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0파섹 미만이라면 그 별의 거리 지수는 0보다 작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어떤 별의 <거리 지수>가 0이면 지구와 그 별 사이의 거리가 10파섹임을 나타내고, 0보다 크면 10파섹보다 멀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거리 지수>가 0보다 작으면 10파섹 미만) [끝 문단]

어떤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0파섹 미만이라면 그 별의 <거리 지수>는 0보다 작다.1)

★ 비교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①, ⑤에 수치 비례의 표현이 나타나 있고 그 안에 정답이 있다.

- ① 별빛이 도달되는 거리가 3배가 되면 복사 플럭스 값은 1/9배가 되겠군.
- ⑤ 겉보기 등급이 -1인 별과 겉보기 등급이 1인 별의 밝기는 약 2.5배 차이가 나겠군. ☞ (☆정답)

02.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49위

#보기 제시 #3점 #비교 선지의 법칙

정답률 5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7%	② 12%	③ 54%	④ 9%	⑤ 18%

정답 풀이

③ 별 B는 별 A보다 별의 실제 밝기가 약 100배 밝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 별의 <실제 밝기>는 별이 매초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인 <광도>가 클수록 밝아지게 된다. 2) <광도>는 별의 <반지름의 제곱>과 별의 <표면 온도의 네제곱>에 비례한다. [3문단]

📌 지문 POINT

※ 별의 <실제 밝기>는 <광도>가 결정하며 이 <광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2)을 비교해 보면,

- * 반지름의 제곱 값: $A(1) > B(0.01) \rightarrow A$ 가 100배 큼.
- * 표면 온도의 네제곱 값: $A(1) < B(10000) \rightarrow B$ 가 10000배 큼.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B는 A보다 광도 값이 약 100배 크므로 별의 실제 밝기도 약 100배 밝다.

✖ 오답 풀이

① 별 A는 별 B보다 광도 값이 더 크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 <광도>는 별의 <반지름의 제곱>과 별의 <표면 온도의 네제곱>에 비례한다. [3문단]

📌 지문 POINT

※ <광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을 비교해 보면,

- * 반지름의 제곱 값: $A(1) > B(0.01) \rightarrow A$ 가 100배 큼.
- * 표면 온도의 네제곱 값: $A(1) < B(10000) \rightarrow B$ 가 10000배 큼.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는 B보다 광도 값이 약 100배 더 작다.

② 별 A는 '리겔'보다 실제 밝기가 더 밝은 별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은 6보다 더 큰 수로,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은 1보다 더 작은 수로 나타내었다. [1문단] → <숫자가 작을수록 밝음.>
- 이처럼 겉보기 밝기는 거리에 따라 다르게 관측되기 때문에 별의 2)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3) <리겔>의 경우 <겉보기 등급>은 0.1 정도이지만, <절대 등급>은 -6.8 정도에 해당한다. [2문단]

📌 지문 POINT

※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으로 나타내는데 2) <별 A>와 <리겔>의 '절대 등급' 3)을 비교해 보면,

- * 절대 등급: $A(-1) > \text{리겔}(-6.8)$

↳ 별의 등급은 밝은 별을 더 작은 수로 나타낸다고 하였고 1) 리겔이 절대 등급 숫자가 더 작기 때문에 별 A보다 리겔이 실제 밝기가 더 밝다.

④ 별 B는 지구에서 133파섹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과학자들은 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인 <거리 지수>를 이용하여 별까지의 거리를 판단하며, 1) 이 <거리 지수> 값이 큰 별일수록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2) <북극성>의 겉보기 등급은 2.0 정도이고, 절대 등급은 -3.6 정도이므로 <거리 지수>는 5.6이다. 3) 이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북극성은 10파섹보다 멀리 있으며, 실제로 지구에서 133파섹 떨어져 있다. [끝 문단]

↳ 별 B의 <거리 지수>는 7로 5.6인 '북극성' 2)보다 크다. <거리 지수>가 클수록 지구에서 거리가 멀어지기 1) 때문에 133파섹 떨어져 있는 '북극성' 3)보다 별 B는 더 멀리, 즉 133파섹보다 더 멀리 떨어진 거리에 있다.

⑤ 별 B는 지구에서 볼 때 '북극성'보다 더 어둡게 보인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나타내며,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한다. ~2) 맨눈으로만 관측 가능했던 1~6등급 범위를 벗어나 그 값이 확장되었는데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은 6보다 더 큰 수로,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은 1보다 더 작은 수로 나타내었다. [1문단] → <숫자가 작을수록 밝음.>
- 예를 들어 <북극성>의 <겉보기 등급>은 2.0 정도이고, 절대 등급은 -3.6 정도이므로 거리 지수는 5.6이다. [끝 문단]

📌 지문 POINT

※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겉보기 등급' 1)을 비교해 보면,

- * 겉보기 등급: 별 B(7) < 북극성(2)

↳ 숫자가 작을수록 밝기 2) 때문에 별 B가 북극성보다 더 밝게 보인다.

★ 비교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③에 수치 비례의 표현이 나타나 있고 정답에 해당한다.

③ 별 B는 별 A보다 별의 실제 밝기가 약 100배 밝다. 📌 (☆정답)

03~05 분광 분석법의 창안과 과학적 성과

1 19세기 중반 화학자 **분젠**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물질 고유의 불꽃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2** 그는 버너 불꽃의 색을 제거한 개선된 버너를 고안함으로써 물질의 불꽃색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하지만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의 불꽃은 색깔이 겹쳐서 분간이 어려웠다. **4** 이에 물리학자 **키르히호프**는 프리즘을 통한 분석을 제안했고 둘은 협력하여 불꽃의 색을 분리시키는 **분광 분석법**을 창안했다. **5** 이것은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으로 이어졌다.

1 분광 분석법의 창안
 * 분광 분석법: 불꽃의 색 분리(분젠의 물질 고유의 불꽃색 연구 + 키르히호프의 프리즘 분석)

2 그들은 불꽃 반응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띠 모양으로 분산시킨 후 망원경을 통해 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2** 빛이 띠 모양으로 분산되는 것은 빛이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하는 각이 작기 때문이다. **3** 이 방법을 통해 그들은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의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그것들을 함유한 화합물들을 찾아내었다. **4** 이 과정에서 그들은 특정한 금속의 스펙트럼에서 띄엄띄엄 떨어진 밝은 선의 위치는 그 금속이 흡원소로 존재하던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존재하던 불꽃의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5** 이로써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분석 화학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화합물의 원소를 판별해 내는 분광 분석법이 탄생하였다. **6** 이 방법의 유효성은 그들이 새로운 금속 원소인 세슘과 루비듐을 발견함으로써 입증되었다.

2 분광 분석법의 원리
 * 불꽃 반응의 빛을 프리즘에 통과 → 띠 모양으로 분산(파장이 짧을수록 굴절각 커짐.) →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의 스펙트럼 조사 → 함유 화합물 발견
 * 분광 분석법의 유효성: 세슘과 루비듐 발견 통해 입증함.

1

1, 4

- * 첫 문단부터 인물 명이나 시대가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 두자. 인물별 혹은 시대별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 인물(분젠, 키르히호프)끼리 대립되는 입장을 갖는 일반 지문과는 달리 협력적 관계임에 주의하자.

3~4

- * <문제(분간이 어려웠다)+ 해결(색을 분리시키는~)>의 구성.

3

- *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등 전환 및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면 주의가 필요하므로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절하다.

4, 5

- * ‘이에’,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 가는 지시 대명사(이~, 그~)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2-1·3·4, 5, 6, 3-4·6도 마찬가지로]

2

2

- * ~분산되는 것은(원인)+~때문이다(결과)
- * ‘~할수록~하다’와 같은 비례적 표현은 선지의 정/오 판단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4~5

- * <이전 내용의 결론+ 의의>로 문단의 포인트!

4

- * 문장이 길다면 한 번 끊어 줄 필요가 있고, 이때 ‘서술어’의 주체를 혼동하면 안 된다. (밝은 선의 위치는~항상 같다.)

5

- * 개념(분광 분석법)에는 동그라미, 서술 키워드(화합물의 원소 판별)에는 밑줄을 그어 두자.

3 11859년 키르히호프는 이 방법을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하였다. **2** 그는 불꽃 반응 실험에서 관찰한 나트륨 스펙트럼의 두 개의 인접한 밝은 선과 1810년대 프라운호퍼가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에서 발견한 검은 선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었다. **3** 그는 태양빛의 스펙트럼의 검은 선들 중에서 프라운호퍼의 D선이 나트륨 고유의 밝은 선들과 같은 파장에서 겹쳐지는 것을 확인하고, D선은 태양에서 비교적 차가운 부분인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나트륨 때문에 생긴다고 해석했다. **4** 이것은 태양 대기 중의 나트륨이 태양의 더 뜨거운 부분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D선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들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5**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보면 D선 이외에도 차가운 태양 대기 중의 특정 원소에 의해 흡수된 빛의 파장 위치에 검은 선들이 나타난다. **6** 이 검은 선들은 그 특정 원소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내는 스펙트럼상의 밝은 선들과 나타나는 위치가 동일하다.

3 태양의 대기 구성 원소 연구에 활용된 분광 분석법
 * 천문학 분야로 확장: 태양빛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 규명

4 이후 이러한 원리의 적용을 통해 철과 헬륨 같은 다른 원소들도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함이 밝혀졌으며 다른 항성을 연구하는 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다. **2** 이 를 두고 동료 과학자들은 물리학, 화학, 천문학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분광 분석법이 천체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밝혀냄으로써 우주의 통일성을 드러내었고/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자연의 원리를 인식하게 하는 데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4 분광 분석법의 업적
 * 천체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밝힘. → 자연의 원리 인식하게 하는 데 공헌

3

1
 *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하였다.'를 통해 이번 문단은, 이전 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단의 첫 문장을 통해 이전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1~2
 * '키르히호프(1859년)', '프라운호퍼(1810년대)'처럼 문장 순서와 활용 시기가 동일하지 않음에 주의하자. 즉 키르히호프가 먼저 제시되어 있지만 프라운호퍼가 활동한 시기가 더 빠르다.

2, 3
 * 문장이 길고 심표가 있다면 심표에서 흐름을 한 번 끊어 주자.

2
 * '원인을 설명할 수 있었다.'를 통해 앞으로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남(결과)'에 대한 원인이 나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3
 *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난무하여 복잡할 때에는, 피수식어에 밑줄을 그어 이를 줄기로 잡아가지. 대개 주체를 헛갈려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4
 * <결과+원인>의 구조.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4
 ※ 끝 문단의 역할: 정리, 요약, 강조, 당부, 의의(두 번째 문장에 해당), 문 제점 지적 등

03.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41위

#읽글 바탕 #업적 #끝 문단 중요

정답률 76%	선지별 선택 비율				
	① 4%	② 4%	③ 3%	④ 13%	⑤ 76%

정답 풀이

⑤ 천체에 가지 않고도 그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에 물리학자 ㉠키르히호프는 프리즘을 통한 분석을 제안했고 둘은 협력하여 불꽃의 색을 분리시키는 1)〈분광 분석법〉을 창안했다. [1문단]

• 이를 두고 동료 과학자들은 물리학, 화학, 천문학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2)〈분광 분석법〉이 천체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밝혀냄으로써 우주의 통일성을 드러내었고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자연의 원리를 인식하게 하는 데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끝 문단]

↳ ㉠키르히호프는 〈분광 분석법〉을 창안)했으며 이 〈분광 분석법〉이 천체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밝혀내)2) 천체에 가지 않고도 그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오답 풀이

①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분석 화학 방법을 확립하였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로써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분석 화학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화합물의 원소를 판별해 내는 〈분광 분석법〉이 탄생하였다. [2문단]

↳ ㉠키르히호프는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분석 화학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분광 분석법〉을 창안했다.

패턴 공략

▶ 지문: B하지 않는 A → 부적절 선지: A는 B하다.

②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존재함을 알아내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는 불꽃 반응 실험에서 관찰한 나트륨 스펙트럼의 두 개의 인접한 밝은 선과 1810년대 1)〈프라운호퍼〉가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에서 발견한 검은 선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었다. [3문단]

↳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존재)1)함을 알아낸 이는 〈프라운호퍼〉이다.

③ 물질을 불꽃에 넣으면 독특한 불꽃색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9세기 중반 화학자 〈분젠〉은 1)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물질 고유의 불꽃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물리학자 ㉠키르히호프는 프리즘을 통한 분석을 제안했고 둘은 협력하여 불꽃의 색을 분리시키는 〈분광 분석법〉을 창안했다. [1문단]

↳ 물질을 불꽃에 넣으면 독특한 불꽃색이 나타나는 연구)1)는 ㉠키르히호프)의 〈분광 분석법〉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분젠〉의 연구이다.

☞ 위의 [1문단]의 내용만으로는 〈분젠〉이 독특한 불꽃색을 발견하고 이어서 직접 연구를 진행했거나 다른 이가 독특한 불꽃색을 발견하고 〈분젠〉이 이어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2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④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얻는 방법을 창안하였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859년 〈키르히호프〉는 이 방법을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하였다. 그는 불꽃 반응 실험에서 관찰한 나트륨 스펙트럼의 두 개의 인접한 밝은 선과 1)1810년대 〈프라운호퍼〉가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에서 발견한 검은 선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었다. [3문단]

↳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발견하고 활용)1)한 이는 〈1810년, 프라운호퍼〉이다. 〈1859년, 키르히호프〉가 이를 창안한 것은 아니다.

어휘 체크

* 창안: 어떤 방안, 물건 따위를 처음으로 생각하여 냄.

TIP 실전 풀이

★ 끝 문단이 중요하다!

끝 문단은 글 전체의 내용을 정리, 요약, 강조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인물이 행한 가치 있는 일이 요약된) 견해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비문학에서 주제와 긴밀한 것은 물론 인물의 업적 및 견해, 글쓴이의 생각, 관점, 강조 사항, 당부, 가치관, 입장 등과 관련된 것을 몰으면 이번 문제처럼 정답의 핵심 근거는 지문의 끝 문단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다음 문제들은 정답의 근거가 모두 끝 문단에 있다!

- * 읽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 수능)
- * ~키르히호프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14 수능)
- * ~포퍼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3 수능)
- *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가장 적절한 것은? (2011 9월 평가원)
- * 글쓴이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008 9월 평가원)
- *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05 9월 평가원)
- * 글쓴이가 다룬 핵심 주제로 알맞은 것은? (2005 수능)
- * 읽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0 수능)

04.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65위

#이해 #스펙트럼 #수치 비례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94%	① 1%	② 1%	③ 94%	④ 2%	⑤ 2%

✓ 정답 풀이

③ 금속 원소 스펙트럼의 밝은 선의 위치는 불꽃의 온도를 높여도 변하지 않는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 과정에서 그들은 특정한 금속의 스펙트럼에서 띄엄띄엄 떨어진 <밝은 선의 위치>는 그 금속이 홀원소로 존재하던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존재하던 1)불꽃의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2문단]

↳ 금속 원소 스펙트럼의 <밝은 선의 위치>는 불꽃의 온도를 높여도 변하지 않는다.1)

🔍 패턴 공략

▶ 지문: A는 항상 A이다. → 적절 선지: A는 B해도 A이다.

✗ 오답 풀이

① 루비듐의 존재는 분광 분석법이 출현하기 전에 확인되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로써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분석 화학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화합물의 원소를 판별해 내는 <분광 분석법>이 탄생하였다. 1)이 방법(분광 분석법)의 유효성은 그들이 새로운 금속 원소인 세슘과 <루비듐>을 발견함으로써 입증되었다. [2문단]

↳ <루비듐>의 존재는 <분광 분석법>으로 발견1)된 것이다.

② 빛을 프리즘을 통해 분산시키면 빛의 파장이 길수록 굴절하는 각이 커진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빛이 띠 모양으로 분산되는 것은 1)빛이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하는 각이 커지기 때문이다. [2문단]

↳ 빛을 프리즘을 통해 분산시키면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하는 각이 커진다.1)

🔍 패턴 공략

▶ 수치 비례 관계에 대한 정/오 판단은 자주 출제된다.

④ 철이 태양 대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나트륨이 태양 대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먼저 밝혀졌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D선은 태양에서 비교적 차가운 부분인 1)태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나트륨> 때문에 생긴다고 해석했다. [3문단]

• 2)이후 이러한 원리의 적용을 통해 <철>과 헬륨 같은 다른 원소들도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함이 밝혀졌으며 다른 항성을 연구하는 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다. [끝 문단]

↳ <나트륨>이 태양 대기에 존재한다는 해석1) 이후에 <철>이 태양 대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2)

🔍 패턴 공략

▶ 지문: A 다음 B → 부적절 선지: B 다음 A

⑤ 분젠은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에서 나오는 각각의 불꽃색이 겹치는 현상을 막아 주는 버너를 고안하였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9세기 중반 화학자 분젠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물질 고유의 불꽃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1)그(분젠)는 버너 불꽃의 색을 제거한 개선된 <버너>를 고안함으로써 물질의 불꽃색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2)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의 불꽃은 색깔이 겹쳐서 분간이 어려웠다. [1문단]

↳ <분젠>은 <버너>를 고안1)했지만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에서 나오는 각각의 불꽃색이 겹쳐서 분간은 어려웠다.2)

🔍 패턴 공략

▶ 지문에서 반대의 맥락인 '그러나', '하지만' 등 이후의 문장이 선지의 정/오 판단에 많이 활용된다.

05.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89위

#대립 선지의 법칙 #윗글 바탕 #보기 해석 #최שמ의 Q&A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3%	① 3%	② 6%	③ 4%	④ 83%	⑤ 4%

✓ 정답 풀이

④ 항성 β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D선과 일치하는 검은 선들이 없었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는 태양빛의 스펙트럼의 1)(<검은 선>)들 중에서 프라운호퍼의 <D선>이 <나트륨 고유의 밝은 선>들과 같은 파장에서 겹쳐지는 것을 확인하고 D선은 태양에서 비교적 차가운 부분인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나트륨 때문에 생긴다고 해석했다. [3문단]

• <보기>

이것들을 나트륨, 리튬의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비교했을 때,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각각의 파장에서 <항성 β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 지문 POINT

※ 같은 선상에 있는 것들(겹치는 것들)

- 1) <검은 선> & <D선> & <나트륨의 밝은 선>
- 2) <나트륨의 밝은 선> & <항성 β의 검은 선>

☞ <검은 선> & <D선> & <나트륨의 밝은 선> & <항성 β의 검은 선>

↳ 항성 β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D선>과 일치하는 <항성 β의 검은 선>들이 있을 것이다.

🌀 패턴 공략

▶ 지문: $A=B, C=B \rightarrow$ 부적절 선지: $A \neq C$

✖ 오답 풀이

① 항성 α는 태양이 아니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D선은 태양에서 비교적 차가운 부분인 1)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나트륨> 때문에 생긴다고 해석했다. [3문단]

• <보기>

2)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각각의 파장에서 항성 β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항성 α>의 검은 선들과는 겹쳐지지 않았다.

↳ <태양에는 <나트륨>이 있어야 한다.1) 그러나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항성 α>의 검은 선들과 겹쳐지지 않은 것2)으로 보아 <항성 α>에는 <나트륨>이 없고 이는 태양이 아니다.

🌀 패턴 공략

▶ 지문: $A=B, C \neq B \rightarrow$ 적절 선지: $A \neq C$

② 항성 α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리튬이 빛을 흡수해서 생긴 검은 선들이 있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보면 D선 이외에도 차가운 태양 대기 중의 1) '특정 원소'에 의해 흡수된 빛의 파장 위치에 <검은 선>들이 나타난다. [3문단] → '<특정 원소>가 '빛'을 흡수해 '검은 선'이 존재)

• <보기>

2) <리튬>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각각의 파장에서 <항성 α>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항성 β의 검은 선들과는 겹쳐지지 않았다.

↳ <항성 α>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특정 원소인 <리튬>이 '빛'을 흡수해서 생긴 <검은 선>들이 나타날 것이다.1~2)

③ 항성 β에는 리튬이 존재하지 않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1) <리튬>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각각의 파장에서 항성 α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2) <항성 β>의 검은 선들과는 겹쳐지지 않았다.

↳ <리튬>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항성 β>의 검은 선들과는 겹쳐지지 않았기1~2) 때문에 <항성 β>에는 <리튬>이 없을 것이다.

최선의 Q&A

Q <항성 β>에는 리튬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항성 β>의 '대기'에 리튬이 없을 뿐이지 <항성 β>에 리튬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A <항성 β> 자체가 <항성 β>의 대기권의 성질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항성 β 자체 = 항성 β의 대기권>으로 볼 수 있다.

⑤ 항성 β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생긴 검은 선들이 있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보면 D선 이외에도 차가운 태양 대기 중의 1) '특정 원소'에 의해 흡수된 빛의 파장 위치에 <검은 선>들이 나타난다. [3문단]

• <보기>

이것들을 나트륨, 리튬의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비교했을 때, 2)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각각의 파장에서 <항성 β>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항성 α의 검은 선들과는 겹쳐지지 않았다.

📖 지문 POINT

※ '특정 원소에 의해 흡수된 빛의 파장' =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

↳ <항성 β>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생긴 <검은 선>들이 나타날 것이다.1~2)

★ 대립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6쪽 참고)

* 위 문제는 검은 선들의 유/무로 선지 ④ ↔ ②, ⑤가 1대 2 대립을 이룬다.

- ② ~검은 선들이 있겠군. → (있음)
- ④ ~검은 선들이 없겠군. → (없음) ☞ (☆정답)
- ⑤ ~검은 선들이 있겠군. → (있음)

그래서 지문 및 발문과 상관없이 선지 ④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80% 이상이다.

06~07 지구상의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전향력

1 우주에서 지구의 북극을 내려다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자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2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것이다. 3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을 전향력이라 한다.

1 전향력의 개념

* 전향력: 자전 → 전향력 → 물체의 운동 방향을 편향되게 함.

2 1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2 구 모양인 지구의/ (둘레는 적도가 가장 짧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3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2 자전으로 인한 전향력의 특징

- * 지구의 둘레: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짐.
- * 지구의 자전 주기: 위도와 상관 없이 동일
- * 자전하는 속력: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짐. (남극, 북극은 0)

3 1 적도상의 특정 지점에서 동일한 경도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을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한다고 하자. 2 이때 물체에 영향을 주는 마찰력이나 다른 힘은 없다고 가정한다. 3 적도상의 발사 지점은 약 1,600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4 북쪽으로 발사된 물체는 발사 속력 외에 약 1,600km/h로 동쪽으로 진행되는 속력을 동시에 갖게 된다. 5 한편 북위 30도 지점은 약 1,400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6 목표 지점은 발사 지점보다 약 200km/h가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7 따라서 발사된 물체는 겨냥했던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8 이때 지구 표면의 발사 지점에서 보면, 발사된 물체의 이동 경로는 처음에 목표로 했던 북쪽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타나게 된다.

3 적도상에서 북위 30도 지점에서의 물체 발사 실험

* 목표보다 북쪽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짐.

1

1 * '~면'처럼 가정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말에서 흐름을 한 번 끊어 주는 것이 좋다.

2~3

- * 자전(원인) → 전향력(결과)
- * 전향력(원인) → 운동 방향 편향(결과)
- * 자전(근본 원인) → 전향력(직접 원인) → 운동 방향 편향(결과)
- * 국어에서 원인+결과를 따져 보는 작업은 논리력을 기르는 첫걸음이며, 고난도 지문에서 차분하게 내용을 정리하여 선지의 정/오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3-7, 4-4도 마찬가지로]

3

* '이러한', '이',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 가는 지시 대명사(이~, 그~)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3-2·8, 4-3·5도 마찬가지로]

2

1 * 이전 내용의 인과 관계의 일부를 첫 문장에서부터 정리하여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 분명히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2~3

* '~할수록 ~하다'와 같이 비례적인 표현에 화살표를 해 두면 해당 선지의 정/오 판단의 근거를 찾기가 쉬워진다. [4-3, 5-2도 마찬가지로]

3

* 7~8번 문장인 실험 결과('따라서~')가 실험 내용(1~6)보다는 3배 이상 중요하므로 결과 부분을 포인트로 삼고 키워드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 실험 과정은 썩~ 보고 지나가자. 어차피 이와 관련된 이론 및 핵심은 이전에 다 설명이 되었을 것이고 문제 풀이 시 꼼꼼하게 살펴보면 된다. [4-1~2: 실험 내용, 4-3~4: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

4 1번에는 북위 30도에서 자전 속력이 약 800km/h인 북위 60도의 동일 경도상에 있는 지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같은 실험을 실행한다고 하자. 2두 지점의 자전하는 속력의 차이는 약 600km/h이므로 이 물체는 적도에서 북위 30도를 향해 발사했을 때 보다 더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된다. 3이렇게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심하다. 4결국 위도에 따른 자전 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더 심하기 때문에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5이러한 편향 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4 북위 30도 지점에서 북위 60도 지점에서의 물체 발사 실험

- *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정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커짐.
- *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 북극과 남극-최대, 적도-0.
- * 편향 현상: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나타남.

5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뿐만 아니라 물체의 이동하는 속력과도 관련이 있다. 2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심지며, 지표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3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

5 전향력과 속력의 관계

- * 전향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위도, 이동 속력
 -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지며,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없음.
- * 전향력의 편향성: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을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시킴.

4

3~5

* 첫머리의 '이렇게', '결국', '이러한'처럼 앞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거나 결론 및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의 중요도는 셋이 서로 동등하다.

3~4

* (<~할수록~하다>처럼 비례적인 표현은 선지의 정/오 판단에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물결무늬 표시를 해 둔다. [2-1, 5-1도 마찬가지로])

4

최심의 Q&A

Q 적도에서도 위도 차이가 있을 텐데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가 왜 0이 되는 것이죠?

A 지문에 적도의 편향 정도는 0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이유까지 따져 보는 것은 불필요하다. 궁금할 수는 있지만 실전 시험 때 이런 의문에 빠져 너무 깊이 파고들면 엄청난 시간 낭비를 하게 된다. (적도 자체가 위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위도 차이가 없음. 적도=위도 0) 전향력의 모든 실체를 낱말이 파헤치며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가는 공부야 곧, 국어 성적을 올리는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어 성적을 올리는 공부는 지문 안의 문장들을 가지고 정답의 근거를 정확+신속하게 찾는 작업을 부단히 연습하는 것이다.

5

* '모든 물체에~'에서처럼 다른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용어(모두, 모든, 꼭, 반드시……)가 사용된 문장은 부적절 선지로 가공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눈여겨보아야 한다.

5

3

최심의 Q&A

Q 전향력이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A 물체가 <목표를 향해 진행하는 방향의 시점>을 기준으로 왼쪽 혹은 오른쪽을 정한다.

06.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46위

#비교 선지의 법칙 #윗글을 통해

정답률 52%	선지별 선택 비율				
	① 6%	② 4%	③ 52%	④ 36%	⑤ 2%

정답 풀이

- ③ 남위 50도 지점은 남위 40도 지점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빠르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구 모양인 1)지구의 둘레는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2)<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3)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2문단]

- ↳ <남위 50도> 지점은 <남위 40도> 지점보다 '고위도'이기 때문에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느리다. 2)
(자전하는 속력 =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

4 지문 POINT

- ▶ 남극과 북극으로 갈수록 고위도에 해당한다. 3)
- ▶ 적도가 0도라는 것은 지문에 없음. → (상식적 판단)
- ▶ 50도가 40도보다 수치가 높아 <고>위도에 해당 → (상식적 판단)

1 등급 가이드

☞ <적도>의 개념은 사전적으로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구의 둘레가 <적도>에서 가장 길다는 내용으로 볼 때, <적도>는 지구의 중심을 지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X 오답 풀이

- ①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의 자전 주기는 동일하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1)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2문단]

- ↳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1)하므로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의 자전 주기도 동일하다.

- ② 운동장에 정지해 있는 축구공에는 위도에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지며, 1)지표 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끝 문단]

- ↳ 운동장에 정지해 있는 축구공에는 위도에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1)

- ④ 남위 30도에서 정남쪽의 목표 지점으로 발사한 물체는 목표 지점보다 동쪽에 떨어진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1)<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 [끝 문단]

- ↳ <남반구>인 <남위> 30도에서 '정남쪽'의 목표 지점으로 발사한 물체는 <전향력>에 의해 물체의 진행 방향이 '왼쪽'으로 치우치기1) 때문에 목표 지점보다 '동쪽'에 떨어진다.

다른 상황에 비유하자면,

- * '나는 공중에서 (정남쪽인) 땅에 있는 철수를 향해 직선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다.'
- * '그런데 바람에 의해 내 몸이 점점 왼쪽으로 쓸리고 있다.' → (물체의 진행 방향이 '왼쪽' 편향)

☞ 밑에서 '북쪽'을 향하는 '철수'의 시선으로는 '나'의 몸이 '철수'의 '오른쪽'인 '동쪽'으로 떨어진다.

바탕 지식 더하기

※ 동서남북 / 왼쪽, 오른쪽

* <동서남북>: 절대적 위치 개념 → (누구를 기준으로 해도 동서남북은 동일한 위치)

동쪽 - 해가 떠오르는 쪽

서쪽 - 해가 지는 쪽

남쪽 - 나침반이 가리키는 S쪽

북쪽 - 나침반이 가리키는 N쪽

* <왼쪽, 오른쪽>: 상대적 방향 개념 → (시선의 방향에 따라 다른 위치)

왼쪽 - '북쪽'을 향하였을 때의 '서쪽'과 같은 쪽

오른쪽 - '북쪽'을 향하였을 때의 '동쪽'과 같은 쪽

- ⑤ 우리나라의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의 이동 방향은 전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1)'편향' 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4문단]

- 한편, 2)<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 [끝 문단]

- ↳ 날아가는 공도 운동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편향' 현상이 나타나1) 공의 이동 방향은 <전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2)고 볼 수 있다.

최선의 조언

선지 ③의 정/오 판단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런데도 정확한 판단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 복잡한 선지 ④의 어디인가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여 결국엔 선지 ③을 잊고, 오류가 없는 선지 ④를 선택하게 된다. 이 잘못된 선택을 한 수험생은 (선지 ③을 확실하게 선택하며 나머지 선지를 그냥 패스한) 수험생보다 큰 (시간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다. 항상 선지의 정/오 판단은 침착하게 확실히 하되 애매해서 다음 선지로 넘어가야 한다면 다시 비교·검토를 반드시 해야 한다.

★ 비교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비교형 선지는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③ 남위 50도 지점은 남위 40도 지점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빠르다. (☆정답)
→ (남위 50도 지점과 남위 40도 지점의 속력 비교)

07. <과학>

전체 문항 중 난이도: 7위

#비교 선지의 법칙 #보기 제시 #최선의 조언 #3점 #최선의 Q&A

정답률 32%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3%	② 32%	③ 13%	④ 32%	⑤ 10%

✓ 정답 풀이

② 파리보다 고위도에서 동일한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더 느리게 회전하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이는 1)추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전향력>에 의해 C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하고, → (<오른쪽>으로 편향) 되돌아올 때는 D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 → (<오른쪽>으로 편향)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 2)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진다. [4문단]
- 한편, 3)<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 [끝 문단]

➔ 동일한 실험을 파리보다 '고위도'에서 할 경우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정도는 더 커진다. 2) 편향되는 정도가 더 커지면, <B & C>와 <A & D>의 간격이 더 벌어질 것이고 진자의 진동면은 더 빠르게 회전할 것이다.

👉 실험 장소인 파리는 '북반구'이며 파리보다 고위도도 '북반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의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편향된다. 1, 3)

✓ 어휘 체크

* 북반구: 적도 이북, 지구의 반에 해당하는 지역. 남반구의 상대어. → 북반구의 특정 지점에서, 고위도와 적도 이전까지의 저위도는 북반구에 해당

최선의 Q&A

Q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남. [2문단]
<자전 속력>이 '고위도'로 갈수록 느려짐. [2문단]
'고위도'로 갈수록 <자전 속력의 차이>가 커져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가 최대로 됨. [4문단]

그래서 <자전 속력>이 느려지면, <전향력>도 느려지는 것 아닌가요?

A <자전> 자체를 <전향력>과 정비례 관계로 착각해, <자전 속력>이 느려지면 <전향력>도 느려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 <자전>은 <전향력>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서로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고위도'로 갈수록 <자전 속력의 차이>가 커져 <전향력>이 커지는 것이지, <자전 속력>이 커져 <전향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전향력의 차이는 <자전 속력>이 아닌, <자전 속력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이다. (자전 속력 ≠ 자전 속력의 차이)

Q 전향력 때문에, <B & C>와 <A & D>의 간격이 더 커지는 것과 진자의 진동면이 더 빠르게 회전하는 것은 서로 어떤 관련이 있나요?

A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 (가) <B & C>와 <A & D>의 간격이 1도인 경우
→ <전향력 & 편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음.)
- (나) <B & C>와 <A & D>의 간격이 10도인 경우
→ <전향력 & 편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큼.)

진동면이 1회전(360도) 하는데 물체의 움직임이, (가)에서는 360번 필요하지만 (나)에서는 36번만 필요하다. (<편향 정도>가 클수록 회전각이 커지기 때문에 회전 주기도 짧아짐.)

그렇다면 물체의 움직임 360번을 (동일한 시간이 걸리는 하나의) 주기로 놓고 본다면 (가)의 진동면이 1회전을 할 때 (나)의 진동면은 10회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상대적인 고위도에서 간격(편향 정도)이 더 커지면 진동면은 빠르게 회전한다.
(위도의 변수만 제외한, 동일한 실험이기 때문에 주기를 포함한 모든 조건은 당연히 동일하게 고려해야 함.)

✓ 어휘 체크

* 주기: 같은 현상이나 특징이 한 번 나타나고부터 다음번 되풀이되기까지의 기간

X 오답 풀이

- ① 남반구에서 이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자의 진동면이 1)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2) 이는 추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전향력>에 의해 C쪽(→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하고, 되돌아올 때는 D쪽(→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 3)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 [끝 문단]

📌 지문 POINT

- ※ '시계 방향으로 회전-오른쪽으로 전향력 작용-북반구'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왼쪽으로 전향력 작용-남반구'

➡ 이 실험을 <남반구>에서 할 경우 '왼쪽'으로 <전향력>이 작용3)함에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것이다. 1~2)

- ③ 북극과 남극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주기는 동일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1)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2문단]

- 결국 위도에 따른 자전 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2)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4문단]

➡ '북극'과 '남극'의 자전 속력은 0으로 같으니 1) 각 장소에서 <진자의 진동면 회전 주기>를 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물체가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 '편향되는 정도'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편향 정도'가 클수록 회전각이 커지기 때문에 '회전 주기'도 짧아짐. 326쪽 '최솟의 Q&A' 참고)

그런데 '편향되는 정도'가 '북극'이나 '남극'도 최대로 동일하기3) 때문에 두 지역의 <진자의 진동면 회전 주기>도 동일하다.

최솟의 조언

결국 선지 ③의 핵심은 <남극>과 <북극>의 비교인데, 지문에서 이 낱말이 등장하는 곳은 딱 2군데이다. 먼저 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문(1~2)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더라도 핵심 의미인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은 없다> 판단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서 무엇이 동일할 것>이라는 선지 ③은 오류가 없을 것이라는 짐작 또한 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시험 상황에서 선지 ②를 정답으로 거의 확신한다면 나머지 선지는 감각적인 판단으로 넘어가는 센스도 필요하다. 오답이라고 구분되는 선지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선지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집중력'을 쓴다면 경제적인 문제 풀이가 될 수 없다. 문제 풀이의 정확함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신속함이 동반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평소에 공부를 할 때에도 이 문제와 지문을 실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선을 긋고 이해하고 판단해야 할지를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

- ④ 적도상에서 동서 방향으로 진자를 진동시킬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회전하지 않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1)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추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2) <전향력>에 의해 C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하고, 되돌아올 때는 D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 결국 위도에 따른 자전 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3)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4문단]

➡ 진자의 진동면이 회전1)하는 것은 <전향력>이 작용하기2) 때문이다. 그런데 <적도>에는 전향력으로 인한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가 0이 되기3)에 진자의 진동면은 회전하지 않는다.

- ⑤ 남위 60도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움직이는 추는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편향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 [끝 문단]

➡ '남반구'인 <남위> 60도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움직이는 추는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편향된다.

★ 비교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 비교형 선지는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② 파리보다 고위도에서~더 느리게 회전하겠군. 📌 (☆정답)

지문 난이도 ★★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29~32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33위

01 ~ 04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

1 ①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에서는 끝이 첨예한 금속 탐침과 도체 또는 반도체 시료 표면 간에 적당한 전압을 걸어 주고 둘 간의 거리를 좁히게 된다. ② 탐침과 시료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의해 둘이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른다. ③ 이때 탐침과 시료 표면 간의 거리가 원자 단위 크기에서 변하더라도 전류의 크기는 민감하게 달라진다. ④ 이점을 이용하면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에서 측정할 수 있다. ⑤ 하지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 상태는 STM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없다. ⑥ 이렇게 민감한 STM도 진공 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널리 사용될 수 있었다.

1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의 터널링 효과

*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 전압으로 탐침과 시료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접촉이 없어도 전류가 흐름(터널링 효과) → 미세한 거리에도 전류의 크기가 민감하게 달라짐. →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로 측정 가능

2 ① STM은 대체로 진공 통 안에 설치되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②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주변과 충돌한다. ③ 이때 일부 기체 분자들은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붙어 표면과 반응하거나 표면을 덮어 시료 표면의 관찰을 방해한다. ④ 따라서 용이한 관찰을 위해 STM을 활용한 실험에서는 관찰하려고 하는 시료와 기체 분자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진공이 요구되는 것이다. ⑤ 진공이란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통칭하며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다고 한다. ⑥ 진공 통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고 한 종류의 기체 분자만 존재할 경우, 기체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 ⑦ 따라서 기체 분자들을 진공 통에서 뽑아 내거나 진공 통 내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면 진공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을 낮출 수 있다.

2 STM이 진공 통 안에 설치되는 이유

- * 기체 분자들을 진공 통에서 뽑아내거나 진공 통 내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면 진공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이 낮아짐. → 시료와 기체 분자의 접촉이 차단됨. → 시료 표면 관찰이 용이해짐.
- * 진공 상태: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
- * 기체 압력 ↓ → 진공도 ↑ ⇒ 반비례!
- * 기체 압력은 기체 분자 수에 정비례!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1 * 기술 지문이므로 단어의 정의보다는 구성 요소들과 그들의 핵심 특징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STM에 관련된 요소인 탐침, 표면, 전압 등에 밑줄을 그어 두는 것이 좋다.

1, 2, 3, 5

* 전압, 전류 등 전기와 관련된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전기와 관련된 원리나 또 다른 무엇을 중심으로 글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 볼 수 있다. 첫 문단에서 다음으로 이어질 본문의 내용을 예측하는 독해 습관은 (예측한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아주 중요하다. 먼저 내용을 예측한 뒤 다음 내용을 읽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다음 내용을 읽는 것은 분명 독해 속도와 정확도에서 차이를 가져온다.

2

1 *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읽으며 뒤에 당연히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이라고 짐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유에 해당하는 결과들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3

* <~방해한다>는 문제 사항에 해당하며 이를 인지했다면, 뒤에 해결 과정이 나올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을 잘 정리해 보아야 한다. <~방해한다>를 보며 단순 어휘 해석에 그칠지 아니면 문제 사항이라는 것으로까지 인식할 것인지의 차이는 기출의 반복 학습에 달려 있다. 기출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한다면 충분히 이런 감각을 갖출 수 있다. 수능 국어에서의 기출은 한 번 보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N회독이 필요하다!

5

* <~(할)수록 ~하다>처럼 혹은 직접 비례 관계가 드러난 내용은 문제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잘 표시 및 정리해 두어야 한다. (1번 문제 ④번 선지의 정/오 판단에 활용됨.)

3 1STM을 활용하는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진공도가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진공 통 내부에서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들이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달라붙어 한 층의 막을 형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라 한다. 3이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짧다. 4또한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고정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기체의 압력이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다. 5가령 질소의 경우 20℃, 760토르 대기압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3×10^{-9} 초이지만,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10^{-9} 토르로 낮아지면 대략 2,500초로 증가한다. 6이런 이유로 STM에서는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 10^{-9} 토르 이하의 초고진공이 요구된다.

3 '단분자층 형성 시간'의 개념과 특성

- * '단분자층 형성 시간': 시료의 표면에 붙은 기체 분자들이 한 층의 막을 형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붙을 확률 &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 & 기체의 압력>과 반비례, <기체 분자의 질량>과 정비례

4 1초고진공을 얻기 위해서는 ①스퍼터 이온 펌프가 널리 쓰인다. 2스퍼터 이온 펌프는 진공 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펌프 내부로 유입되도록 진공 통과 연결하여 사용한다. 3스퍼터 이온 펌프는 영구 자석, 금속 재질의 속이 뚫린 원통 모양 양극, 타이타늄으로 만든 판 형태의 음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4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원통 모양 양극의 축 방향으로 걸려 있고, 양극과 음극 간에는 2~7kV의 고전압이 걸려 있다. 5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양극으로 이동한다. 6이 과정에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기체 분자를 그것의 구성 요소인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 7여기서 자기장은 전자가 양극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자기장이 없을 때보다 증가시켜 주어 전자와 기체 분자와의 충돌 빈도를 높여 준다. 8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 음극으로 당겨져 음극에 박히게 되어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9이 과정이 1차 펌프 작용이다. 10또한 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하면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와 충돌 지점 주변에 들러붙는다. 11이렇게 들러붙은 타이타늄은 높은 화학 반응성 때문에 여러 기체 분자와 쉽게 반응하여,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한다. 12이는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2차 펌프 작용이라 부른다. 13이렇듯 1, 2차 펌프 작용을 통해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다.

* 토르(torr): 기체 압력의 단위.

4 스퍼터 이온 펌프가 초고진공 상태를 만드는 과정

- * <양극의 자기장+음극과 양극 간의 고전압> → 음극의 전자가 양극으로 이동 →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 → 양이온은 음극에 박히 이동 불가능 [1차 펌프 작용] →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와 충돌 지점 주변에 붙음. → 타이타늄이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 →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가 줄어 듦. [2차 펌프 작용] →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진공 상태가 됨.

3

1, 2

* <~시간>과 관련된 개념이 나왔다면, 시간의 길고 짧음을 비교하는 내용을 테마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3, 4

* <~(할)수록 ~하다>처럼 혹은 직접 비례 관계가 드러난 내용은 문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잘 표시 및 정리해 두어야 한다. (4번 문제 정/오 판단의 핵심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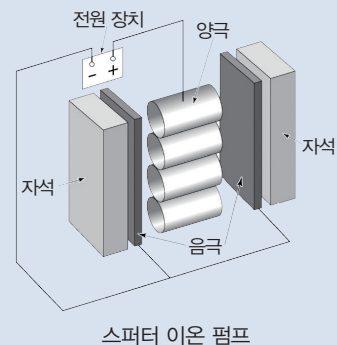
4

3

* <~구성되어 있다>처럼 기술 지문에서 구성 요소(자석, 양극, 음극)는 문단 혹은 더 나아가 지문 전체의 큰 줄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잘 구분하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6, 8, 9

* <~의 과정>이라는 말이 직접 언급되어 있다. 이 말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기술 지문은 원리 및 과정이 반드시 나올 것임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출제자는 한 문단 안에 2가지의 과정을 제시해 이와 관련된 (단순해 보이는) 3번 문제를 꽤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정답률도 60%대로 거의 3점짜리 문제의 정답률 수준과 비슷하다. <두 가지 원리를 각각 두 문단에 배치> vs <두 가지 원리를 한 문단에 배치>를 비교하자면, 분명 내용 분량은 동일한데, 실전에서 수험생들의 갖는 정보량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은 후자 쪽이 더 크다. 일단 지문이 길고 많아 보이면 겁을 먹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 압박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 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유형을 머릿속에 입력해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번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하자.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반복하자. 그러다 보면 이전에 공부할 때 모르던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나 깨우치게 될 것이다.



01.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82위

#내용 일치

정답률 82%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82%	③ 5%	④ 6%	⑤ 2%

정답 풀이

②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진공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초고진공을 얻기 위해서는 <스퍼터 이온 펌프>가 널리 쓰인다. [끝 문단]

↳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진공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1)

X 오답 풀이

① 대기압보다 진공도가 낮은 상태가 진공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진공>이란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통칭하며 2)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다고 한다. [2문단]

↳ 대기압보다 <기체 압력>이 낮은 상태가 <진공>이며1) 진공도는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높다.2) 따라서 진공은 대기압보다 진공도가 높은 상태이다.

③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을수록 STM을 이용한 관찰이 용이하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진공 통 내부에서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들이 1)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달라붙어 한 층의 막을 형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라 한다. [3문단]

↳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으면 시료의 표면에 빨리 막을 형성1)한다는 의미이고 이 막 때문에 시료를 관찰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을수록 STM을 이용한 관찰이 어려워진다.

④ 일정한 온도와 부피의 진공 통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는 기체 압력에 반비례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진공 통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고 한 종류의 기체 분자만 존재할 경우, 기체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1)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 [2문단]

↳ 일정한 온도와 부피의 진공 통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는 <기체 압력>에 비례한다.1)

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시료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이 시간(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 짧다. [3문단]

↳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시료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짧다.1)

02.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19위

#이해 #공통 선지의 법칙

정답률 73%	선지별 선택 비율				
	① 4%	② 6%	③ 73%	④ 13%	⑤ 4%

정답 풀이

③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늘리려면 진공 통 안의 기체 압력을 낮추어야 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진공 통 내부에서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들이 1)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달라붙어 한 층의 막을 형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라 한다. ~ 또한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고정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2) 기체의 압력이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다. [3문단]

↳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늘리려면, 시료에 막을 형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인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1) 길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료에 막이 형성되면 시료의 관찰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늘리려면, 진공 통 안의 기체 압력을 낮추어야 한다.2)

X 오답 풀이

①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까지 측정할 수 없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 점을 이용하면 1)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에서 측정할 수 있다. [1문단]

↳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다.1)

② 시료의 전기 전도 여부에 관계없이 시료를 관찰할 수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하지만 1)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 상태는 STM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없다. [1문단]

↳ 시료의 전기 전도가 없다면 시료를 관찰할 수 없다.1)

④ 시료 표면의 관찰을 위해서는 시료 표면에 기체의 단분자층 형성이 필요하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때 일부 1)기체 분자들은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붙어 표면과 반응하거나 표면을 덮어 시료 표면의 관찰을 방해한다. [2문단]

↳ 기체 분자는 시료 표면의 관찰을 방해하기1) 때문에 시료 표면의 관찰을 위해서는 시료 표면에 기체의 단분자층 형성이 불필요하다.

⑤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를 이용하여 탐침을 시료 표면에 접촉시킨 후 흐르는 전류를 측정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탐침과 시료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1)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의해 둘이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른다. [1문단]

↳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를 이용하여 탐침을 시료 표면에 접촉하지 않아도1) 흐르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

★ 공통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위 문제의 선지 ③, ④는 <시료, 관찰, 기체>가 공통된다.

- ③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늘리려면 진공 통 안의 기체 압력을 낮추어야 한다.
- ④ 시료 표면의 관찰을 위해서는 시료 표면에 기체의 단분자층 형성이 필요하다. (☆정답)

따라서 지문 및 문제와 상관없이 선지 ③, ④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03.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82위

#설명의 적절성 #평가원 이의 제기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64%	① 64%	② 15%	③ 6%	④ 9%	⑤ 6%

정답 풀이

①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 작용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원통 모양 양극의 축 방향으로 걸려 있고, 양극과 음극 간에는 2~7kV의 고전압이 걸려 있다.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음극에서 방출된 2)전자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양극으로 이동한다. [끝 문단]

↳ 자기장은 전자에 영향을 줄 뿐이지, 전자가 자기장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장은 자석 때문에 생긴다.1)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전자가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이미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 연관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 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전자가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것과 전자로 인해 자기장이 생성되는 것은 분명 다르다. 선지 ①은 전자가 자기장을 생성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물질을 내놓는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한 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하면 음극에서 1)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와 충돌 지점 주변에 둘러붙는다. 이렇게 둘러붙은 타이타늄은 높은 화학 반응성 때문에 여러 기체 분자와 쉽게 반응하여, 2)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한다. [끝 문단]

↳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2) 물질(타이타늄)을 내놓는다.1)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지문 '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하면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와~'로 볼 때 음극이 아닌 양이온이 타이타늄을 내놓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선지 ②는 '음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 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하는 순간은, 양이온과 음극이 딱 붙어 있는 상태로 타이타늄을 내놓는 것이다. 타이타늄이 양이온에서 배출되었다 하더라도 음극 안에서 일어난 현상이므로 선지 ②는 음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③ 기체 분자에서 분리된 양이온을 전기력으로 끌어당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 과정에서 1)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기체 분자를 그것의 구성 요소인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이 과정에서 생성된 2)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 음극으로 당겨져 음극에 박히게 되어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끝 문단]

↳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1)시키며, 기체 분자에서 분리된 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 음극으로 당겨진다.2)

④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로 만들어진 양이온을 고정시킨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이 과정에서 음극에서 방출된 1<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기체 분자를 그것의 구성 요소인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2<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 음극으로 당겨져 음극에 박히게 되어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끝 문단]

↳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로 만들어진 1<양이온>이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되므로 <고정시킨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2)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로 만들어진 양이온>을 고정시킨다.라고 해석하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지 않나요?

<답변> 그렇게 나누어서 해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충돌'이라는 단어는 두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자와 기체 분자>를 묶어서 고려해야 한다.

⑤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키는 전자를 방출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 과정에서 음극에서 1)방출된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2)기체 분자를 그것의 구성 요소인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 [끝 문단]

↳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키는 2) <전자>를 방출한다. 1)

04.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44위

#보기 제시 #3점 #실전 풀이 Tip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51%	① 5%	② 11%	③ 15%	④ 18%	⑤ 51%

✓ 정답 풀이

⑤ E 내부의 시료 표면에 대한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는 D의 경우보다 높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1)이 시간(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짧다. 또한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고정된 온도에서 2)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기체의 압력이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다. [3문단]

• <보기>

3)분자의 질량: D=32, E=44

🔍 지문 POINT

1)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와 반비례
2)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기체 분자의 질량>과 정비례

↳ <분자의 질량>이 E(44)가 D(32)보다 크므로 3) 이에 정비례하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도 2) E가 D보다 길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와 반비례하므로 1)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긴 E의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D보다 낮다.

X 오답 풀이

① A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대략 2,500초이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가령 질소의 경우 20°C, 760토르 대기압에서 1)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3×10^{-9} 초이지만, 같은 온도(20°C)에서 압력이 10^{-9} 토르로 낮아지면 대략 2,500초로 증가한다. [3문단]

• <보기>

진공 통 A 안의 기체 2)압력은 10^{-9} 토르이며, 모든 진공 통의 내부 온도는 20°C이다.

↳ 온도가 20°C, 압력이 10^{-9} 토르인 A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대략 2,500초이다. 1~2)

② B 내부의 기체 압력은 10^{-9} 토르보다 낮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기체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통 1)내부의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 [2문단]

• <보기>

2)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 A=4N, B=2N

3)A 안의 기체 압력 = 10^{-9} 토르

↳ <기체 압력>은 <기체 분자의 수>에 정비례하므로 1) <기체 분자의 수>가 A(4N)보다 적은 B(2N) 2) 내부의 기체 압력은 A의 기체 압력인 10^{-9} 토르 3)보다 낮다.

③ C 내부의 진공도는 B 내부의 진공도보다 낮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진공이란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통칭하며 1)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다고 한다. ~기체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통 2)내부의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 [2문단]

• <보기>

3)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 B=2N, C=7N

📖 지문 POINT

- 1) <기체 압력>과 <진공도>는 반비례
- 2) <기체 압력>과 <기체 분자의 수>는 정비례

↳ <기체 분자의 수>가 더 많은 C(7N)가3) B(2N)보다 <기체 압력>이 높다.2) 그래서 C 내부의 <진공도>는 B 내부의 <진공도>보다 낮다.1)

④ D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A의 경우보다 길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한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고정된 온도에서 기체 1)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기체의 압력이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다. [3문단]

• <보기>

2) 분자의 질량: A=28, D=32

↳ D(32)가 A(28)보다 <분자의 질량>이 크며2) 따라서 분자의 질량에 정비례하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도 D가 A보다 길다.1)

커뮤니티 후기

안녕고양이02

지금 9월 모평 비문학 STM 정리하고 있는데 이거 정리한다고 수능에 도움이 될까요? 개념만 연계된다고 하니 막상 수능 시험장 가면 도움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해야 하는지 해서 물어봅니다. (2018.10.27.)

↳ STM은 기술 지문. 비례-반비례 관계와 구조, 기능, 원리가 출제 포인트 -가형88가즈아-



최생의 코멘트 '비문학 정리가 수능에 도움이 되느냐고?'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하다. 그에 따라 수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평가원에서 출제된 비문학 지문은 한 번 풀고 버리기에는 매우 아깝다. 어려운 지문일수록 왜 어려운지 꼼꼼히 따져 보고 뜯어 보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일단 처음에는 지문을 한 번 요약해 두면 좋다. (당연히 잘 요약한 해설집이 필요하겠지.) 요약을 통해 핵심 내용과 보조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 문단의 소주제 파악은 물론 문단 간의 관계(대립적, 병렬적, 중심-뒷받침) 파악까지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문장의 구조, 특히 긴 문장(접문장, 주체와 서술어의 관계 복잡, 수식어 多, 개념 나열 有)일 경우 적절하게 끊고 적절한 도형 및 밑줄 표시로 시각화해 두는 것이 좋다. 평가원의 비문학 출제 소재는 무한정일 수도 있지만 문단 및 문장의 구성과 구조는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 분명 존재한다. 이 패턴을 체화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독학은 힘들다.) 설명이 잘된 해설집으로 N회독 공부를 해야 한다.

소행성 123

이번 9평 STM 지문 다들 몇 분 걸리셨나요? (2018.09.09.)

↳ 8~10? -asdfsdfsdfeqwef-

↳ 12분? -스디스스기19-

↳ 제일쉬운지문이었음7분? -엔을-

↳ 한 6분 정도요 -풀풀풀풀-



최생의 코멘트 이번 STM 지문은 기술 지문 치고는 긴 지문에 속하지만 그에 비해 지문 난이도는 평이었다. 지문 읽

기 4~5분 + 문제 풀기 5~6분 = 총 9~11분 정도로 잡을 수 있으면 된다. 물론 다 맞는 것을 기준으로! 한 문제라도 틀리면 풀이 시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SeoulNat

STM 지문 이해 어떻게 해야 함?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음. (2018.09.05.)

↳ 다 맞았는데, 이해 안 하고 정보 정리하는 식으로 함.

-손도안대고날로먹기-



최생의 코멘트 내가 할 말의 핵심을 '손도안대고날로먹기'님이 했구만! 지문을 온전히 이해하면 참 좋겠지... 근데 시험장에서 그게 뜻대로 될까? 음~이참에 마음을 아예 고쳐먹자! 실전에서는, 지문을 완벽히 이해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문제 푸는 데 관련된 근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는 혹은 끼워 맞춰 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자.

자~, 지문을 읽어 갈 때 아무런 계획과 예측 없이 무턱대고 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일단 크게 크게 거시적으로 보아 각 문단별로 가장 핵심을 찾아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 두자. 문단 간의 관계 파악이나 문단 안에서의 정주행 혹은 역주행의 흐름 파악. (꼭 욕심만 많은 수험생들이 문장 하나하나를 온전히 이해하려고 덤벼든다. 실전에서 완벽주의는 오히려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적당함과 적절함이 필요하다.) 독해 실력이 아주 낮은 단계라면 도형 표시나 밑줄 등을 아끼지 말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지문 시각화 단계의 첫걸음이다.) 특히 도입부에서 지문의 화제 파악과 전개 방식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예측을 하고 다음 내용을 읽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읽는 것은 독해의 속도와 정확성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그리고 기술 지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조 유형 및 패턴을 체화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단기간에 절대로 되지 않는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하다 보면, 비약적으로 실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N회독이 필수다! 보고 또 보자! 그렇게 하면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고 대충대충 하면 점수도 대충대충 받게 된다. 두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다잡아 보자!

05~08 디지털 데이터의 부호화 과정

1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2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3예를 들어 기호 집합 {a, b, c, d, e, f}에서 기호들을 조합한 add, cab, beef 등이 데이터이다. 4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이다. 5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낮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높다. 6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

1 데이터, 정보량, 엔트로피의 개념

- * 디지털 통신 시스템: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
- * 부호화 과정: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히 전달
- * 데이터: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집합
- * 정보량: 기호 발생을 인지할 때 얻는 정보의 크기
- * 기호 발생 확률과 정보량은 반비례
- *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
- *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가 최댓값을 갖는 경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일 때

2 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 2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3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4이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5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6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화라 한다. 7그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

2 송신기에서의 부호화 ①: 소스 부호화

- * 송신기에서 기호 부호화의 변환 과정: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
- * 소스 부호화: 기호를 0과 1로 변환 → 데이터 압축
- * 엔트로피: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 → 〈평균 비트 수가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송된 기호가 원래의 기호로 복원됨〉
- * 엔트로피 부호화: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
- * 허프만 부호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함.

1

1 * '송신기', '채널', '수신기'처럼 기술 지문에서 구성 요소가 나오면 각 구성 요소별로 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구성 요소들이 한 문단 안에서 집중해서 나올 것인지 문단별로 나올 것인지를 염두에 두자. (☆첫 문단 첫 문장으로 전체 구조 예측하기!)

* 구성 요소는 지문에서 큰 줄기에 해당하며 이를 구별하여 판단하는 선지가 자주 출제된다.

* 이번에는 5번 문제 정답 선지 ②의 〈수신기○〉, 7번 문제 ①번 선지의 〈수신기×(송신기○)〉가 구성 요소의 구분 테마로 출제되었다.

2

* '데이터'가 '기호'들의 조합이므로 '데이터'와 '기호'는 같은 맥락으로 묶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을 순간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야 한다. (ㄱ. 데이터=기호들 / ㄴ. 데이터와 기호는 정비례)

3

* 예시는 앞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 내용이 어렵지 않다면 쓸쩍 넘겨도 괜찮다. (☆초가 소중한 실전에서 모든 문장을 동일한 집중력과 시간으로 대하는 것은 낭비다!)

5

* 표면적으로 드러난 비례 관계는 선지의 정/오 판단의 근거로 자주 활용되므로 화살표로 표시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자.

6

★기술 지문에서 파생 개념이 조건과 함께 있다면 반드시 문제화된다!

- 큰 개념: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 = 엔트로피
- 조건: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일 때,
- 파생 개념: 엔트로피의 최댓값

2

1

* 부호화의 종류별로 글이 전개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 그리고 이 종류(큰 줄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실제로 5번 문제 ①번 선지의 〈채널 부호화× → 소스 부호화○〉에 활용됨.)

2

*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처럼 기술 지문에서 과정을 제시하면 과정의 순서에 유의하자. 순서를 바꾸거나 주체와 대상을 바꿔치기한 부적절 선지가 출제되기 마련이다.

4

★기술 지문에서 개념이 조건과 함께 있다면 반드시 문제화된다!

- (☆6번 문제 ④번 선지에 적용됨!)
- 조건: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
- 개념: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

7

* '이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러한', '그중'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 가는 지시 대명사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3 1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2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3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4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5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1로 판단한다. 6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는 정정된다. 7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 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후 부호의 비트 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 한다. 8삼중 반복 부호화의 부호율은 약 0.33이다.

3 송신기에서의 부호화 ②: 채널 부호화

- * 채널 부호화: 채널의 잡음 → 오류 발생 → 부호에 잉여 정보 추가 → 오류 검출, 정정
- * 삼중 반복 부호화: 0 → 000, 1 → 111
 - 0이 과반수인 경우: 0으로 판단 → 오류 정정
 - 1이 과반수인 경우: 1로 판단 → 오류 정정
- * 부호율 = (채널 부호화 전, 부호의 비트 수) ÷ (채널 부호화 후, 부호의 비트 수)

4 1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2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 부호화이다. 3전압의 결정 방법은 선 부호화 방식에 따라 다르다. 4선 부호화 중 하나인 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5차동 부호화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다. 6예를 들어 차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 음, 양, 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7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를 사용하여,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로 판단하고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

* 평균 정보량: 각 기호의 발생 확률과 정보량을 서로 곱하여 모두 더한 것.

4 송신기에서의 부호화 ③: 선 부호화

- *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은 전기 신호로 변환 후 채널을 통해 전송.
- * 선 부호화: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
- * 차동 부호화: 부호의 비트가 0 → 전압 유지
부호의 비트가 1 → 전압 변화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 전압의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

3

2
* (문제+해결)의 구성. 이후에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나 과정이 나올 것임을 예고한다.

5
* '즉'은 이전 내용을 한 번 더 쉽게 정리해 주는 표지이다. 따라서 전후 맥락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즉'이 포함된 문장에 주목하자.

6
★ '~오류는 정정된다'와 같이 기술 지문에서 문제(오류) 해결 방법이나 과정은 반드시 문제화된다! (7번 문제의 정답 판단의 근거가 됨)

7
* 수식이 정리되는 내용은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7번 문제 ④번 선지의 근거가 됨)

4

1
★ 조건이 있는 내용은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7번 문제 ①번 선지의 근거가 됨)
- 조건: 부호를 전기 신호로 변화
- 목적: 부호를 채널을 통해 전송

6
* 실전에서 첫 독해 시, 예시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너무 집착하지 말자. 전체 흐름과 핵심을 파악한 뒤 문제 풀이 시, 그때 다시 살펴봐도 늦지 않다.

05.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27위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74%	① 7%	② 74%	③ 7%	④ 7%	⑤ 5%

✓ 정답 풀이

② 수신기에는 부호를 기호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전송된 1(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2문단]

↳ <수신기>에는 <부호>를 <기호>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1)

✗ 오답 풀이

① 영상 데이터는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압축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1문단]
- 2)<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2문단]

↳ 영상 데이터는 <소스 부호화> 과정에서 압축된다.1~2)

③ 잉여 정보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추가한 정보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채널 부호화는 1)<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3문단]

↳ <잉여 정보>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추가한 정보이다.1)

④ 영상을 전송할 때는 잡음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2)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1문단]
- 3)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 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3문단]

↳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다.3) 마찬가지로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인 영상을2) 전송할 때에도 <부호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1) 이때 잡음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한다.

⑤ 소스 부호화는 전송할 기호에 정보를 추가하여 오류에 대비하는 과정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3문단]

↳ 전송할 기호에 정보를 추가하여 오류에 대비하는 과정은 <채널 부호화>이다.1)

06.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03위

#이해 #비례 관계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68%	① 4%	② 68%	③ 9%	④ 12%	⑤ 7%

✓ 정답 풀이

②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경우의 평균 정보량이 최댓값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1)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2)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 '평균 정보량')는 최댓값을 갖는다. [1문단]

↳ 평균 정보량(엔트로피)이 최댓값을 갖는 경우는2)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이다.1) 그래서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다른(각각 1/4, 3/4) 경우의 평균 정보량은 최댓값이 될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1/2인 경우, 각 기호의 정보량은 동일하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1(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1문단]

↳ <기호들의 발생 확률>은 <정보량>과 반비례하기1) 때문에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1/2인 경우, 각 기호의 정보량은 동일하다.

③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경우, 기호의 정보량이 더 많은 것은 발생 확률이 1/4인 기호이다.

[선지 ①의 근거 지문 참고]

↳ <기호들의 발생 확률>은 <정보량>과 반비례하기1) 때문에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경우, 기호의 정보량이 더 많은 것은 발생 확률이 1/4인 기호이다.

④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1/2인 경우, 기호를 부호화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 최대가 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이때 1(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2문단]
-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2(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 [1문단]

📌 지문 POINT

※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 =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
=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

↳ 기호를 부호화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 곧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이다. 1) 이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최대>가 되기 때문에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1/2로 동일할 경우 기호를 부호화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도 최대가 된다.

⑤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발생 확률이 각각 3/4, 1/4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와 같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어떤 1)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2)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 [1문단]
- 3)평균 정보량: 각 기호의 발생 확률과 정보량을 서로 곱하여 모두 더한 것.

📌 지문 POINT

※ '발생 확률'과 '정보량'은 반비례!
<발생 확률 1/4, 3/4인 엔트로피>의 정보량: 3/4, 1/4
<발생 확률 3/4, 1/4인 엔트로피>의 정보량: 1/4, 3/4

↳ 기호들의 발생 확률(1/4, 3/4) & (3/4, 1/4)이 순서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두 기호 집단의 <기호들의 발생 확률>은 동등하고 이에 따른 정보량도 동등하다. 그렇다면 평균 정보량의 값이 3) 동일해지며 이에 따라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도 같아진다. 1~2) 굳이 평균 정보량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07.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51위

#평가원 이의 제기 #비례 관계

정답률
55%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8% ② 10% ③ 8% ④ 9% ⑤ 55%

✔ 정답 풀이

⑤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0을 부호화한 경우, 수신된 부호에서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는 정정되지 않는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2문단]
-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1(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이때 2)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 (과반수 비트에 해당하는 숫자로 판단)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1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3)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는 정정된다. [3문단]

↳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0을 부호화하면, 000이 된다. 1) 이 중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어 011이 되면 1이 과반수이기 때문에 부호화된 000을 1로 판단한다. 2) 그래서 하나의 비트에 오류가 있을 때는 오류가 정정되지만 3)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는 정정되지 않는다.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001을 예를 들면 만약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을 시에 두 번째에 있는 0과 마지막에 있는 1이 오류가 생겨 010으로 수신하면 똑같이 0으로 판단하니 오류가 정정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0을 부호화하면, 000이 된다. 1) 001을 예로 들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선 부호화에서는 수신기에서 부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 [2문단]
-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2)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0 또는 1에 해당하는 (부호들을)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 부호화>이다. [4문단]

↳ <선 부호화>가 부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 2)하는 것은 <송신기>에서 이루어진다. 1)

②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정보량이 많은 기호에 상대적으로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할당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1)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1문단]
- 그중 하나인 2)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 [2문단]

지문 POINT

- 1) <발생 확률>과 <정보량>: 반비례
- 2) <발생 확률>과 <비트 수>: 반비례
- <정보량>과 <비트 수>: 정비례

↳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정보량>이 많은 기호(발생 확률이 낮음.)에1) 상대적으로 <비트 수>가 많은 부호2)를 할당한다.

③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은 채널로 전송하기 전에 잉여 정보를 제거한 후 선 부호화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1)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3문단]

↳ <잉여 정보>는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것이다.1~2) 따라서 잉여 정보를 <제거>한 후 선 부호화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부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잉여 정보를 추가하면 부호율은 1보다 커진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이다. [1문단]
-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2문단]
- 1)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 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후 부호의 비트 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 한다. [3문단]

지문 POINT

- 1) 부호율 = (채널 부호화 전, 부호의 비트 수) ÷ (채널 부호화 후, 부호의 비트 수)

↳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부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잉여 정보 (기호 = 비트)를 추가하면 (채널 부호화 후, 부호의 비트 수) > (채널 부호화 전, 부호의 비트 수)가 되기 때문에 부호율은 1보다 작아진다.1)

08.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5위

#이해 #3점 #평가원 이의 제기

정답률 43%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0%	② 7%	③ 15%	④ 43%	⑤ 25%

정답 풀이

④ 날씨 '비'를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부호화하는 경우,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면 '음, 양, 음, 음, 음, 음'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되겠군.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1)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3문단]
- 선 부호화 중 하나인 2) <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4문단]
- <보기>
3)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부호로 바꾼다. → ('비' = 10)

↳ 날씨 '비'의 부호인 10을3) <삼중 반복 부호화>하면 111000이 된다.1) 이를 <차동 부호화>할 경우(부호의 비트가 '0'이면 → 전압 유지, '1'이면 → 전압 변환)이므로, 순차적으로 (전압 변화 + 전압 변화 + 전압 변화 + 전압 유지 + 전압 유지 + 전압 유지)가 된다.2) 이에 따라 기준(첫) 신호가 양(+)의 전압이면 '음, 양, 음, 음, 음, 음'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최생의 Q&A

Q 차동 부호화에서 비트가 0 = 유지, 1 = 변화하고, 기준 신호가 +면 부호 0110은 양, 음, 양, 양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0은 유지니까 기준 신호 +의 비트를 그대로 유지해서 양이고 1은 변화여서 음 or 양 중에 하나 변화한다고 생각했거든요.

8번 문제 정답이 4번이던데 왜 기준 신호 +일 때, 비의 '10' 비트가 음, 양, 음, 음, 음, 음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111000이면 0은 유지해야 되니까 '양'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준 신호가 +잖아요! 0이 유지니까 +를 유지해서 양이 되는 것 같은데...

A (비트가 0 = 유지, 1 = 변화)를 기준 신호와 이전 숫자(비트)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해당 숫자(비트)로 바로 대입하여 이해한 듯.

즉 1110000이니까 해당 숫자대로 음(변화), 음(변화), 음(변화), 양(유지), 양(유지), 양(유지)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비트가 0=유지, 1=변화>를 해당 숫자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숫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기준 신호 +(양)일 때, 처음 1은 변화이므로 '음'이 되고 다음이 0이라면 '음'에 대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음'이 되는 것이다.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지문에서는 부호 0110을 <양, 음, 양, 양>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추론 방식으로 선지 ④를 보면 <음, 양, 음, 음, 음, 음>은 110101로 분석되며, 이것은 11로 '눈'을 의미하는 신호입니다.

<답변> 지문에서 부호 0110을 <양, 음, 양, 양>으로 각각 대응시킨 것이 아니라, 부호 0110을 양의 전압을 기준 신호로 삼아 0일 때 전압 유지(→ 양), 1일 때 전압 변환(→ 음)된 결과이다. 그래서 <음, 양, 음, 음, 음, 음>은 110101로 그대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다.

<의견> 선지 ④는 <삼중 반복 부호화>에서 오류가 검출되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 ④가 적절하려면,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할 때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꼭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그런 논리라면, 국어 시험의 모든 지문과 문제에 어떤 현상이나 원리 과정이 기술될 때, 예외나 오류를 관련지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선지에 서술된 것은 <오류나 예외가 일어나지 않음>을 전제한다. 즉, <오류나 예외>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대상의 개념이나 특성에 맞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일이 일어남을 전제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선지 ④도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속에는 일반적인(정상적인, 오류나 예외 없는) 진행 과정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의견> 기준 신호 양(+)을 0으로 놓게 되면 <음음음양양양>이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날씨 '비'의 부호인 10을 <삼중 반복 부호화>하면 111000이 되고 여기에서 기준 신호는, 첫 신호에 해당하는 1이다. 기준 신호를 0으로 놓을 수 없다.

<의견> 선지 ④에는 데이터를 기호 (0, 1)로 바꾸는 엔트로피 부호화 과정을 거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지문과 선지 ②는 모두 엔트로피 부호화 과정을 거쳐야만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바꿀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문제의 <보기>에서도 날씨 데이터가 부호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 부호화를 시행해야 함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트로피 부호화 과정을 포함하지 않은 선지 ④는 데이터가 부호로 변환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엔트로피 부호화를 가정한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의 참 거짓 여부를 떠나서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 틀린 선지가 됩니다.

<답변> [3문단]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4문단] "선 부호화 중 하나인 '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라고 제시된 것처럼,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

의 개념 특성에 <엔트로피 부호화> 과정이 전제되어 있어 굳이 엔트로피 부호화 과정 여부를 추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의견> 지문에서 <기준 신호>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 부호부터 마지막 부호까지는 전압의 변화를 통해 표현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지만 부호화의 시작점에서는 반드시 기준 신호 체계에 따라 시행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시에서 0이 양으로 변환된다고 해서 1 또한 양으로 변환되면 안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근거 부족으로 인해 거짓인 선지가 됩니다.

<답변> [4문단] "예를 들어 차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 음, 양, 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를 통해 <기준 신호>는 부호의 첫 번째 신호임을 추론할 수 있다. 물론 <기준 신호>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추론으로 선지 ④가 적절하다는 것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의견> 차동 부호화 과정이 반드시 앞에서 뒤로 진행된다는 근거가 지문에 없습니다. 지문에서 든 예시는 0110, 즉 앞뒤 순서를 바뀌도 0110입니다. 그러나 ④에 제시된 데이터의 해당 부호는 비대칭이므로 정답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앞뒤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추론은 송신의 과정이 뒤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배경지식을 중학교 교과 과정과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기술·가정', '정보' 과목에서 습득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기반한 엄밀한 풀이가 오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수능 시험의 신뢰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답변>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은 일반적인 진행 과정이라서 이를 일일이 명시하지 않는다. 다만, 이에 반하는 상황이 있다면 별도로 명시할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나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제시하지 않는 한, 국어를 공부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문제를 풀자.

오답 풀이

① 기호 집합 {맑음, 흐림, 비, 눈}의 엔트로피는 2보다 크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1)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2)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 [1문단]
- 3)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 <비트 수 = 기호의 개수> 이 때 기호 집합의 4)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2문단]
- <보기>
날씨는 '맑음', '흐림', '비', '눈'으로만 분류하며, 5) 각 날씨의 발생 확률은 모두 같다. 6)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부호로 바꾼다.

↳ 기호 집합 (맑음, 흐림, 비, 눈)의 각 부호는 00, 01, 10, 11로6) 각각의 비트 수는 동일하게 2개이고3) 평균 비트 수도 2개이다. 이때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인 <엔트로피>도 마찬가지로 2로4) 각 날씨의 발생 확률이 모두 같기1, 5) 때문에 엔트로피가 최댓값이며2) 더 커질 수는 없다.

②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4일 동안의 날씨 데이터 '흐림비맑음흐림'은 '01001001'로 바뀌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부호로 바꾼다. → (맑음: 00, 흐림: 01, 비: 10, 눈: 11)

※ 01(흐림) 10(비) 00(맑음) 01(흐림)

↳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4일 동안의 날씨 데이터 '흐림비맑음흐림'은 '01100001'로 바뀐다.

③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전송한 특정 날씨의 부호를 '110001'과 '101100'으로 각각 수신하였다면 서로 다른 날씨로 판단하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이때 1)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3문단]

↳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전송한 특정 날씨의 부호를 <110001>과 <101100>으로 각각 수신하였다면, <110001>에서 1과 0이 과반수, <101100>에서도 1과 0이 과반수이므로 서로 같은 날씨로 판단한다.1)

⑤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특정 날씨의 부호를 전송할 경우, 수신기에서 '음, 음, 음, 양, 양, 양'을 수신했다면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일 때 '흐림'으로 판단하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1)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3문단]

• 선 부호화 중 하나인 2)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4문단]

• <보기>

3)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부호로 바꾼다.

↳ 선지 ⑤에서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날씨를 '흐림(01)'로 판단했다는 것은 전송된 부호의 특정 날씨가 '흐림'이라는 의미이다. '흐림(01)'을 <삼중 반복 부호화>하면 <000111>이 된다.1)

이를 <차동 부호화>하면,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일 때, <000111>은 <유지, 유지, 유지, 변화, 변화, 변화>이기2) 때문에 <양, 양, 양, 음, 양, 음>의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그래서 수신기에서 <음, 음, 음, 양, 양, 양>을 수신했다면, ('흐림'이 아닌 다른 날씨일 것이지) '흐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정/오를 판단하는 데 충분하다.

자 그러면, 다른 날씨라면?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일 때 <음, 음, 음, 양, 양, 양>을 수신했다면, 전압의 변화는 <변화, 유지, 유지, 변화, 유지, 유지>이며 수신된 부호는 <100100>이다.2) 이때, <100100>은 삼중 반복 부호화된 후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정된 원래의 부호를 <00>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맑음에 해당한다.

최선의 Q&A

Q 5번 선지 이게 흐림이 아니란 것은 알겠는데, 왜 맑음인가요? 맑음은 <00>이니까 삼중 반복 부호화하면 <000000> 아닌가요? 어떻게 <100100>이 나온 걸까요?

A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1)수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2)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3)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1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4)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는 정정된다. [3문단]

↳ <00>=(0+0)을 삼중 반복 부호화하면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000000>=<000+000>이 나와야 한다.2) 하지만 부호 전송 시 채널의 잡음으로 오류가 발생하는데,1) 그로 인해 <100100>=<100+100>로 될 수도 있다. <100+100>에서 각각의 좌우 과반수를 따졌을 때 결국엔 <0+0>=<00>으로 판단한다.3) <100100>은 오류 수정 전이지만 결국엔(수정 후 수신) 맑음 <00>으로 정정되어 판단된다.4)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30~33

지문 난이도 ★★★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12위

01 ~ 04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

1 DNS(도메인 네임 시스템) 스푸핑은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사용자를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이는 >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1 DNS(도메인 네임 시스템) 스푸핑의 개념과 방법

* DNS 스푸핑

- 인터넷 사용자를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
-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짐.

2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각 컴퓨터들은 IP(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 **2**프로토콜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된다. **3**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126.63.1'처럼 점으로 구분된 4개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4**이 > 주소를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해서는 안 되고 공인 IP 주소를 부여받아야 한다.

2 IP(인터넷 프로토콜)의 개념과 특성

* IP: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한 수단

* IP 주소

- 4개의 필드에 숫자로 구현함.
- 사용을 위해 공인 IP 주소를 받아야 함.

* 프로토콜: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 →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1

* 개념 설명에서 피정의항의 키워드(DNS)에는 동그라미, 정의항의 키워드(위조 사이트)에는 밑줄이 적절하다. (★어느 지문이든 첫 문단의 분량이 적으면 중요도는 매우 낮으니 화제 정도만 잡고 빠르게 지나가자!)

2

* '이는', '이',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 가는 지시 대명사(이~, 그~)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2** - 4도 마찬가지로]

2

1, 2

* 심표 없이 문장이 길다면 적당한 곳에서 흐름을 한 번 끊을 필요가 있다. (~위해서/ 각 컴퓨터들은~), (~통신 규약으로/ 소프트웨어나~) 이때 문장의 포인트는 대개 후반부에 있다.

* 조건: 고유 IP 주소 有 → (목적: 식별 & 통신)

* 수단: 통신 규약 → (목적: 프로토콜 데이터 송수신)

3 1공인 IP 주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IP 주소와 번호가 변경되기도 하는 유동 IP 주소가 있다. 2유동 IP 주소는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 부여된다. 3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 주고,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소를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가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4한편,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도 있다.

3 공인 IP 주소의 종류와 DHCP 프로토콜의 특성

- * 고정 IP 주소: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함.
- * 유동 IP 주소: 번호가 변경되기도 함.
 - DHCP 프로토콜에 의해 부여됨.
- * 사설 IP 주소: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 식별, 인터넷 직접 접속×
- * DHCP: 컴퓨터에 IP 주소를 할당 or 반환

4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IP 주소 대신 사용하기 쉽게 'www.***.***' 등과 같이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다. 2따라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DNS가 필요하며 DNS를 운영하는 장치를 네임서버라고 한다. 3컴퓨터에는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유동 IP 주소를 할당받는 컴퓨터에는 IP 주소를 받을 때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되지만,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사용자가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직접 기록해 놓아야 한다. 4인터넷 통신사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4 도메인 네임과 네임서버의 개념, 네임서버의 IP 주소 기록 방법

- * 도메인 네임: IP 주소 대신 인터넷을 쉽게 사용하게 함.
- * DNS: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
- * 네임서버: DNS 운영 장치
- * 네임서버의 IP 주소 기록
 - 유동 IP 주소: 자동 기록
 - 고정 IP 주소: 사용자가 직접 기록

3

- ※ 세부 내용은 문제 풀이 시 다시 보더라도 큰 흐름은 잡고 가야 한다. (☆3번 문제 정답 판단의 근거가 됨!)
 - 큰 흐름: 공인 IP ↔ 사설 IP
 - 세부 내용: 고정 IP ↔ 유동 IP
- ※ 공인과 사설, 그리고 고정과 유동은 대립적 성격이기 때문에 다음 문단에서 이들의 차이점이 서술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4

1~2

- * <원인+결과>의 구조,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2

- * '네임서버'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정보에 포인트를 두자.

3

- * 4줄 이상이 되는 긴 문장의 경우, 두 번은 흐름을 끊어야 독해가 편하다.
- * '~지만'처럼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에는 세모 표시를 해 두고 대상(유동~, 고정~)에는 동그라미, 대립 키워드(자동~, 직접~)에는 밑줄을 치는 것이 적절하다. (☆1번 문제 정답 판단의 근거가 됨!)

최심 Q&A

Q 6월 모평 지문 다시 보고 있는데 dns 지문 다시 봐도 이해가 안가네요. 문제들은 알겠는데 지문 자체에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어서 하나만 질문할게요. 공인 IP 주소는 2문단, 3문단에 나와 있듯이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 통신하는데 쓰이고 컴퓨터들에게 부여된다고 나와 있는데 4문단에서 인터넷이 IP 주소를 통해 작동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IP 주소는 컴퓨터에 부여되는 것인데 왜 인터넷 사이트에 IP 주소를 통해 접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ㅠㅠ

A IP 주소가 컴퓨터에 부여된다는 것이 컴퓨터의 인터넷 사이트에 부여된다는 말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다른 매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철수가 자신의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철수는 방에 있는 것이지 집에 있는 것이 아니지.'라고 의문을 갖는 것과 같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문 자체에 이해 안 가는 부분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까지 없다. 문제의 선지정/오 판단에 지장이 없으면 그만이다. 궁금은 하겠지만 그 궁금증을 해결한다고 국어 실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다. 그 시간에 차라리 어떻게 하면 문제를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보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5 1)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2) 웹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 한다. 3)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를 검색해 클릭하면 **클라이언트**는 기록되어 있는 **네임서버**에 도메인 이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질의 패킷**을 보낸다. 4) **네임서버**는 해당 IP 주소가 자신의 목록에 있으면 **클라이언트**에 이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보낸다. 5) **응답 패킷**에는 어느 질의 패킷에 대한 응답인지가 적혀 있다. 6) 만일 해당 IP 주소가 목록에 없으면 **네임서버**는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다시 그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는 단계로 돌아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7)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알아낸 IP 주소로 사이트를 찾아가는다. 8) **네임서버**와 **클라이언트**는 UDP라는 프로토콜에 맞추어 패킷을 주고받는다. 9) **UDP**는 패킷의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특정 **질의 패킷**에 대해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을 신뢰하고 다음에 도착한 패킷은 확인하지 않고 버린다. 10) **DNS 스푸핑**은 UDP의 이런 허점들을 이용한다.

5 사이트 접속 과정과 UDP의 특성

<사이트 접속 과정>

* '사용자'는 도메인 주소 입력 or 사이트 검색 클릭 → '클라이언트'는 **네임서버**에 IP 주소 질의 패킷 보냄. → '네임서버'는 **클라이언트**에 IP 주소 응답 패킷 보냄. → '클라이언트'는 IP 주소로 사이트 찾음.

<네임서버에 클라이언트가 질의한 IP 주소가 없다면>

* '네임서버'는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보냄. → '클라이언트'는 다시 그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전송함. → '네임서버'는 **응답 패킷** 보냄. → '클라이언트'는 IP 주소로 사이트 찾음.

• **UDP**

- 패킷의 빠른 전송 속도 확보 / - 도착 여부 확인×
- 처음에 도착한 **응답 패킷**만 신뢰(다음에 도착한 패킷은 버림)

6 1)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아보자. 2)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DNS 스푸핑**을 행하는 컴퓨터를 **공격자**라 한다. 3) **클라이언트**가 **네임서버**에 특정 IP 주소를 묻는 질의 패킷을 보낼 때, **공격자**에도 패킷이 전달되고 **공격자**는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가 적힌 **응답 패킷**을 **클라이언트**에 보낸다. 4)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클라이언트**에 먼저 도착하고 **클라이언트**는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을 옳은 패킷으로 인식하여 위조 사이트로 연결된다.

6 DNS 스푸핑 과정

* **클라이언트**가 **네임서버**에 특정 IP 주소를 묻는 질의 패킷을 보낼 때, **공격자**에도 패킷이 전달됨. → **공격자**는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가 적힌 **응답 패킷**을 **클라이언트**에 보냄. →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클라이언트**에 먼저 도착함. → **클라이언트**는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을 옳은 패킷으로 인식하여 위조 사이트로 연결함.

5

1

* '~과정'에 대한 진술을 예고하면, 순서를 잘 정리하면서 지문을 읽어 나가야 한다. [6-1도 마찬가지]

2

* <설명+개념어>의 형태로 혼한 <개념어+설명>보다는 인지가 잘 안 되니 개념어에 네모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다.

3, 6

* 문장이 길다면, 쉼표에서 흐름을 한 번 끊어 주자. ('~하면', '~으면'처럼 조건부에서 한 번 끊는 것이 적절함)

4, 6, 9

* '목록에 있으면' vs '목록에 없으면' / '처음에 도착' vs '다음에 도착'처럼 대립적 양상의 진술은 언제나 중요하다. 이를 바꾼 부적절 선지는 자주 등장한다.

9

* 대상의 부정적 서술은 밑줄×가 적절하다.(도착 여부×, 확인×)

6

2

* 다른 곳보다 '공격자(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DNS 스푸핑을 행하는 컴퓨터)'와 같이 신정보에 포인트를 두자.

01.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52위

#특성 바꿔치기

정답률 79%	선지별 선택 비율				
	① 4%	② 3%	③ 9%	④ 79%	⑤ 5%

정답 풀이

④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에는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해야 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유동 IP 주소)는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 부여된다. [3문단]
- 컴퓨터에는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2) (유동 IP 주소)를 할당받는 컴퓨터에는 IP 주소를 받을 때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되지만,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사용자가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직접 기록해 놓아야 한다. [4문단]

↳ DHCP는 유동 IP 주소를 부여1)하기 때문에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에는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기록된다.2)

패턴 공략

▶ '유동 IP 주소' vs '고정 IP 주소'처럼 지문에 2가지 항목과 각 항목의 특성(자동 기록 vs 직접 기록)이 나오면 이 둘의 특성을 바꿔치기한 부적절 선지는 꼭 나온다.

오답 풀이

① 컴퓨터 사이의 통신을 위한 규약으로서 저마다 정해진 기능이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 (프로토콜)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된다. 현재 주로 사용하는 2) IP (→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는 '***.126.63.1'처럼 점으로 구분된 4개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2문단]
- 유동 IP 주소는 3)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 부여된다.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 주고,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소를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가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3문단]
- 네임서버와 클라이언트는 4) UDP라는 프로토콜에 맞추어 패킷을 주고받는다. UDP는 패킷의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특정 질의 패킷에 대해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을 신뢰하고 다음에 도착한 패킷은 확인하지 않고 버린다. [5문단]

↳ 프로토콜은 컴퓨터 사이의 통신을 위한 규약1)으로서 인터넷 프로토콜(IP), DHCP라는 프로토콜, UDP라는 프로토콜 등이 있으며, 이들은 저마다 정해진 기능이 있다.2~4)

② IP에 따르면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4개의 필드에 적힌 숫자로 구성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현재 주로 사용하는 1) IP 주소는 '***.126.63.1'처럼 점으로 구분된 4개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2문단]

↳ IP에 따르면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4개의 필드에 적힌 숫자로 구성1)된다.

③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는 IP 주소를 요청해야 IP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 주고, [3문단]

↳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는 IP 주소를 요청해야 IP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1)

⑤ UDP는 패킷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킷이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 UDP는 패킷의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2)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5문단]

↳ UDP는 패킷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1) 패킷이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2)

02.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32위

#이해 #보기 제시 #3점 #평가원 이의 제기

정답률 45%	선지별 선택 비율				
	① 8%	② 17%	③ 45%	④ 13%	⑤ 17%

정답 풀이

③ ㉔: ㉔는 ㉔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네임서버가 찾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를 검색해 클릭하면 클라이언트는 기록되어 있는 1) 네임서버에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질의 패킷을 보낸다. 2) 네임서버는 해당 IP 주소가 자신의 목록에 있으면 클라이언트에 이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보낸다.~만일 3) 해당 IP 주소가 목록에 없으면 네임서버는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고,~ [5문단]

↳ ㉔<사이트 정상 접속 과정>: ㉔는 ㉔<질의 패킷을 보냄.>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1)하는 IP 주소를 네임서버가 찾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2~3)

✕ 오답 풀이

① ㉔: ㉔가 두 번 동작했다면, 두 질의 내용이 동일하고 패킷을 받는 수신 측도 동일하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를 검색해 클릭하면 클라이언트는 기록되어 있는 네임서버에 1)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질의 패킷>을 보낸다.~만일 2)해당 IP 주소가 목록에 없으면 3)네임서버는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다시 <그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는 단계로 돌아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5문단]

↳ ㉔<사이트 정상 접속 과정>: ㉔<질의 패킷을 보냄.>이 두 번 동작했다는 것은 첫 <질의 패킷>1)에 대한 해당 IP 주소가 <네임서버>의 목록에 없었다는 것이다.2)

그래서 <네임서버>는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클라이언트'에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다시 <그 네임서버 = 다른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는 단계(㉔)로 돌아간 것이다.3)

이에 따라 두 질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패킷을 받는 수신 측은 처음의 <네임서버>와 두 번째의 <다른 네임서버>로 달라진다.

② ㉔: ㉔가 두 번 동작했다면, 두 응답 내용이 서로 다르고 패킷을 보낸 송신 측은 동일하다.

[선지 ①의 근거 지문 참고]

↳ ㉔<사이트 정상 접속 과정>: ㉔<응답 패킷을 받음.>이 두 번 동작했다는 것은 첫 <질의 패킷>1)에 대한 해당 IP 주소가 <네임서버>의 목록에 없었다는 것이다.2)

그래서 <네임서버>는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클라이언트'에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다시 <그 네임서버 = 다른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는 단계(㉔)로 돌아가3) 다시 ㉔<응답 패킷을 받음.>이 작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응답 내용(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 / 첫 질의 패킷에 대한 해당 IP 주소 '응답 패킷')이 서로 다르고 패킷을 보낸 송신 측(네임서버 / 다른 네임서버)도 서로 다르다.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선지 ②에서 '패킷을 보낸 송신 측'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해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표현입니다. '패킷'을 '질의 패킷'으로 인식할 경우 동일한 클라이언트가 다른 DNS 서버로 패킷을 보낸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선지 ②가 적절하므로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선지 ①, ②의 <수신 혹은 송신 측>에서 '측'이라는 말을 고려해야 한다. '측'은 '어떤 무리의 한쪽을 상대적으로 이르는 말'로 클라이언트의 동작(㉔, ㉔)과 다른 대상의 동작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수신 혹은 송신 측>이 클라이언트가 아닌 다른 대상이 되는 것이다.

④ ㉔: ㉔의 응답 패킷에는 공격자가 보내 온 IP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UDP는 패킷의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특정 질의 패킷에 대해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을 신뢰하고 1)다음에 도착한 패킷은 확인하지 않고 버린다. DNS 스푸핑은 UDP의 이런 허점들을 이용한다.

[5문단]

• 2)<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클라이언트에 먼저 도착하고 클라이언트는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을 옳은 패킷으로 인식하여 위조 사이트로 연결된다. [끝 문단]

↳ ㉔<DNS 스푸핑 과정>: ㉔의 응답 패킷에는 다음에 도착한 패킷만 포함1)되므로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먼저 도착하는 <공격자>가 보내 온 IP 주소2)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㉔: ㉔의 IP 주소는 ㉔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이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클라이언트에 먼저 도착하고 클라이언트는 1)<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을 옳은 패킷으로 인식하여 2)위조 사이트로 연결된다. [끝 문단]

↳ ㉔<DNS 스푸핑 과정>: ㉔가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패킷이 아니라면,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1)에 해당한다. 그래서 ㉔의 IP 주소는 ㉔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아니라, 위조 사이트로 연결2)되는 주소이다.

03.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3위

#세부 내용 추론

정답률
35%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1% ② 35% ③ 16% ④ 20% ⑤ 18%

✓ 정답 풀이

② 동일한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의 사실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 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한편,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1)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도 있다. [3문단]

↳ 동일한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의 <사설 IP 주소>는 달라야 서로를 식별1)할 수 있다. 만약, <사설 IP 주소>가 모두 동일하다면,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을 서로 구분할 수 없다.

X 오답 풀이

① DNS는 도메인 네임을 사설 IP 주소로 변환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한편, 1)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도 있다. [3문단]
- 2)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IP 주소 대신 사용하기 쉽게 'www.***.***' 등과 같이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다. 따라서 3)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DNS가 필요하며 DNS를 운영하는 장치를 네임서버라고 한다. [4문단]

↳ DNS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3)해 주는데, 이때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공인 IP 주소>2)로 변환한다. <사설 IP 주소>는 인터넷에 직접 접속이 안 되는 내부 네트워크에서 사용된다.1)

③ 유동 IP 주소 방식의 컴퓨터들에는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1)각 컴퓨터들은 IP(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2)이 주소를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해서는 안 되고 <공인 IP 주소>를 부여받아야 한다. [2문단]
- 3)<공인 IP 주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IP 주소와 번호가 변경되기도 하는 <유동 IP 주소>가 있다. 4)유동 IP 주소는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 부여된다. 5)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 주고,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소를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가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동시에 동일한 IP 주소를 할당하지 않음.> [3문단]

↳ <공인 IP 주소>인 <유동 IP 주소>3) 방식의 컴퓨터들은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하며 이 주소가 중복되면 안 된다.1~2) 또한 유동 IP 주소를 할당하는 DHCP가 동시에 동일한 IP 주소를 할당하지 않는다.4~5) 그래서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할당할 수 없다.

④ 고정 IP 주소 방식의 컴퓨터들에는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1)각 컴퓨터들은 IP(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2)이 주소를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해서는 안 되고 <공인 IP 주소>를 부여받아야 한다. [2문단]
- 3)<공인 IP 주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IP 주소>와 번호가 변경되기도 하는 유동 IP 주소가 있다. [3문단]

↳ <공인 IP 주소>인 <고정 IP 주소>3) 방식의 컴퓨터들에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하며 이 주소가 중복되면 안 된다.1~2) 그래서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부여할 수 없다.

⑤ IP 주소가 서로 다른 컴퓨터들은 각각에 기록되어 있는 네임서버의 IP 주소도 서로 달라야 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인터넷 통신사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4문단]

↳ 인터넷 통신사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서버>를 운영1)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마다 IP 주소는 다르더라도 <네임서버>의 IP 주소는 서로 같을 수 있다.

04.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37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 제시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48%	① 8%	② 9%	③ 13%	④ 22%	⑤ 48%

✓ 정답 풀이

⑤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으면 되겠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아보자.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DNS 스푸핑을 행하는 컴퓨터를 공격자라 한다. 1)<클라이언트가> 네임서버에 특정 IP 주소를 묻는 질의 패킷을 보낼 때, 2)공격자에도 패킷이 전달되고 공격자는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가 적힌 응답 패킷을 클라이언트에 보낸다.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클라이언트에 먼저 도착하고 클라이언트는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을 옳은 패킷으로 인식하여 위조 사이트로 연결된다. [끝 문단]

• <보기>

3)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hosts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그 주소로 바로 접속하고, IP 주소를 찾지 못했을 때 클라이언트는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낸다.

↳ DNS 스푸핑은 DNS를 이용하여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1~2) 그런데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으면,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네임서버가 운영하는 DNS를 이용하지 않고) 그 주소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3)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네임서버에 특정 IP 주소를 묻는 질의 패킷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DNS 스푸핑>을 피할 수 있다.

X 오답 풀이

①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hosts 파일을 찾아 삭제하면 되겠군.

66 지문 속근거 찾기

•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아보자. ~1) <클라이언트>가 '네임서버'에 특정 IP 주소를 묻는 질의 패킷을 보낼 때, 공격자에도 패킷이 전달되고 공격자는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가 적힌 응답 패킷을 클라이언트에 보낸다. ~ [끝 문단]

• <보기>

DNS가 고안되기 전에는 특정 컴퓨터의 사용자가 2) 'hosts'라는 파일에 모든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적어 놓았고, 클라이언트들은 이 파일을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hosts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그 주소로 바로 접속하고, 3) IP 주소를 찾지 못했을 때 4) 클라이언트는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낸다.

↳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hosts 파일을 찾아 삭제하면, 모든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적어 놓은 2) hosts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지 못하게 되어 3) <클라이언트>는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낸다. 1, 4)

이는 <DNS 스푸핑>이 시작되는 첫 과정으로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②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으면 되겠군.

66 지문 속근거 찾기

• <보기>

1)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hosts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그 주소로 바로 접속하고, IP 주소를 찾지 못했을 때 클라이언트는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낸다.

↳ <DNS 스푸핑>은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려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와 관련 1)된 것이지, <클라이언트>의 '자체 IP 주소'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는 것은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③ 클라이언트에 hosts 파일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주소창에 도메인 네임만 입력하면 되겠군.

66 지문 속근거 찾기

•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아보자. ~1) <클라이언트>가 '네임서버'에 특정 IP 주소를 묻는 질의 패킷을 보낼 때, 공격자에도 패킷이 전달되고 공격자는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가 적힌 응답 패킷을 클라이언트에 보낸다. ~ [끝 문단]

• <보기>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hosts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그 주소로 바로 접속하고, 2) IP 주소를 찾지 못했을 때 3) <클라이언트>는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낸다.

↳ <클라이언트>에 hosts 파일이 없어도, 사용자가 주소창에 도메인 네임만 입력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게 된다. 1, 3)

이는 <DNS 스푸핑>이 시작되는 첫 과정으로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④ 네임서버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으면 되겠군.

66 지문 속근거 찾기

• <보기>

1)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hosts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그 주소로 바로 접속하고, IP 주소를 찾지 못했을 때 클라이언트는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낸다.

↳ <DNS 스푸핑>은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려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와 관련 1)된 것이지, <네임서버>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네임서버>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는 것은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05~09 콘크리트를 통해 본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관계

1 '콘크리트'는 건축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2**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근대 기술의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콘크리트는 이미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되었다. **3**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 주는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반구형의 지붕인 돔은 오직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져 있다. **4**로마인들은 콘크리트의 골재 배합을 달리하면서 돔의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여 지붕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 **5**돔 지붕이 지름 45m 남짓의 넓은 원형 내부 공간과 이어지도록 하였고, 지붕의 중앙에는 지름 9m가 넘는 원형의 천창을 내어 빛이 내부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1 콘크리트가 사용된 기원

- * 콘크리트: 고대 로마 시대부터 사용한 건축 재료
- * 판테온의 돔: 콘크리트의 골재 배합을 달리하면서 지붕을 가볍게 하여 원형 내부 공간과 연결함.

2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섞어 물로 반죽한 혼합물이다. **2**콘크리트에서 결합재 역할을 하는 시멘트가 물과 만나면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화반응이 일어나 골재, 물, 시멘트가 결합하면서 굳어진다. **3**콘크리트의 수화반응은 상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하기에도 좋다. **4**반죽 상태의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부어 경화시키면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5**콘크리트의 골재는 종류에 따라 강도와 밀도가 다양하므로 골재의 종류와 비율을 조절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와 밀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6**그리고 골재들 간의 접촉을 높여야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를 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콘크리트의 특성

- * 물과 만나면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화반응이 일어나 골재, 물, 시멘트가 결합하면서 굳어짐.
 - 수화반응은 상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이 편리함.
 -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음.
 - 강도와 밀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

- 1**
- 2**
- * '~지만', '~달리'처럼 반대의 맥락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다면 세모 표시를 해 두고 이후의 내용에 집중하며 핵심어에 밑줄을 그어 두자. 선지의 정/오 판단의 근거로 잘 활용된다. [**3**-2, **6**, **4**-4, **5**-1도 마찬가지]
- 3**
- * <오직~만>처럼 다른 것(경우)을 허용하지 않는 진술은 <다른 것도 허용>이라는 부적절 선지로 잘 활용된다.
- 4**
- * '~(할)수록~하다(이다)'의 비례 관계가 성립되는 부분은 선지의 정/오 판단의 근거로 잘 활용된다. 혼동되지 않게 화살표로 표시해 두자.

- 2**
- 1**
- * 개념의 피정의항에는 동그라미, 정의항의 키워드에는 밑줄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다.
- 2~4**
- * '점성', '수화반응', '경화' 등 평소 접하지 못했던 전문 용어가 등장하면 밑줄을 그어 두자. 이때 주체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동그라미나 네모 표시가 더 좋다.
- 3, 5, 6**
- * '때문에', '~하므로'를 기준으로 <원인+결과>의 구성.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3 1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건축은 구조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형태 면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 2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인 **압축력**에는 쉽게 부서지지 않지만 당기는 힘인 **인장력**에는 쉽게 부서진다. 3**압축력**이나 **인장력**에 재료가 부서지지 않고 그 힘에 견딜 수 있는, 단위 면적당 최대의 힘을 각각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라 한다. 4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보다 10배 이상 **높다**. 5또한 **압축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줄어드는 길이는 인장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늘어나는 길이보다 훨씬 짧다**. 6그런데 **철근**이나 **철골**과 같은 **철재**는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은** 데다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모두가 콘크리트보다 **높다**. 7**특히 인장 강도**는 월등히 더 **높다**. 8따라서 보강재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어 대부분의 **인장력**을 철근이 받도록 하면 **인장력**에 취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이 크게 보완된다. 9다만 철근은 무겁고 비싸기 때문에, 대개는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그 지점을 위주로 철근을 보강한다. 10또한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포아송 비**이다. 11**철재**는 콘크리트보다 **포아송 비**가 **높**으며, 대체로 철재의 **포아송 비**는 0.3, 콘크리트는 0.15 정도이다.

3 콘크리트를 보완한 철근 콘크리트

- * **철근 콘크리트**: 견고해짐.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함.
- *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보다 10배 이상 높음.
- * **압축력**으로 인한 길이 > **인장력**으로 인한 길이
- * 보강재인 철근을 넣어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을 보강
- * **포아송 비**: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
철재의 포아송 비(0.3) > 콘크리트의 포아송 비(0.15)

4 1**강도가 높고 지지력이 좋아진 철근 콘크리트**를 건축 재료로 사용하면서, 대형 공간을 축조하고 기둥의 간격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2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근대 건축에서 철근 콘크리트는 예술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재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3**기술이 예술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는 신념을 가졌던 르 코르뷔지에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점을 **사보아 주택**에서 완벽히 구현하였다. 4**사보아 주택**은, 벽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된 건축물과는 달리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설계되어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52층 거실을 둘러싼 벽에는 **수평으로 긴 창**이 나 있고, 건축가가 **'건축적 산책'**라고 이름 붙인 경사로는 지상의 출입구에서 2층의 주거 공간으로 이어지다가 다시 테라스로 나와 **지붕까지 연결된다**. 6**목욕실 지붕**에 설치된 작은 **천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면 이 주택이 자신을 중심으로 펼쳐진 또 다른 소유주임을 느낄 수 있다. 7**평평하고 넓은 지붕**에는 **정원이** 조성되어, 여기서 산책하다 보면 대지를 바다 삼아 향해하는 기선의 갑판에 서 있는 듯하다.

4 철근 콘크리트를 활용한 건물: 사보아 주택

- * **사보아 주택**: 기둥만으로 본체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설계한 건축물

3

1

* '물체가 딱딱하면 변형이 어렵다'라는 상식과는 다르게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건축의 구조는 더욱 견고해지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 출제자는 일반적 상식을 미끼로 수험생의 잘못된 선택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때로는 상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문 그대로의 내용이다.

3~5

* 5번 문장에서 <최대한~길이>는 재료가 <부서지지 않고 외부의 힘에 버틸 수 있는 길이>를 나타낸다. 그래서 <압축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줄어드는 길이는 '인장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늘어나는 길이보다 훨씬 길다.>는 말은 4번 문장처럼 압축력에 대한 저항(압축 강도)이 인장력에 대한 저항(인장 강도)보다 높다는 것이다.

5, 6, 7, 11

* 길다, 작다, 높다 등 비교형 어휘는 화살표(공정 ↑, 부정 ↓)가 적절하다.

10~11

※ <포아송 비> ≠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정도>

<포아송 비>는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것이지,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정도> 그 자체가 <포아송 비>가 아니다. 그래서 <변형의 정도 = 포아송 비>로 착각하면 변형이 잘 안 되는 철재가 콘크리트보다 포아송 비가 왜 크지에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나 중간 내용을 생략하고 이미 결론을 냈거나 사실로 제시한 문장은 따져 볼 필요 없이 그냥 수용한다. 문제 풀이와 상관없이 왜 그러한지 따져 보는 것은 (아무리 궁금할지라도) 실전 시험 때는 절대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평소에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수능은 정답의 근거를 찾는 시험이지 문장의 의미를 하나하나 따져 보는 시험이 아니다. 지문 분석 공부는 (요약을 하기 위해) 문장 혹은 문단 안에서 핵심을 뽑아 문맥을 짚어 가는 정도로 충분하다.

4

6~7

* 서술자나 인물의 주장, 입장이 중요시되는 갈래의 글이 아니라면, 객관적 사실 위주로 밑줄을 그어 주목해야 한다.

6목욕실 지붕에 설치된 작은 천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면 → **(객관적 사실)** 이 주택이 자신을 중심으로 펼쳐진 또 다른 소유주임을 느낄 수 있다. → **(주관적 생각)** 7**평평하고 넓은 지붕**에는 **정원이** 조성되어. → **(객관적 사실)** 여기서 산책하다 보면 대지를 바다 삼아 향해하는 기선의 갑판에 서 있는 듯하다. → **(주관적 생각)**

5 1철근 콘크리트는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려는 연구가 계속되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등장하였다. 2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이 제작된다. 3먼저, 거푸집에 철근을 넣고 철근을 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붓는다. 4콘크리트가 굳은 뒤에 당기는 힘을 제거하면, 철근이 줄어들면서 콘크리트에 압축력이 작용하여 외부의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만들어진다. 5김벨 미술관은 개방감을 주기 위하여 기둥 사이를 30m 이상 벌리고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다. 6이> 간격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를 활용하였기에 구현할 수 있었고,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다. 7이> 구조로 이루어진 긴 지붕의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넓은 실내를 환하게 채우며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내부를 대리석처럼 빛나게 한다.

5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특징 & 김벨 미술관

-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제작 방법
 - 거푸집에 철근을 넣고 철근을 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부음.
 - 콘크리트가 굳은 뒤에 당기는 힘을 제거함.
 - 콘크리트에 압축력이 작용하여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짐.
- * 김벨 미술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를 활용하여 기둥 사이를 30m 이상 벌리고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

6 1이처럼 건축 재료에 대한 기술적 탐구는 언제나 새로운 건축 미학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2특히 근대 이후에는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혁신적인 건축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3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유기적인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6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관계 전망

- *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유기적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

5
2~4
* '~다음과 같이 제작된다'처럼 '~에 대한 과정 및 절차'는 대충 쓱~ 지나가면서 키워드라고 판단되는 것에만 빠르게 밑줄 치고 넘어간다. 어차피 문제 풀이 시 다시 꼼꼼하게 봐야 한다.
6
* '구현할 수 있었고' ↔ '구현하기 어려웠다'처럼 대립 항이 있는 내용은 문제화되기 딱 좋다.
- 해석 주의: '구현하기 어려웠다' → 구현 절대 불가능×, 구현 가능성 0%×

6
1
* <이처럼 건축 재료에 대한 기술적 탐구는>을 통해 이전 문단의 내용이 <건축 재료에 대한 기술적 탐구>이었음을 이전 문단을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

05.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38위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9%	① 89%	② 2%	③ 3%	④ 1%	⑤ 5%

정답 풀이

① 건축 재료의 특성과 발전을 서술하면서 각 건축물들의 공간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 주는 1<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반구형의 지붕인 돔은 오직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져 있다.~ → <건축물의 공간적 특징> [1문단]
- 2<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섞어 물로 반죽한 혼합물이다.~ → <건축 재료의 특성> [2문단]
- 3<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건축은 구조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형태 면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 → <건축 재료의 발전> [3문단]
- 4<사보아 주택>은, 벽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된 건축물과는 달리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설계되어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 <건축물의 공간적 특징> [4문단]
- 5<김벨 미술관>은 개방감을 주기 위하여 기둥 사이를 30m 이상 벌리고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다.~
→ <건축물의 공간적 특징> [5문단]

↳ 건축 재료(→ 콘크리트)의 특성2)과 발전3)을 서술하면서 각 건축물들의 공간적 특징1, 4, 5)을 설명하고 있다.

X 오답 풀이

② 건축 재료의 특성에 기초하여 건축물들의 특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섞어 물로 반죽한 혼합물이다.~ → <건축 재료의 특성> [2문단]

↳ 건축 재료의 특성1)에 기초한 건축물들(→ 판테온, 사보아 주택, 김벨 미술관)의 특징이 1, 4, 5문단에 각각 설명되어 있지만 서로 비교하거나 상반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건축 재료의 기원을 검토하여 다양한 건축물들의 미학적 특성과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근대 기술의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콘크리트는 1)이미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되었다. [1문단]

↳ <콘크리트>가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되었음1)을 언급했을 뿐이지 기원을 검토한 것은 아니며, 건축물들(→ 판테온, 사보아 주택, 김벨 미술관)의 미학적 특성을 1, 4, 5문단에서 각각 설명하고 있지만 그 한계를 평가한 것은 아니다.

✓ 어휘 체크

* 기원: 사물이 처음으로 생김.

④ 건축 재료의 시각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각 재료와 건축물들의 경제적 가치를 탐색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콘크리트>의 골재는 종류에 따라 1)강도와 밀도가 다양하므로 골재의 종류와 비율을 조절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와 밀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2문단]
-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건축은 구조적으로 더욱 2)견고해지고, 형태 면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 [3문단]
- 3)강도가 높고 지지력이 좋아진 철근 <콘크리트>를 건축 재료로 사용하면, 대형 공간을 축조하고 기둥의 간격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4문단]

↳ 건축 재료의 시각적 특성이 아니라, 강도를 중심으로 설명1~3)한 것이며, 각 재료와 건축물들의 경제적 가치를 탐색하지는 않았다.

⑤ 건축물들의 특징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 원인을 제시하고 건축 재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 주는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반구형의 지붕인 돔은 오직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져 있다. [1문단]
-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근대 건축에서 철근 콘크리트는 예술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재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사보아 주택>은, 벽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된 건축물과는 달리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설계되어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4문단]
- 철근 콘크리트는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김벨 미술관>은 개방감을 주기 위하여 기둥 사이를 30m 이상 벌리고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다. [5문단]

↳ 시대별(→ 로마, 근대, 근대 이후)로 건축물들(→ 판테온, 사보아 주택, 김벨 미술관)의 특징은 나타나 있지만 그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 원인을 제시한 것은 없으며, 건축물들과 건축 재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06.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61위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0%	① 3%	② 2%	③ 6%	④ 9%	⑤ 80%

정답 풀이

⑤ 사보아 주택과 김벨 미술관은 모두 층을 구분하지 않도록 구성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사보아 주택)은, ~2층 거실을 둘러싼 벽에는 수평으로 긴 창이 나 있고, 건축가가 '건축적 산책로'라고 이름 붙인 경사로는 1)지상의 출입구에서 2층의 주거 공간으로 이어지다가 다시 테라스로 나와 지붕까지 연결된다. [4문단]
- <김벨 미술관>은 개방감을 주기 위하여 기둥 사이를 30m 이상 벌리고 2)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다. [5문단]

↳ <김벨 미술관>은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기에 층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사보아 주택>은 지상과 2층이 구분되어 있다.

<사보아 주택>의 2층 거실이라는 말에서 <김벨 미술관>에 대한 내용까지 보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선지 ⑤가 적절하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판테온의 돔에서 상대적으로 더 얇은 부분은 상부 쪽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 주는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로마인들은 콘크리트의 골재 배합을 달리하면서 1)돔의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여 지붕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 [1문단]

↳ <판테온>은 돔의 상부로 갈수록 두께가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얇은 부분이 상부 쪽이다.

② 사보아 주택의 지붕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사보아 주택)은, ~평평하고 넓은 1)지붕에는 정원이 조성되어, 여기서 산책하다 보면 대지를 바다 삼아 향해하는 기선의 갑판에 서 있는 듯하다. [4문단]

↳ <사보아 주택>의 <지붕>에는 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③ 김벨 미술관은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이용하여 넓고 개방된 내부 공간을 확보하였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철근 콘크리트는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1)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려는 연구가 계속되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등장하였다. ~<김벨 미술관>은 2)개방감을 주기 위하여 기둥 사이를 30m 이상 벌리고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다. 이 간격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를 활용하였기에 구현할 수 있었고, [5문단]

↳ <김벨 미술관>은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는 방법(→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을 이용하여 1) 넓고 개방된 내부 공간을 확보)하였다.

④ 판테온과 사보아 주택은 모두 천창을 두어 빛이 위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 주는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지붕의 중앙에는 지름 9m가 넘는 1)원형의 천창을 내어 빛이 내부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1문단]
- (사보아 주택)은, ~목욕실 2)지붕에 설치된 작은 천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면 이 주택이 자신을 중심으로 펼쳐진 또 다른 소유주임을 느낄 수 있다. [4문단]

↳ <판테온>과 <사보아 주택>은 모두 천창을 두어 빛이 위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1~2) 하였다.

07.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48위

#추론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78%	① 8%	② 6%	③ 6%	④ 78%	⑤ 2%

정답 풀이

④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철근이 복원되려는 성질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에 압축력을 줌으로써 인장 강도를 높인 것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먼저, 거푸집에 철근을 넣고 철근을 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붓는다. 콘크리트가 굳은 뒤에 (철근의) 당기는 힘을 제거하면, 1)철근이 줄어들면서 → (철근의 복원) 2)콘크리트에 압축력이 작용하여 3)외부의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만들어진다. [5문단]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철근이 복원되려는 성질 1)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에 압축력 2)을 줌으로써 인장 강도를 높인 것 3)이다.

✓ 어휘 체크

- * **인장:** 어떤 힘이 물체의 중심축에 평행하게 바깥 방향으로 작용할 때 물체가 늘어나는 현상.
- *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 = 인장 강도 = 물체가 늘어나지 않게 버틸 수 있는 힘**

✗ 오답 풀이

① 당기는 힘에 대한 저항은 철근 콘크리트가 철재보다 크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인 압축력에는 쉽게 부서지지 않지만 1)당기는 힘인 <인장력>에는 쉽게 부서진다.~그런데 철근이나 철골과 같은 2)<철재>는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은 데다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모두가 <콘크리트>보다 높다. → (인장 강도는 '철재'가 '콘크리트'보다 크다) ~따라서 3)보강재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어 대부분의 인장력을 철근이 받도록 하면 인장력에 취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이 크게 보완된다. [3문단]

↳ 당기는 힘인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 즉 <인장력>에 버틸 수 있는 힘인 <인장 강도>는 '철재'가 '콘크리트'보다 크다. 2) 그래서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기 위해 철근을 혼합)한 <철근 콘크리트>이더라도 순수한 <철재>보다 <인장 강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 순수한 '철재'의 인장 강도 > '철근+콘크리트'의 인장 강도

(* 쉽게 비유하자면, '순수한 설탕 덩어리'와 '설탕을 넣어 만든 과자'의 당도를 비교하면 당연히 '순수한 설탕 덩어리'가 win!)

♣ 지문 2)를 분석해 보면,

- <철재>는 <인장력>과~의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음.
- <철재>는~<인장 강도> 모두가 <콘크리트>보다 높음.

* 인장력의 변형 정도가 작음. = 인장 강도가 강함.

→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이 강함.

☞ 결국 i = ii가 된다.

② 일반적으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보강재로 사용할 때는 압축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넣는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따라서 보강재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어 1)대부분의 <인장력>을 철근이 받도록 하면 <인장력>에 취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이 크게 보완된다. [3문단]

↳ 일반적으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보강재로 사용할 때는 압축력이 아닌,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넣어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한다.

③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는 철근의 인장력으로 높은 강도를 얻게 되어 수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콘크리트>에서 결합재 역할을 하는 시멘트가 물과 만나면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1)<수화 반응>이 일어나 골재, 물, 시멘트가 결합하면서 굳어진다. [2문단]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이 제작된다. 먼저, 거푸집에 철근을 넣고 철근을 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붓는다. 2) 콘크리트가 굳은 뒤에~ [5문단]

↳ <콘크리트>가 굳어지려면 <수화 반응>을 거쳐야) 하는데,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제작 과정에서도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화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⑤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는 데에는 크기가 다양한 자갈을 사용하는 것보다 균일한 크기의 자갈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리고 골재들 간의 접촉을 높여야 1)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2)<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를 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문단]

↳ 선지 ⑤와는 반대로,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는 데)에는 크기가 다양한) 자갈을 사용하는 것이 균일한 크기의 자갈만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08.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0위

#1 항목 후순위의 법칙 #보기 제시 #탐구

정답률
3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0% ② 19% ③ 23% ④ 34% ⑤ 14%

✓ 정답 풀이

④ A와 B에 압축력을 가했을 때 줄어든 높이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B의 지름이 A의 지름보다 더 늘어났을 것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한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포아송 비>이다. 1)철재는 콘크리트보다 포아송 비가 크며, 대체로 <철재>의 포아송 비는 0.3, <콘크리트>는 0.15 정도이다. [3문단]
- <보기>

2)<철재>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A와 <콘크리트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B에 힘을 가하며 변형을 관찰하였다. A와 B의 윗면과 아랫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3)압축력을 가했더니 높이가 줄어들면서 4)지름은 늘어났다.~이때 5)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으로 나누어 <포아송 비>를 구하였더니, 6)일반적으로 알려진 철재와 콘크리트의 포아송 비와 동일하게 나왔다.

📖 지문 POINT

※ <보기>의 5)를 통해 다음을 알 수 있다.

$$\langle \text{포아송 비} \rangle = \text{지름} / \text{높이} \quad (* \text{ 각각 변화량의 절댓값})$$

↳ A(철재)와 B(콘크리트)에 2) 압축력을 가했을 때 줄어든 높이 3)의 변화량이 같다면, (이때, '포아송 비'의 상대적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자'에 해당하는 '지름'이다.) <포아송 비>는 '철재'($\rightarrow 30/100$)가 '콘크리트'($\rightarrow 15/100$)보다 크기 1, 6)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지름'은 A(철재)가 더 늘어나게 된다. 4)

☞ <보기>에서 6)은 <철재>와 <콘크리트> 각각의 '포아송 비'가 1)과 같이 기준과 동일하게 나온 것이지, ('철재'의 포아송 비) = ('콘크리트'의 포아송 비)가 아님에 유의하자.

✖ 오답 풀이

① 동일한 압축력을 가했다면 B는 A보다 높이가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런데 철근이나 철골과 같은 1)철재는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은 데다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모두가 콘크리트보다 높다. [3문단]

• <보기>
2)철재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A'와 <콘크리트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B'에 힘을 가하며 변형을 관찰하였다.

↳ <철재>는 <콘크리트>보다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가 작기 1) 때문에 동일한 압축력을 가했다면 B(콘크리트)는 A(철재)보다 높이가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 (변형이 잘 되는 것) = (변형 정도가 큼.) \rightarrow 더 잘 줄어들거나 잘 늘어난.

② A에 인장력을 가했다면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은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보다 컸을 것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한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1)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포아송 비>이다. 철재는 콘크리트보다 포아송 비가 크며, 2)대체로 <철재>의 포아송 비는 0.3, <콘크리트>는 0.15 정도이다. [3문단]

• <보기>
이때 3)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으로 나누어 <포아송 비>를 구하였더니,
 \rightarrow (포아송 비: 지름/높이) * 각각 변화량의 절댓값

↳ A(철재)에 인장력을 가했다면 재료의 변형이 일어나며 1) <철재>의 포아송 비(3/10)를 고려 2)하면, 포아송 비: 지름/높이에 의해 3)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rightarrow 10$)은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rightarrow 3$)보다 컸을 것이다.

③ B에 압축력을 가했다면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은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보다 작았을 것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한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1)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포아송 비>이다. 철재는 콘크리트보다 포아송 비가 크며, 대체로 <철재>의 포아송 비는 0.3, <콘크리트>는 0.15 정도이다. [3문단]

• <보기>
이때 3)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으로 나누어 <포아송 비>를 구하였더니,
 \rightarrow (포아송 비: 지름/높이) * 각각 변화량의 절댓값

↳ B(콘크리트)에 압축력을 가했다면 재료의 변형이 일어나며 1) <콘크리트>의 포아송 비(15/100)를 고려 2)하면, 포아송 비: 지름/높이에 의해 3)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rightarrow 15$)은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rightarrow 100$)보다 작았을 것이다.

⑤ A와 B에 압축력을 가했을 때 늘어난 지름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A의 높이가 B의 높이보다 덜 줄어들었을 것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한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포아송 비>이다. 1)철재는 '콘크리트'보다 포아송 비가 크며, 대체로 <철재>의 포아송 비는 0.3, <콘크리트>는 0.15 정도이다. [3문단]

• <보기>
2)철재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A와 <콘크리트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B에 힘을 가하며 변형을 관찰하였다. A와 B의 윗면과 아랫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압축력을 가했더니 높이가 줄어들면서 3)지름은 늘어났다. ~이때 4)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으로 나누어 <포아송 비>를 구하였더니, 5)일반적으로 알려진 철재와 콘크리트의 포아송 비와 동일하게 나왔다.

📖 지문 POINT

※ <보기>의 4)를 통해 다음을 알 수 있다.

$$\langle \text{포아송 비} \rangle = \text{지름} / \text{높이} \quad (* \text{ 각각 변화량의 절댓값})$$

↳ A(철재)와 B(콘크리트)에 2) 압축력을 가했을 때 늘어난 '지름' 3)의 변화량이 같다면, (이때, '포아송 비'의 상대적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높이'이다.) <포아송 비>는 '철재'가 '콘크리트'보다 크기 1)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A(철재)의 높이가 B(콘크리트)의 높이보다 덜 줄어들었을 것이다.

\rightarrow A의 분모가 B의 분모보다 더 작아짐.

\rightarrow 포아송 비는 A가 B보다 커짐.

그래서, 높이(\rightarrow 분모)의 변화가 더 큰 B(콘크리트)의 포아송 비가 A(철재)보다는 작아지게 된다.

<보기>에서 5)는 <철재>와 <콘크리트> 각각의 '포아송 비'가 1)과 같이 기준과 동일하게 나온 것이지,

('철재'의 포아송 비) = ('콘크리트'의 포아송 비)가 아님에 유의하자.

★ 1항목 후순위의 법칙 ★

(자세한 내용 9쪽 참고)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②, ③이 각각 A 혹은 B, 1개만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다른 선지보다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를 고려하여 항목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 선지 ①, ④, ⑤를 먼저 더욱 집중해서 보는 것이 정답을 조금이라도 빨리 찾을 수 있는 풀이법이다.

09.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48위

#비교 선지의 법칙 #추론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78%	① 4%	② 10%	③ 5%	④ 78%	⑤ 3%

✓ 정답 풀이

④ 가는 기둥들이 넓은 간격으로 늘어선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의 재료로는 철골보다 철근 콘크리트가 더 적합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1) 철근 콘크리트 대신 <철골>을 사용하여 기둥을 만들면 더 '가는 기둥'으로도 간격을 더욱 벌려 세울 수 있어 훨씬 넓은 공간 구현이 가능하다.

↳ 선지 ④와는 반대로, '가는 기둥'들이 넓은 간격으로 늘어선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의 재료로는 <철골>이 철근 콘크리트보다 더 적합하다.1)

✗ 오답 풀이

①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의 기둥에는 산화 방지 조치가 되어 있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철근 콘크리트 대신 <철골>을 사용하여 기둥을 만들면 더 가는 기둥으로도 간격을 더욱 벌려 세울 수 있어 훨씬 넓은 공간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1) <철골>은 산화되어 녹이 스는 단점이 있어 내식성 페인트를 칠하거나 콘크리트를 덧입히는 등 '산화 방지' 조치를 하여 사용한다.

2)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철골>의 기술적 장점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건축물이다.

↳ <철골>은 '산화 방지' 조치를 하여 사용1)하는데,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이 이러한 <철골>을 활용하였기2) 때문에 기둥에는 '산화 방지' 조치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패턴 공략

▶ 지문: A는 C의 특성을 지님. + B는 A이다.

→ 적절 선지: B는 C의 특성을 지님.

② 휘어진 곡선 모양의 기둥을 세우려 할 때는 대체로 철골을 재료로 쓰지 않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철골>은 매우 높은 강도를 지닌 건축 재료로, 규격화된 1) 직선의 형태로 제작된다.

↳ <철골>은 직선의 형태로 제작되기1) 때문에 휘어진 곡선 모양의 기둥을 세우려 할 때는 대체로 <철골>을 재료로 쓰지 않는다.

③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철골을, 김벨 미술관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개방감을 구현하였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김벨 미술관>은 1) 개방감을 주기 위하여 기둥 사이를 30m 이상 벌리고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다. 이 간격은 2)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를 활용하였기에 구현할 수 있었고, [5문단]

• <보기>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3) <철골>의 기술적 장점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건축물이다. ~ 미술관 내부에 들어가면 넓은 공간 속에서 4) 개방감을 느끼게 된다.

↳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철골'3)을, <김벨 미술관>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2)를 활용하여 개방감을 구현1), 4) 했다.

⑤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의 지붕과 사보아 주택의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주는 것은 벽이 아닌 기둥이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사보아 주택>은, 벽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된 건축물과는 달리 1)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설계되어 2)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4문단]

• <보기>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철골의 기술적 장점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건축물이다. 거대한 평면 3) <지붕>은 여덟 개의 십자형 철골 <기둥>만이 떠받치고 있고, ~ 내부 공간이 텅 비어 있어 지붕은 4)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준다.

↳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의 지붕>과 <사보아 주택>의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주는 것2, 4)은 벽이 아닌 <기둥>이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1, 3)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비교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위 문제는 선지 ④에만 비교형 표현이 있다.

④ ~ 기둥의 재료로는 <철골>보다 <철근 콘크리트>가 더 적합하겠군.

👉 (☆정답)

지문 난이도 ★★

2016학년도 수능 A형 19~21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51위

01 ~ 03 애벌랜치 광다이오드

1 광통신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은 매우 빠를 수 있지만,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빛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거리 통신의 경우 수신되는 광신호는 매우 약해질 수 있다. 빛은 광자의 흐름이므로 빛의 세기가 약하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수신기에 도달하는 광자의 수가 적다는 뜻이다. 따라서 광통신에서는 적어진 수의 광자를 검출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며, 약한 광신호를 측정이 가능한 크기의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반도체 소자로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1 광통신에서 사용하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

- *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가 증가 → 빛의 세기 ↓ (=광자의 수 ↓) → 원거리 수신 광신호 ↓
- * 애벌랜치 광다이오드: (광자 검출로) 약한 광신호를 적절한 전기 신호로 변환

2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크게 흡수층, 애벌랜치 영역,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 이때 입사되는 광자 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양공 쌍의 개수를 양자 효율이라 부른다. 소자의 특성과 입사광의 파장에 따라 결정되는 양자 효율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2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구성과 양자 효율

- * 구성: 흡수층 + 애벌랜치 영역 + 전극
- 흡수층: (광자가 입사되면) →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
- * 양자 효율: 광자 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양공 쌍의 개수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1

- * 비례 관계 표시는 상하 화살표가 적당하며 이와 같은 내용은 선지의 정·오 판단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3-2, 7도 마찬가지로]
- * <원인+결과>의 구성.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2~3

- * <원인+결과>의 논리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글을 읽으면 구조화가 수월해진다. [3-3, 3-5~6도 마찬가지]

3

- * 순서에 주의! 순서 바뀌치기는 자주 등장하는 선지 유형이다. (애벌랜치 광다이오드: 광신호 → 전기 신호)
- * 문장이 길다면 선표에서 흐름을 한 번 끊어 주자.

2

1

- * 기술 지문에서 '~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나오면 대개 각 구성 요소에 따라 글이 전개된다. 3 문단의 분량이 많은 것으로 보아, 2 문단에 흡수층, 3 문단에 애벌랜치 영역과 전극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임도 예측할 수 있다.

2

- * 순서에 주의! 순서 바뀌치기는 자주 등장하는 선지 유형이다. (양자 효율: 광자 수 대비 전자-양공 쌍의 개수)

3

1 흡수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양공은 각각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으로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을 지나게 된다. 2 이곳에는 소자의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 강한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이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 3 이 영역에서 전자는 강한 전기장 때문에 급격히 가속되어 큰 속도를 갖게 된다. 4 이후 충분한 속도를 얻게 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속도가 줄어들며 새로운 전자-양공 쌍을 만드는데, 이 현상을 충돌 이온화라 부른다. 5 새롭게 생성된 전자와 기존의 전자가 같은 원리로 전극에 도달할 때까지 애벌랜치 영역에서 다시 가속되어 충돌 이온화를 반복적으로 일으킨다. 6 그 결과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애벌랜치 증배라고 부르며 전자의 수가 늘어가는 정도, 즉 애벌랜치 영역으로 유입된 전자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증배 계수라고 한다. 7 증배 계수는 애벌랜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8 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수에 비례한다. 9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광신호의 세기는 전류의 크기로 변환된다.

3 광신호의 세기가 전류의 크기로 변환되는 과정

- * 애벌랜치 전기장: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짐.
- * 충돌 이온화: 전자와 원자들이 충돌하여 새로운 전자-양공쌍을 만듦.
- * 애벌랜치 증배: 새로운 전자와 기존의 전자가 가속되어 충돌 이온화를 반복함. → (전자의 수 증가)
- * 증배 계수: 애벌랜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짐.
- * 전류의 크기: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수에 비례
- 광신호의 세기는 전류의 크기로 변환

4

1 한편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흡수층과 애벌랜치 영역을 구성하는 반도체 물질에 따라 검출이 가능한 빛의 파장 대역이 다르다. 2 예를 들어 실리콘은 300~1,100nm*, 저마늄은 800~1,600nm 파장 대역의 빛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3 현재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종류의 애벌랜치 광다이오드가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

* nm: 나노미터. 10억 분의 1미터.

4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에서 검출 가능한 빛의 파장 대역

- * 흡수층과 애벌랜치 영역을 구성하는 반도체 물질에 따라 다름.
 - 실리콘 (300~1,100nm)
 - 저마늄 (800~1,600nm)

3

1

* 길고 복잡한 문장일수록 가장 먼저 해야 할 1순위는, 주제(전자와 양공)를 찾아 이에 집중하는 것이다. 누구(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글의 흐름을 놓치기 쉽다.

2

*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원인) + 강한 전기장이 존재(결과)'. 지문에 직접적으로 '때문에', '원인', '결과', '왜냐하면' 등의 말이 없어도 (인과 관계)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3

* (원인+결과)의 구조.

4~6

* (설명+개념어)의 형태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개념어+설명)보다는 인지가 잘 안 되니, 개념어에 진한 동그라미 또는 네모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다.

9

* 대개 '~의 과정'이라는 표지는 문단의 서두에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풀어서 진술하기 마련인데, 이번 문단에서는 맨 마지막에 있음에 주의하자. 실전에서 '~의 과정'이 깔끔하게 정리 안 된다고 집착하지 말자. 어차피 문제 풀 때 다시 봐야 하기 때문에 키워드에 적절한 표시만 했다면 일단 패스.

4

2

* '300~1,100nm', '800~1,600nm'처럼 숫자로 범위가 드러난 내용은 문제화되기 쉬우므로 집중해서 읽는다.

01.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22위

#대상 바꿔치기 #내용 일치 #평가원 이의 제기 #출제자의 심리

정답률 87%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	② 87%	③ 6%	④ 3%	⑤ 1%

정답 풀이

②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크게 1)흡수층, 애벌랜치 영역,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2)광자가 입사되면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 [2문단]

↳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1)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2)

패턴 공략

▶ 지문: A되면 B하다. → 적절 선지: B하려면 A되어야 함.

X 오답 풀이

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해 준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따라서 광통신에서는 적어진 수의 광자를 검출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며, 약한 1)‘광신호’를 측정 가능한 크기의 2)‘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반도체 소자로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1문단]

↳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광신호1)’를 ‘전기 신호2)’로 변환한다.

패턴 공략

▶ 지문: A는 B를 C하다. → 부적절 선지: A는 C를 B하다.

③ 입사된 광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작동에 필수적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 결과 1)‘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애벌랜치 증배’라고 부르며 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정도, [3문단]

↳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작동에 광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필수적이라 했으면 이 내용이 지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작동에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1)은 있어도 ‘광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다. 다만 1문단에 ‘~광자의 수가 적다, 적어진 수의 광자를 검출’ 등의 표현이 있을 뿐이다.

1등급 가이드

★출제자의 심리!

* 지문: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

* 불일치 선지: 광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

☞ 출제자는 대상을 바꿔 위와 같이 불일치 선지를 만들었다. ‘전자’ 대신 ‘광자’를 사용한 것은 ‘광자’가 1문단에 몇 번 나온 익숙한 용어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이다.

④ 저마늄을 사용하여 만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100nm 파장의 빛을 검출할 때 사용 가능하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예를 들어 실리콘은 300~1,100nm, 1)저마늄은 800~1,600nm 파장 대역의 빛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끝 문단]

↳ 저마늄을 사용하여 만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800~1,600nm 파장 대역의 빛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1)

⑤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생성된 양공은 애벌랜치 영역을 통과하여 양의 전극으로 이동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흡수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양공>은 각각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으로 이동하며, [3문단]

↳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생성된 <양공>은 <음의 전극>으로 이동한다. 반면 <양의 전극>으로 이동하는 것은 <전자>이다.1)

패턴 공략

▶ 지문: A와 B는 각각 C와 D에 해당 → 부적절 선지: B는 C에 해당
 ★지문에 A, B 2가지 항목과 그의 특성이 나오면 이 둘의 특성을 바꿔치기한 부적절 선지는 꼭 나온다.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지문의 특정 문장으로부터 선지 ②가 논리적으로 추론될 수 없으므로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이 문항은 지문에 설명된 전체 내용을 이해하여 답지를 판단하는 문항인 바, 특정 문장에만 주목하여 답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의를 제기한 바와는 달리, 지문의 전체 내용을 고려하면 선지 ②가 정답으로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지문 첫째 단락에서 설명한 바처럼, 광통신에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적어진 수의 광자를 검출하는 장치’이자 ‘약한 광신호를 측정 가능한 크기의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반도체 소자’란 점을 알 수 있고, 둘째 단락 이하의 내용을 통해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선지 ②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기본 전제 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

〈의견〉 지문에서 설명하지 않은 과학적 정보로 볼 때 선지 ②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변〉 이의 제기에서 언급한 정보는 지문에서 설명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에서 벗어나는 정보이다. 지문에서 설명한 기본적인 작동 원리 외의 다른 상황까지 가정하여 선지 ②를 판단하는 것은 이 지문과 문항의 맥락을 고려하여 읽지 않은 것이다.

〈의견〉 지문에서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라 하였는데 선지 ②에서는 '광자'라고만 하였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변〉 지문에서 언급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이라는 내용을 선지 ②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류라는 이의 제기는 광자의 입사가 전자-양공 쌍을 발생시키는 조건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첫 번째 문단에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약한 광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소자로서 이용되고 있다고 소개한 후,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에서 입사된 광신호가 전기 신호로 변환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첫 번째 문단에 '약한 광신호를 측정이 가능한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반도체 소자'라는 내용은 결국 광자의 입사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작동에 필요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저자의 답변 추가〉 그런 논리라면, '게임을 하느라 늦잠을 잔 철수는 학교에 지각을 했다.'라는 가상의 지문에서 '철수는 학교에 지각을 했다.'라는 선지를 잘못된 선지로 봐야 하는가?

선지 ②의 〈광자〉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전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선지에서 직접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가상하여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에너지가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다음 문제이고 선지 ②는 광자의 입사 여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02.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42위

#원인_이유 #밀출 다음이 중요 #특정 부분 이해 #최협의 Q&A #최협의 조건 #비례 관계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65%	① 5%	② 9%	③ 65%	④ 6%	⑤ 15%

✓ 정답 풀이

③ ①에 유입된 전자가 생성하는 전자-양공 쌍의 수는 양자 효율을 결정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흡수층에)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 이때 1(흡수층에) 입사되는 〈광자 수〉 대비 (흡수층에서) 생성되는 〈전자-양공 쌍〉의 개수를 〈양자 효율〉이라 부른다. [2문단]

↳ 〈양자 효율〉은 흡수층에 입사되는 〈광자〉 수 대비 흡수층에서 생성되는 〈전자-양공 쌍〉의 개수를 나타낸다. 1) ① 〈애벌랜치 영역〉에 유입된 〈전자〉가 생성하는 전자-양공 쌍의 수는 양자 효율과 상관이 없다.

✗ 오답 풀이

① ①에서 전자는 역방향 전압의 작용으로 속도가 증가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흡수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양공은 각각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으로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전자는 ① 〈애벌랜치 영역〉을 지나게 된다. 이곳에는 소자의 전극에 걸린 1)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 〈강한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이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 2) 이 (애벌랜치) 영역에서 〈전자〉는 〈강한 전기장〉 때문에 급격히 가속되어 큰 속도를 갖게 된다. [3문단]

📌 지문 POINT

※ 〈역방향 전압〉 → 강한 전기장 → 전자는 큰 속도를 갖게 됨.

↳ 〈역방향 전압〉은 (전자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강한 전기장'을 생기게 하므로 선지 ①은 적절하다. 1~2)

최협의 Q&A

Q 전자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강한 전기장〉 아닌가요?

A 전자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직접적으로 〈강한 전기장〉이지만 이를 만드는 것이 〈역방향 전압〉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역방향 전압〉의 작용으로 전자의 속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역방향 전압〉의 작용이 전자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 것이다.

📁 바탕 지식 더하기

※ 〈원인과 이유〉를 구분해 보자.

- 원인: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
- 이유: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

▶ 대개는 (원인=이유)인 경우가 많으나, 근본적인 원인이나? 직접적인 이유냐?를 구별 판단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된다.

② ①에 형성된 강한 전기장은 충돌 이온화가 일어나는 데 필수적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이곳(애벌랜치)에는 소자의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 〈강한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이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 이(애벌랜치) 영역에서 전자는 2) 〈강한 전기장〉 때문에 급격히 가속되어 큰 속도를 갖게 된다. 이후 충분한 속도를 얻게 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속도가 줄어들며 새로운 전자-양공 쌍을 만드는데, 이 현상을 〈충돌 이온화〉라 부른다. [3문단]

📌 지문 POINT

※ 역방향 전압 → 강한 전기장 → 전자의 가속 → 충돌 이온화

↳ <충돌 이온화>는 <강한 전기장> 때문에 나타난다.2) 그래서 ①<애벌랜치 영역>에 형성된 <강한 전기장>은1) <충돌 이온화>가 일어나는 데 필수적이다.

최선의 조언

과학 기술 지문에서 과정이나 순서는 곧,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된다. 지문 독해 시 과정이나 순서가 바뀌지 않게 잘 메모해 두어야 한다. 이를 잘 해 두지 않으면 문제 풀이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첫 독해 시 지문에 대한 효율적인 메모와 구조화는 문제 풀이 시간을 단축시킨다.

④ ①에서 충돌 이온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전극에서 측정되는 전류가 증가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새롭게 생성된 전자와 기존의 전자가 같은 원리로 전극에 도달할 때까지 ①<애벌랜치> 영역에서 다시 가속되어 1)<충돌 이온화>를 반복적으로 일으킨다. 그 결과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 (→ ‘충돌 이온화’ & ‘전자의 수’ 정비례)을 ‘애벌랜치 증배’라고 부르며 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정도, 즉 애벌랜치 영역으로 유입된 전자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증배 계수라고 한다.~2)<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수>에 비례한다. [3문단]

📖 지문 POINT

1~2)<충돌 이온화>, <전자>, <전류>는 정비례

↳ ①<애벌랜치 영역>에서 <충돌 이온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전극에서 측정되는 <전류>가 증가한다.1~2)

🔍 패턴 공략

- ▶ 지문: A&B 정비례 + B&C 정비례 → 적절 선지: A&C 정비례
- ★지문에서 두 대상의 <비례 관계>가 성립되면 이와 관련된 선지가 자주 출제된다.

⑤ 흡수층에서 ①으로 들어오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면 충돌 이온화의 발생 횟수가 증가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흡수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양공은 각각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으로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전자>는 ①<애벌랜치 영역>을 지나게 된다.~2)<충돌 이온화>를 반복적으로 일으킨다. 그 결과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3문단]

📖 지문 POINT

2)<충돌 이온화>, <전자>는 정비례

↳ 흡수층에서 생성되어 ①<애벌랜치 영역>으로 들어오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면 <충돌 이온화>의 발생 횟수가 증가한다.1~2)

최선의 조언

<윗글에 대한 이해> → 지문 전체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데 오래 걸림.
<①에 대한 이해> → ①이 포함된 지문에 정답이 대부분 있음.

03.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74위

#수치 비례 #3점 #보기 제시 #최선의 Q&A

정답률
81%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 ② 9% ③ 81% ④ 4% ⑤ 3%

✓ 정답 풀이

③ 작동 온도를 20℃로 바꾼다면 단위 시간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 결과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애벌랜치 증배’라고 부르며 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정도, 즉 애벌랜치 영역으로 유입된 전자당 1)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증배 계수>라고 한다. <증배 계수>는 애벌랜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3문단]

📖 지문 POINT

1)<전자의 수 = 증배 계수>와 <작동 온도>는 반비례

↳ <작동 온도>가 높을수록 <전자의 수>가 작아지기1) 때문에 <작동 온도>를 0℃에서 20℃로 높이면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는 줄어든다.

🔍 패턴 공략

- ▶ 지문: A와 B는 반비례 → 부적절 선지: A와 B는 정비례
- ★지문에서 두 대상의 <비례 관계>가 성립되면 이와 관련된 선지가 자주 출제된다.

✗ 오답 풀이

① 역방향 전압을 100V로 바꾼다면 증배 계수는 40보다 작아지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1)이곳에는 소자의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 강한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이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2)<증배 계수>는 애벌랜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3문단]

📖 지문 POINT

1)<역방향 전압>과 <전기장>: 정비례

2)<증배 계수>와 <전기장>: 정비례

↳ <역방향 전압>, <전기장>, <증배 계수> 모두 정비례한다. 1~2) 그래서 <역방향 전압>이 110V에서 100V로 작아지면 <전기장>의 크기도 작아지며 <증배 계수>도 보기의 40보다는 작아진다.

패턴 공략

▶ 지문: A&B 정비례+B&C 정비례 → 적절 선지: A&C 정비례

② 역방향 전압을 120V로 바꾼다면 더 약한 빛을 검출하는 데 유리하겠군.

66 지문 속근거 찾기

• 빛은 광자의 흐름이므로 1)빛의 세기가 약하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수신기에 도달하는 광자의 수가 적다는 뜻이다. 따라서 광통신에서는 적어진 수의 광자를 검출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며 약한 광신호를 측정 가능한 크기의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반도체 소자로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1문단]

→ '광자'의 수가 적어서 빛이 약함.

☞ 빛의 세기가 약할수록 그 빛을 검출하기 위해 그만큼의 '광자'의 수가 필요함.

• 2)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 [2문단] → '광자와 전자'는 정비례

• 이곳에는 소자의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 강한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이 3)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 ~그 결과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애벌랜치 증배'라고 부르며 [3문단]

↳ 110V에서 120V로 <역방향 전압>이 커지면 <전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3) 이에 따라 <광자>의 수도 많아진다. 2) 그래서 (상대적으로 광자의 수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더 약한 빛을 검출하는 데 유리하다.

최שמ의 Q&A

Q 역방향 전압을 높이면 증배 계수가 커진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왜 약한 빛을 검출하는 데 유리한가요?

A <약한 빛 그 자체의 전자의 수>와 <약한 빛을 검출하기 위한 전자의 수>를 혼동하면 안 된다. <약한 빛 그 자체의 전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약한 빛을 검출하기 위한 전자의 수>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역방향 전압을 높이면 전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 약한 빛을 검출하는 데 유리하다.

Q 광자의 수가 많아지면 더 약한 빛을 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광자의 수가 많다는 건 빛의 세기가 강하다는 것이고 빛의 세기가 강하다는 건 약한 빛이 아니지 않나요?

A 광자의 수가 많아지면 더 약한 빛을 검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한 빛을 검출하는 데 초기에 더 많은 광자의 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한 빛을 검출할 때는 초기에 상대적으로 광자의 수가 덜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결과론적 측면인, <빛의 세기가 약하다>=<광자의 수가 적다>와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④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를 100m로 바꾼다면, 측정되는 전류는 100nA보다 작아지겠군.

66 지문 속근거 찾기

• 광통신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은 매우 빠를 수 있지만, 1)<광통신 케이블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빛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거리 통신의 경우 수신되는 광신호는 매우 약해질 수 있다. 빛은 광자의 흐름이므로 2)<빛의 세기>가 약하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수신기에 도달하는 <광자의 수>가 적다는 뜻이다. [1문단]

→ '빛의 세기'와 '광자의 수'는 정비례

• 3)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 [2문단]

→ '광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정비례

• 4)<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수>에 비례한다.

[3문단] → '전자의 수'와 '전류의 크기'는 정비례

66 지문 POINT

2~4)<빛의 세기>, <광자의 수>, <전자의 수>, <전류의 크기>는 모두 정비례

↳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가 늘어나면 '빛의 세기'가 약해져 1) '광자의 수'가 적어진다. 2) 그래서 생성되는 '전자의 수'도 적어지기 3) 때문에 '전류'도 그와 비례해서 작아진다. 4)

이에 따라,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가 보기의 1m에서 100m로 늘어나면, '빛의 세기'가 약해지고 1) '광자의 수'가 적어짐에 따라 '전류'도 <보기>의 100nA보다는 작아진다. 2~4)

⑤ 동일한 세기를 가지는 900nm 파장의 빛이 입사된다면 측정되는 전류는 100nA보다 작아지겠군.

66 지문 속근거 찾기

• 1)이때 입사되는 광자 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양공 쌍의 개수를 <양자 효율>이라 부른다. [2문단] → '전자'와 '양자 효율' 정비례

• 2)<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수>에 비례한다.

[3문단] → '전류의 크기'와 '전자의 수' 정비례

• <보기>

제품 설명서에 따르면 3)750~1,000nm 파장 대역에서는 파장이 커짐에 따라 '양자 효율'이 작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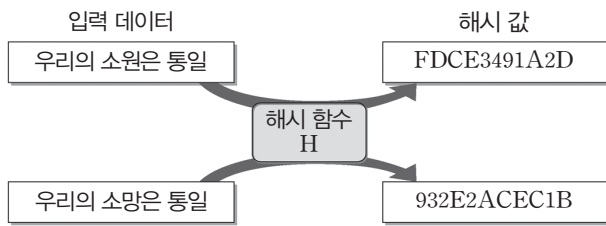
66 지문 POINT

1~2)<전자의 개수>, <양자 효율>, <전류의 크기>는 모두 정비례

↳ 900nm 파장은 <보기>의 750~1,000nm 파장 대역 범위 안이기 때문에 <양자 효율>이 작아져 3) <전자의 개수> 또한 작아진다. 그래서 <전류의 크기> 또한 100nA보다 작아진다.

04 ~ 06 해시 함수의 특성과 이용

1 온라인을 통한 통신, 금융, 상거래 등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보안상의 문제도 안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암호 기술이 동원된다. **2** 예를 들어 전자 화폐의 일종인 비트 코인은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화폐 거래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3** 해시 함수란 입력 데이터 x에 대응하는 하나의 결과 값을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로 표시하는 수학적 함수이다. **4** 그리고 입력 데이터 x에 대하여 해시 함수 H를 적용한 수식을 $H(x)=k$ 라 할 때, k를 해시 값이라 한다. **5** 이때 해시 값은 입력 데이터의 내용에 미세한 변화만 있어도 크게 달라진다. **6** 현재 여러 해시 함수가 이용되고 있는데, 해시 값을 표시하는 문자열의 길이는 각 해시 함수마다 다를 수 있지만 특정 해시 함수에서의 그 길이는 고정되어 있다.



[해시 함수의 입·출력 동작의 예]

1 해시 함수의 정의 및 특성

- * 암호 기술: 온라인을 통한 통신, 금융, 상거래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
- * 해시 함수: 입력 데이터 x에 대응하는 하나의 결과 값을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로 표시하는 수학적 함수
- * 해시 값(k): 입력 데이터 x에 대하여 해시 함수 H를 적용한 수식
→ $H(x)=k$
- ▶ 해시 값을 표시하는 문자열의 길이는 각 해시 함수마다 다를 수 있지만 특정 해시 함수에서의 그 길이는 고정되어 있음.

2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시 함수는 데이터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이용된다. **2**가령, 상호 간에 동일한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고 할 때, 전자 문서와 그 문서의 해시 값을 함께 전송하면 상대방은 수신한 전자 문서에 동일한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결과 값을 얻은 뒤 전송받은 해시 값과 비교함으로써 문서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 데이터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시 함수

- * 해시 함수는 데이터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이용됨.

1

※ 첫 문단이 5문장 이상이라면 1~2번째 문장 정도는 구체적인 화제를 던지기 이전에 몸을 푸는 단계이기 때문에 슬쩍 넘겨보아도 괜찮다.

2

* 예시는 이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읽어 낸다. [2-2도 마찬가지로]

4

* 기술 지문에서 개념 설명 중, 수식이나 수치, 비율 등 문제의 선지로 가공되기 좋은 지문에 밑줄을 그어 둔다.

6

* <~있지만>처럼 반대 맥락의 말에서는 뒷부분이 더 포인트.

2

1

* 이전 문단의 핵심을 원인으로, 결과가 바로 제시됨.

2

* 문장이 길다면, 상황이나 조건 등에서 한 번 끊어 주자.

3 1 그런데 해시 함수가 ① 일방향성과 ② 충돌회피성을 만족시키면 암호 기술로도 활용된다. 2 일방향성이란 주어진 해시 값에 대응하는 입력 데이터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3 특정 해시 값 k 가 주어졌을 때 $H(x)=k$ 를 만족시키는 x 를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4 그리고 충돌회피성이란 특정 해시 값을 갖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서로 다른 데이터 x, y 에 대해서 $H(x)$ 와 $H(y)$ 가 각각 도출한 값이 동일하면 이것을 충돌이라 하고, 이때의 x 와 y 를 충돌쌍이라 한다. 6 충돌회피성은 이러한 충돌쌍을 찾는 것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을 완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 해시 함수의 일방향성과 충돌회피성

- * 해시 함수가 일방향성과 충돌회피성을 만족시키면 암호 기술로도 활용됨.
- * 일방향성: 해시 값에 대응하는 입력 데이터의 복원이 불가능
- * 충돌회피성: 특정 해시 값을 갖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 충돌: 서로 다른 데이터 x, y 에 대해서 $H(x)$ 와 $H(y)$ 가 각각 도출한 값이 동일 → 이때의 x 와 y 는 충돌쌍

4 [가] 1 해시 함수는 온라인 경매에도 이용될 수 있다. 2 예를 들어, ○○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일방향성과 충돌회피성을 만족시키는 해시 함수 G 가 모든 경매 참여자와 운영자에게 공개되어 있다고 하자. 3 이때 각 입찰 참여자는 자신의 입찰가를 감추기 위해 논스*의 해시 값과, 입찰가에 논스를 더한 것의 해시 값을 함께 게시판에 게시한다. 4 해시 값 게시 기한이 지난 후 각 참여자는 본인의 입찰가와 논스를 운영자에게 전송하고 운영자는 최고 입찰가를 제출한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한다. 5 이로써 온라인 경매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논스: 입찰가를 추측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입찰가에 더해지는 임의의 숫자.

4 온라인 경매에 이용되는 해시 함수

* 온라인 경매의 해시 함수: 보안상 문제점 해결

〈일방향성과 충돌회피성을 만족시키는 해시 함수 G 공개〉 → 〈참여자는 자신의 입찰가를 감추기 위해 논스의 해시 값과, 입찰가에 논스를 더한 것의 해시 값을 함께 게시〉 → 〈해시 값 게시 기한이 지난 후 각 참여자는 본인의 입찰가와 논스를 운영자에게 전송하고 운영자는 최고 입찰가를 제출한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

3

1 * 암호 기술의 필수 조건: 일방향성과 충돌회피성처럼 꼭, 반드시, 절대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나 조건은 잘 체크해 두어야 한다.

2, 4 * 개념어의 정의는 대개 긍정적인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일방향성, 충돌회피성'과 같이 부정적(∼불가능하다는 것)인 서술어로 된 것들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생각해서 문제를 틀리는 수험생들이 많다.

2, 4, 6 * 부정적 진술은 밑줄× 표시가 효과적이다. (입력 데이터의 복원×,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 충돌쌍을 찾는 것×)

4

* 첫 독해 시 끝 문단 전체가 예시임을 직감했다면, 건너뛰고 바로 문제 풀이에 들어가도 좋다. 이미 글 전체의 맥락과 핵심이 다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를 풀면서 그때 읽어 가며 이해해도 늦지 않다.

5 * '~해결할 수 있다'를 통해 이전에 〈문제 사항〉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04.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44위

#이해 #선지의 핵심어

정답률 9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	② 1%	③ 90%	④ 6%	⑤ 1%

정답 풀이

③ 입력 데이터 x 를 서로 다른 해시 함수 H 와 G 에 적용한 $H(x)$ 와 $G(x)$ 가 도출한 해시 값은 언제나 동일하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해시 함수〉란 입력 데이터 x 에 대응하는 하나의 결과 값을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로 표시하는 수학적 함수이다. [1문단]

☞ (사과를 사용하면 사과 음료만 나오고 포도를 사용하면 포도 음료만 나오는 것과 같은 당연한 이치)

↳ 〈해시 함수〉 H 와 G 에 적용한 $H(x)$ 와 $G(x)$ 가 도출한 해시 값이 동일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x 를 동일한 〈해시 함수〉에 적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해시 함수〉란 입력 데이터 x 에 대응하는 하나의 결과 값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H = G \rightarrow H(x) = G(x)$ 이다. 하지만 선지 ③은 서로 다른 해시 함수 H 와 G 에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H(x)$ 와 $G(x)$ 가 도출한 해시 값은 서로 다르다. ☞ 비유하자면 데이터를 각각 사과와 포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각각의 음료는 포도 음료, 사과 음료로 서로 다름.

비슷한 부적절 선지 유형 응용 [2016 수능]

* A(10km), B(20km)는 각각 일정한 속도로 달림.

→ A, B는 각각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이지 동일한 속도로 달리는 것은 아님.

패턴 공략

▶ 선지에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 '모두', '완전히', '언제나' 등의 어휘가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에서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답 풀이

① 전자 화폐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해시 함수가 이용될 수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예를 들어 1)〈전자 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2)〈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화폐 거래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1문단]

↳ 〈전자 화폐〉1)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해시 함수〉가 이용될 수 있다.2)

② 특정한 해시 함수는 하나의 입력 데이터로부터 두 개의 서로 다른 해시 값을 도출하지 않는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 특정한 〈해시 함수〉는 하나의 입력 데이터로부터 두 개의

서로 다른 해시 값을 도출하지 않고 하나의 결과 값1)을 도출한다.

비유하자면 데이터로 사과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과 음료만 나옴.

④ 입력 데이터 x, y 에 대해 특정한 해시 함수 H 를 적용한 $H(x)$ 와 $H(y)$ 가 도출한 해시 값의 문자열의 길이는 언제나 동일하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현재 여러 해시 함수가 이용되고 있는데, 해시 값을 표시하는 〈문자열의 길이〉는 각 해시 함수마다 다를 수 있지만 1)특정 해시 함수에 서의 2)그 길이는 고정되어 있다. [1문단]

↳ 입력 데이터 x, y 에 대해 특정한 해시 함수1) H 를 적용한 $H(x)$ 와 $H(y)$ 가 도출한 해시 값의 〈문자열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동일2)하다.

⑤ 발신자가 자신과 특정 해시 함수를 공유하는 수신자에게 어떤 전자 문서와 그 문서의 해시 값을 전송하면 수신자는 그 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가령, 1)상호 간에 동일한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고 할 때, 전자 문서와 그 문서의 해시 값을 함께 전송하면 상대방은 수신한 전자 문서에 동일한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결과 값을 얻은 뒤 전송받은 해시 값과 비교함으로써 2)문서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문단]

↳ 발신자가 자신과 특정 해시 함수를 공유1)하는 수신자에게 어떤 전자 문서와 그 문서의 해시 값을 전송하면 수신자는 그 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2)할 수 있다.

1등급 가이드

♣ 선지의 핵심어를 빨리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

- ① 전자 화폐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해시 함수〉가 이용될 수 있다.
- ② 특정한 〈해시 함수〉는 하나의 입력 데이터로부터 두 개의 서로 다른 해시 값을 도출하지 않는다.
- ③ 입력 데이터 x 를 서로 다른 〈해시 함수〉 H 와 G 에 적용한 $H(x)$ 와 $G(x)$ 가 도출한 해시 값은 언제나 동일하다.
- ④ 입력 데이터 x, y 에 대해 특정한 해시 함수 H 를 적용한 $H(x)$ 와 $H(y)$ 가 도출한 해시 값의 〈문자열의 길이〉는 언제나 동일하다.
- ⑤ 발신자가 자신과 특정 해시 함수를 공유하는 수신자에게 어떤 전자 문서와 그 문서의 해시 값을 전송하면 수신자는 그 〈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지문에서 각각의 핵심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 부분을 신속히 찾을 것.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는 최대한 시간 낭비 없이 신속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05.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82위

#추론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2%	① 82%	② 3%	③ 2%	④ 5%	⑤ 8%

정답 풀이

① ㉠을 지닌 특정 해시 함수를 전자 문서 x, y에 각각 적용하여 도출한 해시 값으로부터 x, y를 복원할 수 없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일방향성>이란 1)주어진 해시 값에 대응하는 2)입력 데이터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특정 해시 값 k가 주어졌을 때 $H(x)=k$ 를 만족시키는 x를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3문단]

↳ ㉠(<일방향성>)을 지닌 특정 해시 함수를 전자 문서 x, y에 각각 적용하면 <일방향성>의 해시 값1)이기 때문에 도출한 해시 값으로부터 x, y를 복원할 수 없다.2)

▶ 추론 문제이지만 거의 단순 일치형으로 문제 수준이 낮다.

오답 풀이

② 입력 데이터 x, y에 특정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도출한 문자열의 길이가 같은 것은 해시 함수의 ㉠ 때문이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해시 값을 표시하는 문자열의 길이는 각 해시 함수마다 다를 수 있지만 1)특정 해시 함수에서의 그 (문자열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다. [1문단]
- 2)<일방향성>이란 주어진 해시 값에 대응하는 입력 데이터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3문단]

↳ 입력 데이터 x, y에 특정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도출한 문자열의 길이가 같은 것1)은 ㉠(<일방향성>)2)과 상관없이 갖는 원래의 해시 함수의 특징이다.

x와 y에서 각각 도출된 문자열의 길이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x에서 도출된 문자열의 길이는 모두 같으며 마찬가지로 y에서 도출된 문자열의 길이도 모두 같다.

패턴 공략

▶ 지문: A와 B는 상관없음. → 부적절 선지: A와 B는 상관있음.

♣ 비슷한 부적절 선지 유형 응용 [2016 수능]

* A(10km), B(20km)는 각각 일정한 속도로 달림.

→ A, B는 각각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이지 동일한 속도로 달리는 것은 아님.

③ ㉠을 지닌 특정 해시 함수를 전자 문서 x, y에 각각 적용하여 도출한 해시 값의 문자열의 길이는 서로 다르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해시 값을 표시하는 문자열의 길이는 각 해시 함수마다 다를 수 있지만 1)특정 해시 함수에서의 그 (문자열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다. [1문단]
- 2)<충돌회피성>이란 특정 해시 값을 갖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문단]

↳ ㉠(<충돌회피성>)2)과는 상관없이, 특정 해시 함수를 전자 문서 x, y에 각각 적용하여 도출한 해시 값의 문자열의 길이는 같다.1)

패턴 공략

▶ 지문: A와 B는 상관없음. → 부적절 선지: A와 B는 상관있음.

④ 입력 데이터 x, y에 특정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도출한 해시 값이 같은 것은 해시 함수의 ㉠ 때문이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충돌회피성>이란 특정 해시 값을 갖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서로 다른 데이터 x, y에 대해서 H(x)와 H(y)가 각각 도출한 값이 동일하면 이것을 <충돌>이라 하고, [3문단]

지문 POINT

- * <충돌회피성>: 특정 해시 값을 갖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 <충돌>: 입력 데이터 x, y에 특정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도출한 해시 값이 같은 것.

↳ ㉠(<충돌회피성>)은 <충돌>의 결과물에 대한 것이지 <충돌>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충돌회피성>) 때문에 입력 데이터 x, y에 특정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도출한 해시 값이 같아지는 것1)이 아니다.

패턴 공략

▶ 지문: A 먼저 B 다음 → 부적절 선지: B 먼저(원인)+A 다음(결과)
* 인과 관계가 아닌데, 인과 관계인 척하는 부적절 선지는 출제자들이 좋아 해서 자주 활용하는 요소이다.

⑤ 입력 데이터 x, y에 대해 ㉠과 ㉡을 지닌 서로 다른 해시 함수를 적용하였을 때 도출한 결과 값이 같으면 이를 충돌이라고 한다.

[선지 ④의 근거 지문 참고]

↳ <충돌>은 서로 다른 해시 함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적용하여 동일한 해시 함수 값을 도출1)하는 것이다.

06.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11위

#공통 선지의 법칙 #보기 제시 #이해 #사례 #3점

정답률 85%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	② 85%	③ 4%	④ 4%	⑤ 5%

정답 풀이

② 운영자는 해시 값을 게시하는 기한이 마감되기 전에 최고가 입찰자를 알 수 없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때 각 1)입찰 참여자는 자신의 입찰가를 감추기 위해 논스의 해시 값과, 입찰가에 논스를 더한 것의 해시 값을 함께 게시판에 게시한다. 2)해시 값 게시 기한이 지난 후 각 참여자는 본인의 입찰가와 논스를 운영자에게 전송하고 운영자는 3)최고 입찰가를 제출한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한다. [끝 문단]

• <보기>

A, B의 입찰가와 해시 값은 다음과 같다. 단, 입찰 참여자는 논스를 임의로 선택한다. (→ 입찰가를 감추기 위함.)

↳ 입찰 참여자는 자신의 입찰가를 감추기1) 때문에 운영자는 해시 값을 게시하는 기한이 마감되기 전에 최고가 입찰자를 알 수 없고 해시 값 게시 기한이 지난 후에2) 최고 입찰가를 제출한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한다.3)

X 오답 풀이

① A는 a, r, m 모두를 게시 기한 내에 운영자에게 전송해야 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때 각 입찰 참여자는 1)자신의 입찰가를 감추기 위해 논스의 해시 값과, 입찰가에 논스를 더한 것의 해시 값을 함께 게시판에 게시한다. 2)해시 값 게시 기한이 지난 후 각 참여자는 본인의 <입찰가>와 논스를 운영자에게 전송하고 운영자는 최고 입찰가를 제출한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한다. [끝 문단]

↳ A는 r(해시 값), m(입찰가 + 논스의 해시 값)을 게시 기한 내에 게시판에 게시1)하지만 a(입찰가)는 게시 기한이 지난 후에 운영자에게 전송한다.2)

③ m과 n이 같으면 r과 s가 다르더라도 A와 B의 입찰가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 m과 n이 같더라도 r과 s가 다르면 A와 B의 입찰가도 달라진다. A와 B의 입찰가가 같기 위해서는 m과 n뿐만 아니라 r과 s도 같아야 한다. 왜냐하면, $\langle a = m - r / b = n - s \rangle$ 이기 때문이다.

④ A와 B 가운데 누가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였는지는 r과 s를 비교하여 정할 수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때 각 입찰 참여자는 1)자신의 입찰가를 감추기 위해 논스*의 해시 값과, 2)입찰가에 논스를 더한 것의 해시 값을 함께 게시판에 게시한다. [끝 문단]

*논스: 입찰가를 추측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입찰가에 더해지는 임의의 숫자.

↳ 논스의 해시 값(r, s)은 입찰가를 감추기 위해 사용한 것1)이므로 이를 비교하더라도 입찰가는 알 수 없다.

⑤ B가 게시판의 m과 r을 통해 A의 입찰가 a를 알아낼 수도 있으므로 게시판은 비공개로 운영되어야 한다.

[선지 ④의 근거 지문 참고]

↳ <논스>는 입찰가를 추측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입찰가에 더해지는 임의의 숫자2)이기 때문에 B가 게시판의 m과 r을 통해 A의 입찰가 a를 알아낼 수 없다. 따라서 게시판은 비공개로 운영될 필요가 없다.

★ 공통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위 문제의 선지 ①, ②는 '게시 기한 전에'와 관련된 말이 공통으로 있다.

① ~게시 기한 내에 운영자에게 전송해야 한다. (매력 오답)

② ~게시하는 기한이 마감되기 전에 최고가~ (☆정답)

그래서 지문 및 문제와 상관없이 선지 ①, ②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07 ~ 09 지문 인식 시스템

1 지문(指紋)은 손가락의 진피로부터 땀샘이 표피로 융기되어 일정한 흐름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숫아오른 부분을 융선, 파인 부분을 골이라고 한다. 2지문은 진피 부분이 손상되지 않는 한 평생 변하지 않는다. 3이 때문에 홍채, 정맥, 목소리 등과 함께 지문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생체 정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 신원 확인에 이용되는 지문

- * 지문: 손가락의 진피로부터 땀샘이 표피로 융기된 일정한 모양
- 융선: 숫아오른 부분, 골: 파인 부분
-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생체 정보로 사용

2 1지문 인식 시스템은 등록된 지문과 조회하는 지문이 동일한 지 판단함으로써 신원을 확인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이다. 2지문을 등록하거나 조회하기 위해서는 지문 입력 장치를 통해 지문의 융선과 골이 잘 드러나 있는 지문 영상을 얻어야 한다. 3지문 입력 장치는 손가락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를 얻는데, 이때 지문의 융선은 접촉면과 닿게 되고 골은 닿지 않는다. 4따라서 지문 입력 장치의 융선과 골에 대응하는 빛의 세기, 전하량, 온도와 같은 물리량에 차이가 발생한다.

2 지문 인식 시스템의 원리

- * 지문 인식 시스템: 지문의 동일성을 판단함으로써 신원을 확인
- ▶ 지문의 융선과 골이 잘 드러나야 지문 등록과 조회가 쉬움.
- 빛의 세기, 전하량, 온도와 같은 물리량에 차이가 발생

1

1

* 'A(진피)로부터 B(표피)로': 출발-A(진피), 목적-B(표피) 이 둘을 바꿔치기한 잘못된 선지가 자주 가공된다.

2~3

* <원인+결과>의 구성. 국어 공부에서 <원인+결과>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2-3~4도 마찬가지로]

2

3

* (~닿게 되고) ↔ (~닿지 않는다)

문장 안에서 대립적인 서술어가 나타나면 해당 주체(융선 vs 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 '빛의 세기', '전하량', '온도'와 같은 상대적 요소에 따라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1㉠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는 조명 장치, 프리즘, 이미지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2 프리즘의 반사면에 손가락을 고정시키면 용선 부분에 묻어 있는 습기나 기름이 반사면에 얇은 막을 형성한다. 3 조명에서 나와 얇은 막에 입사된 빛은 굴절되거나 산란되어 약해진 상태로 이미지 센서에 도달한다. 4 굴 부분은 반사면에 닿아 있지 않으므로 빛이 굴절, 산란되지 않고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한다. 5 이미지 센서는 빛의 세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지문 영상을 만든다. 6 이 장치는 지문이 있는 부위에 땀이나 기름기가 적은 건성 지문인 경우에는 온전한 지문 영상을 획득하기 어렵다.

3 지문 입력 장치의 종류와 특징 ①

*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 조명 장치, 프리즘, 이미지 센서로 구성

- ㄱ. 프리즘 반사면에 손가락 고정
- ㄴ. ① 용선의 습기나 기름이 반사면에 얇은 막을 형성 → 조명에서 나온 빛이 굴절/산란○ → 약해진 상태로 센서에 도달
- ② 굴에서의 빛은 굴절/산란× →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
- ㄷ. 이미지 센서는 빛의 세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지문 영상을 만든다.

4 1㉠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미세한 정전형 센서들을 촘촘하게 배치한 판을 사용한다. 2 이 판에는 전기가 흐르고 각 센서마다 전하가 일정하게 충전되어 있다. 3 판에 손가락이 닿으면 전하가 방전되어 센서의 전하량이 줄어든다. 4 이때 용선이 접촉된 센서와 그렇지 않은 센서는 전하량에 차이가 생기는데, 각 센서의 전하량을 변환해 지문 영상을 얻는다.

4 지문 입력 장치의 종류와 특징 ②

*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 각 센서마다 전하가 일정하게 충전되어 있음. → 판에 손가락이 닿으면 전하가 방전 → 센서의 전하량이 줄어듦. → 용선이 접촉된 센서와 그렇지 않은 센서의 전하량에 차이가 생긴. → 각 센서의 전하량을 변환 → 지문 영상을 얻음.

3

1

- * '~식 지문 입력 장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또 다른 '~식의 지문 입력 장치'도 나올 것임을 예상하고 비교해 보면서 읽어 나가야 한다.
- * 기술 지문의 문단 첫 문장에서 주체의 구성 요소가 나열되면, 해당 요소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자. 그러면,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의 경계를 구분하기 쉽다. [6-1도 마찬가지로]
- * '~로 구성되어 있다'를 통해 기술 지문에서 구성 요소(조명 장치, 프리즘, 이미지 센서)가 나열되면 요소별로 내용이 전개되기 마련이다. 해당 요소가 나오면 반드시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각 요소의 역할이나 위치 등을 뒤바꾼 선지가 자주 출제된다.

4

- * '~닿아 있지 않으므로~산란되지 않고'처럼 한 문장 내에서 부정 서술어가 연달아 나오면 해석에 주의하자!

5

- * 'A(빛의 세기-변화 전)를 B(디지털 신호-변화 후)로 변환'의 경우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뒤바꾼 잘못된 선지가 자주 출제된다.

4

1

- * 이전 문단과는 다른 장치가 문단 처음에 소개된 것으로 보아, 각 지문별로 다른 장치가 각각 소개되고 서로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4

- * '용선이 접촉된 센서' ↔ '그렇지 않은(용선이 접촉되지 않은) 센서'처럼 대립 항이 있는 내용은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문제 요소가 된다.

5 1㉔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인체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여러 개의 작은 초전형 센서를 손가락의 폭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일렬로 배치해서 사용한다. 2이 센서는 온도가 변할 때에만 신호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3센서가 늘어선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손가락을 접촉시킨 채 이동시키면, 접촉면과 지문의 융선 사이에 마찰열이 발생하여 융선과 골에 따라 센서의 온도가 달라진다. 4이때 발생하는 미세한 온도 변화를 센서가 감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신호를 변환하여 연속적으로 저장해 지문 영상을 얻는다. 5이 장치는 다른 지문 입력 장치보다 소형화할 수 있어 스마트폰과 같은 작은 기기에 장착할 수 있다.

5 지문 입력 장치의 종류와 특징 ㉔

*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 인체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작은 초전형 센서를 일렬로 배치 → 센서가 늘어선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손가락을 접촉시킨 채 이동 → 융선과 골에 따라 센서의 온도가 달라짐. → 온도 변화를 센서가 감지하고 신호를 변환하여 연속적으로 저장 → 지문 영상을 얻음.

6 1㉔일반적으로 생체 인식 시스템에서는 '생체 정보 수집', '전처리', '특징 데이터 추출', '정합'의 과정을 거치는데 지문 인식 시스템도 이를 따른다. 2생체 정보 수집 단계는 지문 입력 장치를 사용하여 지문 영상을 얻는 과정에 해당한다. 3전처리 단계에서는 지문 형태와 무관한 영상 정보를 제거하고 지문 형태의 특징이 부각되도록 지문 영상을 보정한다. 4특징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는 전처리 단계에서 보정된 영상으로부터 각 지문이 가진 고유한 특징 데이터를 추출한다. 5특징 데이터로는 융선의 분포 유형, 융선의 위치와 연결 상태 등이 사용된다. 6정합 단계에서는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특징 데이터와 지문 조화를 위해 추출된 특징 데이터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계산한다. 7이 값이 기준치보다 크면 동일한 사람의 지문으로 판정한다.

6 생체 인식 시스템의 작동 과정

* 일반적인 생체 인식 시스템

- ㄱ. 생체 정보 수집 단계: 지문 입력 장치를 사용하여 지문 영상을 얻는 과정
- ㄴ. 전처리 단계
 - 지문 형태와 무관한 영상 정보를 제거
 - 지문 영상을 보정(지문 형태의 특징이 부각)
- ㄷ. 특징 데이터 추출 단계: 전처리 단계에서 보정된 영상으로부터 각 지문이 가진 고유한 특징 데이터를 추출
- ㄹ. 정합 단계: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특징 데이터와 지문 조화를 위해 추출된 특징 데이터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계산
 - 계산 값이 기준치보다 크면 동일한 사람으로 판정

5

2

* '온도'가 변할 때에만'처럼 다른 요인은 안 되고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오직(only) 하나의 요인(온도)만을 나타내는 내용은 다른 요인을 허락한 잘못된 선지로 자주 출제되기 마련이다.

3

* 문장이 길어 복잡하다면, 심표 이후의 후반부라도 잘 기억해 두자. '융선과 골에 따라 센서의 온도가 달라짐'. → 온도를 결정하는 변인-융선, 골

5

* (<~보다~>)처럼 다른 대상과의 비교형 표현은 정/오 판단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밑줄을 그어 주의를 기울이자.

6

1

* 기술 지문의 문단 첫 문장에서 주체의 구성 요소가 나열되면, 해당 요소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자. 그러면,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의 경계를 구분하기 쉽다.

* 문단 도입부터 과정이 나열되어 있다면, 나열된 요소별로 글이 전개된다. 경계를 두는 적절한 표시가 필요하다.

6~7

* '계산, 값, 기준치'처럼 수와 관련된 내용은 자주 출제된다.

07.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65위

#실전 풀이 TIP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94%	① 94%	② 1%	③ 3%	④ 1%	⑤ 1%

정답 풀이

①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에는 프리즘이 필요하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는 조명 장치, 프리즘, 이미지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3문단]

↳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에는 프리즘이 필요하다.

오답 풀이

② 정맥은 지문과 달리 신원 확인을 위한 생체 정보로 활용할 수 없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 때문에 홍채, 1) <정맥>, 목소리 등과 함께 지문은 2)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생체 정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문단]

↳ <정맥> 1)은 신원 확인을 위한 생체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2)

패턴 공략

▶ 지문: A는 B 하다. → 부적절 선지: A는 B 하지 못하다.

③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가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보다 소형화에 더 유리하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 장치(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1) 다른 지문 입력 장치보다 소형화할 수 있어 스마트폰과 같은 작은 기기에 장착할 수 있다. [5문단]

↳ 다른 지문 입력 장치보다 소형화할 수 있는 1) 것은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가 아니라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이다.

패턴 공략

▶ 지문: A는 B보다 C 하다. → 부적절 선지: B는 A보다 C 하다.

④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에서 반사면에 용선 모양의 얇은 막이 형성되지 않아야 온전한 지문 영상을 얻을 수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는 조명 장치, 프리즘, 이미지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프리즘의 1) 반사면에 손가락을 고정시키면 용선 부분에 묻어 있는 습기나 기름이 반사면에 얇은 막을 형성한다. ~지문 영상을 만든다. [3문단]

↳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가 지문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반사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야 한다.

패턴 공략

▶ 지문: A는 B 하다. → 부적절 선지: A는 B 하지 못하다.

⑤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에서 양호한 지문을 얻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센서에 접촉시킨 후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센서가 늘어난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1) 손가락을 (센서에) 접촉시킨 채 이동시키면, ~저장해 2) 지문 영상을 얻는다. [5문단]

↳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에서 양호한 지문을 얻기 2) 위해서는 손가락을 센서에 접촉시킨 후 이동시키어야 한다.

패턴 공략

▶ 지문: A는 B 하다. → 부적절 선지: A는 B 하지 못하다.

TIP 실전 풀이

위 문제와 같이 단순한 일치-불일치 문제는 신속하게 푸는 것이 관건이다. 먼저 선지의 주제에 적절한 메모를 해서 해당 지문을 빠르게 찾아야 한다.

- ①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에는 ~ [3문단]
- ② 정맥은 ~ [1문단]
- ③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가 ~ [4문단]
- ④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에서 ~ [3문단]
- ⑤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에서 ~ [5문단]

☞ ①, ④가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로 똑같이 때문에 먼저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으로 시작하는 3문단에 정답 혹은 오답의 근거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야 한다.

08.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28위

#실전 풀이 TIP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8%	① 7%	② 2%	③ 88%	④ 1%	⑤ 2%

정답 풀이

③ C에서는, 용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이 끝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보다 적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지문 입력 장치는 1) 손가락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를 얻는데, 이때 지문의 <용선>은 접촉면과 닿게 되고 2) <골>은 닿지 않는다. [2문단]

-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미세한 정전형 센서들을 촘촘하게 배치한 판을 사용한다. 이 판에는 전기가 흐르고 각 센서마다 전하가 일정하게 충전되어 있다. 3)판에 손가락이 닿으면 전하가 방전되어 센서의 전하량이 줄어든다. [4문단]

📖 지문 POINT

※ '용선'에 대응하는 전하량 < '골'에 대응하는 전하량

↳ <용선>은 센서의 접촉면과 닿기1) 때문에 전하가 방전되어 센서의 전하량이 줄어든다.3) 그래서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에서는, <용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이 센서의 접촉면과 닿지 않는2)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보다 적다.

Tip 실전 풀이

먼저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를 설명하고 있는 3문단에서 비교 대상인 <전하량>이 포함된 문장을 신속하게 찾는 것이 <용선>, <골>의 특징이 나온 각각의 지문을 찾는 것보다는 정답을 판단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

✕ 오답 풀이

① ㉠에서는, 용선의 위치에서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한 빛의 세기가 골의 위치에서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한 빛의 세기보다 강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는~손가락을 고정시키면 <용선> 부분에 묻어 있는 습기나 기름이 반사면에 얇은 막을 형성한다. 조명에서 나와 얇은 막에 1)입사된 빛은 굴절되거나 산란되어 약해진 상태로 이미지 센서에 도달한다. <골> 부분은 반사면에 닿아 있지 않으므로 2)빛이 굴절, 산란되지 않고 (그대로)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한다.

[3문단]

📖 지문 POINT

※ '용선'의 빛 세기 < '골'의 빛 세기

↳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에서는, <용선>의 위치에서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한 빛은 굴절 혹은 산란되어 세기가 약해진다.1) 그래서 <골>의 위치에서 그대로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2)한 빛의 세기보다 약하다.

② ㉠에서는, 용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이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과 같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이때 1)용선이 접촉된 센서와 그렇지 않은(→ '골'도 포함) 센서는 전하량에 차이가 생기는데,

[4문단]

📖 지문 POINT

※ <용선>에 대응하는 전하량 ≠ <골>에 대응하는 전하량

↳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에서는, <용선>에 대응하는 센서와 그렇지 않은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은 차이가 있다.1)

최선의 조언

두 대상의 <전하량>이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의 전하량이 큰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

항상 정/오 판단의 근거를 최소화해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실제 수능에서는 1초라도 아껴 써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 풀이가 시급하다.

④ ㉠에서는, 용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가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 같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센서가 늘어난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손가락을 접촉시킨 채 이동시키면, 접촉면과 지문의 용선 사이에 마찰열이 발생하여 1)<용선>과 <골>에 따라 센서의 온도가 달라진다. [5문단]

📖 지문 POINT

※ <용선>에 대응하는 센서 온도 ≠ <골>에 대응하는 센서 온도

↳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에서는, <용선>과 <골>에 따라 센서의 온도가 달라지기1) 때문에 선지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⑤ ㉠에서는, 용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가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보다 낮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지문은 손가락의 진피로부터 땀샘이 표피로 뭉기되어 일정한 흐름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1)솟아오른 부분을 <용선>, 파인 부분을 <골>이라고 한다. [1문단]

-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센서가 늘어난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손가락을 접촉시킨 채 이동시키면, 접촉면과 지문의 2)<용선> 사이에 마찰열이 발생하여 <용선>과 <골>에 따라 센서의 온도가 달라진다. [5문단]

📖 지문 POINT

※ '용선'에 대응 센서 온도 > '골'에 대응 센서 온도

↳ <용선>은 솟아오른 부분1)으로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에서, 마찰열2)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보다 높다.

09.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61위

#보기 제시 #3점

정답률 8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6%	② 8%	③ 5%	④ 80%	⑤ 1%

✓ 정답 풀이

④ [특징 데이터 추출] 홍채 근육에 의해 동공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홍채에서 동공이 차지하는 비율을 특징 데이터로 추출해야 하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지문은 1)손가락의 진피로부터 땀샘이 표피로 용기되어 일정한 흐름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솟아오른 부분을 <용선>, [1문단]
- <특징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는 전처리 단계에서 보정된 영상으로부터 2)각 지문이 가진 고유한 특징 데이터를 추출한다. <특징 데이터>로는 용선의 분포 유형, 용선의 위치와 연결 상태 등이 사용된다. [끝 문단]
- <보기>
홍채에는 3)불규칙한 무늬가 있는데, 두 사람의 홍채 무늬가 같을 확률은 대략 20억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다.
→ 사람마다 각기 다른 불규칙한 무늬가 있다고 보아도 무방

↳ 손가락의 <용선>은 진피로부터 땀샘이 표피로 용기되어 일정한 흐름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의 솟아오른 부분1)으로 사람마다 다르다. 즉,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의 용선 분포와 위치 연결 상태가 있으며 이것이 생체 인식 시스템에서 특징 데이터로 추출된다.2) 이러한 <특징 데이터>를 <보기>에 적용하면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홍채의 <불규칙한 무늬>가 이에 해당3)한다.

<홍채에서 동공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구별해 주는 <특징 데이터>로 적절하지 않다.

X 오답 풀이

① [생체 정보 수집] 홍채의 바깥에 각막이 있으므로 홍채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지문 입력 장치와 달리, 홍채 입력 장치와 홍채가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생체 정보 수집> 단계는 지문 입력 장치를 사용하여 지문 영상을 얻는 과정에 해당한다. [끝 문단]
- <지문 입력 장치>는 1)손가락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를 얻는데, 이때 지문의 용선은 접촉면과 닿게 되고 끝은 닿지 않는다. [2문단]
- <보기>
홍채는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있는 근육 막으로, 빛을 통과시키는 구멍인 동공을 둘러싸고 있다.

↳ 홍채의 바깥에 각막이 있으므로 홍채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지문 입력 장치>가 손가락을 직접 접촉하는 것1)과는 달리, 홍채 입력 장치와 홍채가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야만 홍채를 둘러싸고 있는 각막이 손상되지 않는다.

각막이 홍채의 안쪽이 아닌, 바깥에 있다는 사실은 <보기>를 통해 알 수 없고 선지 ①에 언급된 사실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전제된 사실이기 때문에 각막이 홍채의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따져 보는 것은 불필요하다.

② [전처리] 생체 정보 수집 단계에서 얻은 영상에서 홍채의 불규칙한 무늬가 나타난 부분만을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생체 정보 수집> 단계는 지문 입력 장치를 사용하여 지문 영상을 얻는 과정에 해당한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1)지문 형태 → <홍채의 불규칙한 무늬>와 무관한 영상 정보를 제거하고 지문 형태의 특징이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2)생체 정보 수집 단계에서 얻은 지문 영상을 보정한다. [끝 문단]

↳ 사람마다 각기 다른 고유의 지문 형태가 <보기>에서는 홍채의 <불규칙한 무늬>에 해당한다. 그래서 생체 정보 수집 단계에서 얻은 영상에서 불필요한 것은 빼고1) 지문 형태와 같은 홍채의 <불규칙한 무늬>가 나타난 부분만을 분리하여 부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③ [전처리] 홍채의 불규칙한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생체 정보 수집 단계에서 얻은 영상을 보정해야겠군.

[선지 ②의 근거 지문 참고]

↳ [전처리] 홍채의 불규칙한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1) 생체 정보 수집 단계에서 얻은 영상을 보정2)해야 한다.

⑤ [정합] 등록된 홍채의 특징 데이터와 조회하려는 홍채의 특징 데이터 사이의 유사도를 판정하는 단계이므로 유사도의 기준치가 정해져 있어야 하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정합> 단계에서는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1)특징 데이터와 지문 조회를 위해 추출된 특징 데이터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계산한다. 이 값이 2)기준치보다 크면 동일한 사람의 지문으로 판정한다. [끝 문단]

↳ [정합] 등록된 홍채의 특징 데이터와 조회하려는 홍채의 특징 데이터 사이의 유사도를 판정1)하는 단계이므로 유사도의 기준치가2) 정해져 있어야 한다.

지문 난이도 ★★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53위

2015학년도 수능 A형 20~22

01 ~ 03 디지털 영상

1 디지털 영상은 2차원 평면에 격자 모양으로 화소를 배열하고 각 화소의 밝기인 화소값을 데이터로 저장한 것이다. 화소값은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데 0일 때 검은색으로 가장 어둡고 255일 때 흰색으로 가장 밝다. 화소들 사이의 밝기 차이를 명암 대비라 하며 명암 대비가 강할수록 영상은 선명하게 보인다. 해상도란 디지털 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수를 말하며 '가로×세로'의 화소수로 나타낸다.

1 디지털 영상과 해상도의 개념

* 디지털 영상

- 2차원 평면에 격자 모양으로 화소를 배열
- 각 화소의 밝기인 화소값을 데이터로 저장

* 화소값

-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나타냄.
- 0일 때 검은색, 가장 어둡음.
- 255일 때 흰색, 가장 밝음.

* 명암 대비

- 화소들의 밝기 차이
- 명암 대비가 강할수록 영상은 선명히 보임.

* 해상도

- 디지털 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수
- '가로×세로'의 화소수로 나타냄.

2 $1n \times n$ 개의 화소를 가진 입력 영상을 모니터에 나타내면, 모니터에 있는 $n \times n$ 개의 화소에 입력 영상의 화소들이 일대일로 대응된다. 하지만 모니터에 입력 영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나타낼 때는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니터에서 영상이 표시될 영역의 화소와 일대일 대응하는 가상 영상을 만들고 입력 영상의 화소값을 이용하여 가상 영상의 화소값을 모두 채운 다음 가상 영상을 모니터에 표시한다.

2 입력 영상을 모니터에 나타내는 방법

* $n \times n$ 개의 화소에 입력 영상의 화소들이 일대일로 대응

* 가상 영상: 입력 영상을 확대 또는 축소하였을 때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 문제점 해결

* 입력 영상의 화소값을 이용 → 가상 영상의 화소값을 모두 채움.
→ 가상 영상을 모니터에 표시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 첫 문단부터 각 문장마다 개념과 그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는데, 개념과 핵심 서술 내용을 잘 체크해 두어야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다. 이때 개념에서 피정의항은 동그라미, 정의항의 키워드는 밑줄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1

* 첫 문단, 특히 첫 문장에서 개념(디지털 영상) 설명이 있다면, 그 개념 자체가 지문 전체의 중심 화제가 되기 마련이다.

3

* '~할수록 ~하다'와 같이 비례적인 표현은 화살표로 시각화를 해 두자. 문제의 정/오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2

1, 2

* 대립 접속어(하지만)를 전후로 대립을 나타내는 핵심 부분(일대일 대응○ vs 일대일 대응×)에 밑줄을 그어 두면 맥락 파악에 도움이 된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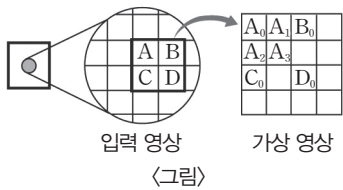
* '그런데', '그러나(하지만)' 등 전환 및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면 주의를 필요하므로 가장 눈에 띄는 세로 표시가 적절하다.

[4 - 5, 5 - 1, 6도 마찬가지로]

3

* '해결'이라는 어휘를 통해 이전 내용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먼저 파악했다면 그 뒤로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3



1 예를 들어 $n \times n$ 의 영상을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두 배씩 확대해서 모니터에 표시하려면 $2n \times 2n$ 의 가상

영상을 만들어 다음과 같이 화소값을 채운다. 2 <그림>처럼 입력 영상의 화소 A의 값을 가상 영상의 $A_0 \sim A_3$ 의 4개 화소에 그대로 복사한다. 3 나머지 화소도 이와 같이 처리하면 입력 영상을 확대한 가상 영상을 얻을 수 있다. 4 이러한 ① 확대 복사 방법은 간단하지만 $A_0 \sim A_3$ 모두가 같은 밝기로 표시되므로 윤곽선 부분의 격자 모양이 두드러져 보이는 모자이크 효과가 발생한다. 5 확대율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3 입력 영상의 화소값을 확대하는 방법 ①: 확대 복사 방법

- * 확대 복사 방법
 - 입력 영상을 그대로 복사
 - 모자이크 효과 발생
- * 모자이크 효과
 - 윤곽선 부분의 격자 모양이 두드러져 보임.
 - 확대율이 높을수록 두드러짐.

4

1 이러한 현상을 개선한 방법이 ② 선형 보간법이다. 2 이는 입력 영상의 화소 가운데 A~D는 각각 A_0, B_0, C_0, D_0 위치에만 복사하고 나머지 화소들은 인접한 화소들을 이용하여 화소값을 채우는 방법이다. 3 <그림>에서 A_3 의 화소값을 A_3 과 인접한 A_0, B_0, C_0, D_0 의 평균값으로 채우고, A_1 은 A_0 과 B_0 의 평균값으로, A_2 는 A_0 과 C_0 의 평균값으로 채우는 것이다. 4 이렇게 하면 빈 화소의 값이 인접 화소의 평균값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인접 화소들 사이의 명암 대비가 약해져서 모자이크 효과가 감소한다. 5 하지만 이 방법은 화소값을 구하기 위해 평균값을 계산해야 하므로 처리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4 입력 영상의 화소값을 확대하는 방법 ②: 선형 보간법

- * 선형 보간법
 - 입력 영상 하나만 복사
 - 나머지 화소들은 인접한 화소들을 이용하여 화소값을 채움.
 - 모자이크 효과 감소, but 처리 시간 증가

3

4

- * 한 문장이 '원인(~이므로)+ 결과'의 형태라면 원인까지를 끊어 주되 결과에 조금 더 주목하여 읽어 나가자. [4-4도 마찬가지]
- * '이', '이러한',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 가는 지시 대명사(이~, 그~)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4-1, 2, 5-2, 3도 마찬가지]

4~5

- * 대상(확대 복사 방법)의 장점(간단하지만~) 제시 후 단점(모자이크 효과)으로 마무리하는 구성이라면, 다음에 제시될 대상도 마찬가지로 (장점+단점)의 구성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 [4-4~5, 5-5~6도 동일한 구성임.]

4

1

- * '개선한 방법'이라는 말로 볼 때, 이전 문단에서 <문제 사항>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4

- * <원인+ 결과(원인+ 결과)>의 구성. 'A(원인) 때문에 B(결과)'에서 B(결과)는 '명암 대비가 약해짐.(원인)+ '모자이크 효과 감소'(결과)로 구별할 수 있다.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은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기본적인 공부에 해당한다.

5

- * '단점이 있다'를 통해 이전 내용에 '장점'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5 1) 반면, $n \times n$ 의 영상을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절반으로 축소해서 모니터에 표시하려면 $\frac{n}{2} \times \frac{n}{2}$ 의 가상 영상을 만들고 화소값을 채운다. 2) 이때 입력 영상의 화소들 중에서 가로세로 방향으로 한 칸씩 건너뛰면서 화소를 선택해 가상 영상의 화소에 복사한다. 3) 이러한 선택 복사 방법을 쓰면 입력 영상의 화소 중 표시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영상이 왜곡되어 보인다. 4) 특히 글자와 같이 가로세로 방향으로 흑백의 영역이 뚜렷이 구별되는 영상의 경우에는 글자 모양이 변한다. 5) 따라서 입력 영상의 인접한 4개의 화소값의 평균값으로 가상 영상의 하나의 화소값을 채우는 영역 축소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6) 그러나 이 방법은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이 늘어나고, 화소값을 평균값으로 채우기 때문에 명암 대비가 강한 영상의 경우 명암 대비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

5 입력 영상의 화소값을 축소하는 방법: 선택 복사 방법, 영역 축소 방법

*** 선택 복사 방법**

- 입력 영상의 화소들 중에서 가로세로 방향으로 한 칸씩 건너뛰면서 화소를 선택해 가상 영상의 화소에 복사
- 입력 영상의 화소 중 표시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영상이 왜곡
- 글자 모양 변함.

*** 영역 축소 방법**

- 입력 영상의 인접한 4개의 화소값의 평균 값으로 가상 영상의 하나의 화소값을 채움.
- 처리 시간 증가
- 명암 대비가 약해짐.

5

1~3

* <설명+개념어>의 형태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개념어+설명>보다는 인지가 잘 안 되니 개념어에 진한 동그라미나 네모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다.

3

* '왜곡되어'처럼 부정적 어휘를 <문제 사항>으로 인지했다면 이와 관련된 <해결 사항>이 나올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5~6

* '따라서~', '그러나~' 등의 중요 접속어가 첫머리로 연속된다면 문단에서 포인트가 되므로 선지 정/오 판단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01.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61위

#이해 #~할수록 #비례 관계

정답률 8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	② 1%	③ 80%	④ 10%	⑤ 6%	

✓ 정답 풀이

③ 입력 영상의 화소들이 밝을수록 가상 영상의 화소수는 많아진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 $n \times n$ 의 영상을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두 배씩 확대해서 모니터에 표시하려면 $2n \times 2n$ 의 '가상 영상'을 만들어 다음과 같이 화소값(화소수)을 채운다. [3문단]
- 2) 반면, $n \times n$ 의 영상을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절반으로 축소해서 모니터에 표시하려면 $\frac{n}{2} \times \frac{n}{2}$ 의 '가상 영상'을 만들고 화소값(화소수)을 채운다. [끝 문단]

↳ (가상 영상 화소수의 양)은 (입력 영상 화소들의 밝기)와는 상관없이 <입력 영상의 확대/축소>에 따라 많아지거나 적어진다. 즉, 입력 영상을 확대하면 처음($n \times n$)보다 가상 영상의 화소수는 $2n \times 2n$ 로 많아지고 1) 입력 영상을 축소하면 처음($n \times n$)보다 가상 영상의 화소수는 $\frac{n}{2} \times \frac{n}{2}$ 으로 적어진다. 2)

✗ 오답 풀이

① 디지털 영상의 화소값은 밝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 (화소값)은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데 2) 0일 때 검은색으로 가장 어둡고 255일 때 흰색으로 가장 밝다. [1문단]

↳ 디지털 영상의 <화소값>은 0에서 255 사이 1)의 밝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2)

② 디지털 영상의 해상도는 가로×세로의 화소수로 나타낸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해상도〉란 디지털 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수를 말하며 2)‘가로×세로’의 화소수로 나타낸다. [1문단]

↳ 디지털 영상의 〈해상도〉1)는 가로×세로의 화소수로 나타낸다. 2)

④ 디지털 영상에서 두 화소의 화소값 차이가 클수록 명암 대비가 강해진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화소값〉은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데 0일 때 검은색으로 가장 어둡고 255일 때 흰색으로 가장 밝다. 1)〈화소들 사이의 밝기 차이〉를 〈명암 대비〉라 하며 명암 대비가 강할수록 영상은 선명하게 보인다. [1문단]

↳ 두 화소의 〈화소값 차이〉가, 곧 〈화소들 사이의 밝기 차이〉이며 이것이 〈명암 대비〉에 해당한다. 1) 그래서 디지털 영상에서 두 화소의 〈화소값 차이〉가 클수록 〈명암 대비〉가 강해진다.

⑤ 영상을 확대, 축소할 때 입력 영상은 가상 영상으로 변환되어 모니터에 표시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모니터에 입력 영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나타낼 때는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다. ~2)〈가상 영상〉을 만들고 입력 영상의 화소값을 이용하여 가상 영상의 화소값을 모두 채운 다음 가상 영상을 모니터에 표시한다. [2문단]

↳ 영상을 확대, 축소할 때1) 입력 영상은 〈가상 영상〉으로 변환되어 모니터에 표시된다. 2)

02.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27위

#대립 선지의 법칙 #비교 선지의 법칙 #적용 결과

정답률 7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6%	② 74%	③ 8%	④ 8%	⑤ 4%

정답 풀이

② ㉠을 적용하면 A값과 C값의 차이가 2보다 클 때, A₀값과 A₂값은 차이가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입력 영상의 1)화소 A의 값을 가상 영상의 A₀~A₃의 4개 화소에 그대로 복사한다. ~이러한 ㉠‘확대 복사 방법’ [3문단]

↳ ㉠(확대 복사 방법)의 A₀~A₃값은 입력 영상의 화소 A값을 그대로 동일하게 복사한 것1)이기 때문에 처음의 A = A₀ = A₁ = A₂ = A₃이 된다. 그래서 A값과 C값의 차이에 상관없이 A₀값과 A₂값은 차이가 없다.

X 오답 풀이

① ㉠을 적용하면 A값과 B값의 차이가 없을 때, A₁값과 B₀값은 차이가 없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입력 영상의 1)화소 A의 값을 가상 영상의 A₀~A₃의 4개 화소에 그대로 복사한다. ~이러한 ㉠‘확대 복사 방법’ [3문단]

↳ ㉠(확대 복사 방법)을 적용하면, A는 그대로 A₀~A₃에 복사되어 A = A₁이 되고, B는 그대로 B₀~B₃에 복사되어 B = B₀이 된다. 1) 그래서 A값과 B값의 차이가 없을 때, 그대로 복사된 A₁값과 B₀값도 차이가 없다.

③~⑤ 동시 해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러한 현상을 개선한 방법이 ㉡(선형 보간법)이다. 이는 1)입력 영상의 화소 가운데 A~D는 각각 A₀, B₀, C₀, D₀위치에만 (그대로) 복사하고 나머지 화소들은 인접한 화소들(평균값을) 이용하여 화소값을 채우는 방법이다. (그림)에서 A₃의 화소값을 A₃과 인접한 A₀, B₀, C₀, D₀의 평균값으로 채우고, A₁은 A₀과 B₀의 평균값으로, A₂는 A₀과 C₀의 평균값으로 채우는 것이다. [4문단]

③ ㉡을 적용하면 A값과 C값의 차이가 없을 때, A₀값과 A₂값은 차이가 없다.

↳ ㉡(선형 보간법)을 적용하면, A, C의 값은 각각 A₀, C₀에 그대로 복사되고 A₂는 A₀과 C₀의 평균값으로 채우게 된다. 1) 따라서 A, C의 값이 차이가 없다면, 즉 동일하다면 A = A₀ = C = C₀이고 A₀과 C₀의 평균값으로 채워지는 A₂와도 차이가 없다.

④ ㉡을 적용하면 A값과 B값의 차이가 2보다 클 때, A₀값과 A₁값은 차이가 있다.

↳ ㉡(선형 보간법)을 적용하면, A, B의 값은 각각 A₀, B₀에 그대로 복사되고 A₁은 A₀과 B₀의 평균값으로 채우게 된다. 1) 따라서 A, B의 값이 차이가 2보다 클 때, 그대로 복사된 A₀, B₀의 값의 차이도 2보다 크고 A₀값과 B₀값으로 채워지는 A₁값과 A₀값은 차이가 있다.

⑤ ㉡을 적용하면 A값~D값이 모두 같을 때, A₃값은 인접한 화소의 화소값과 차이가 없다.

↳ ㉡(선형 보간법)을 적용하면, A~D의 동일한 값은 각각 A₀~D₀에 동일하게 그대로 복사되어 A₀ = B₀ = C₀ = D₀이 되어 인접한 화소값의 평균으로 구해지는 A₃ 역시 동일하게 차이가 없다. 1)

★ 대립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6쪽 참고)

* 위 문제는 선지 ②, ③이 A₀값과 A₂값의 차이에 대해 긍정/부정으로 서로 대립이다.

- ② ~ A₀값과 A₂값은 차이가 있다. (☆정답)
- ③ ~ A₀값과 A₂값은 차이가 없다.

지문 및 발문과 상관없이 선지 ②, ③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03.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98위

#3점 #보기 제시 #그러나 다음 정답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4%	① 3%	② 3%	③ 84%	④ 6%	⑤ 4%

✓ 정답 풀이

③ ⑥에서 '영역 축소 방법'을 이용하면 정삼각형의 윤곽선 부분은 명암 대비가 강해진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두 배 확대한 가상 영상을 만들어 모니터에 표시
 -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절반으로 축소한 가상 영상을 만들어 모니터에 표시
- 따라서 입력 영상의 인접한 4개의 화소값의 평균값으로 가상 영상의 하나의 화소값을 채우는 <영역 축소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방법(영역 축소 방법)은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이 늘어나고, 화소값을 평균값으로 채우기 때문에 명암 대비가 강한 영상의 경우 1)명암 대비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 [끝 문단]

↳ ⑥에 <영역 축소 방법>을 이용하면 정삼각형의 윤곽선 부분은 명암 대비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암 대비가 약해진다.1)

🔍 패턴 공략

▶ 잘못된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에서, 반대(그러나)의 맥락 이후의 문장이 선지의 정/오 판단에 많이 활용된다.

✗ 오답 풀이

① ⑥에서 '확대 복사 방법'을 이용하면 입력 영상에 비해 모자이크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러한 <확대 복사 방법>은 간단하지만 A₀~A₃ 모두가 같은 밝기로 표시되므로 1)윤곽선 부분의 격자 모양이 두드러져 보이는 <모자이크 효과>가 발생한다. [3문단]

↳ ①에서 <확대 복사 방법>을 이용하면 입력 영상에 비해 <모자이크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1)

② ②에서는 '선형 보간법'을 이용하는 것이 '확대 복사 방법'을 이용할 때보다 처리 시간이 길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러한 현상을 개선한 방법이 <선형 보간법>이다.~하지만 이 방법은 화소값을 구하기 위해 평균값을 계산해야 하므로 1)처리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4문단]

↳ ①에서는 <선형 보간법>을 이용하는 것이 '확대 복사 방법'을 이용할 때보다 처리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1)

④ ④에서 '선택 복사 방법'을 이용하면 입력 영상의 화소들 중 일부가 표시되지 않는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러한 1)<선택 복사 방법>을 쓰면 입력 영상의 화소 중 표시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영상이 왜곡되어 보인다. [끝 문단]

↳ ①에서 <선택 복사 방법>을 이용하면 입력 영상의 화소들 중 일부가 표시되지 않는다.1)

⑤ ⑤와 ⑥에서 각각 만들어지는 가상 영상들의 화소수는 서로 다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두 배 확대한 가상 영상을 만들어 모니터에 표시
 -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절반으로 축소한 가상 영상을 만들어 모니터에 표시
- 예를 들어 n×n의 영상을 가로세로 방향으로 1)각각 두 배씩 확대해서 모니터에 표시하려면 2n×2n의 가상 영상을 만들어 다음과 같이 화소값을 채운다. [3문단]
- 반면, n×n의 영상을 가로세로 방향으로 2)각각 절반으로 축소해서 모니터에 표시하려면 $\frac{n}{2} \times \frac{n}{2}$ 의 가상 영상을 만들고 화소값을 채운다. [끝 문단]

↳ ①처럼 입력 영상을 각각 2배 확대하면 처음(n×n)보다 가상 영상의 화소수는 <2n×2n>으로 많아지고1) 입력 영상을 각각 축소하면 처음(n×n)보다 가상 영상의 화소수는 < $\frac{n}{2} \times \frac{n}{2}$ >으로 적어진다.2) 그러므로 ⑤와 ⑥에서 각각 만들어지는 가상 영상들의 화소수는 서로 다르다.

04 ~ 06 CPU 스케줄링

1 우리는 컴퓨터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문서를 작성할 때 두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짧은 시간 간격으로 그 프로그램들이 번갈아 실행되고 있다. **3** 이는 컴퓨터 운영 체제의 일부인 CPU(중앙 처리 장치) 스케줄링 때문이다. **4**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컴퓨터 운영 체제는 실행할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저장하고 실행 대기 프로그램의 목록인 '작업큐'에 등록한다. **5** 운영 체제는 실행할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업큐에서 선택하여 CPU에서 실행하고 실행이 종료되면 작업큐에서 지운다.

1 CPU(중앙 처리 장치) 스케줄링을 통한 프로그램의 실행

- * CPU 스케줄링(→ 프로그램 번갈아 실행) 과정
 - ㄱ. 실행할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저장
 - ㄴ. 실행 대기 프로그램의 목록인 '작업큐'에 등록
 - ㄷ. 실행할 프로그램을 작업큐에서 선택하여 CPU에서 실행
 - ㄹ. 실행이 종료되면 작업큐에서 지움.

2 한 개의 CPU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실행할 수 있다. **2** 그러면 A와 B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 프로그램은 실행을 요청한 순서대로 작업큐에 등록되고 이 순서에 따라 A와 B는 차례로 실행된다. **4** 이때 A의 실행 시간이 길어지면 B가 기다려야 하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므로 동시에 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5** 그러나 A와 B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번갈아 실행하면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2 CPU 스케줄링의 원리

- *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
 - ㄱ. 프로그램은 실행을 요청한 순서대로 작업큐에 등록
 - ㄴ. 등록 순서에 따라 차례로 실행
 - ㄷ.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번갈아 실행
-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임.

1

2~3

* <결과 + 원인>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국어 공부에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것은 논리를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유의해서 본다.

4~5

* 기술 지문에서 과정 순서(주기억 장치에 저장 → 작업큐에 등록)는 문제 화될 가능성이 높으니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2

1

* '한 개의', '한 번에', '하나의'처럼 <수나 순서와 관련된 말>은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으니 체크해 둔다.

2

*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방법이나 과정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전 독해는 예측의 연속이다. 예측을 하고 다음 내용을 만나는 것과 그냥 준비 없이 만나는 것은 독해의 정확성과 속도 면에서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항상 예측하면서 읽는 습관을 갖자.)

4

* 개념이 항상 'A는 B이다.'의 형태를 띠는 것은 아니다. 'A의 실행 시간이 길어지면 B가 기다려야 하는 대기 시간'과 같은 <서술 + 개념어>의 형태도 잘 체크해 두어야 한다.

5

* 해석 주의: 'A하는 것처럼 보인다.' → 실제로 A하는 것은 아님!

3 이를 위해서 CPU의 실행 시간을 여러 개의 짧은 구간으로 나누어 놓고 각각의 구간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한다. **2** 여기서 한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구간 실행**이라 하며, 각각의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간을 **구간 시간**이라고 하는데 구간 시간의 길이는 일정하게 정한다. **3A**와 **B**의 구간 실행은 원칙적으로 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번갈아 반복되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이 먼저 종료되면 나머지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된다.

3 CPU 스케줄링의 과정 ①: 구간 실행

- * CPU의 실행 시간을 여러 개의 짧은 구간으로 나누어 놓고 각각의 구간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함.
- * **구간 실행**: 한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실행
- * **구간 시간**: 각각의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간(일정하게 정함.)

4 한편, 어떤 프로그램의 구간 실행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프로그램은 **작업큐에서 대기**한다. **2A**의 구간 실행이 끝나면 **A**의 실행이 정지되고 다음번 구간 시간 동안 실행할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3** 이때 **A**가 정지한 후 **B**의 실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교체 시간**이라고 하는데 **교체 시간은 구간 시간에 비해 매우 짧다**. **4** 교체 시간에는 그때까지 실행된 **A**의 상태를 저장하고 **B**를 실행하기 위해 **B**의 이전 상태를 가져온다. **5** **그뿐만 아니라 같은 프로그램이 이어서 실행되더라도 운영 체제가 다음에 실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을 판단해야 하므로 구간 실행 사이에는 반드시 교체 시간이 필요하다**.

4 CPU 스케줄링의 과정 ②: 교체 시간
(한 프로그램은 구간 실행 진행 + 다른 프로그램은 작업큐에서 대기)

- * **교체 시간**: 구간 실행이 끝나고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 구간 실행 사이에는 반드시 교체 시간이 필요
 - 교체 시간 < 구간 시간

3

1
* '~실행되도록 한다'를 통해 과정이나 방법 등이 이미 나왔거나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
* '구간 실행', '구간 시간'처럼 대립 항은 아니지만 비슷한 용어가 나오면 정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4

3
* '비해~', '비례하여~'와 같은 표현은 두 대상의 위치를 바꿔치기한 부정적 선지가 자주 만들어진다. [**7**-1('비례하여~')도 마찬가지]

2
* '실행이 정지되고 다음번~'처럼 과정의 선후 위치를 헷갈리면 안 된다.

5
* '반드시 교체 시간이 필요하다.'처럼 절대성과 관련된 말(반드시)이 나타나면, 이를 부정하는 잘못된 선지가 출제되기도 한다.

5 하나의 프로그램이 작업큐에 등록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총처리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순수하게 프로그램의 실행에만 소요된 시간인 **총실행 시간**에 **교체 시간**과 작업큐에서 실행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을 모두 합한 것이다. **2** 총실행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구간 실행 횟수가 많아져서 **교체 시간의 총합은 늘어난다**. **3** 그러나 **총실행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짧거나 같은** 프로그램은 한 번의 구간 시간 내에 종료되고 곧바로 다음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5 CPU 스케줄링의 과정 ③: 총처리 시간

- * **총처리 시간**: 프로그램이 <작업큐에 등록~종료>의 시간 = <총실행 시간+교체 시간+대기 시간>
- * **총실행 시간 > 구간 시간**: 구간 실행 횟수가 많아져서 교체 시간의 총합은 늘어남.
- * **총실행 시간 ≤ 구간 시간**: 한 번의 구간 시간 내에 종료되고 바로 다음 프로그램이 실행됨.

6 **1**이제 프로그램 A, B, C가 실행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2**A가 실행되고 있고 B가 작업큐에서 대기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C를 실행할 경우, C는 B 다음에 등록되므로 A와 B의 구간 실행이 끝난 후 C가 실행된다. **3**A와 B가 종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구간 실행이 필요하면 작업큐에서 C의 뒤로 다시 등록되므로 C, A, B의 상태가 되고 결과적으로 세 프로그램은 등록되는 순서대로 반복해서 실행된다.

6 프로그램 실행 예시

- * 프로그램 A, B, C가 실행되는 예시

7 **1**이처럼 작업큐에 등록된 **프로그램의 수가 많아지면 각 프로그램의 대기 시간은 그에 비례하여 늘어난다**. **2**따라서 작업큐에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를 제한해 대기 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길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7 CPU 스케줄링의 유의점

- * 작업큐에 등록된 <프로그램의 수>와 각 <프로그램의 대기 시간>은 비례

5

1

- * <총처리 시간=총실행 시간+교체 시간+대기 시간>처럼 수식으로 정리될 수 있으면,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2

- * 'A(구간 시간)보다 B(총실행 시간)가 길 때'와 같은 <조건>은 A와 B를 뒤바꾼 선지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3

- * '총실행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짧거나 같은'을 이전 문장과 같이 <조건 형식>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종합하면 두 개의 대립 항 조건일 때의 결과를 각각 말하고 있는 셈이다.

2~3

- * **조건 비교**: (총실행 시간 > 구간 시간) ↔ (총실행 시간 ≤ 구간 시간) 실전에서 이를 대립 항으로 인지할 수 있으나, 없느냐의 차이가 바로 독해력의 차이이다. 꾸준한 N회독으로 이런 패턴을 체화시켜 나가자!

6

- ※ 이전 문단의 내용을 보충하는 예시 문단이므로 실전에서 시간이 촉박하면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자. 문제 풀이 시 살펴봐도 충분하다.

1

- * '~경우'를 통해 문단 전체가 예시 문단임을 알 수 있다. 과학이나 기술 지문에서는 예시가 이전의 중심 내용보다 이해하기 더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예시 자체를 끝까지 이해하려고 붙들고 늘어지면 멘탈이 붕괴될 수 있으니 일단 대중 넘기고 문제 풀이 시 살펴봐도 괜찮다. ☆실전에서는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멘탈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7

- ※ 이전 문단의 내용을 보충하는 예시 문단이므로 실전에서 시간이 촉박하면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자. 문제 풀이 시 살펴봐도 충분하다.

1

- * '~지면 ~비례하여 ~'처럼 비례 관계의 내용은 언제나 출제 1순위이다.

04.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60위

#단순 일치-불일치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93%	① 1%	② 93%	③ 2%	④ 2%	⑤ 2%

정답 풀이

②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되면 실행 결과는 작업큐에 등록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운영 체제는 실행할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업큐에서 선택하여 CPU에서 실행하고 1<실행이 종료되면> 작업큐에서 지운다. [1문단]

↳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되면> 실행 결과는 작업큐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지워진다.1)

오답 풀이

① CPU 스케줄링은 컴퓨터 운영 체제의 일부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는 컴퓨터 운영 체제의 일부인 <CPU(중앙 처리 장치) 스케줄링> 때문이다. [1문단]

↳ 컴퓨터 운영 체제의 일부가 CPU임을 그대로 제시해 주고 있다.

패턴 공략

▶ 지문: A의 일부로는 B가 있다. → 적절 선지: B는 A의 일부이다.

③ 구간 실행의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구간 시간보다 짧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때 A가 정지한 후 B의 실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교체 시간이라고 하는데 1<교체 시간>은 <구간 시간>에 비해 매우 짧다. [4문단]

↳ 구간 실행의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교체 시간)은 <구간 시간>보다 짧다.1)

④ CPU 한 개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이 가능하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를 위해서 CPU의 실행 시간을 여러 개의 짧은 구간으로 나누어 놓고 1<각각의 구간>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한다. [3문단]

↳ <CPU 한 개>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이 가능1)하다.

⑤ 컴퓨터 운영 체제는 실행할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저장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1<컴퓨터 운영 체제>는 <실행할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저장하고 실행 대기 프로그램의 목록인 '작업 큐'에 등록한다. [1문단]

↳ <컴퓨터 운영 체제>는 <실행할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저장1)한다고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

최선의 조언

이러한 단순 일치-불일치 문제를 틀리면 매우 곤란하다. 주의력 혹은 집중력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반성해야 한다.

05.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22위

#일탈 선지의 법칙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7%	① 3%	② 3%	③ 4%	④ 87%	⑤ 3%

정답 풀이

④ 구간 시간이 늘어나면 구간 실행 횟수는 늘어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여기서 한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구간 실행>이라 하며, 각각의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간을 <구간 시간>이라고 하는데 <구간 시간>의 길이는 일정하게 정한다. [3문단]

• ①<총실행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1<구간 실행 횟수>가 많아져서 교체 시간의 총합은 늘어난다. [5문단]

🔍 지문 POINT

※ 총실행 시간 > 구간 시간 → <구간 실행 횟수> 늘어남.

↳ <구간 실행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1)는 ①처럼 <총실행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길어야 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구간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구간 실행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구간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총실행 시간>이 늘어나지 않으면 <구간 실행 횟수>가 늘어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 동시 해설

🔍 지문 속 근거 찾기

• 하나의 프로그램이 작업큐에 등록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1<총처리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순수하게 프로그램

의 실행에만 소요된 시간인 <총실행 시간>에 <교체 시간>과 작업큐에서 실행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을 모두 합한 것이다. [5문단]

→ (총처리 시간: 총실행 시간+교체 시간+대기 시간)

- 이처럼 2<작업큐에 등록된 프로그램의 수>가 많아지면 각 프로그램의 <대기 시간>은 그에 비례하여 늘어난다. [끝 문단]

① 교체 시간이 줄어들면 총처리 시간이 줄어든다.

↳ <교체 시간>은 <총처리 시간>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므로 <교체 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총처리 시간>도 줄어든다.

②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 총처리 시간이 늘어난다.

↳ <대기 시간>은 <총처리 시간>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므로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총처리 시간>도 늘어난다.

③ 총실행 시간이 줄어들면 총처리 시간이 줄어든다.

↳ <총실행 시간>은 <총처리 시간>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므로 <총실행 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총처리 시간>도 줄어든다.

⑤ 작업큐의 프로그램 개수가 늘어나면 총처리 시간은 늘어난다.

↳ <작업큐의 프로그램 개수>가 늘어나면 대기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을 구성 요소로 가지고 있는 <총처리 시간>도 늘어난다.1)

★ 일탈 선지의 법칙 ★

* 특정한 기준으로 선지의 핵심을 분류했을 때, 나머지와 다른 한 개의 선지가 눈에 띄면 이를 일탈 선지라 칭하고, 그것이 정답이 될 확률은 80% 이상이다.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④만이 나머지와는 다르게 <총처리 시간>이 아닌 <구간 실행 횟수>를 말하고 있다.

- ① 교체 시간이 줄어들면 총처리 시간이 줄어든다.
- ②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 총처리 시간이 늘어난다.
- ③ 총실행 시간이 줄어들면 총처리 시간이 줄어든다.
- ④ 구간 시간이 늘어나면 <구간 실행 횟수>는 늘어난다. (☆정답)
- ⑤ 작업큐의 프로그램 개수가 늘어나면 총처리 시간은 늘어난다.

그래서 ④는 일탈 선지이며 지문과 발문에 상관없이 정답이 될 확률은 80% 이상이다.

06.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74위

#보기 제시 #3점

정답률 81%	선지별 선택 비율				
	① 4%	② 6%	③ 6%	④ 81%	⑤ 3%

정답 풀이

④ Q의 구간 실행과 Q에서 P로의 교체

66 지문속 근거 찾기

- <보기>
 - 1)P가 '구간 실행' 상태이고 Q와 R이 작업큐에 대기 중이며 Q의 순위가 R보다 높다.
 - P(실행 중) - Q(대기 1순위) - R(대기 2순위)
 - 2)P가 구간 실행을 마치고 작업큐에 재등록될 때, P의 순위를 Q보다 낮지만 R보다는 높게 한다.
 - Q(대기 1순위) - P(대기 2순위) - R(대기 3순위)

* P가 작업큐에 재등록된 후 다시 P가 구간 실행을 하기 직전까지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 ㄱ. Q(실행 중) - P(대기 1순위) - R(대기 2순위)
 - ↓↓↓↓↓
- ㄴ. P(대기 1순위) - Q(대기 2순위) - R(대기 3순위)
 - ↓↓↓↓↓
- ㄷ. P(실행 중) - Q(대기 1순위) - R(대기 2순위)

↳ Q의 구간 실행 ㄱ)과 Q에서 P로의 교체 ㄴ)로 P가 구간 실행을 한다. ㄷ)

♣ 쉽게 생각해 보자.

3명이 A-B-C 순서로 줄을 서 일정 식량을 계속 반복해서 배급받는 상황.

- ㄱ) A가 한 번 식량을 배급받았으면 맨 뒤로 줄을 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C 앞으로 새치기함.
- ㄴ) B도 한 번 식량을 배급받았으면 맨 뒤로 줄을 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C 앞으로 새치기함.
- ㄷ) 위의 행위가 계속 반복됨.
- ㄹ) 결국 A, B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식량을 받게 되고 C는 식량을 받지 못함.

※ <보기>와의 관련성

* P가 작업큐에 재등록된 후 다시 P가 구간 실행

→ A(=P)가 한 번 배급받고 또 배급받기 위해서는, C(=R) 뒤로 가야 하는데 C(=R) 앞으로 가기 때문에 B(=Q)의 배급 이후 다시 A(=P)가 배급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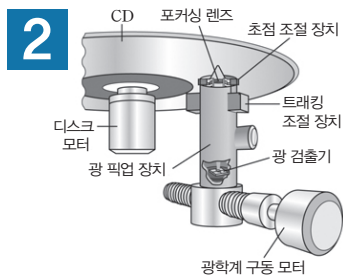
☆ 지문에 어렵고 복잡한 말들이 많으면 쉬운 비유로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07~09 CD 드라이브의 정보 판독 원리

1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다. 2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흠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한다. 3CD에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 나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트랙**을 따라 일렬로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4피트를 제외한 부분, 즉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랜드**에 해당한다.

1 CD 드라이브의 정보 판독 원리

- * CD 드라이브 정보 판독: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
- * **랜드**: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흠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
- * **피트**: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
- * **트랙**을 따라 **랜드**와 **피트** 번갈아 배치



2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된다. 2디스크 모터는 CD를 회전시킨다. 3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 4광선의 경로 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 낸다. 5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2 CD 드라이브의 구성과 CD를 읽는 과정

- * CD 드라이브의 구성: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
- * **디스크 모터**: CD를 회전시킨다.
- * **광 픽업 장치**
 - 레이저 광선을 CD 기록 면에 조사
 -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수용.
- * **포커싱 렌즈**: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음.
- * **광 검출기**: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음.
- * **광학계 구동 모터**: 광 픽업 장치를 이동시켜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함.

1

- * 정보량이 많은 지문에는 동그라미나 밑줄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주체나 대상(CD 드라이브, 레이저 광선)은 동그라미, 서술 부분(반사, 산란)은 밑줄을 추천한다.
- * (흠어짐×) ↔ (흠어짐○)과 같이 대립적 서술은 해당 부분에 밑줄을 긋고, 이를 염두에 둔 채 다음 내용을 읽어야 한다.
- 4

최שמ의 Q&A

Q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이 말은 트랙이 1개라는 의미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랜드**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서 **트랙**과 **트랙** 사이란 말은, 적어도 **트랙**이 2개 이상 있다는 말이 아닌가요?

A 도넛 한 개를 반으로 자른다고 도넛이 두 개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전히 한 개의 도넛이 두 조각이 되는 것이다. 나선(물체의 겉모양이 소라 껍데기처럼 빙빙 돌아 나가는 것) 모양의 트랙은 한 개이며 트랙 중간이 **랜드** 때문에 잘리거나 덮이더라도 여전히 **트랙** 자체는 한 개이다.

2

- * 첫 문장에서 구성 요소가 설명이나 정의 없이 나열되어 있다면 구성 요소들의 설명이 순서대로 나오기 마련이다. 구성 요소에 동그라미 혹은 네모 표시를 해 두고 핵심 설명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밑줄을 그어 두자. 이때 문단 안에 구성 요소의 설명이 다 들어 있다면 사선으로 각 요소의 경계를 그어 두는 것도 좋다. (☆정보량이 많을수록 적절한 도형과 밑줄 표시는 필수이다. 시간 없다고 메모 없이 그냥 읽기만 하면 나중에 문제 풀이 시, 그 근거를 찾을 때 시간이 너무 소모된다.)

최שמ의 조언

1~2 문단만 해도 정보량이 엄청나다. 이런 단순 나열식의 정보는 이해와 추론보다는 정보가 있는 위치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첫 독해 시,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하다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우수한 수험생이라도 실전에서 이 지문을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문제 풀이 시 지문과 문제의 일치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꼼꼼한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문을 읽을 때 메모나 구조화를 적절히 해 두어야 한다.

3 1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2이를 막으려면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제어해 실시간으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3편차 보정에는 **광 검출기**가 사용된다. 4**광 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좌우의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트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 영역이, 직각 방향으로 좌우 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5이때 각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다.

3 광 검출기의 기능

- * 데이터 오독 원인: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음.
- * 편차 보정: **트래킹 조절 장치**, **초점 조절 장치**, **광 검출기**
- * **광 검출기**: 전후-트랙과 같은 방향, 좌우-트랙과 직각 방향 →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 피트와 랜드를 구별

4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2그러나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피트 왼편에 있는 랜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 3이 경우 두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한다. 4우측으로 치우쳐 조사된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편차를 보정한다.

4 편차 보정 방법 ①: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났을 때

- * 광선이 좌측으로 치우치면: (좌 영역의 출력값 > 우 영역의 출력값) →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

5 1한편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 2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3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 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4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

5 편차 보정 방법 ②: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을 때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

- * **가까워질 때**: 조사된 모양이 전후로 길어짐, 출력값 ↑
→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를 멀게 이동
- * **멀어질 때**: 조사된 모양이 좌우로 길어짐, 출력값 ↑
→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거리를 가깝게 이동

3

1 * '초점이 맞지 않음', '데이터를 잘못 읽음'처럼 문제점(단점, 오류, 원인 등)이 언급되면 그에 대한 해결(장점, 방법, 결과)도 나올 것임을 예상하자.

2 * 이전 문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편차 보정)이다.

2, 3 * 편차 보정 장치로 〈트래킹 조절 장치〉, 〈초점 조절 장치〉가 나왔는데 다음 문장에서 별도로 〈광 검출기〉가 편차 보정에 사용된다고 나왔다. (트래킹 조절 장치, 초점 조절 장치) & 〈광 검출기〉를 별도로 구분해서 서술한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

☞ 〈광 검출기〉로 편차를 확인, 그 정도를 판단하며 그 편차를 〈트래킹 조절 장치〉, 〈초점 조절 장치〉로 실시간으로 직접 보정하는 것이다. '편차 보정에는 광 검출기가 사용된다'는 것이지, 광 검출기가 편차를 직접 보정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4

1~2 * '초점이 맞은 상태' ↔ '좌측으로 치우치면(초점이 맞지 않은 상태)'이라는 대립 항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 국어 시험에서 대립 테마는 출제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먹잇감에 해당한다.

2 * '그러나', '그러나' 등 전환 및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면 주의가 필요하므로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절하다.

[5-3도 마찬가지로]

2+3, 4 * 문제(2) + 해결의 구조(3+4)

2 * 〈A(우 영역)보다 B(좌 영역)가 더 C하다〉의 구조. A와 B를 뒤바꾼 선지가 출제되기도 한다.

3~4 * '편차(문제점)를 보정(해결책)한다.'

5

2~3 * 〈반면〉과 같이 두 내용을 반대의 맥락으로 연결하는 말이 나타나면 대립적 상황이나 서술 내용에 (괄호를 넣는 것처럼) 짝을 지어 주는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다.

4 * 문장이 길다면 심표에서 한 번 흐름을 끊어 주자.

*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를 통해 대상(초점 조절 장치)의 역할이 서술될 것임을 알 수 있다.

07.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54위

#최선의 조언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56%	① 7%	② 9%	③ 18%	④ 56%	⑤ 10%

✓ 정답 풀이

④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가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지문 속근거 찾기

-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1)〈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2문단]

↳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키는 것1)이지, 〈광 픽업 장치〉를 CD를 따라 회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Tip 실전 풀이

♣ 복잡한 표현은 쉬운 표현으로 바꾸자.

*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가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를 CD를 따라 회전시킨다.

✗ 오답 풀이

① 초점 조절 장치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 지문 속근거 찾기

-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1)〈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 [끝 문단]

↳ 〈초점 조절 장치〉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1)

② 포커싱 렌즈는 레이저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아 준다.

🔍 지문 속근거 찾기

- 광선의 경로 상에 있는 1)〈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 낸다. [2문단]

↳ 〈포커싱 렌즈〉는 레이저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아 준다.1)

③ 광 검출기의 출력값은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 지문 속근거 찾기

- 이 경우 두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이 경우 두 1)〈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

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한다. [4문단]

↳ 광 검출기의 〈출력값〉은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1)하는데 사용된다.

⑤ 광 픽업 장치에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다.

🔍 지문 속근거 찾기

- CD 아래에 있는 1)〈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2)CD에서 반사된 (레이저)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 [2문단]

↳ 〈광 픽업 장치〉에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1)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다.2)

최선의 조언

낮선 용어와 정보량이 많다면 선지의 주체 혹은 핵심 제시어에 적절한 표시를 해 두어 지문에서 그 부분이 나오면 찬찬히 살펴본다. 필요한 정보만 신속히 찾는 능력이 시험의 관건이다.

- ① 초점 조절 장치는~ [끝 문단]
- ② 포커싱 렌즈는~ [2문단]
- ③ 출력값은~ [4문단]
- ④ 광학계 구동 모터는~ [2문단]
- ⑤ 광 픽업 장치에는~ [2문단]

08.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8위

#이해 #최선의 Q&A #최선의 조언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33%	① 4%	② 21%	③ 25%	④ 33%	⑤ 17%

✓ 정답 풀이

④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광 검출기의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하겠군.

🔍 지문 속근거 찾기

- 1)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때 2)〈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 [끝 문단]

☐ 지문 POINT

〈'전후' 출력값의 합〉 & 〈'좌우' 출력값의 합〉의 차이○
 〈'전' & '후' 출력값〉의 차이×

↳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1)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한다. 2)

최선의 Q&A

Q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는 것과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는 것은 다르지 않나요?

A '렌즈'와 '광선' 간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렌즈'든 '광선'이든 하나가 초점이 안 맞다는 말은, 결국 둘 다 초점이 안 맞다는 말이다.

✕ 오답 풀이

①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읽어야 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1)〈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CD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한다. [1문단]
-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2)〈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2문단]

↳ CD에 기록된 정보는 〈광선〉을 이용해 판독1)되는데, 그 〈광선〉이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이동2)하므로 CD의 정보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읽어야 한다.

②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1)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2문단]

↳ 〈광 픽업 장치〉가 CD의 아래에 있기1) 때문에 〈광 픽업 장치〉에서 나오는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된다.

③ 광 검출기에서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났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CD의 기록면 중 1)광선(빛의 양)이 흠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한다. [1문단]

- 이때 각 영역에 2)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다. [3문단]

↳ 〈빛의 양〉과 〈출력값〉은 정비례2)하기 때문에 〈출력값〉을 비교하려면, 〈빛의 양〉을 비교해도 된다. 그래서 〈랜드〉와 〈피트〉의 〈빛의 양〉을 비교하면, 광선(빛의 양)의 흠어짐이 없는 〈랜드〉가 일부가 산란되는 〈피트〉1)보다 크기 때문에 광 검출기에서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난다.

☑ 어휘 체크

- * 산란: 파동이나 입자선이 물체와 충돌하여 여러 방향으로 흠어지는 현상.
- * 광선: 빛의 줄기.

🌀 패턴 공략

★지문에서 비례 관계가 성립되는 부분은 선지 정/오 판단의 근거가 되기 쉬우니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⑤ CD의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광 검출기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 있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1)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3문단]
- 한편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2)〈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 [끝 문단]

↳ CD의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광선의 위치〉가 초점이 맞지 않아1)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 있다. 2)

최선의 조언

기술 계열의 지문이라서 전문 용어가 굉장히 길다. 이럴 때 주어와 목적어 등에 적절한 표시를 함으로써 보기 편하게 시각화하여 선지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정/오 판단이 좀 더 수월해진다. 지문 독해 시, 눈과 머리와 손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여 지문을 문제 풀이를 위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09. <기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0위

#3점 #보기 제시 #비례 관계

정답률
42%

선지별 선택 비율

① 4% ② 27% ③ 12% ④ 15% ⑤ 42%

☑ 정답 풀이

⑤ 〈상태 1〉에서는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의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지만 〈상태 2〉에서는 멀게 해야 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 [끝 문단]

• <보기>

- * <상태 1>의 출력값: 전(2) + 후(2) = 좌(3) + 우(1)
- * <상태 2>의 출력값: 전(5) + 후(5) > 좌(3) + 우(3)

📌 지문 POINT

※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전+후 > 좌+우 → (멀게 해야 함)
거리가 멀어지면: 전+후 < 좌+우 → (가깝게 해야 함)

↳ <상태 1>은 <전후 출력값의 합> = <좌우 출력값의 합> 때문에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의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지만, <상태 2>는 (<전후 출력값의 합> > <좌우 출력값의 합>) 때문에 거리를 멀게 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 1>보다 <상태 2>가 작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광 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좌우의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트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 영역이, 직각 방향으로 좌우 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이때 1)각 영역(전후좌우)에 조사되는 빛의 양(광선의 총량)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다. [3문단]

• <보기>

- * <상태 1>의 출력값: 전(2) + 후(2) + 좌(3) + 우(1) = 8
- * <상태 2>의 출력값: 전(5) + 후(5) + 좌(3) + 우(3) = 13

↳ <광선의 총량>과 <출력값>은 정비례하기1) 때문에, <출력값>을 비교하면 <광선의 총량>도 비교된다.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출력값>은 <상태 1>보다 <상태 2>가 크기 때문에, 레이저 <광선의 총량>도 <상태 1>보다 <상태 2>가 크다.

🌀 패턴 공략

★지문에서 비례 관계가 성립되는 부분은 선지 정/오 판단의 근거가 되기 쉬우니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② <상태 1>에서는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하지만 <상태 2>에서는 구동될 필요가 없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때 광 검출기의 1)(<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 [끝 문단]

• <보기>

- * <상태 1>의 출력값: 전(2) + 후(2) = 좌(3) + 우(1)
- * <상태 2>의 출력값: 전(5) + 후(5) ≠ 좌(3) + 우(3)

↳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차이가 있을 때, <초점 조절 장치>를 구동한다.1) 이에 따라, <상태 1>에서는 '전후 출력값'의 합과 '좌우 출력값'의 합에 차이가 없어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없지만, <상태 2>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구동되어야 한다.

③ <상태 1>에서는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없지만, <상태 2>에서는 구동되어야 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런데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피트 왼편에 있는 랜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1)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 2) 이 경우 두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한다. [4문단]

• <보기>

- * <상태 1>의 출력값: 좌(3) > 우(1)
- * <상태 2>의 출력값: 좌(3) = 우(3)

↳ 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질 때,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한다.1~2) 이에 따라, <상태 1>에서는 <좌> > 우) 때문에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하지만, <상태 2>에서는 <좌 = 우> 때문에 구동될 필요가 없다.

④ <상태 1>에서는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오른쪽에 치우쳐 조사되고 <상태 2>에서는 가운데 조사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런데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1)'좌측'으로 치우치면, 피트 왼편에 있는 랜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광 검출기의 2)'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 [4문단]

• <보기>

- * <상태 1>의 출력값: 좌(3) > 우(1)
- * <상태 2>의 출력값: 좌(3) = 우(3)

↳ <상태 1>에서는 <좌> > 우) 때문에2)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왼쪽'에 치우쳐 조사되고,1) <상태 2>에서는 <좌 = 우> 때문에 치우침 없이 가운데 조사된다.

지문 난이도 ★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16~18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70위

01 ~ 03 하이퍼리얼리즘

1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재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를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한다.

1 하이퍼리얼리즘의 정의

- * 하이퍼리얼리즘: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재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

2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①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재와 똑같이 표현하면 ②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 2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3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파로,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4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였다. 5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롱프뢰유*의 흐름을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6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 트롱프뢰유(trompe-l'oeil): '속임수 그림'이란 말로 감상자가 실물처럼 착각할 정도로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

2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의 비교

하이퍼리얼리즘	팝아트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음.	
대상 정확히 재현	대상 변형
현실성+사실성 추구	현실성 추구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 방식 활용	인쇄 매체 활용 → 대중 소통

* 현실성: 흔히 볼 수 있음. / 사실성: 실재와 똑같음.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1~2

첫 문단에서 개념이나 대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화제를 제시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므로 빠르게 스치듯 읽어야 한다.

3

* 첫 문단에서 개념(하이퍼리얼리즘) 설명이 있다면, 그 개념 자체가 지문 전체의 중심 화제가 되기 마련이다.

* '이처럼', '이', '여기에'처럼 첫머리에 지시 대명사가 있다면 이전과 동일한 맥락의 연결이기 때문에 >표시가 적절하다.

[3 -3, 4 -1, 4도 마찬가지로]

2

1

* 문장이 길다면 심표에서 흐름을 한 번 끊어 주자.

2

*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처럼 대상의 비교를 예고하고 있다면,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정리하자.

4~6

* 차이점이나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만', '반면에', '아니라' 등에는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절하다.

4~5

* <원인+결과>의 구성.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일이다. [3 -4~5도 마찬가지로]

6

* '~보다는'처럼 비교형 표현에는 물결무늬를 해 두자. 선지 정/오 판단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3 1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에는 **헨슨**이 있다. 2그의 작품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1969)**는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이 작품의 대상은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와 여자이다. 4그녀는 욕망의 주체이며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고,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는 욕망의 객체이며 물질을 상징하고 있다. 5그래서 여자가 상품이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 카트를 밀고 있는 구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 준다.

3 하이퍼리얼리즘 작품: 헨슨의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
 * 헨슨의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 탐욕, 과잉 소비 비판 → 일상의 사실적 표현(하이퍼리얼리즘)

4 1이 작품의 기법을 보면, 생활 공간에 전시해도 자연스럽도록 작품을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하였다. 2사람을 보고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발라 형태를 뜨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3또한 기존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재 대신에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시로 채색하여 사람 피부의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4여기에 **오브제***인 가발, 목걸이, 의상 등을 덧붙이고 쇼핑 카트, 식료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였다.

* 오브제(objet): 일상 용품이나 물건을 본래의 용도로 쓰지 않고 예술 작품에 사용하는 기법 또는 그 물체.

4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 재현에 충실하여 사실성을 높임.
 *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의 기법
 - 실물 주형 기법 → 재현에 충실 → 사실성 ↑

5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2작가가 포착한 현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은 다양하다. 3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 등의 리얼리즘 작가들은 대상들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을 전달하여 감상자와 소통하고 있다.

5 리얼리즘 미술의 목적
 * 현실 포착과 효과적 전달

3
 1 * 인물이 첫 문단부터 등장하면 인물에 따른 전개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헨슨'처럼 지문 중간에 나오면 인물에 따른 전개 방식이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인물 자체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포인트와 키워드를 잡아야 한다.

★실전적 지문 읽기 팁★
 ☞ 전반적으로 역주행 흐름이 거의 없는 지문은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한다. 난이도가 쉬운 지문이라면? 당연히 최소한의 시간으로 큰 흐름만을 파악하면 된다. 모든 지문을 난이도에 상관없이 단순히 분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읽으면 안 된다. 속도와 집중도의 강중약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4
 2 * '사람을 보고(간접)~형태를 만들.' ↔ '사람에게 직접~형태를 만들.'처럼 대립 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대립 항이 있는 내용은 출제되기 쉽다.

4
 * '사실성' → 실재와 똑같은.
 → 실제의 = 사실적 = 현실적 = 실감 = 리얼

5
 ※ 예술 지문의 끝 문단은 대개 내용을 정리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스킷 읽는 것이 좋다. (☆ 실전에서 모든 문장을 동일한 에너지와 속도로 읽는 것은 경제적인 독해가 아니다. 독해의 정확성뿐만 경제성도 매우 중요하다. 보조 내용인 예시나 사례는, 앞의 핵심을 이해했으면 신속하고 빠르게 쓱 읽어 내자.)

01.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44위

#이해

정답률 90%	선지별 선택 비율				
	① 90%	② 2%	③ 3%	④ 1%	⑤ 4%

정답 풀이

①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당시 자본주의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아 ㉠을 높였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관광객처럼 1)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파로, 2)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2문단]

↳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서 ㉠<현실성>이 높은 1) 당시 자본주의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았다. 2)

X 오답 풀이

②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하이퍼리얼리즘과 달리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1)실재와 똑같이 표현하면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 ~2)<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3)<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였다. [2문단]

↳ ㉡<사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실재와 똑같이 표현하기 1) 위해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하이퍼리얼리즘>과 관련된 것이다. 3) <팝아트>가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것은 2) 실재와 동떨어지게 되어 오히려 ㉡<사실성>을 떨어뜨린다.

③ 하이퍼리얼리즘이 팝아트와 달리 트롱프뢰유의 전통을 이은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1)<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롱프뢰유>의 흐름을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2문단]

↳ <하이퍼리얼리즘>이 팝아트와 달리 <트롱프뢰유>의 전통을 이은 것은 ㉢<사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1)

④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이 주로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2)<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2문단]

↳ ‘팝아트’는 주로 인쇄 매체를 활용하였으나 1) ‘<하이퍼리얼리즘>은 인쇄 매체가 아닌,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여 2)’ ㉣<사실성>을 추구하고자 했다.

⑤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과 ㉣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리얼리즘 유파에 해당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래서 1)<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2)<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롱프뢰유의 흐름을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2문단]

↳ <하이퍼리얼리즘>만이 ㉠<현실성>과 ㉣<사실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2) <팝아트>는 ㉠<현실성>만을 추구한다. 1)

02.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98위

#평가원 이의 제기

정답률 8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	② 2%	③ 7%	④ 4%	⑤ 84%

정답 풀이

⑤ 당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자와 상품을 제시하였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래서 여자가 상품이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 카트를 밀고 있는 구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1)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 준다. [3문단]

↳ 당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소비 성향이 아닌, 과잉 소비 성향을 반영한다. 1)

X 오답 풀이

① 재현한 인체에 실제 사물인 오브제를 덧붙이고 받침대 없이 전시하여 실재처럼 보이게 하였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 작품의 기법을 보면, 생활 공간에 전시해도 자연스럽게 1)작품을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하였다.~여기에 2)오브제인 가발, 목걸이, 의상 등을 덧붙이고 쇼핑 카트, 식료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3)사실성을 높였다. [4문단]
- 오브제(objet): 4)일상 용품이나 물건을 본래의 용도로 쓰지 않고 예술 작품에 사용하는 기법 또는 그 물체.

↳ 재현한 인체에 실제 사물인 오브제2, 4)를 덧붙이고 받침대 없이 전시하여1) 실제처럼 보이게 하였다.3)

② **찰흙으로 원형을 만들지 않고 사람에게 석고를 덧붙여 외형을 뜨는 기법을 사용하여 형태를 정확히 재현하였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사람을 보고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2)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붙여 형태를 뜨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4문단]

↳ 찰흙으로 원형을 만들지 않고1) 사람에게 석고를 덧붙여 외형을 뜨는 기법을 사용하여 형태를 정확히 재현하였다.2)

③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욕망의 주체는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욕망의 객체는 실제 그대로 제시하였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그녀는 욕망의 주체이며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고, 상품이 가득한 2)쇼핑 카트는 욕망의 객체이며 물질을 상징하고 있다. [3문단]
- 사람을 보고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붙여 형태를 뜨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하여 3)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여기에 오브제인 가발, 목걸이, 의상 등을 덧붙이고 4)쇼핑 카트, 식료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였다. [4문단]

↳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욕망의 주체인 사람(그녀)은1)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3) 욕망의 객체는 실제 그대로 제시하였다.2, 4)

④ **인체의 피부 질감을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따위의 신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한 기존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재 대신에 1)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시로 채색하여 2)사람 피부의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4문단]

↳ 인체의 피부 질감을 재현2)할 수 있었던 것은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따위의 신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1)

평가원 이의 제기

<의견> 선지 ④가 적절하려면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가 신소재여야 하는데 일단 지문에는 세 물질이 '새로운 재료'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하이퍼리얼리즘은 지문에도 나와 있듯이 196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는 20년 이상 지난 재료들입니다. 지문 내에 세 물질이 신재료라는 언급이 없다는 사실과 세 물질이 1960년대 이전에 발명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선지 ④에서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가 신재료라고 볼 수 있는 논리 근거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선지 ④ 역시 틀린 선지가 되어야 합니다.

<답변> 철수의 첫사랑이 영속이고 두 번째 사랑이 영희라면 영희는 영속이에 비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원래 있던 것과 그 이후에 나온 것(→ 새로운 것)을 상대적으로 따져야 한다. '기존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재 대신'이라는 말에 비추어 합성수지 등은 이보다 새로운 재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03.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98위

#보기 제시 #3점 #비평

정답률
8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3% ② 4% ③ 84% ④ 4% ⑤ 5%

✓ 정답 풀이

③ **쿠벨리스가 헨슨에게: 미술에서 재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물 주형의 기법보다 대상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쿠벨리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살아 있는 말 12마리를 화랑 벽에 매어 놓고, 감상자가 화랑이라는 환경 안에 놓인 2)실제 말들의 존재와 말들의 온기와 냄새, 그리고 소리를 체험해서 다양하게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하였다.

- 사람을 보고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붙여 형태를 뜨는 3)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4문단]

↳ <쿠벨리스>가 헨슨에게: 미술에서 재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물 주형의 기법보다3) 대상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1~2)

✗ 오답 풀이

① **헨슨이 쿠벨리스에게: 미술은 시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이 감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쿠넬리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말 12마리를 화랑 벽에 매어 놓고, 감상자가 화랑이라는 환경 안에 놓인 실제 말들의 존재와 말들의 온기와 1)냄새, 그리고 소리를 체험해서 다양하게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하였다.

↳ 미술은 시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이 감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1)는 관점은 <쿠넬리스>의 관점이므로 선지 ①은 <쿠넬리스>가 헨스에게 하는 비평에 해당한다.

② 헨스가 코수스에게: 미술에서 대상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치 있어야 한다.

↳ 지문에서 미술의 역사적 혹은 정치적인 가치를 말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선지 ②는 적절한 비평이 아니다.

④ 쿠넬리스가 코수스에게: 미술에서 작품의 의미는 감상자가 실제 대상을 대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쿠넬리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말 12마리를 화랑 벽에 매어 놓고, 1)감상자가 화랑이라는 환경 안에 놓인 실제 말들의 존재와 말들의 온기와 냄새, 그리고 소리를 체험해서 다양하게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하였다.

↳ <쿠넬리스>는 <감상자>가 실제 대상을 대면해서 온기와 냄새, 그리고 소리를 체험해서 다양한 <작품의 의미를 만드는 것>으로 보았다.1) 그래서 미술에서 작품의 의미는 감상자가 실제 대상을 대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선지 ④는 <쿠넬리스>가 다른 사람에게 할 비평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코수스가 쿠넬리스에게: 미술에서 대상을 재현할 때는 대상의 이미지만 그 대상 자체만을 제시해야 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코수스>는 '의자의 사진', '실제 의자', '의자의 언어적인 개념' 세 가지 모두를 한 공간에 배치하여, 1)대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 <코수스>는 대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주기1) 때문에 대상 자체만을 제시하는 1가지의 방식으로 대상을 재현한다는 선지 ⑤는 <코수스>가 다른 사람에게 할 비평으로 적절하지 않다.

대상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판 혹은 비평하려면 일단 적절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오답 선지들은 비평하는 이의 입장(관점) 자체가 적절하지 못해 단순 일치-불일치 문제 풀이가 되어 버렸다.

04~08 다양한 특성의 음들로 이루어진 음악의 아름다움

1 음악은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이다. 2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음악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아름다운 음악 작품은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4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1 음악적 아름다움의 구현 방법 제기

- * 음악: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
- ▶ 음악적 아름다움의 구현 방법 제기

2 1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가 심벌즈 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한다. 2 이 중 전자를 고른음, 후자를 시끄러운음이라고 한다. 3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지만 시끄러운음은 주기성을 갖지 못한다. 4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른음을 지칭한다. 5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6 이때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진동수라고 한다. 7 진동수가 높으면 음높이, 즉 음고가 높아진다. 8 고른음 중에서 파형이 사인파인 음파를 단순음이라고 한다. 9 사인파의 진폭이 커질수록 단순음은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 10 대부분의 악기에서 나오는 음은 사인파보다 복잡한 파형을 갖는데 이런 파형은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이런 소리를 복합음이라고 하고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을 부분음이라고 한다. 12 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 하는데 귀는 복합음 속의 부분음들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2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

- * 음악의 소리: 고른음과 시끄러운음으로 구분
- * 고른음: 주기성○ →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
- * 시끄러운음: 주기성×
- * 진동수: 같은 파형이 1초당 반복되는 횟수
→ 진동수가 커지면 음높이=음고가 높아짐.
- * 단순음: 고른음 중에서 파형이 사인파인 음파
→ 사인파의 진폭이 커질수록 단순음은 소리의 세기가 커짐.
- * 복합음: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소리
- * 부분음: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 * 기본음: 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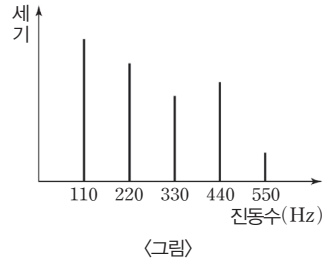
1

- 1 * 개념 정의라고 해도 그 내용이 어렵지 않은 친숙한 것이라면 동그라미나 밑줄은 패스.
- 4 * 첫 문단에서 구체적인 화제 제시는 뒷부분에 있다. 앞부분은 뒷부분의 구체적인 화제(음악적 아름다움의 구현 방법)를 제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생각하면서 가볍게 읽는다.

2

- * 정보량이 많을 경우 메모 표시를 부지런히 해 두어야 문제 풀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다.
- 2 * 첫머리의 <이 중>은 앞의 내용을 추려 구체화한다.
- 3 * 부정형 진술은 밑줄× 표시 추천 (주기성×)
[3-2, 4, 5-4도 마찬가지로]
- 7, 9 * '~지면 ~진다', '~할수록~하다'처럼 비례형 표현은 선지의 정/오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악기가 내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성인 **음색**은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즉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른 음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타악기** 소리는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 **3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소리 스펙트럼**은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4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은 <그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세로 막대들로 나타나는 반면**에 **시끄러운음**의 소리 스펙트럼에서는 **막대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그림>

3 부분음들의 진동수, 음색, 소리 스펙트럼

- * **음색**: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
- * **현악기, 관악기의 고른음**: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음들로 구성됨.
- * **타악기 소리**: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 ×
- * **소리 스펙트럼**: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
- *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 일정한 간격의 세로 막대들로 나타남.
- * **시끄러운음의 소리 스펙트럼**: 막대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음.

4 [A] **1**두 음이 동시에 울리거나 연이어 울릴 때, **음의 어울림**, 즉 **협화도**는 **음정에 따라 달라진다**. **2여기**에서 **음정**이란 두 음의 음고 간의 간격을 말하며 **높은 음고의 진동수를 낮은 음고의 진동수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3가령**, '도'와 '미' 사이처럼 **장3도** 음정은 5/4이고, '도'와 '솔' 사이처럼 **완전5도** 음정은 3/2이다. **4그러므로** 장3도는 완전5도보다 **좁은 음정**이다. **5일반적으로**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협화도는 작아진다고 본다**. **6가령**, 음정이 2/1인 옥타브, 3/2인 완전5도, 5/4인 장3도, 6/5인 단3도의 순서로 **협화도가 작아진다**. **7서로 잘 어울리는 두 음의 음정을 협화 음정**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음정을 **불협화 음정**이라고 하는데 16세기의 음악 이론가인 차를리노는 약분된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1, 2, 3, 4, 5, 6으로만 표현되는 음정은 **협화 음정**, 그 외의 음정은 **불협화 음정**으로 보았다.

4 협화도와 협화·불협화 음정

- * **협화도**: 음의 어울림. 음정에 따라 달라짐.
- * **음정**: 두 음의 음고 간의 간격
= <높은 음고의 진동수/낮은 음고의 진동수>
→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협화도는 작아짐.
- * **협화 음정**: 서로 잘 어울리는 두 음의 음정
→ 차를리노는 약분된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1, 2, 3, 4, 5, 6으로만 표현되는 음정은 협화 음정, 그 외의 음정은 불협화 음정으로 봄.

3

- 1**
- * '악기가 내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성인 <음색>처럼, <설명+개념어>의 구조는 <개념어+설명>의 구조보다 개념이 등장했다는 인지가 잘 안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 '~에 의해 결정된다'를 통해 ~의한 요소들(~구조, 즉 ~진동수, ~세기)이 문제 선지의 정/오 판단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음을 짐작해야 한다.
- 2, 4**
- * <~지만, 반면에>처럼 **반대의 맥락을 나타내는 말에 세모 표시를 해 두고 대립적인 부분(정수배 관련 여부, 간격의 일정함 여부)에 밑줄을 해 두자**. 선지의 정/오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 2**
- * **분자/분모의 관계가 성립되는 내용은 분모와 분자가 서로 뒤바뀌지 않게 정리해 두자**. 뒤바꾸어 정리해서 틀리는 수험생들이 너무 많다.
<음정> = '높은 음고의 진동수'/'낮은 음고의 진동수'
- 3, 6**
- * **첫 독해에서 예시(가령~)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혹은 시간이 촉박하면 그냥 넘어가자**. 문단 및 글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문제 풀이 때 꼼꼼히 보는 걸로 충분하다. [**7**-3도 마찬가지로]

5 아름다운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연이어 배열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2**음악은 다양한 음이 조직적으로 연결되고 구성된 형태로, 음악의 매체인 소리가 시간의 진행 속에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19세기 음악 평론가인 **①한슬리크**에 따르면,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되는데, 음악을 구성하는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 내는 **형식 그 자체**를 말한다. **4**따라서 음악의 가치는 음악이 환기하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5 음악과 소리의 관계와 음악의 아름다움

- *음악: 다양한 음이 조직적으로 연결되고 구성된 형태.
 - 소리가 시간의 진행 속에 구체화된 것
- *한슬리크: 음악의 가치는 형식 그 자체에 있음.
 - 감정, 정서×

6 1음악에는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이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리듬, 가락, 화성, 셈여림, 음색 등이 있다. **2**리듬은 음고 없이 소리의 장단이나 강약 등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이고, **3**가락은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이다. **4**화성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시간적으로 연결된 흐름이고, **5**셈여림은 음악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소리의 세기이며, **6**음색은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선택된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 내는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이다.

6 음악에 사용되는 다양한 음악적 요소

- *리듬: 음고 없이 소리의 장단이나 강약 등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
- *가락: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
- *화성: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시간적으로 연결된 흐름
- *셈여림: 음악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소리의 세기
- *음색: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 내는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

5

1~2

- *A(아름다운 음악)를 정의하기 위해 (선부정, 후긍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 ▶ '~만들어지지 않는다' → '~것이라 할 수 있다'

3

- *'19세기'처럼 시간과 관련된 말이 지문 도입부에 나오면 시간 순서의 전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후반부에 등장한다면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4

- *문단 끝 문장의 <따라서>, <이렇듯>, <그러므로> 등은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정리, 결론을 나타내므로 문단의 핵심을 전달한다. 반드시 키워드를 찾아 밑줄을 그어야 한다. [**7**-5도 마찬가지로]

6

1

- *처음부터 요소가 나열(리듬, 가락, 화성, 셈여림, 음색 등)되어 있다면, 이 요소별로 글이 전개되기 마련이다. 각각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 요소별로 경계를 나누는 것이 포인트!

7 작곡가는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을 활용해서 음악 작품을 만든다. 2어떤 음악 작품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인 가락을 그 음악 작품의 주제라고 하는데,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주제로 구현하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해서 음악 작품을 완성한다. 3예컨대 조성 음악*에서는 정해진 박자 내에서 질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리듬이 음표나 심표의 진행으로 나타나고, 어떤 조성의 음계 음들을 소재로 한 가락이 나타나고, 4주제는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다양한 화성 진행을 통해 반복되고 변화한다. 5이렇듯 음악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 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소리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 조성 음악: 으뜸음 '도'가 다른 모든 음계 음들을 지배하는 음악으로 17세기 이후 대부분의 서양 음악이 이에 해당한다.

7 소리의 예술, 음악

- * 음악 작품의 주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가락
- * 작곡가: 음악적 아이디어를 주제로 구현하고 다양한 음악 요소들을 사용해서 음악 작품을 완성
- * 음악의 예술성: 다양한 특성을 갖는 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

7 ※ 지문에 정보량이 많아 밑줄과 기호 메모가 많더라도 꼼꼼히 해 두는 것이 좋다. 귀찮거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이를 표시해 두지 않으면 문제 풀이 시 근거를 찾는 데 시간을 너무 허비할 것이다. 효과적인 메모는 문제 풀이 시간 단축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04.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32위

#공통 선지의 법칙 #분석_구분 #과학적 #분석_구분_분류

정답률 75%	선지별 선택 비율				
	① 7%	② 8%	③ 3%	④ 75%	⑤ 7%

정답 풀이

④ 음악의 아름다움을 소리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관련지어 탐구하고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아름다운 음악 작품은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1문단]
- (글의 주제가 '음악의 아름다움'과 관련됨.)

▶ 1문단에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화제로 제시했으며, <소리>에 관하여 <주기성, 파형, 진동수, 진폭, 사인파>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과학적인 분석을 하고 있으므로 선지 ④가 가장 적절하다.

패턴 공략

- ▶ <과학적, 체계적, 객관적> vs <주관적, 개성적, 의식의 흐름>
(☆국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구별 요소)
- ▶ <주기성, 파형, 진동수, 진폭, 사인파>와 같이 한자로 된 전문 용어가 나오면 <과학적>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다.

X 오답 풀이

① 소리에 대한 감각이 음악 감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있다.

▶ 소리에 대한 인간의 감각과 그것이 음악 감상에 미치는 영향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② 미적 본성에 대한 과학적 탐색과 음악적 탐색을 비교하고 있다.

▶ 미적 본성에 대한 과학적 탐색이 아닌 <음악의 소리>에 관한 과학적 탐색이다.

☞ 그냥 <미적 본성>이라고 하면 범위가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해 음악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대상과 모두 관련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음악적 아름다움>을 말하는 지문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③ 소리를 구분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음악의 형식을 분류하고 있다.

▶ 소리를 구분(고른음, 시끄러운음)하고 있지만 그것을 근거로 음악의 형식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아름다움의 <예술성 구현 양상>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바탕 지식 더하기

※ <분석 vs 구분 vs 분류>에 대해 알아보자!

- 분석: 대상을 개별 요소나 성질로 쪼갬.
예) 곤충을 머리, 가슴, 배로 쪼갬
- 구분: 상위 대상을 하위 대상(종류)으로 나눔.
예) 과일을 사과, 배, 감 등으로 나눔
- 분류: 하위 대상(종류)을 상위 대상으로 묶음.
예) 사과, 배, 감 등은 과일로 묶음

☞ 비슷해 보이는 분석과 구분의 차이점은 <분석>된 개체(머리, 가슴, 배) 자체를 곤충이라 할 수 없으나, <구분>된 대상들(사과, 배, 감)은 자체를 과일이라 할 수 있다. 비슷하고 헷갈리는 어휘는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한다. 대중대중 공부하는 습관이 들면 결국 점수도 대중 받게 된다.

⑤ 듣기 좋은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가 음악에서 하는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 듣기 좋은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를 나누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음악에서 하는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른 음과 시끄러운음의 특성을 설명한 후에 음정과 여러 음악적 요소들을 통해 이러한 음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 공통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② 미적 본성에 대한 과학적 탐색과 음악적 탐색을 비교하고 있다.
- ④ 음악의 아름다움을 소리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관련지어 탐구하고 있다. ☞ (☆정답)

그래서 지문 및 문제와 상관없이 ②, ④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05.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74위

#이해 #한자-한글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61%	① 61%	② 14%	③ 11%	④ 5%	⑤ 9%

✓ 정답 풀이

① 리듬은 음높이를 가지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으로, 음악에서 질서를 가진 음표나 쉼표의 진행에 활용되는 요소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리듬>은 음고(음의 높이) 없이 소리의 장단이나 강약 등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이고, 1)<가락>은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이다. [6문단]

↳ '음의 높낮이'를 갖는 것은 <리듬>이 아니라 <가락>이다.1)

♣ 정답 판단의 관건!

(지문: 한자) → (선지: 한글)

지문의 '리듬은 음고 없이'에서 <음고>의 한글 풀이(음의 높이)만 알아도 아주 쉽게 ①이 적절하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가락은 서로 다른 음높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으로, 음악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요소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가락>은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이다. [6문단]
- 어떤 2)음악 작품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인 <가락>을 그 음악 작품의 주제라고 하는데, [끝 문단]

↳ <가락>은 서로 다른 음높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1)으로, 음악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2)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요소이다.

③ 화성은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연결된 흐름으로, 음악에서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진행에 활용되는 요소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화성>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1)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시간적으로 연결된 흐름이고, [6문단]
- 주제는 2)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다양한 <화성> 진행을 통해 반복되고 변화한다. [끝 문단]

↳ <화성>은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연결된 흐름1)으로, 음악에서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진행에 활용되는 요소2)이다.

④ 쉼여림은 소리의 세기로, 음악에서 크고 작은 소리가 나타나도록 하는 데 활용되는 요소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쉼여림>은 음악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소리의 세기이며, [6문단]

↳ <쉼여림>은 소리의 세기로, 음악에서 크고 작은 소리가 나타나도록 하는 데 활용1)되는 요소이다.

⑤ 음색은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으로, 음악에서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악기를 선택하는 데 활용되는 요소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음색>은 1)바이올린, 플루트 등 선택된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 내는 2)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이다. [6문단]

↳ <음색>은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2)으로, 음악에서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악기를 선택하는 데 활용되는 요소1)이다.

06.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52위

#일탈 선지의 법칙 #입장 #정서 #정답의 근거 위치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79%	① 3%	② 8%	③ 6%	④ 79%	⑤ 4%

정답 풀이

④ 첫째 음과 둘째 음의 간격이 완전5도가 되는 음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주제가 명확한 음악을 만든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19세기 음악 평론가인 ㉠<한슬리크>에 따르면,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되는데, 1)음악을 구성하는 음악적 재료들이 2)움직이며 만들어 내는 형식 그 자체를 말한다. [5문단]

지문 POINT

* <지문-선지> 간 대응 핵심어: '움직임-연결'

▶ 첫째 음과 둘째 음의 간격이 완전5도가 되는 음들1)을 조직적으로 연결2)하여 주제가 명확한 음악을 만든다. ☞ 음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음악적 재료들의 움직임이 반영됨.

☞ <㉠의 입장>과 관련된 것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 입장> 주변에 정답의 근거가 있기 마련이다. 지문에서는 '㉠<한슬리크>에 따르면,~'의 형태로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인물의 핵심 입장이 드러나 있다.

Tip 실전 풀이

★ 끝 문단이 중요하다!

☞ 끝 문단은 글 전체의 내용을 정리, 요약, 강조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인물이 행한 가치 있는 일이 요약된) 견해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비문학에서 주제와 긴밀한 것은 물론 인물의 업적 및 견해, 글쓴이의 생각, 관점, 강조 사항, 당부, 가치관, 입장 등과 관련된 것을 물으면 정답의 근거 지문이 끝 문단에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 다음 문제들은 정답의 근거가 모두 끝 문단에 있다!

- *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 수능)
- * ~키르히호프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14 수능)
- * ~포퍼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3 수능)

오답 풀이

① 장3도로 기쁨을, 단3도로 슬픔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음악을 만든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19세기 음악 평론가인 ㉠<한슬리크>에 따르면,~음악의 가치는 음악이 환기하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1)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의 입장>에 따르면 <슬픔>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음악을 만들면 안 된다.1)

② 플루트의 청아한 가락으로 상쾌한 아침의 정경을 연상시키는 음악을 만든다.

[선지 ①의 근거 지문 참고]

▶ <상쾌함>을 느끼는 것도 정서적인 것과 관련 있기에 <㉠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낮은 음고의 음들을 여러 번 사용하여 내면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악을 만든다.

[선지 ①의 근거 지문 참고]

▶ <내면의 불안감>은 정서적인 것과 관련 있기에 이를 조성하는 음악을 만드는 것도 <㉠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오페라의 남자 주인공이 화들짝 놀라는 장면에 들어갈 매우 강한 시끄러움에 울리는 음악을 만든다.

[선지 ①의 근거 지문 참고]

▶ <화들짝 놀라는 것>도 정서적인 것과 관련 있기에 <㉠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 일탈 선지의 법칙 ★

* 특정한 기준으로 선지의 핵심을 분류했을 때, 나머지와 다른 한 개의 선지가 눈에 띄면 이를 일탈 선지라 칭하고, 그것이 정답이 될 확률은 80% 이상이다.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④에만 <정서>와 관련된 말이 없다.

- ① ~슬픔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음악을 만든다.
- ② ~상쾌한 아침의 정경을 연상시키는 음악을 만든다.
- ③ ~내면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악을 만든다.
- ④ 첫째 음과 둘째 음의 간격이 완전5도가 되는 음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주제가 명확한 음악을 만든다. ☞ (☆정답)
- ⑤ ~화들짝 놀라는 장면에 들어갈~

그래서 ④는 일탈 선지이며 지문과 발문에 상관없이 정답이 될 확률은 80% 이상이다.

07.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77위

#그림 이해 #배경지식 필요 #최협의 조언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62%	① 5%	② 15%	③ 62%	④ 10%	⑤ 8%

✓ 정답 풀이

③ <그림>에 표현된 소리의 부분음 중 기본음의 세기가 가장 크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1)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 하는데 귀는 복합음 속의 부분음들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2문단]

↳ <그림>에 표현된 소리의 부분음 중 진동수(가로축)가 110Hz인 것이 가장 작기 때문에 <기본음>에 해당1)하고 그 세기(세로축)는 가장 크다.

패턴 공략

▶비문학 도표 관련 문제는 가로축과 세로축에 해당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다.

최선의 조언

비문학에서 <그림>, <도표> 등과 관련된 문제의 정답 근거는 보통 해당 <그림>, <도표>가 포함된 문단에 있는데 이번 문제는 해당 문단 이전인 2문단에 정답의 근거가 있다. 해당 부분에 정답의 근거가 없다고 당황하지 말고 이전 이후의 맥락을 천천히 살펴보자.

✕ 오답 풀이

① <그림>은 심벌즈의 소리 스펙트럼이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가 <심벌즈> 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한다. 이 중 전자를 고른음, 후자(심벌즈)를 시끄러운음이라고 한다.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지만 1)시끄러운음(심벌즈)은 주기성을 갖지 못한다. [2문단]
-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은 <그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난 세로 막대들로 나타나는 반면에 2)시끄러운음의 소리 스펙트럼에서는 <그림처럼> 막대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3문단]

↳ <심벌즈>는 주기성을 갖지 못하는 시끄러운음의 소리 스펙트럼이기1) 때문에 <그림>처럼 막대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2)

※ 또 다른 풀이

66 지문 속근거 찾기

-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른음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1)<타악기> 소리는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 [3문단]

↳ <심벌즈>는 <타악기>이기 때문에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1) 이는 <정수배>를 이루고 있는 <그림>과는 달라서 선지 ①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풀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의 배경지식이 있어야 한다.

- i. <심벌즈>는 <타악기>이다.
- ii. <정수배>는 기본음에 각각 정수를 곱한 것이다.
☞ 기본음(110) ×2, ×3, ×4... = 220, 330, 440...

② <그림>에 표현된 복합음의 진동수는 550Hz로 인식된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 하는데 귀는 복합음 속의 부분음들 중에서 1)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2문단]

↳ 기본음의 진동수가 110Hz이며(정답 해설 참조),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1)하기 때문에 복합음의 진동수도 마찬가지로 110Hz로 인식된다.

④ <그림>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분음의 세기의 변화를 나타낸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이때 같은 1)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진동수>라고 한다. [2문단]
-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소리 스펙트럼은 2)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3문단]

↳ <그림>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1초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파형의 반복 횟수1)'를 나타낸 <진동수>에 따라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2)이다.

☞ 그래프에서 세로축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각각의 <진동수>를 나타낸 것만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음을 신속히 판단할 수 있다.

최선의 조언

선지에 대한 정/오를 판단할 때는 항상 최소한의 근거 지문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능 국어는 똑같이 정답과 오답을 찾아낸다면 누가 더 신속하게 접근했느냐에 따라 등급이 나눌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실제 수능에서는 1초의 시간이라도 아껴라! 1초라도 모으고 모으면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그냥 짚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다.

⑤ <그림>에서 220Hz에 해당하는 막대가 사라져도 음색은 변하지 않는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악기가 내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성인 <음색>은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즉 1)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 [2문단]

↳ <음색>은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1)되기 때문에 <그림>에서 220Hz에 해당하는 막대가 사라지면 음색은 변하게 된다.

08.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61위

#비교 선지의 법칙 #계산 #보기 제시 #3점 #배경지식 필요 #최협의 조언

정답률 58%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58%	③ 8%	④ 16%	⑤ 13%

정답 풀이

② P와 Q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좁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음정>이란 두 음의 음고 간의 간격을 말하며 '높은 음고의 진동수'를 '낮은 음고의 진동수'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A]

지문 POINT

(P와 Q 사이의 음정: $550/440=1.25$) >

(Q와 R 사이의 음정: $660/550=1.20$)

↳ P와 Q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넓다.

오답 풀이

① P와 Q 사이의 음정은 장3도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가령, '도'와 '미' 사이처럼 1(장3도) 음정은 5/4이고, '도'와 '솔' 사이처럼 완전5도 음정은 3/2이다. [A]

↳ <P와 Q 사이의 음정>은 $550/440$ 즉, $5/4$ 이기 때문에 <장3도>에 해당1)한다.

패턴 공략

▶ 지문: A는 B이다. → 적절 선지: B는 A이다.

③ P와 R 사이의 음정은 협화 음정이라고 할 수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서로 잘 어울리는 두 음의 음정을 <협화 음정>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음정을 불협화 음정이라고 하는데 16세기의 음악 이론가인 차를리노는 1)약분된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1, 2, 3, 4, 5, 6으로만 표현되는 음정은 <협화 음정>. [A]

↳ P와 R 사이의 음정($660/440=3/2$)은 약분된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1, 2, 3, 4, 5, 6) 중 2, 3으로만 표현1)되기에 <협화 음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P와 S의 부분음 중에는 진동수가 서로 같은 것이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른음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3문단]

↳ <P의 기본음>은 440이고 그 정수배는 880, 1320, 1760~이며, <S의 기본음>은 880이고 그 정수배는 1760, 2640, 3520~이다. 그래서 P와 S의 부분음 중에는 진동수가 서로 같은 것(880, 1760~)이 있다.

♣ 위 선지의 적절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문에 없는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 i. '바이올린'은 <현악기>이다.
- ii. <정수배>는 기본음에 각각 정수를 곱한 것이다.
↳ 기본음(110) × 2, × 3, × 4... = 220, 330, 440...

최협의 조언

실제 수능에서는 배경지식이 없어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배경지식 덕분에 문제를 신속하게 푸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라도 그 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니 겁먹을 필요는 없다.

- ※ 지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꼭 필요했던 배경지식들
- * 「토끼전」의 주요 줄거리(2016 수능 문학)
- * 낮보다 밤에 소리가 더 잘 들림.(2016 수능 문학)
- * 밀도 = 질량/부피, 무게 = 질량×중력 가속도(2016 수능 비문학)
- * 문장의 성분, 문장의 짜임(2015 수능 문법)
- * 「상춘곡」에 대한 기본 해석(2015 수능 문학)
- * 「관동별곡」에 대한 기본 해석(2015 수능 문학)
- * 「홍길동전」 전체 기본 줄거리(2014 수능 문학)

⑤ P와 S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협화도가 크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일반적으로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협화도는 작아진다고 본다. [A]
→ (분자와 분모의 수치와 협화도는 반비례)

지문 POINT

- * P와 S 사이의 음정: $880/440=2/1$
- * Q와 R 사이의 음정: $660/550=6/5$

↳ <Q와 R 사이의 음정>의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더 크기 때문에 <P와 S 사이의 음정>의 협화도가 더 크다.

★ 비교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위 문제의 경우, 부정형 발문이며 선지 ②, ⑤에만 비교하는 내용이 나온다.

- ② P와 Q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좁다. (☆정답)
- ⑤ P와 S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협화도가 크다.

09~11 회화주의 사진

1 1사진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대 문명이 만들어 낸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2**하지만 점차 여러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제작함으로써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3**이들은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 등의 기법으로 회화적 표현을 모방하여 예술성 있는 사진을 추구하였다. **4**이러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사진 작품들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부른다.

1 회화주의 사진의 등장

* 회화주의 사진: 연출 형태의 사진 → 자기의 주관을 표현 → 예술성 있는 사진 추구

2 1스타이컨의 ①〈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1902년)은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이 작품에서 피사체들은 조각가 '로댕'과 그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이다. **3**스타이컨은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 **4**이렇게 제작된 사진의 구도에서 어둡게 나타난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보며 비슷한 자세로 앉아 있고, 반면 환하게 보이는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가 이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5**단순히 근경과 원경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고난도인 합성 사진 기법을 동원한 것이다. **6**또한 인화 과정에서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광액을 사용하였다.

2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의 특징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

* 합성 사진 =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
+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
→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음.

1

1

* '19세기 초'처럼 시대가 나오면 시대별 전개 방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두어야 한다.

1~2

* 대립 맥락에서 대개 포인트 문장은 뒤에 나오는 것이므로 여기서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2

1

* '스타이컨'처럼 지문에서 인물 명이 나오면 또 다른 인물과 공통 혹은 대립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5

* 〈반면, 아니라〉처럼 대립 표지어를 동반한 문장이 연속된다면 문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3 1스타이컨은 1901년부터 거의 매주 로맹과 예술적 교류를 하며 그의 작품들을 촬영했다. 2로맹은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려는 당시 예술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는 조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타이컨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깊이 공감하였다. 3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맹 또한 이에 동감하여 기꺼이 사진 작품의 모델이 되어 주기도 하였다.

3 스타이컨과 로맹의 예술적 사상

- * 로맹: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는 조각
- * 스타이컨: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 → 해석의 대상 가능

4 1이 사진에서는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하여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2대 문호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로맹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 양, 같은 자세로 목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3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맹과 <생각하는 사람>의 어두운 모습에 대비되어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4이러한 구도는 로맹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4 사진의 구도가 주는 메시지

- * 뚜렷하지 않은 질감 → 사람인 듯한 느낌
- * 근경과 원경의 대비 → 창조의 영감 발산
- ▶ 로맹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줌.

5 이처럼 스타이컨은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원판을 합성하여 구도를 만들고, 특수한 감광액으로 질감에 변화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5 스타이컨의 의도

- * 스타이컨: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
-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 원판을 합성하여 구도를 만들. 특수한 감광액으로 질감에 변화를 줌.

3

1

* <서로를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두 인물이 <교류>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공통점(공정, 공감, 확장 등)을 바탕으로 서술될 것임을 암시한다.

2~3

* 2인 이상의 인물 명이 자주 등장하면 일단 모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인물과 그의 특성을 바꿔치기한 선지는 자주 출제됨.)

4

1~2

* 일반적 서술+구체적 서술(사례)의 구성. (사람인 듯한 느낌+ '생각하는 사람')

3

* '밝게 빛나는' ↔ '어두운'처럼 대립 항을 파악하는 능력은 독해력 신장에 많은 도움을 준다.

5

1

*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 = 회화와 같은 방식의 '사진' ≠ 사진 같은 회화/사진 ≠ 회화

* '사진', '회화'와 같이 비슷해 보이는 어휘일지라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최쌤의 Q&A

Q '이처럼 스타이컨은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타이컨이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한 게 아니라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사진의 구도를 만든 것 아닌가요?

A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사진의 구도를 만드는 것>이 촬영 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09.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1위

#공통 선지의 법칙 #이해

정답률 86%	선지별 선택 비율				
① 86%	② 5%	③ 1%	④ 1%	⑤ 7%	

정답 풀이

① 로댕은 사진 작품, 조각 작품, 문학 작품 모두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여겼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스타이컨은 1)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 <로댕> 또한 이에 동감하여 가까이 사진 작품의 모델이 되어 주기도 하였다. [3문단]

↳ 스타이컨은 '사진' 작품, '조각' 작품, '문학' 작품 모두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여겼는데 1) <로댕> 또한 이에 동감한다 2) 고 하였으므로 로댕도 사진 작품, 조각 작품, 문학 작품 모두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여겼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빅토르 위고는 사진과 조각을 모두 해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작품에서 피사체들은 조각가 '로댕'과 그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이다. 스타이컨은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된 사진의 구도에서 어렵게 나타난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 보며 비슷한 자세로 앉아 있고, 반면 환하게 보이는 원경에는 2) <빅토르 위고>가 이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2문단]

• 3)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3문단]

↳ 지문에서 <빅토르 위고>는 사람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작품 속의 피사체로 언급된 것이기 때문에 피사체가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사진과 조각을 모두 해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한 이는 <스타이컨>이며 3) 작품 속 피사체인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것 2)은 역시 작품 속 피사체인 마주보고 앉아 있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휘 체크

* 피사체: 사진을 찍는 대상이 되는 물체.

③ 스타이컨의 사진은 대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회화주의 사진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사진>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대 문명이 만들어 낸 기술적 도구이자 2)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점차 여러 사진 작가들(→ 스타이컨 포함)이 사진을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제작함으로써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들은 3)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 등의 기법으로 회화적 표현을 모방하여 예술성 있는 사진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사진 작품들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부른다. [1문단]

↳ <사진>이 대상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 2)은 스타이컨 이전의 19세기 초까지의 인식 1)이기 때문에 선지 ③은 적절하지 않다. 스타이컨은 대상에 기법을 사용하는 회화주의적 예술성을 추구하였다. 3)

④ 로댕과 스타이컨은 조각의 역할이 사물의 형상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로댕>은 1)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려는 당시 예술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는 조각을 하고 있었는데, 2) <스타이컨>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깊이 공감하였다. [3문단]

↳ <로댕>은 사물의 외형(형상)만을 재현하려는 당시 예술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1) 있고 <스타이컨>도 이에 공감 2)하므로 선지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⑤ 스타이컨의 작품에서 명암 효과는 합성 사진 기법으로 구현되었고 질감 변화는 피사체의 대립적인 구도로 실현되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스타이컨은 ~1)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된 사진의 구도에서 어렵게 나타난 → (명암 효과)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 보며 비슷한 자세로 앉아 있고, 반면 환하게 보이는 → (명암 효과)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가 이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2) '인화' 과정에서는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 → (질감 변화)되는 감광액을 사용하였다. [2문단]

↳ 스타이컨의 작품에서 <명암 효과>는 합성 사진 기법 1)으로 구현되었지만 <질감 변화>는 피사체의 대립적인 구도로 실현된 것이 아니라, '인화' 과정에서 감광액을 사용한 결과 2)이다.

★ 공통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위 문제의 선지 ①, ②는 사진, 조각을 해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통된다.

① ~ 사진 작품, 조각 작품 ~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여겼다. (☆정답)
② ~ 사진과 조각을 모두 해석의 대상이라고 생각~

그래서 지문 및 문제와 상관없이 선지 ①, ②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10.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19위

#의도 #3점

정답률 73%	선지별 선택 비율				
	① 4%	② 7%	③ 13%	④ 73%	⑤ 3%

정답 풀이

④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한 것은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근경의 사진과 합칠 때 대비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스타이컨은 1)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2)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된 사진의 구도에서 어렵게 나타난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 보며 비슷한 자세로 앉아 있고, 반면 환하게 보이는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가 이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2문단]

지문 POINT

※ 선지 ④가 적절하지 않은 2가지 사항

-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
-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 인물(로댕)과 청동상, 두 개체를 동시에 찍은 것이 아니라 각각 찍은 사진을 합성1~2)한 것이며 원경의 대상인 <빅토르 위고>는 따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로댕과 함께 찍었다. 1)

최선의 조언

실제 시험에서는 i, ii 중 잘못된 하나만을 발견하더라도 신속하게 선지 ④가 정답임을 판단해야 한다. 불안해서 둘 다 확인하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시간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실제 수능에서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금물이다. 1초라도 시험 시간을 아껴야 하는 수능 국어! 잊지 말자, 시간 절약이 곧 점수 차고 실력이라는 것을!

오답 풀이

① 고난도의 합성 사진 기법을 쓴 것은 촬영한 대상들을 하나의 프레임에 담기 위해서였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단순히 근경과 원경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 1)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고난도의 합성 사진 기법>을 동원한 것이다. [2문단]
→ 고난도의 합성 사진 기법을 동원한 이유

↳ <고난도의 합성 사진 기법>을 쓴 것(→ 이유)은 촬영한 대상들을 하나의 프레임에 담기1) 위해서였다.

② 원경이 밝게 보이도록 한 것은 <빅토르 위고>와 로댕 간의 명암 대비 효과를 내기 위해서였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2)<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의 어두운 모습에 대비되어 → (명암 대비) 창조 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4문단]

↳ 원경이 밝게 보이도록 한 것1)은 <빅토르 위고>와 로댕 간의 명암 대비2)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 보며 같은 자세로 있게 한 것은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 양, 같은 자세로 묵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로댕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2)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4문단]

↳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 보며1) 같은 자세로 있게 한 것은 고뇌하는 모습2)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⑤ 대상들의 질감이 잘 살지 않도록 인화한 것은 대리석상과 청동상이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 사진에서는 피사체들의 1)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하여 모든 피사체들이 2)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4문단]

↳ 대상들의 질감이 잘 살지 않도록1) 인화한 것은 대리석상과 청동상이 사람처럼 보이게2)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11.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11위

#일탈 선지의 법칙 #감상문 #최선의 조언

정답률 85%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	② 1%	③ 12%	④ 85%	⑤ 1%

정답 풀이

④ @ 스타이컨이 로댕의 조각 예술이 문학에 종속되는 것으로 표현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러한 구도는 1)로댕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 (로댕의 작품과 문학 작품은 동등한 관계) 2)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3문단]

↳ 스타이컨은 <로댕의 조각 예술>이 <문학>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동등한 관계로 동일하게 1)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 2) 임을 표현하고 있다.

☑ 어휘 체크

♣ 어휘의 의미가 정답의 단서!

- i. <종속>: 자주성이 없이 주가 되는 것에 딸려 붙음.
- ii. <마찬가지>: 사물의 모양이나 일의 형편이 서로 같음.

- i. A가 B에 종속됨. → A가 B보다 열등함.
- ii. A는 B와 마찬가지로 → A와 B는 동등함.

최선의 조언

위와 같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 같지만 단어의 의미 하나만 제대로 파악해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실제 수능에도 위와 같은 사례는 많다. 그리고 감상문을 결합한 문제라고 특별한 것은 없다. 내용 일치·불일치를 단순하게 판단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 사진도 예술 작품으로서 작가의 생각을 표현하는 창작 활동이라는 스타이컨의 생각

🔍 지문 속 근거 찾기

• <스타이컨>은 1)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3문단]

↳ <사진>도 예술 작품으로서 작가의 생각을 표현 1) 하는 창작 활동이라는 <스타이컨>의 생각에 해당한다.

🌀 패턴 공략

▶ 지문: A는 B하다. → 적절 선지: B한 것은 A이다.

② ㉡ 회화적 표현을 사진에서 실현시키려 했던 스타이컨의 노력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처럼 <스타이컨>은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원판을 합성하여 구도를 만들고, 특수한 감광액으로 질감에 변화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1)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끝 문단]

↳ 회화적 표현을 사진에서 실현 1) 시키려 했던 <스타이컨>의 노력이 드러나 있다.

③ ㉢ 스타이컨이 빅토르 위고와 같은 위대한 문학가를 창작의 영감을 주는 존재로 표현

🔍 지문 속 근거 찾기

•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1) <빅토르 위고>는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4문단]

↳ 스타이컨이 <빅토르 위고>와 같은 위대한 문학가를 창작의 영감을 주는 존재 1) 로 표현하였다.

⑤ ㉤ 기술적 도구로 여겨졌던 사진을 예술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한 스타이컨

🔍 지문 속 근거 찾기

• <사진>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대 문명이 만들어 낸 1)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점차 여러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제작함으로써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들은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 등의 기법으로 회화적 표현을 모방하여 2) 예술성 있는 사진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흐름(→ 예술 행위) 속에서 만들어진 사진 작품들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부른다. [1문단]

↳ 기술적 도구로 여겨졌던 1) 사진을 예술 행위의 수단 2) 으로 활용한 스타이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일탈 선지의 법칙 ★

* 선지 ④가 좀 튀는 이유, 그리고 높은 정답의 가능성!
선지 ④가 눈에 띄는 이유는 ④에만 부정적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선지 ①~⑤의 핵심을 긍정적-부정적으로 구분하면,

- ① ~창작 활동이라는 스타이컨의 생각 → (긍정적)
- ② ~실현시키려 했던 스타이컨의 노력 → (긍정적)
- ③ ~위대한 문학가를 창작의 영감을 주는 존재로 표현 → (긍정적)
- ④ ~예술이 문학에 종속되는 것으로 표현 → (부정적) ✎ (☆정답)
- ⑤ ~사진을 예술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한 스타이컨 → (긍정적)

선지 ④만이 나머지와는 다른 부정적 이미지로, ④는 일탈 선지이며 지문과 발문에 상관없이 정답이 될 확률은 80% 이상이다.

12~14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1 1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2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3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펼친다. 4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미 판단 이론이다.

1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의 등장

- * <근대 초기의 합리론>의 입장
 - 이성○, 확실한 지식 중시
 - 미적 감수성: 이성×, 원리×, 자의적
- * <칸트>의 입장
 - 미감적 판단력(미적 감수성): 원리○, 이성△
 - 취미 판단 이론: 미감적 판단력에서의 핵심 역할

1

- 1
- * '근대 초기'와 같이 첫머리부터 시대가 나오면 시대적 구분에 따라 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번 지문은 해당되지 않지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 * 대상에 대한 부정적 서술까지 밀줄을 긋는 것보다 간결하게 밀줄× 표시가 더 시각적 인지 효과가 좋다.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 → 미적 감수성×) 독해하면서 밀줄 및 기호는 최대한 간결하게 표시하여 구조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9도 마찬가지로]

1~2

- 1~2
- * <1(결과)+2(원인)>의 종속적 관계의 구성이다. 각각의 첫머리가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미적 감수성은~'으로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서로 대등한 진술로 착각하면 출발부터 꼬이게 된다.

3

- 3
- * '~맞서 칸트는~'을 통해 앞의 맥락과는 반대의 본격적인 화제가 제시됨을 알 수 있다. 즉, <칸트>의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이와 대립적인 이론(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먼저 제시했는데,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 지문의 핵심인 <칸트>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전의 내용은 대충 보거나 심지어 보지 않더라도 전체 독해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눈에 띄는 사선 표시를 해 두고 핵심어를 메모하거나 머릿속에 정리해 두면 된다. 실전에서 '칸트의 <미적 감수성>, <미감적 판단력>, <취미 판단 이론>은 같은 맥락이며 <원리 & 이성>의 관련성을 긍정함' 정도만 파악해도 ok!

※ 대립적 구조의 표지

- * A는 B와는 달리~: 2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 * A에 맞서 B는~: 3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4

- 4
- * 첫 문단의 끝 문장에서 제시한 소재는 이전 내용을 한정 혹은 구체화하면서 글 전체의 중심 화제(취미 판단 이론)를 제시하기 마련이다. 첫 문단부터 개념이나 소재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면 가장 마지막 문장에 있는 것(취미 판단)을 주목하며 이를 끌어내기 위해 어떤 방법(→ 대립적)으로 이전 내용이 서술되었는지 살펴보자.
 - * '이러한', '이',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 가는 지시 대명사(이~, 그~)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3-4, 4-1도 마찬가지로]

2 [개] **1**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2**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3**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4**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5**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6**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7**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8**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9**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기어들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2 취미 판단의 특징

* 칸트의 <취미 판단>

- 대상의 미·추를 판정 → 미감적 판단
-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부여
- 실제로, 주관적 감정에 의거(쾌 or 불쾌)
- 오직, 하나의 개별 대상만 해당 (개념적 일반화×)
- 대상의 형식을 관조하여 오직, 미·추만을 판정 (다른 목적×, 다른 맥락×, 순수한 태도 → 미감적 태도 전제)

* 근대 초기 합리론의 <규정적 판단>

- 이성적, 객관적
- 보편타당성, 개별 대상 및 묶은 대상도 해당

2

※ 주된 설명은 <취미 판단>이지만, <규정적 판단>과 섞여 있어 이를 잘 구분해야 한다. 특히, 반대의 맥락을 나타내는 표지어(하지만, 이와 달리)에 적절한 표시는 필수! 실전 시험 때, **2~3**번 문장의 <주어 S, 술어 P>를 통한 설명을 정확히 100%로 이해하려고 집착할 필요가 없다. 대상의 핵심 특징이 <객관적이나, 주관적이나?>를 따지는 문맥으로 보아 <규정적 판단>은 확실히 객관적! <취미 판단>은 객관적인 것처럼만 파악하면 된다.

2

* 모든 부분을 구석구석 동일한 집중력과 에너지를 쏟아 읽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따로 있다. 바로 새로운 개념의 특성이 설명되는 <규정적 판단>에서부터가 포인트!

2~3

* <객관적 성질로서> ≠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

* <규정적 판단>이 확실히 <객관적 성질인 것>과 <취미 판단>이 <마치 객관적 성질인 듯한 것>은 엄연히 다르므로 서로 구분해 주어야 한다.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특성의 서술은 항상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3~4

* <객관적 vs 주관적>과 같이 대립적 특성의 어휘 쌍이 보인다면 꼭 밑줄을 해 두고 해당 대상의 설명을 정확히 짚지어 놓자. 이 둘의 특성을 바꿔치기한 잘못된 선지가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 **3**번 문장만으로, <취미 판단>을 확실히 객관적 성질로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같은 대상에 대한 대립적 설명이 연속해 있다면, 후자에 더욱 초점을 두자. 중요한 핵심 설명은 뒤에 있는 경우가 많다.

5

* <(원인)~지향하므로~(결과)>의 구성으로, 당연히 결과 부분이 상대적 포인트 부분이다.

3~5

※ 보충 예시

[S는 P이다]

i. 규정적 판단: <사람>은 <점점 늙어간다>

→ 술어 <점점 늙어간다>는 주어 <사람>에 객관적 성질로서 부여됨.

ii. 취미 판단: <공부>는 <즐겁다>

→ 술어 <즐겁다>는 판단 주체의 주관적 감정일 뿐.

5

*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 하나인 듯, 하나가 아닌 듯... 슬쩍만 읽어도 헷갈릴 만한 느낌이 들면 밑줄을 긋고 별표라도 쳐 두자. 출제자들이 문제로 가공하기 딱 좋은 부분이다.

6

* <오로지, 오직, 반드시, 절대로, 꼭...>처럼 다른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 절대성의 수식어가 나오면 선지의 정/오 판단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5~6

* <개별? 여러 대상? 오직 하나? 하나의 단위?> 헷갈린다~헷갈려! 한 번 더 이렇게 느꼈다면 이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확실히 정리해 놓아야 한다. 아니 정리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메인 테마인 '이와 달리' 이후 <취미 판단>에 대한 내용만이라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내용은 간단하다. <오직 하나의 개별 대상만!>

7

* 다른 취미 판단의 설명과는 다르게 취미 판단이 성립될 수 없는 부정적 진술이기 때문에 밑줄까지 그으며 키워드를 찾을 필요는 없다.

3 1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 라는 점이다. 2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이때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 5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6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

3 <공통감>의 역할
 * 공통의 미적 감수성 →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구성
 *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함. → 어떤 주체의 취미 판단은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

4 1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이다. 2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3계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4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말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5만년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6오늘 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 단초를 칸트에게서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논변 때문이다.

4 취미 판단 이론의 의의
 * 칸트의 궁극적 지향점: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
 * 취미 판단의 의의: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로 보는 학자들에게 이론적 단초를 제공

3

1 * '중요한 것은~'과 같이 지문 자체적으로 중요 포인트(→ 공동체적)를 짚어 주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는 밑줄을 꼭 그어야 한다.

2~3 *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미감적 공동체>, <공통감, 공통의 미적 감수성> 등은 자연스럽게도 새로운 것이 없는 정보의 연결이기 때문에 밑줄 없이 신속히 지나쳐야 한다.

* 결과(~할 수 있다)+원인(왜냐하면~)의 구성이다. <원인+결과>의 구성이든 <결과+원인>의 구성이든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쪽은 <뒤에 진술한 것>이다. 이는 중요한 것은 대개 뒤에 말하려는 작문의 본능적인 습성에 기인한다.

5 * 보편성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객관성과 밀접한데, '주관적 보편성'은 특이점을 보이는 어휘임에는 틀림없다. 이걸 모순이라고 가우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왜 이렇지?' 하고 지문을 통해 따져 보아야 한다. 취미 판단이 <주관성+객관성>을 다 가져가려는 것으로 꼭 넓게 이해해야 한다.

5 * '즉'은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쉽게 정리해 준다.

4

1 *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과 같이 지문 자체적으로 중요 포인트(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를 짚어 주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는 밑줄을 꼭 그어야 한다.

2 * 지문이 길다면 심표에서 흐름을 한 번 끊어 주자.

3, 5 * 매우 짧은 문장 안에 장단점을 모두 담고 있어 함축성이 강하다. 선지의 정/오 판단에 활용되기 딱 좋다.

12.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19위

#이해 #평가 기준의 척도 #비슷함_동일

정답률 73%	선지별 선택 비율				
	① 4%	② 9%	③ 7%	④ 7%	⑤ 73%

정답 풀이

⑤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1)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2)<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끝 문단]

↳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2)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1)에 기여한다고 본다.

✖ 오답 풀이

①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또한 2)<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3)<취미 판단>(→ 미감적 판단력)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2문단]

↳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인 '취미 판단'이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지지만 3) <규정적 판단력>은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2)

그래서 <미감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이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칸트는 이 둘을 동일하다고 보지 않는다.

✔ 어휘 체크

※ 비슷함, 유사함, 닮은 꼴 ≠ 동일함

* <규정적 판단>에서는 ~부여된다.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미감적 판단력)>에서도 ~부여된다. [2문단]

→ <규정적 판단>과 <미감적 판단력>이 서로 유사한 점이 있어도 동일한 것은 아니다.

② 칸트는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보았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1)<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

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또한 2)<이성>에 의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2문단]

• 게다가 3)<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4)한계가 되기도 한다. 5)'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말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끝 문단]

🔍 지문 POINT

1~2) <이성>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

3) <이성>의 미덕: <객관적 타당성>을 지님.

4~5) <객관적 타당성>을 지닌 <이성>의 한계: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말이 밝힐 수 없음.

↳ <이성>에 의한 지식은 <이성>적인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이성>의 지향이자 미덕인 <객관적 타당성>을 지닌다. 2~3) 그래서 이유(개념의 한계)가 어찌되었건,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은 아니다.

✔ 어휘 체크

* 미덕: 아름답고 가룩한 덕행.

* 결여: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빠져서 없거나 모자람.

* 지향: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 → '지양'(피함, 하지 않음)

📁 바탕 지식 더하기

※ 다양한 <평가 기준>의 척도를 알아보자.

- 타당성: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 합리성: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 → (상식적)
- 객관성: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
- 공정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성질
- 정확성: 바르고 확실한 성질
- 신뢰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

🔍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의 타당성이 높아져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의견에 신뢰가 간다.

③ 칸트는 미적 감수성이 비개념적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1)'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하지만 실제로 2)취미 판단('미적 감수성'과 관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2문단]

- 반면 3)〈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끝 문단]

📌 지문 POINT

1~2) (‘규정적 판단’-객관적) vs (‘미적 감수성’-주관적)

↳ 〈미적 감수성〉이 비개념적 방식3)인 것은 맞지만, 객관적 지식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 패턴 공략

▶ (객관적이나 vs 주관적이나) 양상은 자주 문제화되니 지문에서 관련 내용이 나타나면 꼭 적절한 표시를 해 두자.

④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을 본격적으로 규명하여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선구적으로 이끌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러한 1)〈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 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펼친다. [1문단]

↳ 칸트는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미감적 판단력(미적 감수성)을 규명한 것1)이지,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선구적으로 이끈 것은 아니다.

✅ 어휘 체크

* 맞서다: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겨루어 버티다.

13.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96위

#이해 #최선의 조언

정답률 67%	선지별 선택 비율				
① 4%	② 14%	③ 8%	④ 67%	⑤ 7%	

✅ 정답 풀이

④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1)‘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2문단]

↳ 권선징악(선을 권하고 악을 나무람.)이라는 교훈적 내용으로 영화의 주제를 판단했기에1) 〈취미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취미 판단〉은 오로지 1)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2문단]

↳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대상(장미)의 형식적 국면(색깔이나 모양새)만을 관찰하여 아름다움을 판정1)했기에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어휘 체크

- * 국면: 어떤 일이 벌어진 장면이나 형편.
- * 관조: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관찰.

② ‘유용하다’는 취미 판단 명제의 술어가 될 수 없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1)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2문단]

↳ ‘유용하다’는 〈취미 판단〉에서 금지하고 있는 실용적 유익성에 해당하는 맥락1)이기 때문에 취미 판단 명제의 술어가 될 수 없다.

✅ 어휘 체크

* 유용하다(쓸모가 있다.) ≡ 실용적(실제로 쓰기에 알맞은) ≡ 유익성(이름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

③ ‘모든 예술’은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1)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2)〈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2문단]

↳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2)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므로 ‘모든 예술’1)은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고 〈규정적 판단〉에 해당한다.

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취미 판단〉은 오로지 1)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2)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2문단]

↳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1)했을 뿐,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른 미·추를 판정2)하는 것이 없기에 <취미 판단>이라 할 수 없다.

최선의 조언

[2문단]의 핵심은 <취미 판단>의 특징이다. 이를 정리하면서 독해를 한다면 복잡해 보이는 S와 P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 못해도 모든 선지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다. 선지에 해당하는 근거 지문을 다시 살펴보자. S와 P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반드시 지문의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자. 시험은 지문을 온전히 이해 못해도 정답만 찾으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되, 평소 공부할 때에는 하나하나 꼼꼼히 이해하고 공부해야 한다.

14.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90위

#대립 선지의 법칙 #추론 #3점 #최선의 Q&A

정답률
66%

선지별 선택 비율

① 66% ② 10% ③ 11% ④ 6% ⑤ 7%

정답 풀이

① 개념적 규정은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1)미적 감수성(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 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펼친다. 2)이러한 작업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미 판단> 이론이다. [1문단]
-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3)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 → (<개념적 규정>) 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2문단]
- 반면 4)미적 감수성(→ <취미 판단>)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끝 문단]

☞ 지문 POINT

※ 같은 맥락으로 묶기

1~2) 미적 감수성 = 미감적 판단력 = 취미 판단

3) 개념적 규정 = 규정적 판단

4) {미적 감수성 = 미감적 판단력 = 취미 판단} ≠ {개념적 규정 = 규정적 판단}

↳ <개념적 규정>은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이 아닌, <규정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3) <취미 판단>의 바탕인 <미적 감수성>1~2)은 대상의 <개념적 규정>이 안 되기4) 때문에 <개념적 규정>이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② 공통감은 미감적 공동체에서 예술 작품의 미를 판정할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1)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그(미감적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문단]
- 이때 3)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 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4)보편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3문단]

↳ <공통감>은 <미감적 공동체>에서 작용하며1~2) 예술 작품의 미를 판정할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다.3~4)

최선의 Q&A

Q 2문단,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에서 취미 판단은 보편성이 없는 것이고, 3문단,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에서 취미 판단은 보편성이 있는 것인데, 그럼 서로 모순 아닌가요?

A 2문단은 취미 판단의 대상에 대한 보편성, 3문단은 취미 판단의 주체에 대한 보편성으로, 서로 다른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모순이 아니다. 즉, 취미 판단에서도 대상에 대한 보편성은 없지만 주체에 대한 보편성은 있는 셈이다.

③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1)주관적 보편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2)공통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 [3문단]

↳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1) <공동체의 공통감>에 의한 필연적 결과이기2) 때문에 우연으로 볼 수 없다.

④ 예술 작품에 대한 나의 취미 판단은 내가 속한 미감적 공동체의 미적 감수성을 보여 준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1)〈공통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2)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

[3문단]

▶ 예술 작품에 대한 나의 〈취미 판단〉은 〈공통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1) 때문에 내가 속한 미감적 공동체의 미적 감수성을 보여 준다.2)

어휘 체크

- * 예시하다: 미리 보이거나 알리다.(✓)
예를 들어 보이다.

⑤ 예술 작품에 대해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그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1)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2문단]

▶ 〈취미 판단〉은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하기1) 때문에 예술 작품에 대해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그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

패턴 공략

- ▶ 지문: A하면 B하다. → 적절 선지: A하지 않으면 B하지 않다.

★ 대립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6쪽 참고)

- * 위 문제는 선지 ①, ⑤가 취미 판단에 대해 긍정/부정으로 서로 대립이다.

- ① ~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 (☆정답)
- ⑤ ~ 취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지문 및 발문과 상관없이 선지 ①, ⑤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지문 난이도 ★★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A형 22~25 / B형 22~25 문항 평균 오답률 순위 80위

01 ~ 04 추사 김정희의 묵란화

1 1먹으로 난초를 그린 **묵란화**는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그림으로, 여느 사군자화와 마찬가지로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다. **2**묵란화는 중국 북송 시대에 그려지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문인들에게 널리 퍼졌다. **3**문인들에게 시, 서예, 그림은 나눌 수 없는 **하나였다**. **4**이런 인식은 묵란화에도 이어져 난초를 칠 때는 글씨의 획을 그을 때와 같은 붓놀림을 구사했다. **5**따라서 **묵란화**는 문인들이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

1 묵란화의 개념

* **묵란화**: 난초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그림
→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드러냄.

2 1추사 김정희가 25세 되던 해에 그린 **석란(石蘭)**은 당시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묵란화이다. **2**화면에 공간감과 입체감을 부여하는 **잎새들은 가지런하면서도 완만한 곡선을 따라 늘어져 있으며, 꽃은 소담하고 정갈하게 피어 있다**. **3**도톰한 잎과 마른 잎, 둔중한 바위와 부드러운 잎의 **대비가 돋보인다**. **4**난 잎의 조심스러운 선들에서는 **단아한 품격을, 잎들 사이로 핀 꽃에서는 고상한 품위를, 묵직한 바위에서는 돈후한 인품을** 느낄 수 있으며 당시 문인들의 **공통적 이상이 드러난다**.

2 김정희의 석란

* 당시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단아함, 고상함, 돈후함) → 당시 문인들의 공통적 이상이 드러남.

3 1평탄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김정희의 예술 세계는 49세부터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보인다. **2**글씨는 맑고 단아한 서풍에서 추사체로 알려진 **자유분방한 서체**로 바뀌었고, 그림도 부드럽고 우아한 화풍에서 **쓸쓸하고 처연한** 느낌을 주는 화풍으로 바뀌어 갔다.

3 김정희의 예술 세계의 변화

* **유배 생활의 김정희**: 자유분방한 서체, 쓸쓸+ 처연한 느낌.

지문 접근 전략 & 해설

1

- 1 * 개념 설명에서 피정의항은 동그라미, 정의항의 키워드는 밑줄을 추천.
- 2 * <시간(북송 시대)과 지역(우리나라~)>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들어간 문장은 문제로 가공되기 쉽다.
- 5 * 문단의 끝 문장이 <따라서>로 시작한다면 문단을 아우르는 가장 핵심(결론, 결과)을 나타낸다. 첫 문장의 <난초에 관념 투영>, <품성을 담음>은 <교양과 감성 드러냄>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2

- 1 * '김정희가 25세 되던~'을 통해 인물의 나이에 따른 전개 방식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즉, 나이에 따라 글의 큰 흐름이 형성된다.
- 3 * '대비'라는 말이 직접 제시된 것처럼, 대립 향이 있는 내용은 출제 포인트가 되기 좋다.
- 4 * 돈후하다: 인정이 두텁고 후하다.

3

- 1 * 긍정/부정 맥락의 혼란이 올 수 있다. 유배 생활은 분명 부정적인데 여기에서 긍정적 느낌의 자유분방한 서체와 부정적(쓸쓸+ 처연한) 느낌이 동시에 나왔다는 것에 주의하자.
- 2 * 처연하다: 애달프고 구슬프다.

4 1생을 마감하기 일 년 전인 69세 때 그랬다고 추정되는 ㉠ **문작란도**(不作蘭圖)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 준다. 2담묵의 거친 갈필로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된 몇 가닥의 잎은 왼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오른쪽으로 뒤틀리듯 구부러져 있다. 3그중 유독 하나만 위로 솟구쳐 올라 허공을 가르지만, 그 잎 역시 부는 바람에 속절없이 꺾여 있다. 4그 잎과 평행한 꽃대 하나, 바람에 맞서며 한 송이 꽃을 피웠다. 5바람에 꺾이고, 맞서는 난초 꽃대와 꽃송이에서 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와 그것에 맞서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6우리는 여기에서 김정희가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묵란화의 표현 방법을 일치시켜, 문인 공통의 이상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낸 세계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

* 갈필: 물기가 거의 없는 붓으로 먹을 조금만 묻혀 거친 느낌을 주게 그리는 필법.

4 김정희의 부작란도
 * 쓸쓸 + 황량한 처지에 맞서는 강한 의지 표출
 →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 김정희 자신만의 감정 표출

5 1묵란화에는 종종 심정을 적어 두기도 했다. 2김정희도 부작란도에 '우연히 그린 그림에서 참모습을 얻었다'고 적어 두었다. 3여기서 우연히 얻은 참모습을 자신이 처한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때 우연이란 요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 훈련된 감성이 어느 한 순간의 계기에 의해 표출된 필연적인 우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5 부작란도에 적합한 김정희의 심정
 * 오랜 기간 훈련된 감성의 표출

4
 1
 * '이러한 변화'에서 지시 대명사 '이러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러한=자유분방, 쓸쓸한, 처연한)
 2~5
 * 문장이 길다면 서술어(구부러짐, 꺾임, 꽃 피움, 의지를~)만이라도 챙기고 가자. 이는 키워드로서, 맥락의 분위기(느낌-긍정 or 부정)를 좌우한다.
 2~6
 * 2~4번 문장은 객관적 사실, 5~6번 문장은 글쓴이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한다.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을 구분하는 일은 국어 공부의 기본 중 하나이다.

5
 ※ 글쓴이의 생각(끝 문장)과 화제 속 인물의 생각(두 번째 문장)을 잘 구분해야 한다. 이것을 헷갈려서 문제를 틀리는 수험생들이 많으니 조심하자!

01.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74위

#공통 선지의 법칙 #사례-예시

정답률 96%	선지별 선택 비율				
	① 96%	② 1%	③ 1%	④ 1%	⑤ 1%

정답 풀이

① 구체적인 작품을 사례로 제시하며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1) 추사 김정희가 25세 되던 해에 그린 ㉠<석란>은 당시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묵란화이다. [2문단]
- 2) 평탄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김정희의 예술 세계는 ~ 쓸쓸하고 처연한 느낌을 주는 화풍으로 바뀌어 갔다. [3문단]
- 3) 생을 마감하기 일 년 전인 69세 때 그랬다고 추정되는 ㉡<부작란도>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 준다. 4) 담묵의 거친 갈필로 ~ 맞서는 난초 꽃대와 꽃송이에서 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와 그것에 맞서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김정희가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 세계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 [4문단]

↳ 구체적인 작품을 사례1, 3)로 제시하며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2, 4)를 설명하고 있다.

바탕 지식 더하기

※ <사례 vs 예시>를 알아보자!

- 사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 과거의 일)
- 예시: 예를 들어 보임.

오답 풀이

② 후대 작가의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있다.

↳ 후대 작가의 작품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③ 특정한 입장을 바탕으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역사적 논란을 소개하고 있다.

↳ 묵란화에 대한 일반적 관점을 바탕으로 김정희의 작품과 삶을 소개하고 있기는 하나, 특정한 입장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역사적 논란 또한 언급되지 않았다.

④ 다양한 해석을 근거로 들어 작품에 대한 통념적인 이해를 비판하고 있다.

↳ 두 작품에 대한 각각의 해석인 것이지만 한 작품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념적인 이해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다.

어휘 체크

* 통념: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 → '보편적'과 관련

⑤ 대조적인 성격의 작품을 예로 들어 예술의 대중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추사 김정희가 25세 되던 해에 그린 <석란>은 당시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묵란화이다. 화면에 공간감과 입체감을 부여하는 잎새들은 1) 가지런하면서도 완만한 곡선을 따라 늘어져 있으며, 꽃은 소담하고 정갈하게 피어 있다. [2문단] → (<석란: 부드러움>)
- 생을 마감하기 일 년 전인 69세 때 그랬다고 추정되는 <부작란도>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 준다. 담묵의 거친 갈필로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된 몇 가닥의 잎은 왼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2) 오른쪽으로 뒤틀리듯 구부러져 있다. 그중 유독 하나만 위로 솟구쳐 올라 허공을 가르지만, 그 잎 역시 부는 바람에 속절없이 꺾여 있다. ~ 바람에 꺾이고, 맞서는 난초 꽃대와 꽃송이에서 ~ [4문단] → (<부작란도: 거침>)

↳ <석란>과 <부작란도>는 '부드러움'1)과 '거침'2)의 대조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를 통해 예술의 대중화 과정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

★ 공통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위 문제의 선지 ①, ⑤는 '예시'가 공통된다.

① 구체적인 작품을 사례로 제시하며 ~ (☆정답)
 ⑤ 대조적인 성격의 작품을 예로 들어 ~

그래서 지문 및 문제와 상관없이 선지 ①, ⑤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02.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57위

정답률 92%	선지별 선택 비율				
	① 5%	② 1%	③ 1%	④ 1%	⑤ 92%

정답 풀이

⑤ 김정희는 말년에 서예의 필법을 쓰지 않고 그리는 묵란화를 창안하였다.

66 지문 속근거 찾기

- 이런 인식은 1) <묵란화>에도 이어져 난초를 칠 때는 글씨의 획을 그을 때와 같은 붓놀림(→ 서예의 필법)을 구사했다. [1문단]

↳ <묵란화>에서도 난초를 칠 때는 글씨의 획을 그을 때와 같은 붓놀림을 구사했다1)는 설명은 있으나, 김정희가 서예의 필법으로 <묵란화>를 창안하였으며 말년에 서예의 필법을 쓰지 않았다는 언급은 없다.

오답 풀이

① 문인들은 사군자화를 통해 군자의 덕목을 드러내려 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먹으로 난초를 그린 묵란화는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그림으로, 여느 1)〈사군자화〉와 마찬가지로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다.~따라서 2)〈묵란화〉는 〈문인〉들이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 [1문단]

↳ 〈문인〉들은 〈사군자화〉를 통해 군자의 덕목을 드러내려 했다. 1~2)

② 묵란화는 그림의 소재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먹으로 난초를 그린 1)〈묵란화〉는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그림으로. [1문단]

↳ 〈묵란화〉는 그림의 소재(난초)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③ 유배 생활은 김정희의 서체와 화풍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평탄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1)김정희의 〈예술 세계〉는 49세부터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보인다. 글씨(→ 서체)는 맑고 단아한 서풍에서 추사체로 알려진 자유분방한 서체로 바뀌었고, 그림(→ 화풍)도 부드럽고 우아한 화풍에서 쓸쓸하고 처연한 느낌을 주는 화풍으로 바뀌어 갔다. [3문단]

↳ 〈유배 생활〉은 〈김정희〉의 〈서체와 화풍〉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④ 묵란화는 중국에서 기원하여 우리나라에 전래된 그림 양식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묵란화〉는 〈중국〉 북송 시대에 그려지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문인들에게 널리 퍼졌다. [1문단]

↳ 〈묵란화〉는 〈중국〉에서 기원하여 우리나라에 전래)된 그림 양식이다.

03.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38위

#대립 선지의 법칙 #이해

정답률 89%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	② 0%	③ 1%	④ 89%	⑤ 9%

정답 풀이

④ ㉠에서 홀로 위로 솟구쳤다 꺾인 앞은 지식을 추구했던 과거의 삶과 단절하겠다는 김정희 자신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중 유독 하나만 1)위로 솟구쳐 올라 허공을 가르지만, 그 〈앞〉역시 부는 바람에 속절없이 꺾여 있다.~바람에 (앞이) 꺾이고, 맞서는 난초 꽃대와 꽃송이에서 2)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와 그것에 맞서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4문단]

↳ ㉠에서 홀로 위로 솟구쳤다 꺾인 앞)은 지식을 추구했던 과거의 삶과 단절하겠다는 김정희 자신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와 그것에 맞서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완만하고 가지런한 잎새는 김정희가 삶이 순탄하던 시절에 추구하던 단아한 품격을 표현한 것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추사 김정희가 25세 되던 해에 그린 ㉠〈석란〉은 당시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묵란화이다. 화면에 공간감과 입체감을 부여하는 1)잎새들은 가지런하면서도 완만한 곡선을 따라 늘어져 있으며,~난 잎의 조심스러운 선들에서는 2)단아한 품격을,~공통적 이상이 드러난다. [2문단]
- 3)평탄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김정희의 예술 세계는 49세부터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보인다. [3문단]

↳ ㉠에서 완만하고 가지런한 잎새1)는 김정희가 삶이 순탄하던 시절)3)에 추구하던 단아한 품격)2)을 표현한 것이다.

② ㉠에서 소담하고 정갈한 꽃을 피워 내는 모습은 고상한 품위를 지키려는 김정희의 이상을 표상한 것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꽃은 소담하고 정갈하게 피어 있다.~난 잎의 조심스러운 선들에서는 단아한 품격을, 잎들 사이로 핀 꽃에서는 2)〈고상한 품위〉를,~문인들의 공통적 이상이 드러난다. [2문단]

↳ ㉠에서 소담하고 정갈한 꽃을 피워 내는 모습1)은 〈고상한 품위〉를 지키려는 김정희의 이상을 표상)2)한 것이다.

③ ㉠에서 바람을 맞아 뒤틀리듯 구부러진 잎은 세상의 풍파에 시달린 김정희의 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담묵의 거친 갈필로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된 몇 가닥의 잎은 왼쪽에서 불어오는 1)바람을 맞아, 오른쪽으로 뒤틀리듯 구부러져 있다.~바람에 꺾이고, 맞서는 난초 꽃대와 꽃송이에서 2)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와 그것에 맞서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4문단]

↳ ㉠에서 바람을 맞아 뒤틀리듯 구부러진 ㉡)은 세상의 풍파에 시달린 김정희의 처지2)를 형상화한 것이다.

⑤ ㉠과 ㉡에 그려진 난초는 김정희가 자신의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소재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따라서 묵란화는 문인들이 1)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 [1문단]
- 추사 김정희가 25세 되던 해에 그린 ㉠(석란)은 당시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묵란화이다. 당시 2)문인들의 공통적 이상이 드러난다. [2문단]
- 생을 마감하기 일 년 전인 69세 때 그렸다고 추정되는 ㉡(부작란도)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 준다.~3)문인 공통의 이상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낸 세계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 [4문단]

↳ ㉠과 ㉡에 그려진 난초는 김정희가 자신의 인문적 교양과 감성1~3)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소재이다.

★ 대립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6쪽 참고)

* 위 문제는 선지가 김정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의 '긍정적/부정적'을 기준으로 1 대 3 대립(부정적: ④ ↔ 긍정적: ①, ②, ⑤)을 이룬다.

- ① ~단아한 품격을 표현한 것이다. → (긍정적)
- ② ~고상한 품위를 지키려는~ → (긍정적)
- ④ ~과거의 삶과 단절하겠다는~ → (부정적) ☞ (☆정답)
- ⑤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 (긍정적)

그래서 지문 및 발문과 상관없이 선지 1 대 3 대립 중 1의 비율인 선지 ④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90% 이상이다.

04.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98위

#보기-선지의 법칙 #이해 #3점 #최심의 Q&A

정답률 84%	선지별 선택 비율				
① 1%	② 9%	③ 3%	④ 3%	⑤ 84%	

✓ 정답 풀이

⑤ <부작란도>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드러내는 세계를 창출했다는 것은 축적된 문화로부터 멀어지려 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우리는 여기에서 김정희가 1)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묵란화의 표현 방법을 일치시켜, 문인 공통의 이상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낸 세계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 [4문단]

• <보기>

예술 창작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사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2)문화적 축적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찾아 형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부작란도>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드러내는 세계를 창출했다는 것1)은 <보기>에서처럼 문화적 축적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찾아 형식화하는 것2)이지, 축적된 문화로부터 멀어지려 한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전형적인 방식으로 <석란>을 그린 것은 당시 문인화의 전통을 수용한 것이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추사 김정희가 25세 되던 해에 그린 1(석란)은 당시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묵란화이다. [2문단]

↳ 1)을 통해 <전형적인 방식>으로 <석란>을 그린 것에서 당시 문인화의 전통을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추사체라는 필법을 새롭게 창안했다는 것은 전통의 답습에 머무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1)추사 김정희가 25세 되던 해에 그린 <석란>은 당시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묵란화이다. [2문단]

• 글씨는 맑고 단아한 서풍에서 2(추사체)로 알려진 자유분방한 서체로 바뀌었고, [3문단]

• 우리는 여기에서 김정희가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묵란화의 표현 방법을 일치시켜, 3)문인 공통의 이상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낸 세계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 [4문단]

↳ <추사체>라는 필법을 새롭게 창안1~2)함으로써 전통의 답습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감정을 그 이상으로 표출3)했기 때문에 선지 ②는 적절한 이해이다.

최심의 Q&A

Q 김정희가 추사체라는 필법을 '창안'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A [3문단] '추사체'로 알려진 자유분방한 서체로 바뀌었고'에서 '추사체'로 알려진'이라는 표현 때문에 '김정희가 아닌, 다른 누군가

가 먼저 만들어 놓은'이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이가 먼저 만들었다면, 다른 누군가의 자유분방한 <○○체>가 되는 것이지 김정희의 호인 <추사체>일 리가 없다. 김정희의 호가 <추사>인 것은 [2문단]에서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추사체>가 원래 존재했던 서체가 아니라, 유배 생활 이후 김정희만의 자유분방한 서체가 <추사체>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바뀐 서체> 자체가 김정희 자신만의 하나의 창작 행위(→ 보기의 예술 창작과 관련)이므로 이는 의미적으로도 <창안>과 충분히 관련되며, [4문단]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낸 세계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와도 같은 맥락에 해당한다.

* 창안: 어떤 방안, 물건 따위를 처음으로 생각하여 냄, 또는 그런 생각이나 방안.

* 창출: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 내거나 만들어 냄. '새로 만듦'으로 순화.

* 창작: 방안이나 물건 따위를 처음으로 만들어 냄.

<추사체>를 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조선 후기의 명필인 추사 김정희의 서체'라고 명쾌하게 나온다. 배경지식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고민은 필요 없었겠지만 출제자들이 배경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한 것은 아니다.

Q 4문단의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낸 세계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3문단에서 필자는 '화풍으로 바뀌어 갔다.'라는 문장으로 문단을 끝맺습니다. 이후 4문단에서의 초점은 화풍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문체에 관한 언급은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정희 자신의 경험과 묵란화의 표현법을 일차시켜 자신만의 세계를 창출했다 함은, 위에 비추어 유배 생활을 통한 화풍의 변화(바람에 꺾이는 난초 등)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의 근거는 '추사'라는 김정희의 호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A 문체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 화풍을 통해 문체도 그에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1문단에서 '문인들에게 시, 서예, 그림은 나눌 수 없는 하나였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Q 문체를 자신의 호를 따서 만들기도 한다는 것은, 지문 밖의 지식을 요구합니다. 이해가 기반이 된 독해력이 평가원의 평가 요소라면 이와 같은 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선지를 적절하다고 못 박을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A 자신의 호를 따서 문체를 만드는 것은 수학자나 과학자가 공식을 처음 발견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식 이름을 짓는 것과 같이 그리 어렵지 않은 수준의 배경지식이다. 지문은 빈틈없이 만들어진 논리적인 글이 아니라, 수험생들이 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된 불완전한 텍스트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이다.

③ <부작란도>에서 참모습을 얻었다고 한 것은 의미가 그에 걸맞은 형식을 만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66 지문속근거 찾기

• 우리는 여기에서 1)김정희가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묵란화의 표현 방법을 일차시켜, 문인 공통의 이상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낸 세계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 [4문단]

• 묵란화에는 종종 심정을 적어 두기도 했다. 김정희도 2)<부작란도>에 '우연히 그린 그림에서 참모습을 얻었다고 적어 두었다.

[끝 문단]

↳ <부작란도>에서 참모습을 얻었다고 한 것2)은 <의미가 그에 걸맞은 형식을 만난 것>1)이라 할 수 있다.

④ 시와 서예와 그림 모두에 능숙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 양식을 이해하고 익힌 것이라 할 수 있겠군.

66 지문속근거 찾기

• 1)문인들에게 시, 서예, 그림은 나눌 수 없는 하나였다. [1문단]

• <보기>

이 2)형식을 이해하고 능숙하게 익히는 것은 작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 1~2)를 통해 시와 서예와 그림 모두에 능숙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 양식을 이해하고 익힌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최샘의 Q&A

Q '시와 서예와 그림 모두에 능숙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 양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1문단]에서 보면 시, 서예, 그림은 나눌 수 없는 하나였고 난초를 그릴 때 글씨의 획을 그을 때 같은 붓놀림을 썼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표현 양식을 썼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A 상식적으로도 그림과 글씨는 다른 영역인데 당연히 다른 표현 양식이 사용된 것이며, 각기 다른 표현의 양식을 가지고 한 번의 붓놀림으로 작품을 완성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붓놀림의 횟수>가 사용된 <표현 양식의 수>가 아니며, '시, 서예, 그림은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말은 각기 다른 표현 양식이 사용된 3개의 개체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작품을 이룬다고 생각해야지 하나의 작품이니까, 한 번의 붓놀림이니까 하나의 표현 양식이 사용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 보기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8쪽 참고)

* 위 문제의 경우 부정형 발문이다.

<보기>: ~문화적 축적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찾아 형식화하는 것
정답 ⑤: ~축적된 문화로부터 멀어지려 한 것

05 ~ 08 작가주의

1 1950년대 프랑스의 영화 비평계에는 ㉠작가주의라는 비평 이론이 새롭게 등장했다. 2.작가주의란 감독을 단순한 연출자가 아닌 '작가'로 간주하고,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는 관점을 말한다. 3.이론이 대두될 당시, 프랑스에는 유명한 문학 작품을 별다른 손질 없이 영화화하거나 화려한 의상과 세트, 인기 연극배우에 의존하는 제작 관행이 팽배해 있었다. 4.작가주의는 이렇듯 프랑스 영화에 만연했던 문학적, 연극적 색채에 대한 반발로 주장되었다.

1 작가주의 비평 이론의 등장

* 작가주의: 감독을 '작가'로 간주,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

2 1.작가주의는 상투적인 영화가 아닌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한다. 2.감독의 창의성과 개성은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감독의 세계관 혹은 주제 의식, 그것을 표출하는 나름의 이야기 방식, 고집스럽게 되풀이되는 특정한 상황이나 배경 혹은 표현 기법 같은 일관된 문체상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2 작가주의의 특징

*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이 일관되게 나타남.

3 1.한편, 작가주의적 비평은 영화 비평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중에서도 주목할 점은 ㉡할리우드 영화를 재발견한 것이다. 2.할리우드에서는 일찍이 미국의 대량 생산 기술을 상징하는 포드 시스템과 흡사하게 제작 인력들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표준화·분업화한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했다. 3.이에 따라 재정과 행정의 총괄자인 제작자가 감독의 작업 과정에도 관여하게 되었고, 감독은 제작자의 생각을 화면에 구현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4.이러한 계량화가 불가능한 창작자의 재능, 관객의 변덕스런 기호 등의 변수로 야기될 수 있는 흥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일정한 품질의 영화를 생산하기 위함이었다.

3 할리우드 영화의 제작 방식

* 능률적인 표준화·분업화 방식

- 감독은 제작자의 생각을 화면에 구현하는 정도에 그침.
- 흥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 일정한 품질의 영화를 생산

1

1

* 인문 혹은 사회 지문 도입에서 '1950년대'처럼 시대와 관련된 말이 나오면 글이 시대별로 전개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 '작가주의란'처럼 첫 문단에 나온 개념어는 화제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3

* '~팽배해 있었다.'처럼 부정적 상황 혹은 인식을 나타내면 바로 <문제> 사항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내용도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2

1

* <상투적 ↔ 독창적>처럼 어떤 지문이든 대립어에 주목하자.

3

3~4

* '이에 따라', '이는'처럼 정주행의 흐름 표시로는 >가 적절하다. 정주행의 흐름이 있는 문단은 역주행의 흐름이 있는 문단보다는 이해하기 쉬우므로 상대적으로 빨리 읽어 나간다.

4 그러나 ⑥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할리우드라는 가장 산업화된 조건에서 생산된 상업적인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2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제한적인 제작 여건이 오히려 감독의 도전 의식과 창의성을 끌어낸 사례들에 주목한 것이다. 3그에 따라 B급 영화*와 그 감독들마저 수혜자가 되기도 했다.

* B급 영화: 적은 예산으로 단시일에 제작되어 완성도가 낮은 상업적인 영화.

4 감독 고유의 표지
 * 작가주의적 비평가: 상업적인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 확인
 → B급 영화와 그 감독들도 혜택받음.

5 1작가주의적 비평가들에 의해 복권된 대표적인 할리우드 감독이 바로 스릴러 장르의 거장인 히치콕이다. 2히치콕은 제작 시스템과 장르의 제약 속에서도 일관된 주제 의식과 스타일을 관철한 감독으로 평가받았다. 3히치콕은 관객을 오인에 빠뜨린 뒤 막바지에 진실을 규명하여 충격적인 반전을 이끌어 내는 그만의 이야기 도식을 활용하였다. 4또한 그는 관객의 오인을 부추기는 '맥거핀' 기법을 자신만의 이야기 법칙을 만들어 가는 데 하나의 극적 장치로 종종 활용하였다. 5즉 특정 소품을 맥거핀으로 활용하여 확실한 단서처럼 보이게 한 다음 일순간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 관객을 당혹스럽게 한 것이다.

5 할리우드 영화의 재발견 사례
 * 히치콕: 제작 시스템과 장르의 제약 속에서도 일관된 주제 의식과 스타일을 관철
 * '맥거핀' 기법: 관객의 오인을 부추기는 극적 장치

6 1이처럼 할리우드 영화의 재평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작가주의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예컨대 작가주의로 인해 '좋은' 영화 혹은 '위대한' 감독들이 선정되었고, 이들은 지금도 영화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6 작가주의의 영화사적 의의
 * 작가주의의 영향력: '좋은' 영화 혹은 '위대한' 감독들이 선정, 영화 교육 현장에서 활용됨.

4
 1
 * 첫머리의 '그러나'는 이전 문단의 핵심을 부정하거나 반대 맥락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표지이다. 따라서 이전 문단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고려하며 읽어 나가는 것이 좋다.

2
 바탕 지식 더하기
 ※ <사례와 예시>
 ㄱ. 사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 과거의 일)
 ㄴ. 예시: 예를 들어 보임.

5
 * <작가주의=히치콕=개성=맥거핀 기법>으로 잔 줄기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실전 독해 시 모든 지문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그럴 필요도 없다. 지문의 흐름인 큰 뼈대를 염두에 두고 잔 줄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6
 * 예시는 이전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이전 내용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슬쩍 스치듯 빠르게 읽어 내는 것이 좋다. 실전 수능에서 모든 문장을 동일한 시간과 집중력으로 읽는 것은 낭비다. 선택과 집중의 강중약을 잘 조절해야 실전에서 마인드와 시간을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05.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52위

#공통 선지의 법칙 #사례_예시 #시간의 흐름 #대립 이론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79%	① 4%	② 1%	③ 7%	④ 79%	⑤ 9%

✓ 정답 풀이

④ 작가주의의 개념을 설명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그 의미를 소개하고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작가주의>란 감독을 단순한 연출자가 아닌 '작가'로 간주하고,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는 관점을 말한다. [1문단]
- 2)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에 의해 복권된 대표적인 할리우드 감독이 바로 스릴러 장르의 거장인 <히치콕>이다. 히치콕은 제작 시스템과 장르의 제약 속에서도~ [5문단]
- 3) 이처럼 할리우드 영화의 재평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작가주의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작가주의로 인해 '좋은' 영화 혹은 '위대한' 감독들이 선정되었고, 이들은 지금도 영화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끝 문단]

↳ <작가주의>의 개념1)을 설명한 뒤 구체적인 사례2)와 관련지어 그 의미를 소개3)하고 있다.

🔍 패턴 공략

▶ 보통 <개념>은 1문단에, <의의>는 끝 문단에 있다.

📁 바탕 지식 더하기

※ <사례 vs 예시>를 알아보자!

- 사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 과거의 일)
- 예시: 예를 들어 보임.

✗ 오답 풀이

- ① 작가주의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 작가주의에서 쟁점(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이 되는 것도 없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되는 것도 없다.

🔍 패턴 공략

-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설명이라면, 연도나 역사적 사건 등 시대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기 마련이다.
- ② 작가주의의 문제점을 제시한 뒤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 작가주의의 문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 ③ 작가주의와 그에 대립하는 비평 이론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서로 비교하고 있다.
- ↳ 작가주의와 대립하는 이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 패턴 공략

▶ 대립하는 이론이 나왔다면 그 이론에 대한 개념 설명이 있기 마련이다.

⑤ 작가주의가 영화 비평계에 끼친 영향력을 분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예컨대 1)작가주의로 인해 '좋은' 영화 혹은 '위대한' 감독들이 선정되었고, 이들은 지금도 영화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끝 문단]

↳ 작가주의가 영화 비평계에 끼친 영향력을 분석1)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

★ 공통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위 문제의 선지 ③, ④는 구체적인 예가 공통된다.

- ③ ~구체적인 예를 통해~.
- ④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 (☆정답)

그래서 지문 및 문제와 상관없이 선지 ③, ④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06.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03위

#일치_불일치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68%	① 68%	② 9%	③ 3%	④ 10%	⑤ 10%

✓ 정답 풀이

① 맥거핀은 관객에게 사건의 배경을 극적으로 제시해 주는 촬영 기법을 말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한 그는 1)관객의 오인을 부추기는 <맥거핀> 기법을 자신만의 이야기 법칙을 만들어 가는 데 하나의 극적 장치로 종종 활용하였다. [5문단]

↳ <맥거핀>은 관객의 오인을 부추기는 기법1)이지, 사건의 배경을 극적으로 제시해 주는 촬영 기법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② 작가주의는 좋은 영화와 위대한 감독을 선정하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였다.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예컨대 1)〈작가주의〉로 인해 ‘좋은’ 영화 혹은 ‘위대한’ 감독들이 선정되었고, 이들은 지금도 영화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끝 문단]

↳ 1)을 통해서 〈작가주의〉는 좋은 영화와 위대한 감독을 선정하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프랑스 영화의 문학적, 연극적 색채에 대한 반발로 작가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1)〈작가주의〉는 이렇듯 프랑스 영화에 만연했던 문학적, 연극적 색채에 대한 반발로 추창되었다. [1문단]

↳ 프랑스 영화의 문학적, 연극적 색채에 대한 반발로 〈작가주의〉가 등장1)하게 되었다.

④ 할리우드에서 제작자의 권한을 강화한 것은 흥행의 안정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에 따라 재정과 행정의 총괄자인 1)〈제작자〉가 감독의 작업 과정에도 관여하게 되었고, 〈감독〉은 제작자의 생각을 화면에 구현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이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창작자의 재능, 관객의 변덕스런 기호 등의 변수로 야기될 수 있는 2)흥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일정한 품질의 영화를 생산하기 위함이었다. [3문단]

↳ 할리우드에서 〈제작자〉의 권한을 강화1)한 것은 흥행의 안정성을 고려2)했기 때문이다.

⑤ 할리우드에서는 제작의 효율성을 위해 제작 인력들 간의 역할과 임무를 구분하였다.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할리우드에서는 일찍이 미국의 대량 생산 기술을 상징하는 포드 시스템과 흡사하게 1)제작 인력들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표준화·분업화한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했다. [3문단]

↳ 할리우드에서는 제작의 효율성을 위해 제작 인력들 간의 역할과 임무를 구분하여 표준화·분업화한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했다.1)

07.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89위

#항목 후순위의 법칙

정답률 83%	선지별 선택 비율				
	① 4%	② 4%	③ 8%	④ 83%	⑤ 1%

✓ 정답 풀이

④ ⑥는 ②에서도 감독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러나 1)⑥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할리우드〉라는 가장 산업화된 조건에서 생산된 상업적인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4문단]

↳ ⑥〈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②〈할리우드 영화〉에서도 감독의 개성(고유의 표지)을 발견할 수 있다1)고 보았다.

✗ 오답 풀이

① ②의 제작에서는 관객의 기호를 흥행의 변수로 보지 않았다.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창작자의 재능, 1)관객의 변덕스런 기호 등의 변수로 야기될 수 있는 흥행 → (관객의 기호는 흥행의 요소인)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일정한 품질의 영화를 생산하기 위함이었다. [3문단]

↳ ②〈할리우드 영화〉의 제작에서는 관객의 기호를 흥행의 변수로 보았다.1)

② ⑥는 상업적인 영화보다는 상투적인 영화를 옹호하고자 하였다.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작가주의〉는 상투적인 영화가 아닌 1)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한다. [2문단]

↳ ⑥〈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상투적인 영화가 아닌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1)한다는 것으로 보아 상투적인 영화를 옹호한다는 선지 ②는 적절하지 않다.

✓ 어휘 체크

* 상투적: 늘 써서 버릇이 되다시피 한.

③ ⑥는 히치콕의 작품들에 숨어 있는 흥행의 공식을 영화 제작에 활용하였다.

㉞ 지문 속 근거 찾기

- 1)〈작가주의적 비평가들〉에 의해 복권된 대표적인 할리우드 감독이 바로 스릴러 장르의 거장인 (히치콕)이다. [5문단]

↳ ⑥〈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히치콕을 복권1)했지만 그의 작품들에 숨어 있는 흥행의 공식을 영화 제작에 활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⑤ ⑥는 ②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B급 영화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러나 ㉔<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할리우드>라는 가장 산업화된 조건에서 생산된 상업적인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그에 따라 1)<B급 영화>와 그 감독들마저 수혜자가 되기도 했다. [4문단]

↳ ㉔<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㉓<할리우드 영화>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B급 영화>가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1항목 후순위의 법칙 ★

(자세한 내용 9쪽 참고)

*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①~③이 각각 ㉓ 혹은 ㉔ 1개만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다른 선지보다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를 고려하여 항목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 선지 ④, ⑤를 먼저 더욱 집중해서 보자.

08.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11위

#대립 선지의 법칙 #보기 제시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5%	① 3%	② 4%	③ 4%	④ 4%	⑤ 85%

✓ 정답 풀이

⑤ ㉔은 ㉓에 비해 감독의 역량을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보다 중시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작가주의>란 감독을 단순한 연출자가 아닌 '작가'로 간주하고, 1)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는 관점을 말한다. [1문단]

• <보기>

㉓ 한 편의 영화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2)영화와 관련된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 ㉓<작가주의의 비평 이론>이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할 정도로 감독의 역량을 중시하기 때문에 ㉓이 영화와 관련된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㉔에 비해 <감독의 역량>을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보다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㉓은 ㉔보다 감독의 주제 의식을 중시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㉓<작가주의>는~감독의 창의성과 개성은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감독의 세계관 혹은 1)주제 의식,~일관된 문체상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2문단]

↳ ㉓<작가주의>는 영화와 관련된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㉔보다 감독의 주제 의식)을 중시한다.

② ㉓은 ㉔보다 감독의 표현 기법의 일관성을 중시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㉓<작가주의>는 상투적인 영화가 아닌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1)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한다. [2문단]

↳ ㉓<작가주의>는 영화와 관련된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㉔보다 감독의 표현 기법의 일관성)을 중시한다.

③ ㉓은 ㉔보다 영화 창작 과정에서 감독의 권한을 중시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㉓<작가주의>란 감독을 단순한 연출자가 아닌 '작가'로 간주하고, 1)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는 관점을 말한다. [1문단]

↳ ㉓<작가주의>는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할 정도로 감독의 역량을 중시하기 때문에 영화와 관련된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㉔보다 영화 창작 과정에서 감독의 권한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④ ㉔은 ㉓에 비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경제적 여건과 기술적 조건을 중시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㉓ 한 편의 영화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관련된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이나 1)예산 같은 제작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영화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시킨 2)기술의 발달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3)감독은 영화의 일부일 뿐이다.

↳ 감독은 영화의 일부일 뿐)이라고 보는 ㉔은 감독의 역량을 중시하는 ㉓에 비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경제적 여건)과 기술적 조건)을 중시한다.

★ 대립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6쪽 참고)

* 위 문제는 '감독이 무엇을 중시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㉔이 감독의 무엇을 중시: ⑤) ↔ (㉓이 감독의 무엇을 중시: ①, ②, ③) 1대 3 대립을 이룬다.

- ① ㉓은~감독의 주제 의식을 중시한다.
- ② ㉓은~감독의 표현 기법의 일관성을 중시한다.
- ③ ㉓은~감독의 권한을 중시한다.
- ⑤ ㉔은~감독의 역량을~중시한다. (👉 ☆정답)

그래서 지문 및 문제와 상관없이 1의 비율인 선지 ⑤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90% 이상이다.

09~10 선암사 승선교에 담긴 미의식

1 선암사(仙巖寺) 가는 길에는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 돌다리인 승선교(昇仙橋)가 있다. 2 승선교는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로서 옛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3 승선교는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虹霓)를 세우고 그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린 홍예다리로서, 계곡을 가로질러 산길을 이어 준다.

1 계곡을 건너는 다리인 승선교

- * 승선교 건축 방식: 가운데에 홍예(무지개 모양)를 세우고 그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림.
- * 승선교 기능: 계곡을 가로질러 산길을 이음. →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

2 홍예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2 홍예를 세우는 과정은 홍예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을 세우고, 그 위로 홍예석을 쌓아 올려 홍예가 완전히 세워지면, 가설틀을 해체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3 홍예는 장대석(長臺石)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잘 다듬어, 바닥에서부터 상부 가운데를 향해 차곡차곡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다. 4 모나고 단단한 돌들이 모여 반원형의 구조물로 탈바꿈함으로써 부드러운 곡선미를 형성한다. 5 또한 홍예석들은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접착 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 붙이지 않았음에도 견고하게 서 있다.

2 승선교의 건축 원리-홍예

- * 홍예의 안정성: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 →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널리 활용
- * 홍예를 세우는 과정: 가설틀을 세움. → 그 위로 홍예석을 쌓아 올림. → 가설틀을 해체함.
- * 홍예석을 쌓는 방법: 잘 다듬은 장대석을 바닥에서부터 상부 가운데를 향해 반원형으로 쌓아 올림.
- * 홍예의 특징: 부드러운 곡선미, 견고함.

1

※ <주관적 진술 vs 객관적 진술>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 주관적: '독특한 미감', '번잡한 속세', '경건한 세계'
- 객관적: '돌다리인 승선교', '무지개 모양의 홍예', '석축을 쌓아 올린', '산길을 이어 준다'

1

* 첫 문단에서 개념 혹은 대상(승선교)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그것이 지문 전체의 중심 화제가 되기 마련이다.

2

1.5

* <원인+결과>의 구조. 국어 시험에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일은 논리력 향상의 토대가 된다.

2

* '~과정'은 순서에 유의해 정리해 두자. 순서를 바꿔치기한 부적절한 선지가 나오기 마련이다.

3 1승선교는 이러한 홍예와 더불어, 홍예 좌우와 위쪽 일부에 주위의 막돌을 쌓아 올려 석축을 세웠는데/이로써 승선교는 온전한 다리의 형상을 갖게 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의 일부가 된다. 2층의 구분이 없이 무질서하게 쌓인 듯 보이는 석축은 잘 다듬어진 홍예석과 대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감 있는 조화미를 이룬다. 3한편 승선교의 홍예 천장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 돌이 물길을 향해 돌출되어 있다. 4이런 장식은 용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고 여겨 만든 것이다.

3 승선교의 건축 원리-석축

- * 석축: 홍예 좌우와 위쪽 일부에 주위의 막돌을 쌓아 올려 만들.
- * 석축과 홍예석의 대비: 변화감 있는 조화미
- * 승선교의 용머리 장식: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방지

4 1계곡 아래쪽에서 멀찌감치 승선교를 바라보자. 계곡 위쪽에 있는 강선루(降仙樓)와 산자락이 승선교 홍예의 반원을 통해 초점화되어 보인다. 2또한 녹음이 우거지고 물이 많은 계절에는 다리의 홍예가 잔잔하게 흐르는 물 위에 비친 홍예 그림자와 이어져 원 모양을 이루고 주변의 수목들의 그림자도 수면에 비친다. 3이렇게 승선교와 주변 경관은 서로 어우러지며 극적인 합일을 이룬다. 4승선교와 주변 경관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은 계절마다 그 모습을 바꿔 가며 다채롭게 드러난다.



4 승선교와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움

- * 승선교와 주변 경관이 서로 어우러짐. → 극적 합일 → 다채로운 아름다움.

5 1승선교는 못사람들이 산사로 가기 위해 계곡을 건너가는 길목에 세운 다리다. 2그러기에 호사스러운 치장이나 장식을 할 까닭은 없었을 것이다. 3그럼에도 이 다리가 아름다운 것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옛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미의식이 반영된 덕택이다. 4승선교가 오늘날 세사의 번잡함에 지친 우리에게 자연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을 선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5 승선교에 반영된 미의식

- * 승선교의 아름다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중시

3

1 * <원인+ '이로써'+ 결과>의 구성. 긴 문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경계점(이로써)이 있기 마련이고 대개 후반부에 포인트가 있다.

2 * 꾸미는 말 속에서 대상(석축, 홍예석)을 잘 찾아내 표시를 해 두자.

3 * '한편'은 새로운 정보의 진술을 예고한다.

4 * '이런', '이',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 가는 지시 대명사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4-3, 5-2도 마찬가지로]

4

1 * '~승선교를 바라보자'를 통해, 승선교를 바라본 모습이 묘사될 것임을 알 수 있다.

2~4 * '주변(↔ 중심)'이라는 말이 3번 나왔다. 대립 항이 성립되는 어휘(주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문제화되기 좋다.

5

1~2/3~4 * <원인+ 결과>의 구조. 국어 시험에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일은 논리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본 활동이다.

09.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32위

#공통 선지의 법칙 #단순 일치

정답률 75%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	② 75%	③ 11%	④ 10%	⑤ 2%

✓ 정답 풀이

② **홍예**와 그 **물그림자**가 어우러져 생긴 원은 **승선교**의 미감을 형성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한 녹음이 우거지고 물이 많은 계절에는 다리의 1) <홍예>가 잔잔하게 흐르는 물 위에 비친 **홍예 <그림자>**와 이어져 '원 모양'을 이루고 주변의 수목들의 그림자도 수면에 비친다. 2) 이렇게 승선교와 주변 경관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움'은 계절마다 그 모습을 바꿔 가며 다채롭게 드러난다. [4문단]

↳ <홍예>와 그 <물그림자>가 어우러져 생긴 '원'은 승선교의 '미감'을 형성한다. 2)

패턴 공략

★ 출제자는 지문의 말을 선지에 그대로 사용하면 너무 정답의 티가 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같은 의미의 한자-한글을 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지문: '아름다움' → 적절 선지: '미감'

✗ 오답 풀이

① **홍예**석들은 **접착제**로 이어 붙여서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한 <홍예석들>은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1) 접착 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 붙이지 않았음에도 견고하게 서 있다. [2문단]

↳ <홍예석들>은 **접착제**로 이어 붙이지 않았음에도 1)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한다.

패턴 공략

▶ 지문: A는 B하다. → 부적절 선지: A는 B하지 않다.

③ **홍예**는 **조상들의 미의식**이 잘 드러나는 우리나라 특유의 건축 구조이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홍예>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2문단]

↳ <홍예>는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널리 활용)된 것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건축 구조는 아니다.

패턴 공략

▶ 지문: A는 B 이상이다. → 부적절 선지: A는 B만이다.

④ **홍예**는 **사다리꼴**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들을 활용하여 **홍예**석을 쌓아 만든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승선교는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를 세우고 그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린 홍예다리로서, 계곡을 가로질러 산길을 이어 준다. [1문단]
- 1) <홍예>를 세우는 과정은 **홍예(무지개)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들>**을 세우고 그 위로 홍예석을 쌓아 올려 홍예가 완전히 세워지면, 가설들을 해체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2문단]
- 홍예는 2) <장대석>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잘 다듬어, 바닥에서부터 상부 가운데를 향해 차곡차곡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다. [2문단]

↳ '사다리꼴'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들을 활용하면 <홍예>는 결국엔 '사다리꼴' 모양이 된다. '사다리꼴' 모양이 아닌 <홍예>(무지개) 모양의 가설들을 썼기) 때문에 <홍예>는 '무지개' 모양이 된다. '사다리꼴' 모양은 가설들이 아니라 '장대석'의 단면)이다.

⑤ 승선교의 하중은 상부 홍예석에 집중됨으로써 그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다.

🔍 지문 속 근거 찾기

- 홍예는 1)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2문단]

↳ 승선교의 <하중>은 상부 홍예석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부의 힘(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하부로 분산)하는 것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갖는다.

🔍 지문 POINT

☞ 하중의 힘이 상부로? 이는 중력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상식적으로도 잘 못됨!

★ 공통 선지의 법칙 ★

(자세한 내용 7쪽 참고)

* 선지 ②, ③은 미(아름다움)가 있다는 동일한 맥락을 갖기 때문에 공통된다.

- ② ~미감을 형성한다. (☆정답)
- ③ ~미의식이 잘 드러나는~

그래서 지문 및 문제와 상관없이 선지 ②, ③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10.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0위

#보기 제시 #이해 #3점 #세속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42%	① 2%	② 7%	③ 24%	④ 25%	⑤ 42%

정답 풀이

⑤ 옥천교와 승선교는 모두 재앙을 막기 위한 장식을 덧붙인 것으로 보아,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의 <옥천교>

두 홍예 사이의 석축에는 금천 바깥의 1)사악한 기운이 다리를 건너 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깨비 형상을 조각했다.

• 한편 <승선교>의 홍예 천장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 돌이 물길을 향해 돌출되어 있다. 이런 장식은 용이 2)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고 여겨 만든 것이다. [3문단]

↳ <옥천교>와 <승선교> 모두 재앙을 막기(1~2) 위한 장식을 덧붙인 것은 맞지만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 세속(≒속세)과 관련된 말이 첫 문단에 한 번 나온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승선교>가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세속 구원의 의미와는 상관이 없다.

어휘 체크

* 세속: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세속 구원? → 세속을 구원하다!

세속 구원은 세상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적 존재(혹은 종교 지도자)의 행위와 관련된다. 그래서 단편적인 해악이나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옥천교와 승선교의 장식이 주는 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승선교와 달리 옥천교는 통행할 수 있는 대상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권위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통로이겠군.

지문 속 근거 찾기

• <승선교>는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로서 1)옛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1문단]

• <보기>의 <옥천교>

이 다리는 지엄한 왕의 공간과 궁궐 내의 일상적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였고 2)임금과 임금에게 허락받은 자들만이 건널 수 있었다.

↳ 특별한 제약 없이 옛사람들이 이용(1)한 <승선교>와 달리 <옥천교>는 통행할 수 있는 대상에 제약(2)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권위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통로로 볼 수 있다.

② 승선교와 달리 옥천교는 다듬은 돌만을 재료로 사용하고 난간에 조각 장식을 더한 것으로 보아, 장엄함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겠군.

지문 속 근거 찾기

• 한편 <승선교>의 홍예 천장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 돌이 물길을 향해 돌출되어 있다. 이런 장식은 용이 1)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고 여겨 만든 것이다. [3문단]

• <보기>의 <옥천교>

<옥천교>는 두 개의 홍예를 이어 붙이고 홍예와 석축은 모두 미려하게 2)다듬은 돌로 쌓았다. 또 다리 3)난간에는 갖가지 조각을 장식해 전체적으로 4)장중한 화려함을 드러내었다.

↳ <승선교>의 장식은 다리를 건너는 이들의 안전(1)을 위한 것이지만 <옥천교>는 다듬은 돌(만)을 재료로 사용하고 난간에 조각 장식(3)을 더한 것으로 보아, 장엄함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반영(4)된 것이다.

③ 옥천교와 달리 승선교는 계곡 사이를 이어 통행로를 만든 것으로 보아, 자연의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겠군.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의 <옥천교>

이 다리는 1)지엄한 왕의 공간과 궁궐 내의 일상적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였고 임금과 임금에게 허락받은 자들만이 건널 수 있었다.

• <승선교>는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로서 옛사람들은 2)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1문단]

↳ <옥천교>는 자연의 난관과는 상관없이 왕의 지엄한 공간을 위해 설정한 경계(1)인 것이고, 이와는 달리 <승선교>는 (다리가 없으면 산사에 가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산사를 가기(2) 위해 계곡 사이를 이어 통행로를 만들어 자연의 난관을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

④ 옥천교와 승선교는 모두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공간 사이에 놓인 것으로 보아, 이질적인 공간의 경계이겠군.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의 <옥천교>

이 다리는 1)지엄한 왕의 공간과 궁궐 내의 일상적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였고 임금과 임금에게 허락받은 자들만이 건널 수 있었다.

• <승선교>는 2)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로서 옛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1문단]

↳ <옥천교>와 <승선교>는 모두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공간(1~2) 사이에 놓인 것으로 보아, 이질적인 공간의 경계로 볼 수 있다.

11 ~ 13 베토벤 교향곡의 음악사적 의의

1 베토벤의 교향곡은 서양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걸작으로 평가된다. **2**그 까닭은 음악 소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다채롭게 처리하는 창작 기법의 탁월함으로 설명될 수 있다. **3**연주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되는 제3번 교향곡 '영웅'에서 베토벤은 으뜸화음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 다양한 변주와 변형 기법을 통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게 했다. **4**이처럼 단순한 소재에서 착상하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함으로써 성취해 낸 **복잡성**은 후대 작곡가들이 **본받을 창작 방식**의 전형이 되었으며, 유례없이 늘어난 **교향곡의 길이**는 그들이 넘어서야 할 산이었다.

1 베토벤 교향곡의 내적인 원리와 그 의의

- * **창작 기법의 탁월함**: 음악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다채롭게 처리
- * **복잡성**: 후대 작곡가들이 본받을 창작 방식의 전형
- * **교향곡의 길이**: 후대 작곡가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

2 **1** 그렇다면 오로지 작품의 내적인 원리만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19세기의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게 했을까? **2** 베토벤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3** 그것은 1800년을 전후하여 뚜렷하게 달라진 빈(Wien)의 청중의 음악관,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당시 유행한 천재성의 담론에 반영되었다.

2 베토벤 신화를 만든 19세기 독일의 분위기

- * **베토벤 신화의 외적 원인**: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과 관련
 - 빈의 청중의 음악관
 -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 천재성의 담론에 반영

1

※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휘는 '다(多)와 관련된다. '다채롭게'×2, 다양한×2의 등장으로 이들을 키워드로 뽑아 낼 수 있어야 한다.

1~2

* <결과+ 원인>의 구성. 원인이든 결과든 뒤로 제시된 것에 대개 포인트가 있기 마련이다.

4

* <복잡성은~본받을 창작 방식?> 복잡성이 단점으로 거론될 수 있다는 상식을 벗어나 '본받을 창작 방식의 전형이 되었다'는 것에 주의하자.

* 문장이 길면 심표 이후에 포인트가 있기 마련이다. <넘어서야 할 산?> 바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글이 마무리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된 내용이 전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첫 문장 이후부터 쪽 연결해서 보자면, <다채롭게~ 혹은 다양하게~>의 단점이 곧 해결 과제가 된 것이다.

2

1

* <그렇다면~작품의 내적인 원리만이~했을까?>를 통해 이전 문단은 내적인 원리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 <내적인 원리만이~자리매김하게 했을까?>: '설의법'으로 '내적인 원리' 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또 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그 무엇은 '외적 원리!'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 문장을 읽어 나가야 한다.

3

* '그것은', '이처럼', '이',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 가는 지시 대명사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5 -2도 마찬가지로]

3 1번의 ①새로운 청중의 귀는 유럽의 다른 지역 청중과는 달리 순수 기악을 향해 열려 있었다. 2순수 기악이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과도 연합되지 않는 음악을 뜻한다. 3당시 청중은 언어가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다. 4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음악 그 자체'였다.

3 19세기 독일의 분위기 ①-빈 청중의 음악관의 변화
 * 빈의 새로운 청중: 순수 기악 중시 (→ 유럽의 다른 지역 청중)
 * 순수 기악: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다른 어떤 것과도 연합×)
 → 제목,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 '음악 그 자체'○

4 1또한 당시 음악 비평가들은 음악을 읽의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2이는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로 본 이전 시대와 달리 음악을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3슐레겔은 모든 순수 기악이 철학적이라고 보았으며, 호프만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보편적 진리를 향한 문'이라고 주장하였다. 4요컨대 당시의 빈의 청중과 독일의 음악 비평가들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주는 순수 기악의 정수라 여겼다.

4 19세기 독일의 분위기 ②-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 음악을 읽의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이해
 - 베토벤의 교향곡: 순수 기악의 정수(독립적, 보편적 가치 실현)
 - 슐레겔: 모든 순수 기악은 철학적
 - 호프만: 베토벤의 교향곡은 보편적 진리를 향한 문

5 1더욱이 당시 독일 지역에서 유행한 천재성 담론도 베토벤의 교향곡이 특별한 지위를 얻는 데 한몫했다. 2그 시대가 요구하는 천재상은 타고난 재능으로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자였다. 3베토벤은 이전의 교향곡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채를 더하여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여겨졌다. 4베토벤이야말로 이러한 천재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교향곡은 더욱 주목받았다.

5 19세기 독일의 분위기 ③-당시 유행한 천재성 담론
 * 베토벤 음악의 의미: 전통 + 독창성 → 교향곡의 새 지평 → 천재성으로 주목

3
 1 * (A와는 달리 B)의 대립적 문형에서는 '달리'에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를 해 두자. 당연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B. (☆출제자는 대립적 양상의 내용을 문제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4-2도 마찬가지로]

1~2 * 1번 문장의 순수 기악은 서술의 키워드로 밀줄, 2번 문장의 순수 기악은 피정의향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A는 B이다.'라고 정의했을 때 B를 정의의향이라 하고, A를 피정의향이라 함.)

2~3 * 부정적 서술은 대상에 밀줄× 표시가 적절하다.(~연합×, 음악 외적 단서×)

4
 4 *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표지인 '요컨대'. 이런 문장에서는 키워드가 많으니 모두 찾아 밀줄을 아끼지 말자.

최שמ의 Q&A
 Q 순수 기악이 철학적, 이것이 어떻게 칭찬인가?
 A '철학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가 아닌, 상황과 시대를 고려한 비유적 쓰임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철수는 요즘 너무 철학적인데...'라고 하면 '철수는 생각이 너무 많고 깊어 어울리기 어렵다'라는 비유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슐레겔이 살았던 당시의 '철학'은 수준이 높은 고급 학문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칭찬과 충분히 관련지을 수 있다.

5
최שמ의 Q&A
 Q 그 시대가 요구하는 천재상은 <기존의 관습을 벗어나는 것>인데 <베토벤은 전통을 수용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요?
 A 딱 그 둘만 놓고 보면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3번 문장 전체를 폭넓게 보아야 한다. <전통 수용 + 독창성>은 자체가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관습에만 얽매어 있다>면 <독창성>이 더해지는 것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11.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22위

#내용 일치 #출제자의 심리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7%	① 5%	② 3%	③ 3%	④ 2%	⑤ 87%

정답 풀이

⑤ 베토벤의 천재성은 기존의 음악적 관습을 부정하고 교향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한 데에서 비롯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1)그 시대가 요구하는 천재상은 타고난 재능으로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자였다. <베토벤>은 2)이전의 교향곡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채를 더하여 3)<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여겨졌다. [끝 문단]

↳ <베토벤>은 기존의 음악적 관습을 부정하지 않고 전통을 수용했다. 2) 그리고 <교향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한 것이 아니라,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다. 3)

오답 풀이

① 베토벤 신화 형성 과정에는 독일 민족의 음악적 이상이 반영되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베토벤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1)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문단]

↳ 베토벤 신화 형성 과정에는 독일 민족의 음악적 이상인 암묵적 염원이 반영)되었다.

② 베토벤 교향곡의 확대된 길이는 후대 작곡가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처럼 단순한 소재에서 착상하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함으로써 성취해 낸 복잡성은 후대 작곡가들이 본받을 창작 방식의 전형이 되었으며, 유례없이 1)늘어난 교향곡의 길이는 그들(후대 작곡가들)이 넘어서야 할 산이었다. [1문단]

↳ 베토벤 교향곡의 확대된 길이는 후대 작곡가들이 넘어서야 할(극복해야 할)1) 과제였다.

③ 베토벤 교향곡에서 복잡성은 단순한 모티브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창작 방식에 기인한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처럼 1)단순한 소재에서 착상하여 2)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함으로써 성취해 낸 <복잡성>은 후대 작곡가들이 본받을 창작 방식의 전형이 되었으며, [1문단]

↳ 베토벤 교향곡에서 <복잡성>은 단순한 모티브를1) 다양하게 가공2)하는 창작 방식에 기인한다.

④ 베토벤 교향곡 '영웅'의 변주와 변형 기법은 통일성 속에서도 다양성을 구현하게 해 주었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연주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되는 제3번 교향곡 <영웅>에서 베토벤은 으뜸화음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 1)다양한 변주와 변형 기법을 통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게 했다. [1문단]

↳ 베토벤 교향곡 '영웅'의 변주와 변형 기법은 <통일성> 속에서도 <다양성>을 구현1)하게 해 주었다.

12.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74위

#관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1%	① 3%	② 13%	③ 1%	④ 81%	⑤ 2%

정답 풀이

④ 음악은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언어를 초월하는 예술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빈의 ①새로운 청중의 귀는 유럽의 다른 지역 청중과는 달리 순수 기악을 향해 열려 있었다. ~당시 청중(③)은 1)언어가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다. 그들(③)이 원했던 것은 2)말(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음악 그 자체'였다. [3문단]

↳ 언어가 음악의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는 말은 <음악>이 언어보다 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①<새로운 청중>은 <음악>이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2)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언어를 초월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음악은 소리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그것을 듣는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킨다.

② 음악은 인간의 구체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언어이다.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들(③)이 원했던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1)<음악 그 자체>였다. [3문단]

• 이는 2)음악을 <정서>의 촉발자로 본 이전 시대와 달리~ [4문단]

↳ ㉠<새로운 청중>은 선지 ㉡와는 달리 <음악 그 자체>1)를 원한다고 했다. 음악이 <정서=감정>과 관련되는 것은 ㉠ 이전의 시대에 해당2)하므로 선지 ㉠도 적절하지 않다.

③ 가사는 가락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언어는 음악의 본질적 요소이다.

⑤ 창작 당시의 시대상이 음악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음악 외적 상황은 음악 이해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당시 청중(㉠)은 언어가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다. [3문단]

↳ ㉠<새로운 청중>은 언어는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언어는 음악의 본질적 요소×) 생각했으며, 음악 외적 단서를 원하지 않았다.

13.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132위

#보기 제시 #이해 #현학적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75%	① 75%	② 4%	③ 5%	④ 9%	⑤ 7%

✓ 정답 풀이

① **슐레겔은 로시니를 '순수 기악의 정수'를 보여 준 베토벤만큼 높이 평가하지 않았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슐레겔>은 모든 순수 기악이 철학적이라고 보았으며,~요컨대 당시의 빈의 청중과 1)독일의 음악 비평가(슐레겔)들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주는 <순수 기악>의 정수라 여겼다. [4문단]

• <보기>
2)로시니는 베토벤과 동시대인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오페라> 작곡가였다. 당시 3)순수 기악이 우세했던 빈과는 달리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오페라>가 여전히 음악의 중심에 있었다.

↳ <슐레겔>은 '로시니'가 <오페라> 작곡가이므로2) <순수 기악>의 정수를 보여 준 <베토벤>1)만큼 높이 평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 오답 풀이

② **호프만은 당시의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음악이 '새로운 전통'을 창조했다고 보았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독일의 음악 비평가들(호프만)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주는 <순수 기악>의 정수라 여겼다. [4문단]

• <보기>
당시 2)순수 기악이 우세했던 빈과는 달리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오페라>가 여전히 음악의 중심에 있었다.

↳ <호프만>은 <순수 기악>의 정수인 <베토벤>의 교향곡을 높이 평가했기1) 때문에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순수 기악>과는 다른 <오페라>2)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음악을 '얕의 방식'으로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페라는 교향곡보다 우월한 장르로 평가받았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당시 음악 비평가들은 음악을 <얕의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2)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주는 순수 기악의 정수라 여겼다. [4문단]

↳ 음악을 <얕의 방식>으로 보는 사람들은 <교향곡>을 극찬했기1~2) 때문에 교향곡을 '오페라'보다 우월하게 생각할 것이다.

④ **스탕달에 따르면, 로시니의 음악은 베토벤이 세운 '창작 방식의 전형'을 따름으로써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을 뛰어넘은 것이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요컨대 당시의 1)빈의 청중과 독일의 음악 비평가들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주는 순수 기악의 정수라 여겼다. [4문단]

• <보기>
<스탕달>은 '로시니'가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과는 달리 유려한 가락에 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2)그(로시니)를 최고의 작곡가로 평가하였다.

↳ <스탕달>은 <로시니>를 최고의 작곡가로 평가하기2) 때문에, <로시니>를 <베토벤>보다 높이 평가할 것이다.

⑤ **당시 오페라가 여전히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가 아닌 '능동적 이해의 대상'으로 보려는 청중의 견해 때문이었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이는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로 본 이전 시대와 달리 음악을 감상자가 1)'능동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2)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주는 순수 기악의 정수라 여겼다. [4문단]

↳ 음악을 능동적 이해의 대상1)으로 보는 관점은 <오페라>가 아닌, <교향곡>과 관련된 빈의 청중과 독일의 음악 비평가들2)이다.

14~15 한옥의 창호

1 창은 채광이나 환기를 위해서, 문은 사람들의 출입을 위해서 건물 벽에 설치한 개폐가 가능한 시설이다. 2일반적으로 현대적인 건축물에서 창과 문은 각각의 기능이 명확하고 크기와 형태가 달라 구별이 쉽다. 3그러나 한국 전통 건축, 곧 한옥에서 창과 문은 그 크기와 형태가 비슷해서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4그러하여 창과 문을 합쳐서 창호(窓戶)라고 부른다. 5이것은 창호가 창과 문의 기능과 미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그러나 창과 문을 굳이 구별한다면 머름이라는 건축 구성 요소를 통해 가능하다. 7머름은 창 아래 설치된 낮은 창턱으로, 팔을 얹고 기대어 앉기에 편안한 높이로 하였다.

1 창과 문의 기능을 갖는 창호

- * 창호: 창과 문의 기능과 미를 공유
- * 머름: 창 아래 설치된 낮은 창턱. 창과 문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

2 1공간의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옥에서 창호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여러 쪽으로 된 큰 창호가 한쪽 벽면 전체를 대체하기도 하는데, 이때 외부에 면한 창호뿐만 아니라 방과 방 사이에 있는 창호를 열면 별개의 공간이 합쳐지면서 넓은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3창호의 개폐에 의해 안과 밖의 공간이 연결되거나 분리되고 실내 공간의 구획이 변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4이처럼 창호는 한옥의 공간 구성에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 한옥의 공간 구성에서 창호의 역할

- * 창호의 개폐: 안과 밖의 공간이 연결되거나 분리되고 실내 공간의 구획이 변화 → 한옥의 공간 구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1

- 1 * <창과 문>처럼 두 대상이 나오면 공통점과 차이점, 특히 차이점에 포인트를 두자.
- 2 * 일반적인 경우를 서술했으니, 다음은 특이한 내용이 서술될 것이며 여기가 포인트에 해당한다.
- 3 * 역시나 <그러나>로 시작되는 특이한(혹은 반대 맥락의) 내용이 서술되고 있으므로 세모 표시를 해 두자.
- 6 * 3번 문장의 <그러나>에 이어 <그러나>처럼 역주행(반대 맥락) 혹은 다른 측면의 흐름이 나온다면 문단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말에는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당하다.

2

- 1, 3 * '가변성'의 대립어는 '불변성', '안'의 대립어는 '밖'이다. 이처럼 대립 항을 가진 어휘가 나오면 이를 테마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 4 * '한옥의 공간 구성에서~'처럼 <구성>이라는 말을 발견하면, 구성에 알맞은 대상의 위치나 역할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3 1한편, 한옥에서 창호는 건축의 심미성이 잘 드러나는 독특한 요소이다. 2창호가 열려 있을 때 바깥에 나무나 꽃과 같은 자연물이 있을 경우 방 안에서 창호와 일정 거리 떨어져 밖을 내다보면 창호를 감싸는 바깥 둘레 안으로 한 폭의 풍경화를 감상하게 된다. 3방 안의 사람이 방 밖의 자연과 완전한 소통을 하여 인공의 미가 아닌 자연의 미를 직접 받아들임으로써 한옥의 실내 공간은 자연과 하나된 심미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4열린 창호가 안과 밖, 사람과 자연 사이의 경계를 없앤 것이다.

3 건축의 심미성이 잘 드러나는 창호
 * 열린 창호: 자연의 미를 직접 수용
 → 안과 밖, 사람과 자연 사이의 경계를 소멸

4 1창호가 닫혀 있을 때에는 창살 문양과 창호지가 중요한 심미적 기능을 한다. 2한옥에서 창호지는 방 쪽의 창살에 바른다. 3방 밖에서 보았을 때 대칭적으로 배열된 여러 창살들이 서로 어울려 만들어 내는 창살 문양은 단정한 선의 미를 창출한다. 4창살로 구현된 다양한 문양에 따라 집의 표정을 읽을 수 있고 집주인의 품격도 알 수 있다. 5방 안에서 보았을 때 창호지에 어리는 햇빛은 이른 아침에 청회색을 띠고, 대낮의 햇빛이 들어올 때는 뽀얀 우윳빛,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이면 석양의 붉은색으로 변한다. 6또한 창호지가 얇기 때문에 창호가 닫혀 있더라도 외부와 소통이 가능하다. 7방 안에서 바깥의 바람과 새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화창한 날과 흐린 날의 정서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8창호는 이와 같이 사람과 자연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양자와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한다.

4 창호의 심미적·소통적 기능
 * 닫힌 창호: 단정한 선의 미를 창출하며 외부와의 소통도 가능
 * 창호의 의의: 사람과 자연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케 함.
 →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림.

3
 2 * <창호가 열려 있을 때>가 나왔다면, 반대로 <창호가 닫혀 있을 때>가 나올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4-1 참고]
 4 * <안과 밖>, <사람과 자연>처럼 상호 대비되는 말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4
 1 * '창살 문양'과 '창호지'가 심미적 기능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8 * 2, 5, 6, 7번 문장 → 객관적 사실
 3, 4, 8번 문장 → 주관적 생각
 * 국어 시험에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을 구분하는 일은 기본 공부 중의 하나이다.

14.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28위

#알 수 있는 #표지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8%	① 4%	② 88%	③ 3%	④ 3%	⑤ 2%

정답 풀이

② 한옥에서 창살 문양은 집주인의 품격을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 창살로 구현된 다양한 문양에 따라 집의 표정을 읽을 수 있고 <집주인의 품격>도 알 수 있다. [끝 문단]

↳ 한옥에서 창살 문양은 <집주인의 품격>을 나타내는 표지1)가 된다.

어휘 체크

* 표지: 표시나 특징으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함.

오답 풀이

① 한옥의 창살은 방 안쪽으로 노출되어 있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 한옥에서 창호지는 방 쪽의 <창살>에 바른다. → <창살> 위에 <창호지>를 바르기 때문에 <창살>은 노출 안 됨. 2) 방 밖에서 보았을 때 대칭적으로 배열된 여러 <창살>들이 서로 어울려 만들어 내는 창살 문양은 단정한 선의미를 창출한다. → <방 밖에서 <창살>이 보임. [끝 문단]

↳ 한옥의 <창살>은 창호지 때문에 방 안쪽으로 노출되지 않고 1) 방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 2)

③ 한옥의 방에서 바라보면 창호지에 어린 색채는 하루 종일 일정하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 방 안에서 보았을 때 창호지에 어리는 햇빛은 2) 이른 아침에 청회색을 띠고, 대낮의 햇빛이 들어올 때는 뽕안 우윳빛,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이면 석양의 붉은색으로 변한다. → <창호지에 어린 색채는 시간에 따라 변함. [끝 문단]

↳ 한옥의 방에서 바라보면 1) 창호지에 어린 색채는 하루 종일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한다. 2)

④ 한옥의 머름은 한쪽 벽면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건축 구성 요소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1) <머름>은 창 아래 설치된 낮은 창턱으로, [1문단]

↳ 한옥의 <머름>은 창 아래 설치된 낮은 창턱1)일 뿐이지, 한쪽 벽면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건축 구성 요소는 아니다.

⑤ 한옥에서는 창호의 형태에 따라 창과 문을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그러나 1) 한국 전통 건축, 곧 한옥에서 창과 문은 그 크기와 형태가 비슷해서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문단]

↳ 일반적인 현대적 건축물과는 달리 한옥에서 창과 문은 그 크기와 형태가 비슷해서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

15. <예술>

전체 문항 중 난이도: 217위

#일탈 선지의 법칙 #보기 제시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 비율				
86%	① 3%	② 2%	③ 3%	④ 6%	⑤ 86%

정답 풀이

⑤ ㉠을 내려 닫았을 때, ㉠이 벽을 대체하게 되므로, 내부와 외부 사이의 교감은 차단되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또한 1) 창호지가 얇기 때문에 창호가 닫혀 있더라도 외부와 소통이 가능하다. [끝 문단]

↳ ㉠ <들어열개>를 내려 닫았을 때, ㉠ <들어열개>가 벽을 대체하더라도, ㉠ <들어열개>의 창호지가 얇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의 소통(교감)이 가능1)하다.

오답 풀이

① ㉠은 편의에 따라 올리고 내릴 수 있기에 한옥 공간의 가변성을 구현하는 요소이겠군.

66 지문 속 근거 찾기

- <보기>
그림의 한옥은 사랑채의 대청으로 수목이 있는 마당과 주변의 산을 마주 보고 있고, 대청 전면의 1) <들어열개>를 모두 들어 올린 상태이다. <들어열개>를 내려서 펼치면 대청 전면은 모두 창호로 채워지게 된다.

↳ ㉠ <들어열개>는 편의에 따라 올리고 내릴 수 있기에 1) 한옥 공간의 가변성을 구현하는 요소가 된다.

② ㉠을 올렸을 때, 대청 전면이 개방되므로 환기와 출입이 원활해지겠군.

↳ <보기>의 그림은 ㉠ <들어열개>를 올렸을 때의 상태로 대청 전면이 개방되므로 환기와 출입이 원활해질 것임은 쉽게 확인 가능하다.

③ ㉠을 올렸을 때, 대청에서 마당을 조망할 수 있으므로 사람과 자연의 경계가 없어지는 심미적 경험이 가능하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방 안의 사람이 방 밖의 자연과 완전한 소통을 하여 인공의 미가 아닌 자연의미를 직접 받아들임으로써 한옥의 실내 공간은 1)자연과 하나된 심미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2)열린 창호가 안과 밖, 사람과 자연 사이의 경계를 없앤 것이다. [3문단]

↳ <보기>의 그림은 ㉠<들어열개>를 올렸을 때의 상태로 대청에서 마당을 조망할 수 있으므로 사람과 자연의 경계가 없어지는 심미적 경험이 가능하다(1~2)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④ ㉡을 내려 닫았을 때, 마당에서는 대청 전면에 펼쳐진 창살 문양을 감상할 수 있겠군.

㉡ 지문 속 근거 찾기

- 1)방 밖(→ 마당)에서 보았을 때 대청적으로 배열된 여러 창살들이 서로 어울려 만들어 내는 <창살 문양>은 단정한 선의미를 창출한다. [4문단]

↳ ㉠<들어열개>를 내려 닫았을 때, 방 밖인 마당에서는 대청 전면에 펼쳐진 '창살 문양'을 감상)할 수 있다.

★ 일탈 선지의 법칙 ★

* 특정한 기준으로 선지의 핵심을 분류했을 때, 나머지와 다른 한 개의 선지가 눈에 띄면 이를 일탈 선지라 칭하고, 그것이 정답이 될 확률은 80% 이상이다. 주로 선지의 핵심을 긍정-부정으로 구분한다.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⑤만이 어떠한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 ① ~한옥 공간의 가변성을 구현하는 요소이겠군. → (긍정적)
- ② ~환기와 출입이 원활해지겠군. → (긍정적)
- ③ ~심미적 경험이 가능하겠군. → (긍정적)
- ④ ~창살 문양을 감상할 수 있겠군. → (긍정적)
- ⑤ ~내부와 외부 사이의 교감은 차단되겠군. → (부정적) 🗨️ (☆정답)

그래서 ⑤는 일탈 선지이며 지문 및 발문과 상관없이 정답이 될 확률은 80% 이상이다.

보너스 칼럼

실전은 평소 문제 풀이와 다른 차원!

국어 문제를 집에서 느긋한 마음으로 푸는 것과 고도의 긴장감이 있는 실전 수능에서 푸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같은 지문이라도 어렵게 또는 쉽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 괴리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처음 접하는 비문학 지문과 문제를 실전처럼 시간 제한을 고려하여 적절한 긴장감을 갖고 푸는 것이 좋다. (단, 첫 회독 시에만 적용/지문 2분 + 문제당 1분씩을 최대치로 설정) 이렇게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져야 실제 수능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답이 기억나는데 N회독을 꼭 해야 하나?

객관식에서 답을 찾기 위한 공부는 1회독으로 끝난다. 2회독부터는 답을 찾는 공부라 아니다. 지문을 요약하고 선지의 정/오답 근거를 찾아내는 주관식 공부가 되어야 한다. 답을 아는 것과 지문에서 그 근거를 신속하게 찾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문제의 답을 찾는 공부는 국어 공부에 있어서 50%도 채 되지 않음을 명심하자. 우리는 어떤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 그것을 암기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 이해하고 적용한다. 수능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학습으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